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예레미야서

밥 어틀리  
해석학 교수  
(성경 해석)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 시리즈  
구약, 제 13 A 권

국제 바이블 레슨:  
마샬, 텍사스  
2011

[www.BibleLessonsIntl.com](http://www.BibleLessonsIntl.com)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저작권©2001 국제 바이블 레슨, 마샬, 텍사스(개정판 2006, 2012)

판권소유. 발행자가 서면으로 한 허락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는 어떤 종류로든지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제할 수 없음.

국제 바이블 레슨

P. O. Box 1289

Marshall, TX 75671-1289

1-800-785-1005

ISBN 978-1-892691-45-3

이 주석에서 사용한 주된 성경 본문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개정판, 1995)

저작권©1960, 1962, 1963, 1968, 1971, 1972, 1973, 1975, 1977, 1995

록맨 재단

P. O. Box 2279

La Habra, CA 90632-2279

문단 구분과 단락의 요약적인 제목을 다음에 나오는 책에서도 취하였다:

1. The New King James Version, 저작권©1979, 1980, 1982 토마스 넬슨 주식회사. 허락을 받아 사용함. 불허복제.
2.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저작권©1989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국 협의회 기독교 교육 분과, 허락을 받아 사용함. 불허복제.
3. Today's English Version, 소유자의 허락을 받음, The American Bible Society, ©1966, 1971. 허락을 받아 사용함. 불허복제.
4. The New Jerusalem Bible, 저작권©1990, 달톤, 롱맨 & 톤 및 더블데이, 반담 더블데이 텔 출판사 그룹의 분과. 허락을 받아 사용함. 불허복제.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 신미국표준역(NASB) — 1995 개정판

### 좀 더 읽기 쉽게:

- ▣ 고어체 영어표현(“thee’s” 와 “thou’s” 등)은 현대식 영어로 표현하였다.
- ▣ 지난 20 년 동안 의미의 변화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었던 단어나 구들을 현대식 영어로 개정하였다.
- ▣ 어려운 단어 배열이나 어휘의 절들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재 번역하였다.
- ▣ 고어체 영어와 현대식 영어의 형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리고”(And)로 시작된 문장의 상당수를 좀 더 나은 영어표현으로 재번역 하였다. 원래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영어와 다르게 구두점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식 영어의 구두점은 많은 경우 원어의 “그리고(And)를 대신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원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and)를 문맥에 따라 “그때”(then) 또는 “그러나”(but)로 해석하였다.

### 좀 더 적절하게:

- ▣ 가장 오래되고 좋은 헬라어 신약 본문에 대한 최근 연구를 재검토 하였고 어떤 구절들은 원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 평행적인 구절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 ▣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동사들은 문맥 안에서 좀 더 나은 설명을 위해 재 번역하였다.

### 신미국표준역의 전통을 보존하며:

- ▣ 신미국표준역의 개정판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번역이 아니다. 본 번역의 시험기간을 거치는 동안 신미국표준역이 가진 기준을 따라 최소한의 변화만을 가져왔다.
-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은 신미국표준역이 가진 전통인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번역을 고수하고 있다.
-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의 번역가들과 자문위원들은 성경언어, 신학에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학위를 가진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교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전통을 고수하며:

신미국표준역은 가장 타당한 영어성경의 번역판으로 평판을 받아 왔다. 다른 최근 번역판들은 옳게 번역하였고 읽기에도 쉽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번역판들은 계속해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문자적인 해석은 원본에 충실한 반면 읽기에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번역판들은 자주 의역에 의존한다. 의역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번역가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로 그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결과적으로 의역은 성경을 의역된 만큼 설명한다.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은 번역가가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믿는 대로가 아닌 원본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대로 번역한 신미국표준역 전통을 그대로 살렸다.

## 예레미야서 주석의 차례

이 주석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 . . .	i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 . . . .	iii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 . . . .	ix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 . . . .	x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 . . . .	xiii
주석	
예레미야서 서론 . . . . .	1
예레미야서 1 장 . . . . .	7
예레미야서 2 장 . . . . .	25
예레미야서 3 장 . . . . .	49
예레미야서 4 장 . . . . .	65
예레미야서 5 장 . . . . .	86
예레미야서 6 장 . . . . .	99
예레미야서 7 장 . . . . .	112
예레미야서 8 장 . . . . .	132
예레미야서 9 장 . . . . .	142
예레미야서 10 장 . . . . .	152
예레미야서 11 장 . . . . .	164
예레미야서 12 장 . . . . .	178
예레미야서 13 장 . . . . .	186
예레미야서 14 장 . . . . .	199
예레미야서 15 장 . . . . .	208
예레미야서 16 장 . . . . .	225
예레미야서 17 장 . . . . .	232
예레미야서 18 장 . . . . .	242
예레미야서 19 장 . . . . .	253
예레미야서 20 장 . . . . .	259
예레미야서 21 장 . . . . .	264

예레미야서 22 장	270
예레미야서 23 장	280
예레미야서 24 장	300
예레미야서 25 장	304
예레미야서 26 장	313
예레미야서 27 장	319
예레미야서 28 장	325
예레미야서 29 장	329
예레미야서 30 장	339
예레미야서 31 장	354
예레미야서 32 장	370
예레미야서 33 장	380
예레미야서 34 장	390
예레미야서 35 장	395
예레미야서 36 장	399
예레미야서 37 장	406
예레미야서 38 장	410
예레미야서 39 장	416
예레미야서 40 장	420
예레미야서 41 장	424
예레미야서 42 장	428
예레미야서 43 장	433
예레미야서 44 장	436
예레미야서 45 장	442
예레미야서 46 장	444
예레미야서 47 장	455
예레미야서 48 장	459
예레미야서 49 장	472
예레미야서 50 장	489
예레미야서 51 장	502
예레미야서 52 장	519

부록 1: 히브리 시의 서론 .....	525
부록 2: 구약 예언의 서론 .....	528
부록 3: 간략한 역사 .....	533
부록 4: 도표	
1. 구약의 연대 .....	540
2.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조의 왕들과 사건들 .....	543
3. 분열왕국의 왕들 .....	548
부록 5: 교리적 선언 .....	551

## 예레미야서의 특별주제 목차

하나님의 이름들, 1:1	9
구약의 예언, 1:4	13
알다, 1:5	17
유일신 신앙, 1:5	17
밥의 복음적 편향, 1:5	18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신인동형적 표현), 1:9	20
손, 1:9	21
인자한 사랑(헤세드), 2:2	27
출애굽 때의 광야생활, 1:2	28
이스라엘(이름), 2:3	28
거룩, 2:3	29
출애굽의 연대, 2:6	31
혐오, 2:7	33
배교, 2:19	38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승배, 2:20	41
구약에서의 회개, 2:22	42
몰락, 2:23	44
구원, 2:27	45
슬픔의 의식, 2:37	48
아버지되신 하나님, 3:4	53
언약, 3:7	55
아멘, 3:12	59
언약궤, 3:16	60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 <i>špt</i> ), 4:2	67
의, 4:2	68
불, 4:4	73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4:4	74
이스라엘이 사용한 빨, 4:5	77
그 날, 4:9	78
구원(구약 용어), 4:14	80
마음, 4:19-22	82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 5:4	90
남은 자(세 가지 의미), 5:10-13	94
평화(shalom), 6:14	106
땅, 나라, 지구, 6:18-19	108
영원히(올람), 7:7	115
출 20:12-16 에 대한 설명(십계명), 7:9	117

중보기도, 7:16 . . . . .	125
자랑함, 9:24 . . . . .	149
사탄, 10:3 . . . . .	154
성경에 나오는 영, 10:14-15 . . . . .	158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0:19 . . . . .	161
히타이트(봉신) 조약, 11:2 . . . . .	165
모세오경의 문서설(J, E, D, P), 11:5 . . . . .	167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 드린 제사들과 그 중요성, 11:15 . . . . .	172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 12:1 . . . . .	179
고대 근동의 도량형(미터법), 13:12 . . . . .	190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15:9 . . . . .	213
만군의 주, 15:15-18 . . . . .	217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 <i>אָמֵן</i> ), 15:18 . . . . .	218
속량하다/구속하다, 15:21 . . . . .	222
축복, 17:7 . . . . .	235
하나님의 두 책, 17:13 . . . . .	238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 주의), 18:8,10 . . . . .	244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18:8 . . . . .	248
장로, 19:1 . . . . .	254
달을 섬김, 19:13 . . . . .	257
놀라운 일들, 21:2 . . . . .	266
나사렛 예수, 23:5 . . . . .	284
메시아, 23:5 . . . . .	286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23:9 . . . . .	288
영감, 23:21-22 . . . . .	294
조명, 23:21-22 . . . . .	294
미래의 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 대 신약의 예언, 30:3 . . . . .	341
삼위일체, 30:5 . . . . .	348
야웨의 “이름,” 33:2 . . . . .	381
주님의 이름, 33:2 . . . . .	383
거인, 47:5 . . . . .	457
예돔, 49:7 . . . . .	477
인자, 49:18 . . . . .	482
홍해, 49:21 . . . . .	483



#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다.

-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 나. 루드빅 켈러와 발커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가 항)에 기초한다.
-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유의할 만하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축역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른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44 쪽).

## II.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쇄*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위한 시리즈”이다. 그 책들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 III.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맛소라 모음부호와 각주가 아니라)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져 전해져 왔고, 고대의 본문이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 가. *하팩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나 구)
-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셈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이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제 1 권 52-54 쪽)

맛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 1. 사마리아 오경
- 2. 사해사본
- 3.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맛소라 본문(주후 900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제 1권 51-67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인역, 아람어 탈군,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별게이트)을 참조하였다.

#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럿어로 쓰여진 *라스 샤프라 서판*)
-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램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 6. 사해사본 본문들
-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 위해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태이다. 이것은 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 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태는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 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 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 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i>칼</i>	<i>히필</i>	<i>피엘</i>
중간태 수동태	<i>니팔</i>	<i>호팔</i>	<i>푸알</i>
재귀/상호관계적	<i>니팔</i>	<i>히필</i>	<i>히트파엘</i>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확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 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롬,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청유법(자음 *ㅎ*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ㄴ.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라*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 ㄷ.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섹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왓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형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췘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를레*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트시아, GBS, 1997
DSS	사해사본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4 권), 조지 A. 버트릭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ASB	새 개정 표준 성경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NRSV	새 개정 표준성경
OTPG	<i>구약성경 분해 가이드</i> ,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i>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i> , 로버트 영
ZPBE	<i>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i>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2.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3.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5.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랐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 I. 전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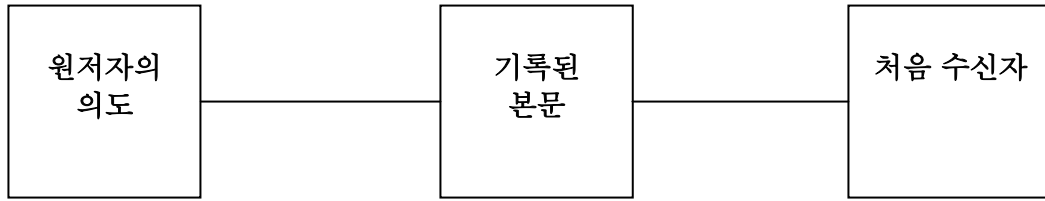
-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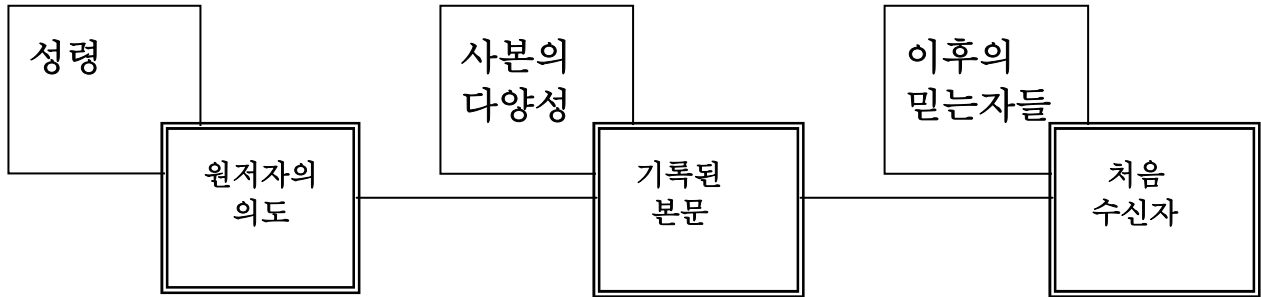
##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해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교리 사이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새예루살렘역(NJB)

문단의 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의 등가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역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예레미야서 서론

## I. 이 책의 이름

- 가. 이 책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불렸다.
- 나.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
  - 1. “야웨께서 세우셨다” (KB 440)
  - 2. “야웨께서 태를 느슨하게 하신다” (BDB 941)
  - 3. “야웨께서 들어 올리신다” 또는 “높이신다” (BDB 926)
  - 4. “야웨께서 던지신다” (BDB 941 I, 참조, 출 15:1)

## II. 정경

- 가. 이 책은 히브리 정경에서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이룬다.
- 나. 오경 또는 율법 - 창세기 - 신명기
- 다. 예언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전기 예언서 - 여호수아-열왕기서(룻기는 제외)
  - 2. 후기 예언서 - 이사야-말라기(다니엘서와 애가서는 제외)
- 라. 성문서:
  - 1. 메길롯(5 책)
    - ㄱ. 아가
    - ㄴ. 전도서
    - ㄷ. 룻기
    - ㄹ. 애가
    - ㅁ. 에스더
  - 2. 다니엘
  - 3. 지혜문학:
    - ㄱ. 욱기
    - ㄴ. 시편
    - ㄷ. 잠언
  - 4. 역대기 상하
- 마. 랍비들의 글에서는 종종 예레미야서를 선지서 가운데 처음 책으로 여겼다(바바 바트라 14b, 참조, 마 27:9)

## III. 장르

- 가. 이 책은 여러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 1. 전형적인 히브리 시(예레미야의 예언)
  - 2. 히브리 산문(바룩이 3 인칭으로 기록한 내용)
  - 3. 예레미야의 설교를 종종 산문의 형태로 요약하여 제시함(또한 바룩의 내용도)

4. 시적 자서전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르(예레미야의 고백, 참조, 15:10-18; 17:9-18; 18:18-23; 20:7-18)
- 나. 예레미야서는 구두로 한 예언 및 기록한 예언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36 장에서 우리는 다시 받아 기록한/다시 필사한 어떤 부분이 있음을 안다. 또한 52 장은 왕하 24:18-25:21 과 역사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내용이다.
- 다. 예레미야서의 시문은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의 시문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그의 신학은 놀랍다.  
 제롬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자신의 주석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레미야의 예언서는 . . .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또는 다른 히브리 선지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언어가 보다 더 소박하지만, 그 사상에 있어서는 똑같이 심원하다”(ABD 제 3 권, 690 쪽에서 인용한 내용임).

#### IV. 저자

- 가. 예레미야는 52 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31-34 절에 기록된 사건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유대인 총독인 그다라가 암살당한 후에, 변절한 유대인 군대에 의하여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갔다.
- 나. 저자들/편집자들로서 고려할 사람들:
1. 예레미야(*바바 바트라* 14b)
  2. 그의 서기관인 바룩
  3. 편찬자들
  4.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아마도 에스라 또는 대회당의 사람들)
- 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
1. 아비아달 반열(축출된)의 제사장, 왕상 2:26-27
  2.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돗에서 성장함(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레위인의 성읍, 참조, 수 21:17-19)
  3. 젊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1:2; 25:3 (주전 627 년)
  4. 이전에 쓰여진 책인 호세아서와 신명기서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음
  5. 다음의 인물들과 동시대인임
    - ㄱ. 다니엘
    - ㄴ. 에스겔
    - ㄷ. 하박국
    - ㄹ. 스마냐
    - ㅁ. 나훔
  6. 그가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오년 후에, 요시아의 개혁 기간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그 책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은 놀랍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왕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선지자 홀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왕하 22:14-20).
  7. 그가 마음 속으로 느끼는 것을 다음에 있는 그의 고백 또는 불평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 ㄱ. 11:18-12:6
    - ㄴ. 15:10-12
    - ㄷ. 17:14-18

르. 18:18-23

口. 20:7-18

8. 그는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유대인 망명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43:6

## V. 저작 시기

가. 예레미야는 주전 655-640 년에 아나돗에서 태어났다(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나. 예레미야서의 연대는 1:2 에 나온다. 요시아의 재위 13 년부터(그의 부르심) 그다랴의 시대인 주전 627 년(참조, 1:1; 25:3) - 주전 582 년에 걸쳐 있다.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망명자들과 이집트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 랍니쉬에서 발견된 도편에서는 이 성이 주전 587 년에 포위된 것으로 말한다. 이 히브리 본문의 형태는 예레미야서의 본문과 같은 형태이다.

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마리아의 멸망(주전 722 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주전 586 년)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둔다.

## VI. 역사적 배경

가. 주전 686 년 - 므낫세(주전 686-641 년)

나. 주전 664 년 - 이집트 제국이 삼메티커스의 통치아래 세력을 확장함(주전 664-610 년)

다. 주전 648 년 - 요시아의 출생

라. 주전 642 년 - 유다 왕 아몬이 신복들에게 암살당함(왕하 21:19-26)

마. 주전 640 년 - 앗시리아의 마지막으로 강력한 통치자였던 아수르바니팔이 죽음

바. 주전 640 년 - 요시아가 8 세에 즉위함(왕하 22:1)

사. 주전 628 년 -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함(왕하 34:3 이하; 왕하 23 장)

아. 주전 626 년 -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음(렘 1:2)

자. 주전 626 년 - 나보폴라살(주전 626-605 년)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됨

차. 주전 621 년 - 성전을 보수하던 자들이 율법책을 발견함(대하 34:8 이하; 왕하 22 장)

카. 주전 614 년 - 지방에 있는 앗시리아의 수도인 아술이 신바벨론 제국에게 망함

타. 주전 612 년 -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신바벨론과 메테에게 망함

파. 주전 609 년 -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바로 느고 II 세(주전 610-594 년)에게 죽임을 당함. 바로 느고는 도망하는 앗시리아의 남은 군대를 도우려고함(대하 35:20-24; 왕하 23:28-30)

하. 주전 605 년 - 이집트 및 앗시리아 군대의 잔여병력을 신바벨론이 갈케미스에서 이김

가. 주전 605 년 - 느부갓네살 II 세가 팔레스타인에 조공을 요구하며 침략함(다니엘과 1 차 포로). 네 차례에 걸쳐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함, 주전 605 년, 597 년, 586 년, 582 년

나. 주전 601 년 - 느부갓네살 II 세가 이집트에 대한 지배권을 결정하는 전투에서 패함(교착 상태)

## VII. 문학적 단위

가. 이 책은 연대기적 구조가 아니라 주제에 따른 구조를 가진다. 이 책은 예레미야가 전한 여러 메시지/양피지를 수집해 놓은 것일 수 있다(1-25 장, 30-33 장, 46-41 장).

UBS 의 예레미야서 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사실상 예레미야서는 오늘날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한 “책”이 아니다—이 예언서는 전체적으로 순서를 따라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또 각 부분을 해석함에 도움을 주는 명확한 문맥적 배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종류의 책이다”(1 쪽).

나. 70 인역은 맛소라 본문과 상당히 다르다. 70 인역에는 맛소라 본문의 3,000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또한 46-51 장에 나오는 나라들의 순서가 맛소라 본문과 다르며, 25 장 이후의 본문 순서도 다르게 되어 있다. 두 사본적 전통이 사해사본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본문은 이 보다 앞선 히브리 본문에서 온 것임을 암시한다.

다. 임시적인 개요(기본적으로 R. K. 헤리슨 및 E. J. 영이 제안한 것을 따름)

1. 1 장 - 예레미야의 소명과 준비
2. 2-25 장 -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있는 유대의 죄
3. 26-29 장, 34-35 장 -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
  - ㄱ. 시드기야와 하나냐의 반응에 대하여 주신 야웨의 말씀, 26-29 장
  - ㄴ. 레갑족속, 34-35 장
  - ㄷ. 여호야김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건들 - 시드기야와 그다랴 및 이집트행, 36-45 장
4. 30-33 장 -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
  - ㄱ. 물질적으로
  - ㄴ. 영적으로
5. 46-51 장 - 주위 나라들에 대한 예언(또한 25:12-38)
  - ㄱ. 이집트 - 46 장(사 19 장; 겔 29-32 장)
  - ㄴ. 블레셋 - 47 장(암 1:6-8; 사 14:29-32; 겔 25:15-17)
  - ㄷ. 모압 - 48 장(암 2:1-3; 사 15-16 장; 겔 25:8-11)
  - ㄹ. 암몬 - 49:1-6(암 1:13-15; 겔 25:1-7)
  - ㅁ. 에돔 - 49:7-22(암 1:11-12; 사 21:11-12; 겔 25:12-14; 오바다)
  - ㅂ. 시리아 - 49:23-27(암 1:3-5; 사 17:1-3)
  - ㅅ. 아라비아 - 49:28-33
  - ㅇ. 엘람 - 49:34-38
  - ㅈ. 바벨론 - 50-51 장 (사 13:1-14; 합 2:6-17)
6. 52 장 - 예루살렘의 멸망 (참조, 왕하 24:18-25:30)

라. UBS의 *예레미야서 핸드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는 연대적 순서에 따라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말이나 행동을 주제별로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한편, 도르시는 최근에 저술한 주석에서 잘 구분된 7 가지 큰 단락에 한 가지 부록이 첨부된 구조를 제시하였다. 각 단락이 응집력 있는 내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ㄱ.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1:1-12:17)
  - ㄴ. 주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신다(13:1-20:18)
  - ㄷ.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21:1-29:32)
  - 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30:1-33:26)
  - ㅁ.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레갑족속에게 말씀을 전달하다(34:1-35:19)
  - ㅂ. 예레미야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고난을 받다(36:1-45:5)
  - ㅅ.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다(46:1-51:64)



○.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록(52:1-34)”(1 쪽)

2. “따라서 이 책을 7 단락으로 구분한 것은 대칭적 형태를 가진다. 처음 단락과 일곱 번째 단락은 같은 주제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 것과 여섯 번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단락도 그러하다. 가운데에 있는 네 번째 단락은 중심이 되는 내용인 소망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중심적 메시지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다른 예언서’들과 크게 다르다. 더 나아가, 이 책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명확히 제시한다. 유다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하였기에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예레미야는 단호히 선언한다. 주께서는 열방 및 그 어떤 권세 보다 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백성들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2 쪽)

마. 1-25 장에 있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야웨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로 시작되지만, 26-51 장에서는 “야웨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로 시작됨은 흥미롭다.

바. 예레미야의 예언을 당시 다스린 왕에 따라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E. J. 영**

**R. K. 해리슨**

- |                                     |                                  |
|-------------------------------------|----------------------------------|
| 1. 요시아의 통치 때(주전 640 년)              |                                  |
| 1:1-19; 2:1-3:5; 3:6-6:30           | 1:1-19; 2:1-3:5; 3:6-6:30;       |
| 7:1-10:25; 11:1-13:27; 14:1-15:21   | 7:1-10:25; 18:1-20:18            |
| 16:1-17:27; 18:1-20:18              |                                  |
| 2. 여호아하스의 통치 때(주전 609 년)            |                                  |
| 3. 여호야김의 통치 때(주전 609 년)             | 11:1-13:14; 14:1-15:21; 16:1-    |
| 25 장; 26 장; 27 장; 35 장; 36 장; 45 장  | 17:27; 22 장; 23 장; 25 장; 26 장;   |
|                                     | 35 장; 36 장; 45 장; 46-48 장        |
| 4. 여호야긴의 통치 때(주전 598-596 년)         | 31:15-27                         |
| 5. 시드기야의 통치 때(주전 597 년)             |                                  |
| 21:1-22:30; 23 장; 24 장; 27 장; 28 장; | 21:1-22:30; 24:1-10; 27 장; 28 장; |
| 29 장; 30-31 장; 32 장; 34 장; 37 장;    | 29 장; 30-31 장; 32 장; 33 장; 34 장; |
| 38 장; 39 장                          | 38 장; 39 장; 49 장; 50:1-51:64     |
| 6. 그다랴의 통치 때                        |                                  |
| 40 장; 41 장; 42 장; 43-44:30; 50-52 장 | 40:1-42; 43:1-44:30              |
| 7.                                  | 역사적 사건을 다룬 부록                    |
|                                     | 52:1-34                          |

## VIII. 주요 주제

- 가.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려 했기에 심판이 임박했다! 예레미야는 죄, 심판, 회복을 강조하였다; 1:4-10.
- 나. 예식으로만 끝나는 믿음, 즉 개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빠진 종교적 예식은 과멸이다! (7 장; 사 29:13).

- 다. 유다는 예식, 우상숭배, 죄에 빠져 소망이 없게 되어 버렸다! 혼인계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다가 깨뜨렸다(참조, 2:1-3:5).
- 라. 가족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31:29; 겔 18 장), 각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근간을 이룬다(31:31-34).
- 마. 새 언약이 영속적인데(31:35-37), 그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이다(겔 36:22-38).

# 예레미야 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사명		표제		제목
1:1-3	1:1-3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다	1:1-3  예레미야의 부르심 및 이와 관련있는 환상	1:1-3  예레미야의 부르심	1:1-3  예레미야의 부르심
1:4-10 (4-8)	1:4-8 (5)  (6)  (7-8)	1:4-10 (5)  (7-8)	1:4-5  1:6  1:7-8	1:4-5 (5)  1:6  1:7-8 (7-8)
(9b-10)	1:9 (9b)  1:10 (10)	(10)	1:9-10  두 환상	1:9-10 (9b-10)
1:11-12	1:11-12	1:11-13	1:11  1:12	1:11-12
1:13-19	1:13-16  (14-16)  1:17-19 (17-19)	1:14-19	1:13  1:14-19	1:13-16  (14-16)  1:17-19 (17-1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1-3

<sup>1</sup>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sup>2</sup>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sup>3</sup>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1:1 “말이라” 이 히브리 단어(BDB 182)는 광의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행위,” “사항,” “관련된 일,” 또는 “말한 것”을 가리킨다.

▣ “예레미야” 이것은 매우 자주 사용된 히브리 이름이지만, 그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다(서론의 I, 나 항을 보라); 이 책만큼 저자에 대해 많은 내용을 언급하는 예언서는 없다. 이 책은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저자의 말,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 “힐기야의 아들” 이 이름(BDB 324)은 “야웨께서 나의 분깃이시다”를 뜻한다. 예레미야는 레위인이었지만, 솔로몬이 그의 가족을 아나돗으로 축출시켰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일하지는 않았다(참조, 왕상 2:26-27).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는 이이름으로 불린 두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왕하 22:4 또는 대하 34:9 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사독의 후손이었는데,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아비아달 계통이었다. 둘 다 엘리의 자손이었다.

▣ “아나돗” 이 지명(BDB 779)은 아모리 족속의 여신인 *아날*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그 여신은 *바알*의 누이 또는 배우자였다. 그 여신은 가장 활동적이었던 전쟁의 여신으로서(즉, *아날*, *아세라*, *아스탈테*, *아스토렐*), 라스 삼라 시문에서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린다(이 시문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우가릿의 도시에서 발견됨. 이 도시는 수 15:59; 19:38; 샯 1:33 에서 뱀아낫이라고 언급됨).

▣ “베냐민 땅” 이곳은 아비아달이 추방당하여 산 곳이다(참조, 왕상 2:26-27).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5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하다.

1:2-3 “~가 다스린지 ~에”라는 구가 반복되어 나옴으로서, 각 예언이 언제 행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돕는다. 앞에 나오는 이 절들은 책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1. 누가
2. 누구에게(7 절)
3. 언제
4. 왜

1:2 “여호와의 말씀이 . . . 임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야웨께로부터 온 것임을 거듭 밝힌다. 이 문학적 형식은 이 사실을 매우 명확히 드러낸다.

##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삼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렛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사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값으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뿔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ἑλισσιτοσ**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를 이룬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엘로힘**, 1,2,5 절; 야웨, 2,6 절; 심지어 **아돈도** 4 절).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팔**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던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 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 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삿 6:24
  - ㅂ.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ㅅ. **야웨-로이**(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BDB 217 & 841), 램 23:6
- 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1:2,3 “요시아가 다스린 지...여호야김 시대부터”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과 끝 시간, 즉 주전 627년부터 586년을 나타낸다. 부록 4, 도표 3 항을 보라.

▣ “요시아” 이 이름은 “야웨께서 지원하신다”(BDB 78) 또는 “야웨께서 고쳐주신다”(BDB 382) 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는 경건한 왕으로서, 8 세인 주전 640년에 통치를 시작하였다(주전 640-609년). 그는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였고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 기간 중에 “야웨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주전 621년, 참조, 왕하 22-23 장).

▣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한지 5년 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요시아와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사이에 어떤 본문적 관련도 없는 것은 이상한 점이다.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지고 갔다(참조, 왕하 22:14-20).

1:3 “여호야김” 그는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엘리아김, 참조, 왕하 23:34),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즉, 샬룸, 참조, 22:11)를 대신하여 그를 유다의 통치자로 세웠다(참조, 왕하 23:31-34; 대하 36:4).

이 본문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3개월 동안만 통치하였던 요시아의 두 아들이 있었음을 주목하라.

1. 여호아하스(샬룸)은 바로 느고 II 세에 의하여 이집트로 추방되었다(참조, 왕하 23 장)
2. 여호야킨은 느부갓네살 II 세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다(참조, 왕하 24 장; 대하 36 장)

▣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II 세의 봉신으로서, 여호야김 대신에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즉, 주전 609년, 참조, 왕하 24:17; 대하 36:10-13).

▣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느부갓네살 II 세는 네 차례에 걸쳐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즉, 주전 605, 597, 586, 582년). 가장 커다란 파괴는 주전 586년에 있었는데, 그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참조, 왕하 25 장; 대하 36:9-21; 램 39 장과 52 장).

**개역개정 1:4-10**

- <sup>4</sup>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sup>5</sup>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 <sup>6</sup>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 <sup>7</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sup>8</sup>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니라 하시고  
<sup>9</sup>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sup>10</sup>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 4 절부터 10 절은 예레미야가 받은 바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제시한다.

###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

#### I. 서론

##### 가. 들어가는 말

1. 어떻게 예언을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언 이외의 진리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2. 구약 예언의 여러 단계가 잘 정의되었다:

##### ㄱ. 왕정 이전:

(1) 선지자로 불린 사람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언자)

(ㄹ) 미리암 - 출 15:20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ㅂ) 드보라 - 사 4:4

(ㅅ) 무명 - 사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무리로서의 선지자 - 신 13:1-5; 18:20-22

(3) 선지자의 무리나 조합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 ㄴ. 책을 기록하지 않은 왕정시대의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22:5; 삼하 24:11; 대상 29:29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3) 아히야 - 왕상 11:29

(4) 예후 - 왕상 16:1,7,12

(5) 무명 - 왕상 18:4,13; 20:13,22

(6) 엘리야 - 왕상 18 장-왕하 2 장

(7) 미가야 - 왕상 22 장

(8) 엘리사 - 왕하 2:8,13

##### ㄷ. 책을 남긴 전통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은 물론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 나. 성경의 용어

1. *로예*= “예언자,” 삼상 9:9. 이 용어는 *나비*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로예*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 용어에서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했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2. *호제*= “예언자,” 삼하 24:11.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예*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보다”를 뜻하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에서 왔다.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의 **분사형**이 자주 사용되었다(즉, “보는 자”).
3. *나비*= “선지자,”는 아카디아어의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라비아어 *나바아* = “알리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것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아마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이해는 아론을 통한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 대하여 야웨께서 하신 설명일 것이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 선지자직을 뜻하는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사무엘 - *로예*;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스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광의의 표현이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 76 번 사용되었다.
6. “선지자”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1) 프로 = “앞에” 또는 “위해서” (2) 웨미 = “말하다”에서 왔다.

##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란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가진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는 선지자로서 불린다(또한 미리암, 출 15:20). 그러므로 영어에서 가정되는 정의를 조심하라!
- 나. “선지주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석가의 성경사전*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나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언약의 중재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의 현재 삶을 개혁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도왔다,” “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 제 13 권 1152 쪽.

##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서, 그의 백성이 처한 상황의 안내 및 그들의 삶과 세상의 사건에 하나님이 주장하심에 대한 희망을 공급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그것은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야기시키며, 하나님 자신과 그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유지시켰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변자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예언이 종종 사용된 점도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신 13:1-3; 18:20-22).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선지자는 자주 자신의 시대의 역사적 신학적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종말론적 상황으로 나타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대한 마지막 때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적 약속과 더불어 독특하다.

- 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있어서 대제사장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그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전하는 구두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또한 선지자직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400년 후의 침례(세례)요한이 있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약에서의 “예언”의 은사가 구약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32,37; 15:32; 고전 12:10,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나 성경을 계시한 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 라. 예언은 본질상 전적 혹은 우선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 예견은 그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구약에서 예언의 2%도 안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새 언약의 시대를 특별히 묘사하는 것이 5%도 안된다. 아직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계된 것이 1%도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피와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예외이다.
- 바. 선지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책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책들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는 않다. 종종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틀이 분명하지 않으며 예언 사이의 분명한 구분도 없다. 이러한 책들은 (1) 단번에 전체를 읽는 일 (2) 주제를 따라 개요를 말하기 (3) 각 예언의 중심 진리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 IV. 예언의 특징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지자들의 교체는 이스라엘의 초기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영향력이 강한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이런 무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황홀상태로 특징지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런 시대는 개인 선지자들의 시대로 빠르게 바뀌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궁에서 살았던 선지자들(참 또는 거짓의)이 있었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인의 사회와는 전혀 관계 없이 지낸 선지자도 있었다(아모스). 선지자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사람의 즉각적인 응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드러내는 자였다. 선지자의 임무는 종종 인간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우주적 종말론적 계획은 고대 근동의 예언에서 독특한 것이다. 선지적 메시지의 두 가지 초점은 예견과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초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들은 대개 배타적이지 않게 나라들에 대해 말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은 구술로 표현되었다. 예언은 후에 주제, 연대기, 혹은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과 결합되었다. 그것이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글의 구조를 갖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않고 예언서를 죽 읽거나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마.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법정의 장면 -야웨께서 그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곳은 야웨께서 종종 그 아내(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때문에(호 4 장; 미 6 장) 이혼소송을 하는 장소이다.

2. 장례식 애가 - 이런 종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특징인 “슬프도다”와 같은 특별한 운율은 이 애가들을 특별한 형태로 분리시킨다(사 5 장; 합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 본질이 강조되었고,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었다(신 27-28 장).

V. 예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역사적 배경과 각 예언에 대한 문학적 문맥을 주의해 보면서 원 선지자(편집자)의 의도를 발견하라. 보통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것이다.
- 나. 부분이 아닌 전체 예언을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른 개요를 말하라. 그것이 다른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 전체 책의 개요를 만들어 보라.
- 다. 본문 자체에서 어떤 것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그 구절에 대하여 문자적 해석을 하라;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산문으로 나타내라.
- 라. 역사적 배경과 평행 구절에 비추어 상징적인 활동을 분석하라. 고대 근동의 문학은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조심스럽게 예언을 다루라:
  1. 그것이 저자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2.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3.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4. 그것이 그 시대에 성취되었지만 미래에도 성취될 것인가?
  5. 현대 저자가 아닌 성경의 저자가 당신의 답을 이끌게 하라.
- 바. 특별한 고려점들
  1. 어떤 조건에서만 그 예언은 적합한가?
  2.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그리고 왜 이 예언을 주는지) 확실한가?
  3. 이 성취가 성경과/또는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서 분명하지 않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야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이나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받지 않았으므로 예언에 대해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VI. 도움이 되는 책

- 가. *성경적 예언의 안내*, 칼 E. 아멘딩과 W. 와드 바스큐
- 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 다. *나의 종인 선지자*, 에드워드 J. 영
- 라. *보습과 낫: 성경적 예언과 계시에 대한 표현의 재고찰*, D. 브랜트 샌디
- 마. *새 국제 구약신학과 석의사전*, 제 4 권 1067-1078 쪽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참조, 43:7; 44:2,24; 49:5). “짓다”라는 용어(*칼 미완료형*, BDB 427, KB 428)는 창 2:7,8 에서 사용한 단어와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대하여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참조, 시 139:13-16; 사 43:7; 49:5; 갈 1:15).

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다. 미국의 이기적인 부모들이 편하게 사는 것과 개인의 자유를 누리려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였는지에 대하여 나는 경악한다. ‘개인적 편리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낮추는데 사용되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본문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좋은 논의가 밀라드 에릭슨의 책 *그리스도인의 신학*(제 2 판, 570-572 쪽)에 나온다.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4 가지 동사를 사용하신다.

1. 내가 지었다 - 칼미완료형, BDB 427, KB 428
2. 내가 알았다 - 칼 완료형, BDB 393, KB 390(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3. 내가 성별하였다 - 히필 완료형, BDB 872, KB 1073
4. 내가 세웠다 - 칼 완료형, BDB 678, KB 733

**특별주제: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히브리어의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가지 의미(의미의 장)를 나타낸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다 - 창 3:22; 신 1:39; 사 7:14-15; 욥 4:11
2. 이해하여 알다 - 신 9:2,3,6; 18:21
3. 경험으로 알다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고려하다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알다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36; 33:9
  - ㄴ. 신 - 신 11:29; 13:2,6,13; 28:64; 29:26; 32:17
  - 야웨 - 신 4:35, 39; 7:9; 29:6; 사 1:3; 56:10-11
  - ㄷ. 성적으로 - 창 4:1,17,25; 24:16; 38:26
6.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 - 사 29:11,12; 암 5:16
7. 지혜로움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께서 아심
  - ㄱ. 모세를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을 - 신 31:21,27,29

▣ “여러 나라의” 예레미야는 유다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10a 절; 25:15-29,46-51).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는 개념(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신교의 “높은 신” 혹은 이란의 이원론(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선한 신과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아브라함, 주전 2000 년). 이집트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이 개념이 나타났다(아멘호텝 4 세, 아케나텐으로도 알려짐, 주전 1367-1350 혹은 1386-1361 년).

이 개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1. “우리 하나님 야웨와 같은 이가 없다,” 출 8:10; 9:14; 신 33:26; 왕상 8:23
2.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신 4:35,39; 32:39; 삼상 2:2; 삼하 22:32; 사 45:21; 44:6,8; 45:6,21
3. “야웨는 한 분이시다,” 신 6:4; 롬 3:30; 고전 8:4,6; 딤후전 2:5; 약 2:19

4.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삼하 7:22; 렘 10:6
5. “당신 홀로 하나님입니다,” 시 86:10; 사 37:16
6.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43:10
7.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 45:5,6,22
8.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사 45:14,18
9.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사 45:21
1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 46:9

이 중요한 교리가 점진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른 시기의 진술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한 신을 믿는 것” 혹은 실행적인 유일신 주의(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를 위한 신은 오직 한 분 이시다, 참조, 출 15:11; 20:2-5; 신 3:28; 5:7; 6:4,14; 10:17; 32:12; 왕상 8:23; 시 83:18; 86:8; 136:1-2)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철학적 유일신론)을 나타내는 처음 본문은 이른 시기에 속한다(참조, 출 8:10; 9:14; 신 4:35,39; 33:26). 이에 대한 완전하고 긴 형태의 주장은 이사야서 43-46 장에서 발견된다(참조, 43:11; 44:6,8; 45:7,14,18,22; 46:5,9).

신약은 롬 3:30; 고전 8:4,6; 엡 4:6; 딤후 2:5; 약 2:19 에서 신 6:4 의 내용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마 22:36-37; 막 12:29-30; 눅 10:27 에서 이것을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신약은 물론 구약도 다른 영적 존재(귀신, 천사)의 실재성을 인정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만을 주장한다(야웨, 창 1:1).

성경적 유일신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다(존재적 의미를 가정하지만 이를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음)
2.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참조, 창 1:26-27; 3:8)
3.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다(참조, 출 34:6; 느 9:17; 시 103:8-10)
4.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 1:26-27) 교제를 위해(즉, 2 항)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시기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20:2-3)

신약에서 볼 때

1.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세 분으로 나타내셨다(8:11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2.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드러나셨다(참조, 요 1:1-14; 골 1:15-19; 히 1:2-3)
3. 범죄한 인간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는 일이다(사 53 장; 막 10:45; 고후 5:21; 빌 2:6-11; 히브리서)

###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 (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1:6 “슬프도소이다” 여러 감탄사가 이 처음 장에 나온다.

1. “슬프도소이다” - *아하*, BDB 13, KB 18, 참조, 삿 11:35; 왕하 3:10; 6:5,15; 율 1:15; 렘 1:6; 4:10; 14:13; 32:17.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슬프도소이다”로 번역되어 두려움을 나타낸다.
2. “보소서” - *헨네*, BDB 243, KB 252, 참조, 6 절, 9 절, 18 절; 49:2; 사 6:7. 이것은 진술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3. “보라” - *헨니*, BDB 243, 15 절; 31:8. UBS 핸드북은 이것을 “다른 장면이 바뀔을 강조하는 표”라고 부른다(38 쪽).
4. “보라” - 10 절(*칼 명령*), 이것은 감탄사로서의 역할도 함.

▣ “주 여호와여” 이 히브리 호칭은 “*아도나이*”와 “*야웨*”이다. 영어에서 이 두 가지 호칭을 모두 “주”로 번역하였기에,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 호칭을 “주 하나님”으로 번역하였다(참조, 4:10; 32:17; 수 7:7; 삿 6:22). 1:2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나는...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모세가 출 4:10 에서 사용했던 변명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중 앞에서 말하다”를 뜻한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BDB 546), 예레미야는 자신이 대중적인 연설가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BDB 180).

▣ “나는 아이라”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다. 여호수아는 45 세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출 33:11 에서 아이로 불린다. 히브리 문화에서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였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이를 인하여, 또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함에 있어서 자신이 강력한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갖지 못하였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보통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다.

1. 여리고에 간 정탐군, 수 6:23
2. 사무엘
3. 다윗과 요나단
4.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5. 요시아
6. 요엘 2:28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1:7 야웨께서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주목하여 보라.

1.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2.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3.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실 때,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장 커다란 내용은 바로 자신의 임재하심이다(참조, 8b 절, 19 절).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즉, 마 28:20), 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즉, 엡 4:12) 함께 가신다.

1: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 **칼미완료형**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즉, 곧 사로잡혀가게 된다). 그들은 말과 몸에 가하는 폭력으로 예레미야를 칠 것이지만, 야웨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었다.

1. 아브라함에게, 창 15:1
2. 이삭에게, 창 26:24
3. 모세에게, 민 21:34; 신 3:2,22
4. 여호수아에게, 수 1:5-9; 8:1; 10:8
5. 기드온에게, 사 6:8-10
6. 솔로몬에게, 대상 28:20
7. 이사야에게, 사 8:12-15
8.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 41:10,13,14; 43:1,5; 44:2; 54:4
9. 다니엘에게, 단 10:12,19
10. 마리아에게, 눅 1:30
11. 시몬에게, 눅 5:16
12. 바울에게, 행 27:24
13. 요한에게, 계 1:17

1: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는 야웨의 입이 된다(참조, 15:19; 신 18:18).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같은 종류의 환상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보았다(참조, 사 6:6-7). 이사야의 부르심(참조, 사 6 장)이나 에스겔의 부르심(참조, 겔 1 장)에 대한 기록과는 달리,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관련된 환상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신인동형적인 표현이다.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슥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사 2:1; 6:22-23; 13:3-22
  -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일부만 예로 들었음)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일부만 예로 들었음)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떡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러한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참조, 요 1:1-18).

**특별주제: 손 (에스겔서에서 사용한 용법)**

“손”(BDB 388)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1. 문자적(즉, 사람의 손)
  - ㄱ. 한 사람 전체를 상징함, 3:18; 18:8,17; 33:6,8
  - ㄴ. 사람의 약함을 상징함, 7:17,27; 21:7; 22:14
  - ㄷ. 외국의 적을 상징함, 7:21; 11:9; 16:39; 21:31; 23:9,28; 28:10; 30:12; 34:27; 38:12; 39:23
  - ㄹ. 손, 8:11; 12:7; 16:11; 37:17,19,20
  - ㅁ. 거짓 지도자의 힘을 상징함, 13:21,22,23; 34:10
  - ㅂ. 국가를 상징함, 23:31,37,42,45; 25:14; 27:15; 28:9; 30:10,22,24,25; 31:11; 39:3
2. 신을 뜻하는 신인동형적 표현
  - ㄱ. 계시를 받아들임, 1:3; 3:14,22; 8:1; 33:22; 37:1; 40:1(2:9 은 또 다른 은유적 표현임-손에 있는 두루마리)
  - ㄴ. 심판에 나타나는 야웨의 능력, 6:14; 13:9; 14:9,13; 16:27; 20:33; 25:7,13,16; 35:3; 39:21

- ㄷ. 야웨 자신(그의 직접적인 임재), 20:22
- ㄹ. 구원하시는 야웨의 능력, 20:34(아마도 출애굽기에서 취한 핵심적 용법임, 참조, 3:20; 4:17; 6:1; 7:19; 13:3)
- 3. 그룹들을 뜻하는 의인적 표현, 1:8; 8:3; 10:7,8,12,21
- 4. 멸망시키는 천사들을 뜻하는 의인적 표현, 9:1-2; 21:11
- 5. 서약 또는 맹세를 상징함, 17:18; 20:5(2 회),6,15,23,28; 36:7; 44:12; 47:14
- 6. 기쁨을 상징함, 25:6
- 7. 천사를 뜻하는 의인적 표현, 40:3,5; 47:3

▣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와 생각을 뜻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2 절; 신 18:18).

1:10 여섯 개의 부정사 연계형이 연속하여 나온다.

- 1. 뽑고- 칼, BDB 684, KB 737, 참조, 31:28
- 2. 파괴하며- 칼, BDB 683, KB 736, 참조, 31:28
- 3. 파멸하고- 허필, BDB 1, KB 2, 참조, 31:28
- 4. 넘어뜨리며- 칼, BDB 248, KB 256
- 5. 건설하고- 칼, BDB 124, KB 139, 참조, 24:6; 31:4,28; 33:7; 42:10
- 6. 심게 하였느니라- 칼, BDB 642, KB 694, 참조, 24:6; 31:28; 32:41; 42:10

처음 네 가지 항목은 심판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두 가지는 새롭게 됨과 회복에 대한 것이다(참조, 18:7-10; 31:40). 예레미야가 이 구를 31:28 에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그 본문에서는 회복과 구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구는 예레미야가 “열방”에 전하려고 하는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예언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시가 된다. 왜냐하면 야웨께서 모든 열방의 참 “왕”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8:4-9).

**개역개정 1:11-12**

<sup>11</sup>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sup>12</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11 “네가 무엇을 보느냐” 두 가지 환상이 나온다(11-12 절 및 13-19 절). 환상의 시기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와 가까운 시기였을 것이다.

▣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샹케드(BDB 1052 )는 12 절에 나오는 동사인 쇼케드, “바라봄”(BDB 1052)과 관련을 가진다. 이 문화권에서 살구나무는 “바라보는 나무”로 불렸다. 이 환상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명백히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즉, “보살피고 계시다” 및 “그것을 행하신다”).

**개역개정 1:13-19**

<sup>13</sup>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sup>14</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sup>15</sup>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sup>16</sup>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sup>17</sup>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sup>18</sup>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sup>19</sup>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3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 절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북쪽에서 침략함을 가리킨다. “북쪽”이라는 용어는 “악”과 “침략”을 뜻하는 격언적 용어였다(참조, 4:6; 6:1,22; 10:22; 25:9).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동쪽이 사막지대였기에, 이 방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유일한 육로였다. 끓는 가마가 남쪽에 부어진다(즉, 바벨론의 군대가 진군하여 오고 있다).

세 단어가 언어유희로써 작용한다.

1. 나푸아흐 - 끓는 가마
2. 우파나브 - 기울어져
3. 차포나 - 북쪽

이러한 종류의 언어유희는 히브리 시의 특징을 이룬다(부록 1 을 보라).

1:15 이 절은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묘사한다. 그들의 군대는 여러 징집병과 용병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와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을 포위할 것이다.

1:16 유다의 하나님이신 야웨께서 연약하시기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를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었다.

1. 우리가 나를 버리고 - 칼 완료형, BDB 736 I, KB 806
2.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문자적으로, “향을 사름”) - 피엘 미완료형, BDB 882, KB 1094
3.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 히스타펠 미완료형, BDB 1005, KB 295

1: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행동을 취하도록 준비하다”를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왕상 18:46; 왕하 4:29; 9:1; 엡 6:14; 벧전 1:13). 이것은 “팔을 걸어 붙이다”라는 영어의 표현과 비슷하다.

허리를 동이는 일은 겹옷을 다리 사이를 거쳐 앞으로 당기고, 그것을 띠 안으로 밀어넣어 묶는 것을 말한다. 즉, 옷이 몸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 행동을 취할 단계에 들어감을 말한다. 선지자는 단지 이러한 준비적 자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1. 일어나 - 칼 완료형, BDB 877, KB 1086
2. 말하라 - 피엘 완료형, BDB 180, KB 210
3. 두려워하지 말라 - 부정된 칼 미완료형(BDB 369, KB 365)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11-16 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목적을 나타낸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날있는 칼과 같다. 특권은 책임을 동반한다.

1:18 “내가 오늘 너를...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그를 보호하실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1. 견고한 성읍
2. 쇠기둥
3. 못성벽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 이상,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선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권세자들과 지도층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했다.

1. 유다의 왕들에게
2. 방백들에게
3. 제사장들에게
4. 그 땅의 사람들에게(부유한 지주들)

1:19 “그들이 너를 치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

▣ “내가 너와 함께 하여...여호와” 두 용어 모두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BDB 217, 참조, 출 3:12-14)에서 왔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 계신 분이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낸다. 1:2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참조, 8 절).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레미야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였는가?
2. 5 절의 내용은 오늘날 행해지는 유산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가?
3.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뜻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였는가?
4. 11-16 절에 있는 두 가지 환상과 그 환상들의 목적을 설명하라.

# 예레미야 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유다의 배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이스라엘의 배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예레미야의 초기 설교: 이스라엘의 불신실
2:1-3 (2b-3)	2:1-3 (2b-3)	2:1-3	2:1-3 (2b-3)	2:1-13 (2b-13)
2:4-8 (5-8)	2:4-8 (5-8)	2:4-8 (5-8)	2:4-8 (5-8)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죄
2:9-13 (9-13)	2:9-13 (9-13)	2:9-13 (9-13)	2:9-13 (9-13)	자신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재판
2:14-19 (14-19)	2:14-19 (14-19)	2:14-19 (14-19)	2:14-19 (14-19)	이스라엘이 충성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
2:20-25 (20-25)	2:20-22 (20-22)	2:20-25 (20-25)	2:20-25 (20-25)	2:20-25 (20-25)
2:26-28 (26-28)	2:26-28 (26-28)	2:26-28 (26-28)	2:26-27  2:28-34a	2:26-32 (26-32)
2:29-37 (29-32)	2:29-32 (29-32)	2:29-32 (29-32)	2:34b-37	2:33-35 (33-35)
	2:33-37 (33-37)	2:33-37 (33-37)		2:36-37 (36-3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2:1 부터 6:30까지는 요시야의 통치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부록 4의 3항을 보라).
- 나. 2장은 히브리 예언의 전형적 예를 나타낸다(부록 2를 보라).
- 다. 이곳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의 변화에 대하여 어떤 이는 여러 설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예레미야가 국가에 대하여 말한 후에 개인에게 말하고, 또 다시 국가에 대한 내용을 말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 라. 2장은 가정적인 법적소송을 나타낸다(참조, 4-8,9,12,29 절; 사 1:2,18; 3:13-15; 호 4:1; 12:20; 미 6:2).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1-3

<sup>1</sup>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sup>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sup>3</sup>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1 이것은 예언서에서 야웨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문학적 구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었다.

1. 장르(시)

2. 용어
3. 은유적 표현

이 항목에서 ‘어느 정도가 야웨로부터 온 것이고 어느 정도가 예레미야의 마음과 교육과 문화를 반영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써 이 책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주장한다(즉,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2 절). 23:21-22의 특별주제: 영감을 보라.

▣ “가서...외칠지니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가서, 칼 부정사 절대형
- 외칠지니라, 칼 완료형

▣ “예루살렘의 귀에” 시문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간결하게 되어 있다. 이 구는 성을 의인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 메시지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유다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사로잡혀 갔기에(즉, 주전 722년) 예레미야가 유대에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이 이 구가 뜻하는 것인가? 예레미야서의 각 시의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70 인역에는 나오지 않는다.

▣ 2 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시작된 시기에 대하여 야웨께서 말씀하신다(즉, 출애굽과 38년의 광야 유랑).

1. “내가...기억하노니” (신인동형적 표현,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ㄱ. 네 청년(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때의 인애(혜세드)
  - ㄴ. 네 신혼 때의 사랑
  - ㄷ.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랍비들은 이 기간을 야웨(남편)와 이스라엘(아내)의 “밀월”기간이라고 일컫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음식(만나와 메추라기)
2. 물
3. 옷
4. 그늘
5.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어떤 의미에서 이 연은 계 2:4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경우와 같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에 대하여 말한다(즉, 처음의 경건과 헌신)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혜세드)**

이 용어는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BDB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338-339쪽).

- 가. 인간과 관련된 용법
  1. 동료 인간에 대한 친절(예, 삼상 20:14; 대하 24:22)
  2.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한 친절(예, 미 6:8)
  3. 동정(참조, 렘 2:2; 호 6:4)
  4. 모습(참조, 사 40:6)
- 나. 하나님과 관련된 용법
  1. 언약적 충성과 사랑
    - ㄱ. “원수로부터 혹은 어려움에서 구속하심”(예, 렘 31:3; 스 7:28; 9:9)
    - 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심”(예, 욥 10:12; 시 86:13)

- ㄷ. “영적 생명을 활기차게 하심”(예, 시 119:41,76,88,124,149,150)
- ㄹ. “죄에서 구하심”(참조, 시 25:7; 51:3)
- ㅁ. “언약을 지키심”(예, 대하 6:14; 느 1:5; 9:32)
- 2.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예, 출 34:6; 미 7:20)
- 3. 하나님의 친절
  - ㄱ. “풍성하심”(예, 느 9:17; 시 103:8)
  - ㄴ. “범위가 넓음”(예, 출 20:6; 신 5:10; 7:9)
  - ㄷ. “영원하심”(예, 대상 16:34,41; 대하 5:13; 7:3,6; 20:21; 스 3:11)
- 4. 친절하신 행동(예, 대하 6:42; 시 89:2; 사 55:3; 63:7; 애 3:22)

**특별주제: 출애굽과 관련된 광야**

- 1. 술 광야 - 이집트의 북동쪽(예, 출 15:22)
- 2. 바란 광야 - 시나이 반도의 중앙(예, 창 21:21; 민 10:12; 12:16; 13:3,26)
- 3. 신 광야 - 시나이 반도의 남쪽(예, 출 16:1; 17:1; 민 33:11,12, 또한 “시내 광야”로 불림, 예, 출 18:1,2; 민 1:1,19; 3:4; 9:1,5)
- 4. 신 광야 - 가나안 남쪽(예, 민 13:21; 20:1; 27:14; 33:36; 34:3; 신 32:51)

2:3 “이스라엘”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

- I. 이 이름의 뜻이 불확실하다(BDB 975).
  - 가. 엘이 끝까지 해내신다
  - 나. 엘이 끝까지 해내십시오(지시형)
  - 다. 엘이 보존하신다
  - 라. 엘이 싸우십시오
  - 마. 엘이 다투신다
  - 바. 하나님과 다투는 자(창 32:28)
- II. 구약에서의 용법
  - 가. 야곱의 이름(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BDB 784, 참조 창 25:26)은 그가 압복강 가에서 영적 인물과 씨름을 한 후에 바뀌었다(참조, 창 32:22-32; 출 32:13). 종종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어원적이기보다 소리에 의한 효과를 가져온다(참조, 32:28).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이 되었다(예, 창 35:10; 32:13).
  - 나. 이것은 야곱의 12 아들을 모두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예, 창 32:32; 49:16; 출 1:7; 4:22; 28:11; 신 3:18:10:6).
  - 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참조, 창 47:27; 출 4:22; 5:2)과 출애굽 이후(참조, 신 1:1; 18:6; 33:10)에 12 지파로 이루어진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이 되었다.
  - 라.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여러 지파들이 이 왕국을 세웠다(참조, 왕상 12 장).
    - 1. 공식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이러한 구분이 시작되었다(예, 삼하 3:10; 5:5; 20:1; 24:9; 왕상 1:35; 4:20)



2. 이 명칭은 앓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주전 722 년에 멸망할 때 까지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왕하 17 장).
- 마. 어떤 경우에는 유다에게 사용되었다(예, 사 1 장; 미 1:15-16).
- 바. 앓시리아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통칭적인 명칭으로 다시 사용되었다(예, 사 17:7,9; 렘 2:4; 50:17,19).
- 사. 제사장들과 구분되는 일반 백성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대상 9:2; 스 10:25; 느 11:3).

▣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함”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야웨(주님)에 대하여는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거룩한**

**I. 구약의 용법**

- 가. 이 용어(*카도쉬*, BDB 872)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가나안어에서 왔을 것이다. 이 단어의 일부 어근(즉, *카드*)이 “나누다”를 뜻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함”(가나안 문화로부터, 참조, 신 7:6; 14:2,21; 26:19)을 뜻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 나. 이것은 제사를 위한 물건, 장소, 시간, 사람과 관련이 있다.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 다. 예언서 이전 시기에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리 강조되지 않았던 사람과 관련된 용법이 예언서(특히 이사야서 호세아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참조, 사 6:3).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의 백성은 거룩하다(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순종한다면).
- 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약, 정의, 본질적 성품과 같은 신학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고 반역적인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갈등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 112-113 쪽에 있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의 사상을 가졌지만(누가만 제외하고는) 코이네 헬라어(즉, 70 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어휘에 영향을 끼친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었지 전통적 헬라어 문학, 사상, 또는 종교가 아니었다.
- 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참조, 눅 1:35; 4:34; 행 3:14; 4:27,30). 그는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다(참조, 행 3:14; 22:14).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하시다(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벧전 1:19; 2:22; 요일 3:5).
-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1:44-45; 19:2; 20:7,26; 마 5:48; 벧전 1:16). 예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롬 8:28-29; 고후 3:18; 갈 4:19; 엡 1:4; 살전 3:13; 4:3; 벧전 1:15).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거룩함)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림과 관련된 암시이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에 대한 야웨의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참조, 레 23:10-11; 고전 15:20; 약 1:18). 여기서 이 은유적 표현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야웨께서 선택하신 계시의 통로인 이스라엘을 열방이 거부함으로써 야웨를 공격하며 거부하였다.

▣ “삼키는 자면” 이 용어(칼 분사, BDB 37, KB 46)는 아카디아어에서 “불법적인 공격”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공격함을 나타낸다. 이 구는 이스라엘이 특별함을 보여준다(참조, 창 12:3; 27:29). 이스라엘은 커다란 목적을 위하여 지음과 부르심을 입었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4-8**

<sup>4</sup>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sup>5</sup>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sup>6</sup>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sup>7</sup>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sup>8</sup>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2:4 “들으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동사인 *שמע*(칼 명령, BDB 1033, KB 1570)이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행할 수 있게 듣다”이다. 이 단어는 신 4:1; 5:1; 6:3,4에서 중요한 용어이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이” 이것은 통일왕국(사울, 다윗, 솔로몬)이 주전 922년에 분열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씨를 일컫기 위하여 사용한 평행구이다. 북쪽의 10 지파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로 불렸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혼동이 야기되었다(2:3의 특별주제를 보라).

2:5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이것은 법정 장면을 사용한 문학적 표현이다(참조, 4-8 절). 야웨의 참된 성품이 신 32:4에서 제시된다. 야웨께서는 미 6:3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 “나를 멀리 하고 가서” 이 동사(칼 완료형, BDB 934, KB 1221)는 2 절에 있는 “나를 좇았다”와 상반되는 표현이다.

또한 개인적 요소도 주목하여 보라. 내 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매일의 삶에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을 뜻한다. 이것은 믿음에 기초한 관계로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 관계를 뜻한다(즉, 기도, 매일의 신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 “가서” 이것(BDB 229, KB 246)은 살면서 하는 선택과 행동을 나타내는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다.

▣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명사(BDB 210 I)와 동사(칼 미완료형, BDB 211, KB 236)가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한다(참조, 8:19; 10:3-5,8-10,14-15; 16:19-20; 51:17-18).

2:6-7 이 두 절이 출애굽과 광야유랑 시기를 가리킨다.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예언하신 바를 그들에게 행하셨음을 주목하라(참조, 창 15:12-21).

1.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 우리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 ㄱ. 사막과 구덩이 땅(자연적으로 있는 구덩이 또는 가파른 협곡)
  - ㄴ.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땅
  - ㄷ.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 ㄹ.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즉, “죽음의 그늘,” 참조, 13:16; 시 23:4)
3.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즉, 팔레스타인/가나안)

출애굽의 시기와 경로와 출애굽한 사람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 특별주제: 출애굽 시기

가. 출애굽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가 있다:

1. 왕상 6:1 은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480 년”이라고 말한다
  - ㄱ. 솔로몬은 주전 970 년부터 다스렸다. 이 내용은 카르카르 전투(주전 853 년)에 근거하여 확실한 연대로 여겨진다.
  - ㄴ. 성전은 그의 치리 4 년(주전 965 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출애굽은 주전 1445/6 년에 일어났다.
2. 이 일은 이집트의 18 왕조 때에 일어났을 것이다.
  - ㄱ. 압제하던 바로는 토티세 3 세(주전 1490-1436 년)이었을 것이다.
  - ㄴ. 출애굽시의 바로는 아멘호텝 2 세(주전 1436-1407 년)이었을 것이다.
    - (1) 어떤 이는 여리고와 이집트의 외교적 교류가 아멘호텝 3 세(주전 1413-1377 년)의 통치시기에 없었던 점이 출애굽의 증거가 된다고 여긴다.
    - (2) 아마르나 본문은 아멘호텝 3 세의 통치때 가나안 땅에 횡횡한 하비루에 대한 외교자료를 도편조각에 기록했다. 따라서 출애굽시의 바로는 아멘호텝 2 세이다.
    - (3) 사사들의 시대는 13 세기를 출애굽시기로 잡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3. 이 시기에 대한 어려움:
  - ㄱ. 70 인역(LXX)은 480 년이 아니라 440 년으로 말한다.
  - ㄴ. 480 년은 40 년씩 12 세대를 말한다고 볼 때 상징적 숫자이다.

- ㄷ. 아론부터 솔로몬 때까지 12 세대의 제사장이 있다(참조, 대상 6 장), 또한 솔로몬 때부터 제 2 성전 때까지 12 세대이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처럼 한 세대를 40 년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480 년이 사용된다(숫자의 상징적 사용, 참조, 빔슨의 *출애굽과 정복시기에 대한 재고*).
4. 다른 3 곳에서 시기에 대해 언급한다:
- ㄱ. 창 15:13, 16(참조, 행 7:6), 400 년간의 속박
- ㄴ. 출 12:40-41(참조, 갈 3:17)
- (1) MT - 이집트에서 430 년간 나그네 생활
- (2) LXX - 이집트에서 215 년간 나그네 생활
- ㄷ. 사 11:26 - 정복에서 입다의 시기까지 300 년의 기간(1445 년설을 지원)
- ㄹ. 행 13:19, 출애굽, 방랑, 정복 - 450 년
5. 열왕기의 저자는 특별한 역사적 자료를 사용해 어림으로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에드윈 킬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 83-85 쪽)
- 나. 고고학의 잠정적인 증거는 주전 1290 년설, 혹은 이집트의 제 19 왕조시대를 지원하는 것 같다.
1. 요셉은 하루에 자기 아버지와 바로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집트의 수도를 테베에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 처음 옮긴 이집트 출신의 바로는 세티 1 세 (1309-1290)로서, 그는 *아바리스/소안/타니스*로 불린 옛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옮겼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던 바로였을 것이다.
- ㄱ. 이것은 힉소스의 이집트 통치에 대한 두 가지 내용에 들어 맞는다.
- (1) 라암세스 2 세 시기에 세워진 비에서 아바리스(힉소스가 주전 1700 년 대에 세움)가 세워진지 400 년 되었음을 기념한다
- (2) 창 15:13 의 예언은 400 년 간의 압제를 언급한다
- ㄴ. 이 점은 요셉이 *힉소스(셈족)* 바로에 의해 등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출 1:8 은 이집트의 새 왕조를 일컫는다.
2. 이집트어로 “외국에서 온 통치자들”의 의미인 힉소스는 이집트인이 아닌 셈족 통치자들 이었고 제 15-16 왕조(주전 1720- 1570 년)에 이집트를 통치했다. 어떤 이는 이들을 요셉이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에 연결시킨다. 우리가 주전 1720 년에서 출 12:40 의 430 년을 제하면 주전 1290 년이 된다.
3. 세티 1 세의 아들은 라암세스 2 세(1290-1224)였다. 이 이름은 히브리 노예들이 건설한 국고성의 한 이름으로 언급된다, 출 1:11. 또한 이집트의 고센 근처에 같은 이름의 행정구역이 람세스로 불렸다, 창 47:11. *아바리스/소안/타니스*는 주전 1300-1100 년에 “람세스의 집”으로 알려졌다.
4. 토티세 3 세는 람세스 2 세처럼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5. 람세스 2 세는 별개의 궁전에서 산 47 명의 딸들이 있었다.
6. 고고학은 가나안에서 성벽이 있는 여러 큰 도시들(하술, 데빌, 라기스)이 파괴된 후에 주전 1250 년 부근에 급히 재건축되었음을 보여준다. 38 년 간의 광야방랑기를 고려할 때 주전 1290 년이 잘 들어맞는다.
7. 고고학은 람세스의 후계자인 *메르넵타*(주전 1224-1214[참조, 주전 1220 년경의 메르넵타 비문])의 기념비에서 가나안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다.
8. 에돔과 모압은 주전 1300 년대 후기에는 강한 국가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들은 15 세기에는 잘 조직되어있지 않았다(글릭).

9. 쉬필드 대학출판사가 출판한 존 J. 빔슨의 *출애굽과 정복시기를 재고함*은 이른 시기의 출애굽을 지지하여 이 모든 고고학적 증거를 반박하고 있다.

2:7 팔레스타인은 이 기간에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다(참조, 민 13:23-24,27; 신 8:1-9; 11:10-12).

▣ “내 땅을 더럽히고” 이 동사(*피엘 미완료형*, BDB 379, KB 375)는 다음을 나타내었다

1. 성적으로 더럽혀짐 - 겔 18:6,11,15
2. 살인 - 민 35:29-34; 신 21:22-23
3. 우상숭배 - 레 20:3; 겔 23:38; 36:17,18
4. 예식적으로 부정함 - 레 15:31; 민 19:13,20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적합하지 않게 사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주목하라(참조, 레 18:24-30).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 내셨듯이(참조, 창 15:16),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쫓아 내실 것이다(참조, 6a, 8a 절).

▣ “역겨운 것” 이 용어(BDB 1072 )가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온다(참조, 2:7; 6:15; 7:10; 8:12; 16:18; 32:35; 44:4,22).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혐오**

“혐오”(BDB 1072)는 다음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1. 이집트인들과 관계된 것들:
  - ㄱ. 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창 43:32
  - ㄴ. 그들은 양치는 자들을 몹시 싫어했다, 창 46:34
  - ㄷ. 그들은 히브리인의 제사를 몹시 싫어했다, 출 8:26
2.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야웨의 감정과 관계된 것들:
  - ㄱ. 부정한 음식, 신 14:2
  - ㄴ. 우상, 신 7:25; 18:9,12; 27:15
  - ㄷ. 이방 신접자들, 신 18:9,12
  - ㄹ. 몰렉에게 어린이들을 태워 바치는 것, 레 18:21-22; 20:2-5; 신 12:31; 18:9, 12; 왕하 16:3; 17:17-18; 21:6; 렘 32:35
  - ㅁ. 가나안의 우상숭배, 신 13:14; 17:4; 20:17-18; 32:16; 사 44:19; 렘 16:18; 겔 5:11-6:9; 11:18,21; 14:6; 16:50; 18:12
  - ㅂ. 흠있는 동물의 제사, 신 17:1(참조, 15:19-23; 말 1:12-13)
  - ㅅ. 우상에게 제사함, 렘 44:4-5
  - ㅇ.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 신 24:2
  - ㅈ. 남자의 의복을 입는 여자(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22:5
  - ㅊ. 창기가 번 돈(가나안의 예배), 신 23:18
  - ㅋ.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렘 2:7
  - ㅌ. 동성애(가나안의 예배에서), 레 18:22; 20:13
  - ㅍ. 거짓 추의 사용, 신 25:16; 잠 11:1; 20:23
  - ㅎ. 음식규정을 범하는 것(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14:3
3. 지혜서의 예:
  - ㄱ. 잠 3:32; 6:16-19; 11:1,20; 12:22; 15:8,9,26; 16:5; 17:15; 20:10,23; 21:27; 28:9
  - ㄴ. 시 88:8

ㄷ. 욥 30:10

4. 다니엘(참조, 9:27; 11:31; 12:11)에서 “가증한 것”이란 종말론적 구절이 반복된다. 이것은 세 가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중복적인 예언 성취):
  - ㄱ.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안 시대의 안티오쿠스 4 세인 에피파네스(참조, 마카비아 I서 1:54,59; 마카비아 II서 6:1-2)
  - ㄴ.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후에 황제가 됨)는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했다(참조, 마 24:15; 막 13:14; 눅 21:20)
  - ㄷ. “불법의 사람”(참조, 살후 2:3-4) 또는 “적그리스도”(참조, 요일 2:18; 4:3; 계 13 장)로 불리는 마지막 때의 세계 지도자

2:8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얼마나 두려운 정죄인가!

1. 제사장들(BDB 463) - 이들은 성전과 제사제도를 관장하였다
2. 율법을 다루는 자들 -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하여준 레위인들을 뜻할 것이다(즉, 느 9 장, 후에는 “서기관들”로 불림, 참조, 8:8)
3. 관리들(문자적으로, “목자들,” BDB 944 I) -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뜻한다(참조, 민 27:17; 왕상 22:17; 사 44:28; 56:11; 램 3:15; 23:4; 켈 34 장)
4. 선지자들

그들의 죄를 주목하여 보라.

1.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의문시하였다(문자적으로, “야웨께서 어디 계시냐,” 참조, 6a 절)
2. 개인적으로 야웨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문자적으로, “나를 알지 못하였다,”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4.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즉, 다산송배적 예배, 참조, 20 절; 23:13)
5.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즉, 간음, 참조, 16:19; 합 2:18)

▣ “무익한 것들을” 히브리 시에 나타난 여러가지 표식을 발견할 수 있다.

1. 히브리 평행법
2. 히브리어의 은유적 표현
3. 히브리어의 언어유희
4. 이스라엘의 역사/지혜문학 또는 다른 예언서와 평행을 이루는 본문

다음과 같이 관련을 가진 의도적인 소리유희가 이곳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8 절).

1. 유익 - *야알*
2. 바알 - *바알*

개역개정 2:9-13

<sup>9</sup>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10</sup>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sup>11</sup>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sup>12</sup>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13</sup>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9 “싸우고” 이 동사(칼 미완료형, BDB 936, KB 1224, 참조, 29 절)가 여기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법정소송을 나타낸다(참조, 35 절). 이 문학적 구조는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탄식, 법적소송, 약속의 예언).

▣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취한 우선순위의 영향이 우리 자녀의 축복 혹은 저주로 연결됨을 나타낸다(참조, 출 34:7; 신 5:9). 한 가지를 부연한다면, 나는 신 7:9의 말씀을 인하여 매우 기뻐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천 대”에 이르는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장하여 주신다.

2:10 연속적으로 사용된 명령을 주목하라.

1. 건너가라 - 칼 명령, BDB 716, KB 778
2. 보라 - 칼 명령, BDB 906, KB 1157
3. 보내라 - 칼 명령, BDB 1018, KB 1511
4. 자세히 살펴라 - 히트폴렐 명령, BDB 106, KB 122
5. 보라 - 2 항과 같음

▣ “깃땀” 이 지명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한 키프로스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단어는 후에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있는 모든 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 “계달” 이들은 동쪽에 사는 아랍 족속이었다. 이 모든 구는 은유적으로 “동에서 서까지”를 뜻한다. 이 절의 핵심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라!”이다. 어떤 자라도 11-13 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증인으로서 삼으라.

2:11 이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가!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에 있는 이교도 민족들이 섬기는 거짓되고, 헛되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따라 갔다(참조, 13 절).

▣ “그의 영광을” NKJV와 NRSV는 “영광”(BDB 458)을 대문자로 제시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으로서 제시한다(참조, 롬 1:2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다(참조, 호 4:7).

▣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만일 8 절에서 3 행과 4 행이 평행을 이룬다면, 이것은 바알숭배를 가리킨다(2:20의 특별주제를 보라).

2:12 야웨께서 가장 오래된 증인들(너 하늘아, 이 용어는 대개 ‘너 땅아’와 짝을 이룬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하심을 주목하라

1. 놀랄지어다 - 칼 명령, BDB 1030, KB 1563, 참조, 4:9; 18:16; 19:8; 49:17; 50:13; 겔 27:35; 32:10
2. 심히 떨지어다 - 칼 명령, BDB 972, KB 1343, 참조, 겔 27:35; 32:10
3. 두려워할지어다 - 칼 명령, BDB 351 II, KB 349 는 “심히”를 추가한다, BDB 547, 참조, 사 60:12; 문자적으로, “말려 버리다,” 참조, 사 44:27

▣ “너 하늘아” 하늘은 종종 하나님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온다(참조, 신 4:26; 30:19; 32:1).

야웨께서 가장 오래된 증인들(너 하늘아, 이 용어는 대개 ‘너 땅아’와 짝을 이룬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하심을 주목하라

1. 놀랄지어다 - 칼 명령, BDB 1030, KB 1563, 참조, 4:9; 18:16; 19:8; 49:17; 50:13; 겔 27:35; 32:10
2. 심히 떨지어다 - 칼 명령, BDB 972, KB 1343, 참조, 겔 27:35; 32:10
3. 두려워할지어다 - 칼 명령, BDB 351 II, KB 349 는 “심히”를 추가한다, BDB 547, 참조, 사 60:12; 문자적으로, “말려 버리다,” 참조, 사 44:27

2:13 “생수의 근원되는”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호칭이다(참조, 17:13; 시 36:9; 요 4:10-14; 7:38-39; 계 21:6).

▣ “스스로 옹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언약백성을 포함하여 모든 타락한 인류가 가진 문제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행하였다(참조, 17,19 절). 그들의 실패는 렘 31:31-34 에 있는 바 야웨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공활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문을 향하도록 할 것이다(참조, 겔 36:22-38).

#### 개역개정 2:14-19

- <sup>14</sup>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 <sup>15</sup>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 <sup>16</sup>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 <sup>17</sup>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 <sup>18</sup>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나
- <sup>19</sup>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4 새 질문이 새 연에서 제시된다. 17 절에 나오는 또 다른 수사적 질문이 이 질문의 답이 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심은 것은 거두고 있다(참조, 17:10; 32:19).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이 이전에 지음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즉, 2-3 절, 하나님의 추수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 이제 그들은 노략을 당하는 노예들이다(즉, 이웃 나라들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로부터).

2:15 “어린 사자들이” 이것은 열방의 힘과 열방의 강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어린 사자들은 아주 강력한 포식자들로 잘 알려졌다. 여기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취약하며 연약하다! 거짓된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돕지도 못한다!

- NASB “황폐하게 하였으며”
- NKJV, NRSV “불탔으며”
- TEV, NJB “황폐하게 되어”
- JPSOA “황량하여”
- REB “완전히 파괴되어”

맛소라 본문에는 “불탔으며”로 되어 있다(*nitštu, nšth, 니팔 완료형*, BDB 428, KB 429, 그러나 맛소라 학자들은 *nitštu*로 취할 것을 제안함); 이것을 “파괴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둘 다 문맥에 맞는다(동의어적 평행법을 이루는 앞의 행들을 보라)

2:16 “눙과 다바네스” 이 둘은 이집트의 고대 수도였다(참조, 44:1). 이집트의 각 도시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 NASB, NRSV “면도하였으니”
- NKJV, NJB “상하였으니”
- TEV, NET “금이 값이니”
- JPSOA “별거 벗었으니”
- REB “상할 것이니”

“상하다”라는 동사(*yrwk, yr'wk*, BDB 949, KB 1270)는 r“ II 이라는 어근에서 왔다. 또 다른 제안인 “면도하다”( *yrwk, r'h*에서 음, BDB 944, KB 1258, “풀을 뜯게 하다”를 뜻함, 참조, 47:5; 48:37; 사 7:20)는 노예생활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앞의 것에 B 등급을 준다(176 쪽).

2:17 13d 절의 설명을 보라. 맛소라 본문의 3 행이 NASB 에 인쇄되어 있다. 70 인역은 완전히 다른 시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본문이 오염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본문이 서로 다른 본문적 전통에 속함을 나타낸다. 사해사본의 히브리 사본은 맛소라 본문의 예레미야서 및 70 인역의 근본적으로 짧은 본문을 함께 드러낸다.

70 인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네가 나를 버린 일이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내게 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18 “애굽으로 가는 길에 . . . 앗수르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전을 피함에 있어서, 야웨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연합에 의지함으로써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연합은 그 나라들이 국가적으로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된 일(예식)에 참여함을 요구하였다!

▣ “물을 마시려고” 반복하여 사용된 이 단어(*칼 부정사 연계형*, BDB 1059, KB 1667)는 다른 이를 자원하여 섬김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로잡혀가게 하는 일이었다!

2:19 13d 절과 17 절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절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일의 무서운 결과를 강조적으로 제시한다(참조, 4:18)! “악”(BDB 948)과 “반역”(BDB 1000, 참조, 3:6,8,11,14)을 어떻게 책망하며 또 교정하는지를 주목하라.

야웨께서는 두 가지의 *칼 명령*(즉, “알다”와 “보다”)을 사용하여 응답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1. 야웨를 버렸다
2. 우상을 받아들였다

**특별주제: 배교(*아피스테미*)**

헬라이어 용어인 *아피스테미*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영어 단어인 “배교”는 이 용어로부터 파생되었고 그 단어의 사용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늘 그렇듯이 문맥이 열쇠이지, 정해놓은 정의가 열쇠는 아니다.

이것은 “~로부터” 또는 “~을 떠나서”의 의미인 전치사 *아포*와 “앳다,” “서있다,” 또는 “고치다”의 의미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이다. 다음의 사용법을 주목하라(비신학적 용법):

1. 물리적으로 옮기다
  - ㄱ. 성전으로부터, 눅 2:37
  - ㄴ. 집으로부터, 막 13:34
  - ㄷ. 사람으로부터, 막 12:12; 14:50; 행 5:38
  - ㄹ. 모든 것으로부터, 막 19:27,29
2. 정치적으로 옮기다, 행 5:37
3. 이성적으로 옮기다, 행 5:38; 15:38; 19:9; 22:29
4. 법적으로 옮기다(이혼), 신 24:1,3(70 인역)과 신약, 마 5:31; 19:7; 막 10:4; 고전 7:11
5. 빛을 옮기다, 마 18:24
6. 떠남으로 무관심을 보이다, 마 4:20; 22:27; 요 4:28; 16:32
7. 떠나지 않음으로 관심을 보이다, 요 8:29; 14:18
8. 허락하거나 승인하다, 마 13:30; 19:14; 막 14:6; 눅 13:8

신학적 의미에서 동사는 또한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1. 죄의 잘못을 무효로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출 32:32(70 인역); 민 14:19; 욥 42:10 과 신약, 마 6:12, 14-15; 막 11:25-26
2. 죄에서 떠나다, 담후 2:19
3. 떠남으로 버리다
  - ㄱ. 율법, 마 23:23; 행 21:21
  - ㄴ. 믿음, 겔 20:8(70 인역); 눅 8:13 살후 2:3; 담전 4:1; 히 2:13

오늘날 믿는 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한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믿음과 신실함을 나누는 현대의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이 있다.

I. 구약

- 가. 열 두(열) 정탐군들의 보고를 들었던 자들, 민 14 장(참조, 히 3:16-19)
- 나. 고라, 민 16 장
- 다. 엘리의 아들들, 삼상 2, 4 장
- 라. 사울, 삼상 11-31 장
- 마. 거짓 선지자들(예들)
  - 1. 신 13:1-5; 18:19-22(거짓 선지자임을 아는 방법)
  - 2. 렘 28 장
  - 3. 겔 13:1-7
- 바. 거짓 여 선지자들
  - 1. 겔 13:17
  - 2. 느 6:14
- 사.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예들)
  - 1. 렘 5:30-31; 8:1-2; 23:1-4
  - 2. 겔 22:23-31
  - 3. 미 3:5-12

II. 신약

가.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포스타시즈*이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재림 전에 악과 거짓된 가르침이 횡횡할 것에 대해 말한다(참조, 24:24; 막 13:22; 행 20:29,30; 살후 2:9-12; 딤후 4:4). 이 헬라어 단어는 눅 8:13 에 있는 밭의 비유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참조, 행 20:29-30; 요일 2:19); 또한 ‘진실되지만 미성숙한 신자들’을 그들이 유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참조, 히 3:12).

신학적 질문은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이었을까라는 점이다. 지역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참조, 요일 2:18-19). 종종 우리의 신학적, 교과적(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목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절을 인용하는 방법 외에는) 전통은 명확한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준다.

나. 외관상의 믿음

- 1. 유다, 요 17:12
- 2. 마술사 시몬, 행 8 장
- 3. 마 7:21-23 에서 말하는 사람들
- 4. 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 5. 요 8:31-59 의 유대인들
- 6. 알렉산더와 후메내오, 딤펢전, 1:19-20
- 7. 딤펢전 6:21 에 나오는 사람들
- 8. 후메내오와 빌레도, 딤후 2:16-18
- 9. 데마, 딤후 4:10
- 10. 거짓 선생들, 벨후 2:19-20; 유 12-19
- 11. 적그리스도들, 요일 2:18-19

다. 열매없는 믿음

- 1. 고전 3:10-15
- 2. 벨후 1:8-11

우리의 조직신학(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등)이 정해진 답을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 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주제를 꺼냈다고 나에게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관심은 바른 성경해석학적 과정에 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지, 미리 설정된 신학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진 신학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교파적, 문화적, 관계적(부모, 친구, 목사)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자주 고통과 충격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사람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예, 롬 9:6).

▣ “주 만군의 여호와”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20-25

<sup>20</sup> 네가 옛적부터 네 멩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sup>21</sup>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나

<sup>22</sup>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sup>23</sup>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sup>24</sup>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혈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sup>25</sup>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2:20-25 UBS *예레미야* 핸드북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 말하려고 사용한 여러 종류의 은유적 표현을 제시한다(69 쪽).

1. 반역하는 짐승, 20a 절
2. 음녀, 20b 절

3. 귀한 포도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쓸모없는 가지, 21 절
4. 몸을 씻지 않은 더러운 자, 22 절
5. 발정난 들나귀, 23-24 절
6. 자멸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25 절
7. 도둑, 26 절

2:20 서로 평행을 이루는 처음 두 행은 하나님께서 창 15:13-16 에서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21 절에 있는 “심다”). 다른 여러 본문에서는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참조, 레 26:13; 사 52:2-3; 렘 30:8; 겔 34:27).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의 종살이 하던 것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 4-6 행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산숭배가 이들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였음을 나타낸다(참조, 3:2,6; 17:2; 신 16:21; 호 4:11-14).

###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 I. 섬기는 까닭
  - 가. 고대인들이 사냥을 하고 양식을 수집하는 삶에서 유목생활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곡식과 짐승의 떼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 나. 고대 근동의 주민들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다.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계절의 규칙적인 질서에 의존하게 되었다.
  - 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힘은 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탄원하고 또 이를 조종하려 했다.
- II. 어디서 왜
  - 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다음의 장소에서 발전되었다
    1. 이집트(나일 강)
    2.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3. 가나안(요단 강)
  - 나. 고대 근동의 다산 숭배 예식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 다. 계절과 기후의 조건이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신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신화는 영적 세계와 지상에서의 삶을 배경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를 다룬다.
- III. 누가 어떻게
  - 가. 누가(남신들과 여신들)
    1. 이집트
      - ㄱ. 이시스(여신)
      - ㄴ. 오시리스(남신)
    2. 메소포타미아
      - ㄱ. 이스탈/이난나(여신)
      - ㄴ. 탐무스/두무시(남신)
    3. 가나안
      - ㄱ. 바알(남신)
      - ㄴ. 아세라, 아스탈테, 아낫(여신)

- 나. 각 쌍의 신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신화화되었다
  1. 하나가 죽는다
  2. 다른 하나가 회복된다
  3. 신들이 죽고 또 일어남은 해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흉내내는 형태였다
- 다. 인간의 성적 결합(즉, 신들의 결혼)을 ‘곡식과 가축과 사람의 번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마술적 모방이 행해졌다.

IV. 이스라엘 사람들

- 가. 다산 숭배적 종교(특히 가나안의)를 피하라고 야웨의 백성이 경고를 받았다(즉 레위기와 신명기).
- 나. 이러한 종교는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며 성적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기에 매우 널리 대중화 되었다.
- 다. 우상숭배는 야웨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대신에 어떤 종교적 혹은 의식적 방법으로 생명의 축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V. 추천 도서

- 가. W. F. 올브라이트,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 나. J. H. 브레스넛, *고대 이집트에서의 종교와 사상의 발전*
- 다. 제임스 G. 프랫저
  1. *아도니스, 앳티스, 오시리스*
  2. *구약의 전승*
  3. *자연 숭배*
- 라. C. H. 고든, *성경 앞에서*
- 마. S. N. 크래머, *고대 세계의 신화학(Mythologies)*

2:21 “귀한 포도나무” 이것은 소략(BDB 977 I)으로서 “붉은 포도”를 뜻한다. 이것은 가장 좋은 포도 품종이었다(참조, 사 5:1-7).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였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 버렸다”(니팔 완료형, BDB 245, KB 253).

2:22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됨을 필요로 한다(참조, 4:14; 13:27).

1. 젓물(BDB 684)은 광물인 양젓물을 뜻한다
2. 비누(BDB 141)는 알칼리성 칼륨 비누를 가리킨다(참조, 말 3:2)

이것은 물론 “회개”를 뜻하는 회화적 표현이다.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회개**

이 개념은 중요하지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취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히브리(또한 헬라어) 단어가 신학적으로 “고정된” 어떤 정의를 특별히 뜻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단어가 그렇게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약의 저자들(누가를 제외하고는)은 코이네 헬라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히브리 단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nhm*(*나함*, BDB 636, KB 688)
2. *swb*(*쉬브*, BDB 996, KB 1427)

처음 단어인 *나함*은 원래 숨을 깊이 쉬는 것을 뜻하며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 ㄱ. “휴식” 또는 “위로” (예, 창 5:29; 24:67; 27:42; 37:35; 38:12; 50:12; 종종 이름으로 사용됨, 참조, 왕하 15:14; 대상 4:19; 느 1:1; 7:7; 나훔 1:1)
- ㄴ. “슬퍼하다” (예, 창 6:6,7)
- ㄷ. “마음을 바꾸다” (예, 출 13:17; 32:12,14; 민 23:19)
- ㄹ. “동정” (예, 신 32:36)

이 단어들이 모두 마음 속 깊이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주목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다: 마음 속 깊이 있는 느낌이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행동의 변화이다. 여기에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다”(참조,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11,35; 시 106:45)라는 말은 죄나 잘못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을 가지시고 돌보심을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민 23:19; 삼상 15:29; 시 110:4; 램 4:27-28; 겔 24:14). 만일 죄인이 진실되게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와 반역으로 인한 형벌을 용서받는다.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지움에 있어서 문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용어인 *솟*은 “돌아가다”(~에서 돌아 오다, 돌아 가다, ~로 돌아 가다)를 뜻한다. 만일 언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이 “회개”와 “믿음”(예, 마 3:2; 4:17; 막 1:4,15; 2:17; 눅 3:3,8; 5:32; 13:3,5; 15:7; 17:3) 이라면, *나함*은 자신의 죄를 강도있게 느끼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킴을 뜻하고 *솟*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이 두가지 영적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아모스서에서 찾을 수 있다: 4:6-11,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5 회]와 암 5:4,6,14, “나를 찾으라 . . . 야웨를 찾으라 . . .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예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하여 범죄하였을 때이다(참조, 삼하 12 장; 시 32 편; 51 편). 다윗 자신과 그의 가정 및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는 회복되었다! 악했던 므낫세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참조, 대하 33:12-13).

이 두 용어는 시 90:13 에서 병행하여 나타난다. 죄를 인식하고 죄로부터 의식적이고 개인적으로 돌아서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참조, 사 1:16-20). 회개는 인식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함과 이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이 세 영역이 모두 요구된다. 후회함의 깊은 감정이 하나님께 향한 또한 하나님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바뀐다!

▣ “주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한 호칭으로서 *아돈*과 *야웨*를 함께 사용한 경우이다.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3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 . . 하겠느냐” 여기에 참으로 문제가 나타난다(참조, 35 절). 그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여겼다

- 1. 자신들이 종교적이다
- 2. 자신들이 야웨를 예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가장 심각하게 소경이 되게 한다(참조, 잠 16:2; 30:12; 눅 16:15; 18:9-14).

▣ “바알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 종교의 남신이다.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골짜기” 이것은 아마 *헌놈의 아들*을 뜻한다(참조, 7:31-32; 19:2-6; 32:35; 대하 28:3; 33:6). 그들은 그곳에서 불과 관련된 다산의 신인 *몰렉*에게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렸다(참조, 레 18:21).

**특별주제: 몰락**

몰락(BDB 574)의 예배 및 풍요를 영원하기 위해 공동사회의 모든 장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제사드렸던 가나안(암몬)의 ‘불’신에 대한 예배를 야웨께서 금하셨다. 그 신의 이름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서)이 히브리어말로 자음은 “왕”과 같으나 “부끄러움”이라는 모음을 넣어 불렀다. 이스라엘은 이 신들에 대해 일찍부터 그리고 자주 경고를 받았다(참조, 레 18:21; 20:2,3,4,5; 왕상 11:7; 왕하 23:10; 렘 32:35; 미 6:7). 이런 예배는 자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란 구절로 불려졌다(참조, 12:31; 18:10; 왕하 16:3; 17:17,31; 21:6; 시 106:37; 렘 7:31; 19:5).

2:22-23 “발이 빠른 암낙타”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동맹을 추구하는 것을 동물의 성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서 나타낸 구이다.

2:25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다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1. 이방인의 신들을 좇아 달려감(즉, 정치적 연맹)
2. 노예의 모습
3. 라쉬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감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나는 1 항의 설명이 문맥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참조, 18 절).

**개역개정 2:26-28**

<sup>26</sup>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sup>27</sup>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sup>28</sup>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2:26 이들은 8 절에서 이미 언급한 지도자들이다.

1. 왕들
2. 지도자들
3. 제사장들
4. 선지자들



▣ “수치를 당함 같이” 이 동사(히필 완료형, BDB 101, KB 116)는 6:15; 46:24; 48:1,20; 50:2 에 나온다. 또한 8:9,12 도 보라! 동양인들에게는 수치를 피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즉, 15:9; 31:19; 48:13,39; 사 1:29; 19:9; 20:5; 23:4; 37:27; 45:16).

2:27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의 신들을 상징하는 물건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바알*은 세워 놓은 돌(즉, 남근)로써, *아세라*는 조각한 말뚝이나 살아 있는 나무(즉, 생명의 나무)로써 상징하였다.

▣ “너는 나를 낳았다” 맞소라 본문에는 단수형 동사(칼 완료형, BDB 408, KB 411)로 되어 있다. 맞소라 학자들은 이것을 바꾸어 복수형으로 제시하였다.

▣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것은 32:33 과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야웨께서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다(참조, 18:17).

▣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의 우상에게 말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명령을 제시한다(참조, 28 절).

1. 일어나소서 - 칼 명령, BDB 877, KB 1086
2. 우리를 구원하소서 - 히필 명령, BDB 446, KB 448

미신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슬프고도 처절한 현실이다(참조, 사 44:17; 45:20; 46:6-7).

▣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약에서 이것은 신체적 구출을 가리킨다.

#### 특별주제: 구원(예슈아)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욥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체적 영적인 구원의 개념은 욥 2:9-10 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계된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구원은 야웨께서 원래 의도하신대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제와 교제권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온전성을 뜻한다!

2:28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섬긴 *바알*들(참조, 11:13), 또는 우리가 우가랏 문서에서 보듯이 250 개의 신으로 구성된 가나안 사람들의 만신전을 뜻할 것이다.

#### 개역개정 2:29-37

- <sup>29</sup>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나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30</sup>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sup>31</sup>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sup>32</sup>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sup>33</sup>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sup>34</sup>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sup>35</sup>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sup>36</sup>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sup>37</sup>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2:29 9 절의 설명을 보라.

■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죄는 개인이 야웨께 반역함을 말한다. 이 동사는 **칼 완료형**(BDB 833, KB 981)으로서 반역과 불순종이 고착되었음을 시사한다(참조, 2:8,29; 3:13; 33:8; 사 43:27; 49:13; 66:24; 겔 2:3; 20:38; 호 7:13).

“다”라는 단어가 다음을 가리킴을 주목하라

1. 그 세대에 속하는 모든 이(참조, 31 절; 5:1; 6:13)
2. 그들의 조상들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가 반역하였음을, 롬 3:9-18 과 요약적 진술인 롬 3:23 에서 바울이 자세히 제시하는 구약의 구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30-31**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사(참조, 레 26 장; 신 28-29 장) 그들로 돌아오게 행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이 국가로 형성될 때에(즉, 출애굽과 광야방랑 시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은혜로운 임재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을 그들은 망각하였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놀랍고도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였다(즉, 타락의 결과, 참조, 창 3 장)! 31 절의 4 행에 나오는 동사는 **칼 완료형**, BDB 923, KB 1194 이다.

**2:31**  
NASB “우리는 떠 다닐 수 있게 자유로우니”  
NKJV “우리는 주인들이니”  
NRSV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자들이니”  
NJB “우리는 자유로우니”  
JPSOA “우리는 느슨하게 풀렸으니”  
REB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니”

이 동사(*rwd*, **칼 완료형**, BDB 923, KB 1194, 참조, 호 12:1)는 드물게 사용된 단어이다. KB 는 이 **칼 완료형**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다”로 번역한다.

UBS **핸드북**(85 쪽)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리 저리로 다니다”로 제시하여, 이 본문을 23 절에 나오는 암낙타와 연결시킨다.

**2:32 “그의 예복을”** 이것은(BDB 905) 여인이 결혼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띠를 말한다(“패물”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BDB 725). 이스라엘은 결혼으로 상징되는 야웨와의 언약을 깨트렸다. 이 장은 야웨께서 이혼을 진행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 동사(**칼 완료형**, BDB 1013, KB 1489)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놀랄만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비극이 계속된다(참조, 3:21; 13:25; 시 106:21-22).

여기서 잊음은 실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선택을 의미한다!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이후에도, 그를 떠나기로 그들은 고의로 마음 먹었다.

**2:33 “네 행위를 . . . 가르쳤으며”** 이스라엘이 아주 악하여, 매춘부에게까지 악한 일을 한 두 가지 더 가르쳐 줄 수 있었다. 이것은 다음에 대한 암시이다.

1. 다산 승배
2. 외국과의 동맹

**2:34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였다. 7:6; 22:3,17 및 아모스서를 보라.

▣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담 구멍을 뚫는 것”이 **명사형**(BDB 369, KB 57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곳과 출 22:2 에서만 사용되었다. 출애굽기의 본문은 도적을 죽이는 것을 가리킨다.

▣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 히브리 구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AB 의 제 21 권은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둔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RSV)
2. 각 상수리나무마다(70 인역, NEB)

이것은 1 항에 C 등급(상당히 의심스러움)을 준다. UBS *헨드북*도 1 항을 “가장 문제가 적은 본문”으로 본다(88 쪽).

NASB, NRSV, NJB, NIV 는 34 행의 마지막 행을 35 절과 연결시킨다.

**2:35** 이것은 그들이 행한 죄의 심각함과 또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는 일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아마 그들의 변명이 눈을 가리워 신 28-29 장의 약속을 누리고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야웨의 언약이 가지는 조건적인 요소를 망각하고 있었다!

**2:36-37** 이 두 절은 명확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사로잡혀 가게 됨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정치적 동맹(즉, 이집트 및 앗수르의 남은 군대와 맺은 동맹, 참조, 18 절)은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2:36**

NASB

“상당히 돌아다니느냐”

NKJV

“상당히 나 다니느냐”

NRSV

“얼마나 경망스럽게...”

NJB

“얼마나 경박하게 나 다니는지”

JPSOA

“네 자신을 얼마나 보잘 것 없게 하는지”

REB

“왜 너는 그렇게 경박하게 행하느냐”

70 인역

“무엇이든지 네가 크게 경멸한 것을”

이 동사의 어근이 가지는 의미는 불확실하다. **부사**인 “경박하게”(BDB 547)가 2 항과 더불어 더 적합하게 여겨진다. 이 동사의 의미로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zl - BDB 23, KB 27 - “가다”
2. zll - KB 272 - “경박하게 취급하다”

**2:37**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이것은 포로로 잡혀감 혹은 슬퍼함을 나타낸다.

###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임,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치,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뱀,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밟(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 예레미야 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오염된 땅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회개 할 것을 권함 (3:1-4:4)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회심
3:1-5 (1-5)	3:1	3:1-5 (1-5)	3:1-3 (1-3)	3:1
	3:2-5 (2-5)			3:2-3a (2-3a)
				3:3b-5 (3b-5)
			3:4-5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함		이스라엘과 유다가 반드시 회개하여야 함	회개할 것을 요구받은 북왕국
3:6-10 (6-10)	3:6-10	3:6-10	3:6-10	3:6-10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다				
3:11-14 (12-14)	3:11-13 (12b-13)	3:11-14 (12b-13)	3:11-13	3:11-13 (12b-13)
				메시아의 시대에서의 시온
	3:14-18		3:14-18	3:14-17
3:15-18		3:15-18		
				3:18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숭배	회심할 것을 말하는 시가 계속됨
3:19-20 (19-20)	3:19-20 (19-20)	3:19-20 (19-20)	3:19-20 (19-20)	3:19-20 (19-20)
3:21-23 (21-23)	3:21-25 (21)	3:21-22a (21-22a)	3:21-22a (21-22a)	3:21-25 (21-25)
	(22-25)	3:22b-24 (22b-23)	3:22b-25	
3:24-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예레미야 2:1-4:4 은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
- 나. 3 장에는 *šwb* (BDB 996, KB 1427, 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으로 “돌아감”을 뜻한다(참조, 3:1,7,10,14, 19,22).
- 다. 깨어진 언약은 법적인 이혼소송에서 깨어진 혼인관계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야웨의 은혜가 상당히 크기에 신 24:1-4 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효화되었다(즉, 신실하지 않고 또 음행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남편인 야웨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새 날, 새 언약이 준비되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1-5

- <sup>1</sup>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sup>2</sup>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 <sup>3</sup>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낮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sup>4</sup>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sup>5</sup>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3:1

NASB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NKJV “그들이 말하되”

70 인역, NRSV,

NJB, REB -생략함-

TEV “주께서 말씀하시되”

JPSOA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되]”

맛소라 본문에서는 칼 부정사 연계형(BDB 55, KB 65)인 “말하되”로 되어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180 쪽)

1. 이것은 주된 격언 혹은 주된 법적 선언을 이끈다
2. 이것은 2:37 과 관련을 가진다

■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이것은 신 24:3-4 에 있는 모세의 진술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야웨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행한 “영적 간음”에 대하여, 야웨께서 이혼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다(참조, 신 24:4). 하지만 야웨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한 이후에도 재혼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4:1; 호 1-3 장).

야웨께서 수 년에 걸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진술하고 계신 것이다(참조, 2:20-25).

■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참조, 신 24:1-4). 그들이 돌아오려는 까닭은 영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같은 어근(BDB 337, KB 335)을 가진 동사와 부정사 절대형으로서 간음으로 인해 더러워짐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주제를 레 18:24-28; 19:29; 신 24:4 에서 다루고 있다.

70 인역에는 “여인”(하잇사)으로 되어 있지만, 맛소라 본문에서는 “땅”(하아레쓰)으로 되어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땅”에 B 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하지만 문맥상 둘 다 적합하다.

■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야웨께서 남편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신 10:20; 11:22; 13:14 에 기초한 묘사일 것이다(즉, “하나님께 연합함”).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신인동형적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하고서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NKJV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TEV 이제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70 인역, NJB “네가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JPSOA “네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 절(또한 3 장 전체에 걸쳐 사용된)에서 이미 사용된 동사(칼 미완료형, BDB 996, KB 1427)의 부정사 절대형이다.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용법을 가질 것이다

1. 명령으로 바뀜(NKJV)
2. 동사로 바뀜(NASB)
3. 질문으로 바뀜(TEV, NJB, 70 인역을 따른 JPSOA)

3:2 “네 눈을 들어...보라” 이 둘은 칼 명령이다.

1. 눈을 들라 - BDB 669, KB 724
2. 보라 - BDB 906, KB 1157, 참조, 1:10; 2:10(2 회), 19, 23, 31

▣ “혈벗은 산을” 이 장소는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다(참조, 3:21; 4:11; 7:29; 12:12; 14:6; 호 4:11-14).

▣  
NASB “범하여”  
NKJV “남자들과 동침하여”  
NRSV “너의 성기를 제공하였다!”  
TEV “창녀처럼 행동하여”  
NJB, JPSOA, REB “동침하여”  
70 인역 “오염되어” 또는 “아주 더럽혀져”

맛소라 본문에서는 “강간당하다”(šgl, BDB 993, KB 1415, 참조, NASB)로 되어 있다. 하지만 맛소라 학자들은 “~와 동침하다”(škb, BDB 1011, KB 1486)로 제안하였다.

언약백성들이 강간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영적 간음”을 행하였다.

▣ “네가 길 가에 앉아” 이것은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볼 때, 창녀들이 행하는 모습이다(참조, 창 38:14; 잠 7:12 이하; 겔 16:25).

▣  
NASB, NRSV,  
TEV, REB “아랍”  
NKJV “아랍의”  
NJB “유목민”  
JPSOA “노상강도”

맛소라 본문에서는 “목초지 거주자”(rby, BDB 787 IV, 참조, 사 13:20)로 되어 있다. 하지만 70 인역에는 “까마귀”(rb, BDB 788 VI)로 되어 있다.

JPSOA 는 이 단어를 강도로 번역한다(UBS 핸드북, 94 쪽을 보라). 까마귀가 부정한 쓰레기 청소부로 여겨졌음을 고려할 때, 70 인역의 “까마귀”는 “오염된 땅”과 평행을 이룬다. 그러나 까마귀는 도움을 주는 짐승을 의미할 수도 있다(참조, 왕상 17:4).

▣ “음란”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3:3 처음 두 행이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자연계의 순환을 사용하려 하신다(참조, 레 26:14-20; 신 28:15-68). 하지만 그들은 보려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가지의 우기가 있다(참조, 신 11:14). 하나는 과중 때에 내리는 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식물이 자랄 때 내리는 비이다. 대부분의 수분은 매일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공급되었다.

▣ “창녀의 낚” 이것은 다음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뜻한다

1. 전형적인 장신구(참조, 계 17:5)
2. 고집셈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참조, 겔 3:7-8)

3:4 “나의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가족적 은유이다(1:9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I. 구약

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이다:

1. 창 1:26-27
2. 말 2:10
3. 행 17:28

나. 아버지는 유추적으로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1. 이스라엘의 아버지(선택에 의해)
  - ㄱ. “아들” - 출 4:22; 신 14:1; 39:5; 사 1:2; 63:16; 64:8; 렘 3:19; 31:20; 호 1:10; 11:1; 말 1:6
  - ㄴ. “첫 태생” - 출 4:22; 렘 31:9
2.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메시아적)
  - ㄱ. 삼하 7:11-16
  - ㄴ. 시 2:7; 행 13:33; 히 1:5; 5:5
  - ㄷ. 호 11:1; 마 2:15
3.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유추
  - ㄱ. 아버지(은유)
    - (1)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 - 신 1:31
    - (2) 훈련하다 - 신 8:5; 잠 3:12
    - (3) 공급(즉, 출애굽기) - 신 32:1
    - (4)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 (5) 사랑하다 - 시 103:13
    - (6) 친구/안내자 - 렘 3:4
    - (7) 고치는 자/용서하는 자 - 렘 3:22
    - (8) 자비를 베푸는 자 - 렘 31:20
    - (9) 훈련자 - 호 11:1-4
    - (10) 특별한 아들 - 말 3:17
  - ㄴ. 어머니(은유)
    - (1)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 (2)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 사 49:15; 66:9-13; 호 11:4(“멍에”를 “젖 먹는 자식”으로 바꾸기를 제시한 본문에서)

II. 신약

가. 삼위 일체(삼위가 모두 언급된 본문들)

1. 복음서
  - ㄱ. 마 3:16-17; 28:19

- ㄴ. 요 14:26
  - 2. 바울 서신
    - ㄱ. 롬 1:4-5; 5:1, 5; 8:1-4, 8-10
    - ㄴ. 고전 2:8-10; 12:4-6
    - ㄷ. 고후 1:21; 13:14
    - ㄹ. 갈 4:4-6
    - ㅁ. 엡 1:3-14, 17; 2:18; 3:14-17 4:4-6
    - ㅂ. 살전 1:2-5
    - ㅅ. 살후 2:13
    - ㅇ. 딤후 3:4-6
  - 3. 베드로서 - 뱀전 1:2
  - 4. 유다서 - 20-21 절
- 나. 예수
  - 1. “독생자”로서의 예수 - 요 1:18; 3:16, 18 요일 4:9
  - 2.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 마 4:3; 14:33; 16:16; 눅 1:32, 35; 요 1:34, 49; 6:69; 11:27
  - 3.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예수 - 마 3:17; 17:5
  - 4.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사용함 - 막 14:36
  - 5.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신 대명사
    - ㄱ. “나의 아버지,” 예, 요 5:18; 10:30, 33; 19:7; 20:17
    - ㄴ. “너의 아버지,” 예, 마 17:24-27
    - ㄷ. “우리 아버지,” 예, 마 6:9, 14, 26
- 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가족에 대한 많은 은유 중 한 가지:
  - 1.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 2. 믿는 자들을 일컬어:
    - ㄱ. 하나님의 아들들
    - ㄴ. 자녀
    - ㄷ. 하나님께로서 난
    - ㄹ. 거듭난
    - ㅁ. 양자된
    - ㅂ. 출생했다
    - ㅅ. 하나님의 가족

3:5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하려 애썼다. 이 같은 개념이 시 103:8-14 에 나온다. 하나님의 긍휼하지 않으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고의적으로 또 반복하여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이 문제였다(참조, 12-14 절).

▣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그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참조, 사 29:13).

개역개정 3:6-10

<sup>6</sup>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sup>7</sup>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sup>8</sup>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sup>9</sup>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sup>10</sup>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6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구는 이 시 및 가까이 있는 연들의 연대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된다.

요시야 왕의 통치연대에 대하여는 부록 4 의 3 항을 보라.

▣ “이스라엘” 이것은 북쪽의 열 지파를 뜻한다(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7-8 절,10 절,11 절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하여 유다가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언니의 죄를 따라 행하였음을 말한다(참조, 겔 16:44-52; 23 장).

▣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이곳은 바알 숭배를 한 장소였다(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3:7 “유다” 이들은 남쪽의 세 지파인 유다, 시므온, 베냐민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역시 남쪽 지역에 함께 거주했다.

▣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다”(BDB 996, KB 1427)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이다(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가 3 장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참조, 1 절[2 회], 10 절, 12 절, 14 절, 19 절, 22 절). 구약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조건적 언약이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각 사람을 대속하려는 야웨의 계획에 관한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야 했고 또 동물들을 모아 들여야 했다
4.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 및 저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종교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일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일을 갖는다.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바뀌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문제가 있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받아 주심에 대한 직설적 진술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받은 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3:8

NASB, NKJV

“내가 보았노라”

TEV

“유다도 보았노라”

NRSV

“그녀도 보았노라”

NJB, REB

“그녀가 보았노라”

JPSOA

“내가 주목하였노라”

맛소라 본문에서는 “내가 보았다”(와에레)로 되어 있는데, 사해사본과 시리아역에서는 “그녀가 보았다”(와테레)로 되어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맛소라 본문에 B 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이 절의 다음 행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야웨께서 어떻게 행하시시지를 묘사하고 있다.

▣ “내가 그를 내쫓고” 이것은 앗시리아로 잡혀감(즉, 주전 722 년의 사건)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이혼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내 보내다,” BDB 1018, KB 1511, 참조, 신 22:19,29; 24:1,3; 렘 3:1).

▣ “이혼서” 이것은 신 24:1-4 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법적 서류이다.

1. 이것을 법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하기에,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가진 차이를 잘 해결해보게 하였다
2. 제 3 자가 이에 관련해야만 했다(즉, 레위인)
3. 신부나 신부의 가족에게 준 지참금을 돌려받는 일이 관련되었다
4. 피해를 입은 여인으로 하여금 재혼하여 사회의 정규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9

NASB	“그녀의 행음함이 가벼움”
NKJV	“그녀의 일상적인 행음”
NRSV	“그녀가 수치를 모르며 하는 창녀의 일”
TEV	“결코 수치를 몰랐다”
NJB	“그녀가 자신이 행하는 창녀 일을 매우 가볍게 여겼다”
JPSOA	“그녀의 일상적인 부도덕”
REB	“그녀의 일상적인 창녀 일”
70 인역	“그녀의 창녀 일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다”

핵심적인 단어는 “매우 가벼이”(갈, BDB 887, KB 1101 I)로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이다. BDB 는 “가벼움” 또는 “경박함”이라는 의미를 제시한다.

▣ “돌과 나무와 더불어”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를 뜻한다(참조, 2:27,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3:10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을 가리킬 것이다. 대중들은 이 경건한 왕들이 행한 개혁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다.

“돌아오다”에 대하여는, 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마음”에 대하여는 4: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11-14**

<sup>11</sup>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sup>12</sup>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13</sup>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14</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3:11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유다는 북쪽의 지파들보다 더 많은 영적 빛을 보았고 더 많은 영적 기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내리시는 야웨의 심판을 통하여 아무 것도 배우지를 못하였다(참조, 겔 23 장; 눅 12:48).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다”(BDB 1000, 참조, 3:6,8,12; 또한 2:19; 3:22; 5:6; 8:5; 14:7 도 주목하라). 하지만 유다는 “배반하였다”(BDB 93, **칼 능동 분사**, 참조, 3:8,20; 5:11; 12:6; 사 21:2; 24:16; 33:1).

**3:12-14** NASB, NKJV, NRSV, NJB 모두 이 단락을 시의 형태로 제시한다(1-5 절 및 19-20 절도 마찬가지임).

1.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말씀하셨다
  - ㄱ. 가라(**칼 부정사 절대형**)
  - ㄴ. 선포하라(**칼 완료형**)
2.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말씀하셨다
  - ㄱ. 돌아오라(**칼 명령**, 1 절의 설명을 보라)
  - ㄴ. 인정하라(문자적으로, “알라,” **칼 명령**)
    - (1) 네 죄를 자복하라
    - (2) 네가 네 길로 달려간 것(**칼 완료형**)
    - (3) 이방인들(즉, 우상들)에게로 네 호의를 베푸는 것(BDB 202)
    - (4)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칼 완료형**)
3. 만일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하실 것이다
  - ㄱ.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 ㄴ.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이 문학적 형태는 샌디와 기스가 저술한 **구약의 암호를 풀기**(164 쪽)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로 불린다. 이 단락에는 하나님의 약속, 죄의 정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 있다(참조, 사 1:19-20; 55:6-7; 렘 3:12-13; 4:1-4; 율 2:12-13; 암 5:4-7,14-15).

**3:12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성경의 하나님과는 달리,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 변덕스러우며, 동떨어져 있는 신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긍휼이 있으심(BDB 933), 참조, 출 34:6; 신 4:31; 느 9:17; 시 86:15; 103:8; 145:8; 율 2:13
  2. 자비로우심(BDB 337), 참조, 출 34:6; 느 9:17; 시 86:15; 103:8; 145:8; 율 2:13
  3. 노하기를 더디하심(BDB 74 와 BDB 60 이 함께 사용됨), 참조, 출 34:6; 민 14:18; 느 9:17; 시 86:15; 103:8; 145:8; 율 2:13
  4. 인자가 풍성하심(**헤세드**, BDB 338, 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참조, 출 34:6; 민 14:18; 느 9:17; 시 86:15; 103:8; 145:8; 율 2:13
  5. 진리에 풍성하심(“신실하심,” 아멘, BDB 54), 참조, 출 34:6; 시 86:15
  6.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심, 참조, 민 14:18
  7. 다음의 내용을 행치 않으실 것이다(참조, 신 4:31)
    - ㄱ.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 ㄴ. 너를 멸하지 않으시며
    - ㄷ.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8. 용서에 풍성하심(BDB 699), 참조, 느 9:17
  9.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BDB 736 I), 참조, 느 9:17
  10.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실 것임, 참조, 시 103:9
  11.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임, 참조, 율 2:13
- 와!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 특별주제: 아멘

###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1. “진리”(에페쓰, BDB 49)
  2. “진실성”(에문, 에무나, BDB 53)
  3. “믿음” 또는 “신실함”
  4. “신뢰”(야만, BDB 52)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렘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1. 기둥, 왕하 18:16(딤펀전 3:15)
  2. 확신, 출 17:12
  3. 견실함, 출 17:12
  4. 안정성, 사 33:6; 34:5-7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142,151,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바타*(BDB 105), 신뢰
  2. *야라*(BDB 431),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을 나타내는 예식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바.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에 있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인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약에서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펀전 1:17; 6:16; 딤펀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 한 분 뿐이다(참조, 눅 4:24; 12:37; 18:17,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 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 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되었다.

3:13-14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야웨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3:14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것은 남편을 뜻하는 단어인 *바알*(BDB 127)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이다. 이 본문은 가족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을 계속하여 제시한다.

**개역개정 3:15-18**

<sup>15</sup>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sup>16</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sup>17</sup>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sup>18</sup>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3:15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적 및 종교적 지도자들(즉, “목자들,” BDB 944)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야웨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다(BDB 524)
2. 백성들을 지식으로 양육한다(BDB 395,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3. 백성들을 명철로 양육한다(BDB 968, 참조, 9:24; 20:11)

2 항과 3 항은 목자들 자신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들을 뜻할 것이다.

3:16 “~ 때에는” 이것은 새 언약의 시대(참조, 16-18 절; 31:31-34; 쥬 36:22-38) 또는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킨다.

▣ “언약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없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이 본문은 내적 예배를 가리킨다(참조, 요 4:23). 야웨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특별주제: 언약궤**

I. 그 목적

- 가.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즉, 하나님의 발등상, 참조, 대상 28:2; 시 132:7; 사 66:1)로서 그룹의 날개 사이에 위치함
- 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참조, 이스라엘, 레 16 장과 왕상 8:27-30; 외국인, 8:41,43,60)

II. 내용물

- 가. 랍비들의 전통
  1. 야웨께서 십계를 기록하신 두 돌판(참조, 출 31:18; 32:15-16)
  2. 돌판들을 떠받치는 두 개의 은 기둥(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3. 이스라엘(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김을 인해 모세가 부순 원 돌판의 조각(참조, 출 32:19; 신 9:17; 10:2)
  4. 모세 오경전체의 사본(출 25:16)
  5.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 의해 제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참조, 왕상 8:29)
- 나. 그 내용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물건들이 궤 안에 있는 것인지 그 옆에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함)
  1. 만나가 들은 항아리(참조, 출 16:31-36)
  2. 아론의 싹난 지팡이(참조, 민 17:4,10; 히 9:4)



3.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봉헌한 속건제(5 금귀와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참조, 삼상 6:3-4,8)

4. 십계의 복사본(참조, 신 10:4-5; 31:26)

다. 왕상 8 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시 이 궤에는 단지 두 돌판만 들어 있었다고 말한(즉, 십계, 참조, 왕상 8:9)

### III. 그것의 위치

가.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항

1. 시삭(주전 935-941 년)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제 오년(주전 926 년)에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이집트로 가져감(참조, 왕상 14:25-26; 대상 12:9)

2. 바로 느고 II 세(그는 다윗의 씨인 여호아하스[요시아의 아들]를 사로잡아감)가 주전 597 년에 이집트(소안, 타니스, 아바리스—세티 I 세가 삼각주 지역에 세운 수도를 일컫는 여러 이름)로 가져감(참조, 왕하 23:31-35; 대하 36:1-4)

3. 느부갓네살 II 세가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가고(주전 586 년) 성전을 불태울 때에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의 신전으로 가지고 감(참조, 왕하 25:9,13-17; 대하 36:18).

나. 유대인의 전통

1.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느보/비스가 산에 숨김

2. 외경인 바룩 2 서는 천사가 이것을 숨겼다고 말한다

3.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감추어졌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가지고 올 것이다(참조, 말 4:5)

4. 사마리아인들이 야웨의 성전을 세운 그리심산(세겜)에 감추임

**3:17 “예루살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나는 생각한다(즉, 하나님의 새 백성, 참조, 계 21:1-4).

▣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전세계적 요소를 주목하라(참조, 4:2; 12:15,16; 16:19; 사 2:2-4; 11:12; 56:6-8; 겔 37:16-28; 호 3:5; 미 2:12). 이 일은 당시의 유대인 독자/청중으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내용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예언에서 열방을 축복에 포함하고 있는 점도 당시의 독자/청중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창 3 장이래로 문제가 되었다(참조, 11:8)! 그러나 새 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생각이 바뀔 것이다. 겔 18:31 과 겔 36:26-27 을 비교하라. 새 언약(31:31-34)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초하는 언약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뜻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1. 남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신실한 자들
2. 당시에 살아 있던 모든 아브라함의 씨
3. 예루살렘에 모인 이방인들

나는 롬 2:28-29; 갈 3:7-9,28; 6:16; 엡 3:11-4:13; 뱀전 3:6 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어떤 한 민족/국가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이다.

**3:18 “북에서부터”** 이것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올 때 사용하는 경로를 가리킨다(참조, 31:8).

▣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창 12:1-3; 22:16-18; 암 9:15 을 보라. 야웨께서 이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에 속한 아브라함의 씨를 위하여 행하신다. 그 이유는 바로 야웨의 사랑 및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및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영원한 대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거나, 연기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19-20**

<sup>19</sup>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sup>20</sup>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19** 이 절은 새 연(즉, 19-20 절)의 시작이다. 이것은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1. 율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씨(즉, 이스라엘이 장자임)
2. 믿음에 따른 아브라함의 씨(참조, 사 63:16; 롬 2:28-29).

20 절은 1 항의 내용을 의미하지만, 19 절은 2 항의 내용을 의미한다. 16-18 절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19 절에 있는 마지막 두 동사는 맛소라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맛소라 학자들은 이것을 **단수형**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NET 성경(1295 쪽)은 동사의 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이 문맥에서 주님의 아내로 묘사된다. 또 여기서 사용한 은유적 표현은 (1) 아내가 아들들과 똑 같이 상속인이 됨과 (2) 그녀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임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21-23**

<sup>21</sup> 소리가 험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

<sup>22</sup>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sup>23</sup>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3:21 “소리”**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큰 애곡일 것이다.

1. 애곡함(BDB 113)

2. 간구함(BDB 337)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회개하고 있다

- 1. 그들의 길을 굽게 함 - **히필 완료형**, BDB 730, KB 796
- 2.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 - **칼 완료형**, BDB 1013, KB 1489, 참조, 2:32; 13:25

▣ “**헐벗은 산**” 이것은 *바알* 숭배의 장소를 풍자적으로 가리키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슬퍼함의 장소를 나타낸다(참조, 사 11:37).

3:22-23 이 두 절에는 화자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 1. 야웨
  - ㄱ. 돌아오라 - **칼 명령**
  - ㄴ. 내가 고치리라 - **칼 미완료형**
- 2. 신실하지 않은 아들들
  - ㄱ.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 **칼 완료형**
  - ㄴ.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 ㄷ.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즉, 다산숭배의 장소)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 ㄹ.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5 절에는 “신실하지 않은 아들들”의 말이 계속된다(즉, 그들의 회개)

- 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 **칼 청유형**
- ㅂ.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ㅅ.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범죄하여
- ㅇ.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칼 완료형**
- 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3:22 UBS **핸드북**은 다음의 단어들

- 1. 돌아오다(BDB 996, KB 1427)
- 2. 신실하지 않은(BDB 1000)
- 3. 신실하지 않음(BDB 1000)

모두 같은 히브리 자음인 **נש** (113 쪽)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한다.

3:23 “**진실로**” 이 부사(BDB 38 )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하는 말의 엄숙성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24-25**

<sup>24</sup>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sup>25</sup>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3:24 “**부끄러운 그것이**” 이것은 *바알* 숭배를 풍자적으로 가리키거나(참조, 11:13; 호 9:10), **몰락을** 숭배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그 이유는 “아들들과 딸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 2:23의 특별주제를 보라).

3:25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반역은 새로운 일 또는 현재 진행중인 일이 전혀 아니었다. 이일의 시작은 광야 유랑시기로 거슬러 간다(즉, 출 32 장).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가?
2.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은유적 표현은 무엇인가?
3.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회개하였는가? 왜 그렇게 보는가 또는 왜 회개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4. 19-25 절은 미래의 일인가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대한 내용인가?

# 예레미야 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유다가 침략을 인하여 위협받다			회개를 촉구함	
4:1-2 (1-2)	4:1-2 (1-2)	4:1-4 (1-4)	4:1-2	4:1-2 (1-2)
4:3-4 (3-4)	4:3-4 (3b-4)		4:3-4	4:3-4 (3-4)
	임박한 침략	북에서 오는 적	유다가 침략 받을 위협에 처하다	북쪽에서의 침략
4:5-9 (5-8)	4:5-6 (5b-6)	4:5-8 (5-8)	4:5-8 (5-8)	4:5-8 (5-8)
	4:7-8 (7-8)			
	4:9 (9)	4:9-10	4:9	4:9-12 (9-12)
4:10	4:10 (10)		4:10	
4:11-13 (13)	4:11-18 (11-12)	4:11-18	4:11-12	
			유다가 원수들에게 포위되다	
	(13)	(13-17)	4:13	4:13-18 (13-18)
4:14-18 (14-18)	(14-18)		4:14	
		(18)	4:15-17	
			4:18	
유다가 황폐하게 됨을 애곡함	국가의 암울한 장래를 인한 슬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슬퍼함	
4:19-22 (19-22)	4:19-22 (19-21)	4:19-22 (19-22)	4:19-22 (19-22)	4:19-21 (19-21)
	(22)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환상	4:22-28 (22-28)
4:23-26 (23-26)	4:23-26 (23-26)	4:23-28 (23-28)	4:23-31 (23-26)	
4:27-31 (27-31)	4:27-31 (27b-29)		(28-31)	
	(30)			
	(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룬 여러 시로 구성되어 있다. 5-31 절은 유다가 침략받음에 대한 여러 독립적인 시로 이루어져 있다.
- 나. 1-2 절은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3 장의 31-25 절과 관련을 가진다.
- 다. 유다가 반역하고, 이에 대하여 야웨께서 이방 국가들의 침략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이 6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단어와 구의 연구****개역개정 4:1-2**

<sup>1</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sup>2</sup>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4:1 “~려거든” 문자적으로 볼 때, 1-2 절에는 “~려거든”이 네 번 나온다. 이것은 언약의 조건적인 면을 나타낸다(즉, “만일...한다면, 그 때에는...” 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히브리 어근, *šbr*(BDB 996-1000)이 3:1-4:2 의 여러 행에서 여러 단어로 나타난다.

1. *šbr* - “돌아오다,” 3:1(2 회),7(2 회),10,12,14,19,22; 4:1(2 회)  
 - “돌려보내다,” 4:8  
 - “되돌아오다,” 4:28
2. *šbr*(BDB 1000) - “신실치 않은,” 3:14,29
3. *šbr*(BDB 1000) - “신실치 않은,” 3:6,8,11,12  
 - “되돌아가기,” 3:22

개인에 둔 강조점을 주목하라(참조, 3:1,4,7,10,19,20). 죄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 이상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 “이스라엘” 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호칭(BDB 975)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2. 야곱의 모든 자손을 일컫는 집합적 용어
3. 통일왕국이 주전 922 년에 분리된 후 북쪽의 열 지파를 일컫는 말. 그들은 주전 722 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때에 앗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갔다.

문맥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레미야서에서 2 항 또는 3 항이 역사적 배경과 관련없이 따로 떨어진 시로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 “가증한 것을” 이것은 문자적으로 “혐오스러운 것”(BDB 1055)으로서 우상들을 가리킨다. 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동사(BDB 626, KB 678, *칼 미완료형*, 문자적으로, “방황하다,” 참조, 창 4:12,14)는 매일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즉, 삶의 방법).

4:2 “맹세하면” 이 동사(BDB 989, KB 1396, *니팔 완료형*)는 말로써 하는 예배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오늘날 행하는 의식과 같은 종류이다(참조, 12:16; 신 6:13; 10:20; 사 65:16).

우상숭배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야웨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룎 10:9-13 의 내용 즉, 율 2:32 에서 인용한 본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행 2:21).

▣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것은 “맹세”의 내용을 이룬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감정을 따라 행하거나 혹은 예식상 하는 맹세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맹세를 가리킨다. 이것은 참된 회개를 나타낸다. 이 세 단어는 각각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1. 진실과(BDB 54,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정의와(BDB 1048,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3. 공의로(BDB 842,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사팔*)**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BDB 1047)이다. NIDOTTE 제 4 권 214 쪽은 이 단어의 분포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오경, 13%, 사람 재판관
2. 역사서, 34%, 사람인 지도자
3. 지혜문학, 22%, 하나님의 행하심
4. 예언서, 31%, 대부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이 있음

다음의 표를 보라.

재판장이신 야웨	재판장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이상적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실제 재판관들
2:4	9:7	1:17,21,23	3:2
3:14	11:3,4	26:8	5:7
4:4	16:5	56:1	10:2
5:16	32:1	58:2,8	59:4,9,11,14,15
28:6,17,26	40:14		
30:18	42:1,3,4		
33:5,22	51:4,5		
61:8	53:8		
66:16			

이스라엘은 야웨의 성품을 열방에게 나타내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따라서 야웨는 “이상적”인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즉,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 52:11-53:12)!

###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 4.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결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두 가지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4.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이것은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BDB 138, KB 159, *히트파엘 완료형*, 참조, 창 12:3; 18:18; 22:18; 26:41; 28:14).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이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나타낸다(참조, 출 19:5-6; 사 42:6; 49:6; 1:5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내용은 내가 창 12:3에 대하여 저술한 주석의 내용에서 다룬 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다.

NASB, NKJV,

NRSV, 페쉬타

NRSV 각주, JPSOA

TEV

TEV 각주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내가 너를 축복한 것 같이 자기들을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것이다”

NJB

70 인역

REB

REB 각주

“그리고 땅의 모든 무리가 너로 인해 자기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받기를 원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니팔 완료형*(BDB 138, KB 159)의 어근은 대개 *수동태*로 사용되지만(70 인역, NASB, “축복을 받다,” 참조, 18:18; 28:14), 22:18과 26:4에서는 *재귀형*(“자신을 축복하다”)인 *히트파엘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 *히트파엘*은 시간을 통해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할 수 있다. 창 11장에서 전세계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를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참조, 시 22:27; 66:4; 86:9; 사 66:23; 49:6; 행 3:25; 갈 3:8)! 또한 22:18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은 아브람을 사용해서 온 세계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다. 비록 노아의 후손들의 계획적인 반역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즉, 창 11장) 창 3:15에 기록된 전 인류에 대한 약속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일은

아브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람의 씨(즉 메시아, 참조, 갈 3:16)에 대해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예언으로 말씀하신 구속을 그의 후손 가운데 특별한 “한 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야웨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 일에는 우주적인 계획이 있었고 또 우주적인 계획이 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분”으로 오시는 그 유대인에게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말하고 있다.

▣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동사(BDB 237, KB 248)는 *히트파엘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야웨를 따르는 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게 된다(참조, 9:23-24). 사 45:20-25, 특히 25b 절에 나타나는 바 전세계에 미칠 놀라운 결과를 주목하라! 성경적인 믿음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한다!

**개역개정 4:3-4**

<sup>3</sup>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sup>4</sup>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4:3-8 이 연은 경고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단락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명령을 주목하라.

1. 3 절, “묵은 땅을 갈고” - BDB 644, KB 697, *칼 명령*(너희 마음을 예비하라는 은유적 표현임, 참조, 호 10:12)
2. 3 절, “파종하지 말라” - BDB 281, KB 28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부정의 뜻, “가시덤불”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임)
3. 4 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 BDB 557, KB 555, *니팔 명령*(마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 참조, 9:25-26)
4. 4 절, “가죽을 베고” - BDB 693, KB 747, *히필 명령*(“할례를 행하다”와 문학적 평행을 이룸)

야웨께서 심판을 경고하심에 비추어 볼 때(4c-f 절), 하나님께서는 침략에 대한 선언 뿐 아니라 침략을 명하고 계신다(5-8 절).

1. 5 절, “선포하며” - BDB 610, KB 665, *히필 명령*(여섯 명령의 처음 것으로서 알릴 것에 대한 내용임)
2. 5 절, “공포하여”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
3. 5 절, “이르기를” - BDB 55, KB 65, *칼 명령*
4. 5 절, “나팔을 불라” - BDB 1075, KB 1785, *칼 명령*
5. 5 절, “외쳐라” - BDB 894, KB 1128, *칼 명령*
6. 5 절, “크게” - BDB 569, KB 583, *피엘 명령*
7. 5 절, “이르기를” - 3 항과 같음

그들이 한 명령이 이제 모두 실행되고 있으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참조, 6c-7 절)

8. 5 절, “모이랴” - BDB 62, KB 74, *니팔 명령*, 참조, 8:14
9. 5 절, “우리가 들어가자” - BDB 97, KB 112, *칼 청유형*, 참조, 8:14
10. 5 절, “깃발을 세우라” - BDB 669, KB 724, *칼 명령*, (즉, 군기)

11. 6 절, “도피하라” - BDB 731, KB 797, **히꼐 명령**
12. 6 절, “지체하지 말라” - BDB 763, KB 84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즉, 기다리지 말라)**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슬퍼할 것을 요구한다.

13. 8 절, “굽은 베를 두르고” - BDB 291, KB 291, **칼 명령(2:37의 특별주제를 보라)**
14. 8 절, “애곡하라” - BDB 704, KB 763, **칼 명령**
15. 8 절, “울부짖어라” - BDB 410, KB 413, **칼 명령**

왜 그러한가? “여호와와 맹렬한 노”가 임하고 있으며(참조, 4:26; 12:13; 25:37,38; 30:24; 49:37; 51:45)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28 절).

**4:3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특징짓는다(즉, 겔 18 장). 성경적 믿음은 공동체적이면서, 또한 각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요구한다.

▣ **“너희 묵은 땅을 갈고”** 3 절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준비하는 농사 일과 관련을 가진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기경한 밭, 즉 그 위에 눈과 귀를 통하여 떨어지는 것이 자랄 수 있는 상태와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러한 생각을 지속하여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의 상태가 된다!

회개는 땅을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된 상태, 즉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교체하고 순종하기 위한 준비가 됨을 뜻한다.

**4:4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것은 의식 자체가 효과가 있는/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의 내적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한다(참조, 신 10:12; 30:6).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또 다른 예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1. 귀, 렘 6:10
2. 입술, 출 6:12,30
3. 심장, 신 10:16
4. 육체, 창 17:14

▣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이것은 반복되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17:4; 21:12).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숙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습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습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램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벴후 3:7-10; 계 8:7; 13:13; 16:8)
- 라. 성경에서 사용한 다른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 “그것을 끝 자가 없으리라” 사 1:31; 66:24; 암 5:6; 마 3:12; 막 9:43,48 을 보라.  
다음의 특별주제에서 게헨나에 대한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I. 구약

-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늘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밧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겔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합 2:5
  7. *르파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II. 신약

-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 나. *하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벵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예녹 I서)

라. *게헨나*

1.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락*(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예녹 I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인 개념, 마 5:29-30; 18:9
  - ㅁ.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ㅂ.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ㅅ.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벵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마. *스올*, *하데스*, *게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데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데스*(무덤)를 *게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 의 비유이다 (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 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데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벧전 3:18-22.

#### IV. 천국

-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의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 장; 계 21-22 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벧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일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인 천국). 고전 15 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 과 65:17 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 V. 도움이 되는 자료

- 가. 윌리엄 헨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나. 모리스 롤링스, *죽음의 문 너머*

#### 개역개정 4:5-9

- <sup>5</sup>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sup>6</sup>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sup>7</sup>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 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sup>8</sup>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굶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와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들이지 아니하였음이라

<sup>9</sup>여호와와 말씀이나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4:5 “나팔을 불라” 이것은 쇼파르라는 단어이다. 전쟁을 인하여 또는 종교적 행사를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불었다. 5-9 절은 파숫군의 시이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히브리어에는 뿔/나팔과 관련된 단어가 4 가지 있다.

1. “그 수양의 뿔”(BDB 901) - 소리를 내는 도구로 뿔, 참조, 수 6:5. 같은 단어가 창 22:13 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한 뿔이 걸려 있던 양에 대해 사용되었다.
  2. “나팔”(BDB 1051) - 들 양(야생 염소)을 말하는 앓시리아 단어이다. 이것은 출 19:16,19 에 있는 시내산/호렙산에서 사용되었다; 1 항과 2 항은 수 6:5 에서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배와 전투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다(즉, 여리고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참조, 6:4).
  3. “수양의 뿔”(BDB 385) - 수양을 말하는 페니키아어(참조, 6:4,6,8,13). 이것은 또한 희년을 나타냈다(참조, 레 25:13,28,40,50,52,54; 27:17,18,23,24).
-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다. 미쉬나[RH 3.2]는 소의 뿔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양, 염소, 또는 영양)
4. “나팔”(BDB 348) - 아마도 “내뿔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똑바른 뿔(동물의 뿔처럼 굽지 않은 것)를 뜻한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 ㄱ. 예배 의식에(참조, 민 10:2,8,10)
    - ㄴ. 군사적 목적에(참조, 민 10:9; 31:6; 호 5:8; 스 3:10; 느 12:35,41)
    - ㄷ. 왕의 용도로(참조, 왕하 11:4)

이러한 금속 뿔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도 나타난다; 또한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 *유대 고대사* 3.12.6 에서 설명한다.

4:6 “북방에서 재난과” 북방은 악을 상징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방향이 메소포타미아의 열강이 침략하여 올 때에 이용한 방향이었기 때문이다(즉, 앓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참조, 1:14,15; 6:1,22; 10:22; 50:3; 사 41:25).

4:7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 왔으되”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의 천막들을 쳤다”를 뜻한다. 이것은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II 세를 가리킨다. 앓시리아가 주전 722 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듯이, 그는 주전 605, 597, 586, 582 년에 유다를 침략하였다.

4:9 “그 날에” 이 구는 야웨께서 방문하실 미래의 특별한 날을 가리키는 구였다(참조, 11a 절). 이것은 축복이나 심판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심판을 위한 날로 제시된다.

**특별주제: 그 날**

“그 날” 혹은 “그 날에”라는 이 구는 8 세기의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임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1:11	1:5		1:14 (2)		2:4
	2:3		2:16		3:6
2:15			3:14	4:6	
2:16			5:18 (2)		5:10
2:21	3:18 (2)		5:20		7:4
	5:9		6:3	7:11 (2)	
	7:5		8:3	7:12	
	9:5		8:9 (2)		
	10:14		8:10		
		9:11	8:13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고 하신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함의 날을 주신다! 구속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을 갖게 되신다. 창조의 목적(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이 성취될 것이다!

▣ “왕과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이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한 지도자들이다(참조, 1:18; 2:8,26; 5:31; 6:13; 8:1,10; 13:13; 14:18; 23:33-34). 유다에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없었다!

▣ 평행을 이루는 동사를 주목하라.

1. 낙심할 것이며 - BDB 1, KB 2, **칼 미완료형**
2. 놀랄 것이며 - BDB 1030, KB 1563, **니팔 완료형**(7 절에 나오는 “황폐하게 되다”와 관련이 있는 형태임)
3. 깜짝 놀라리라 - BDB 1069, KB 1744, **칼 미완료형**(예레미야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침략을 당할 때에 지도자들(종교 및 정치)이 완전히 낙심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된다. 그들의 눈은 우상숭배 및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가리워졌다(참조, 10 절); 그들이 야웨를 발견할 수 없다! 지도자들이 이끄는대로 백성들이 간다!

**개역개정 4:10**

<sup>10</sup>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4:10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10 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관하여 예레미야가 야웨께 언급하는 내용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참조, 12:1; 15:17-18; 20:7-9).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이 침략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참조, 6:14; 8:11; 14:13; 23:16-17;

28:1 이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허용하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듣는 이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해석하기 어려운 이 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이사야가 전한 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사야의 예언을 백성들이 붙잡고 있다는 설명이다(참조, 사 36-39 장). 이사야서의 약속이 언약의 조건적인 내용(즉, “만일...하면, 그 때에는...” 참조, 1-2 절)임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상기시키려 하고 있었다. 유다가 언약의 조건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언약에 따른 축복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저주를 그들이 거둘 것이다(참조, 레 26 장; 신 28-29 장).

▣ “생명에” 이것은 *네페스*(BDB 659, 참조, 창 2:7[사람의], 2:19[짐승의])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숨을 쉬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가리킨다(“숨”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관련이 있음).

**개역개정 4:11-13**

<sup>11</sup>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sup>12</sup>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sup>13</sup>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4:11 “뜨거운 바람” 이것은 열풍으로 불리는 사막 바람으로서, 구약에서는 종종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즉,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참조, 12 절).

▣ “헐벗은 산에서”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바알* 숭배의 장소였다(참조, 2:20; 3:2,6; 4:11; 7:29; 14:6; 17:2; 사 57:7; 신 12:2).

▣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 바람이 상당히 강하고 뜨겁기에 추수한 곡식을 키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었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마지막 항목은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절차를 뜻한다.

4:12 “나를 위하여 오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보내셨다; 그 심판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교국가들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언약을 불순종함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참조, 레 26 장; 신 28-29 장)!

4:13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즉, a-c 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묘사이다.

1. 우리에게 화 있도다 (BDB 17, 참조, 31 절; 6:4; 10:19; 13:27)

2. 우리는 멸망하도다(BDB 994, KB 1418, *푸알 완료형*, 같은 동사가 4:20; 9:19; 10:20; 48:1,15,20; 49:3,10 에 나온다)

**개역개정 4:14-18**

<sup>14</sup>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sup>15</sup>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16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 그들이 받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8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4:14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이 동사(BDB 460, KB 459, *피엘 명령*)는 더러워진 의복을 빨래함을 암시한다. 이것은 회개와 깨끗게 함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시 51:2,7; 사 1:16). 이것은 켈 18 장과 마찬가지로, 야웨께 돌아와 자신의 길을 바꾸라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참조, 3-4 절).

▣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히브리 동사(BDB 446, KB 448)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신체적 구원
2. 영적으로 용서를 받음

임하고 있는 야웨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유다에게 필요하였다!

**특별주제: 구원(예슈아)**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욥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체적 영적인 구원의 개념은 은 2:9-10 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계된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구원은 야웨께서 원래 의도하신대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제와 교제권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온전성을 뜻한다!

▣ “악한 생각” 이것을 가장 잘 예시하는 본문은 13:27 일 것이다.

4:15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이 지파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였다. 단 지파는 불신앙을 인하여 원래 남쪽에 할당받은 지역을 떠나(참조, 수 19:40-48) 북쪽으로 이주하였다(참조, 삿 18 장).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약속의 땅 전체를 일컫는 구가 되었다(참조, 삿 20:1; 삼상 3:20; 삼하 3:10; 17:11; 24:2; 대하 30:5; 암 8:14).

▣ “에브라임 산에서”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있는 산지(즉, 산이 많은 곳)를 가리킨다. 이 장소는 에브라임이 할당받은 지역이었다(참조, 수 17:15; 19:50; 20:7). 에발 산과 그리심 산(즉, 사마리아)이 이 지역에 속하였다.

단과 에브라임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이제 멸망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참조, 16-17 절).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4:16 이 절은 야웨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이 다가옴을 알리라는 두가지 명령으로 시작된다.

1. 전하라 - BDB 269, KB 269, *히필 명령*(이것은 용병으로 구성된 침략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16c 절)
2. 알리라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

단에서 오는 소리(15 절)는 (1) 침략자들(또는 유다를 에워싼 나라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음을 말하는 소리이며 (2) 예루살렘에게는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소리이다!

▣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이 문맥에서 사용한 동사형(BDB 665, KB 718, *칼 능동 분사*)은 “에워싸다”를 의미한다(BDB 666, 5 항, 참조, 사 1:8; 겔 6:12). 이것은 대개의 경우 “적들”로 번역되었다. UBS *핸드북*(133 쪽)은 이들을 바벨론 군대가 미리 보낸 정찰부대로 설명한다.

4:17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이 문맥에서 이 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내가 모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TEV 는 이것이 추수를 앞두고 밭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포위된 성을 아무도 빠져 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자들을 의미한다.

UBS *핸드북*(134 쪽)은 이 표현이 농작물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움막)을 침략해 오는 군대의 막사와 연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야웨께서 느끼시는 인격적 모욕감을 주목하라!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남편이시고 왕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행하는 반역이었다! 5:20-29 은 적합한 태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본문일 것이다.

“거역했다”라는 동사(BDB 598, KB 632, *칼 완료형*)는 5:23; 애 1:18,20(2 회); 3:42 에서도 사용되었다. 한편, 이 단어의 동의어(BDB 833, KB 981)가 2:8,29; 3:13; 33:8; 애 3:42 에서 사용되었다.

4:18 언약백성이 침략을 당하여 멸망하고, 또 언약의 땅과 성읍에서 사로잡혀가는 일은 바로 그들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겪는 일이었다. 야웨께서는 그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애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뱀전 1:17; 계 2:23; 20:12; 22:12).

▣ “그 고통이” 이것은 그들이 한 반역의 결과이다(참조, 2:19; 암 8:10). 욥 20:11-17 을 보라; 죄는 처음에는 달게 느껴지지만, 독이 되어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바로 그들의 존재(즉, 심장)에 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뱃속 깊이 죄에 물들었다!

개역개정 4:19-22

<sup>19</sup>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sup>20</sup>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sup>21</sup>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sup>22</sup>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4:19-22 이것은 유다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참조, 호 11:8-9), 하나님께서 참으로 느끼시는 바를 나타낸다(22 절).

■ “심령” “심령”이라는 용어는 “창자”(BDB 588)를 뜻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몸의 아래 쪽에 있는 내장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하였다(BDB 589, 5 항).  
 “심령”과 “심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

**특별주제: 마음**

헬라어 *카르디아*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렘*(BDB 523)에 상응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킹리치, 댕커의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 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후 1:5; 딤후 2:22; 벘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력,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벘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 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엡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7, 신 6:5 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가지 특이한 용법은 다음과 같다: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 (또한 호세아 11:8-9 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ㄹ. 겔 18:31-32, “새 마음”
- ㅁ. 겔 36:26, “새 마음” 대 “돌로 된 마음”

4:19

NASB	“내가 비통에 잠겼다”
NKJV	“나는 내 심장에 아픔이 있다”
NRSV	“내 고민이 얼마나 큰지”
TEV	“내가 고통을 견딜 수 없다”
NJB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친다”
JPSOA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이 동사는 다음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 1. *홀* - BDB 296, KB 297, *칼 청유형*, “몸부림치다”
- 2. *야할* - BDB 403, KB 407, *칼 청유형*, “기다리다”

이 내용은 빌, 벡크스, 스미스가 공저한 구약의 문법적 분석 안내(개정판)에서 취한 것이다(546 쪽). UBS 본문 프로젝트와 AB 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나팔 소리와” JPSOA 는 맛소라 본문에서는 “오, 나의 존재인 너희들이 들으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 본문의 모음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내가 뿔들이 요란하게 내는 소리를 듣는다”(931 쪽).

4:20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레가*, BDB 921)라는 구의 모음을 바꾸면 “갈가리 찢기다”로 번역된다(참조, 70 인역, NEB). 이 뜻이 평행법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하게 여겨진다.

NET 성경(1298 쪽)은 이 절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유다의 방어가 약함
- 2. 개인의 가정이 파괴됨(고대의 문화와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의 사용임)

UBS *헨드북*(137 쪽)은 “장막”과 “휘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4:21 “깃발”과 “나팔소리”는 군대에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 여기서는 침략자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시한다(참조, 19 절).

이 절에 두 동사가 사용되었다

- 1. 보다 -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를 가짐
- 2. 들다 - BDB 1033, KB 1570, *칼 청유형*

4:22 이 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에게 실망하고 계심을 반어법적인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하게 제시한다.

- 1.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 2. 내 백성은 어리석은 자이다(BDB 17)
- 3. 내 백성은 지각이 없다
- 4. 내 백성은 미련한(BDB 698) 자식이다
- 5. 내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6. 내 백성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내용은 5:21 에서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임을 주목하라.

개역개정 4:23-26

<sup>23</sup>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sup>24</sup>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sup>25</sup>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sup>26</sup>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4:23-26 이 연은 창조시의 혼란이 있는 상태를 사용하여(즉, 혼돈하고 공허함, 참조, 창 1:2; 창 1:3 이전에는 “하늘에 빛이 없었다”), 외국 군대(메소포타미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됨을 묘사한다.

창조시 처음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듯이, 이제 약속의 땅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언제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여겨졌다!(참조, 27 절).

또한 “내가 . . . 본즉”(BDB 55, KB 65, 칼 완료형)이라는 구문이 네 번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4:25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것은 맹금류 조차 먹을 것(즉, 전쟁이나 침략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없어 떠나갔음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4:27-31

<sup>27</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sup>28</sup>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도  
<sup>29</sup>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sup>30</sup>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sup>31</sup>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혈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4:27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심판의 때에 가질 소망을 제시한다(참조, 5:10,18; 30:11; 46:28)!

4:28 이 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음을 나타낸다(참조, 23:20; 30:24; 민 23:19).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훈련하심에 있어서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뉘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즉, 히 12:5-13).

28 절은 야웨의 피조물(즉, 땅과 하늘)을 의인화하여 말한다. 먼저 지으심을 받은 두 피조물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할 심판을 인하여 애통한다(또한 20c, d 절).

4:29 이 절은 침략군이 나라를 휩쓸어 버릴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묘사이다. 성벽이 없는 작은 도시들은 방어벽이 없었기에 그들은 집과 가게를 버려두고 피해야 했다. 그들은 숨거나 피난처를 찾아 성벽이 있는 곳으로 피해야 했다.

4:30 이것은 유다를 창녀로 제시한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동맹을 맺은 강대국을 그들이 사랑한 연인으로서 말한다.

4:31 이 암시는 출산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낳기 위한 고통이다! 유다가 우상숭배를 하고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멸망과 죽음과 포로됨에 처하였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회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네 가지 사항을 말하라(1-2 절).
2. 4 장에는 몇 개의 시가 있는가?
3. 4 장이 제시하고자 하는 중심사상을 당신 자신의 말로써 간략하게 설명하라.

# 예레미야 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경건치 않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의인 심판	심판을 초래한 부패 (5:1-6:30)	예루살렘의 죄	침략을 받는 이유
5:1-3 (1-3)	5:1-2 (1-2)	5:1-3 (1-3)	5:1-11 (1-11)	5:1-6
	5:3 (3)			
5:4-6 (4-6)	5:4-9 (4-5a) (5b-6)	5:4-5 (4-5)		
		5:6 (6)		
5:7-9 (7-9)	(7-9)	5:7-9 (7-9)		5:7-11
5:10-13 (10-13)	5:10-13 (10-11) (12-13)	5:10-13 (10-13)	주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다	
심판을 선언하다			5:12-14	5:12-17
5:14-17 (14-17)	5:14-17 (14-17)	5:14-17 (14-17)		
			5:15-17	형벌을 통하여 얻는 교훈
5:18-19	5:18-19	5:18-19	5:18-19	5:18-19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시다	기근의 때에(?)
5:20-29 (20-29)	5:20-29 (20-25)	5:20-31 (20-29)	5:20-25	5:20-25
	(26-29)			침략의 주제를 다시 다룸
			5:26-28	5:26-31
			5:29-31	
5:30-31 (30-31)	5:30-31 (30-31)	(30-3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제 2 장은 유다의 종교적 문제에 대하여, 제 5 장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다룬다.
- 나. 제 4-6 장은 주제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된다(즉,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며, 포로로 잡혀간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1-3

<sup>1</sup>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sup>2</sup>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sup>3</sup>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5:1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을 찾기 위하여, 1 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명령들을 주목하여 보라(명백히, 예레미야를 제외한 사람들 가운데서 찾는 것임).

1. “빨리 다니며” - BDB 1001, KB 1439, **폴랴 명령**
2. “찾아보고” - BDB 906, KB 1157, **칼 명령**
3. “알라” - BDB 393, KB 390, **칼 명령**
4. “찾으면” - BDB 134, KB 152, **피엘 명령**

언약백성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주제는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참조, 사 59:16; 63:5; 겔 22:30).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이것이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시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유다에서 횡횡하는 죄에 대하여 사용한 회화적이며 과장법적 묘사이다! 신실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즉, 요시아, 그의 자문관들, 예레미야, 바룩 등).

▣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이들은 4:1-2 에서 언급한 신실한 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뜻한다. 두 본문에서 사용한 “만일...하면, 그 때에는”의 구문은 이러한 자들이 적음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이 법칙은 예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여러 그룹과 관련된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유다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1. 족장들
2. 약속들
3. 언약
4. 지도자들(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등)
5. 선지자들
6. 야웨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

▣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동사(BDB 699, KB 757)는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전체(즉, 도시 또는 나라)에 대한 용서를 가져오기를 주목하라. 확실히 이것은 과장적이지만(참조, 창 18:26,32), 다음 내용을 잘 드러낸다

1. 유다의 죄
2. 야웨의 마음

70 인역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를 추가하여,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때때로 쉽지 않다.

공동체에 대한 이 히브리적 사상을 수 7 장 및 대하 7:14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전체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셨지만(참조, 롬 5:12-21), 아담은 나쁜 영향을 주었다(참조, 창 3 장).

5:2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였고(출 20:7; 레 19:12 의 위반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님되심을 부인하였다(참조, 사 29:13). 이것은 야웨라는 성호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이 성호는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참조, 출 3:14). 1:2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5:3 야웨께서 신실한 자를 한 사람도 찾으실 수 없으셨기에, 이 절에서는 평행을 이루는 시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말한다(모두 **완료형**임).

1.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2.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3.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참조, 5e,f 절)

그들이 회개(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하는 일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린다!

위 1 항의 두 번째 동사에 대한 설명을 보라. 이 단어에 있어서 두 어근을 고려할 수 있다.

1. **할라** - BDB 317, KB 316, “약해지다” 또는 “아프게 되다”
2. **홀** - BDB 296, KB 297, “비통해하다”

▣ “진리” 이 히브리 단어는 “신실함”(BDB 53, 참조, 1e 절; 합 2:4)을 뜻한다.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진리는 어떤 것의 정확한 사실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경건하며 신실한 삶을 뜻한다.

▣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굳게 하여”(피엘 완료형, BDB 304, KB 302)는 종종 은유적으로 사람이 마음을 강박하게 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8:15; 겔 3:7-9). 이 문맥은 이 구가 언어유희임을 나타낸다.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를(칼 부정사 연계형, BDB 996, KB 1427) 거부하였다(피엘 완료형, BDB 549, KB 540).

개역개정 5:4-6

<sup>4</sup>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sup>5</sup>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멩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sup>6</sup>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엇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5:4-6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반역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야웨께서 선언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로 되돌리기 위하여 말할 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유다의 영적 상태
  - ㄱ. 이 무리는 비천하고(BDB 195, 이 단어는 “위대한”[BDB 152, 5 절]의 정반대임)
  - ㄴ. 어리석기만 하여
  - ㄷ.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즉, 고의적인 무시와 위법)
2. 예레미야의 제안
  - ㄱ. 내가 지도자들(참조, 31 절)에게 가서 말하겠다(둘 다 청유형임)
  - ㄴ.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상기시키겠다
  - ㄷ.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범한 죄를 알리겠다
    - (1) 일제히
    - (2) 멩에를 꺾고
    - (3) 결박을 끊었다

5:4 “길...법” 이 두 단어(BDB 202 및 1048)는 하나님의 계시를 묘사하기 사용한 여러 용어 가운데 일부이다.

4-5 절이 나타내는 핵심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지도 계층에 속한 자들’은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알고 있음을 말한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신명기와 시편에서)**

- I. “규례” BDB 349, “법령, 명령, 혹은 규정”  
가. 남성형, **후** - 신 4:1,5,6,8,14,40,45; 5:1; 6:1,24,25; 7:11; 11:32; 16:12; 17:19; 26:17; 27:10; 시 2:7; 50:16; 81:4; 99:7; 105:10,45; 148:6  
나. 여성형, **후카** - 신 6:2; 8:11; 10:13; 11:1; 28:15,45; 30:10,16; 시 89:31; 119:5,8, 12,16,23,26,33,48,54,64,71,80,83,112,124,135,145,155,171
- II. “율법” BDB 435, “가르침”  
- 신 1:5; 4:44; 17:11,18,19; 27:3,8,26; 28:58,61; 29:21,29; 30:10; 31:9; 시 1:2; 19:7; 78:10; 94:12; 105:45; 119:1,18,29,34,44,51, 53,55,61,70,72,77,85,92,97,109,113,126,136,142,150,153,163, 165,174
- III. “증거” BDB 730, “하나님의 법”  
가. 복수형, **에다** - 신 4:45; 6:17,20; 시 25:10; 78:56; 93:5; 99:7; 119:22,24,46,59, 79,95,119,125,138,146,152,167,168  
나. **에돏 / 에다** - 시 19:7; 78:5; 81:5; 119:2,14,31,36,88,99,111,129,144,157
- IV. “규칙” BDB 824, “명령”  
- 시 19:8; 103:18; 111:7; 119:4,15,27,40,45,56,63,69,78,87,93,94, 100,104,110,128,134,141,159,168,173
- V. “명령” BDB 846  
- 신 4:2,40; 5:29; 6:1,2,17,25; 8:1,2,11; 10:13; 11:13; 15:5; 26:13, 17; 30:11,16; 시 19:8; 119:6,10,19,21,32,35,47,48,60,66,73,86, 96,98,115,127,131,143,151,166,176
- VI. “심판/규례” BDB 1048, “지배” 혹은 “정의”  
- 신 1:17; 4:1,5,8,14,45; 7:12; 16:18; 30:16; 33:10,21; 시 10:5; 18:22; 19:19; 48:11; 89:30; 97:8; 105:5,7; 119:7,13,20,30,39,43, 52,62,75,84,102,106,120,137,149,156,160,164; 147:19; 149:9
- VII. “그의 길” BDB 202,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게 삶의 양식으로서 주시는 지침  
- 신 8:6; 10:12; 11:22,28; 19:9; 26:17; 28:9; 30:16; 32:4;  
시 119:3,4,37,59
- VIII. “그의 말씀” BDB , “”  
가. BDB 202 - 신 4:10,12,36; 9:10; 10:4; 시 119:9,16,17,25,28,42,43,49,57,65, 74,81,89,101,105,107,114,130,130,147,160,161,169  
나. BDB 57  
1. “말씀” - 신 17:19; 18:19; 33:9; 시 119:11,67,103,162,170,172  
2. “약속” - 시 119:38,41,50,58,76,82,116,133,140,148,154  
3. “명령” - 시 119:158

▣ “**멍에**” 랍비들은 율법의 규례를 지칭하기 위하여 이 단어(BDB 760)를 사용하였다(참조, 마 11:29).

▣ “**결박을 끊은지라**” 이것은 멍에를 제자리에 있게 하는 여러 줄이다. 이것도 이미 드러난 그들의 반역 및 언약을 범한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5:6 이 절은 야웨의 심판을 맹수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다(맹수는 침략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임, 참조, 2:15; 4:7).

1. 사자
2. 이리
3. 표범

유다가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반역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1. 허물이 많고(BDB 833)
2. 반역이 심함(2:19의 특별주제를 보라)

6 절의 처음 세 행과 마지막 두 행 사이에 평행법이 나타남을 주목하라.

▣ “**반역**” 2:19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7-9

<sup>7</sup>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sup>8</sup>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sup>9</sup>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5:5-7 유다의 죄 및 이에 대하여 야웨께서 행하실 일을 야웨께서 말씀하신다.

1. 그들의 죄
  - ㄱ. 네 자녀가 나를 버렸다(참조, 1:16)
  - 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4:2 및 5:2과 정반대임)하였다(참조, 2:11)
  - ㄷ. 그들이 간음하였다(즉, 우상숭배)
  - ㄹ. 다산숭배를 위하여 여인들과 관련을 가지는 모든 종류의 모임에 참석하였다(참조, 3:8-9)
2. 야웨께서 이에 대하여 행하실 일
  - ㄱ.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1절과 반대됨)
  - 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계시와 축복으로써)
  - ㄷ.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9절)

5:7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우상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맹세하였으며...배불리 먹인즉” 여기에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1. *샤바* - 맹세하다(BDB 989)
2. *샤바* - 배불리 먹다(BDB 959)

“맹세하다”가 이 두 행에서 각각 사용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행 모두 다산송배를 위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거짓된 맹세를 나타내게 된다.

▣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맛소라 본문에서는 이 단어(BDB 151, KB 177)가 *히트포엘*형으로 되어 있어,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1. 깊은 상처/베임 - 이교도의 예배를 반영하다(참조, 신 14:1; 왕상 18:28; 렘 16:6; 41:5; 47:5; 또한 호 7:14 도 이 경우에 속함)
2. 군대나 당을 이루는 모임(참조, 호 7:14; 미 5:1, 여기서는 그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을 나타냄)

70 인역에서는 “숙박한”으로, 페쉬타역에서는 “서로 싸웠다”로 되어 있다. 고대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약간의 혼동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5:8 여기서 인간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하여 동물계에 대한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발정기의 짐승과는 다르게 행하여야 한다!

이 문맥에 있는 처음 두 동사의 의미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1. “배불리 먹은” - BDB 402, KB 404, *썬알 분사*, 이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되었다. BDB 에서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어근과 평행을 이루는, “고환”으로 이 단어를 제시한다. KB 에서는 또 다른 아랍어 어근을 사용하여, “발정하다”로 제시한다
2. “건장한” - BDB 1013, KB 1488, *히필 분사*, 이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되었다. KB 에서는 “고환을 가진”으로 제시한다(*에셀* = 고환, 참조, 레 21:20)

70 인역에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로 되어 있다. 시로 된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기억하라

1. 문맥(즉, 연)
2. 평행법
3. 책 전체적 문맥
4. 비슷한 히브리 어근
5. 동족어 어근
6. 상식

개역개정 5:10-13

- <sup>10</sup>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와 것이 아님이니라
- <sup>11</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 <sup>12</sup>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 <sup>13</sup>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5:10-13 이 연은 7-9 절과 매우 비슷하다. 이 두 연은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독립된 시로서, 수집되어 이곳에 위치하도록 편집된 경우 일 것이다.

10 절에 나오는 여러 명령형을 주목하라.

1. “올라가라” - BDB 748, KB 828, *칼 명령*
2. “무너뜨리라” - BDB 1007, KB 1469, *피엘 명령*,
3. “다 무너뜨리지 말라” - BDB 793, KB 889, *칼 명령*, 부정된 *칼 미완료형*으로서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참조, 4:27c; 5:18; 30:11; 46:28
4. “꺾어 버리라” - BDB 693, KB 747, *히필 명령*

또한 11 절에 나오는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가 강조를 나타내는 구문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93, KB 108)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10b 절은 희망을 나타낸다(참조, 4:27; 5:10,18; 30:11; 46:28)! 신실한 남은 자들은 살아 남는다.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가지 의미**

“신실한 남은 자”라는 구약의 개념은 예언서(주로 8 세기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포로 생활에서 생존한 사람들(예, 사 10:20-23; 17:4-6; 37:31-32; 렘 42:15,19; 44:12,14,28; 암 1:8)
2. 야웨께 계속 신실한 자들(예, 사 4:1-5; 11:11,16; 28:5; 율 2:32; 암 5:14-15; 미 2:12-13; 4:6-7; 5:7-9; 7:18-20)
3. 종말에 있을 새롭게 됨과 새 창조에 참여할 자들(예, 암 9:11-15)

포로로 잡혀가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포로로 잡혀가 생존한 자들) 가운데 오직 일부(신실한 열심을 가진 자들)만 유다로 돌아오게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 장의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6 절).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이셔서 자신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내신다(예, 기드온, 삿 6-7 장).

5:10 “여호와와 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것은 “포도가지”를 뜻한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둔 농업적 풍요를 *바알*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여겼다! 그 결실이 바뀌어질 것이다(참조, 12 절; 레 26 장; 신 27-29 장).

5:11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반역을 행했다(참조, 3:6-10).

5:12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동사*(BDB 471, KB 469, *피엘 완료형*)는 언어유희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대다”를 뜻하여, 7-8 절에서 지적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인 의미를 가진다. 이 표현은 백성들이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다(참조, 수 24:27; 율 8:15; 사 59:13). 이것은 사 29:13 의 실제적인 예이다! 그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여호와께서는 계시다,” 2 절), 실제로는 다산승배 및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행하였다.

▣

NASB	“그가 아니하니”
NKJV	“이것은 그가 아니니”
NRSV	“그는 아무 것도 아니니”
TEV	“그가 아무 일도 하려 아니하니”
TEV(각주)	“우리가 그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NJB “그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JPSOA “이것은 그렇지 않다”  
 REB “그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역설적인 내용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즉, 신 32:39; 사 43:13)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즉, 행동을 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겔 8:12; 9:9; 습 1:12), 거짓된 다산의 신들에게는 찬송을 하며 그것들을 신뢰한다!

이 간략한 구가 의미하는 바는 “야웨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결코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AB, 40 쪽)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한 예언(참조, 사 5-12 장; 36-37 장) 및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이였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였다면, 이사야가 한 선언은 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기에, 언약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판(참조, 레 26 장; 신 27-29 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5:13** 야웨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 “바람”(BDB 924), 즉, 야웨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13b 절).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즉, 5:31; 14:13-15,23; 또한 28 장에서 제시한 하나나).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다! 마음이 귀를 주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13 절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관한 백성들의 언급; 한편 12 절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언급이다
2. 이것은 “평화,” “안전”을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다!

12 절의 마지막 행은 2 항의 설명을 지지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시로된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해석을 좌우한다. 교리적 접근은 분명히 부적합하다. 세세한 내용에 매달리기 보다, 각 연(또는 여러 연)의 중심진리를 밝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개역개정 5:14-17**

<sup>14</sup>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sup>15</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sup>16</sup>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sup>17</sup>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5:14-17 야웨(“여호와, 만군의 주,”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께서 반역하는 자기 백성(특별히, 그들이 12 절에서 한 말을 인하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이방의 이교 민족을 데려 오신다(참조, 사 5:26-30). 14 절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야웨의 말씀임이 분명하다(UBS *핸드북*, 163 쪽). 이 나라들에 대한 묘사를 주목하여 보라.

1. 먼 곳에서
2. 강한 민족(또는 “강력한,” 참조 16 절)
3. 오랜 민족
4.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참조, 사 28:11)
5. 강한 군대를 가진 민족
  - ㄱ. 너희의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 ㄴ. 너희의 자녀를 삼키며
  - ㄷ. 너희의 가축을 먹으며
  - ㄹ. 너희의 밭을 삼키며
  - ㅁ. 너희의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5:16 맞소리 본문에는 “전통”을 뜻하는 *아쉬파트*(BDB 80)로 되어 있다. 그러나 15 절의 마지막 행에서는 언어를 뜻하는 *쇼파트*(“그의 입술”을 뜻함, 참조, NEB, REB)로 되어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앞의 것에 B 등급을 준다. 대부분의 영어역본에서는 이 본문을 취하고 있다.

70 인역에서는 이 절에서 “모두 강하다”라는 내용만 나타낸다.

**개역개정 5:18-19**

<sup>18</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sup>19</sup>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5:18-19 이것은 다음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과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다

1. 신실한 남은 자
2. 자신의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씨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라는 구(참조, 4:27; 5:10)는 1 항을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과 포로됨을 어떻게 허용하실 수 있으신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야웨께서 자신의 예언자(19 절)에게 지시하고 계신다(참조, 16:10-13; 신 29:24-28; 왕상 9:8-9).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그들이 포로됨은 야웨께서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행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개역개정 5:20-29**

<sup>20</sup>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sup>21</sup>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sup>22</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sup>23</sup>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sup>24</sup>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sup>25</sup>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sup>26</sup>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덮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sup>27</sup>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변창하고 거부가 되어  
<sup>28</sup>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sup>29</sup>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20-29 이것은 야웨의 백성(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한 죄에 대한 또 다른 연/시이다(20 절). 이 시는 사 6:9-10 에 나오는 회화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것은 4:5 과 마찬가지로 “듣고 응답하다”와 관련을 가진 여러 종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

1. “선포하며” - BDB 616, KB 665, *히팔* 명령
2. “공포하여” - BDB 1033, KB 1570, *히팔* 명령
3. “이르기를”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언약백성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주목하여 보라(21-23 절).

1. 어리석고 - BDB 1, KB 1, 참조,
2. 지각이 없으며(문자적으로는 “심장이 없다”)
3.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4.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5.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 BDB 431, KB 432, 참조, 1:8; 3:8
6.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 BDB 296, KB 297, 참조, 3 절; 4:19,31; 51:29
7. 배반하며 - BDB 710, KB 770, 참조, 6:28; 신 21:18
8.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 BDB 598, KB 632, 참조, 4:17; 신 21:18
9. 이미 배반하고 - BDB 693, KB 747, 참조, 6:28; 15:5; 17:5; 32:40
10. 갔다 - BDB 229, KB 246

5 항과 6 항에서 개인적 요소(“나를”과 “내 앞에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5:22c-f 하나님은 이 시의 여러 행과 24 절의 c-f 행에서 행성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신다. 자연을 주관하는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다산송배의 거짓된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시다.

야웨께서 바다의 한계를 세우심에 대하여 묘사하는 본문으로서, 이와 평행을 이루는 특별한 본문은 욥 38:8-11 및 시 104:5-9 이다.

23 절은 반역하는 언약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계를 범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타락(참조, 창 3 장)으로 인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일과 자기 지향적’인 결과는 분명하며 편만하다!

5:24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것은 출 20:20; 신 4:10; 시 34:11; 잠 1:7; 9:10; 전 12:15; 사 11:2-3 에서 종종 반복되어 나타난 권고의 말이다. 그러나 이 청중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참조, 2:19).

5: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민족의 죄가 이러한 재난을 초래하였다(참조, 2:17; 4:18).

5:26-29 이 단락은 부유하고 힘센 지도자들에 대한 묘사이다.

1. 매복하여 지키며
  - ㄱ.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 ㄴ. 덫을 놓아
  - ㄷ. 사람을 잡으며
2.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 ㄱ. 살지고(참조, 신 32:15)
  - ㄴ. 윤택하며(BDB 799, 여기서만 나옴)
  - ㄷ.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즉, [1] “악을 눈감아 줌,” 참조, 잠 19:11; 미 7:18 또는 [2] 22 절의 경우와 같이 “넘어서다”를 뜻함, BDB 716, KB 778)
  - ㄹ. 고아와 빈민(70 인역,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심판이 임하고 있다(29 절)!

#### 개역개정 5:30-31

<sup>30</sup>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sup>31</sup>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5:30-31 이 짧은 연은 아브라함의 씨가 배교함에 대한 묘사를 결론짓는다. 지도자들이 부패하였으며(참조, 2:8,26; 4:9; 5:13; 6:13; 8:10; 13:13; 14:14-16,18; 18:18),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관용할 뿐 아니라 함께 악을 피하여 반역하고 있다(참조, 미 2:11).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반역에 참여하며, 심지어 반역하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언약적 믿음과 신실함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이란 말인가?

5:31

NASB, NKJV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NRSV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탈취하며”

NJB, TEV,

JPSOA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이 이끄는대로 다스리며”

REB

“제사장들은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질문은 이 동사의 어근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1. *라다* - BDB 921, KB 1190, *칼 미완료형*, “다스리다”(NASB, NKJV)

2. *야람* - BDB 432, KB 434, 손을 합하다 또는 협력하다를 뜻하는 “내려가다”(참조, NJB, TEV, JPSOA, REB)

▣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은 거짓 약속 및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소망을 가리킨다. 침략자들이 올 때 그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은 모든 신뢰성을 잃을 것이다(참조, 신 18:20-22).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 절의 개념이 어떤 곳에서 나오는가? 이 본문이 그 본문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2 장과 5 장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3. 예레미야는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가?
4. 유다는 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가?

# 예레미야 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함	북쪽에서 오는 임박한 멸망	부패함을 인하여 심판이 오고 있음 (5:1-6:30)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됨	침략에 대한 많은 것
6:1-8 (1-8)	6:1-3 (1-3)	6:1-9 (1-9)	6:1-5	6:1-15 (1-15)
	6:4-5 (4-5)	6:4-5 (4-5)		
	6:6-8 (6-8)	6:6-8	6:6-8	
			반역적인 이스라엘	
6:9-15 (9-15)	6:9 (9)		6:9-11a	
	6:10-15 (10-15)	6:10-11a (10-11a)		
		6:11b-12 (11b-12)	6:11b-15 (11b-15)	
		6:13-21 (13-2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다	
6:16-21 (16-21)	6:16-21 (16-20)		6:16a	6:16-21 (16-21)
			6:16b-17	
			6:18-21	
북쪽에서 오는 적	(21)		북쪽에서의 공격	
6:22-26 (22-26)	6:22-23 (22-23)	6:22-23 (22-23)	6:22-23	6:22-26 (22-26)
	6:24-26 (24-26)	6:24-25 (24-26)	6:24-25	
		6:26-30 (26-30)	6:26-30	
6:27-30 (27-30)	6:27-30 (27-30)			6:27-30 (27-3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에서는 계속하여 유다의 죄를 정죄한다. 유다는 다음과 같은 증인을 가졌다
1. 성경
  2. 선지자
  3. 이스라엘의 멸망
-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 나. 이 장에는 여러 명령문이 나온다.
1. 1-8 절 - 야웨께서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를 보내신다
    - ㄱ. 피난하라, 1 절 - BDB 731, KB 797, *히필* 명령
    - ㄴ. 나팔을 불고, 1 절 - BDB 1075, KB 1785, *칼* 명령
    - ㄷ. 깃발을 들라, 1 절 - BDB 669, KB 724, *칼* 명령
    - ㄹ. 칠 준비를 하라(문자적으로, “거룩하게 하라”), 4 절 - BDB 872, KB 1073, *피엘* 명령
    - ㅁ. 일어나라, 4 절 - BDB 877, KB 1086, *칼* 명령,
    - ㅂ. 우리가 . . . 올라가자, 4 절 -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를 가짐
    - ㅅ. 올라가서, 5 절 - ㅁ항과 같음
    - ㅇ. 우리가 공격하자, 5 절 - ㅂ항과 같음
    - ㅈ. 혈자, 5 절 - BDB 1007, KB 1469, *히필* 청유형
    - ㅊ. 베어서, 6 절 - BDB 503, KB 500, *칼* 명령
    - ㅋ. 목책을 만들라(문자적으로, “쏟아 붓다”), 6 절 - BDB 1049, KB 1629, *칼* 명령
    - ㅌ. 훈계를 받으라, 8 절 - BDB 415, KB 418, *니팔* 명령
  2. 9-15 절 - 야웨의 진노가 발함
    - ㄱ. 네 손을 . . . 자주자주 놀리라, 9 절 - BDB 996, KB 1427, *히필* 명령
    - ㄴ. 말하며, 10 절 - BDB 180, KB 210, *피엘* 청유형
    - ㄷ. 누구에게 경책하여, 10 절 - BDB 729, KB 795, *히필* 청유형
    - ㅍ. 듣게 할꼬, 10 절 -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 ㄹ. 부으리니, 11 절 - BDB 1049, KB 1629, *칼* 명령
  3. 16-21 절 - 아마 예레미야가 행한 설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ㄱ. 서라, 16 절 - BDB 763, KB 840, *칼* 명령
    - ㄴ. 보라, 16 절 - BDB 906, KB 1157, *칼* 명령
    - ㄷ. 알아보라, 16 절 - BDB 981, KB 1371, *칼* 명령



- ㄹ. 그리로 가라, 16 절 - BDB 229, KB 246, *칼 명령*
- ㅍ. 얻으리라, 16 절 - BDB 592, KB 619, *칼 명령*
- ㅂ. 들으라, 17 절 - BDB 904, KB 1151, *히필 명령*
- ㅅ. 들으라, 18 절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 ㅇ. 알라, 18 절 - BDB 393, KB 390, *칼 명령*
- ㅈ. 들으라, 18 절 - ㅂ항과 같음
- 4. 22-26 절 - 침략자들이 오고 있다!
  - ㄱ. 나가지 말라(부정), 25 절 - BDB 422, KB 425,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 ㄴ. 다니지 말라(부정), 25 절 - BDB 229, KB 246,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 ㄷ. 두르라, 26 절 - BDB 291, KB 291, *칼 명령*
  - ㄹ. 구르라, 26 절 - BDB 814, KB 935, *히트파엘 명령*
  - ㅍ. 슬퍼하라, 26 절 - BDB 793, KB 889, *칼 명령*
- 5. 27-30 절 - 예레미야에게 주신 야웨의 메시지(1:18 의 내용과 비슷함)에 명령이 없다

다. 언약백성(특히, 예루살렘)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여러 종류의 호칭을 주목하여 보라.

1. “베냐민 자손들,” 1 절
2. “시온의 딸,” 2,23 절
3. “예루살렘,” 6,8 절
4. “이스라엘의 남은 자,” 9 절
5. “내 백성,” 14,27 절
6. “딸 내 백성,” 26 절

라. 야웨의 이름을 주목하라.

1. “만군의 여호와,” 6,9 절
  2. “여호와,” 10,11,12,15,16,21,22,30 절
- 1:2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1-8

- <sup>1</sup>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옛보아 움이니라
- <sup>2</sup>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 <sup>3</sup> 목자들이 그 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 <sup>4</sup>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박한 것뿐이니라  
 7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6:1 “피난하라”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성벽이 있는 곳으로 피난하였다(참조, 4:6, 같은 동사의 같은 형을 사용함). 그러나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여 나올 것을 말하고 있다.

▣ “베냐민 자손들아”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지파였다. 예루살렘은 베냐민의 지경 안 또는 그 지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참조, 수 15:8,63; 18:16; 삿 1:21). 따라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일컫는 문학적 표현방법이다.

▣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이것은 같은 자음으로 된 히브리 단어(불다 - *טף*, 참조, 4:5; 드고아 - *דְּגוּא*)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이다(또한 *타카* [“소외된”]가 같은 어근에서 유래하였음을 보라).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였다.

▣ “깃발을 들라” 이것은 불로써 하는 신호를 가리킨다(참조, 라기스 도편, 참조, 삿 20:38,40). 앞 행에서 보듯이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신호를 가리킨다.

▣ “벧학게렘” 이것은 “포도원 집”(BDB 108 과 501 의 합성어, 참조, 느 3:14)을 뜻한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다.

▣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옛보아 움이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침략자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로 간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침략자들의 군대를 의인화하여 “악이 옛보고 있다”로 말한다.

6:2

NASB	“어여쁘고 앙증맞은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NKJV	“내가 시온의 딸을 사랑스럽고 우아한 여인으로 여겼다”
NRSV	“그녀가 아름답고 우아하다. 내가 시온의 딸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NJB	“내가 시온의 딸을 아주 사랑스러운 초장으로 여겼다”
70 인역	“오 시온의 딸이여, 너의 교만함이 제거될 것이다”
JPSOA	“어여쁜 시온, 사랑스럽고 우아한 너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세 가지 묘사적 용어가 사용되었다.

1. 어여쁜 - BDB 610
  - ㄱ. **형용사** - 애 1:5; 2:14; 6:4
  - ㄴ. **동사(피엘)** - 사 52:7; 애 1:10
2. 우아하게 자랐다 - BDB 772, KB 851, **꾸알 분사**(이곳에서만 사용됨)
3. 시온의 딸 - 자주 사용된 가족적 표현

이 어려운 구에 대한 좋은 설명이 UBS **핸드북**(180 쪽)에 나온다. R. K. 헨리슨이 저술한 틴데일 주석에서는 이 구를 질문으로 취한다: “내가 너를 유쾌한 초장으로 비교하였느냐?”(80 쪽). NJB 도 마찬가지이다.

▣ “**목자들**”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한 호칭(즉, 시 23 편)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용한 호칭이다(참조, 2:8; 3:15). 이것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는 침략자들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1. 성읍을 에워쌌다
2. 주위의 지경을 장악하였다

6:4-5 이것은 다음 사람들이 한 말이다

1. 침략자들의 말! 그들은 야웨의 명령을 인하여 거듭하여 공격해 올 것이다(참조, 6 절)
2. 예루살렘 및 유다의 지도자들이 한 말(이것은 5 절의 두 번째 행과 맞지 않는다).

6:4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이것은 침략자들이 낮 시간에 공격하기를 희망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밤이 되더라도 그들은 계속하여 공격할 것이다!

▣ “**정오...저녁**” 적이 매우 사나워 어느 때에라도 공격한다.

6:5 “**요새들**” 이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망대” 또는 “성채”를 가리킨다(BDB 74, 참조, 17:27; 49:27).

6:6 “**나무를 베어서**” 신 20:19-20 에서, 침략자들이 포위하기 위한 설비, 경사로, 뿔감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유실수를 베는 일은 완전하고 철저한 멸망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 “**이는 벌 받을 성이라**” 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 히브리 구를 “바로 이 도시가 조사를 받은 도시다”로 제시한다(191 쪽). **파카드**라는 **동사**(BDB 823)는 **호팔형**(BDB 824, 1 항)에서 축복 혹은 저주를 위해 “방문하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수도(즉,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악하고 우상숭배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하여 야웨께서 방문하심을 나타낸다.

▣ “**그 중에는 오직 포학한 것뿐이니라**” 22:17 을 보라.

6:7 예루살렘을 ‘쉬임없이 물을 솟구쳐내는 샘’에 비유한다. 해석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UBS **핸드북**이 제시하듯이, “1 행의 **동사**가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1. 신선한 - (문자적으로, “찬,” 참조, NET) 이것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함을 나타내는가?
  2. 솟구쳐내는/부글부글 거리는(JPSOA, “호르다”)이 문맥에 가장 적합한가(NIV)?
- 문맥상 2 항이 더 적합하다. 예루살렘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이 성의 폭력(BDB 949)과 멸망(BDB 994)이 계속 되고 있다! 야웨께서는 이 사실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질병과 살상”으로 묘사하신다(참조, 30:12-13; 사 1:5-6).

은유적으로 병이 죄를 나타내듯이, 병고침을 받는 것은 용서를 나타낸다. 시 103:3 에 나오는 시적 평행법을 주목하라.

▣ “질병과 살상” 이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1. 예루살렘의 죄(즉, NIV, 참조, 사 1:4-5)
2.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죄(참조, 13 절)

▣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야웨께서는 특별히 언약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바를 주목하여 보신다. 그들은 잃어버려지고 무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도구이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만일 그들이 야웨의 언약적 계시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일이 이제 교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6:8 “훈계를 받으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네 자신을 위하여 훈계를 받아들여라”이다(BDB 415, KB 418, *니팔 명령*).

▣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찢어 버리다”를 뜻한다(BDB 429, KB 431, *칼 미완료형*). 이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속할 것이다. 이것은 4 절의 1 행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다”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용어는 “거룩한 전쟁”을 뜻한다. 이것은 6 절에서 침략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야웨께서 자기들 편에 서실 것이라고 유다가 기대함을 나타낸다!

#### 개역개정 6:9-15

- <sup>9</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갱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 <sup>10</sup>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 <sup>11</sup>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 <sup>12</sup>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sup>13</sup>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sup>14</sup>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sup>15</sup>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6:9 야웨께서는 침략자들에게 “말장개 주우라”(BDB 760, KB 834, 이것은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포엘 미완료형 동사로서,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신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할 것이다. 이것은 4:27; 5:10,18; 30:11; 46:23 을 고려할 때, 과장적인 표현이다.

TEV 는 이 구가 ‘회개하라는 야웨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들(즉, 남은 자)에게 나아간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라는 신학적 개념에 관하여는, 5: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스라엘”이 다음 중 어떤 항목을 가리키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1. 북쪽의 열 지파(주전 722 년에 사로잡혀감)
2. 야곱에게서 나온 아브라함의 씨를 전체적으로 가리킴

6:10 “그 귀가...듣지 못하는도다” 10 절에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야웨께 대답한다. 이스라엘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BDB 790, 참조, 4:4; 9:25-26). 그들은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못할 것이다(즉, “듣는 일,” BDB 904, KB 1151, *히필 부정사 연계형*).

▣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성경 또는 예언적 말씀 또는 둘 다)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참조, 시 19:7-10). 그들은 이것을 “욕”으로 여겼다(BDB 357).

6:11 야웨께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주목하라.

1.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2. 참기 어렵도다
3. 그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부으리니(참조, 7:20)
  - ㄱ. 아이들과
  - ㄴ. 청년들과
  - ㄷ. 남편과 아내와
  - ㄹ.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에게

이것은 야웨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 심판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뜻한다(참조, 13,21 절).

6:12 이 절(12-15 절이 8:10-12 에서 반복되고 있다)은 사로잡혀가지 않으려고 앗시리아와 바벨론 군대에 저항한 일의 결과를 묘사한다. 그들은 피정복민들을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으며, 다른 이들을 그들의 집과 밭으로 재정착시켰다(즉, 신 28:30,38-40; 암 5:11; 미 6:15).

이러한 일은 침략자들/사로잡아간 자들이 섬긴 우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웨의 백성이 범한 죄와 우상숭배를 인하여 야웨께서 심판한 것임을 주목하라.

“내가...내 손을 펼 것인즉”에 대하여는, 1:9의 특별주제: 손을 보라.

6:13 이 사회의 각 층이 범죄하였다(참조, 8:10; 16:6; 31:34; 42:1). 모든 이가 범죄하였다. 모든 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11 절).

▣ “탐욕을 부리며” 이 구는 같은 어근(BDB 130, KB 147, 참조, 8:10; 22:17)을 가진 명사와 동사에서 왔다.

▣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였다(BDB 1055).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6: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들(참조, 8:10-11; 14:14; 23:10-22)과 제사장들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는 일을 가리려고만 하였다(참조, 8:11; 겔 13:10; 미 3:5).

▣ “평강” 이것은 *shalom*(BDB 1022, KB 1532)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이 용어는 나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설교였다!

#### 특별주제: 평화(*shalom*)

이 히브리어 용어(BDB 1022, KB 1532)는 셈족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가. 아카디아어

1. 무사한 것
2. 잘 지낸다
3. 좋은 상태에 있는 것

나. 우가릿어(가나안어)

1. 무사한 것
2. 건강한

다. 아라비아어

1. 건강하게 있는 것
2.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마. 아랍어

1. 완전하게 된 것
2. 끝/완성에 이른 것
3. 평화로 끝맺다
4. 무사하게 지내다

바. 히브리어의 함축적 의미

1. 완성
2. 건설
3. 번영
4. 평화

오늘날 *shalom*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첫 인사와 끝 인사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악의 부재와 선(즉, 만족한 삶)의 현존을 나타낸다. 이것은 안전과 만족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6:15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몰랐다(BDB 101, KB 116, 참조, 3:3; 8:12). 그들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이것은 다음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이다

1. 칼미완료형(BDB 656, KB 709)
2. 칼분사(BDB 656, KB 709)

반역한 다른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나타내는 암시일 것이다.

개역개정 6:16-21

<sup>16</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sup>17</sup>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sup>18</sup>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sup>19</sup>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sup>20</sup>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나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sup>21</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6:16 야웨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과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부르시며 5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아주 명확히 제시되었다(참조, 18:15; 31:21; 시 119 편; 105 편; 139:24; 잠 6:23). 이러한 경건한 길은 그들로 하여금 쉼과 평안을 얻게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걷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제시한다(참조, 엡 2:10; 4:1,17; 5:2,15).

▣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 11:29 에서 인용하신다. 그의 가르침은 “옛 길”(즉, 모세, 참조, 18:15)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이다(참조, 마 5:17-19,21-48; 히브리서).

6:17 “파수꾼” 이것은 선지자들을 가리킨다(참조, 겔 3:16-21; 33:7).

6:18-19 평행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1. 나라들아(BDB 156)
2. 무리들아(BDB 417 II). AB에서는 18 절의 이 행을 번역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행이 해석하기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UBS *핸드북*은 “무리들아”의 모음을 바꾸어 “알다”라는 부정사로 제안한다. 그 경우에 이것은 “알다”(BDB 393, KB 390)라는 동사를 강조하여 나타낸다(196 쪽)
3. 땅이여(BDB 75)

이것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심판을 은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각 내용이 명령어와 일치한다.  
다음에 나오는 특별주제: 땅을 보라.

**특별주제: 땅, 나라, 세계(에레쓰)**

모든 히브리어 어근에서처럼 문맥이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제한된 수의 히브리어 어근(즉, 고대 셈족 언어)은 각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갖게 한다. 이 단어의 어근(BDB 75, KB 90)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전체 행성(비록 고대인들이 이것의 크기나 모양을 알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알려진 세상”을 나타냈다)
  - ㄱ. 창 1-2 장; 6-9 장; 10:32; 11:1,4,8,9; 14:19; 18:18,25; 22:18 기타
  - ㄴ. 출 9:29; 19:5
  - ㄷ. 시 8:1,9; 24:1; 47:2,7; 렘 25:26,29,30
  - ㄹ. 잠 8:31
  - ㅁ. 사 2:19,21; 6:3; 11:4,9,12; 12:5
2. 하늘에 대조되는 땅
  - ㄱ. 창 1:2
  - ㄴ. 출 20:4
  - ㄷ. 신 5:8; 30:19
  - ㄹ. 사 1:7; 37:16
3. 인간이 거하는 행성을 나타내는 은유
  - ㄱ. 창 6:11; 11:1
  - ㄴ. 왕상 2:2; 10:24
  - ㄷ. 욥 37:12
  - ㄹ. 시 33:8; 66:4
4. 나라 혹은 지경
  - ㄱ. 창 10:10,11; 11:28,31
  - ㄴ. 특별히 이스라엘(야웨께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유하신다)
5. 땅, 참조, 수 7:21
6. 지하세계(KB 91)
  - ㄱ. 출 15:12
  - ㄴ. 시 22:30; 71:20; 렘 17:13; 은 2:7
7. 새 세상
  - ㄱ. 사 9:1-9; 65:17; 66:22
  - ㄴ. 신약을 보라, 롬 8:19-22; 갈 6:15; 벧후 3:13; 계 21:1,5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함을 기억하라. 종종 동족어의 어근이 갖는 의미가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6:19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은 자기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다.

▣ “내 말을...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오경/모세의 율법(즉, 옛 길) 및 참 선지자들의 말(참조, 사 1:10; 5:24)을 거부하였다.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것에 헌신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음행
2. 거짓 선지자들(참조, 사 29:13)
3. 탐욕과 가난한 자를 탈취함

6:20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용어이다.

1. 유향, BDB 526 I, 참조, 출 30:34-38,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이었다
2. 향품, BDB 373 II 및 889, 이것은 기름부음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으로서, 인도에서 온 물품일 것이다
3. 번제, BDB 750, 이것은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로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였다
4. 희생제물, BDB 257, 참조, 레 7:15-18; 19:5-8, 제물을 드리는 자가 드린 제물의 일부를 취하여 야웨 앞에서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한 식사’에 사용하였다

▣ “나는...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다(참조, 사 1:11-14; 호 6:6; 암 5:21-23; 미 6:6-8; 특히 렘 7:21-23). 이것은 제사제도(하나님께서 제정하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태도를 거부하심을 나타낸다!

6:21 이 절에 나오는 표현은 16 절에 있는바 “옛 길”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즉, 성경 또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그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참조, 사 8:14-15)도 고통과 어려움과 혼동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 그들은 듣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및 개인적으로 그 일에 따른 결과가 있다!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이 궁극적으로 잘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다!

#### 개역개정 6:22-26

- <sup>22</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sup>23</sup>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 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sup>24</sup>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sup>25</sup>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26 딸 내 백성이 굶은 베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 같이 슬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6:22-26 이 연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침략자들에 대하여 묘사한다(참조, 50:41-43).

1.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온다
2. 그들은 큰 나라이다
3.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4.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다(BDB 475 I, 삼상 17:6 에서는 “단창”으로 사해사본에서는 “칼”)
5. 그들은 잔인하여 사랑이 없다(참조, 사 13:18)
6.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이다(참조, 사 5:30; 17:12)
7. 그들이 말을 타고 온다(참조, 4:13,19)

시온이 하는 반응에 대하여도 묘사한다.

1.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
2. 그들의 손이 약하여졌다(두려움을 인하여, 참조, 사 13:7; 습 3:16)
3. 고통이 그들을 잡았다(해산시의 고통처럼)
4. 그들(케레)이 다니기를 두려워한다
5. 그들이 슬피한다(2: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ㄱ. 굶은 베를 두르고
  - ㄴ. 재에서 구르며(참조, 25:34)
  - ㄷ. 독자를 잃음 같이 슬피하며
  - ㄹ.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들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6:25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관용구이다(참조, 20:3,10; 46:5; 49:29).

개역개정 6:27-30

27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 풀무불을 맹렬히 붙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6:27-30 이 구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참조, 1:18). 야웨께서 그를 다음과 같이 만드셨다

1. 시금자(BDB 103)
2. 시험하는 자(NASB, LXX, REB)
3. 망대(BDB 131, NKJV)
4. 불로 제련하는 자(NJB, JPSOA)

망대와 요새를 뜻하는 이 어근들은 드물게 사용된 용법을 가지는데, 20-30 절의 문맥에서는 드물게 사용된 용법을 요구한다.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묘사하시는 내용이 이 연에서 계속된다.

1. 완고하다(BDB 711)
2. 반역한다(BDB 710, KB 779, 칼 분사)
3. 비방하며 돌아다닌다(BDB 940)
4. 낫과 철이다(참조, 겔 22:18)
5. 사약하다(BDB 1007, KB 1469, 히필 분사)

야웨께서 그들을 은과같이 정화시키려 하시지만, 그들이 정화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BDB 549, KB 540, 칼 완료).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가?
2.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대하여 속상해 하셨는가?

# 예레미야 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성전 문에서 전한 메시지	거짓말을 믿기	성전에서 한 설교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다	성전에 대하여 행한 설교
7:1-7	7:1-7	7:1-4 7:5-7	7:1-4 7:5-7	7:1-11
7:8-11	7:8-11	7:8-15	7:8-15	
7:12-15	7:12-15			7:12-15
		예배에서 행한 남용	백성의 불순종	이방의 신들
7:16-20	7:16-20	7:16-20	7:16-20	7:16-20
				신실함이 없는 예배
7:21-26	7:21-27	7:21-26	7:21-26	7:21-28
7:27-31	외설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	7:27-29 (29)	7:27-28	
	7:28-31		힌놈 골짜기에서의 죄악된 행위들	행음하는 예배에 대한 더 많은 내용: 포로될 것을 크게 경고함
			7:29 (29)	7:29 (29)
		7:30-34	7:30-34	7:30-8:3
7:32-34	7:32-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유다만 홀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남았다. 북쪽의 10 지파는 주전 722 년 이후로 포로가 되었다(즉,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멸망함).
- 나. 앗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였다(주전 605 년; 칼케미스 전쟁). 앗시리아 군대의 잔여 병력은 이집트 군대와 힘을 합치려고 시도하였다. 유다의 경건한 왕인 요시아는 이를 저지하려고 개입하였다가 므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 느고 II 세 를 섬기며 3 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주전 609-597 년)이 유다의 왕좌에 올라 이집트의 봉신으로 섬겼다.
- 다. 7:1-15 과 26 절(“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은 같은 설교이다, 이 두 본문은 또한 그 설교가 미친 영향을 제시한다.
- 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 가운데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믿음 없이 드러지는 의식 또는 예식의 예배를 공격하였다(참조, 16 절; 8:3; 사 29:13). 야웨께 대한 인격적 믿음이 없는 종교는 재앙이다!
- 마. NASB 연구성경(1065 쪽)은 7:1-10:25 이 여러 해에 걸쳐서 행한 일련의 성전설교라고 설명한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7:1-7

<sup>1</sup>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sup>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sup>3</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sup>4</sup>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sup>5</sup>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sup>6</sup>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sup>7</sup>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7:1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호칭을 주목하라(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여호와”(야웨), 1,2,13,19,29,30 절
2. “만군의 여호와,” 3:21 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엘로힘),” 3:21 (70 인역, 1 절)
4. “주(야돈) 여호와(야웨),” 20 절
5. “나는 너희 하나님(엘로힘)이 되겠고, 23 절(언약적 언어임)
6.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28 절

이 설교의 비극은 이것이 ‘야웨의 계시(약속, 언약, 예배, 선지자, 참조, 롬 9:4-5)를 가진 언약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았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야웨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됨을 주목하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무심하게 다룸을 인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7:2 “집 문에 서서...이 문으로” 이것은 칼 명령(BDB 763, KB 840)이다. 김히(중세의 유대인 주석가)는 예레미야가 성전의 각 문에서 한 번씩 설교하여, 이 설교를 7 번 하였다고 말한다(단수형 대 복수형). 문들이 성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에 있었다. 성전 건물은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예식을 따라 종교적 제사를 행한 곳이었다.

▣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이것은 또 다른 칼 명령(BDB 1033, KB 1570)으로서 “행하기 위하여 들어라”를 뜻한다(참조, 신 4:1; 5:1; 6:3,4; 9:1; 20:3; 27:10; 33:7).

▣ “유다 사람들아” 13 세 이상되는 모든 남자가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모였다.

7:3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1) 하늘에 있는 군대의 대장 또는 (2) 천상에서 열리는 회의의 지도자를 뜻한다(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7:3,5,6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는 이 동사(BDB 405, KB 408, *히필* 명령)은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다”로 번역되었다(참조, 10:5). 이 문맥에서, 이것은 악에서 선으로 바뀔로서(참조, 5 절), 회개를 뜻하는 또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다(참조, 4:1). 이 동사의 *히필*형은 창 4:7; 레 5:4; 사 1:17; 렘 4:22; 13:22 에서 윤리적 자세를 나타낸다. 언약은 조건적이며(“만일...하면, 5,6 절) 동시에 무조건적이다(각 세대에 대한 야웨의 성품과 약속).

▣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이 동사(BDB 1014, KB 1490)는 *피엘* 청유형이다. 벌게이트역과 아퀼라역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로 제시한다(참조, 왕상 6:12-13; NJB). 이러한 차이는 단지 맛소라 본문의 모음을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일 뿐이다(참조, 7 절). UBS 본문 프로젝트는 처음 것에 C 등급(많이 불확실함)을 준다. 두 번째 것은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이 땅에 대한 약속이기 이전에 야웨를 신뢰하는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다(즉, 임마누엘).

7:4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다”라는 동사(BDB 105, KB 12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은 8 절에서도 반복되는바(*칼 분사*)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다.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참조, 13 절)은 거짓이었다(참조, 6:14; 8:11). 그들은 자기들이 외치는바 거짓된 희망을 입증하기 위한 구실로서 삼하 7:11-14; 왕상 8:13 을 사용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사야의 메시지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즉, 사 36-39 장). 그들은 언약이 지니는 조건적인 면을 잊어버렸다(참조, 5 절).

▣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이 구는 성전의 합창대가 정기적으로 부른 내용일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3 중적인 반복은 최상급을 나타낸다(참조, 사 6:3, 즉, “거룩, 거룩, 거룩” = 가장 거룩하신 분). 그들은 예배의 장소를 신뢰하였지 자신들이 예배하는 분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 결여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참조, 사 29:13; 딤후 3:5)!

7:5 “만일” 이 문맥에서 ‘만일’(조건적 요소)이 상당히 중요하다(네 가지의 “만일”로 시작된 절을 주목하라).

7:6 참된 믿음의 삶을 볼 수 있게 드러내는바 ‘조건적 요소와 연결된 활동’을 주목하여 보라.

1.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5 절
2. 압제하지 아니하며, 6 절
  - ㄱ. 이방인(유다에 사는 외국인)
  - ㄴ. 고아
  - ㄷ. 과부

3.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6 절
4.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6 절

▣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는 도울 이가 없는 자들과 약자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10:18; 14:29; 16:11,14; 24:17,19,20,21; 26:12,13; 27:19).

▣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이것은 우상숭배적 삶을 말하는 히브리적 표현이다(참조, 13:10; 신 6:14-15; 8:19; 11:28; 완상 8:25).

7:7 “**영원무궁토록**” 이 히브리 구를 언약의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문맥 안에서만 해석하여야 한다. 이 구를 구실로 삼는 약속은 모두 거짓된 메시지이다!

**특별주제: 올람(영원히)**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오직 몇 가지 예이다.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램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의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램 10:10
    - (7) 단 12:7
  - ㅁ.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램 32:40; 50:5
- ㄴ. 다윗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ㄷ.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ㄹ.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5) 사 59:21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ㅊ.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적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ㅌ.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ㅍ. 시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3.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ㄴ. 시 90:2(하나님 자신)

ㄷ. 시 103:17(여호와와의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가 갖는 의미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이다(즉, 렘 7 장). 이렇게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 신학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대하려는 것을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시킨다.

개역개정 7:8-11

<sup>8</sup>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sup>9</sup>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sup>10</sup>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sup>11</sup>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7:8 7:4 의 설명을 보라.

7:9 이것은 시내 산에서의 계시를 요약하여 놓은 내용이다(즉, 십계)

1. 도둑질 - BDB 170, KB 198, 칼 부정사 절대형
2. 살인 - BDB 953, KB 1283, 칼 부정사 절대형
3. 간음 - BDB 610, KB 658, 칼 부정사 절대형
4. 거짓 맹세 - BDB 989, KB 1396, 니팔 부정사 절대형
5. 바알에 대한 제사 - BDB 882, KB 1094, 피엘 부정사 절대형
6. 다른 신들을 따라 걸어감 - BDB 229, KB 246, 칼 부정사 절대형

특별주제: 출애굽기 20 장에 대한 설명

출애굽기 20:13, 살인

I. 문맥

- 가. 사회적 면에 대한 계명일지라도 참으로 종교적인 계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계명에 의해 드러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참된 초점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나. 모든 계명이 믿음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한 것은 원래부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드러낸다. 이것의 적용은 인류의 다양성과 같이 광범위하다!

II. 중요한 단어 연구

- 가. “살인”
  1. 이것은 생명을 취하다를 가리키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라사)이다.

구약에서는 46 회만 나온다.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 ㄱ. *하락*, 165 회 사용됨
  - ㄴ. *헤밀*, 201 회 사용됨
2. 이 용어(*라사*)는 원래의 제한적인 의미와 확대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ㄱ. 이것은 원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생명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서, 종종 “친족 구속자” 또는 “고열”과 관련된다. 이 용법은 법적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고의성을 가진다(참조, 민 35:30-34; 레 24:13-23). 사실상 “눈에는 눈”(참조, 창 9:5-6)의 보복은 보복을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후에 도피성(신 4:41; 수 20:3)이 세워져 실수나 걱정으로 언약적 사회구성원을 죽인 언약의 구성원이 피해자 가족의 진노를 피해 도망할 수 있게 했다.
  - ㄴ. 후에 이 용어는 생명을 빼앗는 일의 동기나 태도를 가리켰다. “고의성”은 가장 중요한 점이 되었다! (참조, 출 21:12-14; 민 35:11,22; 신 28:24).
  - ㄷ. 이러한 구분은 이 명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문맥에서 오직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친족 구속자나 피의 복수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십계명을 말하는 후기의 본문인 호 4:2; 렘 7:9 에서 이 용어는 살인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법 자체만 말하지 않고 동기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이웃을 가리키는 말에서 동료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3. 이 용어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형제나 전쟁과 관련이 없다.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나 거룩한 전쟁(그러나 이 일은 거룩하지 않은 전쟁이다!)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적이 결코 없다
4. 오늘날 우리 문화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계획된 살인”일 것이다.

### III. 문맥적 통찰

- 가.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은 두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다. 이 계명들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 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 IV. 신약에서의 평행

- 가. 예수님
  - 1. 예수께서 이 계명을 확장하신 사실(참조, 마 5:21-26)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준다.
  - 2. 예수님은 십계명을 행동의 영역에서 동기의 영역으로 명백하게 옮겨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우리 자신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 이다.”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중요한 부분이다.
- 나. 요한
  - 1. 요일 3:15, 미워함을 살인으로 여기는 개념이 여기에 나온다.
  - 2. 마 5:21 이하에서와 요일 3:15 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본질적으로 같다.
  - 3. 요일 4:19-21 의 긍정적 측면을 보라.

## V. 적용할 진리

- 가. 비록 계획하지 않고 살인한 자는 피의 복수자를 피해 도피성(참조, 민 35 장; 수 20 장)으로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대체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갇혀서 지내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범한 행동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
- 나. 이 질은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인들이 자살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에 관하여 여전히 영적 원리를 제시한다.
- 다. 한편 이 본문은 오늘날 문제가 되는 (1) 사형제도나 (2) 전쟁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말을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신은 이 일들을 악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이다.
- 라. 이 본문은 인간 생명의 귀중성과 존엄성에 대하여 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청지기이다. 개인 및 공동체에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학대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남용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와 같이 말할 자유가 있고 또 말을 함으로써 구조도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다!

## 출애굽기 20:14, 간음

### I. 문맥

- 가. 우리 이웃의 생명, 아내, 재산을 존중(참조, 렘 5:8)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70 인역에서는 같은 명령들이지만 다른 순서로 나타난다.
- 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평행은 이러한 고대의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열쇠로 여겨졌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 라. 이 계명은 또한 우리의 성적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장하심을 뜻한다.
- 마. 제 4 계명이 창 2:1-3 에 기초하듯이, 이 계명은 창 2:24 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 II. 단어 연구

- 가. 이 본문에서 주요 용어는 “간통”이다. 이 용어를 고대 히브리 문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이 용어는 구약의 문맥에서 “사통”과 구분된다. 간통은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결혼한 자인 경우의 성적 관계를 말한다. “사통”은 두 쪽 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의 성적 관계를 뜻한다(참조, 잠 29:3; 31:3). 이러한 구분은 신약 헬라어의 용어에서 없어졌다.
  2. 성적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왜 결혼한 상태에 대해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매 50 년마다(희년) 모든 땅은 각 지파의 원 주인에게 돌려졌다.
  3. 간통은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문화적으로 정죄받았다(참조, 창 12:10 이하; 26:7 이하; 39:9).

4. 간통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죄로 여겨졌다:
  - ㄱ. 이웃 -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 ㄴ. 결혼 - 레위기 18:20
  - ㄷ. 하나님 - 창세기 20:1-13; 26:7-11
5. 이것은 당사자를 둘 다 사형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 ㄱ. 레위기 20:10
  - ㄴ. 신명기 22:22-24
  - ㄷ. 에스겔 16:40(은유)
  - ㄹ. 강력한 경고가 잠언 1-9 장에 나온다

### III. 신약과의 관계

- 가. 예수님은 레위기 19:18 을 옛 계시의 요약으로 사용했다(참조, 눅 10:27). 이 사실은 십계명이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음을 확증한다.
- 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28 에서 그 명령을 강화시킨다. 그는 강조점을 행동보다는 동기에 두셨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영혼의 씨가 자라는 곳으로 보았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가는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잠 23:7). 이 점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 이것은 목적이다!(참조, 갈 2:15-3:29).

### IV. 오늘날에 적용하기

- 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동안 신실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추는 결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장 잘 돕는다(말 2:14). 성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이 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돕는다.
- 나. 결혼생활의 안정과 충성된 삶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사회의 건강과 장수하는 삶을 가져오는 주요한 기둥이 된다.
- 다.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었다. 이에 대하여 주신 지침은 인간의 자유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약간의 경건한 지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정해 놓으신 한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혜택과 행복을 가져온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더불어 성생활을 남용했지만, 이것은 아직도 사람 안에서 강한 추구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와 안내를 받아야만 하는 영역이다.
- 라. 우리는 성에 대해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여자와 남자)의 거룩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한 결과인 “나”에 대한 집중은 이 영역에서 매우 확연하다.

### 출애굽기 20:15, 도둑질

#### I. 일반적 사항

- 가. 십계명에 있는 다른 모든 조항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속적 면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언약적 동료를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일이다(참조, 요일 4:20-21; 2:7-11).
- 나. 이 계명은 언약 공동체의 교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적 교제의 내용은 혼동에 빠져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은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다. 다른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들이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우리의 타락한 욕구는 이러한 금지를 하는 배경이 된다(참조, 시 50:10-12).

## II. 단어와 구의 연구

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단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십계명의 뒷부분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다.

나. 이 금지의 목적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을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앞에 나오는 두 계명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문맥임.
2. 적용할 수 있는 평행적 내용이 바로 전후(출 21:16)에도 있고 또한 떨어진 곳(신 24:7)에서도 나타남. 또한 창세기 37 장을 보라.

다. 한편 짧은 형태의 문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이것은 영감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2. 이것은 금지의 범위를 넓힌다
3.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도둑질과 관련하여 전후 문맥에 있다 - 출애굽기 22:1 이하
4. 예수님은 분명히 흠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인용하신다(참조, 마 19:18).

라. 도둑질은 고대의 여러 법전에서도 다루어지는데, 대개는 그 형벌로서 사형, 신체의 절단, 또는 30 배의 손해배상을 선언하였다.

마. 이 진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몇 평행 구절이 있다:

1. 레위기 19:1-18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ㄱ. 우리가 사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성부의 가족적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참조, 18 절).
  - ㄴ. 하여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삶은 적합한 동기를 가짐으로 가능하다(참조, 17 절).
  - ㄷ.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동정하는 일(9-10, 13 절)은 우리의 이웃을 착취하지 않는 일만큼(11 절) 중요하다.
2. 아모스 8:4-7 - 하나님은 착취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3. 미가 6:6-8 -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합당한 동기를 찾으신다. 왜 우리가 흠치지 말아야 하는가가 관심사이다!
4. 출 22:1 이하 - 오늘날 우리가 강도짓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빠트리는 진리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죄는 항상 값을 치루어야 한다!

## III. 적용할 진리

가. C. S. 루이스의 아내인 조이 데이빗맨은 십계명에 대하여 좋은 책을 썼다. 그녀는 이 계명을 “너희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서 안된다”라고 번역했다. 이 점은 분명히 계명의 범위를 소유에 대한 것 이상으로 확대시킨다. 그녀는 “재산은 죄이거나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것도 새 마음에 의해서 해결된다. 엡 4:28. “가지려고만 하는” 옛 성품이 “나누어 주는” 새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놀랍다!

다. 우리가 언약의 동역자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경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 진리는 십계명의 배경을 이룬다.

라. 현대인은 여러 방법으로 흠치고 있다!

## 토의할 질문

1. 현대인은 어떻게 흠치는가?
2. 보상하는 것은 회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이 절은 재산에 대한 자본주의적 견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출애굽기 20:17, 탐내다

### I. 서론

- 가. 십계명의 마지막 다섯 계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제 6, 7, 8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외적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2. 제 9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말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3. 제 10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생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 나. 탐하는 행위는 탐내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이웃보다 탐내는 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이 계명이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 다. 많은 이들이 이 계명을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없고 오직 고대 이스라엘의 법 규정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본다. 이렇듯 생각의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개념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면의 생각이 악한 행위의 원천이 된다고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참조, 잠 23:7; 약 1:14-15). 이 절도 행동을 낳는 생각과 연결이 되고 있다. 여러 본문은 “탐내는 것”에 뒤따르는 행동과 관련을 짓는다(참조, 신 7:25; 수 7:21; 미 2:2).
- 라. 만일 강조점이 처음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계명에 중요성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 처음 계명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이중 강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나타난다, 마 6:33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참조, 19-32 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II. 단어와 구의 연구

- 가. 출애굽기 20:17 과 신명기 5:21 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1.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집” 혹은 남자의 재산이라는 큰 개념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명기 5 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진 목록으로서 따로 다루어 진다.
  2. 출애굽기 20 장의 본문에는 “손에 넣기를 욕망하다”를 뜻하는 “탐내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5 장에는 “탐내다”와 더불어 “욕망하다”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온다. “탐내다”는 갖기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욕망하다”는 태도에만 초점을 둔다.
  3. 또한 출애굽기 20 장은 광야 방랑 기간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록된 것이어서 소유하는 목록에 “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신명기 5 장에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같은 명령을 재 진술하고 있다.
- 나. “탐하다”는 중립적 용어이다. 이것은 좋은 물건을 갖기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9:10; 고전 12:31).
- 다. 부적합한 욕망은 사탄,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가 타락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이다. 바울은 로마서 7:7-8 에서 탐심과 관련한 자신의 갈등으로 고민했다. 탐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며 신뢰의 상실이다.
- 라. 신약의 여러 구절은 탐심에 대해 말한다:
1. 인간의 문제는 불만족과 탐욕에 있다(참조, 눅 12:15; 딤후전 6:8-10).

2. 탐심은 인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참조, 막 7:17-23; 고전 5:10; 엡 5:5; 골 3:5).

### III. 적용할 진리

- 가. 탐하는 욕망과 불만족에 대한 답은 다음에 나온다:
  1. 사랑 - 롬 13:8-10
  2. 만족 - 히 13:5; 빌 4:11-13(또한 나눔, 빌 4:14)
- 나. 계명은 “멈추라”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 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1. 역대상 28:9
  2. 잠언 20:27
  3. 시편 139:1,23
  4. 예레미야 17:10
  5. 로마서 8:27
  6. 요한계시록 8:27
- 라.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때 죄가 된다. 물건은 궁극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있다! 탐내는 것은 암암리에 언약적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 토의할 질문

1. 무엇이 탐하는 것인가?
2. 왜 현대인은 탐하는가?
3.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것인가?
4.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5. 왜 출애굽기 20:17 에 있는 계명은 신명기 5:21 에 있는 계명과 약간 다른가?

7:10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두 동사 모두 **칼 완료형**이다(일어난 일임을 나타냄). 이 본문은 의식으로 가득찬 형식적 종교, 즉 개인의 삶에서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과 순종이 결여한 종교적 생활을 나타낸다(참조, 왕상 8:23; 젤 23:36:45; 눅 6:46).

▣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일컫는 표현으로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었다(참조, 왕상 8:43; 대하 6:33; 20:9; 램 7:10,11,14,30; 25:29; 32:34; 34:15). 따라서 이 호칭은 야웨를 나타낸다. 그는 상징적으로 언약케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 사이에 거하신다.

▣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것은 **니팔 완료형**(BDB 664, KB 717)이다. 그들은 종교적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즉,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가 되지 않음, 참조, 39:17).

▣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언약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삼았다! 예식이 믿음이 없는 삶을 대신하였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참조, 마 7 장).

7:11 “도둑의 소굴” 열왕기상 8 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을 묘사하는 내용으로서, 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가? 예수께서는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마 21:13; 막 11:17; 눅 19:46 에서 바로 이 구를 사용하신다.

- ▣ NASB, NKJV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 NRSV “좌우간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다”
- TEV “나는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NJB “또한 내가 보고 있음을 네가 안다”
- 70 인역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다”
- JPSOA “나로서는, 내가 보아 왔다”
- REB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

히브리 본문이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의미는 분명하다.

**개역개정 7:12-15**

<sup>12</sup>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sup>13</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up>14</sup>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sup>15</sup>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7:12 “실로” “가라”(BDB 229, KB 246)와 “보라”(BDB 906, KB 1157)는 **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실로는 약속의 땅에 세워진 첫 성소로서 그곳에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다. 이곳은 주전 1050 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궤는 그들이 가져갔다(이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6:6; 시 78:60 에서 암시되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신다는 언약백성의 믿음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7: 13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것은 선지자들을 뜻한다(참조, 25 절).

▣ “새벽부터”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거듭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25 절; 11:7; 25:3-4; 26:5; 29:19; 32:33; 35:14-15; 44:4)!

7:14 “너희가 신뢰하는 바...이 집”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 혹은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참조, 26:6; 요 4:23-24).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를 인하여, 모든 장소, 물건, 사람들이 거룩하며 또 거룩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경건한 믿음으로 누릴 교제를 ‘장소와 예식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버렸다(참조, 왕상 6:12-13). 이것은 오늘날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교회 건물과 주일예배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또한 지적한다!

7:15 “에브라임 온 자손” 이것은 주전 722 년, 앗시리아에게 북쪽의 10 지파가 사로잡혀간 일을 가리킨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유다에 대한 경고이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참조, 3:11; 겔 16:51-52; 23:11). 유다도 “쫓겨날 것이다”(두 **히필 완료형**, BDB 1020, KB 1527).



개역개정 7:16-20

<sup>16</sup>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sup>17</sup>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sup>18</sup>자식들은 나무를 쭈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sup>19</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sup>20</sup>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16 유다가 회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야웨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의 내용을 금하신다

1.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 BDB 813, KB 933,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2.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 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3. 내게 간구하지 말라 - BDB 803, KB 91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를 가짐

이것은 11:14 에서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11:11; 시 66:18; 잠 1:28; 사 1:15; 호 5:6). 반복적으로 강박하여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뒤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별주제: 중보기도

I. 서론

- 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1. 개인 기도, 막 1:35; 눅 3:21; 6:12; 9:29; 22:29-46
  2. 성전청결, 마 21:13; 막 11:17; 눅 19:46
  3. 주기도문, 마 6:5-13; 눅 11:2-4
- 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으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돌보심에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두는 행동이다.
- 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 응답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영역에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제한하고 계신다(참조, 약 4:2).
- 라. 기도의 주된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및 그 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 마. 기도의 범위는 신자와 관계된 일이나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 한 번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거듭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
- 바. 기도는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
  2. 하나님의 임재, 교제, 공급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림
  3. 과거와 현재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
  4.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나 원하는 것을 위해 간구함
  5.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 성부 앞에 중보함
- 사. 중보기도는 신비하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변화, 응답, 혹은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II. 성경의 자료

- 가. 구약

1. 중보기도의 몇 가지 예
  - ㄱ.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함, 창 18:22 이하
  - 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
    - (1) 출애굽기 5:22-23
    - (2) 출애굽기 32:31 이하
    - (3) 신명기 5:5
    - (4) 신명기 9:18,25 이하
  - ㄷ.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 (1) 사무엘상 7:5-6,8-9
    - (2) 사무엘상 12:16-23
    - (3) 사무엘상 15:11
  - ㄹ. 다윗이 자기 아기를 위해 기도함, 사무엘하 12:16-18
2.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 이사야 59:16
3. 알고 있으면서 자백하지 않은 죄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64:7

나. 신약

1. 성부와 성령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예수님
    - (1) 로마서 8:34
    - (2) 히브리서 7:25
    - (3) 요한일서 2:1
  - ㄴ. 성령님, 로마서 8:26-27
2. 바울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9:1 이하
    - (2) 로마서 10:1
  - ㄴ. 교회들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1:9
    - (2) 에베소서 1:16
    - (3) 빌립보서 1:3-4,9
    - (4) 골로새서 1:3, 9
    - (5) 데살로니가전서 1:2-3
    - (6) 데살로니가후서 1:11
    - (7) 디모데후서 1:3
    - (8) 빌레몬서 4 절
  - ㄷ.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함
    - (1) 로마서 15:30
    - (2) 고린도후서 1:11
    - (3) 에베소서 6:19
    - (4) 골로새서 4:3
    - (5) 데살로니가전서 5:25

- (6) 데살로니가후서 3:1
- 2.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서로를 위한 기도
    - (1) 에베소서 6:18
    - (2) 디모데전서 2:1
    - (3) 야고보서 5:16
  - ㄴ. 특별한 그룹을 위한 기도
    - (1) 우리의 원수들, 마태복음 5:44
    - (2) 크리스천 사역자들, 히브리서 13:18
    - (3)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2:2
    - (4) 병자, 약 5:13-16
    - (5)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 요한일서 5:16
  - ㄷ.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1
- III.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 가. 그리스도와 성령께 대한 우리의 관계
    - 1. 그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7
    - 2. 그의 이름으로, 요 14:13,14; 15:16; 16:23-24
    - 3.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18; 유다서 20 절
    - 4.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6:10; 요한일서 3:22; 5:14-15
  - 나. 동기
    - 1. 흔들리지 않음, 마태복음 21:22; 야고보서 1:6-7
    - 2. 겸손함과 회개, 누가복음 18:9-14
    - 3. 잘못 구함, 야고보서 4:3
    - 4. 이기적임, 야고보서 4:2-3
  - 다. 다른 측면
    - 1. 인내
      - ㄱ. 눅 18:1-8
      - ㄴ. 골로새서 4:2
    - 2. 계속 구함
      - ㄱ. 마태복음 7:7-8
      - ㄴ. 누가복음 11:5-13
      - ㄷ. 야고보서 1:5
    - 3. 가정에서의 불화, 베드로전서 3:7
    - 4.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 ㄹ. 이사야 64:7
- IV. 신학적 결론
  - 가.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이 얼마나 중대한 의무요 책임인가!
  - 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성부는 간절히 기다리신다.
  - 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친구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7:18 가족 전체가 우상을 섬겼고 우상숭배를 가르쳤는데, 특별히 아내들이 더욱 그리하였다. 부모는 그들의 삶과 우선순위를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 영향을 미치며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킨다(참조, 출 20:5-6).

▣ “과자” 이것은 아세라의 형상을 따라 만든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건포도 과자이다. 이것은 가족적으로 행한 우상숭배였다(참조, 44:19; 호 3:1).

▣ “하늘의 여왕” 이것은 바벨론에서 섬긴 다산의 여신인 *이스타르*일 것이다(이것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렸고, 이 여신을 섬기는 일에는 “단 과자”를 사용하였다, 참조, 44:19).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본문은 19:13; 32:29; 44:17-19; 왕하 23:4-14 이다. 70 인역에서는 “하늘의 주”로 말하여 바벨론의 점성술을 반영한다. 한편, 이것은 유다가 정치적 동맹을 맺는 의식을 통하여 섬긴 앗시리아의 여신, 또는 가나안인들이 섬긴 여신인 *아셀리*일 수 있다.

▣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것은 예배의식의 한 부분이였다(참조, 19:13; 44:18; 겔 20:28).

▣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동사(BDB 494, KB 491, *히필 부정사 연계형*, 참조, 신 31:29)가 19 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히필 분사*). 야웨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예배를 원하신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참조, 11:17; 32:29; 신 32:16,21; 왕상 14:9; 16:2; 겔 8:7).

7:20 야웨의 진노(BDB 60 I)와 분노(BDB 404)가 “다 쏟아 부어질 것이다”(BDB 677, KB 732, *니팔 분사*). 이것은 18 절에 나오는 “붓다”(BDB 659, KB 703)와는 다른 단어이다. 18 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제사와 관련을 가지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진노를 쏟아 부음을 나타낸다.

▣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주목하라. 신 28 장에 나오는 저주가 실제로 다가 오고 있다.

1. 사람들에 대하여
2. 가축들에 대하여
3. 밭의 나무에 대하여(참조, 8:13)
4. 땅의 소산에 대하여

#### 개역개정 7:21-26

<sup>21</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sup>22</sup>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sup>23</sup>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sup>24</sup>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sup>25</sup>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sup>26</sup>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7:21 야웨께서 제물을 거부하심은 반복되는 주제이다(6:20 에 있는 자세한 설명 및 14:12; 사 1:11; 암 5:21 의 설명을 보라). 범죄한 인간을 야웨께 돌아오게 하는 일(즉, 레 1-7 장)이 예식상의 절차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

▣ “번제물” 이것은 제단 위에서 전부 불태워 드린 제물이었다(BDB 750).

▣ “희생제물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어떤 제사의 경우는 제물의 일부분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또는 제물을 드린 이들이 먹었다(BDB 257). 유대인들은 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하여 그들이 취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7:22 “사실은 내가...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제사의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숨은 동기 및 그들이 야웨와 가지는 믿음의 관계를 강조한다(참조, 삼상 15:22; 시 51:16-17; 사 1:11-14; 호 6:6; 암 5:21-24; 미 6:6-8).

     시내 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가르침인 출 9-20 장에서 제사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놀랍다.

7: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 출 19:20 은 십계명이 예식과 관련된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윤리적 삶과 우선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순종이 중요하다(참조, 출 19:5-6; 신 6:3; 사 1:19). 또한 이것은 태도와 관련이 있다(참조, 신 30:15-20)!

▣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다(참조, 11:4; 출 6:7; 레 26:12; 신 26:17-18). 조건적인 측면을 주목하라(즉, 언약을 순종함[문자적으로, “듣다” 칼 명령]). “언약”에 대하여는 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풍성함을 주기 원하신다(참조, 신 27-28 장). 그러나 이것은 조건적이다(참조, 26:13; 38:20; 42:6).

7:24 23 절이 소망을 나타내듯이, 이 절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드러낸다(참조, 겔 20:8,13,16,21).

1.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2.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3.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또는 모음을 바꾸어, “그들의 불순종”)
4. 그들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5. 그들이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7:25-26 이 두 절은 야웨의 백성이 행한 반역적 일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여 행하였다(참조, 느 9:16-19).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시려고 거듭 거듭 시도하셨지만(참조, 7:13; 25:3-4; 29:19; 35:14-15; 44:4), 그들은 듣거나 응답하지 않았다(참조, 17:23; 19:15).

#### 개역개정 7:27-31

<sup>27</sup>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sup>28</sup>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sup>29</sup>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sup>30</sup>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sup>31</sup>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7:27 이 절은 신학적으로 사 6:9-10 과 평행을 이룬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야웨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다(참조, 26:2; 겔 2:7).

말씀의 내용이 28-34 절에 있다.

7:28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또 다시 주목하라(참조, 24 절).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2.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3. 그들은 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 ㄱ. 없었다
  - ㄴ.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게 하였다

7:29 29 절은 산문 사이에 들어 있는 시이다.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있다.

1. 너의 머리털을 베어 - BDB 159, KB 186, **칼 명령**
2. 버리고 - BDB 1020, KB 1527, **히꼐 명령**
3. 통곡할지어다 - BDB 669, KB 724, **칼 명령**

이러한 행위는 슬픔을 나타낸다(참조, 41:5; 사 22:12). 2: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슬퍼하는 이유는 야웨께서

1. 이 세대를 끊어 - BDB 549, KB 540, **칼 완료형**
2. 버리셨기 때문이다 - BDB 643, KB 695, **칼 미완료형**(*와우*와 함께 사용됨)

16:6; 48:37(사 15:2)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우상숭배 의식을 가리킨다(참조, 레 21:5; 신 14:1).

▣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것은 아마도 높은 장소에서 행한 우상숭배 예배를 가리킬 것이다.

7:30 이것은 야웨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가리킨다(참조, 32:34; 왕하 21:4-5,7; 23:4-14; 대하 33:4,5,7; 겔 8 장). 이 얼마나 충격적인 죄인가? 그것들은 정치적 동맹 및 가나안의 다산숭배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7:31 “도벳” 이 용어의 어근(BDB 1075, KB 1781 II)은 “난로”라는 아람어 또는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몰렉(참조, 레 18:21; 20:2-5;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즉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긴 불의 신을 가리킨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렸다(참조, 19:6,11-12; 왕하 21:5; 23:10). 이러한 종류의 예배는 출 13:2 의 내용을 오해함으로써 발전된 형태이다.

▣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 4:4 의 특별주제: *제헨나*를 보라.

개역개정 7:32-34

<sup>32</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 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sup>33</sup>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sup>34</sup> 그 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7:32 렘 19:6-7 을 보라!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다!

7:33 “공중의 새 ...의 밥” 이것은 “마지막 날”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자주 사용된 것이다 (참조, 12:9; 사 18:4; 겔 29:5; 32:4; 39:4). 이것은 신명기 28 장에 있는 특별한 심판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신 28:26).

7:34 야웨께서는 평화와 기쁨을 주기 원하셨다(참조, 13 절). 그러나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여 반역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참조, 16:9; 25:10).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예식이나 형식이 악한 것인가? 예식이나 형식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차이점인가?
3. 예레미야가 제사제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인가?
4. 유다가 행한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 예레미야 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7:32-8:3	7:32-8:3	7:32-8:3	7:32-8:3
유다의 죄와 배반				
8:1-3	거짓 가르침의 위험	여러 가지 말씀	죄와 처벌	위험, 탄식, 충고, 이스라엘의 완고함
8:4-7 (4b-7)	8:4-7 (4b-6) (7)	8:4-7 (4b-7)	8:4-12	8:4-7 (4-7)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스린 법
8:8-12 (8-12)	8:8-12 (8-12)	8:8-13 (8-13)		8:8-9 (8-9)  앞서 말한 위협의 반복  8:10-12 (10-12)  포도나무인 유대에 대한 위협
8:13-17 (13-17)	8:13-17 (13) (14) (15-16) (17)		8:13	8:13-17 (13-17)
		8:14-15 (14-15)	8:14-16	
		8:16-17 (16-17)		
		8:17	8:17	
	선지자가 백성을 위하여 애통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슬픔	기근시에 한 선지자의 애통
8:18-22 (18-2)	8:18-22 (18-19a) (19b) (20-22)	8:18-21 (18-21)	8:18-22 (18-20) (21-22)	8:18-23 (18-23) [23 절은 9:1]
		8:22 (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7-10 장은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행한 우상숭배를 묘사하는 문학적 단위이다.
1. 7 장은 예레미야가 행한 유명한 성전 설교이다. 그는 야웨께 예배드리는 중심지에서 우상숭배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다. 어떤 이는 이 설교가 8:3 까지 이른다고 믿는다.
  2. 8 장과 9 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에게 주는 일련의 경고이다. 그들은 야웨의 언약을 폐지하였다.
  3. 10 장은 사 2:20; 31:7; 40:18-20; 41:7; 44:9-20; 45:16; 46:5-7 에 나오는 ‘우상숭배에 대한 조소적인 묘사’와 비슷하다.
- 나. 예레미야가 기록한 모든 글에서는 신명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곳에서도 그렇다. 이것은 야웨와의 언약적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우신 언약에 기초하여 접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이러한 법률적 예식적 형식에 대항하여, 개인의 동기와 자세를 강조하여 말하였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8:1-3

<sup>1</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sup>2</sup>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sup>3</sup>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8:1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모든 사람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유다 왕들
2. 그의 지도자들

3. 제사장들
4. 선지자들
5. 예루살렘 주민

장사지낸 유대인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일은 다음 사항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1. 침략자들이 장사된 자들에게서 값나가는 물건을 찾고 있다
2. 이것은 바벨론의 별신 숭배와 관련을 가진다(참조, 2 절)
3. 이것은 정복을 당한 유다가 받는 미움과 경멸을 문화적으로 나타낸다(참조, 암 2:1)

8:2 “그들이...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2 절은 유대인들이 별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섬겼는가를 잘 드러낸다. 여러 동사(일련의 칼 완료형)가 행해진 모든 일을 설명한다.

1. 사랑하며
2. 섬기며
3. 뒤따르며
4. 구하며
5. 경배하였다

“하늘의 못 별”(BDB 838 과 1029 의 합성)이라는 용어는 별들과 행성들과 달과 해를 섬기는 예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신 4:19; 17:2-50; 왕하 23:4,5,11; 습 1:5; 램 19:13; 32:29).

▣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7:1 부터 8:3 까지가 하나의 본문임을 알려준다. 묻히지 못하게 됨은 유대인들에게 공포를 주는 일이었다. 그들은 사후가 적절한 장례의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고 여겼다(IVP 성경배경주석, 649 쪽을 보라).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라는 은유적 표현은 그들의 시체가 (1) 비료 또는 (2) 동물의 먹이로 됨을 뜻하는 아주 무서운 선언이었다.

8:3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포로됨의 고통을 이 절의 과장적 표현 및 시 137 편에서 느낄 수 있다.

“남은 자”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5: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야웨께서는 유다가 포로되게 허락하셨고 또 이 일이 일어나게 행하셨다!

▣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2 절에 나오는 “하늘의 못 별”과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일 것이다. 바로 야웨께서(행성이나 별들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참조, 시 19:1-6; 느 9:6). 1:2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개역개정 8:4-7**

<sup>4</sup>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sup>5</sup>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sup>6</sup>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누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8:4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다”(BDB 996, KB 1427)라는 구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가 4-6 절에서 네 번 나온다. 4 절이 정확히 어떤 단어인가에 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다.

1. 김히는 “만일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야웨께서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으시랴”로 번역한다
2. 무어는 “만일 사람이 회개하면, 야웨께서 회개하지 않으신다”로 번역한다(참조, 사 55:6) 이것은 7-10 장의 주요주제에 대한 최초의 암시로 여겨진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반역을 행하기로 이미 굳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

8:5-7 야웨께서는 그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부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신다.

1. 그들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4 절
2. 그들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 5 절
3. 그들이 거짓을 고집한다, 5 절
4.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5 절
5. 그들이 진리를 들었지만 정직을 말하지 아니한다, 6 절
6. 그들이 아무도 악을 누우치지 않는다, 6 절
7. 그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6 절
8. 각각 자기 길로 행한다, 6 절
9. 그들은 여호와 및 그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7 절

8:5 “물러감” 이 용어에 대하여는 2: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고집하다”는 “붙들다”(BDB 304, KB 302, *히필 완료형*)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창 2:24에서 혼인관계를 나타낸다. 결혼에 대한 암시가 종종 야웨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표현은 다산의 신들을 섬기는 예식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다른 신들을 좇아 행음하다”로 제시되었다. 2:20의 특별주제를 보라.

▣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절하다”(BDB 549, KB 540)라는 이 본동사는 *피엘 완료형*으로서 정착된 태도임을 제시한다!

8: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70 인역에서는 이것을 두 명령으로 번역하였다. 이 본문을 NASB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70 인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시한다.

▣ “그들의 악을 누우쳐서...말하는 자가 없고” 이것은 회개하다와 돌이키다를 뜻하는 단어(BDB 996, KB 1427, 4-6 절에서 네 번 사용됨)와는 다른 히브리 단어(BDB 636, KB 688)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슬퍼함으로써의 회개를 뜻하는 용어로서, ‘회개하다’와 동의어적 관계에 있다.

▣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큰 문제이다!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상당히 눈이 어두어져 자신들이 명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보기를 거부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에 대하여 회개할 수 없다.

▣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전마들은 전쟁터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야웨를 사랑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훈련을 저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향해 지금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8:7 “학...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새들은 본능적으로 정해진 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이러한 것은 사 1:13 에 나오는 짐승과 관련된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마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 다산의 신들을 따라 갔다.

▣ “내 백성은...알지 못하도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알다”라는 단어와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우리는 창 4:1 을 통하여 “알다”라는 단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나타냄을 본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은유적으로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렸다. 비록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종교적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그들은 야웨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야웨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다!

▣ “규례” 5:4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8:8-12

- <sup>8</sup>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 <sup>9</sup>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 <sup>10</sup>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 <sup>11</sup>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 <sup>12</sup>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8-12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문학적 단락이다. 이것은 “서기관들”(BDB 707)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언급한다. 우리는 대하 2:55 을 통하여 서기관들의 가족이 형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에스라에 의하여 이들이 회당제도 및 랍비적 유대교로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각 지역의 사람들이 토라에 대하여 가진 특별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었다.

만일 지도자들이 소경이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야웨의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다(참조, 9 절).

▣

NASB, NRSV	“서기관들의 속이는 붓이”
NKJV, NJB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TEV	“율법이 부정직한 서기관들에 의하여 바뀌어졌다”
70 인역	“거짓 붓이 서기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JPSOA	“확실하기는, 그 붓이 헛것을 위해 수고하였다”
REB	“서기관들, 그들의 속이는 붓으로 그것을 거짓되게 하였다”

누가 비난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다.

1. 서기관들(즉, 9 절에 나오는 “지혜자들”과 같은 의미)
2. 백성들(10 절)
3. 다른 종교 지도자들(9 절)

서기관들이 행한 일(즉,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설명하는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과 언약적 요구사항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다.

▣ “거짓되게 하였나니” 히브리 본문에서는 “거짓의 붓”(BDB 1055 )과 “거짓말 하다”(BDB 1055) 사이에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종종 바알 숭배를 “거짓된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도 그러한 암시가 있다.

8:9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때에, 그들이 이렇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빌 2:12 을 기억하게 한다.

8:10-12 이 본문은 70 인역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렘 6:12-15 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바룩, 또는 후기의 어떤 사람에 의하여 주제별로 편집되어 엮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책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8:10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이것은 침략을 당하고 포로됨을 가리킨다. 아내를 남자의 소유물로 제시함을 주목하라. 이것은 고대근동의 족장 사회에서 특징적인 내용이었다.

8:11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상 그들이 외친 거짓된 소망은 죽음을 가져왔다(즉, 애 2:14). 이 절의 강조점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바 “평강하다, 평강하다”에 대한 것이다(참조, 6:14; 14:13,14). 문제의 심각성은 평강이 없었고 오히려 임박한 침략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 36-39 장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믿고 있다. 이사야서의 그 본문은 산헤립이 침략하여 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에 대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언약의 두 면-하나님의 약속 및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응답-을 강조하여 말한다. 유다가 언약을 철저히 폐지시켜버렸다!

8:12 1 행의 질문에 대하여 2 행에서 강조적으로 답한다(즉, 같은 어근[BDB 101, KB 116]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동사**).

▣ “그들이 없드리질 자와 함께 없드리질 것이라” 이것은 북쪽의 지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것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본문이다.

▣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주전 605 년, 597 년, 586 년, 582 년에 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주전 586 년에 가장 큰 규모로 사로 잡아갔다. 그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다.

**개역개정 8:13-17**

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15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16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1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8: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13 절에 나오는 두 개의 농업적 표현(하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임)은 약속의 땅에 아무도 남지 않고 모든 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말한다. 충격을 주는 이 과장법적 본문에서,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을 주목하라. 팔레스타인은 야웨의 특별한 동산이었으나, 그들은 영적 열매를 전혀 맺지 않았다(참조, 사 5 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명기 27 장과 28 장의 저주가 성취됨을 나타낸다.

맛소라 본문의 처음 행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NKJV, **폐쉬타**, “내가 분명히 그들을 삼킬 것이다”

TEV, “농부가 추수하여 모으듯이, 내가 내 백성을 모으기를 원했다”

JPSOA, “나는 그들에게 끝을 가져다 주겠다”

NET, “나는 그들의 수확을 가져가 버리겠다”

70 인역, “그들은 그들의 산물을 거둘 것이다”(즉, 침략자들이)

이것이 상당히 감정을 표출하는 시임을 기억하라! 이 행은 (1) 긍정적(즉,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원하신다, 즉, 회개) 또는 (2) 부정적(다른 이들이 그들의 추수를 거둘 것이다, 참조, 12 절)이다.

▣

NASB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NRSV

“사람들이 그것들을 짓밟는 것을 내가 보았다”

TEV

“따라서, 외부인들에게 그 땅을 취하도록 내가 허락하였다”

70 인역, REB

- 생략됨 -

JPSOA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이 없어진다”

UBS 본문 프로젝트(200 쪽)는 애매한 이 히브리 구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

1.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피한 (것들을) 주었다(즉, 땅의 열매)”

2.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짓밟은 것을(가르침을) 주었다”

1 항은 13 절의 1-4 행에 기초한다. 2 항은 8 절 및 율법에 기초한다(즉, 요시아가 개혁하고 성전을 보수할 때에 발견한 책, 참조, 왕하 22:8).

8:14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고대 세계에서 위기나 침략을 받는 때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몰려들므로 인하여 식량, 물, 위생 상의 문제가 악화되었다. 후기의 역사에서, 이전에 포위를 당했던 유다 백성이 포로기 이후에도 ‘누가 재건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것인가’를 제비로 결정하였음에 미루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능히 헤아릴 수 있다(참조, 느 11:1).

심판에 대한 야웨의 메시지가 세 가지 명령으로 제시된다.

1. “모일지어다” - BDB 62, KB 72, **니팔 명령**

2.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 BDB 97, KB 112, **칼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를 가짐**

3. “거기에서 멸망하자” - BDB 198, KB 226, **칼 청유형**

13 절의 “모이다/추수”(수프)와 14 절의 “함께 모이다”(아샷) 사이에 소리유희가 있다. 두 경우 다 심판을 가져 온다!

▣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함에 있어 열쇠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창 12:3; 출 19:5,6(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는 빛은 단지 걸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더 나아가 시내 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야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적인 수술이었다(참조, 겔 36:22-38).

▣ “**독한 물**” 이것(BDB 912 II)은 “쑥” 또는 “쓸개”에 대한 암시이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쑥” 또는 “쓸개”를 언급한다(참조, 렘 9:15; 23:15; 신 29:18; 시 69:21; 애 3:19; 신약의 마 27:34)

8:15 이 절은 6d,8,11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다가 “**평안**”을 바랐으나, 침공과 포로됨을 인하여 놀람을 보여준다. 이 구는 14:19 및 욥 30:26 에서 반복된다.

8:16 “그 딸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단 지파가 여호수아에 의해 분할받은 남쪽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한 것을 우리는 안다(참조, 샷 18 장). 이 수도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참조, 4:15).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북에서부터 침략해 온다. 따라서 단은 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즉, 군대가 바벨론에서 와서 팔레스타인에 이르렀다.

8:17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이것은 (1) 민 21 장에 대한 암시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뱀을 보내셨다. 또는 (2) 단순히 14 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독을 뜻한다. 어느 쪽이든, 이 두 가지 은유(즉, 독과 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뱀”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

18 절의 처음 행은 17 절과 함께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뱀이 물어 치명상을 입게 됨을 뜻하는 관용어이다(문자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됨”). 70 인역에서는 이것을 “치료받을 수 없는”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 8:18-22**

<sup>18</sup>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sup>19</sup>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sup>20</sup>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sup>21</sup>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sup>22</sup>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8:18-22 누가 여기서 말하는가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이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인하여 슬퍼한다고 말한다. 그 설명이 그럴듯 하지만 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하여 슬퍼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구분을 짓기가 쉽지 않다. 한편, 호 11:8,9 및 9:3,6,9,10,11 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매우 특별한 본문(즉, 21 절)으로 나는 이해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게 되셨음에도, 이 일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하심을 신 5:9 와 신 7:9 의 본문을 비교함으로써 잘 알 수 있다.

8:19-20 모든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고착된 일임을 나타낸다.

8:19 유다가 침략을 받음으로 인한 참상, 멸망, 포로됨을 일련의 질문을 사용하여 강조적으로 나타낸다. 우상숭배와 반역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다(참조, 17:10; 갈 6:7).

TEV 는 이 절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1.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 ㄱ.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 ㄴ.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2. 야웨께서 3 행에서 답하신다(참조, 7:30-34)



NASB의 “먼 땅에서부터”는 부정확한 번역이다. 맛소라 본문에는 “땅의 길이와 넓이에서부터”로 되어 있다(참조, NRSV). 유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 앗시리아의 포로됨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게 질문한다. “야웨께서 어디에 계신가?”란 질문이 진군하여 오는 바벨론 군대를 대하면서 외쳐진다(참조, 16 절).

**8: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곡식과 과일이 익는 계절을 가리킨다. 추수가 끝나서,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8:22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병을 고치는 연고로 유명하였다(참조, 창 37:25). 하지만 14 절의 독과 17 절의 독사가 물어 생긴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20 절의 기근과 22 절의 의사의 도움을 입을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이 일이 역사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즉, 바벨론의 침공),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고 있었다.

# 예레미야 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시온에 대한 애곡				유다의 도덕적 부패
9:1-6 (1-6)	9:1-6 (1-2) (3-6)	9:1-3 (1-3)	9:1-3a (1-3)  9:3b-6a (3b-6a)	9:1-8 (1-8)
		9:4-6 (4-6)	9:6b-9	
9:7-9 (7-9)	9:7-11 (7-9)	9:7-9 (7-9)		시온의 슬픔
9:10-11 (10-11)	(10) (11)	9:10-11 (10-11)	9:10 (10)  9:11 (11)	9:9-10 (10)  9:11 (11)
9:12-16	9:12-16	9:12-16	9:12  9:13-16	9:12-15  9:16-21 (16-21)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다		예루살렘성의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다	
9:17-22 (17-19)	9:17-22 (17-19)	9:17-19 (17-19)	9:17 (17)  9:18 (18)  9:19 (19)	
	(20-21) (22)	9:20-22 (20-22)	9:20-22 (20-22)	참된 지혜
9:23-24	9:23-24 (23-24)	9:23-24	9:23-24 (23-24)	9:23-23 (23-23)  할례, 거짓된 증표  9:24-25
9:25-26	9:25-26	9:25-26	9:25-2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9:1-6

<sup>1</sup>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sup>2</sup>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sup>3</sup>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sup>4</sup>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sup>5</sup>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sup>6</sup>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아니라

**9:1** 선지자가 ‘언약백성에게 내리는 야웨의 심판’을 인하여 자신이 느끼는 아픔을 회화적으로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다(참조, 히 12:5-11).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는 아픔은 사실상 야웨의 아픔이었다(참조, 호 11:8-9). 이 같은 느낌을 8:18; 13:17; 사 22:4; 애 2:18 에서도 볼 수 있다. 1:9의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신인동형적 표현)을 보라.

이 절은 “우는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의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 야웨께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도 울었다(참조, 호 11:8-9).

**9:2-4** 선지자/야웨께서 언약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라.

1. 간음하는 자요, 2 절
2. 반역한 자의 무리, 2 절
3. 거짓을 말하며, 3 절
4.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3 절
5. 야웨를 알지 못하느니라, 3 절
6. 믿을 수 없다, 4 절
7. 완전히 속이며, 4 절
8. 다니며 비방한다, 4 절
9. 각기 이웃을 속이며, 5 절
10.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5 절
11.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5 절
12. 악을 행한다, 5 절
13.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6 절
14. 야웨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6 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반드시 행하셔야만 했다(참조, 겔 36:22-38).

**9:2 “나그네가 머무를 곳”** 이것은 나무로 지은 피난처로서 기울어지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인데, 사막 지역의 여행자들이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약백성으로부터 도망가(즉, 두 칼 청유형, “떠나다”와 “가다”) 사막에 숨기를 원함’을 바라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

#### ▣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사용한 이 두 가지 구 사이에 명백한 비교 및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그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는 신체적 및 영적 간음을 반영한다.

**9:3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이 참으로 누구이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었다(참조, 8 절). 이 은유적 표현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 그들의 굽은 혀는 죄의 언어, 즉 표준에서 벗어난 언어임을 드러낸다
2.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들의 말로써 쏠 준비가 되어 있었다(참조, 시 64:3-4)
3.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님 및 그들의 동료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프게 하였음을 뜻한다(참조, 레 19:15-16)

▣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비극이다—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그들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등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 드렸다(참조, 호 4:1,6; 5:4; 8:2; 11:8-9).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9:4 언약백성들 사이에서 조차도 신뢰함이 없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다른 이로부터 흠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렇게 하였다. 이러한 타락의 두려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1.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라 - 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
2.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 BDB 105, KB 12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완전히 속이며 - 이것은 같은 어근(BDB 784, KB 872)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2:3의 특별주제를 보라)보다는 야곱(대체자, BDB 784)과 흡사했다.

9:5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운 묘사를 주목하라. 그들은 반역과 간음으로 줄곧 내달았다(BDB 521, KB 512, *니팔* 완료형).

9:6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 묘사는 은유적으로 이 백성의 세계관 및 일상생활의 삶을 나타낸다!

▣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동사(BDB 549, KB 540, *피엘*, 완료형)는 고착된 상태를 드러낸다. 그들이 속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

“알다”에 대하여는 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9:7-9

<sup>7</sup>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sup>8</sup>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sup>9</sup>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7-9 이것은 유다의 죄를 다루는 또 다른 연이다.

1. 거짓말하는 자
2. 숨어서 이웃을 해함

야웨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1.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참조, 6:27)
2. 내가 그들에게 벌하겠다(참조, 5:9,29)
3. 나 자신이 보복하겠다(참조, 사 1:24)

야웨께서는 언약백성을 사용하사 모든 열방에 이르시기를 원하셨다. 그는 영원한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언약함과 실패를 드러내었다(참조, 겔 36:22-38).

9:9 “이런 나라에” 이것은 *고이*라는 단어(BDB 156)를 사용한 언어유희이다. 곧, 이방인들을 일컫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지칭하였다. 여기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자체를 뜻한다.

개역개정 9:10-11

<sup>10</sup>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sup>11</sup>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9:10-11 이 두 절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갖게 된다. NIV 는 10 절은 선지자가, 11 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NASV 와 RSV 는 하나님께서 두 절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인하여 땅이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는 확장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신 27 장과 28 장; 롬 8:18-22).

9:11 “승냥이 굴” 이것은 파멸과 멸망을 나타내는 은유이다(참조, 10:22; 49:33; 51:37; 사 34:13). 더 나아가 이것은 귀신의 임재를 뜻할 수 있다.

개역개정 9:12-16

<sup>12</sup>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와 그의 입을 말씀은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sup>13</sup>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sup>14</sup>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sup>15</sup>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sup>16</sup>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9:12-26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반역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내용이다(12 절에서 세 질문으로 시작한다). 13 절과 14 절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열거한다.

1.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버렸다(기록된 계시, 참조, 출 19-20 장; 신 4:8; 5 장)
2. 그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구두로 전한 예언적 계시)
3. 그들이 내 목소리를 따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4. 그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였다(참조, 7:24; 11:8)
5. 그들이 바알들을 따랐다(참조, 2:8,23; 23:27)

계시는 경건한 삶을 요구한다(참조, 호 14:9)!

9:14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 . . 따랐음이라”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벗어난 유대 백성의 특징적 모습이였다. 그들의 고질적 반역이 이루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참조, 신 9:6,13; 10:16; 31:27). 이것은 또한 그들이 속임을 당하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적으로 따라가 일어난 일임을 지적한다!

▣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숭배를 뜻한다. 원래 엘과 아스테라는 가나안의 만신전에서 주요한 신이였다(우가랏에서 출토된 라스 샴라 본문). 바알은 그들의

아들이었다. 이 신화는 농업의 신이 매년 살아나고 죽는 내용과 관련을 가진다. 이것을 흉내내는 주술, 성적 행위를 통하여 봄마다 풍요를 확실히 하였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바알이 있었다. 2:20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이것은 출 32장과 민 25장에 대한 역사적 암시일 것이다. 이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감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타락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참조, 신 5:19; 사 29:13). 가족이 가진 믿음은 그 내용에 따라 축복 혹은 저주가 될 수 있다(참조, 7:18)!

9:15 “썩...독한 물” 가족이 지닌 거짓된 믿음(9:14b)은 신 29:18의 저주를 반영한다. 이것은 특별히 8:14e에서 언급되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야웨이심을 주목하라! 죄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 특별히 더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하다(참조, 눅 12:48; 롬 9:4-5).

9:16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이것은 주전 722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일어난 북쪽 지파의 포로됨 또는 주전 605, 597, 586년에 일어난 남쪽의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감에 대한 예언을 암시한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레 26:33; 신 28:64에 기록된 바 언약을 불순종하여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 개역개정 9:17-22

- <sup>17</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리오되  
<sup>18</sup>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sup>19</sup>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 함이로다  
<sup>20</sup>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sup>21</sup>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sup>22</sup>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9:17-22 이것은 사망을 의인화한 장례식 만가이다(참조, 20 절). 전문적으로 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용된 두 용어를 주목하여 보라.

1. “곡하는 부녀”- BDB 884, KB 1096, 풀렐 분사
2. “지혜로운 부녀”- BDB 314, KB 314

여러 명령어를 주목하라.

1. 17 절
  - ㄱ. “잘 생각해 보라” - BDB 106, KB 122, *히트폴렐* 명령
  - ㄴ. “부르라” - BDB 894, KB 1128, *칼* 명령
  - ㄷ. “불러오라” - BDB 97, KB 11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ㄹ. “보내라” - BDB 1018, KB 1511, *칼* 명령
  - ㅁ. “불러오라” - ㄷ 항과 같음
2. 18 절
  - ㄱ. “그들로 빨리 와서” - BDB 554, KB 553,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ㄴ.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 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ㄷ.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 BDB 432, KB 43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NRSV)
  - ㄹ.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 BDB 633, KB 68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NRSV)
3. 20 절
  - ㄱ.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 ㄴ.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 BDB 542, KB 53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ㄷ. “가르치라” - BDB 540, KB 531, *피엘* 미완료형
4. 22 절 - “말하라” - BDB 180, KB 210, *피엘* 명령

9:17 “**곡하는 부녀를**”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식 때에 전문적으로 우는 자를 고용하였다(참조, 암 5:16). 여기서 이것은 다가오는 죽음을 강조하는 문학적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20 절에서는 딸들에게 어떻게 곡하는지 배울 것에 대하여 말한다. 이 내용은 어머니가 자신의 딸들에게 이상승배를 전수함 또는 죽은 자가 너무 많아서 곡할 자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됨을 암시한다.

9:19 이 절은 그들이 애곡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

1.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참조, 4:13; 신 28:29)
2.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3. 우리가 그 땅을 떠났구나(참조, 7:15)
4.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도

9:20 이 절은 17 절에 있는 바 전문적으로 곡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17 절의 설명을 보라.

9:21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죽음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의인화한 것(즉, 스올과 죽음을 합 2:5 에서 의인화함)은 (1) 라스 샴라에서 발견된 우가릿 문학에서 보듯이, 바알이 지하세계의 신인 몰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가나안 신화를 반영하거나 (2)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즉 악령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죽임을 반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귀기울여 듣는 종류의 신화(가나안의 다산 승배,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선지자가 암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자녀들을 . . .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1 절의 마지막 두 행은 (1) 죽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함 또는 (2) 죽음이 다음 세대를 멸절시킴을 나타낸다.

9:22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사용된 은유적 표현으로서 죽음을 나타낸다(참조, 7:33; 8:2; 16:4; 26:33; 신 28:26).



▣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이것은 오늘날 ‘두려운 거두는 자’로 죽음을 묘사하는 것의 기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관하고 계심(즉, 출 12 장에 나오는 죽음의 천사)을 잘 주목하여 보라.

**개역개정 9:23-24**

<sup>23</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sup>24</sup>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23-24 이것은 8:8-12 에서 이미 언급한 바 서기관들의 거짓 지혜와 대조를 이루는 참 지혜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이다. “자랑”이 5 번 반복됨을 주목하라.

1. 네 번은 *히트파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한 번은 *히트파엘* 분사, 24 절

9:23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힘이 인간적인 힘이나 부에 있지 않고 야웨께 달려 있음을 알 것이다(참조, 스펀 4:6).

9: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간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목하라.

1. 지혜
2. 용맹
3. 부함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1. 명철하여 나를 이해하는 것 - BDB 968, KB 1328, *히필* 부정사 절대형
2. 나를 아는 것 - BDB 393, KB 390, *칼* 부정사 절대형

이 부정사형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그들은 야웨의 법과 야웨의 목소리(참조, 13 절)를 들었고, 야웨를 직접적으로 뵈었으며(즉, “나를,” 24 절; 호 4:1,6; 5:4; 8:2), 또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3d 절과 6 절의 내용과 정반대된다.

야웨의 성품이 이 절에서 잘 드러난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4:2; 시 44:8; 사 41:16; 고전 1:31; 고후 10:17; 갈 6:14).

24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출 34:6,7 과 느 9:17 에서도 아름답게 제시되었다.

1. 사랑(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정의(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공의(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자랑함**

*카우카오마이*, *카우케마*, *카우케시스*라는 이 헬라이어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약 35 회 사용되었고,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단 두 번 사용되었다(두 번 다 야고보서에서). 이 용어는 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온다.

자랑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어떤 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영광을 뽐냄)할 수 없다(참조, 고전 1:29; 엡 2:9).
2. 신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자랑하여야 한다(참조, 고전 1:31; 고후 10:17; 램 9:23-24 에 대한 암시임).

따라서 적절한 자량과 적절치 않은 자량(즉, 교만)이 있다.

1. 적절한 자량

- ㄱ. 영광의 소망 안에서(참조, 롬 4:2)
- ㄴ.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참조, 롬 5:11)
- 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즉, 바울의 주요 주제, 참조, 고전 1:17-18; 갈 6:14)
- ㄹ. 바울이 다음을 자랑함
  - (1) 보수 없이 사역함(참조, 고전 9:15,16; 고후 10:12)
  - (2) 그리스도께 받은 그의 권위(참조, 고후 10:8,12)
  - (3)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음(고린도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함, 참조, 고후 10:15)
  - (4) 그의 인종적 유산(고린도에서 어떤 이들이 그러했듯이, 참조, 고후 11:17; 12:1,5,6)
  - (5) 그의 교회들
    - (ㄱ) 고린도(고후 7:4,14; 8:24; 9:2; 11:10)
    - (ㄴ) 데살로니가(참조, 살후 1:4)
  - (6)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출하심에 대한 그의 확신(참조, 고후 1:12)

2. 부적절한 자량

- ㄱ. 유대인임을 자랑함(참조, 롬 2:17,23; 3:27; 갈 6:13)
- 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가 자랑함
  - (1) 사람을(참조, 고전 3:21)
  - (2) 지혜를(참조, 고전 4:7)
  - (3) 자유를(참조, 고전 5:6)
- ㄷ.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함(참조, 고후 11:12)

▣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만일 야웨께서 “기뻐하신다면”(BDB 342, KB 339, *칼* 완료형),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따라 살아야 한다(참조, 사 58:2; 이와 반대되는 일은 11:10; 13:10).

개역개정 9:25-26

<sup>25</sup>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sup>26</sup>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쩍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9:25-26 이것은 육체의 할례와 영적 할례를 신학적으로 대조시킨다. 할례는 야웨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외적 표였다(참조, 창 17:10). 주위의 모든 나라에서 할례를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적 목적과 똑같은 이유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 고대 근동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은 팔레스티인들이었다. 그들은 에게해에서 온 용병들로서 주전 12 세기 중엽에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살았다. 한편 할례가 언약의 외적 표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언약에 따른 요구사항을 외적으로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적 자세였다. 바로 이 이유에서 성경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 대한 할례를 거듭하여 말한다: (1) 귀에, 렘 6:10 (2) 입술에, 출 6:12,30 (3) 심장에, 레 26:41; 신 10:16; 30:6; 렘 4:4; 겔 44:7,9. 이 같은 근본적 진리가 신약의

롬 2:28,29 에 나타난다! 믿음 없이 성전에서 행한 예식 및 의식이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였듯이, 믿음이 없이 가정에서 행한 예식 및 의식도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였다(즉, 7 장)!

**9:26 “살쩍을 짖은 자들에게라”** 이 히브리 구에 대하여 두 가지의 기본적 해석 방법이 있다. NASB, REV, NJB 는 이것을 레 19:27; 렘 25:33; 49:32 을 반영하는 우상숭배적 행위로 해석한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함(참조, 신 14:1) 또는 외국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한 부분일 것이다(참조, 헤로도투스 111,8).

또 다른 종류의 해석이 NKJV, NIV, REB 에서 제시된다. 이 역본들은 이것을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은유로 번역하였다(즉, NKJV, “가장 먼 구석에 있는 모든 자들, 곧 광야에 거하는 자들”).

# 예레미야 1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우상숭배에 대한 풍자	우상과 참 하나님		우상숭배와 참 예배	우상과 참 하나님
10:1-5 (1-5)	10:1-5 (1-5)	10:1-5 (2-5)	10:1-5 (2-5)	10:1-5 (2-5)
10:6-10 (6-10)	10:6-10 (6-10)	10:6-10 (6-10)	10:6-10 (6-10)	10:6-10 (6-10)
10:11	10:11	10:11	10:11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10:11
10:12-16 (12-16)	10:12-16 (12-13) (14-16)	10:12-16 (12-16)	10:12-16 (12-16)	10:12-16 (12-16)
	유다의 포로됨이 다가옴		포로로 됨이 다가옴	국가적 재난
10:17-18 (17-18)	10:17-18 (17-18)	10:17-21 (17-21)	10:17-20 (17-20)	10:17-24 (17-24)
10:19-22 (19-22)	10:19-20 (19-20)		10:21-22 (21-22)	
		10:22 (22)		
10:23-25 (23-25)	10:23-25 (23-25)	10:23-24 (23-24)	10:23-25 (23-25)	
		10:25 (25)		10:25 (2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7 장부터 10 장은 유다의 죄와 야웨의 심판을 다루는 한 단락이다.

나. 예레미야서의 시는 시대적 요소가 아니라 다음 요소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다

1. 언어유희
2. 주제

다. 이 장은 신명기 및 이사야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두 가지를 예로 들면:

1. 드물게 사용된 단어(BDB 903 I), “오이 밭,” 5 절(참조, 사 1:8)
2.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라는 6 절의 구는 신 33:26 을 반영한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0:1-5

<sup>1</sup>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sup>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sup>3</sup>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sup>4</sup>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sup>5</sup>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10:1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שמע*라는 히브리어(BDB 1033, KB 1570, *칼 명령*)로서 “행할 수 있게 들으라”를 뜻한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항이다(참조, 2:4; 5:21; 6:19; 7:2,23; 10:1; 11:2,4,6; 13:15; 17:20; 19:3; 21:11; 22:2; 31:10; 38:20; 42:15; 44:24,26; 49:20; 50:45). 야웨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고 있다!

▣ “이스라엘 집이여”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혼동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이 호칭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10:2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10 장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이사야가 사용한 은유적 표현과 풍자를 반영한다(참조, 사 2:20; 31:7; 40:18-20; 41:7; 44:9-10; 45:16; 46:5-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따라서 걸어야 할 길’을 주셨지만(참조, 레 18:3; 신 12:30),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길(즉, 삶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사실은 바벨론의 별신들을 섬김을 지적하는 2 절에서도 반영되고 있다(즉, “하늘의 징조,” 참조, 사 47:13).

두 가지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부정됨).

1. 배우다 - BDB 540, KB 531
2. 두려워하다 - BDB 369, KB 365

야웨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별을 섬기는 자들의 말을 두려워 하였다(BDB, KB BDB 369, KB 365, 칼미완료형, 참조, 사 47:12-14). 미신은 사탄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위협하고, 장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10:3 “헛된 것이니”**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음” 또는 “헛 것”(BDB 210, KB 236, 참조, 2:5; 14:22; 왕하 17:15)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용어는 종종 우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신 32:21).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헛 것이었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들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우상은 듣거나, 보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없다. 우상은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알고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이다(참조, 엡 6:10-18).

### 특별주제: 사탄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사탄을 ‘선’의 옛 원수가 아니라 야웨의 종으로써 드러낸다. 이 종은 인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또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비난한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유일신 주의), 한 권세자, 한 분의 근원자—야웨만 나타낸다.
2. 하나님의 개인적인 옛 원수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책에서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은 랍비들이 이끄는 유대교와 에세네파 (즉, 사해사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좁혀진 항목으로 놀랍게 발전시킨다.

만일 우리가 성서신학적 관점(각 책을 저자나 장르에 따라 연구하고 독립적인 개요를 제시하는)에서 악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게 된다. 한편 우리가 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경 이외의 자료나 성경 밖의 세계 종교 또는 동양 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많은 내용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헬라-로마의 강신술을 그 배경으로 함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점진적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유대인의 민족적 전승이나 서양의 문학(단테, 밀톤)이 이러한 개념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분명히 신비함과 모호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악의 기원, 악의 발전, 악의 목적 등 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사탄” 또는 “참소자”(BDB 966)는 세 종류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 인간인 참소자(참조, 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0,29; 시 109:6)
2. 천사인 참소자(참조, 민 22:22-23; 욥 1-2 장; 슥 3:1)
3. 악마적 참소자(참조, 대상 21:1; 왕상 22:21; 슥 13:2)

후기인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세기 3 장의 뱀을 사탄으로 간주하였다(참조, *지혜서* 2:23-24; *에녹 2 서* 31:3). 또한 이러한 개념은 좀 더 후기에 가서야 랍비들의 견해가 되었다(참조, *Sot* 9b 과 *Sanh.* 29a).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 1 서* 54:6 에서 천사들로 해석되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이 발전해 온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의인화된 악, 즉 천사에게로 돌린다(참조, *고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일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다(당신의 견해에 따라 다름). 그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진 강한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전* 7:14; *사* 45:7; *암* 3:6).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웨께 돌려져 야웨의 유일하심과 그의 우월하심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욥* 1-2 장, 이곳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 나온다(즉, 천사) 혹은 (2) *이사야* 14 장과 *에스겔* 28 장, 이곳에서는 고대 근동의 교만한 왕들(바벨론과 두로)이 사탄의 교만을 예시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딤펴전* 3:6). 나는 이 연구에서 혼합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사탄으로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참조, *겔* 18:12-16) 이집트 왕에 대하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는, 에덴동산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겔* 31 장). 한편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천사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말하는듯이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명백한 특징과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본문을 그러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간접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저자와 책과 장르가 각각 다른 신구약 성경의 어떤 짧고 애매한 본문을 서로 조합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퍼즐의 작은 조각을 찾으려는 조직신학적 접근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나는 랍비적 유대교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사탄적 관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 2 권, 부록 XIII[748-763 쪽]과 XVI[770-776 쪽])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 랍비들의 글은 진리에 대한 좋은 자료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셨다. 천사장이 야웨의 적이라는 개념이 이란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두 높은 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랍비들은 *아키만*과 *올마자*를 야웨와 사탄에 대한 성경의 이원론으로 발전시켰다.

신약에는 의인화된 악에 대하여 점진적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것은 랍비들이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것조차 묵시적 장르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예수님께 패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탄은 여전히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펴전* 1:20).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조절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은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만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며 또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악은 패했고 또 제거될 것이다!

10:5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이것은 우상을 허수아비로 묘사하는 내용이다. 어떤 역본에서는 “뚝바른 종려나무”로 이 구를 번역하였다(NKJV, 페쉬타). 70 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였다.

▣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669, KB 724)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칼 미완료형(BDB 431, KB 432)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굳어버리게 된다!

야웨를 아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상들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1. 화를 주거나
2. 복을 주지 못한다

우상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다(참조, 사 41:23-24). 야웨를 두려워하라(참조, 7 절)!

#### 개역개정 10:6-10

<sup>6</sup>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sup>7</sup>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sup>8</sup>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sup>9</sup>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sup>10</sup>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0:6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이것은 야웨의 유일성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확증하는 표현이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참조, 10 절). 70 인역에서는 6-8 절 및 10 절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생략은 사해사본에서도 발견된다.

▣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크시니이다” “크다”(BDB 162)가 신명기에서 야웨께 대하여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신 3:24; 5:24; 9:26; 11:2; 32:3).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표현과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10: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야웨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는 홀로 참 하나님이시다(참조, 10 절)!

야웨께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조점을 현재의 세계관, 즉 절대성을 배제시키는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가 어렵다. 한편, 바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이것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성경적 세계관은 이러한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다.

10:8 이 절을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히브리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기둥에게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0:9 “다시스” 이 도시는 먼 서쪽에 있었다(스페인이나 사르디니아). 어떤 이는 이것이 신화적 장소로서 단순히 아주 먼 곳을 일컫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참조, 요나서와 겔 27:12).

▣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우바스”(우파즈, BDB 20)는 이곳과 단 10:5 에만 나오는 장소이다. 왕상 9:28 에서는 “오빌”(오필, BDB 20, 참조, 사 13:12)에 “금”이 있다고 말한다(참조, 탈굽, 페쉬타, REB). 아마 이것은 “순수한” 또는 “정련한” 금을 일컫는 표현, 즉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러한 염료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비싼 물건이었고, 페니키아에서 생산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돈을 들여 장엄하게 우상에게 입혔을지라도, 그 우상들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움직임이 못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다!

▣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NET(1316 쪽, 17 항)는 다음을 서로 대조시킨다

1.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
2. 기술공

둘 다 같은 어근에서 왔다(BDB 314). 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다. 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예배할 수는 없다!

10:10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참 이라는 히브리어(BDB 54)는 신뢰할 수 있음과 의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호는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참조, 출 3:14). 1:2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야웨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여 보라.

1.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6,7 절
2. 주는 크시니, 6 절
3.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7 절
4.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10 절
5.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10 절
6. 영원한 왕이시라, 10 절(참조, 3 항)
7. 창조자, 12-13 절
8. 만물의 조성자, 16 절
9. 하늘 군대의 대장(즉, 만군의 여호와), 16 절

야웨는 창조주시며 듣고, 보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움직이지도, 듣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야웨는 실재하시며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1:5 의 특별주제: 유일신 사상을 보라).

개역개정 10:11

<sup>11</sup>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0:11 이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아람어로 된 유일한 절이다(또한 스 4:8-6:18; 7:12-26; 단 2:4-7:28). 왜 아람어로 기록된 절이 히브리어로 된 책의 중간에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일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에게 보내진 편지의 일부였다고 랍비들은 말한다.
2. 이것은 다신교에 반대하는 잠언이었다.
3. 이것은 귀신을 내쫓을 때에 사용한 기도문이었다.
4. 이것은 난외주였는데, 후에 본문에 추가된 부분이다(TEV, NEB).

**개역개정 10:12-16**

<sup>12</sup>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sup>13</sup>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sup>14</sup>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sup>15</sup>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sup>16</sup>야콥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0:12-16** 이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며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한다. 고대 근동의 농업적 배경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가나안의 창조 신화에서 물은 중요한 요소였다. 가나안들이 섬긴 신인 바알은 물(즉, 생명)을 공급하는 폭풍의 신이었다. 이러한 신화와는 정반대로, 야웨께서 홀로 창조주시며, 유지시키시는 분이시며, 비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10:12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한다(참조, 16 절).

12-16 절은 램 51:15-19 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다. 야웨께서 세상을 “지혜”로써 세우셨다는 신학적 주장은 잠 8:22-31 에 있다. 이것은 요 1:1-14 의 구약적 배경을 이룬다.

**10:14-15** 이 두 절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계속하여 말한다(참조, 3-5 절). “호흡”이라는 용어는 영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이다(참조, 겔 37 장).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영**

- I. 헬라어 용어
  - 가. 프네오, 불다
  - 나. 프노에, 바람, 호흡

- 다. *프뉴마*, 영, 바람
- 라. *프뉴마티코스*, 영에 관한
- 마. *프뉴마티코-스*, 영적으로
- II. 헬라 철학적 배경(*프뉴마*)
  -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자기 훈련의 시기까지 가지는 생명력으로 사용했다
  - 나. 스토아학파는 이 용어를 오감 및 인간의 지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프쉬케*(혼) 또는 *누스*(마음)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 다. 헬라의 사상 - 이 용어는 신적 활동을 뜻하였다(즉, 신탁, 마술, 주술, 예언 등)
- III. 구약(*루아흐*)
  - 가. 유일신의 행동(즉, 성령, 구약에서 약 90 회 사용됨)
    1. 긍정적, 창 1:2
    2. 부정적, 삼상 16:14-16,23; 왕상 22:21-22; 사 29:10
  - 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생명력(즉, 하나님의 호흡, 참조, 창 2:7)
  - 다. 70 인역은 *루아흐*를 *프뉴마*로 번역한다(70 인역에서 100 회 정도 사용됨)
  - 라. 후기에 속하는 랍비들의 글, 묵시 문학, 사해사본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프뉴마*를 천사들과 악령에 대해 사용함
- IV. 신약(*프뉴마*)
  - 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능력, 힘주심
  - 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심
    1. 예언
    2. 기적행함
    3.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
    4. 지혜(즉, 복음)
    5. 기쁨
    6. 새 시대의 도래
    7. 회심(즉, 마음을 열게 하심과 거주하심)
    8. 그리스도를 닮음
    9.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들
    10. 신자들을 위한 기도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도록 각성시킨다. 인간은 이 교제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사역을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섬김과 신뢰로 이끈다.
  - 다. 이 영적 연속성의 한 쪽에 성령이 위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은 다른 한 편에 위치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라. 바울은 성령/영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킨 신약의 저자이다
    1. 바울은 성령을 몸(즉, 죄의 본질)과 대조시킨다
    2. 바울은 영을 육체와 대조시킨다
    3. 바울은 성령/영을 인간의 사고, 지식, 존재와 대조시킨다
  - 마. 고린도후서에서 예를 들면
    1. 성령, 12:3
    2.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남, 2:4-5
    3.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자에게 나타남

- ㄱ. 새로운 마음가짐, 2:12; 14:14,32
- ㄴ. 새 성전, 3:16; 6:19-20
- ㄷ. 새 생명(즉, 도덕성), 6:9-11
- ㄹ. 침례(세례)로 상징되는 새 생명, 12:13
- ㅁ. 하나님과 하나됨(즉, 회심), 6:17
- ㅂ.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2:12-15; 14:14,32,37
- ㅅ. 모든 신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받는 영적 은사, 12 장과 14 장
- 4. 영이 육체와 대조를 이룸, 9:11; 10:3; 15:44
- 5. 영적 영역이 육체의 영역과 대조를 이룸, 2:11; 5:5; 7:34; 15:45; 16:18
- 6. 인간의 영적/내적 삶을 육신과 구별하여 말함, 7:34
- 바. 인간은 창조된 세계의 두 영역에서 산다(즉, 물리적 및 영적).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져 나왔다(창 3 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으심, 부활하심, 약속하신 재림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권고하신다. 성령은 이 “세대”에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와 성자의 옹호자로서 일하신다. 현재 새 시대가 도래했으나, 범죄하고 반역한 옛 시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계신다.

10:16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시 73:26).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참조, 창 32:28).

▣ “그의 기업의 지파라” KJV 는 “그의 기업의 지팡이”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측량 또는 기준을 뜻하는 막대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역본은 NASB 의 번역을 따른다.

**개역개정 10:17-18**

<sup>17</sup>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sup>18</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0:17-18 이 연은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BDB 62, KB 72, 칼 명령)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 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만 가지고 포로로 가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마르둑이 더 강하거나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10:18 마지막 행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제시되었다.

- 1. NASB - “그들이 발견될 것이다”
- 2. MT, NKJV -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발견할 것이다”(마차에서, BDB 592)
- 3. NRSV, 페쉬타 - “그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 4. TEV -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 5. NJB, JPSOA, NET - “그들이 그것을 느낄 것이다”
- 6. LXX - “너희의 역병이 드리날 것이다”
- 7. REB, NEB - “그들을 꼭짜서 마르게 하라”(마차, BDB 594)
- 8. NIV - “그들이 잡혀갈 것이다”

이 행은 분명히 아무도 사로잡힘이나 포로됨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시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문맥과 단어의 어근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유용한 두 가지 사항이다.

**개역개정 10:19-22**

<sup>19</sup>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sup>20</sup>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sup>21</sup>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sup>22</sup>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10:19-22 이 연의 애가는 렘 8:18-22 과 비슷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 나타낸다. 한편, 국가를 의인화하여 표현한다. 땅이 인간의 죄를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참조, 신 27-28 장; 롬 8:18-22). 유목민과 관련을 가진 여러 은유적 표현, 특히 “장막”과 “양떼”가 나온다.

10:19 예레미야는 병듦 또는 상처를 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한다(참조, 30:17). 이것은 사 1:5-6; 53:5; 시 103:3 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동의어적 평행법을 주목하라). 이 절들을 육체적인 병고침에 대한 약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주제: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 병고침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였다.
2. 이 일이 의도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해 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3. 이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말 3:6), 병을 고쳐주심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신다.
5.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 있다.
  - ㄱ. 바울, 고후 12:7-10
  - ㄴ. 드로비모, 딤후 4:20
6. 랍비들의 견해와 야고보서에서 ‘죄와 질병’이 서로 결부되어 나온다(참조, 요 9:2; 약 5:13-18).

7. 병고침은 새 언약의 보증이 아니다. 이것은 사 53 장과 시 103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죄와 관련이 없다.
8.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함에 있어 커다란 신비함이 있다.
9. 병고침을 받는 일이 모든 세대에 있었지만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많이 있을 것이다.

▣ 19 절의 마지막 행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즉, 다양한 모음의 사용).

1. NASB, NKJV, NJV, JPSOA - “내가 그것을 반드시 참아야만 한다”
2. NRSV - “만일 이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면, 나는 견딜 수 있다”
3. TEV -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여겼다”

1 항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2 항은 심판을 간과하여 평가함을 나타낸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나는 1 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0:21 “목자들” 이들(BDB 944 I)은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킨다(참조, 2:8,16; 3:15; 6:3; 12:10; 22:22; 23:1,2,4; 25:34-36; 50:6; 51:23; 겔 34:3).

10:22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포로됨이 가까움을 가리킨다. 북쪽은 침략을 나타내는 관용어였다. 그 이유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오는 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 방향만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사막지대였다.

#### 개역개정 10:23-25

- <sup>23</sup>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 <sup>24</sup>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십시오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 <sup>25</sup>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0:23-25 이것은 선지자가 백성을 위하여 말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마침기도이다. 7: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10:23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재확인하여 나타낸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참조, 잠 3:5,6; 시 37:23; 66:8,9).

10:24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것은 *피엘* 명령(BDB 415, KB 418, 참조, 2:19)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심을 강조한다(참조, 잠 3:12; 잠 103:6-14; 히 12:5-13).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는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있어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10:25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참조, 시 79:6-7) 사용하신 열국을 심판(문자적으로, “쏟아 붓다,” BDB 1049, KB 1629, *칼* 명령)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한다.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야웨를 아는 것 및 야웨의 성품을 반영하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다가 회개하려 하지 않음을 묘사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8장에서 어떤 은유적 표현 또는 유추를 사용하는가?
2. 8장에서 왜 무덤이 열려졌는가?
3. 8장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누구인가?
4. 누가 8:18-9:16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5.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내실 심판에 대하여 9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제시하라.
6. 예레미야가 할레와 할레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묘사하라.
7. 10장에 나오는 바 우상숭배의 헛된 이유를 제시하라.
8. 10장에서 야웨의 성품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제시하라.
9.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는가?

# 예레미야 1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깨어진 언약	깨어진 언약	예레미야와 언약의 수호	예레미야와 언약	예레미야와 언약
11:1-8	11:1-5 11:6-8	11:1-8	11:1-5 11:6-8	11:1-5 11:6-8
11:9-13	11:9-10 11:11-13	11:9-12 11:13 (13)	11:9-14	11:9-13
11:14-17 (15-16)	11:14-17 (15-16)	11:14 성전에 자주 가는 자들에 대한 책망	11:15-16 11:17	11:14-17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음모	예레미야의 생명이 위협받다	예레미야가 아나돏에서 박해받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첫 애가.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 (11:18-12:6)
11:18-20 (18-20)	11:18-20 (20)	11:18-19 11:20 (20)	11:18-19 11:20	11:18-20 (18-20)
11:21-23	11:21-23	11:21-23	11:21-23	11:21-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1-13 장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3:7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서, 요시야 및 선지자들(1:4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참조, 7-8 절)!
- 나. “언약”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신명기에 있는 단어와 구를 사용하였다.
- 다. 야웨와 예레미야가 나눈 매우 솔직한 여러 대화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불리는데, 그 처음 것이 이 단락에 들어 있다(참조, 11:18-12:6; 15:10-21; 17:14-18; 18:18-23; 20:7-18). 예레미야는 야웨와 나눈 대화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임하였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1-5  
<sup>1</sup>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이르시되 <sup>2</sup>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sup>3</sup>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sup>4</sup>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뿔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sup>5</sup>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11:2 “말을 듣고” 이것은 칼 명령으로서 예레미야서에서 새로운 시/주제가 시작될 때 자주 나온다 (10:1의 설명을 보라).

▣ “이 언약의” 11-13 장은 언약(BDB 260, 3:7의 특별주제를 보라)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다. 이 문맥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출 19-24 장; 신 5 장). 하나님께서 일찌기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약속과 규정으로서 다가가셨다(즉, 노아, 창 6:18; 아브라함, 창 12, 15, 18 장). 이 언약들은 기본적으로 축복의 내용은 물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따르는 경고/저주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즉, 레 26 장; 신 27-29 장). 이 언약들은 주전 2,000 이후에 있었던 히타이트 봉신 조약의 형식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특별주제: 히타이트(봉신) 조약**

- 가. 1-13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하여 야웨께서 행하신 일의 요약이다.
- 나. 주전 2,000년 이후에 있었던 히타이트 조약은 신명기서의 구조와 역사적으로 같은 시대에 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출-레 및 수 24 장도 그러함). 이 조약의 형식은 주전 1,000년 이후에 바뀌었다. 이 사실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을 입증한다. 이 분야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G. E. 멘덴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의 법과 언약* 및 존 왈튼,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 안에서의 문화*(95-107 쪽)을 보라.

- 다. 주전 2,000 이후의 히타이트 조약은 신명기와 평행을 이룬다
1. 서론(신 1:1-5, 말하는 자인 야웨에 대한 소개)
  2. 왕의 이전 일들을 회상함(신 1:6-4:49,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
  3. 언약적 용어(신 5-26 장)
    - ㄱ. 일반적(신 5-11 장)
    - ㄴ. 특별한(신 12-26 장)
  4. 언약의 결과(신 27-29 장)
    - ㄱ. 축복(신 28 장)
    - ㄴ. 저주/처벌(신 27 장)
  5. 신적 증인(신 30:19; 31:19; 또한 32 장, 모세의 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함)
    - ㄱ. 신전에 두는 사본
    - ㄴ. 봉신이 해마다 읽어야 할 사본
    - ㄷ. 히타이트 조약이 후기에 속하는 앗시리아 조약 및 시리아 조약과 다른 점:
      - 1) 왕이 이전에 행한 일에 관한 역사적 고찰
      - 2) 저주가 마지막에 언급됨
- 라. 주전 2,000 이후의 히타이트 조약은 여호수아서와 평행을 이룬다
1. 왕의 존재를 확인함(24:2)
  2. 왕이 행한 위대한 일에 대한 서술(24:2-13)
  3. 언약적 의무(24:14,23)
  4. 성소에 조약을 비치함에 대한 내용(24:25-26)
  5. 증인으로서의 신적 존재(24:22)
  6. 충성됨에 대한 축복, 언약을 어김에 대한 저주(24:20)

11:3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7 장과 28 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따름과 관련하여 축복과 심판의 내용을 제시한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켰다(참조, 수 8:30-35). 불순종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즉, 신 27:15-26; 28:15-19).

11:4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야웨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에 따라 다루시기 이전에(참조, 출 19-24 장) 그들을 은혜를 따라 다루셨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창 6:1-22; 15:12-21). 율법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야웨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였다!

▣ “쇠풀무” 이것(BDB 468 과 137 의 합성)은 광산업과 관련된 용어로서, 금속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힘든 노동”을 뜻한다(참조, 사 48:10; 신 4:20).

▣ “순종하고” 2 절의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언약에 조건적인 면과 무조건적인 면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하는 면에서는 조건적이고(참조, 31:32),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다(참조, 24:4-7). 하나님의 말씀(출 24:3-8)을 듣는 일(칼 명령, 참조, 2 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약 2:14-20).

▣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기초함을 주목하라; 순종이 없이는—언약이 없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31:31-34; 겔 36:22-38). 언약백성일지라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참조, 갈 3 장).

11: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이것은 야웨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창 12:1-3).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구는 가나안과 이집트와 바벨론의 문서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지칭하는 특별한 이름이었다(참조, 출 3:8,17; 신 6:3; 11:9; 26:9,15,15; 27:3; 31:20).

▣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이 구는 BDB 398 과 260 의 합성이다. 이 표현은 특별히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2:30; 4:20,38; 5:24; 10:8; 11:4; 27:9; 29:27). 이 구는 다음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여호수아 - 7:25,26; 14:14; 23:8
2. 사사기 - 9:19; 10:15; 12:3; 15:19
3. 사무엘상 - 14:45; 22:8,13; 24:19; 25:32; 26:21; 27:6; 28:18; 29:3,6,8
4. 사무엘하 - 16:12; 18:20
5. 열왕기상 - 2:26; 3:2; 8:8,24

구약의 여러 책들을 접했던 예레미야는,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요시아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하는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주제: 모세오경의 문서비평 (J,E,D,P)**  
(창세기 1-11 장의 서론[IV 항]에서 가져옴)

가. 오늘날의 학자들

1. 분명히 오경에 약간의 편집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이집트 서기관이 가진 특징과 같이 고대의 것을 당시의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ㄱ. 창세기 12:6; 13:7; 14:24; 21:34; 32:32; 36:31; 47:11
  - ㄴ. 출애굽기 11:13; 16:36
  - ㄷ. 민수기 12:3; 13:22; 15:22-23; 21:14-15; 32:33 이하
  - ㄹ. 신명기 3:14; 34:6
  - ㅁ. 고대 서기관들은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문을 다루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다:
    - (1)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은 어떤 것도 고치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들이 한 내용을 점검했다. 고대 수메르 서기관은 기록하기를: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복사되고, 개정되고, 비교되고, 계속적인 서명에 의해 입증되었다,” 주전 1400 년경.
    - (2) 이집트 서기관들은 고대문서를 그 시대의 독자에게 맞도록 하기 위해 자유롭게 수정했다. 콥란(즉, 사해사본)의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
2. 19 세기의 학자들은 오경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료들로 이루어진 문서라고 이론화했다(그라프-웰하우젠). 이 이론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 ㄱ.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의 사용
  - ㄴ. 본문 속에서의 분명한 중복들
  - ㄷ. 내용의 문학적 형식
  - ㄹ. 내용에 나타난 다른 신학적 배경

3. 가정되는 자료와 시기:

- ㄱ. J 자료(남방 이스라엘에서 야웨라는 이름을 사용) - 주전 950 년
- ㄴ. E 자료(북방 이스라엘에서 엘로힘을 사용) - 주전 850 년
- ㄷ. J 자료와 E 자료가 결합됨 - 주전 750 년
- ㄹ. D 자료(요시야 왕의 개혁 때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발견된 “율법책”[왕하 22:8]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그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에게 의해 쓰여진 신명기로 추측되었다.) - 주전 621 년
- ㅁ. P 자료(특별히 의식과 절차를 위해 구약을 제사장적 관점으로 고쳐 씀) - 주전 400 년
- ㅂ. 분명히 오경에 약간의 편집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 유대인은 다음의 사람들을 편집자로 주장한다
  - (1) 기록한 시기의 대체사장(혹은 그의 가족 중 다른 사람)
  - (2) 예레미야 선지자
  - (3) 서기관 에스라 - 에스드라스 4 서는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원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것을 다시 썼다고 말한다.
- ㅅ. 그러나 문서가설(JEDP) 이론은 오경의 증거보다 근대의 문학 이론과 범주를 더 반영한다(R. K. 해리슨, *구약개론*, 495-541 쪽과 *틴델 주석*, “레위기” 15-25 쪽)
- ㅇ. 히브리 문학의 특징
  - (1) 창 1, 2 장에 있는 것과 같은 중복은 히브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보통 일반적인 설명이 나온 후 특별한 내용이 다뤄진다(즉, 십계명과 거룩한 법전). 이것은 진리를 강조하거나 기억을 돕기 위한 구두적 방법일 것이다.
  - (2) 고대 랍비들은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두 이름이 신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ㄱ) 야웨 -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구속자되심을 말함(참조, 시 19:7-14; 103).
    - (ㄴ) 엘로힘 -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 공급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참조, 시 19:1-6:104).
    - (ㄷ) 다른 고대근동 본문은 높은 신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이름을 사용한다(참조, *성경 난제 백과사전*, 글리슨 L. 아처, 68 쪽).
  - (3) 통일된 문학 작품에서 형식과 어휘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것은 성경 이외의 근동 문학에서 일반적이다(R. K. 해리슨, *구약개론*, 522-526 쪽).

나. 고대근동 문학으로부터의 증거는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위해 설형문자로 쓰여진 문서나 메소포타미아 형식(즉장적)의 구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영감의 줄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문학 현상(참조, P. J. 와이즈만의 *창세기에 대한 바벨론 자료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문체, 형식, 어휘에서 이집트의 영향이 현저한 창 37 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냈던 시기의 문학적 작품이나 구전을 모세가 둘 다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모세가 받은 정규 교육은 전체적으로 이집트식이었다! 모세오경의 정확한 문학형식은 분명치 않다. 비록 모세가 서기관이 쓰도록 했거나 혹은 구전(즉장시대)자료를 사용하였을 수 있지만, 나는 모세가 오경의 거의 모든 부분의 편집자이고 저자임을 믿는다. 그의 글은 후기 서기관에 의해 갱신되었다. 구약의 첫 부분의 책들에 대한 역사성이나 신뢰성은 현대 고고학으로 뒷받침된다.

다. 사무엘의 지휘 아래 동시대에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을 작업한 서기관들(이스라엘의 다른 부분에서)이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생긴 이론이다(참조, 삼상 10:25). 이 이론은 E. 로벗슨의 *구약의 문제점*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 “아멘” 이것은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이다(참조, 합 2:4; 또한 3:12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는 “건고히 되다” 또는 “분명히 하다”라는 어근에서 왔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내용은 “충성됨” 또는 “믿을 수 있음”이다. 이 본문과 28:6에서는 오늘날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말로써 동의함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1:6-8**

<sup>6</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sup>7</sup>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sup>8</sup>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11:6 이것은 순회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선포하다”라는 동사는 칼 명령으로 되어 있다(BDB 894, KB 1128, 참조, 2:2; 3:12; 7:2; 19:2, 여기서는 같은 동사가 칼 완료형임).

11:7-8 이 두 절은 70 인역에서 생략되었다(8 절의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를 제외하고는).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볼 때 7:24-26과 비슷하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전한 야웨의 메시지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나타낸다.

11:7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앞의 구는 같은 어근(BDB 729, KB 795)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으로서, 문법적으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두 번째 구는 문자적으로 “일찍 일어나 경계하기를”이며, 두 단어가 모두 *히필* 부정사 절대형으로 되어 있다.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에게 출애굽과 광야 방랑 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써 거듭 거듭 경계하셨다. 야웨께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써 자신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드러내셨다.

1. 쉼이나 구름
2. 물을 주심
3. 양식을 주심
4. 의복
  - ㄱ. 헤어지지 않음
  - ㄴ.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늘어남
5. 모세에게 주신 돌판을 통한 계시

▣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2 절의 설명을 보라. “목소리”는 은유적으로 야웨의 모든 계시를 나타낸다(위의 내용을 보라).

11:8 이 절은 언약백성이 야웨의 계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제시한다.

1.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 BDB 1033, KB 1570, 칼 완료형(참조, 7:24; 9:13)
2.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 BDB 639, KB 692, 히필 완료형(참조, 35:15)
3.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참조, 3:17; 7:24; 9:14; 13:10; 16:12; 18:12; 23:17)

야웨께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신다

1. 명시된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게 하신다(참조, 레 26 장; 신 27-29 장)
2. 저주가 임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식 또는 위기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써 하나님과 매일 누리는 관계를 뜻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경향(참조, 신 9:6,7,13,24; 10:16; 31:27)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오래참으심에 대한 진리(참조, 출 34:6-7; 민 14:18; 신 4:31; 느 9:17; 시 86:15; 103:8-18; 145:8-13)가 더욱 더 밝게 빛난다!

**개역개정 11:9-13**

<sup>9</sup>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sup>10</sup>그들이 내 말을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sup>11</sup>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sup>12</sup>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sup>13</sup>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11:9

NASB, NKJV,

NRSV, NJB “음모”

TEV “해하려 계획함”

70 인역 “작당”

NET “계획된 반역”

히브리 동사(BDB 905)는 해하려고 사람들이 “함께 모의함” 또는 “연합함”을 나타낸다(주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사용됨).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단어가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야웨께 대하여 이렇게 행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11:10 “그들이 . . .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 세대가 자기 선조들이 행한 죄와 반역을 인식하기를 거부하였다. 조상들처럼, 그들 자신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자가 되었다(참조, 출 20:5). 죄의 영향력이 시간을 따라 미치고 있다!

▣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유대인의 통일 왕국(사울, 다윗, 솔로몬)은 주전 922 년에 분리되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에브라임의 지도자인 여로보암 사이에 세금 및 노역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부터 북쪽의 10 지파는 이스라엘(집합적), 에브라임(가장 큰 지파), 또는 사마리아(수도)로 불렸다.

▣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동사는 *히필* 완료형(BDB 830 I, KB 974)으로서 강화되고, 고착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구인가!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은 조건적인 것이었다. 다음 세대가 계속하여 언약을 깨뜨렸다(완료형은 고착된 상태를 나타낸다). 언약은 그 뒤따르는 결과를 명시하였다(참조, 레 26 장; 신 27-29 장). 야웨께서 언약을 폐기하셨고, 예레미야는 31:31-34 에서 “새” 언약의 필요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다. 타락(창 3 장)을 인하여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 대신에 구속적인 일을 행하실 것이다(참조, 겔 36:22-38).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히브리서).

11:11 언약에 따른 저주가 실현된다(참조, 6:19).

▣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 거듭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참 회개 때문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인함이었다! 언약이 깨졌다! 야웨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11 절; 7:16).

11:12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우상들은 들을 수도, 볼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

▣ “그 신들이 . .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446, KB 448)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은 구원해 줄 수 없다!

11:13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각 도시마다 그들이 바알/아세라를 섬기는 장소가 있었다(참조, 2:28,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 수치스러운 물건” 히브리인들은 종종 “수치”라는 히브리 단어의 모음을 이방인의 신들의 이름과 결합시켜 사용하였다(즉, *이쉬보셀* = “부끄러움의 사람,” 참조, 삼하 2:8, 대상 8:33 에 나오는 *에쉬바알* 대신에). 이것은 우상들을 조롱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수치”(BDB 102)라는 용어는 가나안 만신전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산 종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W. F. 알브라이트, *이스라엘의 고고학과 종교*를 보라).

개역개정 11:14-17

<sup>14</sup>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sup>15</sup>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sup>16</sup>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17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11:14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처음 두 동사는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미완료형이다. 중보기도의 시간이 지났다(참조, 11 절; 7:16; 14:11).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려고 걱정하셨다(참조, 출 32:10).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히 12:5-11). 하나님의 백성이 상당히 병들었기에, 오직 근본적인 수술만이 도움이 된다!

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예언서를 해석하도록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이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제 4 장에서 드러난다: “과멸과 축복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73-102 쪽). 현대인들이 고대의 동양적인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예언서에서 시로된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그릇된 접근법이다.

11:15-16 이 두 절은 시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세아서(1-3 장)의 경우처럼, 신실하지 않은 아내로 묘사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가족적 관계에 속함을 나타낸다(참조, 2:2).

11:15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70 인역은 이 어려운 히브리 본문을 ‘유다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의존하였다’라고 제시한다. 대부분의 영어역본은 70 인역을 따르며, 예레미야가 7 장에 기록된 성전설교와 연결시킨다.

맛소라 본문은 다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1) 먹으려고 희생제물로 드린 고기를 집으로 가져갔거나 (2) 그 고기를 성전에서 먹으면서, 바알을 예배하는 악한 일들을 계획하였다. 모세의 글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오직 제사장들만 권리를 가진 일이었다. 이 사실은 백성들이 야웨와 야웨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였음을 나타낸다!

*엑스포지티브 성경주석*(제 6 권, 455 쪽)은 본문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시한다.

1. 남성 복수 형용사가 여성형 명사를 수식함
2. 연계형 단수 명사를 복수형 동사가 뒤따름
3. 맛소라 본문의 숨표가 의미있지 않음
4. 한 명사의 어미가 고어체임
5. 마지막 동사 앞에 나오는 부사의 의미가 일반적이지 않음

### 특별주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 드린 제사 및 그 중요성

#### I. 메소포타미아의 제사법

- 가. 제사는 전적으로 어떤 신에게 드리는 음식이었다. 제단은 음식을 배설하는 신의 탁자였다. 제단 옆에는 그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향단을 두었다. 피를 드리는 예식은 없었다. 칼을 든 자가 짐승의 목을 잘랐다. 신들과 왕인 제사장과 참석자들이 음식을 나누었다. 제물을 가져온 자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다.
- 나. 속죄제사가 없었다.
- 다. 질병과 통증을 신들에 의한 벌로 여겼다. 한 짐승을 가져와 죽였다; 이러한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행위였다.
- 라. 이스라엘의 제사는 달랐고 독특했다. 이 일은 사람이 자신이 일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원래 시작되었다(참조, 창 4:1-4; 8:20-22).



II. 가나안의 제사법(이스라엘의 경우와 비슷함)

가. 자료

1. 성경의 자료
2. 페니키아의 문서
3. 라스 샴라 서판, 주전 1,400 년 경에 속하는 이 서판은 우가릿에서 발굴됨, 가나안의 신들과 신화에 대한 내용임

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제사는 상당히 비슷하였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피에 대한 강조점은 없었다.

III. 이집트의 제사법

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강조점은 없었다

나. 제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다. 제사는 신들의 진노를 멈추기 위한 의도였다

라. 제물을 드리는 자는 구원 또는 용서를 기대하였다

IV.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제도가 가나안의 제사제도와 가까웠지만, 그들의 제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가. 이에 대한 서술

1. 제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표현이었다.
2. 제사 규정에 대한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제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 창 7:8; 8:20).
3. 제사는 드리는 일이었다(짐승이나 곡식).
4. 제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제단 위에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나타내어야만 했다.
5. 제단은 제물을 올려 놓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다.
6. 제사는 예배의 외적 행위였다(외적으로 드러난 기도).
7. 제사의 정의는 “드러진 기도” 또는 “의식화된 기도”이다. 예식의 중요성과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고든 J. 웬함(틴델 주석 시리즈, “민수기,” 25-39 쪽)이 잘 드러낸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제사와 관련된 많은 양의 자료를 담고 있으며, 제사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나. 관련된 제사

1.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 ㄱ. 온 땅이 야웨의 것임을 인정함과 관련이 있음
- 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뜻함
- ㄷ.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일이 바른 것임
- ㄹ.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헌물이나 선물이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할 일이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것을 드리는 것, 그 이상이었다. 제사는 그가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 ㅁ. 선물을 파괴하는 일이었기에, 그것을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 ㅂ. 번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갔다
- ㅅ. 초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에 세워졌다. 제단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기에, 그곳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다

2.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봉헌함을 나타냄

- ㄱ.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세 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였다.

- ㄴ. 짐승을 전체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을 표현하였다.
- ㄷ.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눈에 보이는 선물이었다.
- ㄹ. 하나님과의 교제
- 3. 하나님과의 교제
  - ㄱ. 제사의 친교적 성격
  - ㄴ. 그 한 가지 예는 화목제목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상징하였다
  - ㄷ. 제사는 이러한 교제를 누리거나 재확인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 4. 죄의 속죄
  - ㄱ.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이 깨뜨린 관계(언약)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했다
  - ㄴ. 속죄제의 경우는 깨어진 관계를 인하여 공동체적 식사가 없었다
  - ㄷ. 피의 중요성
    - (1) 사람을 위해 제단에 دم
    - (2) 제사장을 위하여 휘장에 دم
    - (3) 대제사장과 국가를 위하여 시온소에 دم(레 16 장)
  - ㄹ.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로는 두 종류가 있었다. 두 번째 것은 속건제 또는 범죄함을 인하여 드리는 제사로 불렸다. 이 경우에, 범죄한 자는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였다.
  - ㅁ.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지은 경우를 위한 제사는 없었다 - 4:1,22,27; 5:15-18; 22:14

11:16 “푸른 감람나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나라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한 두 가지의 농업적 상징은 (1) 감람나무(참조, 시 52:8; 호 14:6; 롬 11:17-24) 및 (2) 포도나무(즉, 사 5 장)이다.

▣

NASB, 70 인역 “그 가지가 쓸모없도다”  
 NKJV, NRSV, JPSOA “그 가지가 꺾였도다”  
 TEV “그 가지를 꺾는도다”  
 NJB, REB “그 가지가 삼켜지리도다”

세 가지 동사가 가능하다.

1. *r'* - BDB 949, KB 1270, “부수다”를 뜻함, 참조, 15:12(*r'h*의 변형, KB 1264)
2. *r'h* - BDB 949, KB 1262, “쓸모 없는 또는 해로운”을 뜻함(70 인역, 벤자민 데이빗슨, 분석적인 히브리어와 갈대아어 사전[DCLXXXVI, IV 쪽]을 보라)
3. *b'r* - BDB 128, KB 145, “불 붙이다”를 뜻함

야웨의 심판(즉, 불, BDB 77, 또는 불을 붙이는 일)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즉, 유다)를 파괴시켰다.

11:17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또 다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라는 농업 용어를 사용하여 백성을 묘사한다(참조, 2:21; 출 15:17; 시 44:2; 80:8; 사 5:2). 야웨께서 그들의 원천이며 생명이다.

▣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 동사(BDB 494, KB 491, 히필 부정사 연계형)는 종종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25:6,7; 32:30; 44:3,8; 신 4:25; 9:18; 31:29; 32:16; 왕상 16:7; 왕하 17:15-17; 21:6).

▣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7:9; 11:13; 32:29 를 보라. 또한 2:20 의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다산숭배를 보라.

**개역개정 11:18-20**

<sup>18</sup>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 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sup>19</sup>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sup>20</sup>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11:18-12:4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불리는 본문의 처음 것이다(참조, 11:18-12:6; 15:10-21; 17:14-18; 18:18-23; 20:7-18). 18-20 절 및 12:1-4 은 시로 되어 있다. 이 처음 본문은 예레미야의 친족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11:19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놀라고 있다(18 절). 그가 음모의 강도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즉, 1 행, 참조, 사 53:7).

3 행과 5 행은 청유형으로 되어 있다.

1.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BDB 1007, KB 1469, *히필* 청유형,
2. 그를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끊자- BDB 503, KB 500,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20 절의 3 행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꾀한 자들에게 청유형을 사용한다 -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그 열매를 함께”(1 항)에 대한 간략한 보충 설명. 이 단어(베라호모, BDB 536)는 대개 “빵” 또는 “양식”을 나타낸다. REB 는 이것의 모음을 조정하여 “수액”으로 번역하였다. TEV 는 “이것이 아직 강건할 때에”로, NRSV 는 “그것이 힘 있는 채로,” *베로호호*로 번역하였다. UBS 본문 프로젝트 (211 쪽)는 “빵/양식”에 A 등급을 준다.

▣ 19 절의 마지막 두 행은 평행을 이룬다. 이 같은 사상이 두 가지 상으로 묘사된다.

1. “끊자” - BDB 503, KB 50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 동사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됨
  - ㄱ. 나무를 자르다
  - ㄴ. 어떤 것의 조각을 잘라내다, 여기서는 “산 자의 땅,” 참조, 시 52:5; 사 53:8
2.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 BDB 269, KB 269, *니팔* 미완료형, 참조, 시 41:5; 83:4; 109:13

이 두 가지 은유적 표현은 죽음을 나타낸다.

11:20 “공의로 판단하시며” 이 단락은 오래된 질문인 ‘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으며, 악인이 번성하는가?’를 다룬다(존 W. 웬함, *하나님의 선하심 및 악의 수수께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를 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말하며, 12:1 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것은 읍기를 회상시킨다. 또한 시 37:73 및 합 1:2-4 을 보라.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불공정한 실재를 직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문제가 야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역(즉, 창 3 장)에 있다. 이것은 야웨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

▣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행위 뿐 아니라 동기도 살피사(참조, 17:10; 20:12; 시 7:9; 17:3; 26:2; 66:10; 139:23) 심판하신다(동사, BDB 103, 참조, 6:27).

“마음”(문자적으로, “콩팥”)은 근본적으로 아랫쪽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이다(BDB 480). 고대인들은 감정과 동기가 이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고 여겼다(참조, 12:2). “마음”에 관하여는 4: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맛소라 본문의 동사는 “벗겼다”(BDB 162, 참조, 70 인역)이지만,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말렸다”(문자적으로, “굴러 올려 놓다,” 참조, 시 22:8). 두 단어의 발음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개역개정 11:21-23**

<sup>21</sup>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sup>22</sup>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sup>23</sup>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11:21-23 이것은 20 절에서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에 대한 야웨의 응답이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다(참조, 1:1). 주석가들 사이에 ‘이것이 두 제사장 가문인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의 해묵은 갈등에 기초한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문에서 이러한 생각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저에 이러한 배경이 있음은 명백하다. 당시 사독은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하여 아나돗으로 쫓겨났었다(참조, 왕상 2:26-27).

11:22 “칼...기근”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다가 오는 재난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 가지 용어는 다음과 같다(참조, 14:12; 21:7,9; 24:10; 27:8,13; 29:17-18; 32:24,36; 34:17; 38:2; 42:17,22; 44:13).

1. 칼 - 침략
2. 기근 - 가뭄 또는 성이 포위됨
3. 질병 - 곤충, 병, 또는 포위됨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언약은 무엇인가?
2. 5 절에 나오는 “아멘”이란 히브리 단어를 정의하라.
3. 바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이 섬겼는가?
4. 15 절은 호세아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5. 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가?

# 예레미야 1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레미야의 기도 12:1-4 (1-4)	예레미야의 질문 12:1-2 (1-2)  12:3-4 (3-4)	악한 자의 번영 12:1-3 (1-3)  12:4a	예레미야가 주님께 질문함 12:1-4 (1-4)	예레미야의 마지막 개인적 애가 (11:18-12:6) 12:1-4 (1-4)
12:5-6 (5-6)	12:5-6 (5-6)	12:4b-5 (4b-5)  12:6	12:5-6 (5-6)	12:5-6 (5-6)
하나님의 대답 12:7-13 (7-13)	12:7-9 (7-9)  12:10-13 (10-13)	파괴된 기업을 인하여 야웨께서 애곡하시다 12:7-13 (7-13)  이웃 나라들: 그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	주님의 백성을 인한 주님의 슬픔 12:7-13 (7-13)  이스라엘의 이웃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애곡 12:7-13 (7-13)  유다의 이웃
12:14-17	12:14-17	12:14-17	12:14-17	12:14-1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2:1-4

<sup>1</sup>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sup>2</sup>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sup>3</sup>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sup>4</sup>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12:1 “의로우시니이다” 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께서” 야웨께서 의로우시다. 이 사실은 그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낸다(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

1. 자비하심(BDB 933) - 출 34:6; 신 4:31;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31; 율 2:13; 은 4:2
2. 자애로우심(BDB 337) - 출 34:6;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31; 율 2:13; 은 4:2
3. 노를 더디내심(BDB 74 와 BDB 60) - 출 34:6; 시 86:15; 103:8; 느 9:17; 율 2:13; 은 4:2
4. 인자가 많으심(BDB 912 I 과 BDB 338) - 출 34:6-7; 시 86:15; 103:8; 느 9:17; 율 2:13; 은 4:2
5. 신실하심(BDB 54) - 출 34:6; 시 86:15
6. 용서가 많으심(BDB 699) - 느 9:17
7. 버리지 않으심(BDB 736 I) - 느 9:17,31
8. 악을 버리심(BDB 636, KB 688, *니팔 분사* + BDB 948) - 율 2:13; 은 4:2
9. 위대하심(BDB 42, 152) - 느 1:5; 9:32
10. 크고 두려우심(BDB 152, 431) - 느 1:5; 4:14; 9:32
11. 언약을 지키심(BDB 1036, 136) - 느 1:5; 9:32
12. 영원한 사랑(BDB 338) - 느 1:5; 9:32

▣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 장에는 3 개의 연이 있다. 처음 두 연(1-4 절; 5-6 절)은 11:18 에서 시작된 예레미야의 첫 고백의 일부이다. 이것은 법정 장면으로써 제시된다(2 장도 마찬가지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신성모독에 아주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세의 두 유대인 주석가인 라쉬와 김히는 예레미야가 한 어려운 말을 잘 설명하려고 애썼다. 라쉬는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김히는 선지자가 혼동이 되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속 깊이 느끼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누렸던 깊이 있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거짓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 ▣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이 둘은 히브리어에서 서로 동의어적 평행을 이룬다 (부록 I: 히브리 시를 보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커다란 주제이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모세의 율법 및 시 1 편과 아주 반대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불공평함을 인하여 항상 씘름하였다(참조, 욥기; 시 73 편; 하박국; 말 3:13-15). 시 37:7-9 은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충고의 결정체이다.

12: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야웨께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민족을 세우셨다(참조, 창 12:1-3; 15:12-2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시고/심으시고(참조, 11:17) 세상에 대한 빛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게 되어 야웨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었다(참조, 겔 36:22-38).

#### ▣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지이다” 그들은 종교는 가졌으나 교제는 가지지 않았다(참조, 사 29:13; 겔 33:30-33; 롬 2:17-29; 딤후 3:5).

12:3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알다”라는 히브리 단어(1:5 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창 4:1; 렘 1:5).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기와 심장을 아심을 확신하였다(참조, 시 130:1,23).

#### ▣ “끌어냄과 같이” 2 절의 마지막 두 행에는 서로 평행을 이루는 두 명령이 나온다.

1. “그들을 끌어내다” - BDB 683, KB 736, *히필* 명령
2. “그들을 구별하여 놓다”(문자적으로, “거룩하게 하다”) - BDB 872, KB 1073, *히필* 명령 (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두 경우 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의 악함을 곧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간청을 나타내는 명령) 하는 내용이다(참조, 암 3:2; 벧전 4:17).

예레미야는 다윗과 많이 비슷하였다(즉, 시편의 일부); 그는 원수갚아 주시기를 매우 강력하게 요청드렸다.

▣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유다의 사악함은 레 26 장과 신 27-28 장의 저주가 팔레스타인에 내리게 하였다(참조, 호 4:1-3).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산물도 양떼도 없다! 이것은 야웨께서 원하셨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같은 질문인 “언제까지”를 이사야가 사 6:11-13 에서 질문한다!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에게 오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연의 정상적인 순환이 어긋나는 결과를 일으켰다(참조, 롬 5:12-21; 8:18-25).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존 W. 웬햄, *하나님의 선하심 및 악의 수수께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를 보라*).



▣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행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1. 선지자들이 평안과 번영의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참조, 5:31)
2. 유다 백성이 다음 사항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쁘게 행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
  - ㄱ.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 ㄴ. 성전이 존재함(참조, 7 장)

본문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1. “그”가 누구인가?
  - ㄱ. 예레미야 - “그”(모호함)
  - ㄴ. 하나님 - 70 인역, NRSV, TEV, NJB, REB
2. 어떻게 마지막 단어를 번역할 것인가?
  - ㄱ. 우리의 길(오르호테누)- LXX, NJB, REB
  - ㄴ. 우리의 끝(아하리테누) - MT, NASB, NKJV, JPSOA
3. 우리의 운명 - NRSV(아마 2 항)

NET(1323 쪽)는 이 행이 신 32:20 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개역개정 12:5-6**

<sup>5</sup>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sup>6</sup>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12:5-6 ‘네가 네 고향에서 받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받는 어려움을 견디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참조, TEV, JPSOA 각주).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네가 너무 참을성이 없고 너무 예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아직 어려운 것을 맞보지 못하였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시련은 연단을 위한 것이다(참조, 히 5:8)!

**12:6**

NASB	“심지어 그들이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NKJV	“그렇다. 그들이 대중을 부르며 너를 뒤쫓나니”
NRSV	“그들이 크게 외치며 너를 뒤쫓으리니”
TEV	“그들이 너를 치려고 연합하니”
LXX	“그들이 크게 외쳤다; 그들이 네 뒤에서 모였나니”
JPSOA	“그들이 폭도같이 외치며 너를 뒤쫓나니”

맛소라 본문은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가 설교한 후에, 그들(그의 고향 친구들과 친척들)이 큰 소리로 그를 정죄하며 내쫓고 있음을 본문이 시사한다.

▣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 동사(BDB 52, KB 63,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히필 지시형이다. 악한 자들의 아첨을 조심하라(참조, 9:8; 시 28:3; 잠 26:23,25). 친절할 말 가운데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참조, 시 12:6-8)!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 삶’이 지속적인 목표가 되었다.

6 절의 1-3 행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에게 한 나쁜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지막 행은 그들의 아침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2:7-13**

<sup>7</sup>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sup>8</sup>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으로라  
<sup>9</sup>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때가 아니나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sup>10</sup>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뿔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sup>11</sup>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으로다  
<sup>12</sup>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sup>13</sup> 무리가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12:7-13 이것은 장례식 만가나 애가를 나타내는 두 운율로 된 특징적인 시이다. 거의 모든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완료된 행동임을 나타낸다. 야웨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죄 짓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는 비탄에 잠긴 남편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즉, “내가 그녀를 미워하게 되었다,” 8 절). 이것은 8:18-9:16 및 호 11:8,9 과 비슷하다.

7-8 절이 신학적으로 5-6 절과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질문한다.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큰 소리로 거부당하였듯이, 야웨께서도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받으셨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여 “큰 소리”를 질러대듯이, 야웨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으르렁 거린다.” 6 절의 3 행이 사냥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9 절에서 먹잇감을 찾는 짐승은 이 내용과 문자적인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 많은 언약적 용어를 주목하여 보라:

1. “내 집”(참조, 11:15; 호 8:1; 9:15)
2. “내 소유”(참조, 7,8,9 절; 2:7; 50:11)

3.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참조, 11:15)
4. “내 포도원”(참조, 사 5 장)
5. “내가 기뻐하는 땅”(참조, 3:19)

**12:7** 7 절에 나오는 평행법을 주목하라. 야웨께서 다음과 같이 행하셨다

1. 버리며 - BDB 736, KB 806, 칼 완료형
2. 내던져 - BDB 643, KB 695, 칼 완료형
3. 넘겼나니 - BDB 678, KB 733, 칼 완료형

하나님의 백성을 외국인 침략자들의 손(1:9 의 특별주제를 보라)에 넘기셨다!

**12:8-9** 야웨께서 그들을 거부하신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1.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자같이 되었다, 8 절
2.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매같이 되었다, 9 절

그 결과 야웨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돌보심이 “미워함”으로 바뀌었다(참조, 호 9:5; 암 6:8;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12:9**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해석과 관련하여, “무늬 있는”(BDB 840, KB 997)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긴다. 이 단어는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색이 있는을 의미할 수 있다(BDB 840, 참조, 샷 5:30). 따라서

1. 하이에나
2. 무늬 있는 매(NRSV, NKJV)

JPSOA 는 이 구를 “매 [또는] 하이에나같이”로 번역하였다(참조, NJB). LXX 는 이것을 “하이에나의 굴”로 번역하였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무늬 있는”에 A 등급을 주지만, 이 구를 (“나의 유산이 내게 대하여) 하이에나의 은신처같이(매가 그 위에[떠돌듯이],” 214 쪽)로 제시한다. REB 도 이렇게 번역하였다.

적들은 신바벨론 제국의 용병을 이룬 주위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왕하 24:2).

▣ 9 절의 마지막 두 행에 세 가지 명령이 있어, 언약을 범한 일의 결과를 제시한다(참조, 신 28:64). 새와 짐승이 유다의 넘어진 자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참조, 7:33; 15:3; 16:4; 19:7; 34:20; 시 79:2; 사 18:6; 56:9).

1. 가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2. 모아라 - BDB 62, KB 74, 칼 명령
3. 가져오라 - BDB 87, KB 102, 히필 명령

**12: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목자들”은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일컫는다(참조, 렘 2:8; 10:21; 겔 34:1-10).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동맹한 외국을 가리킨다(참조, 6:3).

**12:11**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은 땅이 황폐함은” 여기에 *שאמ*(BDB 1031, 참조, 10 절의 4 행)이라는 어근이 반복되어 나온다.

1. 여성형 단수 명사 - BDB 1031
2. 여성형 단수 형용사 - BDB 1031
3. 니팔 완료형 동사 - BDB 1030, KB 1563

NASB 연구성경(1075 쪽, 각주)는 11 절에 7 개의 “ㅅ”소리 및 7 개의 “ㄴ”소리가 나온다고 언급한다. 부록 1: 히브리 시를 보라.

▣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의인화됨)이 영향을 받는다는 신학적 강조점이 이곳에 또(참조, 4 절) 나타난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롬 5:12-21; 8:18-22).

▣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 행에는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나타낸다.

1. 유다가 죄를 범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아, 땅이 고통을 받는다(참조, 사 42:25).
2. 유다를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참조, 5:1; 사 59:16; 겔 22:30).

12:12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것은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1. 심판이 사막 바람을 타고 오고 있다, 참조, 4:11-13
2. 바알 예배장소, 참조, 2:20; 3:2,6; 17:2; 신 12:2-3
3. 침략자들이 유대 산지에 있는 “대상들의 길”(NASB, NJB 각주를 보라) 또는 도로(높은 곳, BDB 1046, 참조, 14:6)를 점령함

▣ “여호와와 칼이...삼키니” 이것이 외국인 침략자나 그들의 신이 가진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웨께서 벌하시는 힘을 가리킴을 기억하라(참조, 51:15-23; 사 10:5).

▣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것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8:11). “모든 자”는 문자적으로 “모든 육체”로서 동물이나 사람을 가리킨다. 유다의 우상숭배를 인하여 모두 고통을 받고 있었다.

12:13 “우리가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1. 농부가 심었으나 침략받음을 인하여, 아무도 밭에 나가 일할 수 없게 되어 잡초와 가시가 번성하였다(참조, 레 26:16; 신 28:38).
2. 가뭄이 연속적으로 있었다(참조, 4 절; 14:2-4).
3.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참조, 시 108:12; 127:1-2).

▣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것은 칼 명령(BDB 101, KB 116)으로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가리킨다. 계속하여 의지적으로 언약을 깨트린 결과를 그들이 거두고 있다(참조, 11:20; 17:10).

#### 개역개정 12:14-17

<sup>14</sup>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sup>15</sup>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sup>16</sup>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sup>17</sup>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2:14-17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단락이다. 이 본문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일에 참여하거나 그일로 인하여 혜택을 누린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미래의 공동체적 소망을 제시한다. 이 본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일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놀라운 본문이다. 1:5의 특별주제를 보라.

여기에 “뽑히다”(BDB 684, KB 737)가 자주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심다”의 반대어이다(1:10을 보라).

1. 이웃 나라가 뽑힌다, 14 절

2. 유다가 뽑힌다, 14 절
3. 그들이 뽑힌 후에 야웨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BDB 933, KB 1216, *피엘* 완료형), 15 절
4. 만일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이다
  - ㄱ. 그 민족을, 17 절
  - ㄴ. 뽑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17 절

12:14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에돔과 주위의 일부 나라들(즉, 암몬, 49:1; 모압, 슥 2:8-11)이 바벨론의 용병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포위와 약탈에 그들이 함께 하였음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

▣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이것은 선지자가 행하는 일을 묘사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서에서 빈번히 사용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1:10; 18:7).

12:15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다시 인도하리니” 이것은 놀라운 회복의 선언으로서, 유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한 전세계적 주제가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온다-3:17,19; 4:2; 16:19; 48:47; 49:6,39.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전한 전세계적 주제를 반영한다(참조, 2:2-4; 12:4-5; 19:16-25; 25:6-9; 42:6-12; 45:22-23; 49:5-6; 51:4-5; 56:6-8; 60:11-14). 1:5 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12:16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성전에서 행한 정규 예배에서 야웨의 이름을 사용하였다(참조, 4:2; 신 6:13; 10:20; 사 65:16; 율 2:32; 행 2:21; 롬 10:9-13).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심(15 절)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라는 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

1. “부지런히 배우며” - 이것은 같은 어근(BDB 540, KB 541, 참조, 사 42:6; 49:6)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강조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2. 유다의 믿음이 민족들에게 비취는 빛과 가르침이 됨을 주목하라(참조, 겔 36:22-38)

▣ “살아 있는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반영한다. 이 이름은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출 3:14). 1:2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동사 “세우다”(BDB 124, KB 139, *니팔* 완료형)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1:10; 18:9 24:6; 30:18; 31:4,28; 32:31; 33:7; 42:10; 45:4). 이것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12:17 성경의 언약이 가지는 조건적 특징을 반복하여 말한다(즉, 신 30:1-10).

# 예레미야 1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썩은 허리 띠 13:1-7	베 띠의 상징 13:1-7	쓸모 없는 허리 옷 13:1-11	베 옷 13:1-5 13:6-7	베 옷 이야기 13:1-7
13:8-11	13:8-11		13:9-11	13:8-11
포로됨을 경고받다 13:12-14	포도주병의 상징 13:12-14	함께 깨트린 포도주 병 13:12-14	포도주 부대 13:12-14	포도주 부대를 사용한 우화 13:12-14
13:15-19 (15-19)	교만을 인하여 포로되다 13:15-17 (15-17)	포로됨에 대한 환상 13:15-17 (15-17)	예레미야가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다 13:15-17 (15-17)	마지막 기회 13:15-17 (15-17)
		경고받은 여호야긴 13:18-19 (18-19)	13:18-19	13:18-19 (18-19)
13:20-27 (20-27)	13:20-23 (20-23)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충고 13:20-27 (20-27)	13:20-27	13:20-27 (20-27)
	13:24-27 (24-2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1-14 절은 두 가지 상징적 행위와 관련을 가진 산문이다(또한 왕상 22 장; 사 20 장; 겔 4, 5 장을 보라)
1. 썩은 베 허리띠, 1-11 절
  2. 진흙으로 만든 포도주병을 채움, 12-14 절
- 나. UBS 번역가를 위한 핸드북은 시로 된 부분(15-27 절)을 내용에 따라서 세 연으로 구분한다(334 쪽)
1. 마지막으로 긴급히 주는 경고, 15-17 절
  2. 여호야긴 왕의 말, 18-19 절
  3. 예루살렘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으로 묘사함, 20-27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3:1-7

<sup>1</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sup>2</sup>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sup>3</sup>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4</sup>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sup>5</sup>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sup>6</sup>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sup>7</sup>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13:1-7 이것은 몸의 안쪽에 입는 옷과 관련을 가진 예언적, 상징적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의 예시적 행동이 에스겔서에 자주 나온다(즉, 4, 5 장). 우리는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 부를 수 있다(참조, 19:1 이하; 27:2 이하).

13: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음을 나타내는 예언적 형식이다. 이 장에서 야웨의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주목하라.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1 절
2.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절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6 절
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8 절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 절
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12 절
7. “여호와의 말씀에,” 13 절

이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동사는 영어에서 명령으로 번역되었다(참조, 4,6 절).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가서” - BDB 229, KB 246, 칼 부정사 절대형
2. “사서” - BDB 888, KB 1111, 칼 완료형(와우)
3. “띠고” - BDB 962, KB 1221, 칼 완료형(와우)
4. “말라”(부정) - BDB 97, KB 112, 히꼐 미완료형

■	
NASB	“베 허리띠”
NKJV	“베 띠”
NRSV	“베 허리옷”
TEV	“베 옷”
LXX, NJB,	
JPSOA, REB	“베 살바”

이것은 허벅지를 덮는 내의이다(BDB 25 와 833 의 합성; 이러한 종류의 속옷[가나안과 이집트의]은 짧은 바지라기 보다는 짧은 옷옷에 가까웠다). 이 상징의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왕하 1:8; 욥 12:18; 사 5:5,27; 겔 23:15). 어떤 이는 이것이 몸에 닿는 내의였기 때문에, 친밀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참조, 11 절). 또 어떤 이는 이것이 베로 된 옷이기에,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참조, 레 16:4). 하나님께서 유다와 가지는 관계 및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친밀함을 나타내고 제사장과 관련을 가진 이 재료’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 “물에 적시지 말라” 이것은 “그것을 빨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더럽혀지고 냄새가 났다. 이것은 우상숭배, 반역, 완고함을 인하여 이스라엘/유다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이 더럽게 되었지만(참조, 27 절), 야웨께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13:4 4 절과 6 절에는 1 절과 관련을 가진 여러 명령이 나온다(참조, 5 절).

1.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 BDB 542, KB 534, 칼 명령
2. 일어나 - BDB 877, KB 1086, 칼 명령
3. 가서 - BDB 229, KB 246, 칼 명령
4. 감추라 - BDB 380, KB 377, 칼 명령

또한 6 절을 보라

1. 일어나 -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가서 - BDB 229, KB 246, 칼 명령
3. 가져오라 - BDB 542, KB 534, 칼 명령

■ “유브라데로 가서” 이것은 *페라트*(BDB 832 )라는 히브리어이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줄곧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킨다(참조, 창 2:14; 15:18; 신 1:7; 11:24; 렘 46:2; 51:63). 한편, 이 강에 이르기 까지 편도 560 km 이상 여행하여야 하였기에, 이 문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여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본문에서 그러한 여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것은 주전 605 년에 일어난 칼케미스 전쟁을 상징할 것이다(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역으로서 거기에 바위가 있었다). 그곳에서 바벨론이 이집트 및 앗시리아의 잔여 병력을 완전하게 물리쳤다; 적군이 북쪽에서 온다!
2. 이것은 *페라*로 불리는 마을에서 시작되는 물줄기인 *페라트*일 것이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8 km 떨어진 곳에 있었다(참조, 수 18:23). 이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이 공급되었다(IDB, 제 4 권, 656 쪽).
3. 이것은 “베”라는 소리를 가진 단어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페셀*, BDB 833, 참조, 1 절).

13:7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처음 동사인 “썩어서”(BDB 1007, KB 1469, *니팔* 완료형)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동사가 18:4 에서 질그릇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유다에게 야웨께서 가지셨던 목적은 야웨를 세상에 알려, 그들을 야웨께로



이끌어내는 일이었다(참조, TEV 의 11 절;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참조, 10 절)과 계속적으로 행하는 우상숭배는 이러한 목적을 좌절시켰다(참조, 겔 36:22-38).

이 문맥이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까지 다녀 오는 1,100 여 km 의 여행을 글자 그대로 두 번 행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1. 바벨론의 침공, 포로로 잡아감, 또한 (즉, “여러 날 후에”) 지배함. 유다는 이 기간동안 외적으로 “파괴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썩은 베 옷”(참조, 레 26:39)은 유다의 일시적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2. 유다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열강의 영적 부패는 그들의 우상을 팔레스타인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개역개정 13:8-11**

<sup>8</sup>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9</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sup>10</sup>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때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sup>11</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때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3:9 이 “교만”에 대하여 레 26 장에서도 지적한다(참조, 레 26:19; 또한 사 28 장의 설명을 보라).

13:10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신다

1. 악한 백성
2.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3.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4. 다른 신들을 따라
  - ㄱ. 그를 섬기며(칼 부정사 연계형)
  - ㄴ. 그에게 절한다(히스타펠 부정사 연계형)

▣ “그들이 이 때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것은 칼 지시형(BDB 224, KB 223)이다. 침략이

1. 북쪽에 있는 적으로부터 임하고 있다
2. 이웃 나라들도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한다

13:11 하나님께서 1-7 절에 나오는 상징적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10 절은 유다의 반역을, 11 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셨던 목적에 대하여 묘사한다(참조, 신 26:19). 이스라엘과 유다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다(참조, 창 12:3; 출 19:5,6).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부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이에 응답하려 하지도 않았다(참조, 렘 7:13,24,26; 시 81:11).

▣ “속함 같이 . . . 속하게 하여” 이 동사(BDB 179, KB 209)는 다음을 나타낸다

1. 창 2:24 에서 남편과 아내, 창 34:3 에서 육체적 호감
2. 지파들이 받은 바 할당된 땅을 지키는 것, 민 36:7,9
3. 열방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는 것, 신 10:20; 11:22; 13:4; 수 23:8,12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 갔다.

▣ 야웨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부르신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주목하라.

1.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2. 내 이름이 되게 하려 하였다(문자적으로, “이름,” 참조, 단 9:15; 느 9:10)
3. 명예가 되게 하려 하였다(참조, 33:9)
4.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참조, 33:9)

그들은 야웨께 영광을 돌리고(참조, 사 63:12,14)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했다(참조, 32:20)!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참조, 7:13,24,26).

#### 개역개정 13:12-14

<sup>12</sup>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sup>13</sup>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sup>14</sup>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12-14 이것은 상징적 행동을 뜻하는 잠언적인 형식이다(눅 21:29). 12 절에서 잠언을 말하고, 13 절과 15 절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한다.

13:12 “가족부대” 이것은 *네벨*이라는 히브리어 용어(BDB 614 D)로서 (1) 포도주 가족부대 또는 (2) 액체를 담기 위하여 흙으로 만든 큰 용기(참조, 사 30:14)를 뜻한다. 이 경우 대략 37 리터를 담을 수 있었다(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는 말은 (1) 뻥한 사실 또는 (2) 술 취한 술꾼의 소망을 나타낸다. 포도주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채워져야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25:15-17,27-28; 51:57; 시 75:8; 사 51:17-20; 겔 23:32-34). 이 일은 심판을 상징한다.

####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상업적으로 사용한 무게와 양은 고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중요했다. 성경은 유대인이 서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참조, 레 19:35-36; 신 25:13-16; 잠 11:1; 16:11; 20:1). 실제적인 문제는 정직성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표준화 되지 않은 용어와 체계였다. 두 개의 저울 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양에 대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 해석자의 사전* 제 4 권 831 쪽을 보라). 또한 이집트의 10 진법(10 을 기초로 하는)은 메소포타미아의 60 진법(6 을 기초로 하는)과 결합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크기”와 “양”은 어느 것도 규격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동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혹은 농부의 용기를 기초로 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오직 어렵짐작이었고 임시적이었다. 무게와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방법은 상호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이다.

- I. 자주 사용된 부피와 관련된 용어
  - 가. 마른 것의 양

1. 호벨(BDB 330, 아마도 “한 마리의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 BDB 331), 예, 레 27:16; 호 3:2

2. 레택(또는 레택, BDB 547, 아마도 호 3:2 에서 암시됨)
3. 에바(BDB 35), 예, 출 16:36; 레 19:36; 겔 45:10-11,13,24
4. 스아(BDB 684), 예, 창 18:6; 삼상 25:18; 왕상 18:32; 왕하 7:1,16,18
5. 오멜(BDB 771 II, 아마도 “곡물 한 단” [벤 곡식 한 단], BDB 771 I), 예, 출 16:16,22,36; 레 23:10-15
6. 잇사론(BDB 798, 에바의 “십분의 일”), 예, 출 29:40; 레 14:21; 민 15:4; 28:5,13
7. 카브(또는 캡, BDB 866), 참조, 왕하 6:25

나. 액체의 양

1. 고르(BDB 499), 예, 겔 45:14(이는 또한 마른 것의 부피를 재는 것이었다, 참조, 대하 2:10; 27:5)
2. 바트(BDB 144 II), 예, 왕상 7:26; 대하 2:10; 4:5; 사 5:10; 겔 45:10-11,14
3. 힌(BDB 228), 예, 출 29:40; 레 19:36; 겔 45:24
4. 록(BDB 528), 참조, 레 14:10,12,15,21,24

다. 도표(로렌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01 쪽과 *유대 백과사전*, 제 16 권, 379 쪽에서)

호멜(마른 것) = 고르(액체)	1						
에바(마른 것) = 바트(액체)	10	1					
스아(마른 것)	30	3	1				
힌(액체)	60	6	2	1			
오멜/잇사론(마른 것)	100	10	-	-	1		
카브/캡(마른 것)	180	18	6	3	-	1	
록(액체)	720	72	24	12	-	4	1

II. 자주 사용한 무게의 용어

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무게 단위는 달란트, 세겔, 게라였다.

1. 구약에서 가장 큰 무게의 단위는 달란트이다. 출 38:25-26 에서 1 달란트는 3,000 세겔에 해당한다(즉, “대략적인 무게,” BDB 503).
2. 세겔(BDB 1053, “무게”)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이 진술되지 않았다. 구약은 세겔의 여러 가치를 언급한다.
  - ㄱ. “상업적 표준”(NASB 참조, 창 23:16)
  - ㄴ. “성소의 세겔”(NASB 참조, 출 30:13)
  - ㄷ. “왕의 저울에 의해” (NASB 참조, 삼하 14:26), 또한 엘리판틴 파피루스에서도 “왕의 저울”이라고 불림.
3. 게라(BDB 176 II)는 1/20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참조, 출 30:13). 이 비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율을 따랐다 (우가릿).
4. 미나(BDB 584)는 50 혹은 60 세겔의 가치이다. 이 용어는 주로 후기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본문에 나타난다(예, 겔 45:12; 스 2:69; 느 7:70-71). 가나안에서는 50:1 의 비율을 사용한 반면 에스겔서는 60:1 의 비율을 사용했다.
5. 베카(BDB 132, “반 세겔,” 참조, 창 24:22)는 구약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고(참조, 창 24:22; 출 38:26) 1/2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 이것의 이름은 “나누다”란 의미이다.

나. 도표

1.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000	50	1		
베카	6,000	100	2	1	
게라	6,000	1,000	20	10	1

2. 에스겔서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600	60	1		
베카	7,200	120	2	1	
게라	72,000	1,200	20	10	1

13:12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것은 같은 어근(BDB 393, KB 390)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그들이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다!

13:13 “주민...앉은” 이것은 같은 어근(BDB 442, KB 444)을 가진 단어로서 세 번 사용되었다.

1. 칼 능동 분사, “거주하다”(즉, 거주하다, 두 번 사용됨)
2. 칼 능동 분사, “앉다,” 권력을 가짐을 나타냄(즉, 왕의 보좌)

다음의 여러 그룹이 관련을 가짐을 보라.

1.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참조, 17:25; 22:2,4,30; 29:16; 33:21; 36:30)
2. 제사장들
3. 선지자들
4. 예루살렘 모든 주민

13:14 “피차 충돌하여” 이 동사(BDB 658, KB 711, *피엘* 완료형)는 침략자들이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나타낸다(즉, 앓시리아, 바벨론의 침략자, 참조, 왕하 8:12; 시 137:9; 사 13:16,18; 호 13:16; 나 3:10). 여기서 이 동사는 13 절의 포도주 가축부대를 흘음과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이다(참조, 51:20-23).

▣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믿음과 마찬가지로 죄는 가족을 통하여 전해진다.

1. 죄 - 신 5:9; 렘 7:18
2. 믿음 - 신 5:10; 7:9

이와 균형을 이루는 진리는,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겔 18 장을 보라.

▣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야웨께서 하지 않으실 일들을 주목하여 보라.

1.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 BDB 328, KB 338, 칼 미완료형, 참조, 15:5; 21:7; 겔 5:11
2. 사랑하지 아니하며 - BDB 299, KB 298, 칼 미완료형, 참조, 21:7; 겔 5:11
3. 아끼지 아니하리라 - BDB 933, KB 1216, 칼 미완료형, 참조, 21:7

이와 같은 내용이 16:5 에 나타난다(또한 시드기야 왕에 대한 21:7 의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복적으로 거부함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참조, 애 2:17-22; 겔 8:18; 9:10; 24:14). 그러나 구약은 말 3:17 에 나오는 바 “아끼심”에 대한 야웨의 약속으로 끝마친다!

이것은 과장법적이고, 신인동형적이고, 시적 표현임을 기억하라.

1.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를* 보라

**개역개정 13:15-19**

<sup>15</sup>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sup>16</sup>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sup>17</sup>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sup>18</sup>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sup>19</sup> 네 겹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13:15-27 1-14 절은 산문이고 15-27 절은 둘 혹은 세 연으로 되어 있다. 처음 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소망없이 부름에 대한 내용이고, 20-27 절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일로써 경고를 주고 있다. “듣고 행하라”(참조, 15 절) 및 23 절에서 지적하는 무능력 사이에 커다란 역설이 나타난다. 이러한 긴장은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다

1. 하나님의 주권 및 인간의 자유의지
2. 구약의 언약이 가진 무조건적인 면과 조건적인 면

13:15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은 “듣다”라는 두 히브리 단어이다. 이 둘은 동의어를 이루며, 유다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한다(참조, 10:1).

1. BDB 1033, KB 1570, *칼 명령*(2:4 의 설명을 보라)
2. BDB 24, KB 27, *히필 명령*, 참조, 신 32:1; 사 1:2

▣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동사(BDB 146, KB 170)는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부정). 교만함과 거만함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이 단락의 주제를 이룬다(참조, 17 절).

이스라엘은 매우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하지를 았았다. 이 단어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용되었다

1. 왕들
  - ㄱ. 웃시야 - 대하 26:15
  - ㄴ. 히스기야 - 대하 32:25
  - ㄷ. 두로 왕 - 겔 28:2,5,17
2. 하나님의 백성
  - ㄱ. 사 3:16
  - ㄴ. 겔 16:50
  - ㄷ. 슥 3:11

교만, 거만, 자기 중심적 삶은 타락의 결과이다(참조, 창 3 장; 6:5,11-12). 언약백성조차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새 창조, 새 언약이 꼭 필요하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롬 3:21-31; 4-5 장; 갈 3 장; 히브리서).

▣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수 7:19 에서 이 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것이 죄의 고백 또는 적어도 진실된 서약을 뜻한다고 여긴다(참조, 요 9:25).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칼 명령으로 되어 있다(BDB 670, KB 733).

▣ “침침한 어둠” 이것은 *찰마웬*(BDB 853)이라는 히브리 단어로서, KJV 의 시 23:4 에서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위기를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서 묘사한다.

NET 는 렘 2:6 에서 이 단어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한다(1290 쪽, 6 항). 이 표현은 시로된 여러 본문에서 사용되었다

1. 어두운 감옥, 시 107:10,14
2. 침략의 어두움, 사 9:1
3. 광산의 어두움, 욥 28:3
4. 골짜기의 어두움, 시 23:4
5. 광야의 어두움과 시내 사막의 골짜기의 어두움, 렘 2:6
6. 인생의 비극과 혼란, 욥 3:5; 12:22; 25:17; 28:3; 34:22; 시 44:19
7. 죽음의 어두움, 욥 10:21-22; 38:17

빛인 야웨의 말씀/진리 및 어두움(BDB 364, KB 361, *히필* 미완료형, 참조, 사 8:22-9:2)과 깊은 어두움(BDB 853)과 침침함(BDB 791)인 죄의 대비를 주목하라. 어두움에 대한 이 은유적 표현은 “장애물”(BDB 619, KB 669, *히필* 명령)로 특징지어진다. 믿음의 삶은 빛의 길을 따라 걷는 자로 묘사된다. 만일 사람이 다음과 같이 행한다면,

1. 길에서 벗어난다면
2.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면
3. 하나님의 길(방법)을 거부한다면
4. 험난한 지형에서 어두움에 걷는다면

심판이 따른다.

13: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예레미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즉, 야웨의 양떼)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참조, 사 6:9-10).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들이 한 선택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참조, 5 항).

예레미야(우는 선지자)는 ‘유다의 완고함, 회개하지 않음, 최악된 우상숭배 및 그것의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느낌(이것은 야웨의 느낌을 나타낸 것임)을 묘사한다.

1. 내 영혼이 은밀한 곳에서 울리라
2. 내 눈이 통곡하리라(같은 어근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 3. 내 눈이 눈물을 흘리리라

13:18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18 절과 19 절은 역사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암시이다

1.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 년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 공격하여 생긴 일(참조, 22:24-26; 29:2). 그 때에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사 47:1 에서 바벨론 왕에게 사용한 표현과 같음)인 나뉘타가 포로로 잡혀감(참조, 왕하 24:8-17)
2. 주전 586 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는 두려운 일에 대한 예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여러 번에 걸쳐(주전 605 년, 597 년, 586 년, 582 년) 사로잡아 갔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대신하는(참조, 삼상 8 장) 왕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제 왕이 비참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며, 남쪽에 있는 성읍들(즉, 네게브)이 포위되었다(참조, 19 절).



NASB, NJB

“네 아름다운 면류관이  
네 머리에서 내려졌다”

NKJV

“네 통치가 네 영광의 면류관을 붕괴하리라”

NRSV

“네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기 때문에”

JPSOA

“네 면류관이 천하게 되었다,  
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70 인역은 “네 영광의 면류관이 네 머리에서 제하여졌기 때문에”로 번역하였다. 맛소라 본문은 “네 면류관이 내려졌다, 네 영광의 면류관이”로 제시한다.

현대의 여러 번역본은 70 인역 및 다른 고대 역본을 따른다.

13:19 “봉쇄되어” 이 동사(BDB 688, KB 742, *푸알* 완료형)는 성벽이 있는 도시가 포위됨을 가리킨다(또는 네게브에 있는 성채). 이렇게 포위된 결과는 “포로됨”이다(BDB 162, KB 191, *호팔* 완료형, 이 절에서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됨).

▣ “열 자가 없고” 동맹을 맺은 나라(이 경우에는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에 침략한 바벨론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야웨의 뜻이었다!

▣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것은 과장적이다. 유다 백성의 일부는 포로됨을 피하여 도망쳤다.

오늘날의 해석가들이 지혜문학과 예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서구의 문자주의를 취하는 점이 문제이다! 예언은 과장법을 사용하는 장르에 속한다!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를 보라.

개역개정 13:20-27

<sup>20</sup>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말했던 양 때,

네 아름다운 양 때는 어디 있느냐

<sup>21</sup>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sup>22</sup>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sup>23</sup>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sup>24</sup>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같이  
 홀으리로다  
<sup>25</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네 뉘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sup>26</sup>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sup>27</sup>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13:20-27 이것은 13 장의 마지막 연이다. 각 연의 주요 진리를 파악하고, 또 그 주요 진리로써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사용하라.

13:20 “너는 눈을 들어...보라” 이 동사들은 여성 단수 명령(*케티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70 인역은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번역한다. 맞소라 학자들은 칼 남성 복수 명령을 여백에 둔다(*케레*). 이러한 점은 서로 다른 히브리 사본을 그들이 사용하였음을 나타낸다.

▣ “북방에서 오는” 이것은 바벨론의 임박한 침공을 가리킨다. 북쪽은 악을 나타내는 관용어였다(참조, 1:13-15; 4:6; 6:1,22). 왜냐하면 이 방향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계곡에 위치한 제국(앗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으로 공격하여 올 때 사용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13:21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히브리 본문의 1-3 행은 분명치 않다. 이것은 유다가 외국과 맺은 동맹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2:18). “친구”는 히브리어로 “족장”(BDB 910)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유다에게 많은 동맹국이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는 주관자가 되어 버렸다!

▣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산고는 성경에서 종종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렘 4:31; 6:24).

13:22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나쁜 일들(침략을 당함과 잡혀감)에 대하여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놀라서 질문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가졌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졌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다(참조,



롬 9:4-5). 그들의 (1) 계속적인 우상숭배 (2)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함 (3) 회개하기를 원치않음은 레 26 장과 신 27-28 장에 기록된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였다.

▣ “네 치마가 들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성적인 폭력을 당함을 나타낸다(참조, 레 18:6-19; 20:17; 신 22:30; 27:20; 사 47:3; 호 2:3,10). 그녀를 사랑하던 자들(동맹국, 참조, 2:17-19)이 이제 그녀를 강간하는 자들이 되었다(TEV).

▣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것은 공적으로 드러남을 뜻하는 문화적 은유이다. 이 일은 큰 부끄러움으로 여겨졌다(참조, 26 절; 애 1:8; 사 47:2,3). 어떤 때는 완곡어법으로 발(여기서는 발뒤꿈치임)이 인간의 성기를 가리킨다(참조, 신 28:57; 삿 3:24; 삼상 24:6; 사 6:2).

13:23 이 잠언적 진술에 두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명백하게 “아니오”라는 답을 기대한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지만(참조, NRSV, REB) 유대인들이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새 언약이 필요함을 말하는 초기의 암시일 것이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13:24 침략과 포로됨이 다가 오고 있다. 그러나 야웨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또 허락하신 분이시다(참조, 9:16; 레 26:33; 신 28:64). 25 절의 2 행을 주목하라.

13:25 “이는 네 뭇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호와와의 분깃”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반역함을 인하여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준 분깃으로 바뀌었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 야웨께서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또 침략해오도록 군대를 왜 분기시키시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1. 그들이 야웨를 잊었다(BDB 1013, KB 1489, 칼 완료형, 참조, 2:32; 3:21)
2.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된 것을 신뢰하였다(BDB 1055, 즉, 바알 숭배 및 다른 여러 우상을 숭배함, 참조, 3:23; 5:31; 10:14; 16:19; BDB 105, KB 120, 칼 미완료형)

13:26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것은 창녀나 진실치 않은 아내에 대한 공적인 처벌이었다(참조, 호 2:3,10; 사 47:2,3). NEB 는 22 절을 매우 비슷한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13:27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두 번째 용어는 “발정시 내는 소리”(BDB 843, 참조, 8:16).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행하는 다산숭배(참조, 2:20)에서 짝짓는 동물들’로 묘사한다(참조, 2:24; 14:6).

▣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우리는 ‘언약백성이 성적으로 범한 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그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에 대하여 말하는 호 4:13,14 에서 알 수 있다(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동사(BDB 372, KB 369, 칼 미완료형)는 다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1. 문둥병에서 벗어남(참조, 왕하 5 장)
2. 의식상 정결함(참조, 레위기)
3. 우상숭배에서 벗어남(참조, 이 곳 및 겔 24:13[2 회]; 36:25)

이 마지막 행은 히브리어에서 혼동스럽다. 70 인역은 “너희가 나를 따라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번역한다.

이 마지막 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주장하는 문학적 방법이다(만일 깨끗지 않다면)
2. 아직 회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다(그러나 23 절을 범한 것으로 여겨진다)

# 예레미야 1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기근과 궁핍을 구하는 기도	칼, 기근, 질병	대기근 (14:1-15:4)	두려운 기근	재앙적인 기근 및 예루살렘이 전쟁에 패하게 됨을 슬퍼함 (14:1-15:9)
14:1	14:1	14:1-6 (1-6)	14:1-9 (1-9)	14:1-6 (1-6)
14:2-9 (2-9)	14:2-6 (2-6)			
	14:7-9 (7-9)	14:7-9 (7-9)		14:7-9 (7-9)
14:10-12	14:10 (10)	14:10	14:10	14:10 (10)
거짓 선지자들	14:11-16	14:11-12	14:11-12	14:11-12
14:13-18		14:13	14:13	14:13-16
		14:14-16	14:14-16	
(17-18)	14:17-18 (17-18)	14:17-18 (17-18)	14:17-18 (17-18)	14:17-18 (17-18)
	백성이 궁핍을 간구하다		백성이 여호와께 간구하다	
14:19-22 (19-22)	14:19-22 (19-22)	14:19-22 (19-22)	14:19-22 (19-22)	14:19-15:9 (19-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14 장과 15 장은 하나의 문학적 단락으로서, 이스라엘/유다 땅에 다가오는 기근에 대한 내용이다.
- 나. 1 절은 이 전체 단락의 서론이다.
- 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연과 산문의 배열 방법은 소리유희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문집이지, 시대순을 따라 조직적으로 배열한 책이 아니다.
- 라. UBS 해석가를 위한 핸드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단락의 개요를 제시한다(344-345 쪽).
  - 1. 14:2-6 - 예레미야가 기근을 인해 슬퍼함
  - 2. 14:7-9 - 유다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함
  - 3. 14:10-12 - 야웨께서 긍휼하심 대신에 위협으로 응답하시다
  - 4. 14: 13 -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를 비난하다
  - 5. 14:14-16 - 야웨께서 거짓 선지자들 및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 6. 14: 17-18 - 멸망에 관한 예레미야의 환상
  - 7. 14:19-22 - 백성이 7-9 절에서 한 바와 같이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더 간절히 함
  - 8. 15:1-9 - 야웨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므낫세 왕이 시작한 죄를 어떤 중보자도 제거할 수 없다. 살륙자가 올 것이다
  - 9. 15:10-21 -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목숨에 대하여 야웨께 말씀드리다
    - ㄱ. 예레미야, 10-12 절
    - ㄴ. 야웨, 13-14 절
    - ㄷ. 예레미야, 15-18 절
    - ㄹ. 야웨, 19-21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4:1

<sup>1</sup>가뭇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4:1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46:1; 47:1; 49:34 에 나오는 특별한 구이다. 이것은 계시를 나타낸다.

▣ “가뭇” 이것은 문자적으로 “가뭇들”(참조, NKJV, JPSOA)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언약에 따른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가뭇인 것을 레 26:19-20; 신 11:17; 28:23-24(그 반대 내용은 28:12)을 통하여 안다. 구약에서 가뭇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알숭배를 그들이 비를 확실히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이다(참조, 5:24).

개역개정 14:2-9

<sup>2</sup>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sup>3</sup>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sup>4</sup>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발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sup>5</sup>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sup>6</sup>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sup>7</sup>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sup>8</sup>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sup>9</sup>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14:2 이 절에는 슬퍼함을 나타내는 여러 동사가 나온다.

1. 유다가 슬퍼하며 - BDB 5, KB 6, *칼* 완료형
2.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 BDB 51, KB 63, *푸알* 완료형, 참조, 15:9
3. 땅 위에서 애통하니(문자적으로, “검정색 위에”) - BDB 871, KB 1072, *칼* 완료형, 참조, 8:21; 욥 5:11; 30:28
4.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 BDB 748, KB 828, *칼* 완료형

가뭄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참조, 7-9 절). 2:37의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을 보라.

▣ “성문” 이곳은 성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지였다. 이곳은 사회적, 공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였다(즉, 신 16:18; 룻 4 장).

▣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회개하지 않는 이 우상숭배자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참조, 11:11)

14:3 이 절은 부유한 사람이 물을 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1. 자기 사환들을(문자적으로, “작은 자들,” 참조, 48:4) 보내어
2.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참조, 2:13)
3.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

그 결과, 부유한 자들이

1. 부끄럽고(BDB 101, KB 116, 칼 완료형)
2. 근심하여(BDB 483, KB 480, 호플 완료형)
3.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BDB 341, KB 339, 칼 완료형)

▣ 3 절이 부유한 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제시하듯이, 4 절은 농부들이 직면한 문제(곧, 물이 없음)를 제시한다.

1. 땅에 비가 없어
2. 지면이 갈라지니

그 결과, 농부들이

1. 부끄럽고(BDB 101, KB 116, 칼 완료형)
2.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BDB 341, KB 339, 칼 완료형)

14:5-6 자연계에 가뭄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5 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내버리며
2. 6 절,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혈떡인다(즉, 고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참조, 창 3 장; 롬 8:18-23). 램 12:4,11 을 보라! 야웨의 언약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농업적 축복을 제시하였다. 언약을 어김으로서 농업적 실패를 경험하였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14:7 7 절은 새 문단을 이룬다(참조, NKJV, NRSV, NJB). 이 절의 핵심 내용은 공동체가 드리는 중보기도(“우리의,” “우리”)이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범한 죄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 우리의 죄악
2.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3.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한다. 그는 아브라함, 모세(15:1의 설명을 보라), 대제사장(즉, 레 16 장), 또는 가족의 아버지(즉, 욥)와 같은 역할을 한다. 7:16의 특별주제를 보라.

7-9 절은 특별한 절기나 금식일에 성전에서 행한 예식일 가능성이 있다.

▣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가치있음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참조, 20:9,14,22,24; 겔 36:22,23).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BDB 793, KB 889, 칼 명령).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다. 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목하라.

1.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참조, 5:6; 7:24; 8:5)
2.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모든 죄는 야웨께 대한 범죄임)

14:8 야웨(70 인역의 8 절에서 특별하게 언급함)께 대하여 두 가지 언약적 호칭을 사용한다.

1.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 야웨께서 족장들의 하나님임을 나타낸다(참조, 17:13; 50:7)
2. 구원자시여 - 이사야서에서 자주 사용한 호칭임(참조, 19:20; 43:3,11; 45:15,21; 49:26; 60:16; 63:8)

▣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것은 9:2 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8c-9e 절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야웨께서 무능력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웨는 8:18-9:1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실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야웨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야웨의 언약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 문제가 야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있었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14:9

NASB	“놀란”
NKJV	“경악한”
NRSV	“어리벙벙한”
TEV	“놀라게 된”
NJB	“혼란스러운”
JPSOA	“깜짝 놀란 자”
REB	“갑자기 일어난”
LXX	“졸려운”
NET	“도울 이가 없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히브리 단어(BDB 187, KB 214, *나팔* 분사)는 BDB 에 의하면 “놀라다”이지만, KB 에서는 주전 7 세기에 속하는 비문에 근거하여, “도울 이 없는”으로 제시한다.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1. 어근의 기본적 의미
2. 동족어의 어근
3. 문맥(연)
4. 평행법(문장)
5. 성경에서 평행을 이루는 본문
6. 성경 이외의 용법

70 인역의 의미는 MT 의 한 자음을 바꾸어 제시한 것이다.

14:9c-9e 이것은 신학적으로 7b 와 유사하다. 이 내용은 야웨를 높인다.

1.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가리킬 것이다
  - ㄱ. 성소(참조, 8:19)
  - 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즉, 구름, 언약궤)
2.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참조, 15:16; 사 63:19)

이 행들에서는 이 두 가지 진리에 기초하여 ‘그들을 버리지 마실 것’을 야웨께 간구한다(BDB 628, KB 679, *히팔* 미완료형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것은 이 동사가 가진 독특한 의미이다. 이 단어가 이곳과 시 119:121 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쉬다”를 뜻한다. 하지만, 27:11 에서는 “남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역개정 14:10-12

<sup>10</sup>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sup>11</sup>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sup>12</sup>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4:10-12 이것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냉혹한 진술을 인하여 놀라게 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음과 같이 보신다.

- 1.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 2.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명확한 길에 그들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야웨께서 다음과 같이 하실 것이다

- 1.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 2.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2 항과 3 항은 예언적 관용구이다, 참조, 호 8:13; 9:9)
- 3. 그 죄를 벌하시리라
- 4.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 ㄱ.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BDB 813, KB 933, *히트파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참조, 7:16; 11:14)
  - 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참조, 6:20)
    - (1)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 (2) 그들이 제물을 드릴지라도
- 5.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참조, 10 절)
- 6.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 ㄱ. 칼
  - ㄴ. 기근
  - ㄷ. 전염병(참조, 21:7,9; 24:10; 27:8,13; 28:8; 29:17-18; 32:24,36; 34:17; 38:2; 42:17,22; 44:13)

14:12 “번제와 소제” 이 두 제물에 대하여 레 1-7 장에서 말한다(번제 - BDB 750; 소제 - BDB 585). 11: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침략을 당할 때 일어나는 두려운 일을 제시한다(참조, 5:12; 14:15; 27:8; 29:18).

개역개정 14:13-18

<sup>13</sup>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sup>14</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sup>15</sup>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sup>16</sup>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14:13 이것은 선지자가 ‘백성의 종교적 배교’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그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가진다(참조, 켈 18 장). 그들은 거짓 교사를 알아 보아야만 했다(참조, 신 13:1-5; 18:22).

▣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야웨의 약속이었다. 이것은 언약적 약속임이 분명하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앗시리아에게 항복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로써 격려를 주었다(참조, 사 36-37 장). 그러나 이 약속에 조건적인 면이 있음을 아주 분명히 한다: 소망이 없게도 유다가 언약의 조건적인 면을 어겼다! 침공과 잡혀감이 다가 오고 있었다!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44-47 쪽), “조건적인 면과 무조건적인 면”을 보라.

14:14-18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인하여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간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참조, 23 장; 28 장; 신 18:9-22). 지도자들이 우상숭배를 하였음과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야웨께서 말씀하신다.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짐을 질 것이다(참조, 켈 18 장).

야웨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라(참조, 신 13:1-5; 18:9-22).

1.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참조, 5:31; 23:25)
  - ㄱ.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 ㄴ.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 ㄷ.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2.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에서 왔다
  - ㄱ. 거짓 계시(참조, 23:25,28,32)
  - ㄴ. 점술(참조, 27:9; 29:8)
  - ㄷ. 헛된 것(참조, 23:16)
  - ㄹ. 자기 마음의 거짓(참조, 23:26)
3.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참조, 15 절; 28:17; 신 13:1-2; 18:20)
4.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도 침공과 포위를 당하여 죽을 것이다(참조, 16 절)

14:17-18 이 연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슬퍼함 뿐 아니라 야웨의 슬퍼함을 또 다시 확인한다(참조, 8:18; 9:9).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제시한다. ‘노골적이고 계속적인 반역과 고의적인 우상숭배’를 인하여, 범죄한 인간은 자신들을 처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한다.

14:17d-e 이 절의 마지막 두 행은 언약백성(즉, 처녀 딸, 참조, 8:21; 13:13; 31:4,21; 46:1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 큰 과멸을 당하였다(BDB 990, KB 1402, *니팔* 완료형)
2. 중한 상처를 입었다(BDB 317, KB 316, *니팔* 분사)

14:18

NASB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두루 다니도다”  
 NKJV “다닌다...”  
 NRSV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땅을 헤메는도다”  
 TEV(각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갔도다”  
 NJB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무역하나, 아무 것도 모르도다”  
 JPSOA “그 땅을 두루 다닌다, 그들이 어딘지 모르도다”  
 REB “그 땅에서 쉬임 없이 방황하도다”

NJB의 번역이 맞소라 본문에 가깝다. NASB, NKJV, JPSOA는 70 인역을 따른다. 이 내용은

1. 이 지도자들이 침공의 결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른다
2. 이 지도자들이 잡혀간다(NRSV, TEV 각주; 이것은 히브리 본문 및 헬라이어 본문 또는 다른 역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3. 성전이 파괴되었기에, 지도자들이 일거리(즉, 생계)를 찾아 방황한다

**개역개정 14:19-22**

<sup>19</sup>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sup>20</sup>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sup>21</sup>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sup>22</sup>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4:19-22 이 단락은 선지자가 하는 질문 및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성전에서 정규적으로 예배에서 인용한 기도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참조, 7-9 절).

14:19 여기에 히브리어의 강조 구문의 형태로써 세 가지 질문이 나온다.

1.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강조 구문임 - 같은 어근[BDB 549, KB 54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동사)
2.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강조를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BDB 171, KB 199, *칼미* 완료형], 참조, 레 26:30,43)
3.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번째 질문은 핵심적 사항이다 -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속적인 불순종을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조건적인 언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까? 그러하기도 하며,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 따라서 이 일은 31:31-34 의 “새 언약”을 필요로 한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2. 그렇지 않습니다 - 레 26:43 을 보라. 야웨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구약 백성에게 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참조, 롬 9-11 장,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14:20 선지자가 공동체적 기도를 다시 드린다.

1. 우리의 악을 우리가 압니다(참조, 3:25)
2.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참조, 2:5-6; 7:25-26)
3.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는 야웨 자신의 성품과 목적을 인하여 야웨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는 것이다(참조, 7 절; 겔 36:22-38).

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BDB 610, KB 65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주의 영광의 보좌(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참조, 3:17; 17:12)를 욕되게 마옵소서(BDB 614, KB 663, 꺾은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3-4.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BDB 269, KB 269, 칼 명령) 폐하지 마옵소서(BDB 830, KB 974, 꺾은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5. 우리는 주만 소나기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압니다(바알이 아님, 참조, 5:24)
6. 따라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14:20 이 절에서 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세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집스럽게 행하였음을 나타낸다.

1. 악(BDB 952, 참조, 5:26; 12:1; 23:19; 25:31; 30:23)
2. 죄악(BDB 730, 참조, 2:22; 3:13; 5:25; 11:10; 13:22; 14:7,10,20; 16:10,17,18; 18:23 등)
3. 범죄(BDB 306, 참조, 3:25; 5:25; 14:10; 15:13; 16:10,18; 17:1,3; 18:23 등)

# 예레미야 1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14:1-15:9)
심판이 반드시 온다	여호와께서 늦추지 않으실 것이다		유다 백성의 파멸	
15:1-4 (2b)	15:1-2 (2b)  15:3-4	15:1-2 (2b)  15:3-4  전쟁의 공포	15:1-4 (2b)	15:1-4 (2b)  예루살렘의 종말
15:5-9 (5-9)	15:5-8 (5-8)  15:9 (9)  예레미야의 낙담	15:5-9 (5-9)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심	15:5-9 (5-9)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불평하다	15:5-9 (5-9)  예레미야의 두 번째 애가
15:10-11 (10-11)	15:10-14 (10-14)	15:10-11 (10-11)	15:10-12	15:10-12
15:12-14 (12-14)		15:12-14 (12-14)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15:13-14	15:13-18 (15-18)
15:15-18 (15-19)	15:15-18 (15-18)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다시 주시다	15:15-18 (15-18)	15:15-18	
15:19-21 (19-21)	15:19-21 (19-21)	15:19-21 (19-21)	15:19-21	15:19-21 (19-2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분리된 여러 시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1. 1-4 절(또는 1-9 절)은 14 장과 연결된다
  2. 5-9 절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야웨의 탄식이다(과부와 어머니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
  3. 10-11 절은 출산 및 어머니와 관계된 하나의 시이다(MT 의 11 절은 이해하기 아주 어렵다)
  4. 12-14 절은 멸망에 관계된 시로서 따로 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 1:18-19 및 15:20 과 관련을 가진다
  5. 15-18 절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혹은 세 번째) 애가이다(즉, 고백)
  6. 19-21 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야웨의 응답이다. 어떤 면에서 이 단락은 예언자로 부르신 것을 말하는 두 번째 본문으로 여겨진다
- 나. 회개의 때가 지나갔다. 위대한 지도자가 중보기도를 드릴지라도, 북쪽에서 오는 침략을 멈추게 할 수 없다(참조, 12-14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5:1-4  
<sup>1</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sup>2</sup>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됴므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sup>3</sup>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sup>4</sup>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15:1** 야웨께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대답하신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 세대의 불신앙과 반역을 되돌릴 수 없었다(참조, 겔 18 장).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백성들이 중보기도자와 같은 신앙 및 회개함의 자세로 임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중보기도 사역(참조, 시 99:6-8)에 대하여는

1. 모세 - 출 32:11-14,30-32; 민 14:13-25; 신 9:18-20,25-29 을 보라
2. 사무엘 - 삼상 7:9; 12:23 을 보라

야웨께서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심을 주목하라.

1. 내 마음(문자적으로, 네페쉬, BDB 659, KB 711; 창 2:7 에 대한 설명을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보라)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2.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 BDB 1018, KB 1511, *피엘* 명령
  3. 내보내라 - BDB 422, KB 425,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유다가 야웨를 거부하였다(“나를,” “나의,” “나의,” 참조, 6 절).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언약적 관계에 있지 않았다(2:19의 특별주제를 보라)!

**15:2**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웨의 메시지에 응답한다.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박한 반응만 할 뿐이었다! 따라서 야웨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 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참조, 14:12).

1.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전쟁)
2.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포위됨)
3.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포로됨)

일반적으로 심판의 삼 요소는 칼, 기근, 질병이었다(참조, 겔 14:21; 33:27). 그러나 여기서는 “포로됨”을 사용하고 있다.

**15:3 “내가 ...벌하리니”** 이 동사(BDB 823, KB 955, *칼* 완료형)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방문하다
  - ㄱ. 처벌을 위하여 - 사 10:12; 렘 9:25; 11:22; 13:21; 21:14
  - ㄴ. 자비를 위하여 - 창 21:1; 50:24,25; 사 23:17; 렘 15:15; 27:22; 29:10; 32:5
2. 임명하다, 참조, 민 27:16; 렘 15:3; 49:15; 50:44; 51:27

▣ “네 가지로 벌하리니” 네 가지의 칼 부정사 연계형이 나온다.

1. 죽이는 칼
2. 찢는 개(즉, 부적절한 장례의 공포)
3.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참조, 신 28:26; 렘 7:33; 16:4; 19:7; 34:20)
4. 땅의 짐승(참조, 신 28:26; 렘 7:33; 16:4; 19:7; 34:20)

**15:4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이 히브리 관용어를 24:9; 29:18에서 설명한다(참조, 신 28:25).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야웨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야웨의 긍휼하심을 보지 못하였다(참조, 겔 36:22-38).

▣ “므낫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야웨께서는 유다의 우상숭배의 특별한 근원을 제시하신다-므낫세 왕.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써, 어떤 유다 왕보다 더 긴 기간을 통치하였다. 그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참조, 왕하 21:1-18; 23:26-27; 24:3-4; 대하 33:1-17). 그는 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용서받았다. 하지만 그가 행한 우상숭배의 결과는 유다 백성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역개정 15:5-9**

<sup>5</sup> 예루살렘아 너를 붙잡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sup>6</sup>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sup>7</sup>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블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sup>8</sup>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sup>9</sup>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5-9 5-9 절은 야웨의 애가이다! 이 연은(완료형 동사로 특징됨) ‘유다가 굶하지 않고 반역하며 우상숭배함’을 인하여 다가 오는 심판에 대하여 묘사한다.

5 절에는 여러 질문이 나온다.

1. 너를 붙잡히 여길 자 누구며
2.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3.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야웨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공급하는 이가 없음을 신학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1. 네가 나를 버렸고
2. 내게서 물러갔다

이러한 일 때문에, 야웨께서 재판장처럼 행동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측은함을 가지심에 있어서 지치셨다(참조, 6:11; 7:6).

1. 내게로 내 손을 펴서
2. 너를 멸하였노니(참조, 8 절)
3. 그들을 키로 까블러(참조, 51:2)
4. 그 자식을 끊어서
5. 그들에게 많은 과부가 있게 하며
6.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7. 놀람과 두려움을
8. 수치(BDB 101, KB 116)와 근심(BDB 344, KB 340)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9.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와! 우상숭배에는 그 따르는 결과가 있다! 회개하지 않음(참조, 7 절, 3 행)에 그 결과가 따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NET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기초하여 이 시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이 개요를 좋아한다(1333 쪽).

1. 1-4 절 - 야웨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2. 5-6 절 - 야웨께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다
3. 7-9 절 - 야웨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15:6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을 가진 관용어로서(참조, 출 7:5; 사 31:3), 심판을 행하시는 야웨의 능력을 나타낸다(참조, 램 6:12). 출 7:5 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대신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야웨 자신의 백성에게 야웨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다(참조, 사 5:25; 10:4; 14:27).

- NASB, JPSOA “네가 계속 뒤로 물러간다”
- NKJV, NJB, 폐쉬타 “네가 뒤로 물러갔다”
- NRSV, TEV, REB,
- NET “네가 네 등을 내게로 돌렸다”
- LXX “네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 NIV “네가 계속 되돌아간다”

히브리 동사에는 시간적 요소가 없다; 이것은 문맥에서 알 수 있다. 6 절의 번역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주목하라.

“뒤로 물러가다”(BDB 229)와 가장 잘 평행을 이루는 구절은 7:24 이다.

■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으로다” 이 동사(BDB 521, KB 512, *니팔* 완료형)는 인내가 다함을 나타낸다. *니팔* 완료형이 다음의 경우에 의미있게 사용되었다

1. 6:11, 야웨의 진노하심과 관련하여
  2. 20:9, 야웨의 말씀과 관련하여
  3. 사 1:14, 야웨의 축제와 관련하여
- 이 단어는 나쁜 일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

1. 9:5, 악행과 관련하여
2. 사 47:13,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두 번째 동사(BDB 636, KB 688, *니팔* 부정사 연계형)는 동정심을 가지고 움직임을 뜻한다. 여기서는 그 점을 부정한다. 야웨께서 동정심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7:16). 심판이 다가 오고 있다! 야웨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음에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참조, 7c 절; 7:13).

15:7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가리킬 것이다

1. 침략해 온 군대가 다닐 국경 지대(즉, 해안 평지)에 있는 여러 성
2. 공격로(즉, 대상들의 길)에 위치한 성채

15:8 이 절은 이해하기에 어렵다.

1. 이들은 과부의 죽은 아들, 즉 강하고 젊은 군인이었으나 지금은 죽은 자들을 뜻하는가(즉, 어린 자녀들)?
2. 남은 과부들의 자녀/전사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과부들이 젊은 침략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뜻하는가?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로 제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수 많은 자손에 대하여 그에게 야웨께서 주신 약속(참조, 창 22:17; 32:12)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많은 자손이 멸망받을 것이다! 아버지/남편 및 그들의 젊은이/군인들이 이미 죽었고, 이제 어머니들도 죽게 되었다(즉, 다음 세대에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었다).

■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이것은 방어하는 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에 공격해오는 군대를 의인화하여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6:4). 이것은 따라서 침략자들을 막아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놀람” 이 단어(BDB 735 I, KB 822 II)는 이곳과 호 11:9 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충격” 및 “소란”(KB)을 나타낸다.

▣ “두려움” 이 단어(BDB 96, KB 111)는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뜻한다(참조, 시 78:33). 이것은 레위기의 “저주와 축복”에서 사용되었다(참조, 계 26:16). 사 65:23 에서는 ‘회개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로서 제시되었다.

15:9 9 절의 2 행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다.

1. “그녀의 숨이 벅찼다,” NASB
2. “그녀가 마지막 숨을 쉬었다,” NKJV, NIV, NAB
3. “숨이 막히다,” NRSV
4. “그녀가 기절했다,” NJB

7-8 절에 나온 수 많은 과부와 어머니가 다시 언급되어, 유다가 공격받고 패하여 잡혀감을 나타낸다.

▣ “일곱” 이 수는 상징적인 수로서, 창 1-2 장에서 완전함을 가리킨다. 일곱 아들을 가진 여인은 하나님께 지극히 축복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다(참조, 삼상 2:5).

####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엡 4:4-6)
2. 넷 - 지구 전체(즉, 네 모퉁이, 네 바람)
3. 여섯 - 인간의 불완전성(7 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4.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 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 ㄱ. 일곱 촛대, 1:13,20; 2:1
  - ㄴ. 일곱 별, 1:16,20; 2:1
  - ㄷ. 일곱 교회, 1:20
  -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 ㅁ. 일곱 등잔, 4:5
  - ㅂ. 일곱 인, 5:1,5
  - ㅅ. 일곱 빨과 일곱 눈, 5:6
  - ㅇ.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 ㅈ. 일곱 나팔, 8:2,6
  - ㅊ. 일곱 우뢰, 10:3,4
  - ㅋ. 칠천, 11:13
  - ㅌ. 일곱 머리, 13:1; 17:3,7,9
  - ㅍ. 일곱 재앙, 15:1,6,8; 21:9
  - ㅎ. 일곱 접시, 15:7
  - ㄱ. 일곱 왕, 17:10
5. 십 - 완전성
  -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 (1) 마 20:24; 25:1,28
    - (2) 막 10:41
    -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2:10, 십일 간의 환란
  - (2) 12:3; 17:3,7,12,16, 열 별
  - (3) 13:1, 열 면류관
- ㄷ. 계시록에서의 10의 배수:
  - (1) 144,000 = 12x12x10, 참조, 7:4; 14:1,3
  - (2) 1,000 = 10x10x10, 참조, 20:2,3,6
- 6. 열둘 - 인간의 조직
  - ㄱ. 야곱의 열 두 아들(즉,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창 35:22; 49:28)
  - ㄴ. 열 두 기둥, 출 24:4
  - ㄷ.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열 두 보석, 출 28:21; 39:14
  - ㄹ. 빵 열 두 덩이, 성소 안에 있는 상에 놓임(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나타냄), 레 24:5; 출 25:30
  - ㅁ. 열 두 정탐군, 신 1:23; 수 3:22; 4:2,3,4,8,9,20
  - ㅂ. 열 두 사도, 마 10:1
  - ㅅ.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 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년
      - (ㄴ) 광야에서의 40년
      -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년
    - (4)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 수는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 7. 칠십 -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한 어림 수:
  - ㄱ. 이스라엘, 출 1:5
  - ㄴ. 칠십 장로, 출 24:1,9
  - ㄷ. 종말론적 의미, 단 9:2,24
  - ㄹ. 선교 팀, 눅 10:1,17
  - ㅁ. 용서함(70x7), 마 18:22
- 나. 좋은 참고 자료
  - 1. 존 J. 데이비스, 성경의 수
  -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용 같고리

▣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이 은유적 표현은 갑작스럽게 소망이 끊어짐을 나타낸다. 이 내용은

1. 1 절의 4 행과 관련을 가진다
2. 램 6:4 과 관련을 가진다
3. 암 8:9 에 있는 예언적 표현과 관련을 가진다

▣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불이리라” 이 문장은 유다가 칼에 완전히 멸망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과장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 천명의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이다. 시는 정서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문자적이고 역사적 차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 15:10-11

<sup>10</sup>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sup>11</sup>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15:10-18 이것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의 “불평”으로 이해함이 더 좋다. 그는 15-18 절에서 기도한다. 19-21 절에서는, 야웨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재확신을 주신다.

15:10-11 10 절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한 애가이다.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가 가진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1.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슬픔을 나타냄(참조, 20:14-18, 즉 그의 삶에 대한 은유적 표현임)
2. 그가 야웨의 종이 아니라, 다투는 자(BDB 936)와 싸우는 자(BDB 193 I)를 만날 자가 되었다(즉, [1] 그에게 영예가 없고 [2] 항상 유다에 대한 법적 싸움을 한다)
3.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거부받고 있다(즉,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체를 일으킴)

MT 의 11 절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야웨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을 상기시키시며(즉, 램 1:4-10), 예레미야(NJB)에게 대답하신다(LXX). 그의 출생(위의 1 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즉, 램 1:5)
2. 예레미야는 자신의 충성됨에 대하여 야웨께 계속 말씀드린다(NRSV, TEV)
3. 야웨께서 유다에게 ‘남은 자로 인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신다(NKJV, JPSOA)

히브리어 본문에서 11 절은 분명하지 않다. 맛소라의 *케티브*와 *케레* 및 서로 다른 여러 번역이 이 사실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5:12-14

<sup>12</sup>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sup>13</sup>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15:12-14 NASB의 연은 야웨께서 유다를 심판하심에 대하여 말한다(“내가...하리니”를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12-14 절에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참조, 17:3-4).

1. 북쪽에서 오는 강한 침략자들(철)에 의한 침략
2. 부가 탈취당함(즉, 그들의 죄를 인하여)
3. 재산이 국외로 탈취당함(NASB, 즉, 성전의 보물)

14 절에 나오는 첫 동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1. “지나가게 하다” - BDB 716, KB 778, *히필* 완료형
  - ㄱ. NASB - “그때에 나는 너의 적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할 것이다”
  - ㄴ. NKJV - “그리고 내가 너의 적들과 함께 내가 건너가게 할 것이다”
2. “섬기게 하다” - BDB 712, KB 773(LXX, NRSV, TEV, NJB, REB, Net 성경, 페쉬타, UBS의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에 C 등급을 줌)
3. “네가 알지 못하는 길로 네 적들을 데리고 온다”(JPSOA)

15:13 “값 없이” 이 문맥에서 이 구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LXX는 이 부분을 생략하여, 이 연에서 이 절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든다. TEV가 이러한 방법을 따른다. “값 없이”는 침략자들이 그들의 군대를 크게 잃지 않고 손쉽게 유다의 재물을 탈취함을 가리킨다.

15:14 포로가 됨에 대한 위협은 원래 신명기의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본문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즉, 28:36,64).

3행과 4행은 신 33:22과 관련되어 있다. 예언자들이 “언약의 중재자”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모세의 법에 충실하게 하였다! 만일 그들이 순종한다면 - 풍요가, 그러나 만일 불순종한다면 - 심판이 있을 것이다(참조, 레 26장; 신 27-28장).

개역개정 15:15-18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15:15-18**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충성됨과 섬김을 야웨께서 눈여겨 달리고 요청드리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라.

1. “주께서 아시오니”(BDB 393, KB 390, 칼 완료형)
2. “여호와여”(즉, 야웨)
3. “주의 이름”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호칭은 모두 언약적 이름이다(참조, 16 절의 2 행,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유다가 신실하지 않았던 반면에, 예레미야는 신실하였고 또 그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특별주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 1:1 의 특별주제: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나. “만군”(BDB 838)은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천사(참조, 느 9:6)
2.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참조, 삼상 17:45; 단 8:10; 눅 2:13)
3. 천사들의 회의(참조, 왕상 22:19; 단 7:10)
4. 인간의 군대(즉, 민 2:4,6; 삿 8:6; 9:29)
5. 밤 하늘에 있는 빛은 영적인 능력들로 여겨졌다(즉, 바벨론 사람들의 별 숭배, 참조, 신 4:19; 17:3; 왕하 17:16; 21:3,5; 23:4-5; 대하 33:3,5; 렘 8:2; 19:13)
6. 이것은 아모스 4:13; 5:27 에서 야웨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암 3:13; 6:14; 9:5 에서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고 왕상 5:14,15,16; 6:8; 19:10,14 에서는 전치사 없이 사용됨).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을 나타내었다.
7. 수 5:14-15 에 특별한 용법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 미가엘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 자신의 현현하심으로 본다.

**15:15** 이 절에 기록된 기도에서 간구하는 내용(즉, 명령)을 주목하여 보라.

1. 나를 기억하시며 - BDB 269, KB 269, 칼 명령
2. 돌보시사(문자적으로, “나를 방문하사,” 15:3 의 설명을 보라) - BDB 823, KB 955, 칼 명령
3.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 BDB 667, KB 721, 니팔 명령
4.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 BDB 542, KB 53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5.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 BDB 383, KB 390, 칼 명령

**15:16** 예레미야가 박해의 한 복판에서도(즉, 15 절), 야웨의 선지자가 됨을 인하여 기뻐하고(BDB 965) 즐거워한다(BDB 970). “내가 그것들을 먹었사오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관용어이다(참조, 겔 3:3).

어떤 주석가들은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었사오니”가 요시아의 통치 기간중에 성전을 보수할 때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참조, 왕하 22 장; 대하 34 장; 즉, 주전 621 년).

15:17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일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묘사한다.

1.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2.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3. 홀로 앉았사오니

그는 이러한 것이 야웨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진술한다.

1. 주의 손에 붙들렸다
2.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3. 내게 고통이 계속된다
4. 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다

15:18c-d 이것은 구약에서 야웨께 대하여 말한 가장 충격적인 발언 가운데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각을 야웨께 말씀드림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고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2:13의 내용과 반대임).

1. 주께서는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BDB 469). 이 구는 “있다”(BDB 224, KB 243)라는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강조적 의미를 나타낸다.
2. 평행을 이루는 행은 ‘의지할 수 없는 물과 같다’라고 말한다((BDB 52, KB 63, *니팔* 완료형, 3:12의 특별주제를 보라; 또한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 가. 개인과 공동체
- 나.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 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
- 나.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1. 동사

-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 (2) 물건, 사 22:23
  -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 ㄷ. *히끌*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 에 반대의 내용이 나옴)
  -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예식적 용법을 이룬다.

나. *에렐*(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 1. 사람, 사 10:20; 42:3; 48:1
-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슥 8:16

다. *에무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 1. 손, 출 17:12
- 2. 시간, 사 33:6
- 3. 인간, 렘 5:3; 7:28; 9:2
-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 III. 바울이 사용한 이 구약 개념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나. 그는 *아만*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 2. 사 28:16 - 믿는(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견고히 머릿돌로 세우신 이를)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한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 3. 시 118: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πιστευω)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후전 1:16; 뱀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성부 안에 성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이시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오셨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셨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지위가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뱀전 1:15-16). 타락(참조, 창 3 장)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함에 있어서 인간의 진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구약).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 개역개정 15:19-21

- <sup>19</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 <sup>20</sup>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21</sup>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5:19-21 야웨께서 예레미야의 불평과 호소에 응답하신다. 예레미야가 18c-d 절에서 한 말에 의하여 야웨께서 힘들어 하셨음이 분명하다. 예레미야가 반드시 회개하여야만 했다(BDB 996, KB 1427, 칼 미완료형, 2:22의 특별주제를 보라).

만일 예레미야가 야웨께서 “돌아온다면” 야웨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같은 동사). 언약에는 항상 두 당사자가 있다.

“돌아오다”와 관련하여 언어유희(19절이 네 번 사용되었다)가 19f-g 절에 계속된다. 예레미야는 야웨의 대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겉으로 반응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예레미야가 받은 반대 및 그가 보호와 원수값을 구하는 기도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 느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선지자들은 종종 야웨께서 느끼시는 마음을 가졌다. 그가 회개하는 남은 자들의 느낌을 지금 느끼는 일이 가능한가?

15:19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나는 4 행에 대하여, UBS *핸드북* (379 쪽)에서 “귀한 것은 야웨의 메시지이고(16절) 헛된 것은 예레미야의 평가이다”라고 설명한 것을 좋아한다(참조, 18절, 3-4행).

15:20 이것은 1:18-19에 대한 암시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도록 강해야만 한다.

▣ “구하여 건짐이라” 이것은 평행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 둘은 신체적 구원을 나타낸다(BDB 446, KB 448, *히필* 부정사 연계형; BDB 664, KB 717, *히필* 부정사 연계형). 두 번째 동사가 21절에서 반복된다(*히필* 완료형). 이것은 “구속하다”와 평행을 이룬다(BDB 804, KB 911, 칼 완료형,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15:21 “건지며 . . . 구원하리라” 이 두 단어는 평행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구원하다” (BDB 804, KB 911, 칼 완료형)에 대하여는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장)이나 친척(참조, 룖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욕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중재자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한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인 구속자/보수자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 II. 신약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뱀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써(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뱀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포리트로시스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틸뤼트론(참조, 딤편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놓임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편 2:14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제물이시다(참조, 요 1:29; 3:16-17; 4:42; 딤편 2:4; 4:10; 딤편 2:11; 뱀후 3:9; 요일 2:2; 4:14).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음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매우 특별한 차원에 속하는 면도 지니셨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에 속한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 예레미야 1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재난을 예고함	예레미야의 삶과 메시지	선지자의 삶 자체가 상징적이다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여호와와의 뜻	예레미야의 삶
16:1-4	16:1-4	16:1-4	16:1-4	16:1-4
16:5-9	16:5-9	16:5-7 16:8-9	16:5-7 16:8-9	16:5-9 유다의 운명
16:10-13	16:10-13	16:10-13	16:10-13	16:10-13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홀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	포로됨에서 돌아옴	이스라엘이 고향에 돌아옴
16:14-15	16:14-15	16:14-15 침략을 예고함	16:14-15 다가 오는 처벌	16:14-15 유다에서 피한 자가 없음
16:16-18	16:16-18	16:16-18 열국이 돌아옴	16:16-18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드린 기도	16:16-18 이방인들이 돌아옴
16:19-20 (19-20)	16:19-20 (19-20)	16:19-21 (19-21)	16:19-20	16:19-20 (19-20)
16:21 (21)	16:21 (21)		16:21	16: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6:1-4

<sup>1</sup>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2</sup>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sup>3</sup>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sup>4</sup>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16:2 예레미야가 아내를 맞이하는 일(유대인 남자에게 독신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음)이나 자녀를 가지는 일(참조, 레 26:22) 야웨께서 금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의 우상숭배를 인한 야웨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참조, 15:2-3).

- 1. 독한 병(참조, 레 26:16)
- 2. 칼(참조, 레 26:16)
- 3. 기근

그들의 시체가 묻히지 않아(그들의 시신을 묻을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음, 참조, 시 79:2-3),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참조, 4 절; 19:7; 34:20).

야웨께서 놀라울 정도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안을 예레미야에게 금하셨다. 그는 야웨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만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요, 위로요, 평화이시다(참조, 19 절)!

16:3 자녀를 가지는 일과 관련을 가진 어근이 세 번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 1. 낳은 - BDB 409, KB 411, 형용사
- 2. 해산한 - BDB 408, KB 411, 칼 분사
- 3. 낳은 - BDB 408, KB 411, 히필 분사

유대인의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16:4 미완료형 동사를 주목하라.

- 1. “죽다” - BDB 559, KB 562, 칼 미완료형
- 2. “슬퍼하지 않다” - BDB 704, KB 763, 니팔 미완료형(부정됨)
- 3. “묻어 주지 않다” - BDB 868, KB 1064, 니팔 미완료형(부정됨)
- 4. “분토와 같을 것이다” - BDB 224, KB 243, 칼 미완료형
- 5. “망하다” - BDB 477, KB 476, 칼 미완료형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해 주지 않고, 시신을 묻어 주지 않고,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는 일은 굉장히 큰 두려운 일이었으며 저주스러운 일이었다(참조, 7:33; 8:2; 9:22; 15:3; 19:7; 34:20 신 28:26).

▣

NASB, NRSV, NJB, NIV	“죽음의 질병들”
NKJV, JPSOA	“무서운 죽음들”
LXX	“병들어 죽음”
REB	“두려운 죽음”

이것은 BDB 560(즉, “죽음의,” 참조, 겔 28:8)와 BDB 316(즉, “질병들,” 참조, 14:18; 대하 21:19 시 103:3)의 합성이다. 이 일은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였다(참조, 신 29:14-21,22-28, 특히 22 절).

개역개정 16:5-9

<sup>5</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6</sup>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बे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sup>7</sup>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sup>8</sup>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sup>9</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16:5-9 처음 연(1-4 절)은 슬퍼하거나 물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의 죽음을 나타낸다(참조, 6 절). 이 두 번째 연은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1. “애곡하는” - BDB 931
2. “애곡하다” - BDB 704
3. “위로하다” - BDB 626
4. “슬퍼하는 자” - BDB 5
5. “위로” - BDB 637

예레미야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편집/편찬/조직된 책이다

1. 신학적 주제들
2. 언어유희
3. 장르(즉, 애가, 법정 장면)

16:5 5 절의 명령을 주목하라.

1.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 BDB 97, KB 11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통곡하지 말며 - BDB 229, KB 24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 BDB 626, KB 678, 칼 지시형

▣ “내가...제함이라” (BDB 62, KB 74, 칼 완료형)

1. 나의 평강, BDB 1022, 참조, 12:12; 30:5, 6; 14의 특별주제를 보라
2. 나의 인자, BDB 338 I, 참조, 13:14, 2:2의 특별주제를 보라
3. 나의 사랑, BDB 933, 참조, 신 13:17; 느 9:19, 27, 31; 시 25:6; 40:12; 77:9; 79:8; 103:4; 사 63:7, 15; 호 2:19(이 용어는 예레미야서에서 이곳과 42:12에서만 사용됨)

영원한 언약이 부정되고, 깨트려지고, 취소되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새 언약이 지금 꼭 필요하다(참조, 31:31-34; 겔 36:22-38).

16:6 1-4 절에서 가족 모두가 죽었듯이, 6 절에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이 죽는다(참조, 6:13; 8:10)!

▣ “자기 몸을 बे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이교도들이 슬픔을 표하기 위하여 행한 예식이었다(참조, 레 19:28; 21:5; 신 14:1; 왕상 18:28; 렘 41:5; 47:5; 48:37; 2:3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준다!

▣

NASB, NKJV, NRSV,  
NJB, JPSOA, REB “떡을 떼며”

LXX는 “그들을 위하여”라는 히브리 단어의 모음을 조정하여 “빵”으로 번역하였다. KJV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찢지 않을 것이다”로 해석하여 6절과 관련 시킨다(즉, “깊은 상처”).

이 절의 후반부에서 잔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에, “떡”이나 “양식”(NIV)이 적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제롬 성경 주석(316쪽)은 이것이 죽은 자에게 드러진 음식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참조, 신 26:14; 겔 24:17,22; 토빗 4:17).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적 행위였다. 따라서 KJV는 이 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효한 방법을 제시한다.

**16:8** 이것은 15:17과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식사는 분명히 장례식과 관련이 있다(즉, 애곡하는 기간 동안 행하던 금식을 끝마침). “애곡하는”(BDB 931)이란 단어는 아람어에서 잔치를 나타낸다. 또한 “위로의 잔”이란 구도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아마 장례식 이후의 식사를 의미할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절을 결혼식 잔치로 설명한다(참조, 9절, UBS *핸드북*, 382쪽).

**16:9** 9절의 앞부분에는 이 장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여러 언약적 호칭이 나온다(1:2의 특별주제를 보라).

1. 만군의 여호와, 9절
2. 이스라엘의 하나님, 9절
3. 여호와 우리 하나님, 10절
4.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14절
5. 나의 힘, 19절
6. 나의 요새, 19절
7. 환난날의 피난처, 19절
8.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21절

▣ “끊어지게 하리라” 처음 내용은 야웨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에 대한 것이다.

1. 이 곳에서(즉, 유다)
2. 네 목전
3. 네 시대에

하나님께서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이 멈추게 하실 것이다.

1. 기뻐하는 소리와
2. 즐거워하는 소리와
3. 신랑의 소리와
4. 신부의 소리

이 구가 7:34; 25:10; 33:11에서 반복된다. 본문이 슬퍼하는 모습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급히 바뀌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모든 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행사가 모두 멈추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개역개정 16:10-13

<sup>10</sup>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 하거든 <sup>11</sup>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sup>12</sup>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sup>13</sup>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6:10-13 “왜 우리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진다(참조, 신 29:24-36; 렘 5:18-19; 9:12-16).

1. 백성의(참조, 12 절)
  - ㄱ. 죄악
  - ㄴ. 죄
2. 그들의 조상들의
  - ㄱ. 야웨를 버리고
  - 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 ㄷ. 다른 신들을 따라서
  - ㄹ. 그들을 섬기며
  - ㅁ. 그들에게 절하였다

여러 세대에 걸친 그들의 우상숭배를 인하여, 야웨께서 다음과 같이 행하실 것이다

1.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쫓아내다,” BDB 376, KB 373, *히필* 완료형, 13 절; 22:26)
2.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신다(참조, 5:19)
3. 그들에게 야웨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BDB 337, 구약에서 이 어근은 이곳에서만 사용됨)

야웨께 사용한 여러 인칭 대명사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한 행동이었다!

16:12 백성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한다(참조, 7:24; 9:14; 11:8; 13:10)
2. 야웨께(참조, 11:8) 순종하지 아니한다(*쉴마*, BDB 1033)

#### 개역개정 16:14-15

<sup>14</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sup>15</sup>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16:14-15 이것은 회복의 약속을 야웨께서 주시는 네 개의 짧은 연 가운데 처음 것이다! 예언서에서 “심판”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나오는 것은 아주 흔하게 있다.

이 두 절의 내용이 23:7-8 에서 반복된다. 예레미야서는 그가 기록한 시를 모아 놓은 책이다!

▣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같은 구는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참조, 7:32; 4: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여기서는 회복의 날(즉, 새 출애굽)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살아 계신” 이 하나님(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대조를 이룸)께서 또 다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에서(이집트가 아님) 이끌어 내실 것이다.

이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야웨께서 자신의 성품, 뜻, 행하심에 기초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타락하고, 무능한 그의 언약백성의 행함’에 기초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참조, 17-18 절). 새 언약을 주고 계신 것이다(참조, 31:31-34; 겔 36:22-38).

#### 개역개정 16:16-18

<sup>16</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sup>17</sup>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sup>18</sup>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16:16-18 야웨(16 절에서 강조형으로 제시됨)께서 잡혀간 자신의 모든 백성이 돌아옴을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신다.

1. 어부(암 4:2 과 반대임)
2. 포수(사 2:21 과 반대임)

16-18 절은 심판을, 14-15 절 및 19-21,21 절은 회복을 나타냄이 분명하다. 17 절의 말씀은 야웨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으로 나에게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벌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신다(즉, 새 출애굽)!

16:18 야웨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그들의 죄(특히 우상숭배)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신다. “배나 갚을 것은”이라는 구는 “온전한”(참조, 사 40:2) 또는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관용어이다.

▣ “내 기업에” NET 성경(1337 쪽)은 예레미야서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한다.

1. 약속의 땅(팔레스타인), 2:7
2. 언약백성들, 10:16; 12:8-9
3. 예루살렘 성전, 12:7

개역개정 16:19-20

<sup>19</sup>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sup>20</sup>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16:19-20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야웨께 나아 오에 대한 놀라운 세계적 약속이다(참조, 3:17; 4:2; 12:15,16). 이 우주적, 포괄적 선언이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타난다(참조, 2:2-4; 12:4-5; 25:6-9; 42:6-12; 45:22-23; 49:5-6; 51:4-5; 56:6-8). 또한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창 3:15 및 12:3; 22:18 에서 주신 소망이 성취되었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16:19 이 절의 마지막 두 행과 20 절은 우상에게서 떠나 야웨께로, 거짓된 것에서 떠나 진리로 돌아옴을 분명히 나타낸다!

개역개정 16:21

<sup>21</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6:21 야웨께서 열방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라.

1. 하나님의 손을 아는 일
2.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일
3.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

# 예레미야 1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속이는 심장	유다의 죄와 형벌	타락한 유다의 예배	유다의 죄와 형벌	유다의 죄
17:1-4 (1-4)	17:1-4 (1-4)	17:1-4 (1-4)	17:1-4	17:1-4
		지혜로운 여러 가르침	여러 가지 말	하나님을 신뢰하라
17:5-8 (5-8)	17:5-6 (5-6)	17:5-6 (5-6)	17:5-6 (5-6)	17:5-6
	17:7-8 (7-8)	17:7-8 (7-8)	17:7-8 (7-8)	17:7-8 (7-8)
				마음이 기만적이다
17:9-11 (9-11)	17:9-10 (9-10)	17:9-10 (9-10)	17:9-10 (9-10)	17:9-10 (9-10)
				잠언
	17:11 (11)	17:11 (11)	17:11 (11)	17:11 (11)
		성전과 야웨를 의뢰함		하나님의 길은 높다
17:12-18 (12-18)	17:12-13a (12-13a)	17:12-13 (12-13)	17:12 (12)	17:12-13 (12-13)
	17:13b (13b)		17:13 (13)	
	예레미야가 구출을 위해 기도하다	원수갚음을 위한 기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다	예레미야의 세 번째 애가
	17:14-18 (14-18)	17:14-18 (14-18)	17:14-15	17:14-18 (14-18)
			17:16-18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	안식일을 지키에 대하여	유다와 안식일
17:19-23	17:19-23 (19-23)	17:19-27	17:19-23	17:19-23
17:24-27	17:24-27 (24-27)		17:24-27	17:24-2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7:1-4

<sup>1</sup>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sup>2</sup>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sup>3</sup>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sup>4</sup>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17:1-4 이 단락은 70 인역에서 빠져있다.

17:1-2 이것은 유다가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음을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1. 금강석 끝 철필(BDB 1038)로 기록되되 - 그 내용을 지울 방법이 없다(참조, 욕 29:24)
2. 그들의 마음 판과 -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인격(참조, 잠 3:3; 7:3); 이곳은 새 언약이 위치할 장소였다(참조, 31:31-34)
3.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 히브리인들의 예배에서 이 장소는 성전에 있는 제단(참조, 출 27:2) 및 분향단(참조, 출 30:2)을 암시한다. “뿔”은 상징적으로 힘을 나타낸다. 그들은 제사를 야웨께 올려 드렸다. 이곳은 피를 바른 장소이었다(참조, 레 16:18).

2 절은 예레미야가 “제단”을 우상숭배적 의미로 사용함을 나타낸다. 가나안의 다산의 신들을 언덕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참조, 3:6) 섬기거나, 돌로 만든 판 위에서 섬겼다(2:20의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유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집중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그들의 자녀가...들을 생각하도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3 “뜰에 있는 나의 산아” 이것은 성전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시골에 있지 않았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레미야는 수도와 성전의 완전한 파멸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암시한다(참조, 9:11; 26:18; 미 3:12).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었다! 성전의 보물까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15:13; 20:5).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다의 높은 산에서 행한 바알 숭배를 가리킨다는 설명이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한편, 바알/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에는 뿔이 있는 제단도 없었고, 그 숭배자들이 각 지역에 “보물”을 보관하지도 않았다.

17:3-4 이 단락은 15:13-14 과 비슷한 내용이다.

17:4 그들이 행한 우상숭배를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참조, 15:14; 27:12-13). 야웨께서 맹렬히 노를 발하시며, 질투하시며 심판을 다짐하고 계신다.

“불”(참조, 15:14)에 대하여는 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4 절의 마지막 행은 과장적이다. 예레미야의 청중/독자들은 이 장르를 이해하였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언어를 재고함*을 보라.

▣ “영원히”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7:5-8

<sup>5</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sup>6</sup>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sup>7</sup>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sup>8</sup>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17:5-8 이 연은 신학적, 관용적으로 시 1 편과 관련을 가진다. 여기서 “축복하다”는 BDB 138(무릎을 꿇다), 그러나 시편 1 편에서, 이것은 BDB 80 의 뜻을 가진다(복되다).

17:5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단어(BDB 76, KB 91, 칼수동 분사)는 감탄의 의미로 11:3; 17:5; 20:14,15; 48:10(2 회); 신 27:15-26 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야웨께 축복을 받음과 반대되는 의미이다.

“믿으며”라는 단어(BDB 105, KB 120, 칼미완료형)는 “안전함”을 나타낸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즉, 시 118:8-9; 146:3) 정치적인 동맹과 외국의 군대를 믿었다(참조, 46:25).

예레미야서에서 이 동사가 의지하는 여러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으나(참조, 5:17; 7:14; 12:5; 13:25; 48:7; 49:4), 야웨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참조, 시 62:8; 115:9-11; 사 26:3-4; 30:15). 야웨를 신뢰하는 일은 안전과 안식을 가져 온다.

▣ “마음” 4: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언약백성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에서도 다산의 신들을 예배하였다(참조, 신 11:16; 17:11,17; 29:18-20; 30:17). 이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계획적인 반역 때문이었다!

17:6 “떨기나무” 이 단어(BDB 792, KB 887)는 구약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예레미야서에 나온다(참조, 48:6). 이와 비슷한 어근이 시 102:17 에서 나오는데, “궁핍한”으로 번역되었다(NASB 난외주, “벌거벗은”). NASB 는 48:6 을 “노간주나무”로 번역한다. KB 는 이것을 “능수버들”로 번역한다. *UBS 성경의 동식물*에서는 이것을 노간주나무로 제시하며(131 쪽, REB), 능수버들에 대한 항목에서는 이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182 쪽).

▣  
 NASB “번영”  
 NKJV, NRSV,  
 JPSOA, REB “좋은”  
 NJB “경감”

이 단어(BDB 375 III)는 “좋은 것,” “유익,” 또는 “복지”를 뜻한다. 신 28:12 에서는, 같은 어근(BDB 375 II)이 “비”를 가리키는데 그 문맥에서는 의미있는 표현이다.

▣ “간조한 땅” 신 29:23 을 보라. 이 본문에서 이 표현은 야웨의 심판을 나타낸다.

17:7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 . .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잠언(BDB 138, KB 159, 칼수동 분사)은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저주받은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둘 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1. 여호와(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이 아님)를 의지하는 자 -7 절
2. 사람을 의지하는 자(인본주의, 국가주의) -5 절

이 둘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참조, 신 27-28 장; 시 1 편; 마 5 장)

**특별주제: 축복**

구약에 여러 종류의 축복(BDB 139)이 있다. 두 가지 공통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축복:
  - ㄱ.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창 12:3; 27:29; 참조, 행 3:25; 갈 3:8
  - ㄴ. 회개와 결부되어, 출 32:29; 율 2:12-14
  - ㄷ. 언약에의 순종과 결부되어, 레 25:18-21
  - 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번영을 가져옴(즉, 저주 대 축복), 신 11:26, 27, 29; 23:5; 28:2, 8; 30:1, 19; 수 8:34; 시 133:3; 잠 10:22
  - ㅁ.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신 12:15; 16:17; 32:23; 사 44:3; 겔 34:25-31; 말 3:10-12

- ㅂ. 레위 제사장에게, 겔 44:28-31; 말 3:10-12
- ㅅ. 다윗과 메시아적 계보에게, 삼하 7:29; 시 3:8; 21:3; 118:26(참조, 마 21:9; 23:39; 막 11:9; 눅 13:35; 19:38; 요 12:13)
- ㅇ.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시 118:26; 129:8

2. 부모의 축복:

- ㄱ.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속아서), 창 27:12, 18-29, 35
- ㄴ. 야곱, 창 49:3-27, 28-29
- ㄷ. 모세(대리적인 부모로서), 신 33:1-25

하나님의 말씀은 (족장들이 말한 축복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자적이면서도 스스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었다, 사 55:11; 45:23; 마 24:35(5:17-19); 막 13:31; 눅 21:33. 말의 능력은 다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1. 창조(즉,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2. “말씀”으로 불리워진 메시아, 요 1:1, 14; 요일 1:1; 계 19:13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있다!

개역개정 17:9-11

<sup>9</sup>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sup>10</sup>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sup>11</sup>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7:9-11 이것은 창 3 장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다(참조, 창 6:5,11,12,13; 롬 3:9-18).

“최악됨”을 “병듦”(BDB 60, 참조, 30:12; 사 1:5-6; 17:11; 미 1:9)으로 제시하는 은유적 표현이 풍요/건강함을 가난함/병듦과 대조시키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나온다(참조, 14 절; 14:19; 신 27-28 장; 욥기; 시 103:1-5; 사 1:5-6; 53:4-6).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은, 탁월한 저자인 고든 피의 *건강과 부자됨을 전하는 복음의 질병*이다.

17:9

NASB, NKJV, TEV, REB “속이는”

NRSV, NJB, JPSOA “기만적인”

이 단어(BDB 784 I)는 “발꿈치” 혹은 “발자국”에서 왔다. 이것은 야곱의 출생시 사용되었다(참조, 창 25:26; 27:36). 이 것은 9:4 에서 “교묘하게” 또는 “대체자”로 번역되었다(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다).



17:10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11:20의 설명을 보라.

▣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야웨는 윤리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각자가 선택한 것에 결과가 따른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렘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롬 8:1-11에서 잘 설명하였듯이, 인간이 원하는 것(5 절)과 영적인 것(7 절) 사이에 갈등이 있다.

17:11 잠언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음’에 대하여 말한다(참조, NIV). 이들은 자고새가 품는 여러 알 가운데서 자란다(랍비들의 잠언).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후에는 가짜 부모새들을 떠나 버린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도 자신이 쌓은 것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자고새”(BDB 896)에 대하여 UBS의 성경의 동식물(64 쪽)에서 다룬다. 고대 근동의 새, 보석, 나무, 꽃, 동물은 종종 확실히 규명하기에 어렵다. 그러나 암시, 관용어, 은유적 표현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어리석은 자” 이 명사형(BDB 614)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곳에만 나온다. 동사형은 14:21에 나온다. 이것은 지혜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 단어가 다음의 책에서도 나온다

1. 신 32:6,21
2. 삼상 25:25; 삼하 3:33; 13:13
3. 사 32:5-6
4. 겔 13:3

#### 개역개정 17:12-18

- <sup>12</sup>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 <sup>13</sup>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 <sup>14</sup>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 <sup>15</sup>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 <sup>16</sup>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 <sup>17</sup>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 <sup>18</sup>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17:12-18 모든 영어 번역본에서 장의 앞쪽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만, NASB에서는 12-18 절을 하나의 독립된 연으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14 절에 새 연이 시작된다.

이것은 또 다른 예레미야의 애가/고백이다. 12-14 절은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의 서언일 것이다. 이 본문은 10 절에 언급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17:12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지성소”에는 야웨께서 상징적으로 거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었다. 이 궤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야웨의 언약을 상징한다(참조, 14:21). 장차 온 땅이 하나님께 나아와 만나려고 이곳에 올 것이다(참조, 3:17).

3:16의 특별주제를 보라.

17: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14:8의 설명을 보라.

▣ 유다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 모두 주를 버렸다(BDB 736, KB 806, 칼 분사)
2. 여호와를 떠났다(BDB 693, KB 747, 칼 분사 수동, 케레), 땅에(UBS 본문 프로젝트는 케레의 모음에 B 등급을 줌)

그들이 행한 것에 따르는 결과를 주목하라.

1. 수치를 당할 것이다
2. 흠에 기록이 될 것이다(참조, 17:1; 즉, 행위의 책에,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결과는 “생수의 근원”(참조, 2:13; 시 36:9)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칼 완료형).

#### 특별주제: 하나님의 두 책

가. 어떤 의미에서 이 특별한 주제는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자연(즉, 창조, 참조, 시 19:1-6)
2. 성경(참조, 시 19:7-14)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점이 과학과 믿음 사이에 궁극적인 갈등이 있다고 내가 여기지 않는 이유이다.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사이트로 올린 나의 창세기 1-11 장 주석을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책이 두 권이 있다(참조, 단 7:10; 계 20:12)

1. 인간이 행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책.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에 대한 은유로서, 어느 날 모든 인간이 생명을 주신 자신의 창조주께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고할 것을 말한다.
  - ㄱ. 시 56:8; 139:16
  - ㄴ. 사 65:6
  - ㄷ. 말 3:16
  - ㄹ. 계 20:12-13
2. 야웨/예수님께 대한 신실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가진 자의 이름이 있는 책. 이것은 구속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 ㄱ. 출 32:32-33
  - ㄴ. 시 69:28
  - ㄷ. 사 4:3
  - ㄹ. 단 12:1
  - ㅁ. 빌 4:3

ㅂ. 히 12:23

ㅅ. 계 3:5; 13:8; 17:8; 20:12,15; 21:27

ㅇ. 또한 예녹 1 서 47:3; 81:1-2; 103:2; 108:3

이 두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반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잊으신다(참조, 시 103:11-13; 사 1:18; 38:17; 43:25; 44:22; 미 7:19). 하나님께서 변함 없이 자비하신 인격과 약속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커다란 확신과 신뢰가 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

NASB, LXX	“흠 위에 기록이 되오리니”
NKJV	“흠 안에 기록이 되오리니”
NRSV, NJB, NET	“지하세계에 등록이 되오리니”
TEV, REB	“그들은 먼지에 기록된 이름처럼 사라지리니”
TEV(각주)	“죽은 자의 세계에 가니”
JPSOA	“운이 다한 자들이 되리니”

이 구의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1.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는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될 것이다
2.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는 스올에 있는 죽은자들의 명단에 등록이 될 것이다(“땅,” *예레즈*[6:18-19의 특별주제를 보라], “지하세계”를 뜻하는 우가랏 어근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AB의 118쪽을 보라)

17:14 예레미야는 야웨께 드리는 간구를 다음의 기도로서 시작한다.

1. 나를 고치소서 - BDB 950, KB 1272, *칼* 명령
2.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 *니팔*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나를 구원하소서 - BDB 446, KB 448, *히팔* 명령
4.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 *니팔* 청유형

“병고침”은 용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9절의 설명을 보라. “구원함”은 신체적 구출을 가리킨다. 예레미야는 영적 및 신체적 영역에서 힘과 확신을 필요로 하였다. 인간은 육신과 영을 가진 피조물이다(참조, 창 2:7).

▣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예레미야의 힘과 확신은 야웨께 있었다(참조, 신 10:21; 시 109:1). 다른 어떤 근원이 없다(참조, 17b 절; 16:19).

17:15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야웨께서 지연하심을 고통하였다(참조, 사 5:19; 롬 2:4; 벧후 3:3-7). 심판의 지연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야웨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였다(참조, 신 13:1-5; 18:20-21). 그러나 그는 참 선지자였다(참조, 신 18:19)!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 동사(BDB 97, KB 11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는 이 예루살렘/유다 사람들의 거만함과 불신앙을 드러낸다. 그들은 야웨의 대변인과 야웨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7:16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묘사한다.

1.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본문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보라)
2.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즉, 심판의 날, 침공, 잡혀감)
3.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즉,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MT, NASB, NKJV,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NJB, JPSOA, NIV

폐쉬타, NRSV, “그럼에도 나는 재앙을 내려 달라고 결코 주께 요구하지 않았사오며”

TEV, REB, NET

앞에 있는 동사인 “압력을 가하다”(BDB 21, KB 23, 칼 완료형)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분사가 어려움을 제공한다.

1. MT, *미로에*, “목자로부터” - BDB 944, KB 1258, 칼 분사
2. 제안된 것, *미라이*, “악으로부터,”(*라이*라는 어근) - BDB 949, KB 1269

17:18 예레미야(전형적인 동양의 표현을 사용하여)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거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요청을 드린다.

1.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BDB 101, KB 116,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BDB 369, KB 365,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BDB 97, KB 112, *히필* 명령
4.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시어- BDB 990, KB 1402, 칼 명령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영적/육체적 갈등을 겪었다. 야웨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자신의 영원한 구속적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하시기 원하셨다(참조, 3:17; 4:2; 16:19-21). 예언서에 나오는 시의 이러한 과장법적 표현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과격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짓됨, 영적 속임, 사탄이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 있었다(참조, 엡 4:14)!

▣ “배나 되는 멸망”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참조, 사 40:2; 램 16:18; 계 18:6).

개역개정 17:19-23

<sup>19</sup>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sup>20</sup>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sup>21</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sup>22</sup>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sup>23</sup>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17:19-27 야웨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언약을 순종함 특히 안식일을 지키고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유다는 순종의 여부에 의하여 축복 또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이 한 가지 명령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였다.

유다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왕이 사용하는 성전 문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하여 야웨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신다.

그들이 한 반응이 23 절과 27 절에 나온다. 24-27 절은 평행을 이루는 연이다.

야웨께서 유다를 복주사(참조, 25-26 절)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지만(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참조, 겔 26:22-32).

17:20 “들을지어다” 이 용어(BDB 1033, KB 1570, 칼 명령)는 행할 수 있게 듣는 것을 뜻한다(즉, 신 4:1; 5:1; 6:3,4)! 이 단어가 23,24(강조형으로),27 절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이 내용은 약 1:23-27 과 비슷하다. 참된 믿음은 심장, 머리, 손과 관련을 가진다!

17:21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MT 는 문자적으로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삼가라”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 동사(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는 주의하여 들음을 나타낸다(참조, 신 4:9,15,23; 6:12; 8:11; 수 23:11).

17:23 “그 목을 끈게 하여” 7:26 의 설명을 보라. 그들은 듣거나 응답하려 하지 않았다!

개역개정 17:24-27

<sup>24</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sup>25</sup>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sup>26</sup>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겟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와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sup>27</sup>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7:24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이 미완료형 동사를 같은 어근(BDB 1033, KB 157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하여 강조적으로 나타낸다.

17:25 “영원히”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레미야 1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진흙	예레미야가 토기장을 방문하다	토기장이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	토기장이 우화
18:1-4	18:1-4	18:1-12	18:1-4	18:1-4
18:5-12	18:5-10  18:11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함  18:12	이스라엘이 야웨를 거부함에 대하여	백성이 주님을 거부하다	18:12 믿음 없는 유다가 끝 없이 견게 됨을 경고받다
18:13-17 (13-17)	18:13-14 (13-14)  18:15-17 (15-17)  박해받는 예레미야	18:13-17 (13-17)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음모	18:13-17 (13-17)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음모	18:13-17 (13-17)  예레미야의 네 번째 애가
18:18	18:18	18:18	18:18	18:18
18:19-23 (19-23)	18:19-23 (19-23)	18:19-23 (19-23)	18:19-23 (19-23)	18:19-23 (19-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8:1-4

<sup>1</sup>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sup>2</sup>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sup>3</sup>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sup>4</sup>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18:1 7:1 의 설명을 보라.

18:2 토기장은 은유적으로 야웨를 나타낸다(참조, 사 29:16; 30:14; 41:25; 64:8; 숙 11:13; 롬 9:21; 계 2:27). “만들다”라는 동사는 종종 야웨의 창조사역을 나타내었다(참조, 창 2:7,8,18; 사 43:1,21; 44:21; 45:9,11,18). 야웨의 언약백성은 보다 큰 목적을 이루는 한 부분이었으나(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계획이 망가졌다(참조, 겔 36:22-38). 따라서 토기장은 다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든다(참조, 4 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은 “누가/무엇이” 새 그릇인가? 이다.

18:4 결함을 가진 도자기의 문제는 토기장의 기술이 낮은 것에 있지 않았다! 진흙이 야웨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참조, 롬 9:4-5) 타락하였다(참조, 창 3 장).

JPSOA 역은 “만일...”을 추가하여, 모든 그릇이 “망가진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러나 문맥에서는, 유다의 전 공동체가 잘못되었음을 야웨께서 지적하고 계신다.

개역개정 18:5-12

<sup>5</sup>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6</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sup>7</sup>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sup>8</sup>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sup>9</sup>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sup>10</sup>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sup>11</sup>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sup>12</sup>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시니라

18:7 야웨의 행동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참조, 1:10). 야웨께서는 열방에 대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 또 그들을 주관하신다(참조, 신 32:8; 그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심판의 내용을 예언서에서 말한다).

1. 뽑거나 - BDB 684, KB 737, 칼 부정사 연계형
2. 부수거나 - BDB 683, KB 736, 칼 부정사 연계형
3. 멸하려 할 때에 - BDB 1, KB 2, *히필* 부정사 연계형

1:10 에 나오는 새롭게 하심과 재건의 일은 8-9 절에서 조건적으로 제시된다. 믿음과 신실함에는 그 결과가 뒤따른다. 이 일은 우상숭배를 행하고 불순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참조, 10 절).

18:8,10 “만일...”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야웨의 소원에 기초한 몇 가지의 무조건적 약속이 있다. 한편, 그러한 내용이 국가 및 개인에게 조건적으로 제시된다(즉, 7:3-7; 12:16).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및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교리이다!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

디도서 2:11 은 선택에 관한 신약의 다른 본문과 균형을 이룬다. 나는 롬 8:29 과 9 장 및 엡 1 장에 대한 주석에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로마서 8:29 - 바울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이곳과 11:2 에서 사용하였다. 11:2 에서 이 단어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와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함을 기억하라(참조, 창 4:1; 램 1:5). 여기서 이 단어는 일련의 영원한 사건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8:29-30). 이 용어는 예정과 관련을 가진다. 한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은 선택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일 범죄한 사람이 미래에 행할 반응에 기초한 선택이라면 이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행 26:5; 벰전 1:2,20; 벰후 3:17 에서도 나온다. 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

“미리 알다”와 “예정하다”라는 용어는 “미리”라는 전치사와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알다”, “미리 범위를 정하다” 또는 “미리 표시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신약에서 예정을 다룬 중요한 본문은 롬 8:28-30; 엡 1:13-14; 롬 9 장이다. 이 본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이미 설정하신 계획이 있다. 한편 이 계획은 임의적이거나 취사선택적이지 않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서구적(미국인의) 개인주의 혹은 복음적 열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혹은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있는 역사적 신학적 갈등으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나. “예정하다”(프로오리조, “미리 한계를 설정하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하심을 제한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복음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참조, 딤후 2:4; 벰후 3:9).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인가(참조, 롬 8:31-39)?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현재로 보신다; 인간은 시간에 묶인 존재이다. 우리의 관점과 지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다. 이것은 언약적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변증법적 긴장으로 제시된 진리의 한 예이다. 성경의 교리는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그것은 종종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서로 반대를 이루는 쌍으로 보이는 것 사이에 진리가 위치한다. 우리는 이 진리들의 어느 한 쪽을 취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라도 그것을 따로 격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 뿐 아니라 현재 가질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있음도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롬 8:29; 엡 1:4; 2:10).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선택을 받았다. 우리의 바뀐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예정하심은 우리의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요 진리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적이다. 거룩함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한 지위를 뜻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의미한다(참조, 엡 1:4).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 5:1,3; 9:6)은 회복되어야 한다.

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다”—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에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졌다(참조, 엡 1:4).

## II. 로마서 9 장

가. 로마서 9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약의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다른 본문으로는 엡 1:3-14 이 있음). 한편, 10 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또 반복하여 언급한다(참조, “모든 사람” 4 절; “누구든지” 11,13 절; “모든” 12 절 [2 회]). 바울은 결코 이러한 신학적 긴장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양쪽 다 진리이다! 대부분의 성경적 교리는 역설적 혹은 변증적 쌍으로 제시된다. 대부분의 신학적 체계는 논리적으로 절반의 진리를 나타낸다.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대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진리와 오류의 요소를 갖고 있다. 기존의 해석적 틀을 가지고 성경에 변형을 가하는 성경 인용주의적, 교리적, 이성적, 신학적 체계는 교리 사이에 나타나는 성경의 긴장을 선호한다.

나. 이같은 진리(롬 9:23 에서 발견됨)가 롬 8:29-30 및 엡 1:4,11 에서 언급된다. 이 장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강조는 결코 약화되거나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이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구약의 어떠한 언약(창 15 장의 경우처럼)은 무조건적 특성을 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응답과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언약은 인간의 응답에 의해 조건지어짐(예, 에덴, 노아, 모세, 다윗)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계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 어떤 사람도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를 선택하셨다. 이 참여의 기회는 주권(롬 9 장)과 인간의 자유의지(롬 10 장) 사이의 신학적 긴장을 낳는다.

성경의 어떤 강조점을 택하여 다른 강조점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동양 사람들이 진리를 변증법적 혹은 긴장으로 가득찬 쌍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교리에 긴장이 나타난다. 반드시 다른 교리와의 관계에서 교리들을 이해해야 한다. 모자이크 형태로 진리가 이루어져 있다.

## III. 에베소서 1 장

가.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한편, 이것은 편애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속을 돕기 위한 통로, 도구, 방법으로의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 용어는 섬김을 가져 오는 구원을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결코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둘을 모두 확증한다! 성경에 나타난 긴장에 대한 좋은 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로마서 9 장과 인간이 해야 할 응답에 대한 로마서 10 장의 경우일 것이다(참조, 10:11,13).

이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가 1:4 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을 가능성을 가진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예”(yes)이시다(칼 바르트). 엡 1:4 은 또한 예정의 목적이 오직 천국만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있음을 확증함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해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의 혜택에 의해 끌림을 받지만 책임있는 삶은 무시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은 물론 일시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교리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성에 비추어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서구의 장르가 아니라 동양의 장르를 취하여 진리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변증적(역설적) 쌍을 이룬 교리적 진리들로 인한 긴장을 제거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월적인 하나님 대 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안전함 대 인내함; 성부와 동등하신 예수 대 성부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언약의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기타).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시는 분)을 인간이 취하여야 하는 믿음의 처음 응답 및 지속적인 회개의 믿음과 하나로 엮는다. 역설적 진리의 한 쪽을 성경 구절로써 입증함으로써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엡 1:4 에서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은 주어를 강조하는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만세 전에 성부께서 하신 선택에 초점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슬람의 결정론적 의미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 대 다른 사람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참조, 창 12:3; 출 19:5-6).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신다(참조, 요 6:44,65). 이 본문과 롬 9 장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강조한 예정의 교리에 대한 성경의 기초를 이룬다.

하나님은 구원(칭의) 뿐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신자들을 택하셨다(참조, 골 1:12). 이것은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참조, 고후 5:21) 혹은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기 자녀들에게서 재생산하고자 하시는 바람(참조, 2:10; 롬 8:28-29; 갈 4:19)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 갖고 계신 뜻은 어느 날 천국에서의 삶과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한 것이다!

엡 1:4 에서는 “그 분 안에서”가 핵심 개념이다. 성부의 축복, 은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른다(참조, 요 14:6). 이 문법적 형태(공간을 말하는 위치격)가 반복되어 나타남을 주목하라—3 절, “그리스도 안에서”; 4 절, “그 분 안에서”; 7 절, “그 분 안에서”; 9 절, “그 분 안에서”; 10 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 안에서”; 12 절, “그리스도 안에서”; 13 절, “그 분 안에서”(2 회).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예”였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선택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 분 안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온다.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라는 구는 마 25:34; 요 17:24; 뱀전 1:19-20; 계 13:8 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이 창 1:1 이전에 속함을 나타낸다.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예정하심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지 특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자녀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참조, 창 1:26-27) 하나님을 닮도록(참조, 살전 5:23; 살후 2:13) 하기 위함이다. 예정하심을 거룩한 삶이 아닌 신학적 교리로 바꾸는 일은 비극이다. 종종 우리의 신학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흠없는”(아모모스) 혹은 “책망할 것 없는”이라는 용어가 (1) 예수님(참조, 히 9:14; 뱀전 1:19) (2) 스가랴와 엘리사벳(참조, 눅 1:6) (3) 바울(참조, 빌 3:6) (4)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참조, 빌 2:15; 살전 3:13; 5:23)에 대해 사용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9-30; 갈 4:19; 뱀전 1:2). 신자들은 복음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는 4 절과 5 절과 함께 사용된다. 한편,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3:17; 4:2,15,16).

다. 엡 1:5 에서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문장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 되어 있다. 이 헬라어 용어는 “미리”와 “표시하다”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구속적 계획을 나타낸다(참조, 눅 22:22; 행 2:23; 4:28; 17:31; 롬 8:29-30).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진리나 신학적 형태의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결코 따로 떼어져서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의 진리는 긴장이 가득찬 역설적 쌍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진리로 제시되었다. 교파주의는 변증적 진리의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신자의 구원의 안정성 대 성도의 인내; 원죄 대 고의적인 죄; 죄 없음 대 죄가 적음; 즉각적으로 선포되는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 믿음 대 행함;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 초월하심 대 내재하심).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행할 일에 대한 미리 아심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초한다(참조, 9 절과 11 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영지주의자들 혹은 오늘날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참조, 겔 18:21-23,32; 요 3:16-17; 딤후 2:4; 4:10; 딤후 2:11; 뱀후 3:9). 예정하심을 다룬 또 다른 본문인 롬 9-11 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열쇠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하나님의 성품)는 이 본문에 있어서 신학적 열쇠가 된다(참조, 6a, 7c, 9b 절).

범죄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다(참조, 사 53:6 및 롬 3:9-18 에서 인용한 구약의 여러 본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앞부분의 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울이 인간의 행함과 완전히 상관없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예정하심(1 장), 은혜(2 장),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신비, 2:11-3:13).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강조하는 거짓교사들의 강조점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18:8 “돌이키겠고” 이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다”(BDB 636, KB 688, 니팔 완료형)라는 동사로서 종종 “회개하다”로 번역되었다. 야웨께서 “회개하신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 단어는 명백히 신인동형적 표현이다(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야웨께서는 다음에 기초하여 기꺼이 바꾸시기를

원하신다(그의 행하심을 뜻하는 것이지 그의 성품을 바꾸심이 아님, 참조, 민 23:19; 삼상 15:29; 성경의 어려운 말, 209-210 쪽을 보라):

1. 어떤 사람/민족이 자세와 행동을 바꿈
2. 중보기도(7:16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동사가 야웨께 대하여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다(참조, 창 6:6-7; 출 32:14; 삼상 15:11; 삼하 24:16; 시 106:45; 렘 18:7,8; 26:13,19; 암 7:3,6; 욥 3:9-4:2,11). 한편, 그 반대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온다(참조, 민 23:19; 삼상 15:29; 시 132:11; 렘 4:28; 겔 24:14; 말 3:6; 약 1:17;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만일 사람이 믿음과 신실함으로써 응답한다면, 야웨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예언(메시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은 조건적이다.

이 주제에 있어서 내가 신뢰하는 두 가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129-130 쪽
2. 성경의 어려운 말, 70-75 쪽

###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를 엡 1:4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18:11 토기장이와 마찬가지로 야웨께서 도자기를 만드시고 부수셨다. “만드시는”으로 번역된 동사 (BDB 427, KB 428)는 “토기장이”를 뜻하는 칼분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2,3,4[2 회],6[2 회], 11 절).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참조, 창 2:7,8), 예레미야(렘 1:5), 아브라함의 씨에서 민족을 지으신 일(참조, 사 27:11; 43:1,21; 44:21; 45:9,11; 64:8)을 가리킨다.

▣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구약은 야웨의 온전한 주권을 주장한다. 그가 “모든” 사건(즉,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을 주관하심은 유일신 신앙을 나타낸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러한 종류의 “작은 일”을 대하 20:6; 전 7:14; 사 14:24-27; 43:13; 45:7; 54:16; 렘 18:11; 애 3:33-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유익한 논의가 성경의 어려운 말(305-306 쪽)에 나온다. 이것은 ‘야웨께서 악의 근원이 되심’을 결단코 의미하지 않는다!

▣ 유다에게 주시는 야웨의 메시지를 두 명령으로서 제시한다.

1. “돌이키며” - BDB 996, KB 1427, 칼 명령, 2:22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아름답게 하라”(“개혁하라”라는 뜻임) - BDB 405, KB 408, *히필* 명령

참된 회개는 악에서 돌이키는 것 뿐 아니라, 선으로 돌이키는 것임을 주목하라!

18:12 이것은 야웨께서 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알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2:25; 17:1). 그들은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았고, 또 바꿀 수도 없었다(참조, 13:23).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그들은 고의로 반역을 행했다(참조, 7:24; 9:13; 13:10; 16:12)!

#### 개역개정 18:13-17

- <sup>13</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sup>14</sup>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sup>15</sup>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sup>16</sup>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17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흠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8:13-17 이 연은 자기들의 신/여신들을 바꾼 나라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묘사한다(참조, 2:9-13). 야웨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참 하나님(1:5의 특별주제를 보라)이신 야웨를 “잊어버렸다”(BDB 1013, KB 1489, 칼완료형, 참조, 2:32; 3:21; 13:25). 하나님은 그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1. 그들이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다.
2.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길(즉, 옛길, 참조, 6:16; 시 16:11; 139:24)에서 넘어졌다.
3. 그들이 야웨의 길이 아닌 결길로 행하였다.

그들이 택한 것/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2.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된다(문자적으로, “머리를 흔들다,” 참조, 48:27).
3. 그들을 흠어 버리실 것이다(참조, 레 26:33; 렘 9:16; 13:24; 31:10).
4. 야웨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다(이것은 MT의 모음을 조정한 의미이다).

18:13 “심히 가증한 일” 이 구는 국가가 신들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끔찍한”(BDB 1045 III, KB 1619 III)이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를 가진다.

1. *샤아루라* = 끔찍한 일, 참조, 5:30; 23:14
2. *샤아루리아* = 끔찍한 것, 참조, 18:13; 호 6:10
3. *쇼아르* = 썩은 무화과, 참조, 29:17

18:14 이 절(괄호 안의 문장)은 해석하기 어려운 절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또는 예상되는 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눈이 헤르몬 산에 머물러 있고 그 녹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림을 분명히 가리킨다. 자연의 일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행할 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18:15 “뉘지 아니한 길” 15 절은 13 절의 주제를 다시 다룬다. 특별히 뉘인 길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이다.

1. 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올 대로, 사 11:16; 57:14
2. 이방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올 대로, 사 19:23
3. 거룩한 대로, 사 26:7; 35:8; 43:19; 49:11; 51:10
4. 메시아의 대로, 사 40:3; 42:16

18:16-17 이것은 야웨께서 하나님의 땅에 정착한 그 언약백성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이방에 대하여 빛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과 놀람의 대상이 되었다(참조, 겔 36:22-23).

개역개정 18:18

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피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8:18 이 절은 19-23 절에 있는 연의 서론이다. 예레미야의 적들은 그를 해하려는 계획을 짰다(참조, 20:10).

1. 오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2. 우리가 피를 내어 - BDB 362, KB 359, 칼 청유형
3. 오라 - 1 항과 같음
4.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 BDB 645, KB 697,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5.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 BDB 904, KB 1151, *히필* 청유형
  - ㄱ. 듣기를 멈추자, MT, 페쉬타, JPSOA, NRSV
  - ㄴ. 듣고 그의 잘못을 발견하자, LXX, JB

이것은 야웨의 계시를 나타내는 도구 또는 방법으로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된 유일한 절이다.

1. 제사장 - 율법(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질문함)
2. 지혜로운 자 - 자문(즉, 지혜문학)
3. 선지자 - 하나님의 말씀

이 절이 언급된 이유는 그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야웨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믿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거짓 선지자(참조, 신 13:1-5)였고 죽임을 당하여야만 한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야웨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유다에게서 거두실 것이다!

세 그룹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참조, 2:8,26; 4:9; 5:31; 8:1; 13:13; 26:16; 28:1).

1. 왕들, 방백
2. 제사장
3. 선지자

#### 개역개정 18:19-23

- <sup>19</sup>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 <sup>20</sup>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 <sup>21</sup>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 <sup>22</sup>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 <sup>23</sup>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18:19-23** 예레미야는 야웨께 기도드림으로써 그들의 음모에 답한다(그의 또 다른 애가/고백). 이 단락은 18 절의 끝부분에 나온 동사(“주의를 기울이다”)로서 시작한다. 그의 간구를 주목하라(예언서의 과장법적 명령,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를 보라)

1.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 그의 원수들은 돌아보거나 듣지 않지만, 야웨께서는 돌아보시며 들으실 것이다!
2.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 ㄱ. MT - 나와 다투는 자들을 들어 보옵소서
  - ㄴ. LXX - 내게 들으소서
3. 내가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억하옵소서 - BDB 269, KB 269, *칼* 명령
  - ㄱ.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즉, 14:13-16)
  - ㄴ.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참조, 15:1)
4. 그러므로 야웨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소서
  - ㄱ.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 BDB 678, KB 733, *칼* 명령
  - ㄴ.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 BDB 620, KB 669, *히필* 명령
  - ㄷ.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 BDB 224, KB 24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ㄹ. 과부가 되며 - ㄷ항과 같음
  - ㅁ.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질병으로,” BDB 560) - BDB 246, KB 255, *칼* 수동 분사
  - ㅂ.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 BDB 645, KB 697, *호팔* 분사
  - ㅅ.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 BDB 1033, KB 1570, *니팔*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부르짖음”이라는 명사에 대하여는 20:16; 48:4,34; 50:46; 51:54; 사 15:5 을 보라
  - ㅇ.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 BDB 497, KB 493,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ㅈ.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 BDB 562 I, KB 567,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ㅊ.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 BDB 224, KB 24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ㅋ.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 BDB 793 I, KB 889, *칼* 명령

**18:20**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이것은 분명히 유다를 위한(참조, 17:16) 예레미야의 기도를 가리킨다(“주의 앞에 서서”).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이것은 사냥법을 암시한다(참조, 시 57:6; 119:85). 이것은 문자적(즉,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회화적(그들이 그의 명성을 더럽히려고 시도하였다, 참조, 22 절, 즉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조, 신 13:1-5)인 의미를 가진다.

**18:23** 예레미야가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가? 유다가 거듭하여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공의를 그가 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처한 상황이 그에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유다의 죄는 그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공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고하여야 할 날이 이를 것이다(즉, 마 25:31-46; 계 20:11-15). 이것은 지식을 가진 언약백성에게 특별히 나쁜 날이 될 것이다(참조, 눅 12:48)!



# 예레미야 1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깨진 용기	깨진 병의 표징	깨진 컵과 바스홀의 논쟁 (19:1-20:6)	깨진 용기	예레미야를 공공연히 박해함 (19:1-20:6)
19:1-9	19:1-3  19:4-9	19:1-9	19:1-9	19:1-9
19:10-13	19:10-13	19:10-11a  19:11b-13	19:10-13	19:10-13
19:14-15	19:14-15	19:14-15	19:14-15	19:14-1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9:1-9

<sup>1</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용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sup>2</sup>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sup>3</sup>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sup>4</sup>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sup>5</sup>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sup>6</sup>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와 딸이니라 <sup>7</sup>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엮드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sup>8</sup>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sup>9</sup>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19:1 18 장과 19 장은 “토기장이”와 “용기”(BDB 132 와 427 의 합성, 즉, 음료를 담는 작은 병)라는 그림과 관련을 가진다.

“용기”는 직경이 10 ~ 25 Cm 되는 불에 구운 도자기로서, 가는 목이 있어 액체를 담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용기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었다.

▣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어른”은 나이가 들고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지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시대” 때부터 있었다(참조, 출 3:16,18; 4:29; 12:21 등). 26: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유다 및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특별주제: 장로

1. 천사들의 회의에서 구성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24:23). 이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4:4,10; 5:5,6,8,11,14; 7:11,13; 11:16; 14:3; 19:4).
2. 구약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자켄)을 가리킨다(참조, 출 3:16; 민 11:16). 후에 신약에서는 산헤드린으로 불리는 유대인의 최고법정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켰다(참조, 마 21:23; 26:57). 예수님 당시에 이 70 명의 지도자들은 타락한 제사장직에 의해 조종되었다.
3. 지역에 있는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세 동의어 가운데 하나였다(목사, 감독, 장로, 참조, 딤후 1:5,7; 행 20:17,28). 베드로와 요한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지도자 그룹의 하나로 제시한다(참조, 벧전 5:1; 요이 1 절; 요삼 1 절).
4. 교회에 있는 노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항상 지도자였던 것은 아니다(참조, 딤후 5:1; 딤후 2:2).

19:2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래에 있는 게헨나에 대한 사항을 특별주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에서 가져 왔다. 게헨나는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락(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예녹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1.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인 개념, 마 5:29-30; 18:9
  - ㅁ.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ㅂ.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ㅅ.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벤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ㅇ.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2. 스올, *하테스*, *게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 ㄱ.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테스*에 갔다
  - ㄴ.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테스*(무덤)를 *게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ㄷ.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NASB	“도편 문”
NKJV, NJB	“그 도편 문”
JPSOA	“하시드 문”
LXX	“카시드 문”
페쉬타, KJV	“동쪽 문”

구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문 가운데 이 문의 이름이 여기서 유일하게 언급된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었다.

1. 뚝(쓰레기)의 문, 느 2:13; 3:13-14; 12:31 (아람어 탈굽). 이 문은 쓰레기를 내버리는 문이었을 것이다.
2.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문은 흰뚝 골짜기로 연결되는데, 이 문은 토기장이가 일하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3. 페쉬타(시리아역)는 태양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인 헤로스과 비슷한 히브리어 이름에서 “동쪽”이라는 단어를 유추하였다. 이 이름은 아주 부적절하다. NKJV는 이것을 “도편의 문”으로 바꾸었다.

19:3 “여호와 . . .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1:2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이 이름이 모두 언약적 이름이며 이 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남을 주목하라. 언약백성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야웨의 계시로서 “열방”에 대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하였다(참조, 15 절)!



NASB	“재앙”
NKJV	“참사”
NRSV, TEV, NJB	“재난”

이 단어의 어근(*라아*)은 여러 개의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1. 목장, 내밀다, 또는 목자 - BDB 944 I, KB 1258 I, 예레미야서에서 27 회 사용됨
2. 관련을 가지다(즉, 친구 또는 동료) - BDB 945 II, KB 1262 II, 예레미야서에서 21 회 사용됨
3. 즐거움 또는 욕망 - BDB 946 III
4. 해로운 것(*r'*에서 *옴*, BDB 948, 예레미야서에서 32 회 사용됨) - BDB 949, KB 1262, 예레미야서에서 92 회 사용됨

이 단어는 NIV 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 |       |          |
|-------|----------|
| ㄱ. 재앙 | ㅇ. 재난    |
| ㄴ. 악함 | ㅈ. 공격    |
| ㄷ. 문제 | ㅊ. 파괴    |
| ㄹ. 악  | ㅋ. 범죄    |
| ㅁ. 벌  | ㅌ. 악한 행동 |
| ㅂ. 해  | ㅍ. 불편    |
| ㅅ. 죄  | ㅎ. 파괴    |
|       | ㄱ. 잔인함   |

▣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것은 충격적인 심판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삼상 3:11; 왕하 21:12). 이것은 합 3:16 에 나오는 “떨리는 입술”과 비슷하다.

19:4-5 재앙이 유다에게 오고 있다. 그 이유는

1. 그들이 야웨를 버리고(참조, 1:16; 2:13,17,19; 5:7,19; 16:11; 17:13; 신 28:20; 31:16)
2. 그들이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참조, 신 11:28)
3. 그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 ㄱ.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4,5 절; 왕하 17:17; 시 106:37;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ㄴ. 무죄한 자들을 죽였다, 참조, 2:34; 7:6; 12:3,17; 26:15; 시 106:38, 참조, TEV
4.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였다(참조, 7:9; 11:13,17;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19:5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것은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에 대한 야웨의 생각을 나타낸다. 어떤 이들은 창 22:2 이나 출 13:1 을 오해하여 다음의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위한 구실로 삼았다

1. 몰렉
2. 바알

어떤 이는 욥의 가족이 죽은 일(참조, 욥 1 장)을 야웨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선동시켜 일어난 일로 본다.

이 주제에 관하여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선을 위하여(참조 요 3:16; 고후 5:21) 야웨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이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일로서 상징이 됨, 참조, 창 22:9-19). 예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사람/하나님께서 죽으신 일이요 또 선물을 주신 사건이다.

19:6-9 야웨께서는 사람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신다.

1.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 그들의 계획이 무너뜨려진다(참조, 8:8-9)

3. 많은 이들이 침략을 받아 죽게 된다
4.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 참조, 7:33; 16:4
5. 예루살렘이 놀람과 조롱 거리가 된다, 참조, 15:4; 18:16
6. 인육을 먹는 일이 생긴다(즉, 전쟁으로 에워싸임), 참조, 레 26:29; 신 28:53,55,57; 애 4:10

19:7 “내가...을 무너뜨려” 이 동사(바깥, BDB 132 II, KB 150, 칼 완료형)에 대하여 BDB는 “물에 잠긴 잔 또는 물이 없는 잔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것은 1 절에 나오는 “마시는 잔”(바깥, BDB 132)과의 의도적인 언어유희를 이룬다.

**개역개정 19:10-13**

<sup>10</sup>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용기를 깨뜨리고 <sup>11</sup>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sup>12</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sup>13</sup>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9:10 18 장에서 토기장이는 진흙덩어리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에 구운 것이기에 다시 쓸 수가 없어 깨뜨릴 뿐이었다! 유다가 회개할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야웨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참조, 18:8). 침략, 멸망, 살육을 당함, 잡혀가는 일이 다가 오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물담는 용기를 깨뜨린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벽돌을 쌓은 후 요리하는 철판으로 그것을 친 일과 신학적인 평행을 이룬다(참조, 겔 4 장).

부서진 용기 조각은 고대 근동에서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즉, 수메르와 이집트).

19:13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천체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을 섬기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었다(참조, 8:2; 32:29; 왕하 23:5,12; 습 1:5).

1. 이집트
2. 메소포타미아

한 가지를 예로들면, 아래의 특별주제: “달을 섬김”을 보라.

**특별주제: 달 숭배**

달을 숭배하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의 신화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아주 널리 퍼졌다. 신화에는 남신과 여신이 다 나온다. 원래 달신은 하늘의 신인 엔릴이 곡식의 여신인 닌릴을 강간함으로써 태어났다. 엔릴은 만신전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가 한 일에 대해 정죄받아 지하세계로 처해졌다. 그런데 닌릴이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그와 한 편이 되었다. 그 자식인 신(혹은 진)은 밤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달신의 숭배는 달의 주기마다 행해졌다.

1. 새 달 - 아심밧발
2. 초승달 - 신
3. 보름달 - 나나야(수메르어로 “지혜의 신”인 엔수가 “빛을 비춤”)

이러한 이름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섬겼던 “지혜로운 주”(즉, 수엔) 혹은 “빛을 비춤”(나나야)을 기본적으로 뜻한다. 도시 자체가 종종 난날의 도시로 불렸다. 도시에 세워진 지구랏(위가 평편한

커다란 피라미드)에서는 짝으로 된 풍요의 신들을 섬겼다. 태양신(사마스)은 이 부부의 장자이며 그 다음은 *에레스키갈*(지하세계의 여왕)과 *난나*(하늘/공중의 여왕)이다.

이 종교는 모든 고대 근동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이 종교의 주된 예배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우르
2. 하란
3. 테마
4. 가나안
5. 맥카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일과 결합된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별신들을 섬기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구약은 별신을 섬기는 것(참조, 신 4:19; 17:3; 왕하 21:3,5; 23:5; 렘 8:2; 19:13; 숙 1:5)과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즉, *바알*과 *아세라*, 우가릿의 시)을 거부한다. 원래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은 달신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를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그 이유는 농경문화에 속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양신을 섬긴 반면에 밤에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달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유목민이 마침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별신을 섬기는 일이 문제로 부각 되었다.

▣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한 모습이었다(참조, 참조, 7:18; 44:18).

개역개정 19:14-15

<sup>14</sup>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와 그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sup>15</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19:14-15 이 두 절이 3 인칭으로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은 후에 바룩(예레미야의 서기관)이 편집한 내용일 것이다.

19:14 “도벳” 이 단어(BDB 1075 II)는 “불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아마 아람어 어근에서 왔을 것이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을 가리킨다. 요시야는 이곳을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만들었다(4:4 의 케헨나에 있는 특별주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이 장소는

1. 몰렉 신(참조 레 18:21; 19:4-5 의 특별주제)에게 자녀를 불태움으로 예배한 곳이다, 참조, 7:31; 왕하 23:10(사 30:33 의 설명을 보라)
2.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학살하는 자의 이름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참조, 7:32; 19:6
3. 예루살렘의 죽은 자를 묻는 곳이다, 참조, 19:11-12

▣ “여호와와 그의 집 뜰”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바깥 뜰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여러 번 야웨의 말씀을 전하였다(참조, 7:2; 26:2).

19:15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언약백성이 듣고 언약의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거부하였다(참조, 7:26; 17:23; 느 9:17). 그들은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 예레미야 2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19:1-20:6)		(19:1-20:6)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다	바스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바스홀과 예레미야의 갈등	
20:1-6	20:1-6	20:1-6	20:1-6	20:1-6
예레미야의 불평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예레미야의 사역	예레미야의 '고백'을 선별함	예레미야가 주님께 불평하다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애가
20:7-13 (7-13)	20:7-10 (7-10)	20:7-13 (7-13)	20:7 (7)	20:7-12 (7-12)
			20:8-13 (8-13)	
	20:11-12 (11-12)			
	20:13			20:13 (13)
20:14-18 (14-18)	20:14-18 (14-18)	20:14-18 (14-18)	20:14-18 (14-18)	20:14-18 (14-1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20:1-6

<sup>1</sup>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sup>2</sup>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썩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sup>3</sup>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썩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sup>4</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sup>5</sup>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sup>6</sup>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20:1 “바스홀” 구약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다.

1. 이 문맥에서는 성전의 일을 책임지는 제사장(참조, 29:26), 1,2,3,6 절
2. 예레미야 당시의 또 다른 제사장, 그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임, 21:1; 28:1; 느 11:12
3. 또 다른 사람, 렘 38:1(이 절에는 두 명의 바스홀이 나온다)
4. 포로로 간 가족의 두령, 스 2:38; 10:22; 느 7:41; 10:4; 11:12

KB 980에서는 두 명의 저자가 ‘바스홀이 이집트 이름’인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을 말한다(참조, JPSOA 의 난외주). 그렇다면, 이 이름은 야웨의 제사장의 이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아마 친이집트파였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을 “사방에 두려움이”라고 고쳐 부른다, 참조, 3-6 절.

▣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것은 18 장이나 19 장 또는 두 장을 다 지칭한다.

20:2 비록 야웨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참조, 1:18-19), 이것은 그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면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 “때리고” 아마 신 25:2-3 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예레미야는 “악한 자”라는 낙인을 받았다(즉, 거짓 선지자, 참조, 신 13:1-5).

▣ “나무 고랑” 이 단어(BDB 246)는 손과 발과 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나무 막대를 가리킨다. 고통과 불편함을 더할 수 있게 그 구멍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대하 16:10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그 틀에 가두었음을 말한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 일은 그를 매우 힘들게 하였다!

JPSOA 역에서는 이 단어를 “감방”으로 표현하여, 그가 제한된 공간에 갇힘을 제시한다. LXX 도 “지하 감옥”으로 번역하였는데, 각주에서는 “착고”로 제시하였다.

20:4-6 이 단락은 공포(BDB 159 II)를 설명한다.

1.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원수들(즉, 바벨론)의 칼에 엎드러지며 그가 그것을 볼 것이다
2.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바벨론에 옮겨진다
3. 예루살렘(성전을 포함하여)의 모든 부가 탈취당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4. 바스홀과 그의 집에 사는 자가 잡혀가 바벨론에서 죽는다



20:4 “손”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20:6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성전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이 제사장이 정확히 무엇을 “예언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인하여 신 13:1-5 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된다! 거짓 예언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안녕과 관계된 것이었다(아마 히스기야에게 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인용하였을 것임, 즉, 사 36-39 장). 이것은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였으나, 이 시점에는 야웨의 메시지가 아니었다(참조, 14:14-16)!

개역개정 20:7-13

<sup>7</sup>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 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sup>8</sup>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sup>9</sup>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sup>10</sup>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sup>11</sup>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sup>12</sup>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sup>13</sup>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20:7-13 이것은 또 다른 불평/애가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는 야웨께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행하셨다고 느꼈다

1. 그를 속이셨다 - BDB 834, KB 984, *피엘* 완료형과 *니팔* 미완료형(이것은 종종 속임을 뜻하며, 강력한 문법적 구문임; 이것은 1 장에 있는 그의 소명을 가리킴)

2. 그보다 강하였다 - BDB 304, KB 302, 칼 완료형
3. 그를 이기셨다 - BDB 407, KB 410, 칼 미완료형

그 결과(참조, 7-8 절)은 다음과 같다

1. 그가 종일 조롱 거리가 되었다(참조, 48:26,39; 애 3:14)
2. 모든 이가 그를 조롱한다(참조, 애 3:14)
3. 그가 비난을 받는다
4. 그가 조소를 당한다

10 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저주의 말’을 그가 들을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하여 말한다.

1. 그는 야웨께서 바스홀에게 주신 이름(즉, “사방에 두려움이!”)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한다
2. 그들이 그를 고소한다
3. 그의 친한 벗도 다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4. 그들이 그를 이기게 되기를 기대한다
5. 그들이 그에게 원수 갚기를 기대한다

정경에서 현재의 예레미야서가 그가 전한 시적 메시지의 선집이기에, 1-13 절은 분명히 3 절과 10 절에 있는 *마끌뫼사뵘*이라는 “표제어”때문에 이곳에 위치하는 것이 분명하다(참조, 6:25; 46:5; 49:29).

**20:9** 예레미야는 야웨의 대변인이 됨의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이 상당히 시적인 표현임을 기억하라.

1. 그는 야웨를 잊으려고 시도한다
2.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쳤다. 그는 그 말씀을 제지할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참조, 암 3:8).

설교하고/가르치고/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우리들도 대부분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경험한다.

**20:11** 11 절은 야웨를 “두려운 용사”(BDB 150 과 BDB 792 의 합성, 참조, 1:8,19; 15:20)로 묘사한다. 그를 반대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라.

1.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2.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3. 그들이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4.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5. 그들이 받을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6. 그들이 부끄러운 가운데 잊어버림을 받을 것이다

**20:12** 예레미야는 야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 주님은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2. 주님은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십니다(즉, 신장)
3. 주님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릴 수 있게 하십니다(참조, 11:20)

**20:13** 이 절은 두 명령으로 시작한다.

1. 여호와께 노래하라 - BDB 1010, KB 1479, 칼 명령
2. 여호와를 찬양하라 - BDB 237, KB 248, *피엘* 명령

이 칭찬은, 야웨께서 연약한 자의 영혼을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신 것에서 비롯된다.

이 여러 절에 나타난 감정의 큰 변화를 보라. 7 절에서 야웨께 대한 완전한 실망에서 13 절의 기쁜 찬양으로 바뀐다. 이러한 큰 변화는 다음 시에서도 계속된다(14-18 절). 예레미야는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다.

개역개정 20:14-18

- <sup>14</sup>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sup>15</sup>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sup>16</sup>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던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sup>17</sup>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sup>18</sup>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20:14-18 이 단락은 15:10 에서 시작된 애가의 연속이다. 이것이 과장적인 시의 표현으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왜 그가 그렇게 많이 슬퍼하는가?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두려운 심판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다.

20:16 처음 두 행은 야웨께서 창 19:24-28 장에서 평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신 일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사람”을 “날”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본문적 또는 역본적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예레미야 2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시드기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인침을 받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보낸 사신에게 대답하다
2:1-2	2:1-2	2:1-2	2:1-2	2:1-7
2:3-7	2:3-7	2:3-7	2:3-7	
2:8-10	2:8-10	2:8-10	2:8-10	2:8-10
2:11-12 (12)	다윗의 집에 대한 메시지 2:11-12 (12)	왕궁에 대한 예언 (21:11-23:8) 2:11-14 (12-14)	유다 왕궁에 대한 심판 2:11-14	유다 왕족에 관한 내용 2:11-14 (12-14)
2:13-14 (13-14)	2:13-14 (13-1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유다 왕궁에 대한 메시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조, 21:11-23:8
  1. 시드기야(맛다냐) - 21:1-14
  2. 여호아하스(살룸) - 22:10-12
  3. 여호야김(엘리아김) - 22:13-19
  4. 여호야김(고니야) - 22:24-30

- 나. 시드기야(BDB 843)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다. 그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II 세에 의하여 교체되었다(참조, 왕하 24:17). 그는 주전 597-586 년에 통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왕이었다. 그는 바벨론에 8 년 동안 충성하였다. 그후에 친이집트파가 그를 설득하여 반역하게 하였다. 부록 4: 분열왕국의 왕들을 보라.
- 다.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은 역사적 상황과 아주 분명한 연결점을 가진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1. 시기
  2. 장소
  3. 인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라. 다윗의 집은 삼하 7 장에 있는 아주 놀라운(“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상당히 조건적인 내용이었다!
- 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여러 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취하였음을 기억하라: 주전 605 년, 597 년, 586 년, 582 년. 그들은 주전 586 년에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하였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1:1-2

<sup>1</sup>여호와께서 여호와게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sup>2</sup>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21:1 “바스홀” 이 사람은 20:1 에 이 이름이 나오는 제사장/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다(20:1 의 설명을 보라).

▣ “스바나” 이 제사장은 29:25,29; 37:3; 52:24; 왕하 25:18-21 에서도 언급된다. 그는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었다.

21:2 “간구하라” 이 칼 명령(BDB 205, KB 233)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간구함을 뜻한다(참조, 37:7; 겔 20:1,3). 한 아람어 탈굼은 이것을 “기도하라”로 번역하였다. 시드기야는 야웨께서 이전에 행하신 것처럼(즉, 사 36-39 장) 유다를 위하여 바벨론의 침공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이 일은 가나안의 정복과 특별히 관련을 가지는 언약적 약속의 한 부분이다. 이 일은 왕하 18 장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하여 행하였던 일과 관련이 있다.

▣ “느부갓네살” 이곳에 나온 이 이름의 철자가 바벨론 식의 철자와 가깝다. 이것은(BDB 613, KB 660) “느보가 지경을 지킨다” 또는 “느보가 왕좌의 상속자를 지킨다”를 의미한다. 부록 3: 메소포타미아 열강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개요를 보라. 히브리어에서 “N”자를 가진 단어는 일반적으로 조소적 변형을 나타낸다: “느보가 내 노새를 지킨다.” 유대인들은 자음이나 모음을 추가하여 그 이름이 부끄러운 것을 나타내게 하였다.

▣ “모든 기적으로” 왕이 사 37:36-37 의 사건이나, 출애굽 때의 “거룩한 전쟁”이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참조, 32:16-25).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궤례)**

이 단어(BDB 810)는 놀라움과 경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서 인간이 스스로 이를 수 없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행동을 가리킨다(참조, 창 18:14; 램 32:17,24; 숙 8:6).

동사

1. 출애굽 사건, 출 3:20; 34:10; 미 7:15
2. 재앙, 신 28:59
3. 요단강을 건넌, 수 3:5
4.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 삿 6:13; 대상 16:9,12,24; 느 9:17
5. 삼손의 출생, 삿 13:19
6.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삼하 1:26
7. 욥기에서 종종 사용함, 5:9; 9:10; 10:16; 37:5,14; 42:3
8. 시편에서 32 회 사용됨
9. 야웨의 모사, 사 28:29
10. 야웨의 행하심, 사 29:24(2 회); 율 2:26

명사

1. 출애굽, 출 15:11; 시 77:11,14; 78:12
2. 죽은 자와 관련하여, 시 88:10,12
3. 야웨의 행하심에 대한 하늘에서의 찬송, 시 89:5
4. 야웨의 법, 시 119:129
5. 야웨의 메시아, 사 9:5
6. 야웨의 행하심, 사 25:1; 29:14
7. 마지막 때의 행동, 단 12:6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피조물(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능력과 구속적 방법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계시이고, 이러한 행하심의 기록은 영감된 내용이며, 이러한 행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조명이다. 야웨께서는 세계가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개역개정 21:3-7**

<sup>3</sup>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sup>4</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sup>5</sup>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sup>6</sup>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sup>7</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1:4-7 이것은 시드기야가 기도하여 야웨께 응답받으려 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그는 언약적 믿음과 신실함은 없이 언약적 긍휼과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였다!

야웨께서 믿음이 없는 유다/예루살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회화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신다.

1. 야웨께서 유다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와 함께 하실 것이다(참조, 32:5; 33:5; 37:8-10; 38:2,17,18)
2. 야웨께서 다음과 같이 행동과 자세로 임하신다(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ㄱ. 든 손
  - ㄴ. 강한 팔(참조, 신 4:34; 5:15; 7:19; 11:2; 26:8)
  - ㄷ. 진노
  - ㄹ. 분노
  - ㅁ. 대노
  - ㅂ. 예루살렘에 대하여 야웨의 얼굴을 고정시키신다, 10 절
  - ㅅ. 선이 아니라 해하시기 위함이다, 10 절
  - ㅇ.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주어 불태우게 하신다, 10 절
3. “거룩한 전쟁”(참조, 수 6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는다
4. 다윗의 씨인 시드기야, 그의 집, 포위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잡혀간다
5.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행한다
  - ㄱ.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 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 ㄷ.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참조, 13:14; 16:5)

이 일은 언약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하나님인 야웨께서 그들을 치시며 자신의 성전을 치신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결여했다

1. 믿음
2. 신실함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에는 조건적인 면이 있었고(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그에 따른 결과가 있었다!

**21:4 “갈대아인”** 이것은 바벨론 남쪽을 지칭하는 인종적 표현이다. 후에 이 용어는 그 나라 전체를 의미하였다.

헤로도투스(주전 450년), Hist. I,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한 민족(참조, 왕하 24:1-4; 단 5:30)과 제사장 그룹(참조, 단 2:2; 3:8; 4:7; 5:7,11)을 가리켰는데, 그 용법은 고레스 II세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 이전 시기인 앗시리아의 기록(BDB 505)에서도 어떤 민족을 나타낸다(참조, R. K. 헤리슨, 구약 개론, 1113 쪽). 비슷한 두 용어(즉, 갈두 및 카스두)의 혼동에 대한 좋은 설명이 *앨스포지터스의 성경주석*, 제 7권(14-15 쪽) 또는 로버트 덕 윌슨의 *다니엘서 연구*, 시리즈 1에 나온다.

창 11:28에서 갈대아 우르를 데라와 그의 가족의 고향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은 인종적으로 셈족이었을 것이다(즉, 히브리인과 같은 인종 그룹).

**21:7 “전염병과 칼과 기근”** 이것은 침략과 포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내용이다(참조, 14:12). 주위의 혼란에 사는 자들이 모두 성 안으로 몰려 들었다. 양식, 물, 위생에 어려움이 따랐다.

**개역개정 21:8-10**

<sup>8</sup>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sup>9</sup>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sup>10</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21:8-10 이것은 언약의 조건적인 면을 나타낸다. 신 30:15-18 이 이것과 평행을 잘 이룬다. 나는 신명기 주석에서 내가 한 설명을 이곳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신 30:15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심지어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도 선택해야만 했다! 이것은 복과 저주를 가리킨다(참조, 신명기 27-28 장). 선택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두 길”이라는 지혜서의 관용구와 매우 비슷하다(참조, 잠 4:10-19; 램 21:8; 마 7:13-14).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낸다!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영적 경향을 드러낸다!

30:16-18 이 절들은 언약적 조건과 결과의 요약이다:

1. 책임(참조, 8:6; 19:9; 26:17; 28:9)
  - ㄱ. “여호와를 사랑하고,” 16 절(BDB 12, KB 17, 칼 부정사 연계형)
  - ㄴ. “그 모든 길로 행하며,” 16 절(BDB 229, KB 246, 칼 부정사 연계형)
  - ㄷ. “그의 명령을 지키라,” 16 절(BDB 1036, KB 1581, 칼 부정사)
2. 순종의 결과
  - ㄱ. “내가 생존하며,” 16 절(BDB 310, KB 309, 칼 완료형)
  - ㄴ. “번성할 것이요,” 16 절(BDB 915, KB 1156, 칼 완료형)
  - ㄷ. “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16 절(BDB 138, KB 159, 꺾임 완료형)
3. 불순종의 조건과 결과
  - ㄱ.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17 절(BDB 815, KB 937, 칼 미완료형)
  - ㄴ. “듣지 아니하고,” 17 절(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
  - ㄷ. 우상숭배
    - (1) 유혹을 받아(BDB 623, KB 673, 니팔 완료형)
    - (2) 절하고(BDB 1005, KB 295, 히스타펠 완료형)
    - (3) 섬기면(BDB 712, KB 773, 칼 완료형)
  - ㄹ.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18 절(BDB 1, KB 2, 강조를 표현하는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 ㅁ.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8 절(BDB 73, KB 88, 히펠 미완료형)

죽장적 축복이 성취될 수 있도록 20 절에서 언약적 책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이 용어법은 신명기의 특징이다.

이 문맥에서 “생명”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죽지않고, 신체적으로 구출받음을 가리킨다. 신명기의 본문은 레 26 장과 신 27-29 장에 있는 언약을 순종할 때에 누리는 축복을 나타낸다.

21:9 “나가서... 자는 살 것이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항복한다면(참조, 38:2; 39:18; 45:5) 그들이 잡혀가지만 살 수 있게 된다’는 야웨의 약속을 확인하여 말한다.

#### 개역개정 21:11-12

<sup>11</sup>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sup>1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



21:11-14 이것은 다윗의 왕궁에 한 말이다. 어떤 영어 역본에서는 한 연으로 제시하고, 어떤 역본에서는 두 연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점이 중요한 이유는 각 연이 각 문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요한 진리/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문단별로 이루어진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해석가가 원저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21:12 야웨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회개할 여지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 이 점을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다.

1.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BDB 192, KB 220, 칼 명령, 참조, 7:5; 22:3; 성문에서 매일 아침에 일찌기)
2.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BDB 664, KB 717, 히필 명령)

만일 그들이 바뀌다면(참조, 왕상 6:12-13), 야웨께서는 내리시려고 계획하신 심판을 늦추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노하심... 불”이 있다(참조, 4:4).

#### 개역개정 21:13-14

<sup>13</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sup>14</sup>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1:13-14 이 두 절은 산지와 멀리 떨어진 유다의 골짜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 예레미야 2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다윗의 집에 대한 메시지 (21:11-22:10)	왕궁에 대한 예언 (21:11-23:8)	유다의 왕궁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유다왕가에 대한 말씀 (21:11-22:9)
22:1-7	22:1-5	22:1-7	22:1-5	22:1-5
(6b-7)	22:6-9 (6b-7)	(6b-7)	22:6-7	22:6-7 (6b-7)
22:8-9		22:8-10	22:8-9	22:8-9
22:10 (10)	22:10 (10)	(10)	22:10 (10)	22:10 (10)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메시지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여러 왕에 대한 예언: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22:11-12	22:11-12	22:11-17	22:11-12	22:11-12
왕에 대한 메시지			여호야김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여호야김에 대하여
22:13-17 (13-17)	22:13-14 (13-14)	(13-17)	22:13-17 (13-17)	22:13-17 (13-17)
	22:15-17 (15-17)			
22:18-23 (18b-23)	22:18-19 (18b-19)	22:18-23 (18b-23)	22:18-19 (18b-19)	22:18-19 (18b-19)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여호야김에 대하여
	22:20-23 (20-23)		22:20-23 (20-23)	22:20-23 (20-23)
	고니야에 대한 메시지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2:24-30 (28-30)	22:24-28 (28)	22:24-30 (28-30)	22:24-27	22:24-30 (28-30)
			22:28-30	
	22:29-30 (29-30)		(29-3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유다 왕궁에 대한 메시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조, 21:11-23:8

1. 시드기야(맛다냐) - 21:1-14
2. 여호아하스(살룸) - 22:10-12
3. 여호야김(엘리아김) - 22:13-19
4. 여호야김(고니야) - 22:24-30

나. 시드기야(BDB 843)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다. 그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II 세에 의하여 교체되었다(참조, 왕하 24:17). 그는 주전 597-586 년에 통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왕이었다. 그는 바벨론에 8 년 동안 충성하였다. 그후에 친이집트파가 그를 설득하여 반역하게 하였다. 부록 4: 분열왕국의 왕들을 보라.

다.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은 역사적 상황과 아주 분명한 연결점을 가진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1. 시기
2. 장소
3.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라. 다윗의 집은 삼하 7 장에 있는 아주 놀라운(“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상당히 조건적인 내용이었다!

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여러 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취하였음을 기억하라: 주전 605 년, 597 년, 586 년, 582 년. 그들은 주전 586 년에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하였다.

개역개정 22:1-7

<sup>1</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sup>2</sup>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sup>3</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sup>4</sup>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sup>5</sup>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6</sup>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sup>7</sup>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22:1-2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은 강조를 나타낸다.

1. 가라 - BDB 432, KB 434, 칼 명령(“내려가다”는 성전보다 낮은 언덕에 있는 왕궁으로 감을 나타냄, 참조, 26:10)
2. 선언하여 - BDB 180, KB 210, *피엘* 완료형
3. 유다 왕이여,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2:1 “유다 왕의 집” 이 장에서는 “집”과 관련있는 언어유희를 많이 사용한다. 집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자손(참조, 삼하 7 장)
2. 왕궁(13-14 절은 위대한 왕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왕궁을 크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만 집을 지으실 수 있으시다(참조, 시 127:1-3). 하나님의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 하나님의 성전(참조, 삼하 7 장)
2. 하나님의 왕(참조, 삼하 7 장)
3. 하나님의 백성

모두 잡히거나, 망하거나 포로가 된다!

22:3 다윗의 왕에게 언약적인 신실함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정의를 행하라 - BDB 793, KB 889, 칼 명령(4:2의 특별주제를 보라)
2. 공의를 행하라 - 1항과 같음(4:2의 특별주제를 보라)
3.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 BDB 664, KB 717, *히필* 명령
4.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 BDB 413, KB 416,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5.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4항에서 언급한 자들을) - BDB 329, KB 32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6.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 BDB 1049, KB 1629,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것은 살인 또는 아이를 제물로 삼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것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은 야웨의 행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낸다(신 10:18; 시 146:8-10). 신명기에서는 이들을 여러 번 언급한다.

1. 그들을 도와주라 - 14:29; 24:17,19
2. 그들과 즐거워하라 - 16:1
3. 그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하라 - 26:12-13
4. 그들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정의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 27:19

22:4 “**만일**” 이것은 4 절에 나오는 언약적 명령을 실제로 따르는 것과 관련을 가진 조건적 요소를 나타낸다. 4 절의 내용이 17:25 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 “**그때에는**” 이것은 왕이 언약을 충실히 따를 경우에 그에게 주는 약속의 내용이다.

1. 왕들(즉, 여러 세대에 걸친 왕들)이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2.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
3. 그의 집과 더불어 병거와 말을 타고

22:5 “**만일**”이라는 조건절이 또 나온다. 야웨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BDB 989, KB 1396, *니팔* 완료형). 계속하여 언약에 불충실한다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BDB 352)! 야웨의 맹세는 분명함과 최종적인 성격을 지닌다(참조, 창 22:16; 암 6:8; 히 6:13).

22:6-7 이것은 황폐함에 대한 간략한 시적 묘사이다.

1. 유다가 광야가 될 것이다(BDB 184)
2. 유다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BDB 442, KB 444, *니팔* 완료형[*케레*])
3. 야웨께서 파멸할 자(즉, “거룩한 전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야웨께서 유다의 편이 아니심을 나타낸다)를 준비하리니(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다,” BDB 872, KB 1073, *피엘* 완료형, 참조, 6:4)
  - ㄱ.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 ㄴ. 불에 던지리라

맞소라 본문에서 6 절의 마지막 동사(거주하다, BDB 442, KB 442)가 *니팔* 분사 단수인데, 맞소라 학자들은 *니팔* 완료형 복수로 제시하였음(*케레*)을 주목하라.

▣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6b,c 절의 처음 두 행은 평행을 이루며, 왕궁에 대한 내용이다. 길르앗과 레바논이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듯이, 유다의 집(왕궁)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왕궁이 파괴될 것이다! 왕궁(물질 및 씨) 및 야웨의 집이 함께 파괴될 것이다. 레 26 장과 신 27-28 장이 고통스럽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 개역개정 22:8-9

<sup>8</sup>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sup>9</sup>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22:8-9 8 절은 야웨의 언약백성에 대한 심판과 관련을 가진 신학적 질문을 제시한다(참조, 16:10; 신 28:24-26; 왕상 9:8-9; 대하 7:20-22).

모세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웨께 중보기도를 드렸고(참조, 출 32:11-13), 야웨께서는 마음을 바꾸셨다(참조, 출 32:14). 그러나 언약백성이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며(참조, 1:16; 5:19; 8:2; 16:11) 반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에 각 나라마다 국가의 신을 가지고 있었다. 더 강한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을 이겼다. 어떤 이는 다음의 이유에서 야웨가 열등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1. 북왕국(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잡혀갔다
2. 남왕국(유다)이 바벨론에 여러 번 패하였고 잡혀갔다(주전 605, 597, 586, 582년)

실제 문제는 야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백성의 죄에 있었다(참조, 9 절; 대하 34:25)!

**개역개정 22:10**

<sup>10</sup>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 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22:10** 이 간략한 시와 산문은 다윗의 씨(살룸 또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잡혀감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 본문은 삼하 7:13-17의 내용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겔 18 장의 본문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한다. 야웨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각 지도자들이 범죄함과 조건적인 관련을 가진다. 죄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

10 절에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 BDB 113, KB 12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 BDB 626, KB 67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슬피 올라 - 같은 어근(BDB 113, KB 129)을 가진 칼 명령과 부정사 절대형

결코 왕이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돌아옴”(BDB 996, KB 1427)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회개하다
2. 돌아오다

그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AB와 UBS 핸드북은 10a 절의 “죽은 자”가 주전 609년에 므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요시야 왕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참조, 왕하 23:28-35; 대하 35:20-25). “잡혀 간 자”(10b 절)는 여호아하스를 가리킨다(살룸, 참조, 대상 3:15). 그는 요시야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으나 3개월 후에 바로 느고에게 잡혀갔다(참조, 왕하 23:31-34; 대하 36:2-4).

**개역개정 22:11-12**

<sup>11</sup>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sup>12</sup>잡혀 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개역개정 22:13-17**

<sup>13</sup>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7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22:13-23 이 긴 연은 여호야김 왕에게 말한 내용으로서, 삼하 7 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을 가진다.

13 절의 “화 있을진저”(BDB 222)와 18 절의 “슬프다”(BDB 222, 4 회)를 주목하라.

여호야김을 다음의 이유에서 정죄한다

1. 그가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즉, 왕하 23:34-35)
  - ㄱ. 왕궁
  - ㄴ. 왕가
2. 따라서 야웨를 “안”(BDB 395) 요시야와 반대이다. 야웨를 안다는 것은 언약적 순종을 함과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다윗의 통치를 삼하 8:15 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 ㄱ. 요시야가 공의를 행했다
  - ㄴ. 요시야가 의를 행했다
  - ㄷ. 요시야가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 (1) 곤란한 형편에 있는 자
    - (2) 어려운 자
  - ㄹ. 이 일이 그에게 좋았다(15d, 16b 절)
3. 여호야김(17 절)
  - ㄱ. 부정직한 이익을 꾀하였다
  - 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 ㄷ. 압제를 가하였다
  - ㄹ. 포악을 행하였다(5:20,29 의 설명을 보라, 왕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4. 그 결과
  - ㄱ. 그의 죽음을 인하여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18 절)
  - ㄴ. 그가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된다(19 절)
  - ㄷ. 모든 정치적 동맹(즉, “사랑하는 자들”)이 깨짐을 인하여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20 절)
5. 야웨께서 그를(21 절), 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 ㄱ. 네가 평안할 때에
  - ㄴ. 네가 어려서부터

- ㄷ. 다음의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같은 동사를 사용함)
- (1) 듣기를
  - (2) 순종하기를

22:16

NASB, NJB	“이것이 나를 앓을 의미함이 아니냐”
NKJV	“이것이 나를 앓이 아니었느냐”
NRSV	“이것이 나를 앓이 아니냐”
TEV	“그것이 주님을 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JPSOA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JPSOA(각주)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상이다”
LXX	“네가 나를 모르기에,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냐?”
REB	“이것이 그가 나를 알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MT에서는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로 되어 있다. 야웨를 아는 일은 여러 가지 측면과 관련을 가진다.

1.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즉, 기도와 예배)
2. 인식적인 믿음(즉,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
3. 의지(즉,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한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각각의 내용이 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성경적인 믿음이다(참조, 신 10:12-13; 호 6:6; 미 6:8).

**개역개정 22:18-23**

<sup>18</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sup>19</sup>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sup>20</sup>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sup>21</sup>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sup>22</sup>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sup>23</sup>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22:20-23 NJB 는 이 단락이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안한다. 그는 3 개월간 통치하였고, 그 후에는 느부갓네살에게 폐위되어 잡혀갔다. 그러나 TEV 및 UBS 핸드북은 이 단락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여성 단수 동사).

이 단락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느 왕에게 대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 NKJV 역은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간단한 제목을 사용하여 이 본문을 제시한다.

22:20 세 가지 산이 언급되었다.

1. 레바논(즉, 헤르몬 산과 그 기슭)
2. 바산(즉, 요단 강에서 북서쪽에 있는 산)
3. 아바림(즉, 모압 산, 참조, 민 27:12; 신 32:49)

왜 이 지명이 나오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질문한다.

1.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로서의 높은 장소
2. 침략해오는 자들로부터 일부 유다 사람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장소
3. 이것은 그들이 외국과 맺은 동맹이 끊어짐을 유다가 슬퍼하는 풍자이다
4. 그 산들은 다윗 왕국의 확장적인 범위 및 약속의 땅의 범위를 묘사한다.

▣ “너를 사랑하는 자” 이것은 야웨 대신에(참조, 시 20:7; 33:16-17; 사 31:1; 또한 전 9:11 의 설명을 보라) 외국의 군대와 맺은 유다의 모든 정치적 동맹을 가리킨다(참조, 2:25; 3:1)

22:21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언약백성이 뱃뱃한 목을 가졌고, 반역하는 자들이었다(참조, 7:22-26).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다(즉, 두 개의 초기 사례: 출 32 장과 민 16 장).

22:22 “목자들”(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참조, 1:18; 2:8; 10:21; 23:2)이 “사랑하는 자”(외국과의 동맹)와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이 얼마나 슬픈 상황인가!

22:23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을 가리키는 수사적 표현이다. 왕궁은 “레바논 백향목의 집”으로 알려졌다(참조, 왕상 7:2; 10:17).

▣

NASB, NKJV, NJB,

LXX, 페쉬타, 벌게이트 “네가 얼마나 신음할 것이냐”

NKJV “네가 얼마나 자비롭게 되려느냐”

MT, TEV “네가 얼마나 가련하게 될 것인지”

MT에서는 나한에서 유래한 네한테로 되어 있다(BDB 335, KB 334, 니팔 완료형). LXX 는 네나할로 제시한다(“n”소리로 시작되는 여러 어근이 “신음”을 나타낸다, 참조, NIDOTTE, 제 3 권). 어느 쪽이나 문맥과 어울리며 평행을 이룬다.

▣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 이 표현(BDB 408 )은 이미 4:31; 6:24; 13:21 에서 나왔다(또한 30:6; 49:24; 50:43 의 설명을 보라). 비록 예상한 일이었지만, 고통이 갑작스럽고 강하게 임한다! 이 표현은 종종 심판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22:24-30

<sup>24</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sup>25</sup>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sup>26</sup>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sup>27</sup>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sup>28</sup>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sup>29</sup>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니라

<sup>30</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2:24-30 이것은 특별히 고니야에 대한 말씀이다(즉, 여고니야, 참조, 24:1). 그가 왕으로서 가진 이름은 여호야김이다(참조, 24 절). 그는 주전 597 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참조, 왕하 24:8-17; 25:27-30). 28-30 절은 시이고, 24-27 절은 산문이다.

22:24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것은 야웨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말씀으로서, 자주 사용된 구이다(참조, 5 절; 44:26; 49:13; 51:14; 창 22:16; 신 32:40; 사 45:23; 암 6:8).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이 호칭은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 언약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야 했다(참조, 4:2; 12:16; 신 6:13; 10:20).

22:24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 이 히브리 구는 다윗 왕가를 가리킨다.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현재 다스리는 자를 말한다(참조, 학 2:23).

22:25 이것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자들에 대한 특별하면서도 반복적인 표현임을 주목하라.

1.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
2.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3.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
4. 갈대아인의 손

“손”의 용법에 대하여는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27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UBS 의 번역가를 위한 핸드북(489 쪽)은 이 구가 “그들이 그들의 영혼을 들어올릴 것이다”라는 관용적인 히브리 표현임을 지적한다(참조, 44:14).

22:28-30 이 시는 고니야/여고니야에 대한 말씀이다(참조, 대상 3:16). 그는 명예롭지 않은 그릇이 되었다(참조, 25:34; 호 8:8). 토기장이(야웨)가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든다. 어떤 것은 망가졌다.

1. 다시 빛는다(불에 굽지 않은 것)
2. 깨뜨린다(불에 구운 것)

삼하 7 장에 나오는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 더 이상 후손이 보좌에 오르지 못한다(즉, 그가 자녀를 낳았으나 그들이 다스리지 못한다, 참조, 30 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야웨의 약속이 무효가 되었다! 그들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항상 조건적인 것이었음을 잊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한 신학적 문을 연다(참조, 31:31-34; 겔 36:22-38)!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는 명확하지만, 누가 말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1. 유다/예루살렘 사람
2. 선지자 예레미야(참조, 29 절)

**22:29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어떤 문법가들은 이것이 예식상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삼중적 반복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정도를 나타낸다(참조, 7:4; 사 6:3; 겔 21:27). “땅”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6:18-19의 특별주제를 보라).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 레 26장과 신 27-28장의 저주가 가득 임한다! 이 본문을 읽은 후에, 롬 8:18-25의 말씀을 인하여 매우 감사하게 된다! 새 언약은 놀라운 내용이다!

“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6:18-19의 특별주제를 보라.

**22:30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자라 기록하라”** 야웨께서 명하신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대상 3:16-17). 그러나 그들중 아무도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했다. 성경의 어려운 말(310 쪽)에서 상반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에 대한 좋은 안내를 준다.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특히, 151-154 쪽)도 예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이다.

# 예레미야 2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오실 메시아: 의로운 순	의의 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래의 왕
23:1-4	23:1-4	23:1-4	23:1-4	23:1-4
23:5-6 (5-6)	23:5-6 (5-6)	23:5-6	23:5-6	23:5-6 (5-6)
23:7-8	23:7-8	23:7-8	23:7-8	23:7-8
맹렬히 비난받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빈 예언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선지자들에 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
23:9-12 (9-12)	23:9-10 (9-10)	23:9-15 (9-15)	23:9-10 (9-10)	23:9 (9)
				23:10-12 (10-12)
	23:11-15 (11-15)		23:11-14 (11-14)	
23:13-15 (13-14)				23:13-15 (13-15)
(15b)			23:15 (15b)	
23:16-22 (16-22)	23:16-17 (16-17)	23:16-17 (16-17)	23:16-17 (16-17)	23:16-17 (16-17)
	23:18-20 (18-20)	23:18-20 (18-20)	23:18-20	23:18 (18)
				23:19-22 (19-22)
	23:21-22 (21-22)	23:21-22 (21-22)	23:21-22 (21-22)	
23:23-24 (23-24)	23:23-24 (23-24)	23:23-32	23:23-32	23:23-24 (23-24)
23:25-32	23:25-27			23:25-28a
	23:28-29 (28-29)			23:28b-29 (28b-29)
	23:30-32		주님의 집	23:30-32
23:33-40	23:33-40	23:33-40	23:33-40	23:33
				23:34-4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23 장은 21:11-14 에서 시작된 문맥에 들어 있다. 이것은 유다의 왕궁에 대한 야웨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 나. 22:1-23:8 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시드기야, 22:1-9
  2. 살룸, 22:10-12(여호아하스)
  3. 여호야김, 22:13-23
  4. 여호야긴, 22:24-30(고니야)
  5. 시드기야, 23:1-8(비록 23:1-8 에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목자에 대한 일련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그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된다)
- 다. 이 장은 거짓 목자와 야웨의 의로운 가지(즉, 메시아)를 날카롭게 대조시킨다.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대조가 나타난다
1. 말하다 - BDB 55, KB 65, 16 회 사용됨
  2. 에게 말하다 - BDB 180, KB 210, 5 회 사용됨
  3. 예언하다 - BDB 612, KB 659, 6 회 사용됨
- 라. 이 장에는 유다의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여러 호칭이 나온다.
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2 절
  2. 의로운 가지, 5 절
  3.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 6 절
  4. 만군의 여호와, 15,16,36 절
  5.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 23 절
  6.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심, 23 절
  7. 살아 계신 하나님, 36 절
  8. 우리 하나님, 36 절

- 마. 두려운 심판의 한 가운데서, 야웨의 의로운 가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소망이 있다; 구원이 있게 되었다; 공의가 있을 것이다! 새 날이 심판의 재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3:1-4

<sup>1</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sup>2</sup>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3</sup>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sup>4</sup>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3:1-4 이것은 “화 있으리라”라는 연이다(즉, 장례식 만가, 3:2의 운율을 가짐). 거짓 목자들(선지자들,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은:

1. 야웨의 양 떼를 멸하였다, 1 절
2. 야웨의 양 떼를 흠었다, 1-2 절
3. 야웨의 양 떼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2 절
4. 야웨의 양 떼를 몰아내었다, 2 절

야웨께서 참 목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 떼를 모으실 것이다, 3 절
2.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3 절(야웨께서 창 1:22,28; 9:1,7에서 표현하신 기대)
3. 좋은 목자들이 그들을 기를 것이다, 4 절
4.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4 절
5.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4 절

야웨의 특별한 지도자인 다윗의 후손(참조, 겔 34 장):

1. 다윗의 씨
2. 의로운 씨
3. 가지(참조, 30:9; 33:15-16; 사 4:2; 11:1-5; 53:2; 슥 3:8; 6:12-13)
4.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5 절
5. 그가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5 절
6.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5 절
7.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릴 것이다, 6 절

이 얼마나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인가!

1. 악한 지도자들이 야웨의 양 떼를 돌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2 절
2. 의로운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이다
  - ㄱ. 구원한다, 6 절(즉, 육체적 구원)
  - ㄴ.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 6 절
  - ㄷ.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8 절(즉, 창 12:1-3에 있는 약속의 땅을 가리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참조, 겔 36:22-38)!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요 10 장), 그러나 그가 거부를 당할 것이다(참조, 슥 11 장).

23:3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 . .모아” 언약 백성을 포함하여 타락한 인간이 가진 문제, 즉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직접 행하심을 주목하라. 이것이 31:31-34 에 나오는 “새 언약”이다(참조, 겔 36:22-38). 새 언약은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다(즉, 롬 3:21-31; 갈 3 장; 히브리서).

“남은 자”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5: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한편, 이 문맥에서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1.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
2. 야웨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

이 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옴’과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통치’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참조, 4 절).

#### 개역개정 23:5-6

<sup>5</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sup>6</sup>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3:5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씩”(BDB 855)을 뜻한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이 나옴을 뜻한다. 이 단어를 메시아께 대하여 33:15-16; 슥 3:8; 6:12 에서 사용하였다. 같은 개념이지만 사 11:1 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작은 가지,” BDB 310 및 “순,” BDB 666); 53:2(“ 어린 식물,” BDB 413; “뿌리,” BDB 1057). 이 단어(BDB 855)는 분명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투바벨을 가리킨다, 그러나 메시아도 드러낸다.

심판, 심판,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망과 약속과 새 지도자와 새 날에 대한 내용이 주어진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 자주 나온다. 하지만 항상 메시아라는 용어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아람어 탈굼에서는 이 문맥에서 “가지”와 평행을 이루는 “메시아”로 제시한다. 이 사실은 당시의 랍비들이 이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네 가지 호칭에 대하여는, *성경의 어려운 말*(343-344 쪽)을 보라.

나는 사 4:2 에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추가시키고자 한다. 이 본문은 슥 3:8; 6:12 을 간략히 포함시킨다. 나는 이곳에 특별주제도 추가시키고자 한다.

사 4:2 “여호와와 **씩**” 이 호칭(BDB 855, 탈굼은 이것을 메시아로 번역하였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주석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곳에서는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우리는 어떤 단어나 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어떤 전문적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만 한다—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된 용어로서, 어떤 이상적인 풍성함으로부터 그 풍성함(즉, 순과 **씩**)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가리키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스가랴서의 주석에서 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슥 3:8 “그 가지” 이것은 “씩”(BDB 855)을 가리킨다.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또 하나의 칭호이다(참조, 6:12;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단 4:15 에 있는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를 보라.

6:12 절에서 스룹바벨에게 사용한 칭호는 다윗 왕의 계보를 뜻하는 상징이었다. 이 단어가 메시아의 제사장적 면을 강조하는 이 문맥에서 사용된 점은 놀랍다. 구속자(제사장, 참조 이사야 53 장)와 행정적 지도자(왕, 참조, 사 9:6-7)로 이루어진 쌍둥이적 특성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로 되어 나타난다(참조, 4 장).

속 6:12 “가지” 이 단어(BDB 855)는 “씩”을 뜻한다(참조, 3:8; 6:12;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스가랴서는 스룹바벨을 메시아의 한 형태로서 나타낸다(참조, 이븐 에스라와 라쉬).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아카디아어에서 “바벨론의 썩”을 뜻한다. 이것은 그가 주전 516 년에 성전을 재건한 것을 인해 그의 이름과 관련된 언어유희일 것이다. 하지만 이 이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칭호와 더불어 이와 어울리는 동사(“씩을 낼 것이다,” 칼미완료형)가 이 절에 함께 나온다.

###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용어가 여러 개 있다.

#### 가. 신약의 용어

1. 나사렛 - 갈릴리의 도시이다(참조, 눅 1:26; 2:4,39,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기의 비문에서는 나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찬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기록된 이 지명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2. 나자레노스 - 지형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4:34; 24:19)
3. 나조라이오스 - 도시를 가리키지만, 또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와 관련된 언어 유희일 것이다(벧체르, BDB 666 [또한 이와 관련된 용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BDB 855]; 33:15; 속 3:8; 6:12; 신약에서는 계 22:16). 누가는 18:37 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 에서 이 단어를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4. 3 항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나지르는 “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 나. 신약 이외의 곳에서의 역사적 용법.

1.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아람어인 나소라이야).
2.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14; 28:22, 노스라).
3.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4.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되었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동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선언한 예는 베라콧 28b-29a 의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는 신자를 “나사렛 사람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순교자 저스틴이 Dial. 126.1 에서 이사야서의 넷째인 예수를 말했다.

#### 다.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란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인해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는 모른다:



1.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넛제르)”와의 관계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인 나지르(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 때문에
2. 부정적인 의미도 가진 갈릴리 때문에
3.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4.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한 참고문헌으로서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 혹은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출생 209-213, 223-225 쪽을 보라.

▣ 야웨의 “씩”에 대한 묘사(NKJV, NRSV, JB)

1. 아름답다, BDB 840, 참조, 램 3:19(중중 단 8:9; 11:16,41 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 사용됨)
2. 영광스럽다, BDB 458 은 “풍부함,” “영예,” “영광”을 뜻함(“영광,” BDB 802, 또한 이 절에서)

이 두 용어는 종종 함께 사용된다(참조, 13:19; 28:1,4,5).

어떤 번역본은 회복의 시기에 식물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 절을 제시한다(70 인역, 페쉬타, TEV, NJB, REB, NET).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와 회복의 시기는 사전적으로 연결되는 용어이다(2 절의 맨 앞 부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약속의 땅에 대한 두 번째 부분).

다음 내용은 사 11:1 에 대한 나의 설명에서 가져온 것이다.

**11:1 “한 썩”** 이것은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된 단어로써 이곳에서만 나온다(“줄기,” “가지,” 또는 “씩”은 잠 14:3 에서 “막대기”로 번역되었다, BDB 310, KB 307).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다윗의 후손(참조, 6:13; 삼하 7 장; 계 22:16)이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즉,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에서 나와 새 왕이 될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회화적 표현(다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함)은 이사야 52:13-53:12(즉, 2 절)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다시금 나타난다.

유대인의 연구 성경(807 쪽)은 “그루터기”에 관해 흥미로운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만일 “그루터기”라는 번역이 맞다면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왕조가 올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을 뜻하는 이사야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참조, 삼하 7:8-16; 시 89:20-37). 그러나 히브리어인 “제자”는 잘라진 나무의 그루터기일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도 뜻한다.”

나는 이러한 설명이 40:24 에 있는 “씩”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다. 이 후손은 10 절; 9:7; 16:5 에서 언급되고 있다.

구약은 기름부음을 받은 오실 특별한 분의 계보를 제공한다.

1. 유다 지파에서 오심, 창 49:8-12, 특히 10 절과 계 5:5
2. 이새의 자손으로 오심, 삼하 7 장

새 시대를 위한 특별한 아기는 이제 특별한 통치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의 성품은 새 시대를 특성짓는다(참조, 램 23:5).

▣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씩,” “새씩,” “순”이라는 명사(BDB 666, 참조, 14:19; 60:21; 단 11:7)는 “가지” 혹은 “씩 남”(BDB 855, 참조, 4:2; 61:11)과 평행을 이룬다. 새로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 4:2의 특별주제를 보라.

▣ “결실할 것이요” 맛소라 본문은 “결실하다”라는 동사(파라, BDB 826, KB 963, 칼 미완료형, 사해사본, NASB)를 갖고 있지만, 많은 고대 역본과 현대 역본은 이와 비슷한 동사인 파라흐(BDB 827)를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1. NKJV, NRSV, 폐쉬타, “성장할 것이다”
2. NJB, “자랄 것이다”
3. 70 인역, 탈군, “나타날 것이다”
4. REB, “나올 것이다”
5. JPSOA, “씩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 항이 평행법에 가장 잘 들어 맞는다!

**특별주제: 메시아**

이것은 다니엘 9:6에 대해 내가 쓴 주석에서 가져 온 내용이다. 이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은 메시아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BDB 603)라는 용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인함이다.

1. 유대인의 왕들에 대해 사용됨(예, 삼상 2:10; 12:3)
2. 유대인의 제사장들에 대해 사용됨(예, 레 4:3,5)
3. 고레스에 대해 사용됨(참조, 사 45:1)
4. 시 110편과 슥 4장에서는 1항과 2항이 결합되어 나타남
5.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오는 다윗 계보의 왕이 의의 새 시대를 가지고 옴을 나타냄
  - ㄱ. 유다 지파에서(참조, 창 49:10)
  - ㄴ. 이새의 가정에서(참조, 삼하 7장)
  - ㄷ.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참조, 시 2편; 사 9:6; 11:1-5; 미 5:1-4 이하)

나는 개인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단 2장에서 네 번째 제국인 영원한 왕국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2. 단 7:13에서 “인자”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심을 말하기 때문이고
3. 단 9:24에 있는 구속에 대한 구절이 범죄한 세계 역사의 귀결점을 가리키기 때문이고
4.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4:15; 막 13:14)

23:6 “유다 . . .이스라엘” 이것은 왕국이 연합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통일왕국은 주전 922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에브라임 출신의 역군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II 세에 의하여 분열되었다(참조, 왕상 12장).

▣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것은 “시드기야”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일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를 뜻한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야긴 대신에 그를 보좌에 앉혔다(참조, 왕하 24장). 이것은 30:15; 33:16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묘사적인 칭호이다. 이 칭호는 5절에 있는 “의로운 가지”와 평행을 이룬다.

23:7,8 이것은 16:14-15의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시이다. 같은 진술이 사 43:18-19에도 나온다. 새 날이 오고 있다(참조, 16:14; 호 3:4-5)! 성령의 새 시대, 의의 새 시대,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오고 있다!

개역개정 23:7-8

<sup>7</sup>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sup>8</sup>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23:7 “여호와와 사심으로” 22:24 의 설명을 보라.

23:8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웨의 능력과 은혜가 출애굽에서 나타났듯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 “북쪽 땅” 앗시리아와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있었다. 그러나 북쪽에서 오는 길만 사용이 가능했다(즉, 기본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및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즉, 메소포타미아)의 하구 사이에는 커다란 사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앗시리아와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참조, 사 10:5).

개역개정 23:9-12

<sup>9</sup>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sup>10</sup>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sup>11</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sup>12</sup>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3:9-32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한다. 분명히 그들은 그를 정죄하였다(참조, 28 장의 경우를 보라).

23:9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하여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미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과 매우 비슷하다(즉, 단 7:15,28; 8:27; 10:8,16).

1. 내 마음이 상하며(즉, 감정이 아니라 지식의 자리, 참조, 8:18)
2. 내 모든 뼈가 떨리며

3.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즉, 아웨의 계시로 인하여)

▣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취함은 여기서 혼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25:15 에서 이것은 심판의 표이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술(발효)과 술취함(술 중독)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가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셰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 - 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율 3:18; 슥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전 3:3,8; 딤후전 1:7; 2:3; 뱀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뱀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심각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권에서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후전 4:4; 딤후전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 적당하다(마 아세로쓰 1:7)라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렀다.

-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엘후요쓰 6:1).

-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멸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 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신학, 당신의 성경해석을 가지고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과적 편견을 가지고 보아 나온 의를 주장해 왔다.
-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 6 행과 7 행은 예레미야가 받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야웨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그것이 참인 것을 알았다. 나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기를 기대한다(참조, 사 66:5).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사회를 위하여 슬피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을 인하여 슬피하는가(즉, 롬 1-2 장; 갈 6:7)?

23:10 “간음하는 자” 이 문맥에서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가리킨다

1. 다산송배(문자적 간음), 3:2,6,8-9; 5:7-8
2. 외국과의 동맹(영적 간음), 즉, “사랑하는 자들”(참조, 2:25; 3:1; 22:20,22)

▣ “땅이 슬피하며” 이것은 10c 절의 “마른다”와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레 26:4,19-20; 신 28:23-24; 29:20-21; 롬 8:18-22 에 나오는 저주의 한 부분이다!

▣	
NASB	“그들의 길도 악하고, 그들의 힘도 정직하지 못하다”
NKJV	“그들의 삶의 길이 악하다. 또 그들의 힘이 정직하지 못하다”
TEV	“그들이 악한 삶을 살며 그들의 힘을 잘못 사용한다”
NJB	“그들이 잘못을 행하기를 뽐낸다, 의를 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JPSOA	“그들이 악을 행하기 위하여 달린다. 그들이 잘못을 행하기에 굳세다”

10 절의 마지막 두 행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망가진 자연에서 망가진 인간’으로 주제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어떤 것도 창 1:3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야웨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아니다!

23:11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정죄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참조, 2:8).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백성들이 거짓된 말만 듣고 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12 절에서 말하고, 14 절에서는 유다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야웨의 심판이 15 절에서 이 두 그룹에게 내린다.

사람들은 이 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히브리 동사의 시간적 요소는 전적으로 문맥에 의존한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직후부터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다(주전 626 년 전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게 잡혀갔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 일” (서양적 사고)이 아니라, “주제별 사건”(동양적 사고)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다른 이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배워야만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3:6-10; 겔 23:4-49).

**23:12 “미끄러운 곳”** 이것은 죄악된 삶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13:16; 시 35:6; 73:18; 잠 4:19). 이것은 “믿음”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믿음은 “굳게 있음” 또는 “확실함”을 뜻한다(1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뜻은 분명히 표시된 길과 같았다(참조, 시 119:105; 잠 6:23).

#### 개역개정 23:13-15

<sup>13</sup>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sup>14</sup>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sup>15</sup>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떡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은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23:13 “사마리아”** 이곳은 북왕국의 수도였고, 나라 전체를 일컫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숭배를 가리킨다(참조, 2:8). 2: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릇되게 하였고” 이 동사(BDB 1073, KB 1766, *히* 𐤏𐤍𐤃𐤁)는 정신적, 도덕적 혼동을 뜻하며, 그 결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을 나타낸다(참조, 왕하 21:9; 사 3:12; 9:16; 렘 23:13,32; 42:20; 암 2:4; 미 3:5).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선택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이 신뢰한 자들에 의하여 그릇되게 되었다!

**23:14** 이 절은 유다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묘사한다(즉, 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숭배함).

1.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다(10 절의 설명을 보라)
2. 그들이 거짓을 말하였다(즉, 거짓말)
3.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4.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사람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목자들)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를 주목하라(참조, 2:8; 4:9; 5:30-31; 6:13-15; 8:10-12; 14:13-15; 18:18-23; 26:8,11,16; 27:1-22; 28:1-17).

모든 세대의 신자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사기꾼과 속이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지 신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기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지침이 몇 가지 있다.

1. 그들이 예언한 내용의 정확성, 참조, 신 13:1-5; 18:18-22(이 본문은 요나의 경우처럼 조건적인 면을 가진 예언에 대한 것이 아니다)
  2. 삶, 참조, 렘 23:13-23; 마 7:15-23
  3. 메시지의 내용(신약에서); 참조, 고전 12:3; 15:3-4; 요일 4:1-3
- 그란트 오스본, *해석의 나선*(210-211 쪽),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보라.

**23:15** 이 절은 야웨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를 나타낸다(참조, 9:15).

1.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2.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한 행동의 맛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들은 독을 가르쳤다. 이제 그들 자신이 그것을 마셔야만 한다(참조, 17:10; 갈 6:7). 거짓 된 가르침이 썩은 상처처럼 번져간다!

**개역개정 23:16-22**

- <sup>16</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 <sup>17</sup>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 <sup>18</sup>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 <sup>19</sup>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 <sup>20</sup>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 <sup>21</sup>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 <sup>22</sup>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3:16**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들이 마음대로 말한 것이었다(참조, 25 절; 5:31; 14:14; 겔 13:2,17).

▣ “헛된 것” 이 동사(BDB 211, KB 236, *히필* 분사)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칼형*은 2:5 에 나온다. 이 단어의 명사형(BDB 210)은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그들이 예언하는 내용(BDB 612, KB 659, *니팔* 분사, 부록 2 를 보라)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말아야 한다. 이 내용이 17b 절에 기록되어 있다(참조, 6:14; 8:11; 14:13-14). 바벨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이다

1. 쳐들어 올 것이다
2. 유대와 그 지도자들을 잡아갈 것이다
3.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4. 대부분의 국민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5. 성전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삼아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의 신전에 둘 것이다

▣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마음”은 문자적으로 “심장”을 뜻한다. 그들이 그것이 거짓된 묵시임을 알았는가? 그들이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인가? 17 절에서는 ‘소망을 주는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된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고 말한다(참조, 21,26 절).

23: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같은 어근(“말하다,” BDB 55, KB 65)을 가진 *칼* 분사와 부정사 절대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NASB, NKJV,

NJB, JPSOA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LXX, NRSV, REB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UBS 본문 프로젝트는 위의 것(NASB)에 “C”등급을 준다. 두 번역의 차이는 모음에 의한 것이지, 자음 상의 차이가 아니다. NET 는 2 항을 지지한다(LXX).

▣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핵심적 내용이였다(참조, 5:12; 6:14; 8:11; 14:13; 28:8-9; 겔 13:10).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들에게 “불”과 “방망이”이다(참조, 23:29).

23:18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야웨의 회의(참조, 암 3:7)를 정말 “보았다”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그는 야웨의 말씀(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야웨와 야웨를 섬기는 천사들의 “천상 회의”를 가리키는 문학적 방법임)을 들었고(참조, 왕상 22:19-23; 욥 2:1-6) 그것을 행하였으며 전하였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뜻을 듣고/주의를 기울이며/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참조, 22 절).

▣ “여호와와의 회의에” 이것은 야웨 및 야웨를 둘러있는 천사들의 천상 회의를 가리킨다.

1. 찬양을 드리려고 - 사 6:2-3; 계 4:8
2. 보호를 위하여 - 창 3:24; 겔 1:15; 10:1-22
3. 행동을 취하려고 - 창 1:26; 3:22; 11:7; 왕상 22:19-22; 욥 1:6; 2:1; 29:4; 시 89:7
4. 심판을 행하려고 - 단 7:10,22,26

23:19-20 이것은 30:23-24 의 내용과 비슷하다.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이 자주 나타난다. 이 점은 그가 죽은 후 또는 그의 죽음이 가까운 때에 그가 행한 여러 설교나 시가 수집되고 편집되었음을 시사한다(참조, 7-8 절이 16:14-15 에서 반복되며, 15 절은 9:15 에서 반복됨).

23:20 야웨의 심판이 올 것이다(참조, 30:24; 사 45:23; 55:11). 회개의 기회가 지났다.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다(참조, 13:23). 야웨께서 자신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은 우상숭배를 하는 현재의 세대를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근본적인 수술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참조, 사 1:5-6).

▣ 20 절의 마지막 행은 하나님의 백성이 후에 이해하게 될 미래적인 약속으로 여겨진다

1. 야웨의 행하심과 큰 목적(즉, 종말론적 목적, 밀라드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제 17 장,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제 2 판, 371-390 쪽;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그들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즉, 바벨론의 침공 및 포로가 됨, 참조, 30:23)

NET(1357 쪽)는 “분명히 알게 된다”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사가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의 목적이 되는 히브리 구문(히브리어의 동족 목적어)”이다. BDB 106, KB 122, *히트폴렐 미완료형과 BDB 108* 을 보라.

**23:21-22** 야웨께서 16-18 절 및 23-24,25-32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듭하여 말씀하신다. 구약의 저자들이 야웨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기는 어렵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거나 혹은 메시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성경의 어려운 말*(제 8 장, 66-69 쪽)을 보라.

#### 특별주제: 영감

“단 한번”과 관련된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참조, 뱀후 2:21). ‘단번에’에 주어진 강조점은 신약의 책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제한된 영감을 적용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며, 또한 이후에 속하는 기록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책을 계시로 여기지 않게 한다. 신약에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불분명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신자들은 믿음과 행함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신약에 분명하고 충분하리만큼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1.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 저자를 택하시 하나님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주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이러한 기록을 이해하여(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님) 구원을 받으며 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조명)

이것의 핵심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를 가진 기록이나 비전이나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일치하지만,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이 진리가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설교가도 성경의 저자들이 가졌던 영적 지도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 특별주제: 조명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 이러한 자기 계시를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사 독자들이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른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관여하신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왜 그렇게 많은 해석이 있는가?

이 문제의 일부는 독자가 자신이 기존에 가진 이해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접근함에 있다. 개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본문으로 성경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를 조각 조각으로 분리시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된다. 또 어떤 신학적 틀에 성경을 끼워 맞추어 특정한 면 또는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을 옹호하도록 종종 성경에 강요를 한다. 성령께서 조명에도 관여하시지만 우리가 조명을 영감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가장 좋은 접근방법은 본문의 모든 세부 내용을 해석함에 있지 않고 문단의 핵심진리를 찾는 것이다. 원 저자가 의도한 중심진리를 주제가 나타낸다. 한 책 혹은 문학 단위의 대지를 파악하는 일은 영감받은 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어떤 해석가도 영감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 저자가 사용한 해석방법을 그대로 흉내낼 수 없다. 그들이 당시에 발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시대에 그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 성경의 일부 내용은 애매모호하거나 감추어져 있다(어떤 때나 시기가 되기까지는). 어떤 본문이나 주제에 대하여는 항상 불일치함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중심진리를 반드시 분명히 진술해야 하며 또한 원 저자가 의도한 범주 안에서 각 해석자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해석가는 반드시 자기들이 가진 빛 안에서 행하되, 성경과 성령께서 더 많은 빛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및 우리가 한 이해대로 사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23:21 야웨께서 “평화”를 외치는 이 자들을 거부하신다(참조, 29:9,23).

23:22 야웨의 대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행하도록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 개역개정 23:23-24

<sup>23</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यो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나  
<sup>24</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23:23-24 세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주목하라. 처음과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예상한다.

이 짧은 연이 야웨 자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심
2. 교제를 위한 소원
3.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
4. 피조세계에 대한 그의 임재하심(참조, 왕상 8:27; 시 139:7-16; 사 66:1)

이것은 야웨의 내재하심을 나타낸다!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며, 또한 “아버지”시다(참조, 사 57:15).

어떤 이는 이 짧은 연이 야웨께서 각 지역에 있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1:5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밀라드 에릭슨의 책 *그리스도인의 신학*(제 2 판, 327-345 쪽), 제 15 장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과 멀리 계심...”을 보라.

**개역개정 23:25-32**

<sup>25</sup>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sup>26</sup>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sup>27</sup> 그들이 서로 꿈 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sup>28</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sup>29</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sup>30</sup>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sup>31</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sup>32</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3:25-32** 야웨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 그들이 계시를 받지 않았으나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메시지를 받기까지 나아간다(30 절). 그들의 메시지(꿈)는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지이다. 이 일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고대 근동에서 “꿈”이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존 왈톤의 *고대 근동의 사상과 구약*(243 쪽)을 보라.

**23:25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이것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말이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였다(참조, 창 20:3; 28:12; 31:11,24; 37:5; 신 13:1-5).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참조, 창 40-41 장), 다니엘도 그러했다(참조, 단 2 장).

**23:26**

NASB

“선지자들의 마음에 그 어떤 것이 있느냐”

NKJV

“선지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곳에 빠져 있는 주어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한다(참조, JPSOA)

1. 나의 말
2. 거짓말(LXX)
3. 나의 이름

**23:27 “내 이름을 잊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및 영원한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냄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법이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알에게로 돌렸다!

**23:29** 이 절에서 야웨는 자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신다

1. 불(참조, 5:14; 20:9)
2.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가 따른다(참조, 사 49:2)!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이득도 가져오지 못한다(참조, 32 절; 이것은 같은 어근[BDB 418, KB 420]을 가진 *히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그 입에 양쪽에 날 선 갈을

가지셨다고 말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회화적 표현을 제시한다(참조, 계 1:16; 2:12,16; 19:15; 히 4:12).

23:30-32” UBS 핸드북은 이 단락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야웨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설명한다(513 쪽, 이 책은 번역가들과 해석가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문법적, 구문적 자료이다).

**개역개정 23:33-40**  
<sup>33</sup>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sup>34</sup>또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sup>35</sup>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 하고 <sup>36</sup>다시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별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sup>37</sup>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랴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 <sup>38</sup>너희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sup>39</sup>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sup>40</sup>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3:33-40 이 연은 유다 사람들이 야웨의 계시(즉, 무엇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가)에 대하여 서로 질문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 1. 선지자들
- 2. 제사장들
- 3. 백성들

예레미야의 대답은 ‘더 이상 메시지가 없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다’였다(즉,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참조, 12:7; 23:39). 종교 지도자들은 야웨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 내었다(참조, 36 절). 그들은 하나님께 듣기를 아주 원치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외치는 거짓 메시지를 인하여, 야웨께서 말씀하신다

- 1.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이것은 같은 어근을 가진 완료형 동사와 부정사 절대형임)
- 2.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 3. 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내버리겠다
- 4. 내가 너희로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 5.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치욕, 곧 결코 잊지 못할 치욕을 주겠다

아! 우상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이 영원히 제함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신실한 남은 자들은(비록 그들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

23:33 “엄중한 말씀” 이 용어(BDB 672 I)는 “듣기에 부담스러운”을 뜻한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을 가진다:

- 1.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말씀
- 2. 짐승이 듣기에 무거운 짐

AB 는 이 본문이 MT 로부터 다르게 갈라져 나왔다고 설명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무엇이 맞사인가”(즉, 야웨의 말씀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맛사[즉, 짐]이다, 또 내가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 야웨의 말씀,” 150 쪽). LXX, 벌게이트를 따라 NRSV, REB, NET 는 “너희가 짐이다”로 번역하였다. 이곳에 “짐”(BDB 672 I)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23:35-36** 이것은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의 반대이다. 주님에 대한 지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구실로 삼았다!

**23:36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것은 포스트 모던주의 및 21 세기의 서구문화에 대한 매우 적절한 말씀이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중요하고 권위를 가졌다! 홀로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된 계시가 있기에, 이 일은 비극적인 일이다.

▣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 동사(BDB 245, KB 253, 칼 완료형)는 “돌다” 또는 “뒤집다”를 뜻한다. 오늘날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거짓된 종교인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해석, 그들의 전제, 그들의 역사적 상황, 그들의 개인적 취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하였다(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세 호칭을 주목하라. “만군의 여호와”에 대하여는 15:1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교파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계시에 대한 헌신 및 계시에 대한 지식으로만 신자를 보호할 수 있다.

**23:39**

NASB

“내가 분명히 너희를 잊어버리며 너희를 내버리겠다”

NKJV

“나, 곧 내가, 내가 너희를 철저히 잊어버리며 너희를 버리겠다”

NRSV

“내가 분명히 너희를 들어 올려 너희를 내버리겠다”

TEV

“내가 확실히 그들을 집어 올려 그들을 던져 버리겠다”

JPSOA

“내가 너희를 철저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를 내버리겠다”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가 나온다.

1. MT 에서, 처음 동사인 “잇다”(BDB 674, KB 728, 칼 완료형)에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이 뒤따른다
2. 일부 히브리 사본과 LXX 에서는 동사를 “들어 올리다”(BDB 669, KB 724)로 바꾼다. 이 단어는 “짐”과 같은 어근을 가지며, 33 절(2 회), 34, 36(2 회), 38 절(3 회)에서 사용되었다
3. 33 절에서 평행을 이루는 동사인 “내던지다”(BDB 643, KB 695, 칼 완료형)가 39 절에서 반복된다
4. LXX 가 바꾸어 제시한 동사는 33-40 절의 문맥에서 의미를 가진다(즉, 단어유희). 하지만 이렇게 바꾸어 제시한 단어는 이 본문에서 “잇다”라는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이 왜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한다. MT 의 본문이 가장 적합하다

**23:40 “영원한”** 이 히브리 용어(וללם, BDB 761)는 다음에 비추어 신학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단어이다

1.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
2. 인간에게 주신 야웨의 언약이 가지는 조건적인 성격(즉, 공홀하심과 회개가 가능하다)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영원한 치욕과”** 처음 명사는 וללם(BDB 761)이다.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 광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문맥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두 번째 명사(BDB 357)는 “욕” 또는 “경멸”을 나타낸다. 이 어근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6:10; 15:15; 20:8; 23:40; 24:9; 25:18; 31:19 42:18; 44:8,12; 49:13[에돔의]; 51:51).

▣ “영구한 수치” 처음 명사는 앞의 항목과 같다. 두 번째 명사(BDB 357)는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수치”를 뜻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어근이 20:11 에서 사용되었다. 그 본문에서는 “영원한 불명예” 또는 “영원한 수치”로 번역되었다.

# 예레미야 2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무화과 광주리와 돌아오는 자들	두 무화과 광주리의 징조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	두 무화과 광주리	두 무화과 광주리
24:1-3	24:1-3	24:1-3	24:1-3a 24:3b	24:1-10
24:4-7	24:4-7	24:4-7	24:4-7	
24:8-10	24:8-10	24:8-10	24:8-1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4:1-3

<sup>1</sup>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sup>2</sup>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sup>3</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24:1 “느부갓네살 왕” 부록 3 의 나, 4 항을 보라.



■ 이 연은 특별히 주전 597 년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왕하 24:10-16; 대하 36:9-10). 이 왕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린다

1. 여고니야, 24:1; 27:20; 28:4; 29:2
2. 고니야, 22:24,28; 37:1
3. 여호야긴, 52:31; 왕하 24-25 장

부록 4 의 3 항을 보라.

■ “장인들” 이 용어(BDB 360, 참조, 29:2)는 다음 물질에 새겨넣는 자를 가리킨다

1. 보석(참조, 출 28:11)
2. 돌(참조, 삼하 5:11)
3. 나무(참조, 10:3)
4. 금속(참조, 10:9)

이 용어는 “우상을 제조하는 자”를 뜻할 수 있다(참조, 왕하 24:14,16; 사 44:11; 45:16).

■ “대장장이” 이 불명료한 용어(BDB 688, KB 604 II)는 금속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NJB, NET). 이 단어는 또한 “철들”(REB 의 난외주) 또는 “건축가”나 “엔지니어”를 뜻한다.

■ “무화과 두 광주리”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에게 생동력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청각적 표현이다.

아모스도 암 8:1-3 에서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여호와와 성전 앞에 놓인” 이 무화과 광주리들은 두 그룹의 백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야웨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야웨께 드러진 헌물로 제시된다(참조, 신 26:2-11).

1. 좋은 무화과 - 이미 잡혀간 유다 사람들
2. 악한 무화과 -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다 사람들

24:2 “극히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게 썩어버린 이 무화과에 대한 언급이 29:17 에 나온다.

개역개정 24:4-7

<sup>4</sup>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5</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sup>6</sup>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sup>7</sup>내가 여호와와 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5 놀랍게도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야웨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더불어 일하실 것이다(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였다).

■ “갈대아인” 특별주제를 보라.

24:6-7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야웨께서 주시는 약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다”고 여기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두고 돌아보사 그들에게 좋게 하여 주실 것이다
3.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혈지 아니하실 것이다

5.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실 것이다

6.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7 절에는 언약적 용어가 여러 가지 있다. 이것은 신실함과 헌신의 새 날에 대하여 말한다(참조, 겔 36:22-38; 램 31:31-34). 야웨께서 그들에게 “새 심장”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세운다”(BDB 124, KB 139); “그들을 헐지 아니한다”(BDB 248, KB 256); “그들을 심는다”(BDB 642, KB 694); “그들을 뽑지 아니한다”(BDB 684, KB 737)라는 표현은 예레미야를 1:10 에서 부르실 때에도 사용되었다. 이 동사들은 여기서 한 가지 환상에 이어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두 가지 환상(살구나무 가지와 끊는 가마)에 이어 나타난다.

24:7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 동사(BDB 996, KB 1427)는 참된 회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본문은 예지하심,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의 신비를 나타낸다(18: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전심으로”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3:10; 삼상 7:3; 대상 22:19; 대하 22:9; 욥 2:12-14). 이것은 야웨께 대한 다윗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노년에 우상숭배를 하였다(참조, 왕상 11 장).

**개역개정 24:8-10**

<sup>8</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뉘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sup>9</sup>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 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sup>10</sup>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4:8-10 시드기야의 왕족과 그를 돕는 모든 자들이 버림을 받게 된다(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 이 동사는 광의의 어원적 의미를 가졌다. 문맥에서는 “넘겨 주다”를 제시한다(참조, 민 21:3,29; 신 7:2,23; 31:5; 사 20:13 등). 이것은 삼하 7 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이다!

24:8 “예루살렘의 남은 자” 5: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애굽 땅에 사는 자들” ‘8-10 절이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게 돕는다. 이들은 주전 597 년 이후에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1. 여호아하스와 더불어 바로 느고에게 잡혀간 자들(주전 609 년; 참조, 왕하 23:31-34)
2.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을 보고 도망간 친이집트주의자들
3. 후에,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였을 때에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참조, 40-41 장)

24:9-10 이 두 절은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과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에게 야웨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나타낸다.

1.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다(BDB 266)
2. 그들에게 악한 일이 있게 하신다(BDB 949)
3. 그들이 욕을 당하게 하신다(BDB 357)
4. 그들이 말 거리가 되게 하신다(BDB 605)
5.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BDB 1042)
6. 그들에게 조롱이 있게 하신다(BDB 887)

7. 칼을 보내신다
8. 기근을 보내신다
9. 전염병을 보내신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약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야웨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철회하셨다(참조, 10 절). “민족”들이 언약백성을 통하여 야웨의 자비하심, 은혜, 정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참조, 신 28:35,37; 겔 36:22-38). 야웨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참조, 창 12:3)이 손상을 입었다!

# 예레미야 2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잡혀감에 대한 예언	70 년의 황폐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북쪽에서 오는 적	야웨의 채찍인 바벨론
25:1-7	25:1-7	25:1-7	25:1-7	25:1-2 25:3-7
25:8-11	25:8-11	25:8-14	25:8-14	25:8-13a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25:12-14	25:12-14			컵의 환상 25:13b 25:14
25:15-16	25:15-26	25:15-16	25:15-16	25:15-26
25:17-26		25:17-26	25:17-18 25:19-26	
25:27-29	25:27-29	25:27 25:28-29	25:27-29	25:27-29
25:30-31 (30b-31)	25:30-31 (30b-31)	25:30-31 (30b-31)	25:30-31 (30b-31)	25:30-32 (30b-32)
25:32 (32)	25:32 (32)	25:32 (32)	25:32-33	
25:33-38 (34-38)	25:33	25:33-38		25:33
	25:34-38 (34-38)	(34-38)	25:34-38	25:34-38 (34-3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5:1-7

<sup>1</sup>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sup>2</sup>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sup>3</sup>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up>4</sup>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sup>5</sup>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sup>6</sup>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sup>7</sup>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5:1 이것은 이 예언을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참조, 3 절).

1. 여호야김 넷째 해(즉, 주전 605 년, 이 해에 칼케미스에서 이집트가 패배함; 부록 1 의 도표를 보라)
2.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II 세의 원년(부록 3 에 있는 역사적 개괄을 보라)

예레미야의 시는 주제, 핵심단어, 언어유희(소리유희, 어원적 영역)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이 시들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다(이 책의 앞부분은 그러한 순서를 따랐을 것이다).

해석학의 이론 가운데 한 가지는 역사적 배경을 찾고 시/예언을 기록한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다. 역사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때는, 신학적 면으로 접근하게 된다.

신 바벨론 제국의 왕을 여기서 느부갓네살로 제시함을 주목하라. 이 이름의 철자가 줄곧 다르게 나타난다. 바벨론 이름은 *나부-쿠둘리-오술*이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이 이름의 철자를 제시하였다("n"과 "r").

25:2 예레미야는 자신의 청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유다의 모든 백성, 1,2 절
2.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2 절

앞의 것은 유다의 일반 백성을 지칭하고, 다음 것은 사회의 지도자들과 특권층을 나타낸다.

5 절에서 그들을 “여호와와 모든 종”으로 부름을 주목하라. 야웨의 백성은 종이었으며 제사장이었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레미야가 야웨의 계시를 23 년간 전하였음에도, 죄로 강박하게 된 이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25:3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이것은 주전 627 년, 즉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해일 것이다(참조, 1:1-3).

▣ “오늘까지” 이 구는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다소 변이가 있는 형태로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후기의 편집/편찬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 구는 저자가 자신의 이전 사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우리가 가진 추측을 따라 우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학자들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의 문학을 잘 알고 있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오늘날의 설교자/교사인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23:21-22의 특별주제를 보라).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속하는 세대에 살면서 사역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영감받은 저자들 및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분명한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 각 본문이 단 한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즉, 원저자의 의도), 적용점은 여러 가지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본문을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본문에 우선권이 있다!

▣

NASB, REB	“거듭 거듭”
NKJV	“일찍 일어나 말하며”
NRSV, JPSOA	“내가 끈질기게 너희에게 말하였다”
NJB	“내가 결코 지치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NKJV는 히브리 관용어를 나타낸다(두 개의 부정사 절대형). 이 구는 4절; 7:25; 11:7; 26:5에서 나타난다. 이 관용구가 해석가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그 이유는 관용구가 성격상 문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관용구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문맥적으로도 뜻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관용구들의 경우는 어려움이 크게 따른다

1. 관용어임을 확인하기가
2. 문맥에서 그 의미를 확정짓기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성경의 원저자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와 원저자들 모두 ‘원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에 의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생각한다!

▣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동사(BDB 1033, KB 1570)는 칼 완료형이다. 이것은 야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굳어져 있는 상태임을 드러낸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나, 야웨의 말씀과 “생명” 또는 “죽음”(참조, 신 30:15)의 선택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레 26장; 신 27-28장).

이 동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신 4:1; 5:1; 6:5에서 내가 한 주석에서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에서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5:4 다음에 나타나는 평행법을 주목하라

1.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2.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1) 의도적인 평행법 (2) 평행을 이루는 본문 (3) 언어유희를 고려하여 해야만 한다. 부록 1: 히브리 시에 대한 개요를 보라.

또한 3-5절에서 “s”(sh)로 시작되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개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1. 듣다(3회), *שמע*
2. 보내다(2회), *שלח*
3. 일어나다(2회), *קום*
4. 돌다, *שׁב*
5. 거주하다, *ישב*

25:4-7 야웨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다에게 야웨께서 왜 분노하시는지’를 말씀하신다.

1.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4,7 절
2.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다(2:22의 특별주제를 보라), 5 절
3. 너희가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행하였다, 6,7 절(즉,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참조, 14 절; 1:16; 10:3-5; 사 2:8; 17:8; 37:19)

25:5 “나 여호와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것은 7:7을 반영한다(그곳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그 내용은 신 4:40을 반영한다.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일부였다(참조, 창 12:1-3; 15:12-21). 그 언약이 지속적이며 은혜로운 선물이었으나, 조건이 있었다(즉, 언약에 순종함, 참조, 레 26장; 신 27-28장).

**개역개정 25:8-11**

<sup>8</sup>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sup>9</sup>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중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10</sup>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sup>11</sup>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5:8-11 야웨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신다(8 절).

1. 내가 북쪽 모든 종족을 불러올 것이다. 야웨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앗시리아, 바벨론은 물론 페르시아도 주관하신다!
2.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며 사로잡아 갈 것이다.
3. 사회적으로 급변하여 평화에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ㄱ. 내가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게(즉, “멸망하게 함”) 할 것이다
  - ㄴ. 내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 ㄷ. 내가 신랑의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 ㄹ. 내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 ㅁ. 내가 땃돌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 ㅂ. 내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한다(참조, 9 절). 땅에 대한 약속과 풍요로움이 다음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1. 놀램, 9,11 절
2. 비웃음 거리, 9 절
3. 영원한 폐허, 9,11 절

25:9 “내 중” 이것은 사 40-66장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사용한 것과 같은 호칭(BDB 712,713)이다. 여기서, 이 호칭은 메시아와 관련을 가지지 않고 단지 ‘야웨의 목적을 이루는 자’임을 나타낸다(즉, 27:6 43:10; 사 13:3).

고레스는 “내 목자”(사 44:28)와 “그가 기름부으신 자”(사 45:1)로 불렸는데, 이곳에서의 호칭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출애굽 때에 야웨께서 바로를 사용하셨듯이, 이 왕들을 야웨께서 사용하신다.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1:5의 특별주제를 보라)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하심이 ‘이스라엘 및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을 가진다’고 기록한다(23:5의 특별주제를 보라).

▣ “진멸하여” 이것은 *헤렘*(BDB 355 I, KB 353, *히필* 완료형)이라는 히브리 동사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것이 아주 거룩하게 되어, 그것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을 나타낸다(BDB 356, 참조, 레 27:21,28,29; 민 28:14; 신 7:26; 13:17; 수 6:17-18; 7:1,11,12,13,15). 이 어근(BDB 355)은 “완전히 멸망시킴”을 뜻한다(참조, 25:9; 50:21,26; 51:3; 출 22:20; 레 27:28,29; 민 21:2,3; 신 2:34; 3:6; 7:2; 13:15; 20:17). 이 두 번째 의미가 예레미야서에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이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과 관련을 가지는 용어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신다(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바로 그 장소).

▣  
 NASB “놀램”  
 NKJV “경악”  
 NRSV, NJB, REB “놀람의 대상”  
 JPSOA “황무”

이 히브리 단어(BDB 1031, KB 1566)는 “낭비” 또는 “황폐함”을 뜻한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참조, 4:27; 6:8; 9:11; 10:22; 12:10,11; 25:12; 32:43; 34:22; 44:6; 49:2,33; 50:13; 51:26,62).

▣ “비웃음 거리” 이 히브리 단어(BDB 1057, KB 1657)는 “야유”(참조, 18 절) 또는 “취파람을 불다”를 뜻한다. 유대인 연구성경은 렘 18:6 에 대한 각주에서 “이러한 행동을 파괴된 곳에서 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같은 운명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964 쪽).

▣ “영원한 폐허” “영원한”(BDB 352 )으로 번역된 단어의 해석은 문맥에서만 가능하다. 이 단어는 광의의 어원적 의미를 가졌다.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과장법에 관한 유용한 설명이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가위*, 제 2 장 “어떤 점이 예언서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가?”(31-57 쪽)에 있다.

25:11 “칠십 년 동안”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이 29:10; 대하 36:21-23; 단 9:2; 슥 7:5 에 나온다. 70 이라는 수는 여림수로서 (1) 여러 세대 (2) 완전한 생애(참조, 시 90:10; 사 23:15)를 나타낸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때(즉, 주전 586 년)로부터 정확히 70 년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일은 흥미롭다(즉, 주전 516 년, 참조, 슥 1:12).

고대인들이 현대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숫자를 사용하였음을 기억하라. 15:9 의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를 보라.

**개역개정 25:12-14**

<sup>12</sup>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sup>13</sup>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sup>14</sup>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5:12-14 예레미야는 야웨께서 전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임하고 계심에 대하여 말한다. 9 절에 나온 “영원한 폐허”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황폐하게 만든 자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책(즉, “이 책”)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하라. 또한 예레미야의 이름을 언급하여, 바룩(참조, 36:4,29,32) 또는 다른 편집자(즉, 에스라)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그에 대한 심판이 51 장에서 예언되었고 묘사되었다.

**25:13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여러 예언서에는 열방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말하는 장이 있다. 이 민족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결코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고, 눈 멀고, 귀 먼 우상과 같지 않으시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서 일하신다.

NJB는 25:13c-38을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서론”이라고 명명하였다. LXX는 MT에서 46-51 장의 내용을 옮겨와 25 장(LXX 의)의 앞 부분에 두었다.

**25:14** 이 절은 NASB, NKJV에서 괄호 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바룩이나 다른 편집자의 설명임을 나타낸다.

▣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7:10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되, 종종 동일한 것으로 거둔다!

**개역개정 25:15-16**

<sup>15</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sup>16</sup>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25:15 “이 진노의 술잔”** 이것은 심판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13:13; 51:7; 시 75:8; 사 51:17,22).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야웨께서 국가간의 전쟁이나 조약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본문이 또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28 절; 1:10; 신 32:8).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참조, 마 24:39; 또한 20:22의 설명을 보라).

이 동사가 술을 마심/술취함과 관련되어 사용됨을 주목하라.

1. 마시게 하라 - BDB 1052, KB 1639, *히필* 완료형, 15,17 절
2. 마시다 - BDB 1059, KB 1667, *칼* 완료형, 16,26,28(3 회)
3. 취하게 되다 - BDB 1016, KB 1500, *칼* 명령, 27 절
4. 취하게 하다 - BDB 1059, KB 1667,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냄, 27 절

**개역개정 25:17-26**

<sup>17</sup>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sup>18</sup>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sup>19</sup>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sup>20</sup>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sup>21</sup>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sup>22</sup>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sup>23</sup>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쩍을 깎은 모든 자와 <sup>24</sup>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sup>25</sup>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sup>26</sup>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25:17 “그 모든 나라” 18-26 절에 나오는 이 나라들의 명단은

1. 대부분 46-51 장에서 언급되었다
2.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25:23 “살쩍을 깎은 모든 자” 이러한 이교도적 행습을 예레미야서에서 두 번 더 언급하였다(참조, 9:26; 49:32). 이 행습은 레 19:27-28 또는 21:5(참조, 신 14:1-2)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5:26 “북쪽 원근의 모든 왕” 이 구는 팔레스타인에 가까운 북쪽 지역 및 비옥한 초승달/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세삭 왕” 이것은(BDB 1058 ) 바벨을 뜻하는 암호이다(새 옥스포드 주해성경, 1001 쪽의 각주, NRSV). AB 는 각주에서 “사람 이름의 철자를 앞에서부터 쉰 자음에 해당하는 자음을 알파벳의 뒤에서부터 쉰 순서에 해당하는 자음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암호”(161 쪽)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제롬이 한 설명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atbash* 로 불린다(51:1 의 설명도 보라).

▣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이것은 과장법에 해당한다(참조, 29 절)! 이들은 이스라엘/유다가 알고 있던 나라들을 가리킨다(즉, 고대 근동). 이 표현은 중국, 북미와 중남미 등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나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개역개정 25:27-29

<sup>27</sup>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sup>28</sup>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sup>29</sup>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5:27 심판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술취함과 관련이 있는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마시며 - BDB 1059, KB 1667, 칼 명령
2. 취하여 - BDB 1016, KB 1500, 칼 명령
3. 토하고 - BDB 883, KB 1096, 칼 명령
4. 엎드러져 - BDB 656, KB 709, 칼 명령
5. 28 절에서 1 항의 동사를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을 함께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냄을 주목하라

25:29 굉장한 특혜를 누렸던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된다!

▣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같은 어근(BDB 667, KB 72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야웨의 이름으로 불렸던 도시가 언약을 깨뜨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긴 것에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되었다!

개역개정 25:30-31

<sup>30</sup>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sup>31</sup>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30-31 이 연은 야웨 자신과 그의 목적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축복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받을 수 있게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였다(과장법).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을 주목하라(참조, 38 절).

1. 하나님 자신의 양 떼를, 30 절의 4 행
2. 뭇 민족(즉, “열방,” “모든 육체”), 31 절

25:30 “포효하시고” 야웨의 심판에 대한 본문인 30-38 절에서 야웨를 사자로 표현한다.

“포효하다”는 같은 어근(BDB 980, KB 1367)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같은 은유적 표현이 욥 2:11 및 암 1:2 에 나온다.

개역개정 25:32

<sup>32</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25:32-38 야웨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에 대한 시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 30-31 에 이어 제시된다. 이 시들이 동시에 선포된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거듭 같은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이 시들을 주제 혹은 핵심단어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한 구들을 주목하여 보라.

1. 15 절 -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진노의 잔을)
2. 17 절 -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3. 19 절 - “그(즉, 바로)의 모든 백성과”
4. 20 절 -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5. 20 절 - “모든 왕과”(20[2 회],22[3 회],24[2 회]절)
6. 26 절 -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7. 15 절 - “땅의 모든 나라로”(“땅”에 대하여는 6:18-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8. 30 절 -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9. 31 절 - “땅 끝까지”
10. 31 절 - “뭇 민족”
11. 31 절 - “모든 육체”
12. 32 절 - “나라에서 나라에”

13. 32 절 - “땅 끝에서”
14. 33 절 -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1:5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입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참조, 창 1:26,27). 모든 사람이 반역하였다(즉, 아담 안에서, 창 3 장, 또한 각자 선택하는 일을 통하여, 롬 3:9-18,23). 죄의 결과가 온 세계에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메시아 안에서 온 세계에 미친다(참조, 요 3:16; 딤후 2:4; 벧후 3:9; 요일 2:2). 심판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필요한 단어이다!

**개역개정 25:33-38**

<sup>33</sup>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sup>34</sup> 너희 목자들이라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 떼의 인도자들이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흠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sup>35</sup>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 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sup>36</sup>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 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sup>37</sup>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sup>38</sup> 그가 젊은 사자 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25:34 이 절에는 두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다.

1. “흠을”(NASB, NKJV, NRSV)  
 “흠어짐”(NJB, NIV)  
 “너를 산산조각으로 만든다”(JPSOA)
2. “그릇”(MT, NASB, NKJV, NJB, JPSOA)  
 “암양들”(LXX, TEV, AB)  
 이 히브리 단어는 확실하지 않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그릇”에 “B”등급을 준다.

25:38 “그의 극렬한 진노”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레미야 2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유다의 성읍이 경고를 받다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다	성전 설교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게 되다	예레미야가 체포되어 재판받다
26:1-6	26:1-6	26:1-6	26:1-3	26:1-6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			26:4-6	
26:7-9	26:7-9	26:7-9	26:7-9	26:7-10
26:10-11	26:10-11	26:10-11	26:10-11	26:11-15
26:12-15	26:12-15	26:12-15	26:12-15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다				
26:16-19	26:16-19	26:16-19	26:16-19	26:16-18
(18c)	(18c)	(18c)	26:17-19 (18c)	(18c) 26:19
26:20-23	26:20-24	26:20-23	26:20-23 (괄호안의 내용임)	26:20-24
26:24		26:24	26:2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1-25 장은 일인칭으로 기록되었지만, 26-45 장은 삼인칭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36:4,18; 43:3).
- 나. 25 장은 여호야김의 제 4 년에 기록되었다. 26:1 은 그의 통치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예레미야서는 시대적 순서를 따른 책이 아니다(앞장은 시대적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다. 26 장은 7 장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행한 성전에서의 설교(7:2-15 에 기록됨)에 대하여 성전에서 백성들이 반응한 내용일 것이다.
- 라. 27-28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6:1-6

<sup>1</sup>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sup>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sup>3</sup>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sup>4</sup>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sup>5</sup>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up>6</sup>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춧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6:1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 합성어(BDB 912 와 575)는 새 왕이 즉위하였음을 가리키는 전문적 표현이다. 나라마다 왕의 통치시기를 다르게 나타내었다. 유다는 왕이 부분적으로 다스린 해도 왕의 통치기간에 넣어 계산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다스린 해를 통치기간에 넣지 않았다.

▣ “여호야김” 그는 요시야의 아들로써 주전 609-597 년에 통치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II 세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의 본명은 엘리아김이었다.

26:2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 그가 받은 계시를 전하도록 지시받았다(참조, 7:2; 17:19; 19:16).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 대한 설교를 이곳에서 하였다.

▣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감하다”(BDB 175, KB 203,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를 뜻한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참조, 신 4:2; 잠 30:6). 23:21-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말씀은 나에게 다음 내용을 상기시킨다

1. 삼상 3 장에서 사무엘과 엘리
2. 예레미야서의 두 절, 1:17 과 42:4
3. 행 20:20 에 있는 바울의 말
4. 계 22:18-19

12-13 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야웨의 말씀임을 주장한다.

26:3 이 절은 25:4-5의 메시지를 반영한다(26:5에 있는 동사가 반복됨). 문제는 유다가 듣고 응답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즉, 회개하다, 문자적으로는 “돌다,” BDB 996, KB 1427, 칼 미완료형, 참조, 13절).

유다가 돌아온다면 야웨께서는 심판(참조, 4-6절)과 포로됨에 대한 선언을 돌이키실 것이다(문자적으로, “미안하게 여기다,” BDB 636, KB 688, 니팔 완료형).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으며, 응답하지도 않았다!

오늘날의 서구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심” 또는 “마음을 바꾸심” 또는 “미안하게 여기심”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및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와 언약적 순종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성경의 어려운 말(108-109쪽)을 보라.

26:4-5 야웨께서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언약적 조건을 주목하라.

1. 너희가 나를 순종하며
2. 내 율법을 행하며
3.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면(참조, 신 18:19)

26:6 “실로 같이” 이곳은 고대에 유대인의 성소가 있던 장소로서, 주전 1050년에 팔레스타인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참조, 7:12,14.

▣ “내가 이 성전을 . . . 세계 모든 민족의 저춧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24:9에서 시작된 과장적 표현으로서 25:18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대한 축복이 되어야 했지만(즉, 창 12:3), 그들의 죄를 인하여 세상(즉, 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니라 심판하심만을 보았다(참조, 겔 36:22-38).

#### 개역개정 26:7-9

<sup>7</sup>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sup>8</sup>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sup>9</sup>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26:7 유다의 여러 지도층이 정죄를 받고 있다(참조, 1:18; 2:8; 10:21 23:2,13-15,16,25,26,33-34,35 등).

26:8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559, KB 562)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종교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삼상 7장에 있는 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및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의 신학(즉, 사 33:20과 36-39장)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참조, 9절; 신 18:20). 그들은 언약적 약속이 가진 조건적인 면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참조, 레 26장; 신 27-28장). 이러한 일은 예레미야의 삶에 대한 최초의 또는 마지막 위협이 아니었다(참조, 11:19; 18:23).

NASB 연구성경은 이 구가 출 21:15-17; 레 24:16-17,21; 신 18:20; 왕상 21:13과 비슷하다고 언급한다. 이 본문들은 모두 모세의 언약을 범하는 중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1098쪽).

개역개정 26:10-11

<sup>10</sup>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와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sup>11</sup>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26:10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이 새 대문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참조, 36:10). 라쉬는 이것이 재건축한 동쪽 문이라고 말한다.

개역개정 26:12-15

<sup>12</sup>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sup>13</sup>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sup>14</sup>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sup>15</sup>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26:13 이것은 3-6 절이 반복된 내용이다.

26:15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393, KB 39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무죄한 피” 7:6; 신 19:10; 잠 6:16-17 을 보라.

개역개정 26:16-19

<sup>16</sup>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sup>17</sup>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sup>18</sup>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들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sup>19</sup>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26:16-19 관리들과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즉, 제사장과 선지자)보다 예레미야의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일찌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의 경우를 언급하기까지 하였다(참조, 미 3:12). 어떤 면에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회개하라고 외친 일과 같다(참조, 대하 29:3-11).

26:17 “그 지방의 장로” 이것은 부유한 지주 및 영향력 있는 가문을 가리킨다. 19:1 의 특별주제: 장로를 보라.



26:18 “시온” 예루살렘은 여러 언덕 위에 건축되었다. 가장 높은 산이 시온이었는데,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의 성채가 있었다. 다윗은 이 성채를 점령하였다(참조, 삼하 5:7; 대상 11:5). 이 명칭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참조, 왕상 8:1). “시온의 처녀 딸”(즉, 왕하 19:21)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다른 번역에서는 “집의 산이 산당의 숲처럼 되리라”로 되어 있다. 이 회화적 묘사는 바알의 전에 있는 “나무”(즉, 아세라)를 예배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다산 예배”를 위한 숲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6:19

NASB, NRSV	“호의 입기를 간청하다”
NKJV	“호의 입기를 구하다”
TEV	“그의 호의를 입으려 시도했다”
NJB	“그에게 사정하다”
JPSOA	“애원하다”
REB	“평화하기를 구하다”

이 동사(BDB 318 II, KB 316, *피엘* 미완료형)은 “얼굴을 달게(sweet) 만들다”(즉, 아랍어, 아랍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얼굴”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낸다.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즉, 편애하다). 여기서는 얼굴을 만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NET, 1367 쪽 및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 제 6 권 541 쪽).

개역개정 26:20-23

<sup>20</sup> 또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트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sup>21</sup>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sup>22</sup>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sup>23</sup>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6:20 “우리야” 20-22 장은 괄호 안에 있는 역할을 한다(참조, TEV, NET). 그 시기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미가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한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예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제사장들은 또 다른 선지자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였는데 관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히스기야가 야웨의 선지자에게 반응한 일과 여호야김이 야웨의 메시지에 반응한 일이 달랐음을 이 본문이 또한 나타내고 있다(참조, NASB 연구성경 각주, 1099 쪽).

우리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1) 예레미야의 제자였거나 (2) 유다를 야웨께서 심판하심을 전한 또 다른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를 죽였다! 유다는 또 다른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였다!

26:22 “악불의 아들 엘라단” 그는 경건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36:11-19)

1.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경고를 주었다(36:19)
2.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불태우지 말라고 요청하였다(36:25)

개역개정 26:24

<sup>24</sup>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6:24 “아히감” 이 사람은 그다라의 아버지였다. 그다라는 유다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총독으로 후에 느부갓네살 II 세에게 임명받았다. 아히감은 왕하 22:12 이하에서 요시야가 홀다에게 파견한 무리 가운데 일원이었다. 예레미야에게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있었다.

# 예레미야 2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한 나라들	줄과 멩에의 상징	바벨론 왕의 멩에 (27:1-28:17)	예레미야가 소의 멩에를 메다	멩에의 상징 및 이웃 나라의 왕들에게 주는 메시지
27:1-7	27:1-11	27:1-7	27:1-7	27:1-11
27:8-11		27:8-11	27:8-11	
27:12-15	27:12-15	27:12-15	27:12-15	27:12-15
27:16-22	27:16-18 27:19-22	27:16-22	27:16-18 27:19-20 (괄호안) 27:21-22	27:16-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의 LXX 역은 많이 짧다(LXX 34 장). “LXX 가 중복되는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을 제거시킨 것인가, 아니면 MT 가 본문의 명료성을 위하여 또는 당시의 저술 방식을 고려하여 확장시킨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다.
- 나. 예레미야가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이웃나라에서 온 사신들(참조, 3 절). 그들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맹에 유다를 합류시키기 원하였다
  2. 유다의 왕 시드기야, 12-15 절

3. 제사장들, 16 절
4. 백성, 16 절

- 다.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야웨의 메시지임’을 청중들에게 확신시키려고, 예레미야가 사용한 여러 가지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1.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1 절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2 절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21 절
  4.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13 절
  5. 15 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을 야웨께서 부인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나온다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6 절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19 절
  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2 절

라. 27-29 장은 하나의 문학적 단락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7:1

<sup>1</sup>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sup>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멩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sup>3</sup>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sup>4</sup>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sup>5</sup>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sup>6</sup>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sup>7</sup>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27:1 “여호야김” 대부분의 MT 사본은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다(JPSOA). 그러나 페쉬타(시리아역)와 아랍역 및 세 히브리어 사본에는 “시드기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1. 3,12 절; 28:1
2. 내적으로 시드기야가 더 적합하며
3. LXX 에서 이 절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주전 597 년 이후인데(아마 주전 594 년임), 그 이유는 바벨론의 연대기에서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II 세에 대항하여 연맹을 시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3 절).

▣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이름(*이르메야후*, 즉, 26:7)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철자(*이르메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여호수아와 느부갓네살 등 여러 사람의 이름이 구약에서 다른 철자로 표기되었다.

27:2 “줄과 멩에” 이것은 소가 메는 멩에를 가리킨다(BDB 557). 예레미야가 이것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자신을 위하여 한 개, 또 각 사신을 위하여 한 개씩 만들었을 것이다.

이 물품은 종됨을 상징한다(참조, 8 절; 신 28:48). 3 절에서 “그들”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명어가 아니라 메시지를 뜻할 것이다.

▣ “사신들의 손에도” 이들은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맹에 합류시키기 위하여 이웃나라에서 보낸 사신들을 가리킨다.

27:5 이것은 야웨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말이다(참조, 창 1:1-2:3). 5-6 절도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다(참조, 신 32:8; 욥 12:23; 행 17:26).

▣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이것은 반복적으로 사용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1:9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 신 4:34; 5:15; 6:21; 9:29
2. 창조주이신 야웨, 왕하 19:15; 렘 27:5; 32:17

▣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문장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II 세도 가리킨다(참조, 사 44:28; 45:1-7). 그러나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II 세를 가리킨다(참조, 28:14). 야웨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5-8 절에서 이 동사(BDB 678, KB 733)가 네 번 사용되었다. 강조점이 사람인 왕의 능력에 있지 않고, 구속적 목적을 위하여 나라들과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야웨께 있다!

27:6 “내 종” 이것은 (1) 메시아(참조, 사 52:13) 및 (2) 느부갓네살 II 세(참조, 25:9; 43:10)를 가리키는 영예로운 호칭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 사람들, 나라들, 심지어 사탄도 사용하고 주관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

엑스포지터스의 성경주석(제 6 권 545 쪽)은 그 각주에서 “내 종”이라는 호칭이 가진 여러 용법을 잘 정리하여 제시한다.

1. 예언자인 하나님의 종, 참조, 민 12:7-8; 느 1:7; 단 9:11
  - ㄱ. 모세
  - ㄴ. 다니엘, 참조, 단 9:17
2. 군사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즉, 여호수아), 참조, 수 24:29; 삿 2:8
3. 왕인 하나님의 종(즉, 다윗), 참조, 삼하 7:5,8; 시 18 편; 36 편; 겔 34:24; 37:24
4. 정치가인 하나님의 종
  - ㄱ. 느헤미야, 참조, 느 1:6
  - ㄴ. 스킵바벨, 참조, 학 2:23
5. 모든 이스라엘(또는 야곱), 참조, 사 42:1,19; 43:10; 44:1,21; 49:3; 겔 28:25; 37:25
6.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조, 사 41:8-10
7. 경건한 개인, 참조, 욥 1:8; 2:3; 42:8
8. 야웨의 목적을 이루는 믿지 않는 통치자들
  - ㄱ. 고레스, 사 44:28; 45:1
  - ㄴ. 느부갓네살, 렘 25:9; 27:6; 43:10

▣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상한 문장이다. 이 내용이 5 절과 관계있음이 분명하다. 거기서는 창조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일련의 진술 사이에 이 문장이 사용되었다(참조, 28:14).

1. 피조물을 주심, 5 절
2. 땅을 주심, 6 절
3. 들짐승들을 주심, 6 절
4. 나라들을 주심, 7 절

▣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이 동사(BDB 712, KB 773,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킴)가 이 장에 11 번 나온다.

1. 칼부정사 연계형, 6 절
2. 칼완료형, 7 절(2 회), 11 절(2 회)
3. 칼미완료형, 8,9,13,14 절
4. 칼명령, 12,17 절

27:7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 LXX 에서는 “손자”를 빼놓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보좌를 그의 친척이 빼앗았다.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히브리 예언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바꾸어 놓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구는 정해진 기간 동안(즉, 70 년간, 참조, 25:11) 바벨론이 지배할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야웨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벌하시려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듯이, 야웨께서 바벨론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실 날이 다가 오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25:12; 50-51 장; 사 14:4-6).

**개역개정 27:8-11**

<sup>8</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sup>9</sup>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sup>10</sup>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sup>11</sup>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받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7:8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예레미야가 38:17-23 에서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다.

▣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것은 군대가 정복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3 요소이다. 14:12 의 설명을 보라.

27:9 “너희는 듣지 말라” 이 동사(BDB 1033, KB 1570,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가 14,16,17 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미래의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다(참조, 신 18:9-14).

1. 너희의 선지자들(BDB 611) - 거짓 선지자들(참조, 9 절; 2:8; 23:13-15,26; 29:9)
2. 너희의 점치는 자들(BDB 890) - 이것은 “신적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에서 왔다(BDB 890, 참조, 민 22:7; 23:23; 겔 21:21; 왕하 17:17). 점은 신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를 위해 양의 간을 검사하는 것 또는 화살을 던지는 것과 같은 기계적 혹은 자연적 방법이 사용된다. 이 행위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자연 현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즉, 거짓 선지자들, 예, 렘 27:9; 29:8; 겔 13:9; 22:28)들 만이 그것을 알 수 있으며 미래에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이교도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3. 너희의 꿈꾸는 자들(BDB 321) - 거짓으로 계시를 말하는 자(참조, 23:25-28; 29:8; 신 13:1-3; 존 왈톤, *고대 근동의 사상과 구약*(243 쪽)에 있는 좋은 글을 참조하라).

REB 는 모음을 바꾸어 “꿈꾸는 너희의 여자들”로 제시한다. NEB 는 “지혜로운 여자들”로 번역하였다.

4. 너희의 길흉을 말하는 자들(BDB 778) - 이 용어(BDB 778, KB 857)는 “구름”(BDB 777)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언어학자들은 이 용어가 소리와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1. 곤충이 내는 소리
  2.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
  3. 잘 알려지지 않은 어원론(만일 구름이라면 그것은 광경과 관련이 있다)모세의 글에서 이방인들의 이같은 행위를 금하는 것은 레 19:26-20:8(특히 19:26 을 보라)에도 나타난다. 같은 용어가 또한 샛 9:37; 왕하 21:6; 대하 33:6; 사 2:6; 57:3; 렘 27:9; 미 5:12 에서 발견된다.
5. 너희의 무당들(BDB 506, 이 명사는 이곳에서만 나옴) - 이 용어(BDB 506, KB 503)는 기본적으로 “난도질하다”를 뜻하는 말로서 (1) 마술용 용액으로 사용되는 성분의 조각이나 (2)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자르는 것(즉, 시리아에서의 용법, 참조, 왕상 18:28)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출 7:11 에서 바로의 지혜로운 자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단 2:2 에서 느부갓네살의 지혜로운 자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7:10 “거짓” 이것은(BDB 1055) 맨 앞에 위치하여 강조를 나타낸다.

27:11 이 절은 40:9-12 에서 예시되며, 21:9; 38:2 을 암시한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른 상을 받는다(참조, 민 21:4-9[참조, 요 3:14-15])!

#### 개역개정 27:12-15

<sup>12</sup>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명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sup>13</sup>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sup>14</sup>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sup>15</sup>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27:12,1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한 말에는 긴급성이 나타난다.

1. 명에를 목에 메고 - BDB 97, KB 112, *히필* 명령
2. 섬기소서 - BDB 712, KB 773, *칼* 명령
3. 그리하면 사시리라 - BDB 310, KB 309, *칼* 명령

이 여러 명령이 17 절에서 반복된다(즉, 2 항과 3 항). 12 절은 시드기야에게 하는 내용이고, 17 절은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하는 말이다(참조, 16 절).

27:15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이 진술이 23:21 및 29:9 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고 있음을(또는 정치적 압력을 받아) 마음 속에 알고 있었는지’ 나는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도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계시된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문화적, 교리적, 개인적 견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나는 다음 사실에 의지한다

1.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

2. 신약의 메시지에 우선권이 있다
3.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 다르다(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또한 온라인에 있는 특별주제 목록에서 신약의 예언을 보라)
4.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9 절에 나오는 부적절한 사항이, 유다나 주위의 이교 국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한 방법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참조, 3 절).

#### 개역개정 27:16-22

<sup>16</sup>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와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sup>17</sup>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sup>18</sup>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와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sup>19</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sup>20</sup>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sup>21</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sup>22</sup>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 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7:16 “기구” 18 절; 왕상 7:15-20; 렘 52:17 이하를 보라. 처음 이주는 이미 일어났다(즉, 주전 597 년, 참조, 20 절).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물건들이 곧 되돌려진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27: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신 13:1-3 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다!

27:19 여러 가지 성전 물건이 남아 있었다.

1. 기둥들(참조, 왕상 7:15; 왕하 25:13,17)
2. 큰 대야(참조, 왕상 7:23-26)
3. 받침들(참조, 왕상 7:27-39)
4.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

렘 52:17-23 을 보라.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져다 대부분을 따르들의 신전에 두었다.

27:20 여호야킨이 잡혀간 일에 대하여 렘 22:28; 24:1; 왕하 24:12,14-16; 대하 36:10,18 에서 서술한다.

27:22 “그 후에 내가 ...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기에 스 1:7-11; 5:13-15; 7:19 에 있는 소망과 약속이 제시된다! 야웨께서 그것들을 보내시며 또 되돌려 두신다(1:10; 사 6:9-10 을 보라)!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자이시다!



# 예레미야 2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냐의 거짓 예언	하나냐의 거짓됨과 심판	바벨론 왕의 멍에 (27:1-28:17)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	하나냐와의 논쟁
28:1-4	28:1-4	28:1-4	28:1-4	28:1-4
28:5-9	28:5-9	28:5-9	28:5-9	28:5-9
28:10-11	28:10-11	28:10-11	28:10-11	28:10-11
28:12-16	28:12-17	28:12-16	28:12-14 28:15-16	28:12-14 28:15-16
28:17		28:17	28:17	28:1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두 제사장의 대화이다. “말하다”라는 단어(BDB 55, KB 65)가 16 회 사용되었다.
- 나. 정확한 예언으로만 어느 쪽이 참 선지자인가를 입증할 수 있다(참조, 신 13:1-3; 18:15-22). 이 일은 일 년 안에 드러날 것이다.
- 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멸망과 다음의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참조, 1-4 절)
  1. 여고니야 및 포로로 잡혀간 자들

## 2. 성전의 기구들

예레미야는 유다가 패하여 멸망할 것과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시간이 이것을 밝혀 줄 것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8:1-4

<sup>1</sup>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사 년 다섯째 달 기브온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sup>2</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명을 꺾었느니라 <sup>3</sup>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 간 여호와와 성전 모든 기구를 이 년 안에 다시 이 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sup>4</sup>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명을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8:1 “선지자” LXX 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말한다.

▣ “기브온” 이곳은 레위인의 성이었다(수 21:17). 이 두 “선지자”가 같은 종류의 보증서를 가졌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성읍 출신이었고, 둘 다 “그 선지자”로 불렸다(참조, 5 절). 둘 다 같은 서두를 사용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2 절, 27:4,21).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듣는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매년 혹은 매월 가지는 금식일에 하나냐가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적대하였다.

28:2 “내가... 명을 꺾었느니라” 이 동사의 히브리어 시제(칼 완료형)는 이 일이 이미 성취된 것임을 나타낸다.

소리에 의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1. “부수다,” *샤바르* - BDB 990, KB 1402

2. “되돌리다,” *슈브* - BDB 996, KB 1427

두 단어가 함께 두 번 사용되었다(2,4 절).

28:3-4 “모든 기구... 이 년 안에... 여고니야와... 유다 모든 포로” 이 예언은 매우 특별하며 상세한 내용이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말이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27 장에서 행한 설교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 개역개정 28:5-9

<sup>5</sup>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sup>6</sup>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와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 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sup>7</sup>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sup>8</sup>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sup>9</sup>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

28:6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메시지가 참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참이 아니었다!  
“아멘”에 대하여는 3:12의 특별주제를 보라.

28:8 이것은 선지자들이 자신들보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알았음을 나타낸다. 이전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회화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이 거듭 거듭 사용되었다. 8-9 절에서 가르치는 신학적 메시지는 ‘어떤 것이 참 선지자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그 메시지(즉, 전쟁이나 평화)의 문맥이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직 정확한 성취(또는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심)만이 그 메시지가 진실됨을 규명할 수 있다!

**개역개정 28:10-11**

<sup>10</sup>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빼앗아 꺾고 <sup>11</sup>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멩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28:10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것은 폭력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28:11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왜 그가 그렇게 하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아마 야웨의  
응답을 그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역개정 28:12-16**

<sup>12</sup>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sup>13</sup>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멩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들을 만들었느니라 <sup>14</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sup>15</sup>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sup>16</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꺾은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28:12 “예레미야...예레미야에게” 이것은 이 단락을 바룩이 기록하였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28:13

NASB, NKJV	“네가 만들었다”
TEV	“그가 바꿀 것이다”
LXX	“내가...할 것이다”
NEB	“내가 만들 것이다”

MT에는 “내가”로 되어 있는데, UBS 본문 프로젝트는 그것에 “B”등급을 준다. LXX는 더 적합한 뜻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본문이 원래의 것이다(부록의 본문비평을 보라).

28:14 야웨께서는 나무 멩에를 쇠 멩에로 대치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참조, 15 절).

15-17 절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웨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는 그 해에 죽을 것이다. 그의 예언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행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

개역개정 28:17

<sup>17</sup>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레미야가 왜 미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2.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일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보라.
3. ‘미래의 일을 알기 원하고, 또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가?
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왜 항상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거부를 받는가?
5. 당신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 하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정말로 믿었는가?

# 예레미야 2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잡혀간 자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	사로잡힌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29:1-9	29:1-3  29:4-9 (4-9)	29:1-9	29:1-3  29:4-9	29:1-3  29:4-14
29:10-14	29:10-14 (10-14)	29:10-14	29:10-14	
29:15-20	29:15-20 (15-20)	29:15-23	29:15-20	29:15-20
29:21-23	29:21-23 (21-23)		29:21-23	29:21-23
29:24-28	29:24-28 (24-28)	29:24-28	29:24-25  29:26-28	29:24-28  스마야에 대한 예언
29:29-32	29:29-32	29:29-32	29:29-32	29:29-3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에 개인이 행한 일을 보여주는 희귀한 예이다. 이 장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의 편지를 제시한다. 이 성이 주전 586 년에 완전히 멸망되기에 앞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 일이 두 번 있었다(주전 605 년과 597 년).
- 나. 이 장에 몇 통의 편지가 나오는가에 대하여 추측이 있다. 제시된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단 한 통의 편지
  2. 2 통의 편지: 29:1-14; 29:15-32
  3. 3 통의 편지: 29:1-15; 29:21-23; 29:31-32
  4. 4 통의 편지: 29:1-14; 29:15-20; 29:21-23; 29:31-32
- 나는 이 장이 4 통의 편지를 포함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있는 상황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 다. 어떤 이들은 다음의 이유에서 이 장의 연대를 주전 594 년으로 잡는다:
1. 세속적인 자료(즉, 바벨론 연대기)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 안에 일어난 내적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
  2. 유대인 포로 가운데 있던 몇몇 선지자들은 반역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29:21-22.
  3. 이 장의 시기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심을 나타내도록 요구받은 해’였으며, 또한 그가 ‘바벨론으로 사신들을 보낸 해’와 관련을 가진다, 29:3.
- 라. 2 절에서 언급한 여고니야 왕은 사실 여호야킨이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3 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하였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오기 전에 여호야김이 죽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의 모친인 왕후에 의하여 강력한 섭정이 있었다. 그가 겨우 3 개월간 통치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도착하여 그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친척인 시드기야(삼촌)가 통치하였다.
- 마. 이 장에서는 역사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야웨께서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제시한다. “내가 . . . 하였다” 또는 “내가 . . . 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계속적으로 나옴을 주목하라.
1.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4.14,18,20 절
  2.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즉,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9 절
  3. 내가 너희를 돌보고(즉, 바벨론에서), 10 절
  4.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즉, 너희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함), 10 절
  5.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두 개의 강조적인 “나”), 11 절
  6.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11-14 절의 설명을 보라), 12 절
  7.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되, 14 절
  8.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 절
  9. 내가 칼과 . . . 을 그들에게 보내어(즉, 유다에 아직 있는 유다 사람들), 17 절
  10. 내가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즉, 유다에 아직 있는 유다 사람들), 17 절
  11.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18 절
  12.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즉, 선지자들을), 19 절
  13.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즉,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다), 21 절

14.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즉,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 23 절
15.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23 절
16.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즉, 거짓 선지자), 32 절
17.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즉,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32 절  
 생명이 없는 우상과 달리, 야웨께서는 자신의 커다란 구속적 목적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9:1-9  
<sup>1</sup>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sup>2</sup>그 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sup>3</sup>유대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sup>4</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sup>5</sup>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sup>6</sup>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sup>7</sup>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sup>8</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sup>9</sup>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1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남아 있는”(BDB 451 의 1,2 항)이라는 용어는 “남은 자”나 “남은 것”를 뜻하는데, “탁월함”(3 항, 참조, 창 49:3)도 의미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반역적인 행동을 인하여 유대 공동체의 많은 수의 장로나 지도자들을 선지자들과 함께 죽였다고 어떤 이는 생각한다(참조, 21-23 절).

29:2 NASB 와 NKJV 는 2 절을 괄호 안에 넣고 있다. 이것은 왕하 24:12-16 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JPSOA 는 1 절에서 4 절 사이에 줄표(-)를 넣어 구분짓는다.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편집자가 삽입한 내용일 것이다.

주전 596 년에 포로로 잡혀간 지도자들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참조, 왕하 24:10-17).

1. 여고니야왕(즉, 여호야긴)
2. 국모(즉, 느훗타, 참조, 왕하 24:8)
3. 왕궁의 관리들
4. 여고니야의 자녀(아마, 주전 605 년, 참조, 단 1:3)
5. 예루살렘의 권세있는 가족의 자녀(아마, 주전 605 년, 참조, 단 1:3)
6. 목공들((아마, 주전 605 년에 잡혀감)
7. 철공들((아마, 주전 605 년에 잡혀감)

▣ “궁중 내시들”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시들”이다. 이것은 아카디아어에서 “머리에 있는 자”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거세를 당한 후 관리로 일한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보디발(창 39:1)이 결혼을 하였으며 동일한 호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 용어는 단순히 “정부 관리”를 뜻하는 명칭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 “기능공과 토공들” 처음 단어는 “기술자” 또는 “공예인”을 뜻하지만,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매우 불확실하다(24:1의 설명을 보라). 이 명칭의 의미나 유래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다. 우리는 주전 597년에 이 사건(포로됨)이 일어난 것과(왕하 24:14), 이 일이 램 52:28에서 암시되고 있음을 안다. 이 두 본문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학자들은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29:3 “사반의 아들 엘라사” 이 사람은 26:24에서 행한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에 대한 반응에서 그를 도운 아히감의 형제일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아버지는 요시야의 서기관이었을 것이다(참조, 왕하 22:8).

▣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이 사람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의 아버지는 왕하 2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이 일의 목적은 (1) 조공을 바치는 것, 또는 (2) 느부갓네살에 대한 시드기야의 충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예레미야의 지지자들로서, 그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쓴 편지를 기꺼이 가져갔다.

“보내다”라는 이 동사(BDB 1018, KB 1511)는 이 장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1. 편지를 보냈다, 1 절
2. 사람을 보냈다, 3 절
3. 야웨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들, 9,25,31 절
4. 야웨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 17 절
5. 야웨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다, 19(2 회), 28,31 절

이 동사가 자주 사용된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드러낸다-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29:4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또 다시 선언하신다(즉, 사 10:5). 포로가 된 일은 유다에 대한 야웨의 심판으로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야웨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다(참조, 7 절).

29:5-8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여” 예레미야의 충고는 그곳에 정착하여 가능한 한 일상적인 삶을 가지라는 내용이었다. 유대인들이 가건물을 짓고 살며, 어떤 이는 짐을 풀기도 거절하였음이 분명하다. 예레미야는 오래 기다리는 일을 위하여 정착하라고 그들에게 충고한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가 28 절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역으로 여겨졌음이 분명하다.

예레미야의 편지에 나오는 명령을 주목하라(즉, 5-8 절; 또한 28 절도 참고하라).

1. 너희는 집을 짓고- BDB 124, KB 139, 칼 명령
2. 거기에 살며- BDB 442, KB 444, 칼 명령
3. 텃밭을 만들고- BDB 642, KB 694, 칼 명령
4. 그 열매를 먹으라- BDB 37, KB 46, 칼 명령
5. 아내를 맞이하여- BDB 542, KB 534, 칼 명령
6. 자녀를 낳으며- BDB 408, KB 441, 히필 명령
7. - 5 항과 같음
8.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BDB 678, KB 733, 칼 명령
9.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BDB 408, KB 44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0.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BDB 915, KB 1176, 칼 명령
11.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BDB 589, KB 61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2.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BDB 205, KB 233, 칼 명령
13.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BDB 813, KB 933, 히트파엘 명령
14.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BDB 674, KB 728,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5. 너희가 꾸 꿈도 꾸이 듣고 믿지 말라-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라는 내용이다. 너희는 예언된 바 70년이 차기까지(참조, 10 절) 유다로 돌아가지 못한다.

29:7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은 적을 위하여 기도함에 대한 구약의 유일한 예이다(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의 도시에서). 어떤 이는 이 본문이 ‘기도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대신한다’는 신앙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이것이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의 기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회당제도는 포로기 때에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이 정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이룬다고 말한다(신약은 이것을 따르고 있다; 참조, 마 22:21; 롬 13:1).

29:8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꾸 꿈도 꾸이 듣고 믿지 말라”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사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이 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편지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쓴 편지이다. 선지자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레 19:26,31; 20:6; 신 18:9-13에 나온다(참조, 램 27:9-10). ‘어떻게 참 선지자를 시험하여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유의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신 13:1-5; 18:14-22; 마 7:15-27; 요일 4:1-3).

**개역개정 29:10-14**

<sup>10</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sup>11</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sup>12</sup>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sup>13</sup>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sup>14</sup>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9:10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이 대략적인 수가 램 25:11,12에서 언급되었다. 어떤 이는 이 기간이 다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1.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한 주전 612년부터 바벨론의 수도가 멸망한 주전 539년까지의 기간
2. 처음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부터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6년까지의 기간
3.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주전 612년부터 바벨론이 멸망한 주전 539년까지의 기간

학자들 사이에 70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다. 이것은 여러 세대 또는 한 개인의 일생을 뜻하는 대략적인 수일 것이다. 15:9의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를 보라.

▣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것은 켈 1장과 10장에 나오는 방문을 가리킨다. 야웨께서 그들의 우상숭배(켈 8장)를 인하여 성전을 떠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로 오신다.

▣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심에 대한 내용으로서, 10 절에서 묘사하고 있다(참조, 24:6-7).

29:11-14 이 아름다운 본문은 언약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에(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명기적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 남은 자들만 돌아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축복의 조건들을 주목하여 보라.

1.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 BDB 894, KB 1128, *칼* 완료형
2. 내게 와서 - BDB 229, KB 246, *칼* 완료형, 참조, 33:3; 사 55:6
3. 기도하면 - BDB 813, KB 933, *히트파엘* 완료형
4. 나를 구하면 - BDB 134, KB 152, *피엘* 완료형, 참조, 신 4:29
5.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 BDB 205, KB 233, *칼* 미완료형, 참조, 신 4:29; 램 24:7

이 모든 사항은 예배가 ‘삶으로 드러나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야웨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주목하라(이것은 신 30:3-5 을 암시함)

1.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2 절 - BDB 1033, KB 1570, *칼* 완료형, 참조, 33:3; 신 4:30
2. 나를 찾을 것이요, 13 절 - BDB 592, KB 619, *칼* 완료형, 참조, 신 4:29
3. 나를 만나리라, 14 절 - BDB 592, KB 619, *니팔* 완료형
4.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 BDB 996, KB 1427, *칼* 완료형(종종 회개함을 나타냄)
5.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 BDB 867, KB 1062, *피엘* 완료형, 참조, 23:3; 31:8
6.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즉, 팔레스타인으로) - BDB 996, KB 1427(4 항을 보라), *히필* 완료형

29:11 “나”(아노키, BDB 59)라는 인칭대명사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 사용되었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회복에 대한 야웨의 계획이 명확히 진술되고 있다

1. 평안이요(BDB 1022, 6: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재앙이 아니니라(BDB 449,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3.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 ㄱ. 백성의 생존, 참조, 민 24:20
  - ㄴ. 번영, 참조, 잠 23:18; 특히 24:14
4.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조, 잠 23:18; 24:14; 겔 37:11

#### 개역개정 29:15-20

<sup>15</sup>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sup>16</sup>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sup>17</sup>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sup>18</sup>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sup>19</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20</sup>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29:15-23 이 단락은 두 번째 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6-20 절이 LXX 에 빠져 있다. 이것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이다(하지만 모든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 있다). 이 단락은 15 절과 21 절 사이의 연결성을 끊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고대의 유대인 번역가들이 아마 이 단락을 24:8-10 의 반복으로 여겼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본문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시대적 순서에 따라 편집되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선집).

29:17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고대의 전쟁에서 공포를 주는 세 가지 사항이다(14:12 의 설명을 보라). 야웨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아 남았기에,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였다.

■ NASB “터진”  
 NKJV, NRSV,  
 TEV, NJB, REB “썩은”  
 JPSOA “역겨운”

이 형용사(BDB 1045)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KB 1613-1615). NASB 는 KB1614 II 의 제안을 받아들인다-시리아어의 “갈라지다” 또는 아라비아어의 “깨지다.” 이 형용사는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똑 같은 자음으로 된 단어가 “두려운 일”(BDB 1045)을 5:30; 18:18; 23:14 에서 가리키는데, 이 본문과 어원적인 연결이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드물게 사용된 단어의 경우, 단어 자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때에라도 문맥이 의미를 밝히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더라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9:18 24:9 의 설명을 보라.

29:19 여기에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인간은 언약백성인 경우에도 야웨의 말씀/메시지/언약을 듣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다(참조, 6:19)! 순종은 헌신의 표이다(참조, 눅 6:46).

25:4 에서 “שׁ”(ש)으로 시작하는 여러 단어가 사용된 것을 주목하라(BDB 1018, 1014, 1033). 또한 “거듭 거듭”이라는 히브리 관용구에 대한 설명을 7:13 에서 참고하라.

29:20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니라” 이 동사(BDB 1033, KB 1570)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NIV 에서 예를 들었다):

1. 들다 - 2:4; 5:21; 6:19; 7:2; 10:1; 13:15; 17:20; 19:3; 21:11; 22:2; 31:30; 42:15; 44:24,26; 49:20; 50:45
2. 순종하다 - 7:23; 11:4,7 35:13; 38:20
3. 경청하다 - 11:2,6
4. 선포하다 - 4:5,16; 5:20; 46:14(2 회); 50:2
5. 소집하다 - 50:29; 51:27

이 일은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 개역개정 29:21-23

<sup>21</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sup>22</sup>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숫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sup>23</sup>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29:21 “만군의 여호와” 15:1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아합 . . . 시드기야” 이 둘은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로서 느부갓네살에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겔 13 장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더 있었음을 알고 있다. 26-29 장으로 이루어진 이 문학적 단원은 거짓 선지자라는 주제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제 6 권, 556 쪽)과 NASB 연구성경(1103 쪽)은 이곳에 의도적인 언어유희가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1. 골라야 - BDB 877, *코라야*
2. 저주 - BDB 887, *케라라*
3. 뷔다 - BDB 877, *카라*

29:22 “여호와께서 너를 . . .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절은 고대의 잠언과 ‘저주하는 형식의 말’을 나타낸다.

▣ “불살라 죽인”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을 통하여, 이것이 공개적으로 행해진 사형방법이었음을 안다(참조, 25 조:110,157). 이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었다(참조, 23 절; 7:15-23; 마 7:15-27).

29:23	
NASB	“어리석음”
NKJV	“불명예스러운 것들”
NRSV	“자행한 잔학행위”
TEV	“무서운 죄들”
NJB	“몰의를 일으키는 일”
JPSOA	“악의”
REB	“잔학행위”

이 명사(BDB 615, KB 663)는 광의의 어원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악한 생각 또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사람이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을 나타낸다(참조, 창 34:7; 신 22:21; 수 7:15; 삿 19:23-24; 20:6,10; 삼상 25:25; 삼하 13:12; 욥 42:8; 사 9:17; 32:6). 렘 29:23 의 문맥에서(예레미야서에서는 단 한 번 사용됨), 이 단어는 두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가리킨다.

1. 간음(참조, 23:14)
2. 야웨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함(참조, 2:8; 23:13)

▣ “이스라엘 중에서” 이것은 지리적 의미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위 뿐 아니라 마음도 심판하심을 확증하는 본문이다(참조, 램 7:11; 16:17; 17:10; 32:19; 잠 5:21; 고전 4:5; 히 4:13). 이 본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개역개정 29:24-28**

<sup>24</sup>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sup>25</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sup>26</sup>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와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어늘 <sup>27</sup>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sup>28</sup>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29:24 “스마야”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중에 있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이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반역의 죄목으로써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처벌하라고 이끈 자이다(참조, 27 절).

▣ “느헬람 사람” 이것은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도시의 이름이거나, “꿈꾸다”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니팔 분사)이다. 후자의 경우 그가 선지자임을 뜻할 수 있다.

29:25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 사람에 대하여 램 1:1; 27:3 에서 말한다.

29:26 “여호야다” 이 사람은 성전 경비대를 지휘하는 자였을 것이다(참조, 왕하 11 장).

▣ “모든 미친 자” “미친 자”라는 용어는 예레미야를 일컫는 말이다(BDB 993). 이 단어는 원래 동물의 소리(즉, 비둘기, 낙타)를 나타내었는데, 울부짖거나 분노하는 발광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구약의 앞 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한것은 사실이다(즉, 삼상 10:9-13). 이 단어는 다음의 본문에서 선지자들을 일컫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1. 왕하 9:11
2. 호 9:7

이것은 야웨의 대변자(여기서는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불신임하기 위하여 치욕을 입히기 위한 방법이었다(즉, 20:2 에서 착고에 채워짐). 선지자가 그런 상태에서 전달하게 하는 일은 결국 그의 메시지를 깎아 내리는 일이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을지라도, 대부분의 유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반역을 꾀하는 미친 자라고 여전히 생각하였다.

29:28 이것은 5-6 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리킨다.

**개역개정 29:29-32**

<sup>29</sup>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 줄 때에 <sup>30</sup>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31</sup>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sup>32</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 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31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 문장이 28:15 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본문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및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평화와 신속한 회복의 메시지를 가리킨다. 에스겔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겔 13:2-3,22; 22:28 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거짓”(BDB 1044)이라는 개념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우상들(참조, 10:14; 13:25; 51:17)
2. 거짓 메시지(참조, 14:14; 18:8; 20:6; 23:5,6; 27:10,14,16; 28:15; 29:9)
3. 거짓 증거(참조, 5:2; 37:14)
4. 불신앙(참조, 요일)
5. 야웨의 메시지/사자를 거부함(참조, 28:16)

29:32 “이 백성 중에 살아 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그의 모든 자손과 후손이 멸절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공포스러운 선언이었다.

▣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거부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됨을 주목하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 몇 통의 편지가 나오는가?
2. 29 장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3. 왜 예레미야의 말을 그들이 배신자의 말로 여겼는가?
4. 7 절이 지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5. 70 년은 상징적인 수인가 아니면 정확히 70 년을 뜻하는가?
6.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는가?

# 예레미야 3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포로에서 구출함에 대한 약속을 주심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위로의 책 (30:1-31:40)	자기 백성에 대한 주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30:1-3	30:1-3	30:1-3	30:1-3	30:1-3
30:4	30:4-9	30:4-7	30:4	30:4
30:5-7 (5-7)	(5-7)	(5-7)	30:5-7 (5-7)	30:5-7 (5-7)
30:8-11	(8-9)	30:8-9	30:8-9	30:8-9 (괄호안)
(10-11)	30:10-11 (10-11)	30:10-11 (10-11)	30:10-11 (10-11)	30:10-11 (10-11)
30:12-17 (12-17)	30:12-17 (12-15) (16-17)	30:12-17 (12-17)	30:12-22 (12-22)	30:12-17 (12-17)
야곱의 회복				
30:18-22 (18-22)	30:18-22 (18-22)	30:18-22 (18-22)		30:18-21 (18-21)
				30:22-24 (22-24)
30:23-24 (23-24)	30:23-24 (23-24)	30:23-24 (23-24)	30:23-2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언약”이라는 개념을 3:7의 특별주제에서 설명하였다. 이 신학적 문맥에서, 언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조약을 본질적으로 나타낸다. 양쪽 다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야웨께서는 조건을 정하여 놓으시며, 또 이 언약이 시작되게 하신다.
- 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이 의무조항을 지킴에 있어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종료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의미있는 언약을 인간과 더불어 세우셨다(즉, “새 언약,” 31:31-24).
- 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세상에 야웨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옛 언약인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이해함과 새 언약이 이행됨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한다.
- 라. 학자들이 “위로의 책”으로 부르는 30-33장은 소망 및 약속된 회복으로 이루어진 단원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예레미야는 가장 큰 격려를 주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지만, 야웨께서는 그것들과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 마. 렘 31:22은 북쪽의 10지파에 대한 내용이다. 23-26절은 남쪽의 지파들에 대한 것이고, 27-40절은 하나로 회복되고 재연합된 국가에 대한 것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0:1-3

<sup>1</sup>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sup>2</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sup>3</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30:2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1-3절은 30-33장에 이르는 단원의 서론을 이룬다. 이 단원은 심판의 한 가운데서 소망을 제시한다.

▣ “책에” 이것은 두루마리를 가리킨다(BDB 706, 3항). 예레미야는 야웨의 말씀을 말로써 전할 뿐 아니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다음을 가리킨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2. 왕이 불태운 책
3. 처음 두루마리가 불태워진 후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구술하여 기록된 책

오늘날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이 몇 가지 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모른다

1. 구약이 언제 편찬되었는지를
2. 어떤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3. 누가
4.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가 주요 진리이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 자체의 저자이시며 또 성령께서 이 책을 보존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다. 23:21-22의 특별주제를 보라.

30:3 “...할 날이 오리니”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가리킨다

1. 70년의 바벨론 포로생활이 끝남(즉, 에스라, 느헤미야, 참조, 렘 16:14; 29:10)
2. 종말론적 배경(참조, 3:16; 23:5; 31:27,31-34; 속 12:10-13:1)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신약과 관련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특별주제: 왜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는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마지막 때에 대한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영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또는 교단적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복음전도의 긴급성에 대하여는 놓치고 있다! 신자들이 종말론적(마지막 때)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복음전파의 대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때에 완성됨을 받아들인다. 이 일이 완성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따르는 해석적 어려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개의 역설에 기인한다.

1. 구약 언약의 예언적 모델과 신약 언약의 사도적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에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한 민족) 사이의 긴장
3. 성경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조건적인 면(“만일...그때에는”)과 범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 문학의 장르와 현대 서구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와 ‘아직 미래’ 사이의 긴장
6.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어떤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 사이의 긴장.

이 긴장의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고 싶다.

**처음 긴장(구약의 인종적 국가적 지역적 영역 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왕국이 다시 세워져, 그곳으로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후손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모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약이 영감받지 않은 책인가(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알려 주는 여러 자료가 있다:

1. 구약의 예언서(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글(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랴)
3. 신구약 중간기의 정경이 아닌 유대의 묵시적 글(에녹 1서의 경우 유다서에서 암시함)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글(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요한일서와 계시록)

이 자료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항(사건, 시간적 순서, 인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그들은 다 영감을 받았는가(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글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범위에서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약의 이러한 종말론적 개념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하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와 관련을 가진 예를 여기서 일부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온). 그러나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계 21-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일이 창 3:15에서 예시하듯이 범죄한 인간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졌다. 그 때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경우에도(참조, 창 12:1-3)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창 12:3; 출 19:5).
2.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나라들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었다. 국지적 개념의 싸움이 전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참조, 골로새서).
3.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땅의 약속’(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들, 참조, 창 12:7; 13:15; 15:7,15; 17:8)은 이제 전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었다. ‘근동의 한 지역에 위치 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가 아닌 새 예루살렘이 재창조된 지구로 내려온다(참조, 계 21-22장)
4. 구약의 예언적 요소가 확장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ㄱ.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는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롬 2:28-29)
  - ㄴ. 언약백성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9:24-26에서 인용한 호 1:10; 2:23; 또한 고후 6:16-18에서 인용한 레 26:12; 출 29:45; 딤후 2:14에서 인용한 출 19:5; 신 14:2)
  - ㄷ. 성전이 이제는 예수(참조, 마 26:61; 27:40; 요 2:19-21)를 또 예수를 통하여 지역교회(참조, 고전 3:16)와 각 신자(참조, 고전 6:19)를 가리킨다
  - ㄹ.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구약의 특징적인 표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참조, 롬 9:6; 갈 6:16; 즉, “제사장 나라,” 참조, 벧전 2:5,9-10; 계 1:6)

예언의 모델(즉,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이 성취되었고 확장되어 상당히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인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제시하지 않았다(참조, 마틴 원가덴, *예언에 나타난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이고 규범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은 계시록을 상당히 유대적인 책으로 왜곡시키며, 예수님과 바울이 사용한 모호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종말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졌다(참조, 고전 15:58; 살전 4:18).

한편, 신약 저자들 사이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그들은 종말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볼 때, 놀랍게도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참조, 마 24장; 막 13장; 또는 바울의 글) 구약의 암시를 사용한다! 처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구약 중간기(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발전된 문학적 장르를 계시록이 따르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께 반역을 함과 인간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신하심을 드러낸다! 비록 계시록이 구약의 표현, 인물, 사건들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1세기 로마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하였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계 1:7).

#### 두 번째 긴장(유일신론 대 선택된 한 백성)

성경의 강조점은 한 분 곧 영이시며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둔다(참조, 출 8:10; 사 44:24; 45:5-7,14,18,21-22); 46:9; 렘 10:6-7). 구약의 독특성은 바로 유일신론에 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신론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한 분 이심이 구약의 계시에서 핵심을 이룬다(참조, 신 6:4).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누리는 장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다(참조, 창 1:26-27).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력과 목적을 거스르고 반역하였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여,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를 택하시어 인류 전체를 속량하려고 결정하셨을 때 긴장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유대인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택하신 일은(참조, 출 19:4-6) 섬김이 아니라 교만을, 포함시킴이 아니라 배제시킴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축복할 의도에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창 12:3). 구약에서 선택이 섬김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적도 없고(즉, 롬 9:6), 그들의 출생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적도 없다(참조, 요 8:31-59; 마 3:9).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각 사람이 그러한 관계와 구원을 누린 것이다(참조, 창 15:6, 롬 4:3,9,22; 갈 3:6에서 인용함.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려(이제는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이다, 참조, 1:6; 벰후 2:5,9), 의무를 특권으로 또 봉사를 특별한 지위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선택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 세 번째 긴장(조건적 언약 대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사이에 신학적 긴장 혹은 역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계획은 무조건적인 것이 사실이다(참조, 창 15:12-21; 또 메시아께서 오심). 그러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항상 조건적이다!

“만일... 그 때에는”의 형식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켰다. 해석가들은 “진퇴양난의 경우”에서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졌다—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며 또 함께 가야 한다.

지 않았다

이것은 종말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묶여 계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 일에 달려 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지고한 신실하심이 회개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에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 및 갈 3 장).

복음 선포를 통한 세계선교가 교회에게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언약에 속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9-11 장).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이 설 장소가 있으며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참조, 스펀 12:10).

#### 네 번째 긴장(근동 문학의 장르 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했다. 동양의 문학은 오늘날 서구문화의 문학 양식에 비하여 상당히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적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남, 사건에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구약과 신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 및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시대와 지역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와 문학적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들 모두 잘못되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서구 문화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은 건방진 견해이다!

영감을 받은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 맺은 하나의 문학적 협약’이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편지(1-3 장)와 예언과 묵시문학(주로 이 형태임)이 결합된 형태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은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적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계시록과 같은 종류의 책을 다룸에 있어서 해석가들의 거만함과 교조주의는 더 더욱 부적합하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교회가 결코 가지지 않았다. 내가 소망하는 바는 어떤 일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듣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은 ‘긴장으로 가득찬 짝을 이루는 진리’를 동양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우리 서구인이 가진 바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계시록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만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시록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책의 장르에 비추어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 해석가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피와 스튜아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49-264 쪽). 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드시 처음 독자가 무엇을 이해했고 또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다루어야만 한다(즉, 존 L. 브레이, *성취된 마태복음 24 장*). 여러 면에서 볼 때, 서구의 해석가들은 이 책에 수 많이 있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의 주요한 취지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역사가 정해진 끝(심판과 축복)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1 세기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과 통치를 확증해 준다!

이 책은 신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써 각 시대의 신자들에게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을 묘사한다. 1 세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이 증거하는 강력한 진리를 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현재 역사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그러한 문화에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놀랍도록 실제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가르침(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이 계시록의 문자적 성취 여부를 알 수 없다. 추측과 짐작과 교리적 주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묵시문학은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술을 뛰어 넘는 이미지와 상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석은 장르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은 종종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장르가 가진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드라마적인 면’을 다룸에 있어서 빈약한 접근을 하는 반면, 명백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을 랄프 P. 마틴이 *신약의 해석*(I. 하워드 마샬 편저)에 실린 “신약 석의를 위한 접근”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 책의 드라마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언어적 표현이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묵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며, 또 환상이 마치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산문으로 기록된 책인양 이 책을 해석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여 그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역사상의 사건으로 파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된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한 오류는 해석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낳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접근은 묵시적 본문의 핵심적 의미를 변형시켜 신약에서 이 부분이 가진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남’을 신화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제시한 드라마적인 주장 및 ‘하나님의 통치를 힘과 사랑으로 제시하는 역설’을 놓치게 만든다(참조, 5:5,6; 사자가 어린양이시다)” (235 쪽).

W. 랜돌프 테이트는 자신의 책 *성경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지만 그 어떤 장르도 ‘묵시’(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 장르의 문학적 형태와 구조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인하여 이 장르는 재난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당하여 왔다. 묵시가 곧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인하여 많은 이들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이끄는 지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비극적인 결점은 이 책이 저자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독자의 시대에 대한 것이라는 확고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묵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본문의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사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암호’를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임하게 한다. ... 첫째로, 해석가는 묵시가 상징주의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상징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잘못된 해석을 낳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묵시적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은 역사상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건을 제시하되 이미지와 암호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37 쪽).

리켄이 편집한 *성경의 이미지 사전*에서 윌호스트와 롱맨 II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에 의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해 한다.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 및 이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은 이상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본문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일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에 처하게 하고 결국 이 묵시적 메시지의 의도를 놓치게 만든다” (35 쪽).

**다섯 번째 긴장(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임)**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이 신학적 역설은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예상한다면, 주로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그곳에 회복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됨을 찾게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5장에서 교회의 비밀스런 휴거가 일어남을 또 나머지 장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을 가짐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계 22:16의 설명을 보라).

한편, 만일 초점이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에 의해 왕국이 시작됨에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임하고 따라서 초점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놓이게 된다. 또 신학적 강조점을 현재의 구원에 두게 된다. 왕국이 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어떤 이들을 다스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제공하심’에서 구약이 성취된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디에 그 강조점이 놓여 있는가? 나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은 초림 즉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짐(참조, 단 2 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같은 내용이다(참조, 단 7 장). 구약에서는 초점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두지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다(참조, 고전 15:26-27).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인가는 옳은 질문이 아니다. 둘 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바른 질문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다.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하겠다: 어떤 해석가들은 메시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참조, 계 20 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심을 말하는 성경의 강조점을 놓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은 선행적인 사건이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듯이, 메시아의 통치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도 명확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심에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이것은 현재적(구원과 섬김에 있어서)이며 동시에 미래적(견고함과 능력의 면에서)이다. 만일 계시록이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참조, 계 20 장), 그 왕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적인 것이다(참조, 계 21-22 장). 구약에서 일시적인 통치를 필요로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상 단 7 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지 천년의 통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여섯 번째 긴장(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대 지연된 *파루시아*)

많은 신자들은 예수의 재림이 곧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있을 것임을 배웠다(참조, 마 10:23; 24:27,34,44; 막 9:1; 13:30; 계 1:1,3; 2:16; 3:11; 22:7,10,12,20).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기대를 가진 신자들의 세대는 빗나갔다! 곧 있을 (즉시) 예수의 재림은 모든 세대에게 강력한 약속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직 한 세대(박해를 받는 한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신자들은 반드시 ‘마치 예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만일 그의 오심이 지체된다면 대위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마 28:19-20).

복음서(참조, 막 13:10; 눅 17:2; 18:8)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본문은 지연된 재림(*파루시아*)에 기초한 본문이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일어날 것이다:

1. 전세계적 복음전도(참조, 마 24:14; 막 13:10)
2. “죄의 사람”이 드러남(참조, 마 24:15; 살후 2 장; 계 13 장)
3. 대박해(참조, 마 24:21,24; 계 13 장)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다(참조, 마 24:42-51; 막 13:32-36)! 매일 매일이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미래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지속성과 균형

오늘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모든 종류의 학파는 ‘반쪽 진리’만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어떤 본문에 대하여 그들은 잘 설명하고 또 잘 해석한다. 문제는 지속성 및 균형이라는 면에서 생긴다. 종종 미리 가진 여러 전제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본문을 미리 설정한 신학적 주형에 짜 맞춘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조직적인 종말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가족 앨범과 같다. 사진들이 모두 진짜지만, 시간적 순서나 문맥이나 어떤 논리적 틀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진들은 앨범의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나중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많은 해석가들은 신약의 다른 장르를 해석하는데 사용한 자신의 도구와 절차를 가져와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또 계시록으로 하여금 회화적인 내용이 되게 하는 대신에’ 구약에 집중한다.

내가 이 주석을 저술함에 있어서 계 22:18-19 에 나오는 저주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 책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논란이 계속됨을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미인 경우에도 이것은 진실되다(참조, 롬 3:4)! 이 주석이 당신에게 어떤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촉구하는 것이 되고, 약도가 아니라 교통표지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무엇을...”이 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부적합하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의도를 추구하는 자임을 나는 계속하여 직면하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면을 다른 해석가들의 경우에서 보았다.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것’으로 여겨진다. 장르 자체가 남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장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들어 있다. 이 장르가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신의 진영을 구축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자; ‘어떤 것이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증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

▣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로 잡혀갔다. 유다는 주전 605, 597, 586, 582 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 본문은 ‘그들의 재연합’이, 그들이 하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심에 달려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개(BDB 996, KB 1427, 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뜻하는 동사가 이 절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내가 회복할 것이다(즉, 되돌아옴, 칼 완료형), 18 절
2.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회필 완료형), 10 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개역개정 30:1

<sup>4</sup>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0:4 4 절은 단원의 서론을 이루는 구절이다.

개역개정 30:5-7

- <sup>5</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 <sup>6</sup>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sup>7</sup>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넴을 얻으리로다

30:5 “우리가... 소리를 들으니” MT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창 1:26; 3:22; 11:7; 사 6:8 에 있는 “우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다음을 가리킨다

1. 야웨 및 야웨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회의(참조, 왕상 22:19-23; 욥 2:1-6)
2. 강조를 나타내는 히브리 문법적 구조로서, 드물게 사용되었고 후기에 속하며 “장엄한 복수형”으로 불리는 구조
3.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구적 개념(즉, 삼위일체,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UBS 본문 프로젝트는 “우리”(MT)에 “B”등급을 준다.

###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가. 복음서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2. 요한복음 14:26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다. 바울

1. 롬 1:4-5; 5:1,5; 8:1-4,8-10
2. 고전 2:8-10; 12:4-6
3. 고후 1:21; 13:14
4. 갈 4:4-6
5. 엡 1:3-14,17; 2:18; 3:14-17; 4:4-6
6. 살전 1:2-5
7. 살후 2:13
8. 딤후 3:4-6

라. 베드로 - 벧전 1:2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형 이다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3. 사사기 2:1; 6:22-23; 13:3-22
4. 스가랴 3:1-2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0:6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고대의 여인은 아기를 낳는 돌 위에 무릎을 굽히고 아기를 낳았다. 유다의 남자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마치 아기를 낳고 있는 자들처럼 보였다(참조, 6:24; 22:23). 해산함에 대한 이 은유적 표현은, 신약에서 새 시대가 산통처럼 임함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참조, 롬 8:22).

30:7-8 “그 날이여” 이 날이 한 그룹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다른 그룹에게는(즉, 바벨론) 심판의 날임을 주목하라. 4: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0:8-11

<sup>8</sup>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sup>9</sup>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sup>10</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sup>11</sup>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흘렸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30:8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이것은 예레미야가 2:20 및 27 장과 28 장에서 사용한 “멍에”(참조, 레 20:13)라는 은유적 표현을 다시 사용하는 본문이다.

▣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왜 이것이 회복된 유다의 경험(즉, 페르시아, 세류시드, 로마)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는가? 언약백성이 언약을 다시 깨뜨리고 형벌을 또 다시 받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30:9 “다윗” 이것은 삼하 7:12-16 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을 가진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왕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유다의 방백”이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것이 종말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믿는다(즉, 예수, 참조, 겔 34:23-24; 37:24-25; 호 3:5).

30:10 “두려워하지 말라...놀라지 말라” 둘 다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 “야곱아...이스라엘아” 이것은 모든 유대인을 가리킨다(이스라엘과 유다가 재연합됨).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라(참조, 창 32:22-32).

▣ “내가 너를...구원하고” 이것은 언약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됨을 나타낸다. 야웨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회복과 평화를 묘사하는 이 두 용어가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태평(BDB 1052), 참조, 46:27; 47:6,7; 48:11; 49:23
2. 안락(BDB 983), 참조, 46:27; 48:11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향하여 항상 가지신 뜻이었다(19 절에 있는 “기쁨”도 그러했다).

30:10-11 야웨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주목하라(10-11 절, 이 내용이 46:27-28 에서 반복된다).

1. 그들을 구원하고 - BDB 446, KB 448, *히필* 분사
2. 그들이 태평을 누릴 것이며 - BDB 1052, KB 1641, *칼* 완료형
3. 그들이 안락을 누릴 것이며 - BDB 983, KB 1374, *팔렐* 완료형
4.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 BDB 353, KB 350, *히필* 분사
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말씀한 내용임, 참조, 1:8,19; 15:20; 20:11;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모든 씨에 대한 내용임)

그러나 언약에 혜택이 따름과 같이, 언약을 불순종함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음도 주목하라.

1.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2.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3.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이것은 같은 어근[BDB 667, KB 729]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참조, 25:29; 49:12)

#### 개역개정 30:12-17

<sup>12</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sup>13</sup>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sup>14</sup>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sup>15</sup>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sup>16</sup>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sup>17</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30:12-17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외국의 이교 민족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당하기에 마땅하였다(참조, 12 절, 14e, f 절, 15c, d 절).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1. 다산의 신들을 예배함
  2. 다른 신들이 관여된 외국과의 동맹을 맺었다
- 그러나, 야웨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실 것이다.
1.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17:10의 설명을 보라)
  2.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병은 죄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임, 참조, 사 1:5-6)
  3.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다
  4. 1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옹호자가 되실 것을 제시한다(BDB 192, 3항, 참조, 5:28; 22:16)

30:12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있는”(BDB 60 I)이라는 단어는 “*에노쉬*”(BDB 60)와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사람의 연약함, 약함, 타락함을 나타낸다. 이 고칠 수 없는 상처(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우상숭배, 참조, 15:18; 30:15; 미 1:9)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 17절에 나온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저 고쳐주심을 말한다. 8:18-22의 공포가 이제 파기 되었다!

30:17 “시온” 예루살렘 성은 일곱 개의 산 위에 건축되었다. 시온 산은 이전에 여부스의 성채가 있던 곳이다.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다. 이 이름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가 되었다(즉, 3:14).

#### 개역개정 30:18-22

<sup>18</sup>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sup>19</sup>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sup>20</sup>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sup>21</sup>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22</sup>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0:18-22 어떤 의미에서 이 단락은 겔 36:27-38 에 나오는 “새 언약”을 반영한다.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22 절에 나타난 언약적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이 시는 신 27-28 장과 비슷하며 ‘축복의 단락’이라는 역할을 한다. 야웨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1. 내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18b 절
2.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라
  - ㄱ. 거처들에, 18c 절
  - ㄴ. 성읍에, 18d 절
  - ㄷ. 왕궁에, 18e 절
3.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 참조, 창 15:2-5), 19c 절
4.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19d 절
5.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참조, 12-17 절)
6. 내가 그들의 지도자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제사장적 표현), 21 절
7. 언약적 용어, 22 절(참조, 31:1)

새 날이 이르렀다! 언약의 혜택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순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야웨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재확립되었다(참조, 31:31-34, 특히, 겔 36:22-38).

30:18 “야곱 장막” 이것은 가족적 단위를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구이다.

▣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이것은 텔(BDB 1068, 참조, 수 11:18)이라는 히브리 단어로서, 파괴된 고대 성읍의 언덕을 가리키는 현대의 고고학적 용어이다. 이 문장은 예루살렘(즉, 그 성과 성전)이 같은 장소 위에 재건될 것을 시사한다.

30:19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피조세계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참조, 7:34; 31:12-13; 33:11).

30:20 “그(문자적으로,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이것은 제사장적 용어이다(즉, 성전에서 야웨께 나아감). 언약백성(구약, 출 19:5-6; 신약, 벰전 2:5,9; 계 1:6; 20:6)은 메시아와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했다. 메시아께서는 다음과 같은 분이시다

1.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 사 53 장
2. 이상적인 제사장, 21 절; 시 110:1-3; 슥 3:8; 4:11-14; 6:13

이 단락은 스룹바벨(유다의 방백)과 여호수아(마지막 대제사장의 자손)에게 주신 “다중적 성취”를 가지는 예언에 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사장이며 왕이시다(참조, 신약의 히브리서)!

30:21

NASB “지도자”  
 NKJV “총독”  
 NRSV, TEV, NJB “왕자”  
 JPSOA “족장”  
 REB “통치자”

이 용어(BDB 12, KB 13)는 ‘회복의 새 날에 있을 회중’의 지도자에 대한 묘사이다. 이것은 “통치자”(BDB 605)와 평행을 이룬다.

이 용어는 예레미야서에서 지도자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두 번 더 사용되었다.

1. 14:3 - 귀족들
2. 25:34-36 - 목자들/주인들

이 문맥이 제사장적 요소를 가지는 사실은 이것이 메시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을 나타낸다

1. 다윗과 같은 - 창 49 장
2. 제사장인 - 시 110:1-3; 슥 3:8; 4:11-14; 6:13

사해사본의 공동체에서는 두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유다 지파에서 오는 메시아와 레위 지파에서 오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셨다(참조, 히 1:3; 2:17; 3:1; 4:14-15; 5:5,10; 6:20; 7:26,28; 8:1,3; 9:11; 10:21). 그는 대제사장이며 최고의 희생제물이시다!

▣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것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로서, 제사장과 관련된 표현이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를 고려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를 가리킨다(메시아는 제사장이며 왕이시다, 참조, 시 110:1-3; 슥 3:8; 4:11-14; 6:13; 히 1:2-3).

개역개정 30:23-24

<sup>23</sup> 보라 여호와와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sup>24</sup> 여호와와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0:23-24 이 두절은 23:19-20 과 거의 똑같다. 예레미야의 시가 후에 편집/편찬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는 같은 표현을 여러 시에서 사용하였다.

▣ “여호와와 노여움... 폭풍과 회오리바람” 이 신인동형적 표현들은(1:9의 특별주제를 보라) 모두 평행적인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커다란 구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참조, 24 절, 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레미야 3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위로의 책 (30:1-31:40)	이스라엘의 귀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30:1-31:22)
31:1-6 (2-6)	31:1  31:2 (2)  31:3-6 (3-6)	31:1-6 (2-6)	31:1-9	31:1-6 (2-6)
31:7-9 (7-9)	31:7-9 (7-9)	31:7-9 (7-9)	(7-9)	31:7 (7)  31:8-9 (8-9)
31:10-14 (10-14)	31:10-12 (10-12)  31:13-14 (13-14)  에브라임에 대한 자비	31:10-14 (10-14)	31:10-14 (10-14)	31:10-14 (10-14)
31:15-20 (15-20)	31:15 (15)  31:16-17 (16-17)  31:18-20 (18-20)  31:21-22 (21-22)	31:15-17 (15-17)	31:15-17 (15-17)  31:18-19 (18-19)  31:20-22 (20-22)	31:15-20 (15-20)
31:21-22 (21-22)	유다의 미래적 번영	31:21-22 (21-22)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적 번영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
31:23-26 (23c)	31:23-30	31:23-30 (23c)	31:23-30 (23c)	31:23 (23c)
31:24-25 (25)		(25)		31:24-25
31:26 (26)				31:26 (26)
새 언약				이스라엘과 유다

31:27-30	31:27-30	31:27-30	31:27-30	31:27-30
	새 언약			개인별 응징
(29)	(29)	(29)	(29)	31:29-30 (29)
				새언약
31:31-34	31:31-34	31:31-34	31:31-37 (35-37)	31:31-34
				이스라엘이 건될 것이다
31:35-37 (35-37)	31:35 (35)	31:35-36 (35-36)		31:35-37 (35-37)
	31:36 (36)			
	31:37 (37)	31:37 (37)		크게 재건된 예루살렘
31:38-40	31:38-40	31:38-40	31:38-40	31:38-4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여러 연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문맥에서 기록되었다. 이스라엘(북쪽의 열 지파)과 유다(남쪽의 세 지파)에 대한 혼합적인 언급이 들어 있다. 이 장에 있는 각 시는 이 두 왕국의 회복을 강조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 다음 사항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여 보라

1. 연합된 아브라함의 씨
  - ㄱ. 1,2 절(즉, 출애굽)
  - ㄴ. 4,21 절(“처녀 이스라엘아”)
  - ㄷ. 7 절(“야곱을 위하여 . . . 이스라엘의 남은 자”)

- ㄹ. 27 절(“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 ㄱ. 33 절(“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 2. 이스라엘
  - ㄱ. 5 절(“사마리아 산들에”)
  - ㄴ. 6 절(“에브라임 산”)
  - ㄷ. 9 절(“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 ㄹ. 15 절(“라마 . . .라헬”)
  - ㅁ. 18,20 절(“에브라임”)
- 3. 유다
  - ㄱ. 12 절(“시온의 높은 곳에서”)
  - ㄴ. 14 절(“제사장들”)
  - ㄷ. 23 절(“유다 땅”)
  - ㄹ. 23 절(“거룩한 산”)

다. “새 언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과 회개에 근거하여 야웨와 바른 관계를 누리는 새 길’을 제시한다. 순종은 그것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관계의 증거이다(참조, 엡 2:8-9,10).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었다. 대속적인 속죄가 거저로, 완전히 누리는 구원의 새로운 원리가 되었다(참조, 사 53 장; 마 10:45; 고후 5:21).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이룬다(참조, 엡 1:4).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1:1-6

<sup>1</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sup>2</sup>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sup>3</sup>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sup>4</sup>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sup>5</sup>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sup>6</sup>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31:1 “그 때에” 이것은 30:23-24 혹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을 가리킨다(즉, 30:1-24).

▣ 언약적 용어(참조, 30:22) 및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함(참조, 창 17:7-8)을 주목하라. 이 언약적 용어는 레 26:12; 램 7:23; 11:4; 24:7; 30:22; 31:33; 32:38 에서 나타난다.

31:2 이것은 “광야 방랑시기”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안식을 얻게 하러 가다”(BDB 921, KB 1188, 칼 부정사 연계형)라는 동사는 평화와 야웨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출 33:14 과 신 28:65 에서는 다른 단어(BDB 628)가 사용되었지만, 똑같은 신학적 개념을 가진다(참조, 호 2:14).

▣ “칼” 아람어 탈굼에는 “이집트의 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칼”은 전쟁보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 단락은 광야 방랑시기에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

31:3 “나에게” MT 에서는 “나에게”로 되어 있다(참조, NKJV, NJB). LXX 에서는 “그에게”로 되어 있다(참조, NRSV). 이것은 야곱/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신 4:37; 7:8).

▣ “너를 사랑하기에 . . .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두 동사가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너”라는 단어는 집합적 의미를 가지는 여성 단수(2 회)이다

1. 4 절의 문맥이 민족적 갱신과 회복을 나타냄
2. 집합적 여성 단수가 계속됨

▣ “영원한 사랑 . . . 인자함” 이것은 언약적 용어이며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의 자녀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1. 영원한 사랑 - BDB 12 와 761 의 합성,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인자함 - BDB 338, 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31:4 4-5 절에서 제시하는 바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빼앗겼던 바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이다.

▣ “처녀 이스라엘아” 이 구는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21 절; 14:17; 18:13; 46:11; 암 5:2).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간음을 행하였다(참조, 22b 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신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야곱을 가리키는 말
2.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
3. 북쪽의 열 지파를 가리키는 말(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로도 불림)

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31:5 “사마리아 산들” 이곳은 오므리가 건축한 북왕국의 수도였다. 5-6 절은 북쪽 지파의 땅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다.

▣ “열매를 따기 시작하라” 이 동사(BDB 320, KB 319, *피엘* 완료형)는 문자적으로는 “더럽히다”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구약의 관습을 가리킨다(참조, 레 19:23-25; 신 20:6). 여기서 “더럽히다”는 “평범하게 먹는 일에 사용하다”를 뜻한다. 처음 4 년 동안 맺은 과일 및 그 후 매년의 첫 열매는 상징적으로 야웨께 드려졌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의 주인되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이 구는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긴 기간 동안의 평화와 번영을 가리킨다(참조, 신 28 장).

31:6 “에브라임” 이것은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미 앗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린 북쪽의 열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다(주전 722 년).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왕국이 주전 922 년에 분열된 이후에, 이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1. 이스라엘(집합적 용어)
2. 사마리아(그들의 수도)
3. 에브라임(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이 야웨를 예배하러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로보암 I 세는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들”을 세웠다(즉, 야웨의 성전에 대응하는 장소로서). 그곳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개역개정 31:7-9**

<sup>7</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sup>8</sup>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sup>9</sup>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31:7 7-9 절은 새로운 시/연이다. 재연합된 언약백성(이스라엘/야곱)을 향한 야웨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련의 명령을 사용하였다.

1. 기뻐하라 - BDB 943, KB 1247, *칼* 명령
2. 외치라 - BDB 843, KB 1007, *칼* 명령
3. 너희는 전파하라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
4. 찬양하라 - BDB 237, KB 248, *피엘* 명령
5. 말하라 - BDB 55, KB 65, *칼* 명령
6. 구원하소서 - BDB 446, KB 448, *히필* 명령(이것은 큰 소리로 야웨께 드리는 기도이다. LXX 는 명령어를 선언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제시한다. 즉, 이 단어를 다른 명령어들의 목적으로 만들었다)

■	
NASB	“나라들의 지도자들”
NKJV, NRSV, NJB	“나라들의 지도자”
TEV	“나라들의 가장 위대한 자”
JPSOA	“나라들의 교차로들에서”

REB  
LXX

“나라들을 인도하라”  
“나라들의 머리”

이 표현은 (1) 이스라엘이 야웨의 장자됨을 말하는 출 4:22; 시 2:7 또는 (2) 다윗을 “나라들의 머리”로 부르는 시 18:42 과 관련을 가진다. 앞의 두 가지 내용이 시 89:27 에서 하나로 결합되었다. 신 28:13 에서는 이스라엘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고 부르는데, 이 본문도 같은 표현에 속한다(참조, 사 61:9). 이 표현은 온 땅에 대한 야웨의 계획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참조, 신 26:19)이 중심적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문맥에서, 이 구는 2b 절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과 평행을 이룬다. 5: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레미야는 이 용어(BDB 984)를 23 회 사용하였다.

31:8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이것은 주전 722 년에 북왕국이 앓시리아에게 잡혀가 버린 일을 가리킨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육로는 북쪽뿐이었다. 아라비아 사막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쪽이 침략을 상징하였는데, 여기서는 소망과 회복을 상징한다.

▣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묘사를 주목하여 보라.

1. 땅 끝에서부터(참조, 사 43:6)
2. 맹인(참조, 사 42:16)
3. 다리 저는 사람(참조, 미 4:6; 습 3:19)
4. 잉태한 여인
5. 해산하는 여인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힘센 중년의 사람들만 잡혀갔다. 어리고, 늙고, 병들고, 약한 자들 및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31:9 “울며 . . . 간구할 때에” 19 절은 돌아온 자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참조, 7c,9b 절; 신 30:6). 습 12:10 에서는 이 모습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을 것’에 대하여 말한다.

▣ “물 있는 . . . 가게 하리라” 이 표현은 새 시대(참조, 신 28:30)의 풍요를 나타낸다. 사막이 “물댄 동산”으로 바뀐다(참조, 12 절; 사 58:11).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표현이다(참조, 35:7-8; 41:17-20; 43:19-20; 49:10-11)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즉, 고속도로)이 쉬우며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새로운 출애굽과 광야시기가 시작되었다.

▣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탄하고 쉬울 것이다. 야웨께서 길(물리적 및 영적)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길을 “거룩함의 길”로 부른다(참조, 35:8; 40:3; 49:11; 57:14; 62:10).

▣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의 “아버지”(3:4 의 특별주제를 보라)로 불리신다. 하나님께서는 11:15 에서 그들의 남편으로 불리신다(참조, 호 1-3 장).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친밀한 가족적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호 1-3 장, 11 장).

이 장(여러 시기에 걸쳐 기록된 예레미야의 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에서 이 용어가 북쪽의 10 지파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문맥적 통찰, 나향을 보라).

개역개정 31:10-14

- 10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홀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 11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 13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 14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이 연은 포로들이 즐겁게 귀향함을 묘사한다. 두 가지 신학적 진리가 제시된다.

- 1. 그들의 죄를 인하여 야웨께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다. 그가 그들을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9 절)
- 2. 야웨께서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다(참조, 10 절; 신 32:8). 이교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이 아니라, 야웨께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31:10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

- 1. 듣고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 2. 전파하여- BDB 616, KB 665, 히필 명령
- 3. 이르라- BDB 55, KB 65, 칼 명령

민족들이 회복에 대한 야웨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공급하심! 야웨께서 ‘아담의 자손에게 알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1:5의 특별주제를 보라) 및 창 12:3의 진정한 의미이다!

▣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호칭이다(참조, 시 23 편; 사 40:11; 겔 34:11-14,31). 이 호칭을 예수께서 요 10장에서 사용하셨다(참조, 겔 34:23; 미 5:4). 구약에서 야웨께 사용한 호칭을 예수께 사용하는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법이었다.

- 1. 구약에 나오는 야웨의 호칭을 예수께 사용하여
- 2. 구약에 나오는 야웨의 행하심을 예수께 사용하여
- 3.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사 혹은 전치사의 이중 목적으로 취하는 문법적 구문으로써
- 4. 분명한 진술로써(참조, 요 1:1; 5:18; 8:58; 10:30; 14:9; 17:11; 20:24; 롬 9:5; 히 1:8; 벧후 1:1)

31:11 “구원하시되...속량하셨으니” 이 두 용어는 평행을 이룬다. 둘 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15:21의 특별주제를 보라.

1. 구원하다 - BDB 804, KB 911, 칼 완료형, 15:21; 호 13:14; 미 6:4; 습 10:8
2. 속량하다 - BDB 145, KB 169, 칼 완료형, 레위기, 롯기, 이사야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됨. 야웨께 대한 호칭으로서 사 41:14; 43:14에서 사용되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곳과 50:34에서만 사용됨

31:12 “시온의 높은 곳에서” 시온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일곱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이다. 시온 산에 다윗이 빼앗은 여부스의 성채가 있었다. 다윗은 이 언덕 위에 자신의 궁궐을 지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높은 곳”이라는 단어는 모리아 산을 가리킬 것이다. 그 산 위에 성전이 재건되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다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된 구이다).

▣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레 26장과 신 28장에 있는 언약적 축복이 주어지고 있으며 확실하다(참조, 5절). 이 절에서 더 이상 포로됨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참조, 사 35:10; 60:20; 65:17-25)! 새 날이 왔다! 이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으로 성취된 일인가? 이러한 회복은 여전히 조건적인가? 새로운 심장과 마음과 영의 새 날이 도래한 것인가? 나는 이 회화적 표현이 복음(시작된 언약)과 종말적 성취(완성된 언약)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31:13-14 기뻐한 사람들을 주목하라.

1. 처녀
2. 청년
3. 노인
4. 제사장들
5. “내 백성”(전체를 가리킴)

12절이 “열방”에 대한 것인데 그들이 이 무리에 포함된다. 13절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사상은 율 2:28-29을 상기시킨다. 이 요엘서의 본문을 ‘사도가 행한 최초의 설교’가 있는 행 2장에서 인용하였다.

31:14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것은 제사제도가 재개됨을 시사한다. 예레미야가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제사만 드리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참조, 레 7:32-36)를 요구하였다.

#### 개역개정 31:15-20

<sup>15</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sup>16</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 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7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8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찢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1:15-22 이 연은 북쪽의 열 지파에 대한 것이다. 그들도 야웨의 회복과 새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왕국이 주전 922년에 분열된 일은 영적 및 물리적으로 슬프고, 파괴적인 일이었다. 모든 선지자들이 북왕국을 정죄하였다. 회복만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다.

31:15 “라마” “높음”(BDB 928)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지명을 뜻하지 않는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심을 이 단어가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MT는 지명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 “라헬” 그녀는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내였고 요셉(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머니임)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다(참조, 창 35:16-18). 랍비들은 주전 722년에 앗시리아로 잡혀간 북쪽의 열 지파가 끌려갈 때 지나간 바로 그 도로 곁에 그녀가 묻혔다라고 말한다.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죽인 일(박사들이 찾은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그가 죽이려고)과 관련하여 마 2:18에서 이 절을 인용하였다.

31:16 라헬이 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31:18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것은 같은 어근(BDB 1033, KB 157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들으신다(참조, 출 3:7).

▣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이것은 호 4:16에서 온 용어이다.

▣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것은 *히필* 명령이다(즉, 야웨께 드리는 기도). 랍비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고 말한다(즉, 렘 31:31-34의 새 언약; 겔 36:22-38에서 설명함).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을 강조하여 말한다. 이것은 17:12-18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반영한다.

31:19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것은 슬픔이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문화적 관용어이다(참조, 겔 21:12).

31:20 이 절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어떤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물음표가 없다(아마 이 질문이 “그렇다”라는 답을 예상한다, LXX, 페쉬타, JPSOA, TEV)
2. 한 질문(NJB, REB, NIV)
3. 두 질문(NASB, NKJV, NRSV)

20 절은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로 야웨를 묘사한다.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참조, 호 11:8-9; 14:4-7).

UBS *예레미야서 핸드북*(641 쪽)은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이 절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진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다. 4:12 에서와 같이, 3:22-25 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이 진술은 평행을 이룬다. 이 두 단어(BDB 430 과 1044)는 야웨의 사랑을 부모의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본문은 출 19:5-6 을 나에게 상기시킨다. 언약백성에게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커다란 재앙이 미쳤다(참조, 겔 36:22-38).

▣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이 히브리 단어를 “그에 대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합하다.

▣ “생각하노라...불쌍히 여기리라” 두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야웨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1.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 BDB 269, KB 269
2.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 BDB 933, KB 1216

**개역개정 31:21-22**

<sup>21</sup>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꾀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sup>22</sup>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 싸리라

31:21-22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사용한 일련의 명령이 나온다.

1.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 BDB 662, KB 714, *히필* 명령
2. 너의 꾀말을 만들고 - BDB 962, KB 1321, *칼* 명령
3.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 BDB 1011, KB 1483, *칼* 명령
4. 돌아오라 - BDB 996, KB 1427, *칼* 명령(2 회). 같은 단어가 “회개”를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됨, 2: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하라.

1. 20 절에서는 에브라임을 “아들,” “자녀”로 일컬음(남성, 참조, 9 절)
2. 20 절에서는 에브라임을 “처녀 이스라엘”로 일컬음(여성, 참조, 4 절)

31:21 “이정표...꽃말” 이 두 용어는 드물게 사용되었다.

1. 이정표 - BDB 846, 대개 무덤을 가리키는 표시임(참조, 왕하 23:17; 겔 39:15)
2. 꽃말 - BDB 1071,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이 절의 3 행에 “고속도로”(BDB 700,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가 있어, 평행을 이루는 처음 두 행이 이 장면과 문맥적으로 일치한다. 포로된 자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길(즉, 우상숭배)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집으로 이끌 길(즉, 회개, 믿음)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그들이 70 년간 포로생활을 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하였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가 포로로 끌려간 여정/길에 표를 해두어라.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되며, 너희가 슬픔으로 표를 해둔 이 표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올 때에 기쁨의 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22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BDB 294)라는 언급은 이사야가 사용한 메시아 시대의 장면과 관련을 가진다(즉, “새 언약,” 31:31-34).

1. 새 일, 사 42:9; 48:6
2. 새 노래, 사 42:10(계 5:9; 14:3)
3. 새 것, 사 43:19(계 3:12)
4. 새 이름, 사 62:2(참조, 사 56:3)
5. 새 하늘과 새 땅, 사 65:17; 66:22(참조, 뱀후 3:13)

또한 겔 11:19; 18:31; 36:26 을 보라(36:22-38 은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한 묘사이다).

창 1:1 에서 사용한 동사(BDB 135, KB 153)를 사용하여,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계획을)시키시는 창조활동을 나타냄을 보라. 창조는 모든 사람과 교제를 가지시기 위함이었다(참조, 창 1:26-27; 3:8).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메시아께서 그들로부터 오실 것인데, 모두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

NASB, NKJV, NRSV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 쌀 것이다”
TEV, NET	“한 남자를 보호하는 한 여자”
NJB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시 찾기 위해 나선다”
JPSOA	“한 여자가 한 남자의 관심을 사려고 한다”
REB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LXX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것이다”
폐쉬타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할 것이다”

이 구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다(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없음을 주목하라).

1. 야웨께 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와진 사랑을 가리킴(BDB 686, 포엘 1 항, 참조, NJB)
2. 여인이 집에 오는 길에 보초를 섬
3. 동정녀 탄생(즉, 제롬, 칼빈)
4. 랍비들은 남자의 모습을 가진 여인은 굳셈과 강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5.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문화적 잠언
6. LXX 에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것이다”로 말한다(즉, 다른 본문을 나타냄)
7. 뒤바뀐 역할(즉, 30:6)에 핵심이 있다면, ‘창 3 장에 나오는 여인의 종속적인 모습이 회복되어 창 1-2 장의 친밀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장에는 모세오경에 대한 수 많은 암시가 있다.



나는 5 항의 설명을 좋아한다. 신 32:10 에서, 광야방랑기에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하기 위하여 바로 이 동사형을 사용하였다.

**개역개정 31:23-26**

<sup>23</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sup>24</sup>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sup>25</sup>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sup>26</sup>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31:23-26 이 단락은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말한다.

1. 유다의 성읍들, 24 절
2. 수도
3. 성전(즉, “거룩한 산”)

MT 에서 24 절은 어려운 본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방랑할 것이다.” 그러나 LXX 에서는 “그리고 그가 양 떼와 더불어 올려진 것이다”로 제시한다. 문맥의 관점은 “농부들”과 “목자들”이 함께 거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사이의 문제에 대한 희미한 암시일 것이다. 새 날에는 직업상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26 절도 어려운 본문이다. 아마 제자리에서 벗어난 내용이거나, 관련을 가지는 사항과 모호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1. 북쪽의 열 지파
2.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TEV)
3.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참조, 30:1)

31:26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것은 (1)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꿈(유대인의 연구성경은 난외주에서 ‘그가 꿈에 창 15:12-21 의 경우처럼 미래의 일을 보았다’고 제시한다, 990 쪽) 또는 (2) 회복된 유다와 관련을 가지는 거주민들의 진술(TEV)이다.

**개역개정 31:27-30**

<sup>27</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sup>28</sup>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sup>29</sup>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sup>30</sup>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27 이 절은 레 26:1-13; 신 28:1-14; 30:1-10 에 있는 “풍요로운 모습”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 짐승, 곡식의 생산성이 회복될 것이다(참조, 켈 36:9,11; 호 2:23).

27,31,38 절을 보라. 모두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메시아의 새 시대, 성령의 새 시대, “새” 시대를 뜻한다(31 절의 설명을 보라).

31:28 이것은 심판과 회복과 관련을 가진 야웨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일련의 부정사 연계형이다. 이 말씀은 1:10 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 예언자적 사명이었다.

31:29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심판하심에 대하여, 부모의 행동을 비난하려는 잠언이다(참조, 겔 18:2; 애 5:7). 겔 18 장은 신 5:9 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다. 가족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각자의 믿음과 순종과 관련이 있다(참조, 30b 절; 신 7:9; 24:16).

**개역개정 31:31-34**

<sup>31</sup>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sup>32</sup>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sup>33</sup>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sup>34</sup>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1:31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장에서 이 표현이 세 가지 시의 서두에 나옴을 주목하라 (27,31,38 절).

“언제 이 새 날이 시작되는가?”가 항상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1.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주전 538 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일(즉, 에스라, 느헤미야, 세스바살, 스룹바벨, 요수아)
2. 그리스도의 생애(참조, 히 8:8-12 에서 이 본문을 인용함)
3. 그리스도의 재림

포로기 이후에 믿음에 따른 새 날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참조, 말라기).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에 기초한 새 언약의 내적인 특성(언약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닌, 참조, 겔 36:22-38)은 나사렛 예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새 언약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 “내가...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유일한 언급이다. 사 55:3 에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제시할 뿐이다(신 18:15-19 에서는 새 선지자와 함께 올 새 언약에 대한 필요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유다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여겼다(참조, 창 17:7,13,19; 레 16:34; 24:8; 민 25:13; 대상 16:17; 시 105:10; 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사 24:5 에서는 이 언약이 깨졌다고 선언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 부르사 출 24:8 에 나오는 모세의 말과 연결시키신다. “언약”에 대하여는 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은 분열된 왕국을 연합시킬 것이다(참조, 1-3,27,33 절). 이 언약은 그 일을 뛰어 넘어, 창 1-2 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회복됨을 가져올 것이다 (참조, 롬 2:28-29; 3:21-31; 9:24-33; 11:11-24,25; 15:7-16; 갈 2 장; 3 장; 엡 2:11-3:13).

31:32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계속성과 비연속성을 나타낸다. 첫 채로, 중요한 언약들을 열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아브라함

2. 모세
3. 다윗
4. 새 언약(즉, 예수, 참조, 히브리서)

영원한 구속적 계획에 관한, 처음 것과 세 번째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번째 것은 그 계획의 성취이다. 여기에 몇 가지 비슷한 점이 나타난다.

1.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으며 그 한도를 정하셨다
2. 인간은 회개, 믿음, 순종, 인내로 응답하여야 한다
3.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합하게 응답하도록 이끄신다(즉, 요 6:44,65)

중요한 차이점은 행위에 근거한 모델이 은혜의 모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낼 자들을 여전히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백성은 모든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참조, 롬 9:4-5)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시작하신다. 이것은 메시아의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여(참조, 사 53 장; 막 10:45; 고후 5:21), 옛 언약을 성취하며 새 심장, 새 마음, 새 영으로 특징되는 새 시대를 시작하게 한다(참조, 겔 36:22-38). 내적인 동기가 외적인 규정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임을 기억하라(즉, 언약적 표현임, 참조, 33d 절; 24:7)! 영원한 구속 목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그들의...손을 잡고”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에 있다(참조, 호 11:1-4,8-9).

▣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것은 유대 민족의 역사 전체를 요약한 말이다(참조, 25:4; 33:8; 갈 3 장; 히브리서).

▣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신다(참조, 호 1-3 장).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31:33 “이스라엘 집” 27,31 절에서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에 통일왕국이 분열된 이후, 북쪽의 열 지파를 가리켰다. 여로보암 I세가 이끄는 북쪽의 열 지파는 다음과 같이 불렸다.

1. 이스라엘(집합적 용어)
2. 사마리아(그들의 수도)
3. 에브라임(가장 큰 지파)

그러나 33 절에서는, 야곱의 후손을 뜻하는 원래의 의미를 가진다. 야곱이란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문맥적 통찰, 나항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것은 신 30:6에 있는 “네 심장에 할례를 행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겔 36:22-38에서 말하는 새 심장, 새 마음, 새 영과 평행을 이룬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낸다.

▣ “그들의 마음에”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참조, 신 6:6; 11:18; 30:14). 4:19의 특별주제를 보라.

창 3장의 타락은 인간의 영적 경향 및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두었다. 이러한 타락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수/행할 수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참조, 신 31:29; 수 24:19). 따라서 야웨께서는 그들에게 새 심장을 주셔야만 했다(참조, 24:7 및 “할례받은 심장,” 신 30:6). 그 때에야 신 6:6; 30:11,14에 있는 성경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 이 새로운 경향과 영적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다음 본문에 나타난다

1. 구약 - 겔 36:22-38
2. 신약 - 산상설교, 마 5-7 장

▣ “기록하여” 야웨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 앞에서 십계명을 기록하셨듯이(참조, 출 31:18; 32:15-16; 34:1,28),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할 것이다. 새 언약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적 법이다! 이 믿음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참조, 레 26:41; 신 10:16; 30:6; 렘 4:4; 9:25-26).

31:34 “이는 . . .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명령법(BDB 353, KB 390, 칼 명령, 이것은 행위의 모델과 관련이 있다, 즉, 구약)과 미완료형 사이의 단어유희를 주목하라. 후자는 새 시대, 새 심장, 새 마음, 새 영과 관련이 있다(즉, 새 언약).

야웨와 그의 모든 백성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친밀함은 창 4:1; 렘 1:5; 9:24 에서 “앎”이라는 히브리 개념으로 예시된다. 1:5 의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것은 율 2:28-29(행 2:27-28 에서 인용함)과 평행을 이루는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것은 렘 6:13; 8:10 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참조, 사 1:18; 38:17; 43:25; 44:22; 겔 18:22; 33:16; 시 103:10-14; 미 7:19)!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개역개정 31:35-37**

<sup>35</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sup>36</sup>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37</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35-37 야웨의 새 언약은 자연계의 정해진 질서(BDB 349)와 순환처럼 안정적이고 영속적이다. 37 절은 부정적인 구문(즉,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진리를 제시한다.

**개역개정 31:38-40**

<sup>38</sup>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땅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39</sup> 측량줄이 곧게 가렷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sup>40</sup>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31:38-40** 이 문단은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회복됨을 선언하고 있다. 성이 재건될 뿐 아니라 확장된다. 이 새 도시(참조, 사 1:26; 45:13; 60:14)는 다음과 같은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1. 뽑히는 일- BDB 684, KB 737, *니팔* 미완료형
2. 전복되는 일- BDB 248, KB 256, *니팔* 미완료형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티투스에 의하여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1.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면을 가진다
2. 이 본문은 계 21:1-21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여기에도 “새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1:40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이 구는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를 가리킨다(참조, 7:31; 19:2,6). 이 골짜기는 게헨나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였다. 4:4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구가 LXX에는 없다. 어떤 학자들은 “골짜기”(BDB 770)라는 단어가 7:31-32 및 19:2,6에서 사용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BDB 161),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뼈와 재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이 예언이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개혁적이었는가?
2. 이것은 성취되었는가? 언제 성취되었는가?
3. 왜 31:30-34이 매우 중요한가?
4. 새 언약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 예레미야 3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간힌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나돏에서 밭을 사다	예레미야가 아나돏에서 땅을 사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다	미래의 번영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밭을 사다
32:1-5	32:1-5	32:1-5	32:1-5	32:1-5
32:6-8	32:6-12	32:6-8	32:6-15	32:6-15
32:9-15	32:13-15	32:9-15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다	예레미야가 이해하려고 기도하다		예레미야의 기도	
32:16-25	32:16-25	32:16-25	32:16-23 32:24-25	32:16-25
32:26-35	32:26-35	32:26-35	32:26-35 희망의 약속	32:26-27 32:28-35
32:36-44	32:36-41 32:42-44	32:36-41 32:42-44	32:36-41 32:42-44	32:36-4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30-33 장은 일반적으로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문학적 단원을 형성한다.
1. 30-31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서술한다
  2. 32-33 장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확실하게 하는 상징적 행위를 제시한다
- 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32 장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안다.
1. 우리는 39:1 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정확한 시기가 시드기야의 제 9 년 10 월에 시작되었음을 안다. 이것은 32 장의 연대가 주전 588 년 또는 587 년임을 뜻한다
  2. 우리는 37:5 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에 온 이집트 군대를 인하여 예루살렘의 포위가 일시 중단되었음을 안다. 그러나 이집트와 바벨론 군대는 결코 싸우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포위가 즉시 재개되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2:1-5

<sup>1</sup>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sup>2</sup>그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sup>3</sup>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32:1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이 해는 주전 587 년이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주전 626-605 년)이 신바벨론 제국의 설립자였다. 앗시리아의 강력한 마지막 왕(앗수르바니팔)이 주전 626 년에 죽었을 때에, 나보폴라살이 반역을 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새 제국을 이루었다. 나보폴라살이 주전 605 년에 죽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II 세(주전 605-562 년)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이 때는 그가 유프라테스의 근원지에서 앗시리아 군대의 잔여 병력과 바로 느고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를 칼케미스에서 성공적으로 물리친 이후였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돌아왔다.

32:2 선지자가 새로 갇힌 장소(참조, 38:13,28; 39:14)는 그에게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가 전에 웅덩이에 갇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였다(참조, 38 장).

32:3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때에, 그 안에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요약이다(참조, 21:3-7; 27:12-15).

32:4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 동사(BDB 678, KB 733, 니팔 미완료형)는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에 의하여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손”이라는 용어는 “권세”를 가리키는 히브리 관용어이다.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갈대아”라는 용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인종적 그룹
2. 언어
3.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에서 온라인에 있는 단 1: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 히브리 관용어는 직접적인 만남을 뜻한다(참조, 39:5). 우리는 왕하 25:4-7 을 통하여, 시드기야가 보는데서 그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 포로로 잡아갔음을 안다.

32:5 “내가 돌볼 때까지” 이 동사(BDB 823, KB 955, 칼 부정사 절대형)는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긍정적 용법과 부정적 용법을 이룬다. 야웨의 “방문”은 야웨의 임재하심을 뜻한다.

1. 긍정적 용법(즉, 돌보다)
  - 15:15
  - 23:2(부정이지만, 행동은 긍정임)
  - 27:22
  - 29:10
  - 룻 1:6
  - 시 65:10; 106:4
2. 부정적 용법(즉, 죽이다)
  - 5:9,29; 6:6,15; 9:9,28; 11:22; 14:10; 21:14; 23:34; 25:12; 27:8; 29:32; 30:20; 32:5; 36:31; 44:13,29; 46:25; 49:8; 50:18,31; 51:44,47,52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의 방백들과 더불어 죽임 당하는 것을 강제로 본 후에, 눈을 잃었다.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의 감옥에서 죽었다(참조, 52:10-11).

**개역개정 32:6-8**

<sup>6</sup>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sup>7</sup>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무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sup>8</sup>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무를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32: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상한 토지매매를 확신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참조, 8 절).

▣ “기업을 무를 권리” 이것은 레 25:25-31 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룻 4:1-12 도 암시한다. 이곳은 종종 고엘의 권리로 불렸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의 친족이 그에게 밭을 살 것을 요구하는 점이 흥미롭다.

1. 예레미야에게 자손이 없었다
2. 그의 가족이 이미 그를 버렸고 일찌기 그를 거부하였다

소망을 주는 이 상징적 행동을 예레미야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욱 임박해질 때, 예레미야의 예언은 회복의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한층 바뀌었다(위로의 책인 30-33 장을 보라).

32:8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예레미야의 사촌이 시위대 뜰(즉, 그가 갇혀있는 장소)에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아나돗에서 왔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포위가



풀어진 상태임을 나타낸다(즉, 이집트 군대가 나타남을 인하여). 어떤 이는 그가 땅을 팔려고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바벨론에게 패하는 명백한 일을 그가 두려워하였다(참조, 25 절)
2. 그에게 큰 빛이 있었다
3. 그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시험해보고 있다
4.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활동의 심리적 동기에 대하여 잘 모른다

▣ “내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때때로 생각한다. 이 본문은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했으며,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100% 확실하게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하여 어떤 교조주의적 가르침도 인정할 수 없다.

**개역개정 32:9-15**

<sup>9</sup>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내에게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되 <sup>10</sup>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sup>11</sup>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때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sup>12</sup>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때매 증서에 인 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때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부치며 <sup>13</sup>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sup>14</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때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sup>15</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32:9 “사는데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되” 13:12의 특별주제를 보라.

32:10-11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 . .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때매 증서” 이것은 고대에 부동산을 사는 법적 과정을 나타낸다. 이 일은 주전 5세기에 속하는 엘리판틴 파피루스에서 나온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이 자료는 이집트의 나일강에 있는 섬에서 발견되었다.

32:12 “바룩” 그는 예레미야의 사적인 개인 비서로 언급되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한 설교와 메시지의 대부분을 편집하였고 기록하였을 것이다.

32:14 “때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서류를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은 고고학적으로 엘리판틴 파피루스 뿐 아니라 사해사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다.

32:15 “집과 밭과 포도원” “포도원”이 특별히 언급된 점이 흥미롭다. 포도원의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수 년이 걸렸다.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회복이 70년 후에 올 것이다.

**개역개정 32:16-25**

<sup>16</sup>내가 때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 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sup>17</sup>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sup>18</sup>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지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sup>19</sup>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우하시나이다 <sup>20</sup>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sup>21</sup>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찢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sup>22</sup>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sup>23</sup>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sup>24</sup>보웁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sup>25</sup>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받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32:16-25**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상징으로써 받을 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락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연이다:

1. 17 절에서부터 선지자가 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2.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상기시킴으로써(참조, 느 9:9-38)

**32:17** 이 절은 창조주이신 야웨께 대한 지속적인 강조점을 나타낸다(즉, 유일신 신앙, 1:5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상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1. 행동을 한다(19 절)
2. 예언을 한다(19 절)
3. 듣는다

그러나 야웨께서는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 “**찢은 팔로**” 이것은 신인동형적 구이다.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유다의 멸망과 재건을 성취하실 수 있음을 주장하는 말이다(참조, 31:28).

“어려운”(BDB 810)이라는 단어에 대하여는 21:5의 특별주제: 놀라운 일을 보라.

**32:18**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는 놀라운 내용이다. 비슷한 본문이 출 34:6-7; 느 9:17; 시 86:15; 103:8; 145:8에 나온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타락한 인간과 교제를 가지시려는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것은 신 5:9과 7:9에 대한 암시이다. 예레미야는 모세의 언약에 따른 선지자로서, 그가 사용한 용어와 신학은 신명기서를 반영한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신 5:9에 비추어 볼 때 삼 사 세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신 7:9에 비추어 볼 때 천 세대에까지 이른다.

죄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이 함께 있다(참조, 겔 18 장). 죄와 믿음은 다 가족을 통하여 흐른다!

▣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사용한 여러 가지 구를 주목하라(1:2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여호와(즉, 야웨), 1,6,17,26,27,28,42,44 절
2. 만군의 여호와, 4,15,18 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즉, 엘로힘), 14,15,25,38 절
4. 주(즉, 야훼), 17,25 절
5.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18 절
6. 모든 육체의 하나님, 27 절(참조, 민 16:22; 27:16)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즉, 야훼와 엘로힘), 36 절

한 가지 특별한 서술적 구는 “내 모든 심장과 내 모든 혼으로”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신체적(신인동형적) 구인가! ‘영원하시며, 항상 계시며,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게 헌신하고 계심을 이 구가 나타낸다.

**32:19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 진리를 렘 17:10 에서도 언급한다 (그곳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둔다(참조, 갈 6:7).

▣ 이것은 행위에 근거한 언약의 명백한 귀결을 나타내는 구약의 본문이다. 신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새로운 관계의 증거가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매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경건한 삶은 새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심장, 새 마음, 새 영으로 인한 자연적인 산물이다. 선행은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입증한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엡 1:4 과 2:8-10 이 도움을 주었다.

**32:20-2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족장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창 15:12-21).

**32:20**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더욱 커다란 관심과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즉, “사람들 가운데,”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참조, 겔 36:22-38),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참조, 창 12:3; 출 19:5; 시 22:27; 66:1-4; 86:9-10; 사 2:2-4; 25:6-9; 42:6-10; 45:22-23; 49:5-6; 51:4-5; 56:7-8; 60:1-3; 66:23; 미 4:1-4; 말 1:11).

▣ 출애굽에 대한 같은 종류의 표현이 신 4:34; 7:19; 26:8 에 나온다.

**32:22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하나의 서술적인 구일 뿐 아니라(참조, 11:5), 앗시리아의 문서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사용한 명칭이다.

**32:23 “그들이 . . .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문제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조건적인 언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조건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였다(즉, 31:32). 따라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폐지(또는 개선)하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실 것임을 나타낸다(31:31-34; 겔 36:22-38).

**32:24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 고대 근동에서는 성벽이 있는 성을 에워싸므로써 양식의 공급을 끊어 함락시켰다. 위험이 닥칠 때, 사람들이 성벽이 있는 성으로 도망쳤다. 따라서 물, 위생, 양식의 보급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적군은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 성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언덕에 나무로 만들고 이동시킬 수 있는 A 자형 공격무기를 설치하였다(참조, 6:6; 33:4; 사 37:33). 그들은 돌이나 벽돌로 된 성벽의 어느 한 쪽을 계속 쳐서 부수기 위하여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 “칼과 기근과 전염병” 14:12 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32:26-35

<sup>26</sup>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27</sup>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sup>28</sup>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sup>29</sup>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sup>30</sup>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31</sup>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sup>32</sup>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sup>33</sup>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sup>34</sup>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sup>35</sup>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중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32:26-44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이 단락은 심판의 여러 측면 및 미래의 소망에 대한 여러 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타낸다.

32:27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예레미야의 신학이 정확한 것이며(즉, 유일신 신앙), 그가 가진 의심은 근거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여 주시는 본문이다.

32:28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32:29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행한 우상숭배를 인하여 불에 탈 것이다(참조, 30 절). 이것은 가나안의 도시들이 정복의 때에 불에 탄 일과 마찬가지로(참조, 신 3:6).

▣ “바알” 바알숭배(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풍요의 남신)는 별신들을 섬긴 것과 다소 관련이 있다(즉, 바벨론 사람들의, 참조, 8:2; 19:13). 2:20의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 신들(각각 이름이 있었고 그것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음)은 정치적인 동맹조약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에 소개되었을 것이다.

32:31 이것은 이상한 절이다! 예루살렘(함축적으로, 성전)이 처음부터 야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 이 진술은 참으로 과장적이다. 그러나 야웨의 백성이 다른 신들(신이 아닌 것들)을 예배함에 대한 야웨의 반응을 명백히 나타낸다.

32:32 왕에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신실하지 않았고 불순종하였으며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야 하는 자들(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32:33-35 이 세 절은 그들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보여준다.

1. 그들이 등을 하나님께로 돌렸다(존경하지 않음, 참조, 18:17; 예배하지 않음, 참조, 2:27)
2.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였다(즉, 예배와 삶에서 드러나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3. 야웨께서(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거듭 말씀하셨다(참조, 비슷한 관용적 진술; 7:13,25; 11:7; 25:3,4; 26:5,19; 또한 호 11:2의 설명을 보라)

4. 그들이 야웨의 말씀을 듣거나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5. 그들이 야웨의 전에 우상을 두었다(참조, 7:30; 왕하 23:4; 대하 33 장; 겔 8 장)
6. 그들이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다(참조, 19:5)
7. 그들이 다산의 신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려 예배하였다(참조, 7:31; 레 18:21; 20:2-5).

**32:34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이것은 성전을 가리킨다(참조, 7:10,11,14,30). 이것은 신명기의 표현을 반영한다: “내가 내 이름을 둘 장소”(참조, 신 12:5,11,14,18,21,26; 14:23,24; 15:20; 16:2,6,11,15; 17:8,10; 18:6; 26:2; 31:11).

더 자세한 내용을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에서 신 12:5 과 26:2 을 보라.

**32:35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이를 희생제물로 죽이는 일은 몰렉을 예배하는 일의 한 부분이였다(참조, 레 13:21; 20:2-5; 신 12:31; 18:10; 왕하 21:1-7). 창 22 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또는 욥 1 장에서 욥의 자녀가 죽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제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어떤 혼동이 있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한 반영이 미 6:7 에 나타난다.

야웨께서는 예배에 대한 이 거짓된 생각을 단호히 강조하며 물리치신다.

“헌놈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31:40 의 설명을 보라(즉, “죽은 자의 몸과 재의 골짜기”).

“가증”에 대하여는 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32:36-44

<sup>36</sup>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sup>37</sup>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sup>38</sup>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sup>39</sup>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sup>40</sup>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sup>41</sup>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sup>42</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sup>43</sup>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을 사되 <sup>44</sup>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겟의 성읍들에 있는 받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36-44** 예언서에서는 많은 경우 심판의 예언에 이어 약속의 예언이 뒤따른다. 심판은 두렵고 마땅하다, 그러나 회복은 영광스러우며 확실하다(즉, 시 103:8-14).

**32:37** 야웨의 자비하심(37c 절)은 죄와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무디게 하지 않는다.

1. 내가 노여움과
2. 분함과
3. 큰 분노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즉, 므낫세가 임종시, 참조, 대하 33:12-13,15-16). 하지만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계속 나타난다.

**32:38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다(참조, 30:22; 33:1). 이것은 항상 야웨의 소원이었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완성될 것이다.

**32: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인간이 새 심장을 만드는 것(겔 18:31)과 하나님께서 새 심장을 주시는 것(겔, 36:26; 렘 31:33)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러한 역설적 관계는 성경(즉, 언약)을 통하여 항상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지만, 인간은 반드시 믿음, 회개, 순종, 인내로써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 3 장의 타락은 인간(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인 경우라 할지라도)이 ‘하나님의 언약적 소망을 성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새 심장, 새 마음, 새 영이 필요하다!

▣ “새 심장”을 인하여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결과를 주목하라.

1. 야웨를 항상 경외함(“두려워 함”)
2.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풍성함/번영/평화가 있음(참조, 41a 절은 열방에 대한 증인이 됨을 말함)
3. 대대로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였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참조, 렘 31:34; 창 1:26-27; 3:8).

눈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새 심장이 없기 때문이다(참조, 마 7:15-27 과 신약의 야고보서, 요한 1 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되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백성을 원하신다. 회심은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참조, 마 13 장). 영생은 눈에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8 의 특별주제를 보라.

**32:40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여기에 나오는 새 용어는 “영원한”이라는 단어이다(참조, 사 55:3; 61:8; 겔 16:60; 37:26).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약간 모호하다(7:7 의 특별주제를 보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안다. 언약에는 항상 조건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지만,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한다.

**32:4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인동형적 구가 사용됨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된다(참조, 호 11:8,9; 렘 8:18-9:16).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회복된/회개하는 유다에 대한 은혜로운 행하심에 야웨께서 헌신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세 가지 구가 나온다.

1. “분명히” - BDB 54,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나의 마음과” -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4:15 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3. “나의 정성을 다하여” - 이것은 인간(창 2:4)과 짐승(창 1:24; 2:19)에 대하여 사용한 용어로서 매우 놀라움을 준다 - 네페쉬(BDB 659, KB 711)

야웨께서 예레미야에게 핵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신체적 용어를 사용하신다.

**32:42**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즉, 우주의 원인자).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 것이라면(1:5 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사용하거나 허용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이 확증하고 있는 바이다. 구약은 제 2 의 원인자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

**32:44** 회복의 약속은 다중적인 성취를 가지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 약속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게 실제적 사건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은 신구약 중간시기 및 로마 시대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듯이 또 다시 깨졌다.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비추어 재해석하여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신약이 계시라면, 우리는 국가에게 주신 약속을 전세계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점은 항상

야웨께서 의도하셨던 바였다(1:5 및 30: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언급한 특별주제들을 보라; 이 특별주제들은 내가 가진 편향성과 기본적 경향을 알게 할 것이다.

# 예레미야 3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약속된 회복	회복된 나라의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 하실 것이다	또 다른 소망의 약속	또 다른 회복의 약속
33:1-9	33:1-3  33:4-9	33:1-9	33:1-9	33:1-9
33:10-11 (11c)	33:10-11 (11c)	33:10-11 (11c)	33:10-11 (11c)	33:10-11
33:12-13	33:12-13	33:12-13	33:12-13	33:12-13
다윗의 왕국				미래의 왕국들
33:14-18	33:14  33:15-18 (15-16)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	33:14-16   33:17-18	33:14-18	33:14-18   (15-16)
33:19-22	33:19-22	33:19-22	33:19-22	33:19-22
33:23-26	33:23-24  33:25-26	33:23-26	33:23-26	33:23-2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33:1-9

<sup>1</sup>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sup>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sup>3</sup>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sup>4</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sup>5</sup>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sup>6</sup>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sup>7</sup>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sup>8</sup>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sup>9</sup>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33:1 이것은 32 장과 33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30-33 장은 위로의 책임).

33:2 이것은 야웨를 창조주로서 말하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1. 처음 동사인 “만들다”(BDB 793, KB 889, 칼 능동 분사)는 “창조하다”(BDB 135, KB 153, 참조, 창 1:1)와 평행을 이루는 단어이다. 이것은 1:7,16,25; 3:1 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야웨께서 땅(LXX)을 만드셨다. 이 단어는 MT 에서 대명사인 “그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가리킬 수 있다(JPSOA).
2. 두 번째 동사인 “조성하다”(BDB 427, KB 428, 칼 능동 분사)는 종종 야웨를 창조주로서 나타낸다
  - ㄱ. 아담 - 창 2:7,8
  - ㄴ. 이스라엘을 언약의 민족으로 - 사 27:11; 43:1,21; 44:21; 45:9,11; 64:7
  - ㄷ. 예레미야 - 램 1:5
3. 세 번째 동사인 “성취하다”(BDB 465, KB 464, *히*필 부정사 연계형)는 확립된 자연 질서(램 31:35-37), 또는 야웨께서 지혜로 세상을 만드심을 가리킨다(램 10:12).
4. 이 세 동사가 모두 사 45:18 에 나온다.

▣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야웨라는 “이름”

야웨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이름”의 사용은 출 23:20-33 과 평행을 이룬다. 그 본문에서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불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대치는 “그의 영광”(예, 요 1:14; 17:22)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여진다. 이 모든 경우는 야웨의 직접적이고 신인동형적 임재하심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3:13-16; 6:3). 분명히 야웨께서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지만, 야웨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그의 창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참조, 왕상 8:27; 시 139:7-16; 램 23:24; 행 7:49 은 사 66:1 을 인용함).

“이 이름”이 야웨의 신적 본질과 그의 인격적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가 있다:

1. 신 12:5; 삼하 7:13; 왕상 9:3; 11:36
2. 신 28:58
3. 시 5:11; 7:17; 9:10; 33:21; 68:4; 91:14; 103:1; 105:3; 145:21
4. 사 48:9; 56:6
5. 겔 20:44; 36:21; 39:7
6. 암 2:7
7. 요 17:6,11,26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즉, 예배하는) 개념은 이른 시기에 속하는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1. 4:26, 셋의 가계
2. 12:8, 아브라함
3. 13:4, 아브라함
4. 16:13, 하갈
5. 21:33, 아브라함
6. 26:25,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 5:23,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다
2. 9:16, 온 땅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참조, 롬 9:17)
3. 20:7,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참조, 레 19:12; 신 5:11; 6:13; 10:20)
4. 20:24,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참조, 신 12:5; 26:2)
5. 23:20-21, 천사(“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6. 34:5-7,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또는 “소리쳐 부르다”). 이것은 야웨의 성품을 묘사하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느 9:17; 시 103:8; 율 2:13).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33:12).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33:17에서 볼 때 여호와는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문맥(참조, 18 절)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평행을 이루는(19 절) “자신의 선하심”을 보도록 허락하신다(19 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의 “이름”을 파괴해야 하고(참조, 신 12:3)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장소(참조, 출 20:24; 신 12:5,11,21; 14:23,24; 16:2,6, 11; 26:2)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참조, 신 6:13; 10:20; 26:2).

야웨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1. 창 12:3
2. 출 9:16
3. 출 19: 5-6
4. 신 28:10,58
5. 미 4:1-5

### 특별주제: 주님의 이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심과 역동적 능력을 교회에 나타내심을 표현하는 신약의 중요한 구이다. 이것은 마술적인 주문의 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함을 나타낸다.

이 구는 종종 예수를 주님으로 나타낸다(참조, 빌 2:11)

1. 침례(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참조, 롬 10:9-13; 행 2:38; 8:12,16; 10:48; 19:5; 22:16; 고전 1:13,15; 약 2:7)
2. 귀신을 내어쫓을 때(참조, 7:22; 막 9:38; 눅 9:49; 10:17; 행 19:13)
3. 병을 고칠 때(참조, 행 3:6,16; 4:10; 9:34; 약 5:14)
4. 사역을 할 때(참조, 마 10:42; 18:5; 눅 9:48)
5.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때(참조, 마 18:15-20)
6.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행할 때(참조, 눅 24:47; 행 9:15; 15:17; 롬 1:5)
7. 기도를 할 때(참조, 요 14:13-14; 15:2,16; 16:23; 고전 1:2)
8. 기독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참조, 행 26:9; 고전 1:10; 딤후 2:19; 약 2:7; 벧전 4:14)

우리가 설교가, 사역자, 돕는 자, 병고치는 자, 귀신쫓아내는 자 등 무엇으로 일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행한다!

**33:3** 성경적인 믿음과 언약적 믿음의 개인적 요소를 주목하라. 동사의 형태를 주목하라.

1. “내게 부르짖으라” - BDB 894, KB 1128, 칼 명령, 단수, 참조, 29:12
  - ㄱ. 예레미야
  - ㄴ. 하나님의 백성 모두
2.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 BDB 772, KB 851,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네게 보이겠다” - BDB 1, KB 1, *히* 11 청유형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갱신된 언약의 표이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

▣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큰”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미치지 못하는”(BDB 130)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종종 산성을 공격하는 것을 나타내었다(참조, 15:20; 52:7; 대하 32:1).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내가 알지 못하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참조, 사 48:6).

**33:4** 예루살렘 성 안의 건물들(왕과 백성의)을 헐어내어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1. 강화하고 보강하다
2. 바벨론의 공성 기구에 의해 손상당한 부분을 채워 넣기(즉, 줄 및 통나무와 연결된 A 형 구조물)
3. 공성기구를 사용하여 성 밖으로 돌을 날려 보내기

5 절에서는, 야웨께서 ‘공성기구로 생긴 구덩이를 죽은 시신으로 채워넣게 허용하시’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하심을 나타내신다! JPSOA 와 AB 는 4 절의 끝 부분과 5 절의 앞 부분에 모호성과 불확실한 면이 있음을 주장한다.

JPSOA 역은 다음과 같다: “[방어]를 위하여 성을 에워싸 만든 언덕에 대항하고 칼을 대항하여, 그리고 갈대아인과 싸우러 간 자들로 채워지고”(995 쪽).

AB 역은 이 부분을 ‘두 개의 빈 괄호로 이루어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292 쪽).

▣ “칼을 대항하여” 이것은 불확실한 히브리 용어이다(BDB 352, KB 349). JPSOA 는 4c-5a 가 모호하다고 설명한다. 70 인역은 이 부분을 “성채들”로 번역하였다(참조, 사 22:10).

33:5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헐어낸 집들이 있던 공간은 죽임을 당한 군인들과/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시민들의 시신을 묻는 장소가 되었다.

▣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의 우상숭배 및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일, 또는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은 일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게 하였다(즉, 그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심). 이러한 일은 신 31:17 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예언서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다.

1. 사 1:15; 8:17; 45:15; 54:8; 59:2
2. 렘 21:10; 44:11
3. 암 9:4
4. 미 3:4

죄로 인하여 아담, 하와, 가인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33:6-9 3 절의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하여 6-9 절에서 설명한다. 30-33 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다.

야웨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주목하라.

1. 치료하며(BDB 74) 고쳐 낮게 하신다(BDB 951), 참조, 8:22; 30:17(8:15; 14:19 의 반대임)
2. 평안을 나타내실 것이다(BDB 1027, 아마 “번영”을 뜻함)
3. 진실을 나타내실 것이다(BDB 54, 아마 “안전함”을 뜻함)
4. 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5.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어떤 LXX 사본들에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제시함, 그러나 예레미야는 재연합됨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한다, 참조, 3:18; 30:3; 31:27; 33:11,14,17; 또한 24 절도)
6.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즉,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심)
7. 그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6 항과 7 항은 31:31-34 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일부분임)
8.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1-7 항은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9. 회복된 언약백성이 열방에게 빛이 되는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된다(9 절; 3:17,19; 4:2; 16:19)

33:8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심을 확인하시는 놀라운 본문이다. 이것은 새 언약(참조, 렘 31:31-34)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죄를 뜻하는 세 히브리 단어가 모두 이 절에 나온다(이 용어들은 시 51 편에서도 함께 나온다).

1. 죄악 - BDB 730, KB 800
2. 죄 - BDB 306, KB 305(2 회), 칼 완료형
3. 범죄 - BDB 833, KB 981, 칼 완료형, “반역”으로도 번역됨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통하여 계시하신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BDB 372, KB 369, *피엘* 완료형) 용서하실 것(BDB 699, KB 757, *칼* 완료형)을 단언하여 말씀하신다. “용서함”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항상 가리킨다.

33:1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여야만 한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참조, 겔 36:22-38)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참조 레 26:2-13; 신 28:1-6; 30:1-20).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을 인하여 열방에 드리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참조, 출 19:5-6, 벧전 2:5,9; 계 1:6 에서 이 구가 사용된 것을 보라) 온 세상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셨다(참조, 3:17,19; 4:2; 16:19). 내 견해로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참조, 마 28:18-20; 눅 24:47; 행 1:8).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른 씨가 받았던 축복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참조, 롬 2:28-29)에게 명백히 합당하다’는 경고를 똑같이 받고 있다(참조, 롬 11:18-22; 약 2:14-26). 2:19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3:10-11**

<sup>10</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10-11** 10 절과 11 절이 얼마나 큰 대조를 나타내는지! 10 절은 예루살렘/유다가 파괴되어 포로됨의 비극을 말한다.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과 양 떼가 다 사라져 버렸다! 내가 부연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축들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들짐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 들짐승들은 종종 귀신이 거함을 나타내었다(참조, 9:11; 10:22; 사 13:22; 34:11-15; 습 2:14).

11 절은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다(즉, 결혼, 축제). 이러한 기쁨을 가지는 이유는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즉, 성전). 기쁨이라는 주제는 예언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즉, 31:12; 사 12:1-6; 25:9; 35:10; 51:3,11; 65:18; 66:10; 습 2:6-7). 새 언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새 날이 오고 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음을 가리킨다(참조, 엡 2:8-10).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한다(참조, 15 절).

기쁨의 소리(감사하라는 명령, BDB 392, KB 389, *히*필 명령)는 시 106:1; 107:1; 118:1; 136:1 에서도 나온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시/잠언/예식적 확인임에 틀림이 없다!

**개역개정 33:12-13**

<sup>12</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늙게 할 것이라 <sup>13</sup>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겟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33:12-13** 이 연은 10-11 절을 더욱 설명한다.

**33:13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것은 목자가 매일 행하는 일을 가리킨다(참조, 레 27:31; 이 회화적 표현은 요 10:1-18 의 배경이 된다).

1. 모든 양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 십일조를 드리기 위하여 양 떼를 세는 방법

3. 아람어 탈군은 이 행동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개역개정 33:14-18

<sup>14</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sup>15</sup>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sup>16</sup>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sup>17</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sup>18</sup>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3:14-16** 이 본문은 LXX 에는 없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33 장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렘 23:5-6 에 나오는 같은 진리가 발전되고 반복된 까닭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이 것은 LXX 의 특징을 이룬다; 23:5-6 에 대한 설명을 보라). 그러나 이 본문은 메시아께서 미래에 성취하실일에 대한 놀라운 본문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땅으로 오는 일 뿐 아니라 다윗의 씨가 회복됨과 회복된 성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다.

R. K 해리슨은 내가 좋아하는 저자이다. 그는 예레미야 주석(틴데일 시리즈)에서 예레미야가 ‘오실 다윗의 씨/메시아’에 대하여 사용한 모든 종류의 설명적인 호칭과 구를 제시한다(144 쪽).

1. 생수의 근원, 2:13; 17:13
2. 선한 목자, 23:4; 31:10(3:15 복수형)
3. 의로운 가지, 3:15; 23:5
4. 구속자, 50:34
5. 여호와 우리의 의, 23:6; 33:16
6. 다윗 왕, 30:9
7. 새 언약의 대리인, 31:31-34

**33:15 “그 날 그 때에”** 이것은 미래의 어떤 때를 가리킨다. 30-33 장에는 이 구 및 이와 비슷한 구가 자주 사용되었다.

1. 30:3,24
2. 31:27,29,31,33,38
3. 32:14
4. 33:14,15,16

그 때가 정확히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새 언약의 시기”이기에, 기독교 학자들은 신약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이 포로기 이후(즉, 스킴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믿는다. 만일 이것이 포로기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만일...그 때에는”이라는 구조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일 것이다(즉, 미래에 셀루시드와 로마에게 패함). 여기서 배후에 있는 이야기는 이 본문이 특별한 세계관에 대한 것임을 제시한다. 내가 가진 편향에 대하여는, 1:5 에 있는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것은 23:5-6 과 30:9 에서 사용한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 표현과 같은 내용이다. 이것은 즐겨 사용된 표현이다

1. 이사야, 참조, 4:2; 7:5; 45:24-25; 또한 11:1-5 도 참고하라
2. 스가랴, 참조, 3:8; 6:12,13

**33:16 “여호와와 우리의 의”** 메시아에 대한 이 호칭(참조, 23:6)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옮겨져 사용된다(참조, 31:31-34).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려지고 도울 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히브리 백성은 이름을 바꾸는 일을 생애의 커다란 사건으로 여겼다(참조, 창 32:28). 중요하고 영속적인 변화가 이 호칭으로 불리는 민족에게 일어났다(또한 21:23 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용한 호칭을 참고하라).

**33: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삼하 7:11-16; 23:5 의 예언을 일컫는다(참조, 시 89:30-37). 한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다윗의 씨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안다. 이 단락이 명백히 메시아를 드러내지만(즉, 다윗의 자손인 예수, 마 1 장; 눅 2 장), 어떤 이는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참조, 슄 4:6-10; 6:12) 다윗의 가지인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말한다(즉, 왕자, 아마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동일인이나 친척일 것이다, 참조, 스 1:8; 5:14).

**33:18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위 제사장이 새롭게 됨을 말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됨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셨기 때문에(참조, 히 1:2-3), 이 본문은 문자적인 성취가 아니라 영적인 약속에 대한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를 제사장과 왕으로 말한다(참조, 시 110:1-3[왕], 또한 4 절[제사장]; 스룹바벨[왕]과 여호수아[제사장], 참조, 슄 4 장, 특히 14 절; 6:9-15).

창 14:17-24 에 나오는 벨기세텍이 살렘의 왕과 제사장이었음을 기억하라.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특히 5-7 장)는 메시아의 두 가지 역할(제사장/왕)이 그에게서 미리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사장/왕이라는 이 형태가 시 110 편과 슄 3-4 장에서 계시되었다. 사해사본의 공동체는 두 메시아를 기다렸다: 한 명은 유다 지파에서(창 49:8-12), 또 한 명은 레위 지파에서.

**개역개정 33:1**

<sup>19</sup>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0</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sup>21</sup>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sup>22</sup>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33:19-22** 이 연은 자연의 질서와 순환이 영속적이듯이 새 언약도 영속적인 것임을 주장한다(참조, 31:35-37). 서구의 과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지는 규칙성을 전제로 하여 발달되었다(참조, 25 절; 창 8:22; 시 74:16-17; 89:36-37).

**33:22 “셀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나니”** 이 두 단어는 *니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은유적 표현(즉, 별과 모래)은 족장들에게 그들의 후손의 수가 많을 것에 대한 약속으로써 사용되었다

1. 아브라함 - 창 13:16; 15:5; 22:17
2. 이삭 - 창 26:4
3. 야곱 - 창 28:14; 32:12
4. 그들 모두에게 - 출 32:13

**개역개정 33:23-26**

<sup>23</sup>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4</sup>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sup>25</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sup>26</sup>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33:23-26** 이 연은 19-22 절과 같은 진리를 나타낸다.

그란트 오스본(*해석의 나선*, 216 쪽)은 이 연을 “논쟁의 말”로 부른다(참조, 사 28:14-19; 겔 18:1-20). 즉 선지자가 적대자들이 한 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죄와 반역을 드러내는 본문이다. 그들이 한 모든 진술에 대하여 선지자가 대답하며, 미래에 있을 일/결과가 계시되었다.

**33:24 “이 백성 . . . 내 백성”** 먼저 나오는 “백성”은 곧 멸망당하게 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회개하는 남은 자(5:10-13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가리킨다. 바로 이들이 미래에 돌아올 것이다.

▣ “두 가계” 이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1. 아브라함 - 창 13:16; 15:5; 22:17
2. 이삭 - 창 26:4
3. 유다 지파(왕)와 레위 지파(제사장) - 참조, 7, 14 절
4. 야곱과 다윗 - 참조, 26 절
5. 다윗과 레위 - 참조, 21 절

**33:26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김”이라는 용어(BDB 933, 참조, 시 103:13; 사 49:15)는 가족적 용어이다. 아무런 방어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언이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목하라-그들이 반드시 회개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된 우상숭배와 형식적 예배로부터 그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심판의 기간이 필요하다.

▣ “돌아오다” MT에서는 “돌아오다”(BDB 996, KB 1427, *칼 미완료형*)이지만, 맛소라 학자들이 “돌아오게 하다”(BDB 996, KB 1427, *히필 미완료형*, 참조, NKJV, NJB)로 제안하고 있다. 두 가지 개념이 29:14에서 함께 나타난다.

“돌아오다”라는 개념이 29:14; 30:3,18; 31:23; 32:44; 33:7,11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 가리킨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개념은 이 대주제 안에 들어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레미야 30-33 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 예레미야의 밭을 산 상징적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3. 고고학은 렘 32 장의 역사성을 입증하는가?
4. 왜 렘 32:8 의 마지막 부분이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가?
5. 바알과 몰렉이라는 우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6. 겔 18:31 에 비추어 볼 때, 렘 32:39 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7. 렘 33:8 에서 죄를 가리키는 세 가지 히브리 단어를 말하고 정의하라.
8. 렘 33:14-18 이 왜 중요한가?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예레미야 3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 경고받은 시드기야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	시드기야에 대한 메시지	시드기야의 운명
34:1-5	34:1-5	34:1-5	34:1-5	34:1-5
34:6-7	34:6-7	34:6-7	34:6-7	34:6-7
	노예에 대한 기만적 행위	노예해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배신	노예를 속이는 행위	해방된 노예에 관한 일화
34:8-11	34:8-11	34:8-22	34:8-11	34:8-16
34:12-16	34:12-16		34:12-22	
34:17-22	34:17-22			34:17-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4:1-5

<sup>1</sup>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2</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sup>3</sup>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sup>4</sup>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sup>5</sup>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34:1 이것은 예레미야

NASB, NKJV, “느부갓네살”

TEV, NJB

NRSV, JPSOA, REB “느부갓레살”

1 항은 “ㄴ”으로 되어있으며 27:6,8,20; 28:3,11,14; 29:1,3 에 나옴(예레미야서가 아닌 곳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철자법임)

1 항은 “ㄹ”로 되어있으며 21:2,7; 22:25; 24:1; 25:21; 32:1,28; 34:1; 35:11; 37:1; 39:1,5,11; 43:10; 44:30 및 기타 다른 몇 곳에서 나옴(그러나 예레미야서 및 에스겔서의 4 곳에서만 이렇게 되어있음)

MT 는 2 항으로 되어 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단어가 나타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고대의 이름을 표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철자법이 한 저자가 기록한 책에 나타나는 점은 이상스럽다. 이 일은 후기의 편집자/편찬자에 있었음을 본문에서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침략군은 (1) 바벨론 사람 (2) 용병 (3) 봉신국가의 백성으로 이루어졌다(참조, 왕하 24:1-2). 이러한 설명 구는 렘 1:15 과 관련을 가진다.

34:2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 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가리킨다.

1. 그의 개인적 운명 및 예루살렘의 운명
2. 야웨 및 자신들의 종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시드기야의 지도자들이 처할 운명

▣ “손” 이것은 “권세”를 가리키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3,21 절; 21:7).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것은

1. 완전한 파멸을 나타내었다(즉, 주민이 거주하지 않음, 참조, 사 34:11-15; 습 2:13-15)
2.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였다(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34:3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가”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 시드기야가 붙잡힌 것을 기록한 구약의 본문이 세 곳이 있다(참조, 39:4-7; 52:7-11; 왕하 25:4-7).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겔 17:11-21). 항복만이 그 도시의 파멸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다.

▣ “반드시 사로잡혀” 이것은 같은 어근(BDB 1074, KB 1179)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서로 직접 대면(참조, 32:4)하였다(문자적으로는 “입에서 입으로,” BDB 804 와 “눈에서 눈으로,” BDB 744).

34:4-5 시드기야는 다음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1. 그의 아들들의 죽음
2. 모든 방백의 죽음(왕족 또는 일반적 의미의 지도자들)
3. 소경이 됨

4. 사슬에 묶여 잡혀감
5.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있는 감옥에 갇힘

그러나 그가 바벨론에서 죽을 즈음에는(참조, 52:11) 유대의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았다.

34:4 이 장에는 두 번 나오는 동사들이 많이 있다.

1. 사로잡히다, 3 절
2. 죽다, 4 절
3. 말하다, 5-6 절
4. 변하다, 11 절
5. 선포하다, 17 절
6. 주다, 17-18 절
7. 지나가다, 18-19 절

“말하다”가 곳곳에서 사용되었다(참조, 1-2,2,12-13 절). 그러나 이 여러 동사를 두 번씩 사용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특징적인 저작 스타일을 이룬다.

34:5 “네게 분향하며”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태운다”라는 동사이다(BDB 976). 언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1) 죽은 왕을 기리며 많은 양의 향을 태우는 일로서, 그를 대신하여 기도함을 상징한다(참조, 대하 16:14; 21:19).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 때 자랑스러웠던 자기들의 조국의 유산’을 추억하는 행위였다. 이 일은 여호야김의 장례식 때와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참조 22:18-19). (2)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비록 “만일...그 때에는”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지만)의 메시지로서, 예레미야가 전한 야웨의 말씀에 시드기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에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4:6-7**

<sup>6</sup>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sup>7</sup>그 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대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34:7 “라기스” 고고학자들이 이 성이 포위되었던 시기에 쓰여진 편지들을 발견하였다(즉, 21 개의 도편에 기록된 라기스 편지). 이 성은 당시의 예루살렘보다 더 컸다. 이 성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6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 “아세가” 이 성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7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이 절은 유대의 다른 성읍들은 이미 다 파괴되었음을 시사한다.

**개역개정 34:8-11**

<sup>8</sup>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sup>9</sup>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sup>10</sup>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sup>11</sup>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34:8-11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가진 죄와 그들이 야웨를 경시하였음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실례를 다룬 문단이다. 야웨를 따르고 또 야웨의 법에 따를 것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서약하였다(즉,

노예/종들을 풀어줌, 참조, 14 절; 출 21:1-11; 레 25:39-55; 신 15:12-18).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철회하였다.

**34:8 “계약”** 이 단어(BDB 136, 참조, 13,15,18; 31:32)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다. 이것의 어원적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질 것이다

1. “자르다,” 참조, 18-19 절
2. “묶다”라는 아카디아어; 3:7
3. “맹세함으로 언약을 세우다”라는 아카디아어
4. “음식을 함께 먹다,” 이 행위는 언약을 공고히 하는 행위임(BDB 136 I, *바라*, 왕상 8:25)

**34:9 “히브리”** 이 단어(BDB 720 I, 참조, 창 14:13; 39:14,27)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즉, 구약 전체에서 34 회만 사용됨). 이것은 유대인의 유목적 배경을 나타낸다(BDB 397 I, 유다라는 명사에서 나온 형용사, 참조, 32:12; 38:19; 40:11,12; 41:3,19; 44:1; 52:28,30). 또 이 단어는 종종 인종적 면보다는 종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다.

**34:10-11** 예레미야의 시에는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다음 사항을 주목하라

1. 듣다, 10 절 - *שמע*(2 회)
2. 보내다, 10,11 절 - *שלח*(2 회)
3. 바꾸다, 11 절 - *שבו*(2 회)

9 절로 돌아가면, 9-11 절에서 ‘ש’(ש)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8 개 있음을 알게 된다.

**34:11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렘 37:7-10; 34:21-22 은 이집트의 군대로 인하여 포위에서 잠시 풀려났었음을 알려준다.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인 남녀가 자기 자신을 6 년의 한도 안에서 증으로 팔 수 있게 허용한다. 6 년 동안 일한 후에는 풀어 주어야 했다(참조, 출 23:10-11; 21:2-11; 레 25:39-46; 신 15:1,12-18). 성의 부자들은 하나님께 감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조약에 맹세하였다. 하지만 포위에서 풀려나자 그들은 약속을 어겼다!

#### 개역개정 34:12-16

<sup>12</sup>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13</sup>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sup>14</sup>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칠 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sup>15</sup>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sup>16</sup>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34:14 “칠 년 되는 해에”** LXX 에는 “육년”으로 되어 있다. 이 구의 의미는 “7 년이 시작될 때에”를 가리킨다. 이것은 고대의 규정을 가리킨다(참조, 출 21:2-11; 레 25:39-46; 신 15:1,12-18).

▣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같이 ‘듣거나 순종하지 않으려 함’을 7:24-26; 17:23; 19:15 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반복하여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1. “순종하다” - BDB 1033, KB 1570, *칼* 완료형, 문자적으로 “듣다”(쉐마, 참조, 신 6:4)
2. “귀 기울이다” - BDB 639, KB 692, *히필* 완료형, 참조, 수 24:23; 시 119:36

34:15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이 신명기적 언어는 성전을 가리킨다.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위치할 것이다(참조, 7:10-11,14,30; 32:34).

성전을 “집”으로 부르는 것은 삼하 7:2,13,16 에 나오는 언어유희이다.

34:16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 어근(BDB 320 III, KB 319, *피엘* 미완료형)은 “오염시키다,” “더럽게 하다,” 또는 “신성을 더럽히다”를 뜻한다(참조, 레 18:21; 19:12; 20:3; 21:6; 22:2,32; 겔 20:39; 36:20-23; 암 2:7; 말 1:12; 2:10).

#### 개역개정 34:17-22

<sup>17</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sup>18</sup>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sup>19</sup>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sup>20</sup>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sup>21</sup>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sup>22</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34:17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제 야웨께서 그들에게 칼(BDB 352), 전염병(BDB 184), 기근(BDB 944)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실 것이다(문자적으로, “자유,” BDB 204 I).

▣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문장이 29:18 및 신 28:25 에 나온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열방에 빛이 되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파멸을 뜻하는 숙담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됨을 가리킨다(참조, 겔 36:22-38)!

34:19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이것은 언약을 비준하는 고대의 방법이였다(참조, 창 15:9-10,17). 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34:20 부적절한 장례는 고대의 유대인들이 두려워 했던 일이었다(참조, 19:7; 삼상 17:44,46; 왕상 14:11; 16:4). 이것은 위협과 저주였다.

34:22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느부갓네살이 주전 588 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 군대가 유다에 나타났다. 바벨론 사람들은 새로운 그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참조, 렘 37 장) 잠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신속히 재개되었다.

바벨론 군대를 이끄는 분이 바로 야웨(문자적으로, “내가 막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 BDB 845, KB 1010, *피엘* 능동 분사)이심을 주목하라(참조, 왕하 24:3). 유일신 신앙의 개념(1:5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종종 제 2 의 원인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제시됨을 기억하라! 야웨께서는 개인, 국가, 국가간(또한 육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다!

# 예레미야 3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레갑 족속의 순종	순종하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의 상징	예레미야와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의 예
35:1-11	35:1-11	35:1-11	35:1-5	35:1-5
책망받은 유다			35:6-11	35:6-11
35:12-17	35:12-17	35:12-17	35:12-17	35:12-17
35:18-19	35:18-19	35:18-19	35:18-19	35:18-1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동사 -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 BDB 1052, KB 1639, *히필* 완료형, 2 절
  2. 동사 - “마시다” - BDB 1059, KB 1667, 5 절, 6 절(2 회), 8 절, 14 절(2 회)
-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과 대조를 이룬다. 이 장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23:9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장은 메시지에 충성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주제(미국의 금주 운동이 부르짖는 절대 금주)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고대의 본문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이루었다.
- 나. 이 장에서 “듣다”(BDB 1033, KB 1570)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8, 10, 13, 14[2 회], 15, 16, 17, 17 절). 레갑 족속은 “들었으나”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 다. 소리유희가 𐤀(入)과 관련하여 나타난다(참조, 25:3-5; 29:19-20; 34:9-11).
1. 14 절 - 마시다, *샤타*(2 회)  
- 마시다, *샤마*(2 회)
  2. 15 절 - 보내다, *살라흐*

- 일찍 일어나다, *샤캄*
- 보내다, *살라흐*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5:1-11

<sup>1</sup>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2</sup>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와 그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sup>3</sup>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sup>4</sup>여호와와 그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sup>5</sup>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sup>6</sup>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sup>7</sup>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sup>8</sup>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sup>9</sup>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sup>10</sup>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sup>11</sup>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35:1 “여호야김” 이 본문을 34:2 과 비교하면, 예레미야서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35-36 장이 시간적으로 32-34 장보다 앞선다). 어떤 이(아마 바룩)가 그의 책을 편찬하고 편집하였다(참조, 32:12,13,16; 36:4,5,8,10,13,14,15,16; 43:3,6; 45:1,2).

35:2 “...의 집” 이것은 “...의 가족”을 뜻하는 관용구이다.

▣ “레갑 사람들”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참조, 대상 2:55; 사 1:16). 그들은 아랍 유목민으로서 미디안 족속이나 겐 족속(모세의 첫 부인의 족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장인은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이드로, 예델, 레벨, 호밥(참조, 출 2:18; 3:1; 4:18; 민 10:29; 사 4:11, 또한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렸다-겐 족속, 1:16 및 “미디안의 제사장,” 출 3:1; 18:1).

야웨께서 이 가족의 가족적 전통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 분명하다. 그 시험은 아래의 항목에서 보듯이 강력하였다

1.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옴으로
2. 그들을 조용한 방으로 이끌음으로
3. 그들에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가지고 시험함으로(5 절에 있는 명령)

35:4 “하나님의 사람” 이 구는 모세(참조, 신 33:1; 수 14:6)와 선지자들(참조, 왕상 12:22; 17:18,24; 20:28)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의 경건한 조상 가운데 한 명에게 대하여 사용되었다(즉, 하난).

▣ “문을 지키는” 이 구는(BDB 1036 과 706 II 의 합성)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나타낸다(참조, 52:24; 왕하 12:9; 25:18).



35:5 “중지” 이것은 이집트에서 온 외래어로서(BDB 149, 참조, 창 44:2,12) 매우 큰 그릇을 가리킨다.

35:6 “요나답” 이 사람에 대하여 왕하 10:15-27 에서 언급한다.

35:6-7 한 가족의 조상이 자손들에게 행하지 말 것으로 명한(칼 미완료형) 일련의 내용이 나온다(즉, 유목민으로 살라).

1.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6c 절
2.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7 절
3. 과종도 하지 말며
4. 포도원을 세우지 말고
5.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6.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35:7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구는 신명기에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참조, 신 5:16,22; 4:40; 11:9).

35:11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족도 보호를 받기 위하여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피난하였다.

#### 개역개정 35:12-17

<sup>12</sup>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13</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14</sup>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sup>15</sup>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up>16</sup>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sup>17</sup>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35:13 이것은 이 장의 신학적 요점을 나타내는 핵심 구절이다(참조, 16-17). 이 가족은 그 조상들의 말을 순종하였지만 유다는 자기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35:14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변인을 거듭 거듭 보내셨지만, 유다는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다음의 설명을 보라.

35:15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7:13,25; 11:7; 25:3-4; 26:5; 29:19; 32:33; 35:14-15; 44:4).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 조상이 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에 순종하였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듭 거듭 거부하였다!

■ 15 절에 기록된 메시지의 한 예.

1. (“만일”을 내포하고 있음)돌이켜 - BDB 996, KB 1427, 칼 명령, 참조, 18:11
2. 행위를 고치고 - BDB 405, KB 408, *히* 명령, 참조, 7:3; 18:11
3. 다른 신을 따라(걷다) 그를 섬기지 말라- BDB 229, KB 24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참조, 7:6
4.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BDB 442, KB 444, 칼 명령

15 절의 마지막 행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메시지의 조건적인 요소는 위반되었다(참조, 7:24)!

35:17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분에 대하여 삼중적인 강조가 있음을 주목하라.

1. 여호와(야웨)
2. 만군의 하나님(일반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참조, 18 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엘로힘*, 참조, 18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르셨지만,” 유다가 “듣지도” “응답하지도”않았다(참조, 7:13,26,27; 26:5).

개역개정 35:18-19

<sup>18</sup>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sup>19</sup>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5:19 야웨의 약속은 이 가족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를 포함하여) 그들이 계속적으로 가족으로서 지속될 것임을 뜻한다.

# 예레미야 3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성전에서 읽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성전에서 읽은 두루마리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다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읽다	주전 605-604 년에 기록된 두루마리
36:1-3	36:1-3	36:1-3	36:1-3	36:1-4
36:4-8	36:4-8	36:4-8	36:4-8	36:5-8
36:9-10	36:9-10	36:9-10	36:9-10	36:9-10
36:11-19	왕궁에서 읽은 두루마리 36:11-19	36:11-19	두루마리를 관리들에게 읽어 주다 36:11-17 36:18-19	36:11-20
두루마리를 불태우다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파괴하다	36:20-26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다	36:21-26
36:20-26	36:20-26	36:20-26	36:20-26	
다시 두루마리를 쓰다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다시 쓰다	예레미야가 또 다른 것을 받아 쓰게 하다	예레미야가 또 다른 두루마리를 쓰다	
36:27-31	36:27-31	36:27-31	36:27-31	36:27-31
36:32	36:32	36:32	36:32	36:3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36:1-3

<sup>1</sup>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sup>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sup>3</sup>유다가 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36:1 “여호야김 제사년에”** 이것은 25 장, 45 장, 46 장의 서두에 나온다. 이것은 주전 605 년의 일이다. 이 해에 칼케미스 전쟁이 있었다. 이 때에 바벨론이 앗시리아 군대의 잔여 병력과 이집트 군대를 무찔렀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지 1 년이 지났다(참조, 단 1:1). 이 유대 왕은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다. 그는 경건한 교사들의 양육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 겔 18 장에서는 그와 그의 아버지 또는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전형적인 타입으로 제시한다.

**36:2**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었다! 야웨께서 자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당시의 세대는 물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다(참조, 롬 4:23-24; 15:4; 고전 10:6,11; 벧전 1:10-12). 하나님께서 특정한 문화, 특정한 시기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기본적 내용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적절하다! 이 주제에 대하여 잘 논의한 책은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이다. 나는 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한다.

▣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야웨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1:5의 특별주제를 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시 22:27; 66:1-4; 86:8-10; 사 2:2-4; 12:4-5; 25:6-9; 42:6-12; 45:22-23; 49:5-6; 51:4-5; 56:6-8; 60:1-3; 66:23; 요나; 미 4:1-4; 말 1:11; 요 3:16; 4:42; 딤페전 2:4; 딤페 2:11; 벧후 3:9; 요일 2:1; 4:14)!

**36:3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이다. 이것은 모든 물리적 비극이 하나님의 손에서 옴을 뜻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은 사실이다. 또는 타락의 결과가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개인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면에서 적어도 그러하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재난이 따른다면, 우리는 모두 계속적인 위기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1. 하나님께서 문제들(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을 사용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 불순종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참조, 레 26 장; 신 27-28, 30 장)
2.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에 따르는 결과이다.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1 항 또는 2 항의 결과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상황(좋거나 나쁜)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뜻을 구하며 내 삶의 기쁨을 가지기로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나의 세계관임). 나는 모든 것을 이 진리를 사용하여 걸러낸다.
4. 구약에서는 유일신 신앙을 확증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린다(1:5의 특별주제를 보라). 구약은 “제 2의 원인자”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인식도 하지 않는다!

▣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것은 개인의 책임을 계속하여 강조하는 내용이다(즉, 조건적인 언약, 참조, 31:31-34; 겔 18:2-4). 모든 유다 사람이 빠짐없이 회개하기를 야웨께서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주목하라.

▣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른 계속적인 약속의 말씀이다. 만일 사람들(즉, 유다)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약속을 누리게 된다(참조, 7:5-7; 26:3; 시 103:6-14; 사 1:16-19; 막 1:1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참조, 슄 1:3; 말 3:7). “만일...그 때에는”이라는 조건을 내포한 언약임을 주목하라.

**개역개정 36:4-8**

<sup>4</sup>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sup>5</sup>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sup>6</sup>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와 말씀의 금식일에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sup>7</sup>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sup>8</sup>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와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36:4 “바룩”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가족의 일원이었다(즉, 그의 형제인 스라야는 고위 관리였다, 참조, 51:59). 그가 이 책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는 알 수 없다(즉, 얼마나 문법적, 어휘적, 구조적으로). 하지만 17 절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그가 단순히 기록했음을 시사한다.

▣ “두루마리 책에 이것은 (1) 작은 난으로 나누어진 긴 가족 두루마리 또는 (2) 파피루스를 여러 장 묶어 놓은 것을 가리킨다. 가족으로 된 사해사본의 이사야서 두루마리는 그 길이가 8.7 m 에 이른다. 이 구(BDB 166 과 706 의 합성)는 이곳 및 시 40:7; 겔 2:9 에서만 나온다.

36:5 “나는 붙잡혔으므로” 이 단어의 어근은 “금지당하다”(BDB 783, KB 870)이다. 이 단어는 (1)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여(참조, 32:2; 33:1) 성전이 있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음을 나타내거나 (2) 그가 의식상 부정하게 되어 성전이 있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36:7 공동체(“각 사람”)와 개인(“그의”) 사이의 관계에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를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죄 있다고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이 지은 개인적인 죄 뿐 아니라 내가 사는 문화/사회의 죄도 포함하여 다루신다’라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구약의 지도자들은 종종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도드렸다! 이것은 어떠한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신학적 질문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담의 죄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다! 둘 다 책임이 있다.

▣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6:9-10**

<sup>9</sup>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오년 구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sup>10</sup>바룩이 여호와와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36:9 “구월에” 이것은 바벨론의 달력에 대한 구약의 최초의 언급이다(NET, 1398 쪽 11 항). 그 달에 아스겔론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갔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72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다의 주요 성이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나오는 금식에 관계된 사건일 것이다(즉, 레 16 장에 있는 “속죄일”이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한 주전 605 년의 사건을 인함도 아니었다).

36:10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는 요시아의 왕궁에서 일한 관리였다. 그는 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참조, 왕하 22:3).

개역개정 36:11-19

<sup>11</sup>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와의 말씀을 다 듣고  
<sup>12</sup>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sup>13</sup>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sup>14</sup>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sup>15</sup>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sup>16</sup>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sup>17</sup>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sup>18</sup>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sup>19</sup>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36:12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이것은 성전과 왕궁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가진 모임을 말한다.

36:14 “여후디” 그의 이름은 “유다의 사람”을 의미한다(BDB 397 II). 그의 족보가 3 대까지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2. 그는 왕족이었다(참조, 슥 1:1)
3. 그의 조상 가운데 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즉, “검은” 또는 “구스에서 온,” 참조, 창 10:6-8)

36:15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이 지도자들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됨을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LXX 와 아람어 탈군에서는 모음을 바꾸어 “이것을 다시 읽으라”로 번역하였다. 그들이 이 내용을 전에 들었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듣기를 원하고 있다(참조, 10-11 절). 그들은 왕이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참조, 24-25 절).

36:16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취한 반응을 주목하라-“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BDB 808, KB 922, 칼 완료형) 서로 보며.”

▣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616, KB 665)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그들이 느낀 긴급성과 강도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36:17-18 이 지도자들은 바룩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기 원하였음이 분명하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말해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임을 밝혀, 이 메시지가 야웨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 것임을 그들에게 확인하여 준다. 23:21-22의 특별주제를 보라.

36:19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가서”(BDB 229, KB 246, 칼 명령)와 “숨고”(BDB 711, KB 771, 니팔 명령)는 강력한 제안의 말이다. 그들은 왕이 취할 반응을 두려워하였고(즉, 26 절; 26:23),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기 원하였다.

**개역개정 36:20-26**

<sup>20</sup>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sup>21</sup>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sup>22</sup>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sup>23</sup>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sup>24</sup>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sup>25</sup>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sup>26</sup>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36:22 “겨울 궁전” 이곳은 다른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2 층으로 된 집을 뜻한다. 고대인들은 여름에는 많은 창문이 있는 2 층에서 지냈고, 겨울에는 창문이 거의 없는 아래층에서 지냈다.

36:23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것이 등글게 말은 두루마리로서 여러 쪽 위에 쓰여진 것임을 기억하라. 두루마리를 펼치면 여러 쪽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왕은 읽은 난을 칼로 베어 내어 불태웠다. 따라서 두루마리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파괴되었다!

“쪽”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문들”이다(BDB 195). 이 의미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두루마리의 쪽은 문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다(즉, 직사각형).

▣ “면도칼로” 이것은 깃펜을 더 날카롭게 하는데 사용한 작은 칼이다. 이 단어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BDB 789 와 709 의 합성).

36:24 지도자들이 예언을 들은 일(참조, 16 절)과 왕이 들은 일(참조, 시 36:1)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에 대하여는 2:37의 특별주제를 보라.

36:26 “왕의 아들” 이것은 왕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왕족의 일원에 대하여 사용한 호칭이었다. 혹은 궁전에서 일하는 관리를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참조, 렘 38:6; 왕상 22:26; 대하 28:7).

▣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것은 야웨께서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신 일과 비슷한 경우이다(왕상 17:3-7). 히 11 장에서 나타내듯이, 어떤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였고 어떤 선지자는 건지심을 받았다! 어느 쪽이든, 야웨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환경은 야웨의 사랑과 임재하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개역개정 36:27-31

<sup>27</sup>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8</sup>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sup>29</sup>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sup>30</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sup>31</sup>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6:29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것은 같은 어근(BDB 97, KB 112)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확실성/강조를 나타낸다.

▣ “이 땅을 멸하고” 이 동사형(BDB 1007, KB 1469)은 *히필* 완료형이다. 이 파괴는 완전하며 분명하다(즉, 예언서의 완료형)!

36:30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는가? 여호야김의 왕위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계승하였다. 3개월 후에 그는 느부갓네살 II 세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일생동안 진행된 과정이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가위*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는 제 6장과 제 7장이 특별히 도움을 주었다. 현대의 서구인들은 모든 세세한 사항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완벽한 성취를 기대한다. 하지만 고대의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이 장르의 과장적이고 관용법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역개정 36:32

<sup>32</sup>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36:36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왕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불태운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두 번째 책이 더 많은 말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LXX가 원래의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어느 부분이 이 두루마리에 추가된 내용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LXX는 열방에 대한 심판(즉, 46-51장)을 25장 이후에 놓았다.

예레미야가 야웨의 메시지를 회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간의 메모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현대인들은 구약의 책들이 언제, 어떻게 모아졌고 편집되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이 책들이 특별히 영감을 받았으며 그 모든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보전된 책’인 것을 받아들인다(23:21-22의 특별주제를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2. 왜 8-11 절은 심판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제시하는가?
3.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일을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이 왜 그렇게 오만하였는가(참조, 사 33:20)?
4. 35 장은 오늘날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을 가진 내용인가?
5. 레갑 사람들은 왜 35 장에서 유목민적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였는가?
6.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35:15 에서 사용하신 용어를 모두 제시하라.

# 예레미야 3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에루살렘성경 (NJB)
예레미야가 바로를 신뢰하는 것을 경고함  37:1-5	시드기야의 헛된 소망  37:1-5	예레미야, 시드기야 및 포위됨 (37:1-38:28)  37:1-2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요청  37:1-2	시드기야에 대한 판결  37:1-2  시드기야가 주전 588 년에 포위된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다
37:6-10	37:6-10	37:3-5 37:6-10	37:3-5 37:6-10	37:3-5 37:6-10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37:11-16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37:11-15  37:16-21	37:11-16	예레미야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다  37:11-13  37:14-16	예레미야가 체포됨  37:11-16  그에 대한 대우가 개선됨
37:17-21		37:17-21	37:17a  37:17b-20  37:21	37:17-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7:1-5

<sup>1</sup>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sup>2</sup>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sup>3</sup>시드기야 왕이 셀레냐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sup>4</sup>그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sup>5</sup>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37: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삼촌이었다(맛다냐, 참조, 왕하 24:17). 그는 느부갓네살의 봉신이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는 왕하 24:17의 기록을 보라.

▣ “고니야” 이 이름은 여고니야의 축약형이다. 그의 왕명은 여호야긴이었다(참조, 22:24,28; 24:1; 52:31; 왕하 24:12; 대하 3:16; 대하 36:9,10). 36장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후 18년이 지났다(즉, 주전 605-586년).

37:2 “그의 땅 백성이” 이 구는(BDB 766 I과 75의 합성어) 두 가지의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1) 포로기 이전, “땅을 소유한 부유층” (2) 포로기 이후, “가난한 대중.” 여기서는 제 삼의 의미인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가리킨다.

37:3 “여후갈” 여후갈은 예레미야가 반역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참조, 38:1-4).

▣ “스바냐” 그는 52:24에서 “두 번째 제사장으로 불린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나타낸 사람으로 여겨진다(참조, 21:1; 29:25-29).

▣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보호를 구하는 특별기도에 대한 요청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이들이 패할 것임을 선언하였다(참조, 21:1-14). 그 요청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시드기야가 믿었음을 나타낸다.

37:5 “바로” 성경에서 이 바로는 “호프라”로 불린다(44:30). 그는 ‘아프리스’로도 알려졌다(즉, 헤로도투스 2.161; 4.159). 그는 주전 589-570년에 다스렸다.

▣ “갈대아인” 이 본문에서 이 호칭은 “바벨론 사람들”과 동의어를 이룬다. 그러나 한 곳에서 이 호칭은 메테의 지혜자들을 가리켰다(참조, 단 1:14, 온라인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에서).

▣ “에워쌌던 갈대아인이...떠났더라” 그러나 이집트와 바벨론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또는 그 일이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신속히 재개되었다. 이 포위는 주전 588년에서 58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 때에 성이 멸망했다(참조, 렘 52장; 왕하 25장; 대하 36:17-21).

개역개정 37:6-10

<sup>6</sup>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7</sup>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sup>8</sup>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sup>9</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sup>10</sup>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37:8 모든 동사가 완료형이다. 이것은 완료된 미래의 행동을 나타낸다. 문법학자들은 이 용법을 “예언서의 완료형”이라고 부른다.

37:9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된 소망을 나타낸다. 이 동사(BDB 674, KB 728, *히필* 미완료형)는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속였다! 그 거짓말은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였다. 이것은 같은 어근(BDB 229, KB 246)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37:10 이것은 과장적인 상황이다. 야웨의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임을 유다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내용이다. 이집트는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참조, 사 30:6-17). 유다의 군대는 적을 물리칠 수 없었다!

개역개정 37:11-16

<sup>11</sup>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sup>12</sup>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sup>13</sup>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셸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sup>14</sup>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 가매 <sup>15</sup>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sup>16</sup>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옹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37:12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히브리 본문이 애매하지만 이것은 32:1 이하의 내용과 다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장은 그 본문보다 선행한다.

37:13 “베냐민 문”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이었다.

▣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 비난은 21:8-10 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 말이었다.

37:15 “고관들” 이들은 36:1 에서 언급하는 자들과는 다른 그룹에 속한 관리였다.

▣ “예레미야를 때려서 ... 집에 가두었으니” 예레미야에게 쉬운 날이 없었다. 그가 야웨께 받은 말씀은 대부분의 유대사람(심지어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도)들에게는 반역을 피하는 말로 여겨졌다.

▣ “서기관 요나단” 이 직책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직과 같았다.

37:16  
 NASB “지하 감옥, 곧 뚜껑 씌운 곳”  
 NKJV “지하 감옥과 감옥들”  
 NRSV “옹덩이 집, 감옥들 안에”  
 TEV “지하에 있는 감옥”  
 NJB “뚜껑 씌운 지하”  
 JPSOA “구덩이와 감옥들”  
 REB “집 밑에 있는 뚜껑 씌운 구덩이”

이것은(BDB 333, KB 333,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사람을 구금하기 위한 장소로 개조한 옹덩이일 것이다.

▣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참조, 20 절).

개역개정 37:17-21  
<sup>17</sup>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sup>18</sup>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sup>19</sup>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sup>20</sup>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sup>21</sup>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37:17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야웨를 여전히 찾고 있지만, 그는 야웨의 메시지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의도를 가지는 것이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37:19 이것은 좋은 질문이다. 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는가(참조, 신 18 장)? 그가 전한 메시지가 명백하게 진실함에도, 왜 그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37:20 이 절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정중하게 요청한 내용이 몇 가지의 명령형으로 나온다.

1.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 나의 탄원을 받으사 - BDB 656, KB 709, *칼* 지시형
3.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 BDB 996, KB 1427, *히* *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7:21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 뜰”로 보낸다. 그곳의 상황은 지하 감옥보다 더 좋았다. 왕은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도록 명하였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에게 떡이 공급되었다.

▣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이것은 어떤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음을 나타낸다. 대개 도시의 한 거리 또는 한 구역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

# 예레미야 3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지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시드기야, 포위됨 (37:1-38:6)	마른 우물에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창고로 쓰는 우물에 던져지다
38:1-13	38:1-13	38:1-6	38:1-4	38:1-3
			38:5-6	38:4-6
		38:7-13	38:7-13	에벳멜렉이 개입하다 38:7-13
	시드기야가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의 자문을 구하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자문을 구하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마지막 대화
38:14-16	38:14-16	38:14-16	38:14	38:14-23
			38:15	
시드기야와의 면담			38:16	
38:17-23 (22b)	38:17-23 (22b)	38:17-23 (22b)	38:17-18 (22b)	
			38:19	
			38:20-22 (22b)	(22b)
			38:23	
38:24-28	38:24-28	38:24-28	38:24-28	38:24-26
				38:27-2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존 브라이트가 저술한 앵커성경주석은 37:11-21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얼굴을 대면한 처음 만남에 대한 기록이고, 38:1-28 은 두 번째 만남에 대한 기록이라고 설명한다.
- 나. R. K. 해리슨은 틴데일 구약 시리즈에서 37:11-21 과 38:1-28 이 비슷한 점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 1. 예레미야가 반역죄의 혐의를 받음
  - 2. 예레미야가 갇힘
  - 3.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의 비밀스런 만남을 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두 기록이 서로 구별된 사건일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154 쪽).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8:1-13

<sup>1</sup>맛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sup>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sup>3</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sup>4</sup>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sup>5</sup>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sup>6</sup>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sup>7</sup>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sup>8</sup>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sup>9</sup>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sup>10</sup>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sup>11</sup>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형짚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sup>12</sup>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형짚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sup>13</sup>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38:2 “죽으리라” 이 장에서는 이 단어(BDB 559, KB 562)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 1.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죽게 된다, 2 절
- 2.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 4 절
- 3. 예레미야가 빈 웅덩이에 갇힘으로 죽게 됨, 9,26 절
- 4. 예레미야를 구하려는 의도, 10 절

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준 메시지, 15 절
6.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 반응, 16 절
7.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위협함, 24 절
8.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함, 25 절

▣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다. 14:12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살리니” 이 장에서 “죽다”가 자주 나오듯이, “살다”(BDB 310, KB 309)도 그렇다.

1-3 번째 2 절에 세 번 나온다.

- ㄱ. “살 것이다” - *캐티브*(MT 에 기록된 형태)는 칼 미완료형으로 되었지만 *캐레*(MT 의 외부형태를 정한자가 난외에 제시한 내용)는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다음 두 동사와 연결된다

4-6 번째 17 절(2 회)과 20 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한 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야웨의 메시지에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신 30:15-20 의 “두 길”을 반영한다(참조, 렘 21:8). 생명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누리는 선물이다. 인간이 한 선택과 행동과 관련하여, 일시적이며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

2-3 절은 28:8-10 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 그 내용이 결코 바뀌지 않았다!

38:3 “이 성이 반드시 ... 넘어가리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뀌지 않았다!

이 동사(BDB 678, KB 733, *니팔* 미완료형)는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함께 사용되어, 확실성을 강조한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를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다.

38:4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부상을 입은 자와 배반자가 분명히 있었다.

▣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고관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와 그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2 절에 나오는 “생명”의 약속을 무시하였다.

38:5 이 절은 시드기야의 약함을 보여준다(또한 사울도, 참조, 삼상 15:24, 다윗도, 참조, 삼하 3:39). “손”과 관련된 언어유희를 보라.

1. 4 절의 “용기를 잃게 하나이다”는 문자적으로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임
2. 4 절의 “모든 백성의”는 문자적으로 “모든 손의”임
3. 5 절의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는 어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뜻하는 관용어임(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38:6 “왕의 아들” 이것은 관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왕의 혈연적인 아들이 아니라 왕족의 일원에 대하여 사용한 호칭이었다(참조, 36:26).

▣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요세푸스는 진창이 그의 목에까지 찼다는 전승을 전한다(*고대사*. 10.7.5). 그를 그곳에서 죽이려 한 것이다(참조, 4 절). “진창”은 웅덩이 바닥에 고인 침전물을 가리킬 것이다. 웅덩이에는 흘러 내린 빗물을 모아 두었다.

38:7 “에벳멜렉” 이 용어(BDB 715)는 문자적으로 “왕의 종”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셈족 문화에서도 이름이 아니라 관직을 나타낸다.



▣ “구스인” 이 용어(BDB 469 I)는 종종 “구스 사람”으로 번역되었는데(참조, 13:23),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유대 왕궁에 있던 외국인 종/관리였다.

▣ “내시” 이 용어는 “관리”(BDB 710)로 번역될 수 있다. 종종 신체적 거세가 행해졌지만(참조, 사 56:3-5),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즉, 창 39:1 이하에 나오는 보디발).

▣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성문은 사회적 법적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시드기야 왕이 공무를 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38:8 “왕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였거나, 혹은 공개적인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활용하는 경우이었을 것이다.

38:9 예레미야가 두려워 한 죽음은 기근으로 인한 것이었다. 상황이 37:21 보다 훨씬 더 악화 되었다.

38:10 “삼십 명” 한 히브리어 본문과 LXX 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다(참조, RSV, NEB, NIV). UBS 본문 프로젝트는 “삼십 명”에 A 등급(아주 확실함)을 준다.

38:11

NASB

“창고 밑”

NKJV

“금고 아래”

NRSV

“옷장 창고”

TEV

“왕궁의 창고”

NJB

“옷장 금고”

JPSOA

“금고 밑의 장소”

REB

“지하에 있는 방”

이 장소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왕궁 어딘가에 있는 물 저장소를 가리킨다.

38:12 “이 형겔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근처에 있는 방에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 올릴 때 완충제로 사용하였다. 이 절은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많이 배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이다!

38:13 그가 웅덩이에서는 구출되었지만, 계속 감금되어 있었다!

개역개정 38:14-16

<sup>14</sup>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sup>15</sup>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sup>16</sup>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38:15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여전히 거룩하게 여긴다(즉, 해롯과 침례요한). 그러나

1. 그를 비밀리에 만난다(참조, 16,24-27 절)

2. 자신이 한 말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야웨의 말씀을 알기 원하지만(참조, 14 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약 1:22).

38:16 왕이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1.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는다(참조, 15 절)
2.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자기 신하들에게 그를 넘기지 않는다(참조, 4 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및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우리의 영혼을 지으신”)를 걸고 맹세한다. 시드기야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나, 약한 의지를 가진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개역개정 38:17-23**

<sup>17</sup>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sup>18</sup>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sup>19</sup>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sup>20</sup>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와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sup>21</sup>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sup>22</sup>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sup>23</sup>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8:17 예레미야가 의지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호칭을 주목하라(참조, 35:17).

1. 야웨(여호와)
2. 만군의 하나님
3.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가다”라는 동사는 이 문맥에서 “항복하다”(BDB 422, KB 425)를 의미한다. 이것은 같은 어근의 부정사 절대형으로써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뒤 늦은 때지만 만일 왕이 야웨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18 절!

38:19 시드기야가 4-5 절에서 관리들을 두려워하였듯이, 이제는 유대인 변절자들을 두려워한다! 그가 야웨를 두려워 했어야 했다! 그가 오직 야웨의 약속을 신뢰하였어야만 했다(참조, 20 절).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하는 선택과 관련이 있다!

38:20 이것은 야웨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주시는 내용이다

1. 순종에 대한 명령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 두 가지 조건적 지시형
  - ㄱ.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 BDB 405, KB 40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ㄴ.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 BDB 310, KB 309, 칼 지시형

38:21-23 야웨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이에 따른 결과가 있다.

1.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2. 그 여자들은,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하여 자문관들에게 속았다”고 비난할 것이다(“네 말이 진흙에 빠짐”은 우유부단함을 가리키는 관용어임)
3. 시드기야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게 된다. 여기서 사용한 동사는 다음을 내포한다
  - ㄱ. 성적인 착취
  - ㄴ. 비천하게 됨
  - ㄷ. 포로로 끌려감
4. 시드기야는 자신이 무서워한 고문을 받게 된다
5. 성과 성전이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 개역개정 38:24-28

<sup>24</sup>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sup>25</sup>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sup>26</sup>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sup>27</sup>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sup>28</sup>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38:26 “그들에게 대답하되” 예레미야는 왕과 나눈 대화 내용을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그는 37:20에서 했던 요청을 왕에게 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36장과 37장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2. 37:3과 17절은 왕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내는가?
3. 예레미야는 37장에서 왜 체포되었는가?
4.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
5. 37:20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6. 왜 어떤 학자들은 37장과 38장을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기술로 말하는가?
7. 38장의 어느 절에서 예레미야의 연약성을 잘 드러내는가?
8. 왜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는가?
9. 에벳멜렉은 누구인가?
10. 예레미야가 38:26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예레미야 3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루살렘이 함락됨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39:1-40:6)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및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
39:1-10	39:1-3	39:1-10	39:1-2	39:1-2
			39:3	39:3
	39:4-10		39:4-10	39:4-10
죽임을 당하지 않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되다		예레미야가 풀려남	
39:11-14	39:11-14	39:11-14	39:11-14	39:11-12
				39:13
				39:14
			에벳멜렉을 향한 희망	에벳멜렉의 안전을 확인하여 주는 예언
39:15-18	39:15-18	39:15-18	39:15-18	39:15-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9:1-10**

<sup>1</sup>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sup>2</sup>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sup>3</sup>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sup>4</sup>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sup>5</sup>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sup>6</sup>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sup>7</sup>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sup>8</sup>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sup>9</sup>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sup>10</sup>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39:2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루살렘의 함락은 주전 586 년에 일어났다(이와 평행을 이루는 기록은 52 장에 있다, 참조, 왕하 25:1-12).

▣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포위가 주전 589 년에 시작되어 19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참조, 렘 52:4-6; 왕하 25:1).

39:3 3 절에 나오는 바벨론 관리의 이름과 호칭이 매우 혼동스럽다(참조, 13 절).

1. 70 인역, KJ 역, AS 역에서는 6 명으로 제시한다
2. 요세푸스(*고대사*. 10.7.2)와 페쉬타에서는 5 명으로 제시한다
3. RSV 와 JPSOA 에서는 4 명으로 제시한다
4. NIV, NEB, REB 에서는 3 명으로 제시한다
5. NJB 에서는 2 명으로 제시한다

▣ “네르갈사레셀” 이 이름(BDB 669)은 ‘네리-글리살’일 것이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빌프로닥에 이어 왕이 되었다.

39:4 “도망하되 밤에 ...성읍을 벗어나서” 요세푸스는 이 때가 한 밤중이었다고 말한다(*고대사*. 10.7.2, 참조, 렘 52:7; 왕하 25:4).

▣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느 2:14; 3:15; 12:37 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실로암 못으로 여겨진다.

▣ “아라바” 이것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시내로 내려오는 큰 협곡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숲으로 우거진 계곡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5 절).

39:5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이 일은 32:4-5; 38:18,23 에 나타난다. 유대인 변절자들이 바벨론 관리에게 그들이 도망한 사실을 알렸다고 요세푸스는 전한다.

▣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이것은 (1) 감사를 모르는 행위 또는 (2) 반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세푸스는 전한다. 그에 대한 심문은 6-7 절; 52:10-11; 왕하 25:7 에서 자세히 묘사된다.

39:6 “립나” 느부갓네살의 원정대가 이곳에 주둔하였다. 이곳은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약 8 km 떨어진 곳이었다.

39:8 “백성의 집을” 맛소라 본문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에 B 등급을 준다). 따라서 이 구는 (1) 회관 (2) 성전 또는 (3) 주요 회당(탈무드에 의함)을 뜻할 수 있다. 한편, 중세의 유대인 석의가인 김히는 이것을 “백성들의 집들”로 번역하였다(참조, 왕하 25:9). 그의 번역은 모든 영어역본에 영향을 미쳤다.

▣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석회석이 고열을 받으면 그 강도가 떨어져 건축에 재활용 할 수 없게 된다. 성벽을 헐어내어(BDB 683, KB 736, 칼 완료형) 비탈로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39:10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호칭(BDB 913 II 과 371 의 합성, 문자적으로는 “살육자의 우두머리”)이 사형집행인을 가리키는지 혹은 우두머리 요리사를 뜻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얼마나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외에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다.

1. 그 성에 남은 자들
2. 버림받은 자들

1 항의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뜻하든지 혹은 NJB 와 REB 에서 제시하는 “장인들”이 제 3 의 그룹을 형성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후자의 견해는 MT 를 바꾸어 제시한 해석이지만, 52:15 과 평행을 잘 이룬다.

39:10 바벨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충성된 자들을 유지하는 길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땅을 주는 방법이었다(즉, 시골의 가난한 자들). 그들 중 누구도 지주나 생산자가 아니었다!

**개역개정 39:11-14**

<sup>11</sup>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sup>12</sup>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sup>13</sup>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sup>14</sup>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39:11-14 렘 40:1-6 은 같은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기사로 보인다(37 장과 38 장의 경우와 비슷함). 어떤 이는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이는 이것이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기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모른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시대적 사고를 사용하여 고대의 글을 읽으려는 경향을 가졌다.

39:12 느부갓네살은 다음 인물들로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음이 틀림없다

1. 다니엘
2. 유대인 변절자
3. 성에 있는 스파이

그는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린다.

1. 그를 데려다가 - BDB 542, KB 534, 칼 명령(“그를 . . .에 두라”는 의미임)
2. 선대하고 - BDB 962, KB 1321, 칼 명령
3. 해하지 말며 - BDB 793, KB 889, 칼 지시형
4.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 BDB 793, KB 889, 칼 명령

39:14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 그다라는 후에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 된다(참조, 40:7).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였다(참조, 렘 26:24; 왕하 22:12-14).

▣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이 때에 그다라는 미스바 성읍을 자신의 본부로 삼았다(참조, 40:8).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뜻이다. 팔레스타인에는 이 이름을 가진 성읍이 많이 있었다.

**개역개정 39:15-18**

<sup>15</sup>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16</sup>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 앞에 이루어라 <sup>17</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sup>18</sup>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39:15-18 에벳멜렉을 향하신 야웨의 자비로우신 자세와 행하심은 그가 야웨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나타낸 친절한 대우와 그를 위하여 간구한 일을 인함이었다(참조, 37:7-13).

39:17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이 동사(BDB 664, KB 717, *하필* 완료형)은 야웨께서 이 외국인(유대인이 아닌)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또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나타낸다. 18 절에서는 그가 야웨(참조, 17:7,8)를 신뢰하였다고 말한다(BDB 105, KB 120, *칼* 완료형).

39: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것은 17 절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이 동사(BDB 572, KB 589)는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강조적 의미를 나타낸다.

# 예레미야 4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레미야가 유다에 머물다	그다랴 총독과 함께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의 멸망 (29:1-40:6)	예레미야가 그다랴와 함께 머물다	예레미야에 대한 취급을 자세히 다룸
40:1-6	40:1-6	40:1-6	40:1 40:2-4 40:5-6	40:1 40:2-6
40:7-12		세 번째 반란 (40:7-41:18) 40:7-12	유다의 총독, 그다랴 40:7-12 그다랴가 암살당하다 (40:13-41:18)	그다랴 총독, 그의 암살 (40:7-41:18) 40:7-10 40:11-12
40:13-16	40:13-16	40:13-16	40:13-15 40:16	40:13-1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40:1-6

<sup>1</sup>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sup>2</sup>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sup>3</sup>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sup>4</sup>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sup>5</sup>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말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sup>6</sup>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40:1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무런 내용/메시지도 기록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어떤 이는 2-3 절에 나오는 신학적 내용이 그가 받는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록된 신학은 바벨론 군대 사령관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한 매우 특별한 내용이다.

▣ “사령관 느부사라단” 왕하 25:3,8 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 개월 후에 이 성의 완전한 파괴를 감독하기 위해 이 사람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라마” 이 도시는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였다(참조, 31:15).

▣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유대인의 *미드라쉬*는 ‘예레미야가 사슬에 묶인 젊은이들을 보고 그들과 합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예레미야가 잘못 붙잡혀와 라마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끌려온 뒤에,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참조, 39:11-14) 마침내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40:2-4 이 세 절이 지닌 상당한 정도의 신학적 내용때문에, 학자들이 종종 이 부분을 거부한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뒤에 바벨론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음이 분명하다.

40:4 이 절에는 여러 관용어와 명령이 나온다.

1. “만일 네가 . . .을 좋게 여기거든”은 문자적으로 “네 눈에 선하거든”이다
2. “가자” - 이것은 부정사 연계형과 명령(BDB 97, KB 112)이다
3.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는 문자적으로 “내 눈을 네게 두겠다”이다
4. “만일 네가 . . .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은 문자적으로 “네 눈에 악하거든”이다
5. “그만 두라”는 문자적으로 “멈추라”이다 - BDB 292, KB 292, *칼* 명령
6. “보라” - BDB 906, KB 1157, *칼* 명령
7. “갈지니라” - 이것은 부정사 연계형과 명령(BDB 229, KB 246)이다. 이 구가 5 절에서도 반복된다.

40:5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이곳의 히브리어는 매우 혼동스럽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그가 여전히 머물지 않고 그다라에게 돌아갈 때”이다. 두 동사에 대한 설명이 BDB 996, KB 1427 에 있다.

▣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 이 사람의 아버지는 예레미야의 지지자였고 도움을 주었다(참조, 26:24). 39:14 에서 예레미야를 돌보는 일이 그다라에게 위임되었다. 그의 가족은 경건한 가족이었다(참조, 왕하 22:14).

40:6 “미스바” 이것은 “과수대”라는 뜻이다(BDB 859). 이 이름을 가진 여러 성읍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곳이다(참조, 삼상 10:17 이하). 이곳은 지파들이 만나는 중심지가 되었다(참조, 사 20:1-3). 그다라는 미스바 성읍을 자신의 본부로 삼았다.

**개역개정 40:7-12**

<sup>7</sup>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sup>8</sup>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례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sup>9</sup>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sup>10</sup>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sup>11</sup>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sup>12</sup>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40:7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은 유대인의 군대를 말한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

▣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이것은 39:10 과 관련이 있다.

40:9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새 총독이 할 일은 유대 군인들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 놓도록 설득시키는 일이었다(참조, 왕하 25:23-24)..

그다라가 한 맹세를 주목하라(BDB 989, KB 1396, *니팔* 미완료형).

1. 두려워하지 말고 -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이 땅에 살면서 - BDB 442, KB 444, *칼* 명령
3.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 BDB 712, KB 773, *칼* 명령
4.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 BDB 405, KB 40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70 인역에는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 말고”로 되어 있다(참조, 왕하 25:24).

40:10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이 동사(BDB 763, KB 840, *칼* 부정사 연계형)는 종종 제사장들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맥에서 “중보자”라는 의미를 발견한다.

▣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전쟁으로 밭을 돌보지 못했다. 만일 이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땅가져버려 겨울에 사용할 양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다라가 말한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

1. 모아 - BDB 62, KB 74, 칼 명령
2. 저장하고 - BDB 962, KB 1321, 칼 명령
3. 살라 - BDB 442, KB 444, 칼 명령

40:11-12 인근 나라로 피난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거저로 땅을 가지며, 익은 곡식을 거두어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였다.

개역개정 40:13-16

<sup>13</sup>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sup>14</sup>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어느나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sup>15</sup>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라 하니라 <sup>16</sup>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40:14 “네가 어느나”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암살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같은 어근(BDB 393, KB 39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 바알리스라는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바알과 관련을 가진다. 유대인 연구성경(1008 쪽)은 그것이 “*바알야스*”로서 6 세기에 속하는 암몬의 인장에 있는 글자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또한 NASB 연구성경, 1122 쪽의 각주를 보라).

▣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다윗의 후손이었다(참조, 41:1; 왕하 25:25). 그가 그다라를 암살하려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 고대 언약의 약속을 회복시키려는 시도
2. 자신이 무시받았기에 생긴 시기심
3. 암몬의 왕 바알리스를 대신하여 행동함
4.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다(참조, 41:4-10)

40:15-16 그다라는 이스마엘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 예레미야 4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그다라가 살해되다	그다라에 대한 반란	세 번째 반란 (40:7-41:18)	그다라가 살해되다 (40:13-41:18)	총독 그다라, 그의 암살 (40:7-41:18)
41:1-3	41:1-3	41:1-3	41:1-3	41:1-3
41:4-8	41:4-10	41:4-8	41:4-7 41:8-10	41:4-10
41:9-10		41:9-10		
요하난이 백성을 구출하다				
41:11-18	41:11-18	41:11-18	41:11-15 41:16-18	41:11-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1:1-3

<sup>1</sup>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써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sup>2</sup>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sup>3</sup>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41:1 “일곱째 달에...” 41 장은 40 장에서 시작된 문학적 단위가 계속되는 장이다. 이 장은 특별히 그다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다룬다(40:13-16).

▣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동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중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한 행위는 매우 사악한 짓임을 알 수 있다(즉, 시 41:9).

41:2 “일어나서...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전 582 년에 사로잡힌 것보다 앞선 시기의 일이다(참조, 램 52:30). 그 시기는 (1)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3 개월 후로부터(주전 586 년) (2)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 년 되는 사이에 있었다(주전 582 년의 포로됨, 참조, 52:30).

▣ “칼로 쳐죽였고” 요세푸스는 그다라가 술에 취하였다고 말한다(*고대사*. 10.9.4).

41:13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 우리가 18 절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남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 하였다(*고대사*. 10.9.5).

#### 개역개정 41:4-8

<sup>4</sup>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들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sup>5</sup> 그 때에 사람 팔십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sup>6</sup>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sup>7</sup>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sup>8</sup>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41:5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이 세 도시는 북쪽에 있었다. 오프리가 세운 사마리아는 북쪽 열 지파의 수도였다. 이 지역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 의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들은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유대인들이었다(2:37 의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을 보라). 몸에 낸 상처는 이교도들이 슬픔을 나타내는 예식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16:6; 47:5; 레 19:28; 21:5; 신 14:1; 왕상 18:28). 야웨와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는 요소가 계속적으로 섞여 있었다.

41:6-10 이스마엘의 인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 거짓으로 울었다, 6 절
2. 무죄한 70 명의 애곡자들을 죽였다. 자신이 그다라를 죽인 일을 감추기 위한 목적일 것임
3. 감춘 물건을 제공하기로 한 열 명을 살려줌
4. 미스바의 물을 시체로 오염시킴
5. 미스바에 남은 자들을 유괴함.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노예로 팔거나 바알리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일 것이다

41:8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이것은 이 물품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 및 전쟁의 시기에 물건을 감추어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이었다.

개역개정 41:9-10

<sup>9</sup>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sup>10</sup>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41:9 “그다라에게 속한” 맛소라 본문은 “그다라의 손으로”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번역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우가릿 어근에 기초하여 “그다다를 인하여”로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LXX 는 이 구를 생략하고 있다.

▣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왕상 15:17-22; 대하 16:1-6 에 있는 기록을 보라.

41:10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 그룹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

▣ “왕의 딸들” 이들은 문자적으로 그다라가 관리하던 왕족 또는 인근 국가에서 돌아온 다윗의 일부 후손을 가리킬 것이다.

▣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것은 그가 동쪽으로 향하여 여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바알리스가 다스리는 강의 동편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하였다(참조, 40:14).

개역개정 41:11-18

<sup>11</sup>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sup>12</sup>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sup>13</sup>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sup>14</sup>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sup>15</sup>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sup>16</sup>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sup>17</sup>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헬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sup>18</sup>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1:12 “기브온 큰 물가에서” 고고학은 기브온에서 큰 바위를 파서 만든 23-26 m 깊이의 웅덩이를 발견하였다(참조, 삼하 2:12-16).

41:13 “모든 백성이 ...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것은 그들이 미스바에서 강제로 끌려갔음을 분명히 시사한다(참조, 10,16 절).

41:17 “게롯김함” 앞 단어(BDB 158)는 “숙소” 또는 “여인숙”을 뜻한다. 이 단어는 대상들이 머무는 장소를 가리킨다(아마 우물이 있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연적인 보호처였을 것임).

- 두 번째 단어(BDB 484)는 다음과 관련을 가진다
- 1. 베들레헬 인근의 장소
- 2. 사람 이름(참조, 삼하 19:37,38,40, 다윗의 신복)

요세푸스는 이 장소를 “만다라”로 부른다(*고대사*. 10.9.5).

▣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것은 요하난이 이미 이집트로 가려고 결심하였음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42 장의 배경을 이룬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갔다.

# 예레미야 4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고	이집트로 도망함을 금하심	이집트로 도망함 (42:1-42:7)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집트로 도망함 (42:1-42:7)
42:1-6	42:1-6	42:1-6	42:1-3 42:4 42:5-6 예레미야의 기도 에 대한 주님의 응답	42:1-6
42:7-17	42:7-12 42:13-17	42:7-17	42:7-12 42:13-17	42:7-22
42:18-22	42:18-22	42:18-22	42:18 42:19-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2:1-6

<sup>1</sup>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sup>2</sup>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sup>3</sup>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sup>4</sup>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sup>5</sup>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sup>6</sup>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42:1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 이 사람은 42:1 에서 언급되었고, 43:2 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 LXX 는 두 경우 다 “아사리야”로 표기하였다.

▣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이것은 모든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여러 관용어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6:13; 8:10; 42:8; 44:12). 이것은 과장적으로 포함시키는 관용어로서, 각 사람을 모두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2:2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호칭이 4 절에서도 반복된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한 지금,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음을 의심하는 자는 없었다(참조, 신 13:1-5). 그가 예언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 일은 유다에 남아 있으면서 그를 통하여 야웨의 자문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했다(참조, 4 절).

어떤 의미에서 이 장은 “출애굽”사건의 역을 나타낸다. 그 유다 사람들은 야웨를 신뢰하기를 거부하였고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였다! 불순종은 문제를 일으킨다!

▣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은 간청하는 자가 야웨를 신뢰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문화적 관용어에 따른 것이다(참조, 왕상 13:6; 렘 37:3; 42:3,6, 특히 20 절).

▣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5:10-13 의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가지 의미를 보라.

▣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것은 신 28:62 의 암시이다. 언약백성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야 했지만, 그들은 반역하였고 언약을 어겼다.

42:3 이것은 거짓된 경건이다. 그들이 정말로 야웨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하려는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승인해주시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들의 역사를 볼 때,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야웨의 뜻(성경 및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진)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참호로 사용”하는 믿음(즉, 위기 때만 찾는 신앙)으로서 위기에 처할 때만 잠시 볼 수 있었다!

42:4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동의한다. 그는 그들이 한 말을 야웨께 아뢰고 또 그들에게 “정확하게” 야웨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절의 마지막 구인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는 엘리와 사무엘이 삼상 3:17-18 에서 나눈 대화를 상기시킨다.

42:5-6 이 두 절은 놀라운 믿음의 진술이지만, 진실되지 않은 말이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하려는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승인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삶을 대신하지 못한다!

42:5 “참된”과 “신실한”은 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로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이다.

1. 참된 - BDB 54, 참조, 2:21; 4:2; 9:5; 10:10; 14:13; 23:28; 26:15; 28:9; 32:41; 33:6; 42:5
  2. 신실한 - BDB 54, 참조, 12:6; 15:18; 40:14; 42:5
- 15:18의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신뢰함을 보라.

42:6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복이 있으리이다”라는 구는 신명기에서 온 관용어이다(참조, 신 4:40; 5:16,29,33). 이것은 렘 7:23; 38:20에서 사용되었다.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제시하는 “두 길”의 한 부분이다(참조, 신 30:15-20).

**개역개정 42:7-17**  
<sup>7</sup>십일 후에 여호와와 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sup>8</sup>그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sup>9</sup>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sup>10</sup>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sup>11</sup>여호와와 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sup>12</sup>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sup>13</sup>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sup>14</sup>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sup>15</sup>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와 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sup>16</sup>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sup>17</sup>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42:7 “십일 후에 여호와와 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했음을 주목하라. 그는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다. “십”에 대하여는 15:9의 특별주제를 보라.

42:10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일과 관련이 있다(1:10). 이것은 회복, 언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다!

▣ “뜻을 돌이킴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미안하게 여기다”( BDB 636, KB 688, *피엘* 완료형)이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나팔형*으로 나타난다(참조, 18:8,10; 율 2:13; 암 7:3,6; 온 3:10; 4:2). *피엘형*은 대개 “동정함”을 나타낸다(참조, 호 11:8).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다(1:9의 특별주제를 보라). 사람의 심장과 마음이 변화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한다! 대부분의 예언은 조건적이다(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언은 만일 현재의 태도와 행동을 계속 유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한다. 만일 회개한다면 미래가 바뀌게 된다(즉, 요나서)!

42:11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가!

1. 너희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참조, 1:9)
2. 너희가 두려워하는 - BDB 431, KB 432, 칼 분사
3.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반복됨)
4.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 ㄱ. 구원하며 - BDB 446, KB 448, 히필 부정사 연계형(15:20)
  - ㄴ. 건지리니 - BDB 664, KB 717, 히필 부정사 연계형(참조, 1:19)

이것은 그들에 대한 야웨의 말씀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5-6 절),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42:12** ‘야웨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BDB 933, KB 1216), 자신의 종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야웨께서 약속하신다.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는 구는 다음 사항을 의미할 것이다

1.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이 본문을 기록하였다
2.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기업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42:13-17**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드린 기도에 대한 야웨의 대답이 가지는 조건적인 면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야웨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와 긍휼을 거부하는 것은 저주의 심판을 초래한다(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 야웨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에는 두려울 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15 절의 “들으라”(“듣다,” BDB 1033, KB 1570, 칼 명령)라는 명령에는 이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 (참조, 눅 12:48).

**개역개정 42:18-22**

<sup>18</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 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sup>19</sup>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sup>20</sup>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sup>21</sup>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sup>22</sup>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42:18**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들이 회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다!

게시된 야웨의 뜻을 불순종함에 따르는 부정적인 여러 결과를 주목하라.

1.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2. 너희가 가증함이 될 것이다(BDB 46, 참조, 29:18; 42:18; 44:12)
3. 너희가 놀람이 될 것이다(BDB 1031 I, 참조, 5:30; 25:9,11; 29:18; 42:18; 44:12,22; 49:13,17; 50:23; 51:37,41)
4. 너희가 저주가 될 것이다(BDB 887, 참조, 24:9; 25:18; 29:22)
5. 너희가 치욕 거리가 될 것이다(BDB 357, 참조, 6:10; 24:9; 29:18; 42:18; 44:8,12; 49:13)
6. 너희가 다시는 이 땅(즉, 유다)을 보지 못하리라

42:19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393, KB 39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더 큰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문장을 두 번 반복하였다(19 절과 22 절). 이 유대인들이 야웨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으나, 이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무지함’과 ‘고의적인 불순종’은 완전히 다르다.

42:20 “너희가 . . .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 내용인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으로만 보일 뿐이다!

▣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5 절과 6 절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기가막힌 불순종을 계획하고 있었다!

# 예레미야 4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하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다	이집트로의 도망 (42:1-43:7)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다	이집트로의 도망 (42:1-43:7)
43:1-7	43:1-7	43:1-7	43:1-7	43:1-3  43:4-7
43:8-13	43:8-13	이집트에 있는 예레미야 (43:8-44:30) 43:8-13 (11)	43:8-13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다  43:8-11 (11)  43:12-1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3:1-7

<sup>1</sup>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sup>2</sup>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sup>3</sup>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sup>4</sup>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sup>5</sup>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sup>6</sup>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sup>7</sup>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43:1 “예레미야가 . .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것은 42:2,4 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의 참된 지위를 확증한다. 그는 야웨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대변인이었다. 그는 “야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였다(참조, 42:13,21). 그의 예언에 불순종하는 것은 야웨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43:2

NASB, TEV, NJB “그 오만한 자들”  
 NKJV “그 교만한 자들”  
 NRSV “그 무례한 자들”  
 폐쉬타 “그 사악한 자들”

이 히브리 단어(BDB 267)는 알면서도 야웨의 말씀/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참조, 시 119:21; 잠 21:24; 말 4:1[MT 3:19]).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5:12-13 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42:5-6 에서 분명히 제시한다.

▣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한 모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심을 했다(참조, 41:17). 그들이 영성을 가장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였지만, 요구된 순종을 원하지는 않았다!

43:3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것은 바룩이 비서 이상의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참조, 45 장).

43:5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그들은 이스마엘이 그다라와 바벨론 위병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행한 일을 인하여 두려워하였다. 이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왔다. 그들이 지금 이집트로 도망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라.

43:6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와 그의 비서를 강제로 끌고 갔다.

43:7 “다바네스” 이 곳은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들로서(즉, 이집트어로, “펜하세의 성채”), 대상들의 길을 따라 삼각주 동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향하는 곳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은 이집트의 국경 바로 안쪽에 접하여 있었다.

개역개정 43:8-13

<sup>8</sup>다바네스에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sup>9</sup>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들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sup>10</sup>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sup>11</sup>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sup>12</sup>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sup>13</sup>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43:11 이 문단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헬리오폴리스(히브리어, “태양의 집”)까지 파괴시킬 것을 말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직을 입증/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예언을 다시 하고 있다(아마 주전 568-567 년임).

43:10

NASB, NJB, REB “덧개”  
 NKJV, 폐쉬타 “왕의 가건물”  
 TEV “왕의 천막”  
 JPSOA “가건물”  
 LXX “그의 무기들”

BDB 1051 과 KB 1636 은 이 용어(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옴)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1. 왕의 가건물
2. 덧개
3. 카펫트
4. 왕의 홀(아카디아 어근)

처음 세 항목은 앗시리아 동사인 “펼치다”를 상징하여 제시한 의미이다.

43:11 이것은 느부갓네살(야웨의 종으로 10 절에서 부름)을 통하여 야웨의 주권(참조, 15:2)을 나타내는 문학적 방법이다.

12a 절의 번역은 이 점을 반영한다: NRSV 와 REB 는 “그가”로 되어 있고 MT 에서는 “내가”로 되어 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이것은 야웨의 뜻이며 또한 야웨께 참된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43:12 우상들은 불에 탈 것이고 그들의 금, 은, 보석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 예레미야 4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 정복을 예언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에 있는 예레미야 (43:8-44:30)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늘의 여왕
44:1-10	44:1-10	44:1-10	44:1-6	44:1 44:2-14
			44:7-10	
44:11-14	44:11-14	44:11-14	44:11-14	
44:15-19	44:15-19	44:15-19	44:15-18	44:15-19
유대인들을 향한 재난			44:19	
44:20-23	44:20-23	44:20-23	44:20-23	44:20-23
44:24-30	44:24-30	44:24-30	44:24-30	44:24-28 44:29-3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느부갓네살 II 세가 이집트를 침공한 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거의 없다.
1. 느부갓네살 연대기 제 37 년의 조각(주전 568-567 년)
  2. 헤로도투스
  3. 에스겔 29:19-21



- 나. 그 침공은 보복적인 성격으로서,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진행이 멈추었다. 이 일 후에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었다.
- 다. 신바벨론 제국이 망해갈 무렵, 나보니두스(주전 550-539 년)는 이집트를 다시 한 번 공격 하였는데, 이것은 10 년간 지속되었다.
- 라. 43 장과 44 장은 한 문학적 단위인데, 두 종류의 유대 난민과 관련이 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4:1-10

<sup>1</sup>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돌과 다바네스와 눅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up>2</sup>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sup>3</sup>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sup>4</sup>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장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sup>5</sup>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sup>6</sup>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sup>7</sup>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sup>8</sup>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sup>9</sup>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sup>10</sup>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44:1 므돌과 다바네스는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었다. 눅은 나일강 상류쪽으로 약 160 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바드로스 지방은 나일강 상류쪽으로 160 km 를 올라간 곳에 있었다(즉, 노-아몬의 도시). 이 지역들은 이집트의 대부분을 나타낸다.

“...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라는 긴 문장 대신에 짧은 형태가 사용된 점은 놀랍다. 하지만 이 형태도 7:1; 11:1; 18:1; 21:1; 30:1; 32:1; 34:1,8; 35:1; 40:1 에 있는 바 ‘계시를 나타내는 긴 형태의 서두’를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

44: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와 엘로힘을 사용하는 이 긴 호칭은 이 장에서 네 번 나온다(참조, 2,7,11,25 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44:3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약을 불순종하는 문제를 가졌다.

1. 야웨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함(참조, 23 절)
2.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김(참조, 3,5,15-19 절)

▣ “분향하여 섬겨서” 이 동사(BDB 882, KB 1094, *피엘* 부정사 연계형)는 다음을 의미한다(참조, 1:16)

1. 제사의 연기
2. 향의 연기(참조, 17-18 절)

44:4 “끊임없이 보내어” 이것은 문자적으로 “일찍 일어나 보내어”이다(참조, 7:13,25; 25:4; 26:5; 35:15). 유대인들은 족장들과 모세/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주신 계시 및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야웨의 뜻을 알았다.

▣ “가증한 일” 이 구에 대하여는 16:18; 32:34,35 의 설명을 보라. 또한 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44:6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신 *마르둡*이나 바벨론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 유다가 계속적으로 언약을 불순종하여 야웨께서 레 26 장과 신 27-30 장의 “저주”가 임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44:7 이 절은 42:20 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26:19). 우리가 하는 선택이 뒤따르는 결과를 결정짓는다(참조, 신 30:15,19). 이 유다 사람들이 한 선택은 그들의 계보가 끝나게 하였다(과장법적 표현임, 어떤 이는 살아 남았다)!

44:8 유다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이집트에서도 계속되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의 우상들 대신에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겼다(참조, 2:13).

▣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42:18 에 있는 설명을 보라. 언약백성이 세상에 대하여 축복이 되어야 했지만(즉, 창 12:3), 저주가 되었다. 그들은 열방에 야웨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그의 진노하심만 드러내었다(참조, 겔 36:22-36)!

44:10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이 동사(BDB 193, KB 221, *푸알* 완료형)는 일반적으로 “으스러뜨리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독특하게 사용되어 으스러지고 회개하는 영을 뜻한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2.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즉, 율법, 법규; 5:4 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

#### 개역개정 44:11-14

<sup>11</sup>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sup>12</sup>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렘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sup>13</sup>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sup>14</sup>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 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44:11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이것은 레 26 장에서 온 어휘이다(즉, 저주와 축복이 언약을 순종함과 연결됨, 참조, 17 절). 이 구는 렘 21:10 에서 이미 사용되었다(참조, 암 9:4). 비슷한 구가 렘 44:27 에 나온다. 야웨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44:12-13 이것은 42:15-18,22 에서 반복된다.

44:14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소수 사람만 살아남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이다(참조, 28 절). 살아남아 돌아올 유다 사람은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이다.

**개역개정 44:15-19**

<sup>15</sup>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sup>16</sup>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sup>17</sup>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sup>18</sup>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sup>19</sup>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44:16 유다에 있던 남은 유대 사람들이 듣지 않았듯이(참조, 42:14-17; 43:2), 이집트에 있던 자들도 듣지 않을 것이다.

44:17-19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현재 상황이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덜하여 생긴 일’로 여긴다! 아! 저런!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44: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이것은 같은 어근(BDB 793, KB 889)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이다. 이같은 강조형이 25 절에서 사용되었다(2 회). 이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드리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4:18 이 우상숭배자들이 말하는 역사적 시기는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그는 55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는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요시야가 우상숭배를 척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참조, 왕하 23 장) 그의 죽음과 더불어 이 일이 다시 행하여 졌다!

이 세 왕(즉,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은 겔 18 장의 배경을 이룬다.

44:19 하늘의 여왕(즉, 다산의 여신, 참조, 7:18; 44:17,19,25; 왕하 17:16)은 고대 근동의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상이었다. 이 장에서 “아내” 또는 “여인들”이 여러 번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참조, 9[2 회],15,19,20,24,25 절).

**개역개정 44:20-23**

<sup>20</sup>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sup>21</sup>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sup>22</sup>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렘과 저죽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sup>23</sup>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44:20-30 이것은 이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이다. 그는 이집트에 있었고, 또 다시 유대인에게 만연한 우상숭배를 보았고, 그들이 야웨의 계시/언약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보았다.

44:22 이것은 25:9,11,18,38; 29:18; 42:18; 44:13 에 있는 경고와 비슷하다.

**개역개정 44:24-30**

<sup>24</sup>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sup>25</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항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sup>26</sup>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sup>27</sup>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sup>28</sup>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sup>29</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sup>30</sup>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4:25 이 절은 우상숭배를 하는 유대인들이 17 절에서 ‘자신들의 반역적인 예배 행위를 계속할 것’을 맹세하며 약속한 것을 반복하여 제시한다(여기서 두 미완료형 동사 및 이와 짝을 이루는 부정사 절대형이 강조된 의미를 나타낸다).

44:26 이집트에서 여러 유대인 가정이 우상숭배를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맹세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야웨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단호히 선언하신다(참조, 27 절).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44:27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동사(BDB 1052, KB 1638, *칼* 분사)은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된 신학적 용어로서(참조, 1:12; 31:28[2 회]), 야웨께서 다음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심을 나타낸다

1.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2.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

44:29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동사(BDB 877, KB 1086)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25 절에서는 바로 이 구문을 사용하여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에게 계속적으로 제사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구문을 사용하여 야웨의 심판이 확실함을 나타낸다.

44:30 야웨께서 바로 호브라를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43:9-13; 46:25; 또한 겔 29:3 의 설명을 보라). 바로 호브라(헤로도투스는 그를 ‘아프리스’로 부름)는 주전 588-569 년에 다스렸다. 그는 자신의 한 신하가 이끄는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를 이어 아마수스(주전 569-525 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호브라는 시드기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격려한 바로였다. 그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였을 때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집트의 군대를 보낸 왕이었다(참조, 37:5).

# 예레미야 4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룩에 대한 메시지 45:1-5	바룩에 대한 확신 45:1-5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45:1-5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45:1-3 45:4-5	바룩을 위한 위로의 예언 45:1-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5:1

<sup>1</sup>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sup>2</sup>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sup>3</sup>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sup>4</sup>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sup>5</sup>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5:1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해는 주전 605 년일 것이다. 이 해에 바벨론이 앗시리아의 잔여병력과 이집트 군대를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칼케미스에서 이겼다(참조, 46:1).

이 짧은 장의 역사적 배경은 36 장에 나온다.

45:3 바룩은 당시 상황을 놓고 슬퍼하고 있었다(즉,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움, 36 장).

1. “화로다. 나여!”(참조, 4:13,31; 6:4; 10:19; 13:27; 15:10; 22:13; 23:1; 48:1,46; 50:27, 절망을 나타내는 문화적 관용어임)
2.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3.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4.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45:4 이 장황한 문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일(1:10)을 반영한다(참조, 18:7-10; 24:6; 31:28; 42:10). 레 26 장 및 신 27-30 장에 있는 저주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 “출애굽”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제거된 일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창 15:16). 그들의 우상숭배를 인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의 우상숭배를 인하여 유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45:5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것은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인 인류에게 언제나 적합한 질문이다.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성경에서 자신의 영적 청지기직을 가장 잘 인식한(적어도 최초로) 인물은 솔로몬이었다(참조, 왕상 3:9,11).

▣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과장적인 관용어가 25:31 및 사 66:16 에서도 사용되었다. 문자주의적 해석 경향을 가진 현대의 서구인들이 고대 근동의 시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이 장르를 이해함에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가위: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언어를 재고찰함*이다. 나는 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한다!

▣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야웨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의 한 가운데서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 군대와 관련을 가진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21:9; 38:2; 39:18).

# 예레미야 4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로가 패할 것을 예언함	이집트에 대한 심판	외국에 대한 예언 (46:1-51:64)	이집트가 칼케미스에서 패함	열방에 대한 예언
46:1	46:1-2	46:1  이집트에 대하여	46:1-4	46:1  이집트에 대한 예언, 칼케미스에서 패함
46:2-12 (3-12)		46:2-5 (3-5)	(3-4)	46:2
	46:3-6 (3-6)	46:6 (6)	46:5-9 (5-9)	46:3-6 (3-6)
	46:7-10 (7-10)	46:7-12 (7-12)	46:10-12 (10-12)	46:7-12 (7-12)
	46:11-12 (11-12)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옴	이집트에 대한 침공
46:13-24 (14-24)	46:13-19 (14-17)	46:13-17 (14-17)	46:13-16 (14-16)	46:13
			46:17-24 (17-24)	46:14-21 (14-21)
	(18-19)	46:18-19 (18-19)		
	46:20-26 (20-22)	46:20-21 (20-21)		
	(23-24)	46:22-24 (22-24)		46:22-24 (22-24)
46:25-26		46:25-26	46:25-26	46:25-2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46:27-28 (27-28)	46:27-28 (27-28)	46:27-28 (27-28)	46:27-28 (27-28)	46:27-28 (27-2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인근 나라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다루는 문학적 단원이 시작되는 장이다(참조, 25:15-38).
- 나. 이 나라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결코 듣거나 읽지 못하였다. 야웨께서는 자신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이 문학적 방법으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 다. 언급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집트
  2. 블레셋
  3. 모압
  4. 암몬
  5. 에돔
  6. 시리아
  7. 게달과 하술
  8. 에람
  9. 바벨론

라. 나라들과 지역에 대한 예언의 도표 (예레미야서 46-49 장)

나라들	장/절	시기(주전)	언급된 신	심판의 이유	누구에 의해	소망
이집트	46:2-12	605		교만	느부갓네살이 칼케미스에서	46:11
이집트	46:13-26	?	아피스(할) 46:15	우상숭배 46:25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함	46:26
블레셋	47:1-7	609, 605, 604, 601			북에서 오는 물 (즉, 바벨론) 47:2	
모압	48:1-47		그모스 48:7,13,26	너희자신을 신뢰함 48:7 지나친 과신 48:11 교만 48:29 거만 48:26	독수리 48:40  파멸자 48:8,32	48:47
암몬	49:1-6		말감 밀곰 볼렉 49:1,3	자신의 재산을 신뢰함 49:4		49:6
에돔	49:7-22			지형적 이유로 거만함 49:16	사자 49:19 독수리 49:22	
다메섹	49:23-27	733				
게달과 하솔	49:28-33	599			느부갓네살	
엘람	49:34-39					49:39

마. 이 장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시리아의 칼케미스에서 이집트를 물리침을 묘사한다. 이것은 시로된 본문으로서,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3-4 절(명령형)
  - ㄱ.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 ㄴ. 나가서 싸우라
  - ㄷ. 말에 안장을 지워
  - ㄹ. 타며
  - ㅁ. 투구를 쓰고 나서며(일련의 칼 명령 사이에 있는 유일한 히읏)
  - ㅂ. 창을 갈며
  - ㅅ. 갑옷을 입으라
2. 6 절(미완료형이 지시형으로 사용됨)
  - ㄱ.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 ㄴ.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3. 8 절(두 미완료형이 청유형으로 사용됨, 한 가지 청유형)
  - ㄱ. 내가 일어나
  - ㄴ. 땅을 덮어
  - ㄷ.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4. 11 절(칼 명령)
  - ㄱ. 올라가서
  - ㄴ. 유향을 취하라

- 5. 14 절(4 개의 *히* 명령, 1 개의 *칼* 명령)
  - ㄱ.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 ㄴ. 므딕돌에 선포하며
  - ㄷ.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칼*)
  - ㄹ. 너희는 굳건히 서서
  - ㅁ. 준비하라
- 6. 16 절(*칼* 명령과 청유형)
  - ㄱ. 일어나라
  - 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 2-12 절은 주전 605 년에 일어난 칼케미스(즉,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지에 위치한 하란의 서쪽에 있는 도시) 전투를 다룬다.

13-26 절은 주전 568-567 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공격한 일을 가리킨다. 이집트는 주전 525 년에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정복 당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6:1

<sup>1</sup>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46:1 이 절은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다루는 단원의 서론을 이룬다(46-51 장).

#### 개역개정 46:2-12

<sup>2</sup>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sup>3</sup>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sup>4</sup>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sup>5</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쩍이나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sup>6</sup>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 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sup>7</sup>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sup>8</sup>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sup>9</sup>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 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sup>10</sup>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sup>11</sup>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sup>12</sup>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46:2 “바로느고”** 느고 II 세(주전 609-593 년)는 느부갓네살에 맞서기 위하여 유다를 통하여 시리아의 칼케미스로 진군하였다. 요시야는 그를 멈추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므깃도에서 중상을 입었다. 요시야는 나중에 그 상처를 인하여 죽었다(즉, 주전 609 년). 바로느고의 군대는 패하였다(부분적으로 요시야가 그를 저지하여, 바벨론으로 하여금 앗시리아의 잔여 병력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멈추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갔다. 그는 3 개월간 동안 요시야를 이어 왕으로 있었다(참조, 왕하 23:28-37; 대하 35:20-36:4). 느고는 여호야김(요시야의 친척임)으로 유다의 왕을 삼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웠다(참조, 왕하 23:29 이하).

■ “패한” 왕하 24:7 에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보라.

**46:3-4 “나가서”** 이 명령(문맥적 통찰, 라향)은 모두 이집트 장교들이 이집트 병사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46:4 “투구”** 투구를 쓰는 일은 간혹 있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병사들이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준비함”을 가리킨다.

**46:5** 두려움과 패배를 나타내는 이 얼마나 강력한 시인가! 이 절은 나훔 2 장의 본문을 나에게 상기시킨다.

7 행의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는 예레미야가 자주 사용한 구이다(참조, 6:25; 20:3,10; 49:29, BDB 159 II, KB 544).

46:7-8 이 두 절은 이집트 군대의 거만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군사적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써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신화요, 거짓된 소망이었다. 사실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용병은 바벨론 군대 앞에서 도망쳤다. 나일이 강둑을 범람하지 않고 후퇴하였다!

46:9 이 절은 이집트 군대를 이루는 여러 민족을 언급한다(즉, 이디오피아, 붓, 리디아). 그들이 용병이었던지(참조, 21 절) 또는 승리를 거둔 이집트 군대에 합류한 패전국의 군대였는지는 알 수 없다.

46:10 “주 만군의 여호와”(2 회) 첫 번째 호칭인 “주”는 아돈(BDB 10)이라는 용어로서, “주인,” “님,” “영주,” “남편”을 의미한다.

두 번째 호칭은 문자적으로 “야웨 쓰바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체(LORD)로써 야웨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10 절은 바로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그의 상속자가 단 3 개월만 다스리게 하고 바꾼 일(포로로 잡아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반응일 것이다!

▣ “칼” 구약의 시로된 본문에서는 “칼”을 종종 의인화하여 말한다. 바벨론의 칼은 야웨의 칼이다.



NASB	“여호와를 위한 살륙”
NKJV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가지셨다”
NRSV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붙드신다”
NJB	“여호와께서 축제의 희생을 붙들고 계신다”
JPSOA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UBS의 *예레미야 핸드북*(847 쪽)은 이 구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한다. 이 그림은 예배자에게 그가 드린 짐승의 일부분을 먹도록 허용하는 ‘축제의 제물’에 대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 34:5-7; 겔 39:17-20; 습 1:7 에 나타난다.

46:11 길리앗은 병을 고치는 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를 위하여는 쓸 수 있는 유향이 전혀 없다(참조, 3,4 행). 이집트가 패배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다가오고 있다.

▣ “처녀 딸 애굽이여” 이것은 “처녀”(BDB 413)와 “딸”(BDB 123 I)의 합성어이다. “~의”라는 합성어는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1. 시온/예루살렘/유다 - 시 9:14; 사 1:8; 10:32; 16:1; 23:12; 37:22; 52:2; 62:11; 렘 4:11; 6:2,23,26; 8:11,19,21,22; 9:1,7; 14:17; 애가(여러 회); 미 1:13; 4:8,10; 습 3:14; 습 2:7,10; 9:9
2. 이스라엘 - 삼하 1:24; 겔 16:55
3. 두로 - 45:12
4. 바벨론/갈대아 - 2:61; 시 137:8; 사 47:1,5; 50:42; 51:33
5. 이집트 - 46:24
6. 다시스 - 사 23:10
7. 블레셋 - 겔 16:27,57
8. 모든 나라 - 겔 32:16

“처녀 딸”이라는 용어는 그 나라가 약하여 적을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1. 시온 - 왕하 19:21; 사 37:22; 렘 14:17; 애 2:10,13
2. 이스라엘 - 렘 18:13; 31:4,21; 암 5:2
3. 바벨론 - 사 47:1

4. 이집트 - 렘 46:11

왕하 19:21 에서 두 가지 형태가 시적 평행을 이룬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바뀔을 주목하라. 어떤 때는 이 용어가 모든 언약백성, 야굽/이스라엘의 자손을 가리키고, 다른 문맥에서는(즉, 분열왕국, 주전 922-722 년) 북쪽의 10 지파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46:12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향하여 가지셨던 목적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이다(참조, 창 12:3; 겔 36:22-36). 야웨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에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야웨께 나아오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다. 1:5 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개역개정 46:13-24

<sup>13</sup>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 <sup>14</sup>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므딕들과  
 노파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 <sup>15</sup>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 <sup>16</sup>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 <sup>17</sup> 그들이 그 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 <sup>18</sup>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불 같이,  
 해변의 갈멜 같이 오리라
- <sup>19</sup>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파가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 <sup>20</sup>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 <sup>21</sup>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 <sup>22</sup>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 <sup>23</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sup>24</sup>말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46:13-26 2-12 절은 주전 605 년에 시리아의 칼케미스에서 일어난 전투를 다룬다. 13-26 절은 후에 이집트가 정복 당할 것을 다룬다.

46:14 이 지역들을 44:1 에서 언급하였다. 그 본문에서는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사는 장소로서 말한다.

46:15

NASB, 폐쉬타	“엎드리지다”
NKJV, JPSOA	“쓸러가다”
NRSV, NJB, REB, LXX	“아피스(하프)가 도망쳤다”
TEV	“도망친 아피스”

이 절에 번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 “장사들”(BDB 7)은 다음의 사항을 가리킬 수 있다
  - ㄱ. 군인들(NIV, NET)
  - ㄴ. 이집트의 황소 신(LXX, NIDOTTE, 제 1 권, 234 쪽)
2. 동사는 단수형이고, 명사는 복수형이다. LXX 는 동사(나스훤)를 두 개의 단어(나스 및 훤)로 나누어 “훤(아피스)이 도망쳤다”로 제시한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렇게 두 단어로 분할한 것에 “B” 등급을 준다(293 쪽).
3. 이집트의 군인들 또는 황소 신(바로는 이집트 신들이 성육신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이 패한 일을 야웨께서 하신 일로 나타낸다(2 행).

46:16

NASB	“그들이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졌다”
NKJV, JPSOA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셨다”
NRSV	“너의 무리가 걸리고 넘어졌다”
TEV	“너의 군인들이 걸려 넘어졌다”
NJB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도록 하셨다”
LXX	“너의 무리가 약하여 넘어졌다”
REB	“이집트의 폭도가 걸려 넘어졌다”
폐쉬타	“그들의 무리가 넘어졌다”

MT 에는 “그가 많은 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로 되어 있다(히필 완료형과 칼능동 분사, 둘 다 남성 단수임). “그는 “ 15 절을 통하여 볼 때 야웨이시다. 어떤 번역본은 이것이 이집트 군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46:17

NASB, NKJV, NET	“큰 코”
NRSV, LXX	“허풍쟁이”
NJB	“큰 소음”

REB

“과장된 말”

페쉬타

“바로는 질름발이...문제를 만드는 자”

이 히브리 단어(BDB 981, KB 1370 II)는 다음을 뜻한다

1. 물이 노호함(즉, 전쟁) - 사 17:12; 램 48:45; 51:55; 암 2:2; 호 10:14
2. 전쟁으로 인한 대소동 - 시 74:23; 사 17:12-13; 25:5
3. 축제로 인한 대소동 - 사 5:14

여기서 이 단어는 바로의 이름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 또는 그의 군대가 나타났다 사라짐에 대한 조소일 것이다(램 37:5).

#### 46:18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언약의 하나님으신 야웨께서는 언제나 “왕”이셨다(참조, 삼상 8:7).

이새/다윗의 계보를 이은(참조, 삼하 7 장) 유대의 왕들은(참조, 창 49:10)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섬길 뿐이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라는 서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 및 야웨(즉, 항상 살아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
2. 맹세를 뜻하는 관용적 서언. 야웨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강력한 약속으로서 그의 말씀은 이루어 질 것이다.

▣ “다불...갈멜” 이 두 지명은 지형적으로 매우 두드러진 장소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 두 장소는 지배적인 세력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즉,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바벨론 군대).

46:19

NASB, LXX

“심지어 그것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NKJV, TEV, REB

“파괴”

NJB, JPSOA, 페쉬타

“황폐”

이 히브리 단어(BDB 428, KB 429, 니팔 완료형)는 “불이 붙다” 또는 “태우다”를 뜻한다(참조, 램 2:15; 11:16; 17:27; 21:14; 43:12; 49:2,27; 50:32; 51:30,58). 그러나 “파괴”나 “망가짐”을 나타내기도 한다(참조, 램 4:7; 9:11).

46:21-23 “그 중의 고용꾼” 이들에 대하여 9 절에서 언급하였다. 고용된 이 경험많은 군인들조차 ‘애지중지 자랐으나 도울 이가 아무도 없게 된 송아지’처럼 행동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군대 앞에서 (“20 절의 쇠파리”), 이집트의 군대가 도망치듯이 그들이 모두 도망친다(참조, 5 절). 22 절에서는 이것을 뱀이 스펠르 기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은유적 표현을 주목하라.

1.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는 자 같이
2.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는

#### 개역개정 46:25-26

<sup>25</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sup>26</sup>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6:25-26 이 장의 여러 곳에서 산문으로 된 절이 시로 된 본문을 이끈다.

1. 1-2 절, 그 다음엔 3-12 절의 시



2. 13 절, 그 다음엔 14-24 절의 시
3. 25-26 절, 앞에 나온 시에 대하여

**46:25** 이 절은 반복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LXX 는 이것을 “보라, 내가 아몬, 그녀의 아들, 바로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벌하고 있다”로 줄여서 제시한다.

아몬(BDB 51 I)은 “신들의 왕”으로 여김을 받았다. 세 신인 라, 타, 아몬은 종종 합성어를 이루었다. 아피스(참조, 15 절)의 예배 중심지는 놉(멤피스)에 있었고, 아몬의 예배 중심지는 데베에 있었다.

**46:26**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지만(참조, 겔 29:8-12),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참조, 겔 29:13-14).

**개역개정 46:27-28**

<sup>27</sup> 내 중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sup>28</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중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흠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6:27-28**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30:10-11 에 있다. 예레미야서의 이 단락은 희망의 책으로 불린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46:27** 처음에 나오는 두 동사는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미완료형이다. 바벨론(이집트가 아님)으로 잡혀간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것을 명한다. 야웨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BDB 446, KB 448, *히필* 분사, 참조, 23:3-4; 29:14)!

바벨론으로 잡혀간 야웨의 백성에게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동사들을 주목하라.

- |                |                    |
|----------------|--------------------|
| 1. 두려워하지 말라    | 5. 평안하며            |
| 2. 놀라지 말라      | 6.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
| 3.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 7.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
| 4. 야곱이 돌아와서    |                    |

회복과 안전함의 새 날을 약속하셨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단원 안에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여러 본문이 있다 (참조, 40:4-10,17-20; 51:36-40,50-53).

**46:28**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이 가질 소망의 근거는 야웨 및 야웨의 약속이다(참조, 삼하 7:8-16).

1.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2. 내가 너를 흠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3.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4.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다. 이것은 삼하 7:14 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손에게 야웨께서 주신 약속과 비슷한 내용이다.

27-28 절은 신학적으로 볼 때 30:10-11 과 상당히 비슷하다. 회복의 주제를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강조를 나타낸다!

# 예레미야 4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블레셋에 대한 예언	블레셋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하여	블레셋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블레셋에 대한 예언
47:1	47:2a	47:1-7 (2-7)	47:1-7 (2b-7)	47:1
47:2-7 (2-7)	47:2b-5			47:2-7 (2b-7)
	47:6-7 (6-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7:1

<sup>1</sup>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47:1 이 첫 절은 이 예언의 시기를 알려준다(즉, 바로가 가사를 정복하기 전).

바벨론이 블레셋을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25:20 에도 나온다.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참조, 사 14:29-31; 겔 25:15-17; 욥 3:4-8; 암 1:6-8; 습 2:4-7; 숙 9:5-7).

헤로도투스(*Hist. II*, 159)는 바로노고 II 세가 주전 609 년 경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즉, 가사)를 정복하였다고 언급한다. 이 사건은 그가 주전 609 년에 요시야의 아들(여호야하스)을 다른 꼭두각시 왕(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앉힌 것과 관련을 가진다. 이 연대로 인한 문제점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601 년에 이를 때 까지는 침공을 하지 않은 점에 있다.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제 6 권, 655 쪽)은 바벨론의 침공 시기로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만일 MT 가 정확하다면).

1. 주전 609 년 - 느고 II 세에게 요시야가 죽임을 당한 때에
2. 주전 604 년 - 이집트 군대가 칼케미스에서 패한 후에
3. 바로 호브라(또는 아프리스, 주전 588-569 년)의 통치기에 속하는 후기. 이 때 그는 페니키아와 블레셋을 침공하였다. 이 도시들은 길(즉, 남동 해변)에 있었다

개역개정 47:2-7

<sup>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sup>3</sup>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뻐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sup>4</sup>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들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sup>5</sup>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sup>6</sup>오호라 여호와와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sup>7</sup>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7:2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1. 끊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짐(참조, 1:13-14)
2. 북쪽에서 오는 파리가 깨물음(참조, 46:20)
3. 여기서는, 흘러 넘치는 강(이집트를 종종 범람하는 나일 강으로 묘사함)

침략해오는 나라를 ‘흘러 넘치는 강’으로 묘사한 것은 구약에 자주 나타난다.

1. 앗시리아 - 사 8:8-9
2. 이집트 - 렘 46:7-8; 암 8:8; 9:5

47:2e-3 이것은 블레셋의 행동을 묘사한다.

1. 사람들이 부르짖는다, 2e 절
2.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다, 2f 절
3.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3c 절
4. 아버지의 손뻐이 풀린다, 3d 절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는가?

1. 군마의 발굽 소리와, 3a 절
2.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3b 절

47:4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고 패할 것이다(이 길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였다. 다른 쪽은 사막이 위치함).

▣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왔다(참조, 신 2:23; 암 9:7). 한편, 여기서의 “갑돌”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모든 섬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일 것이다.

47:5 블레셋은 5 개의 독립된 도시국가로 구성되었다.

1. 가사
2. 아스글론
3. 아스닷
4. 갓
5. 에글론

▣

NASB, NKJV,

JPSOA

“오, 그들에게 남아 있는 골짜기”

NRSV

“오, 그들에게 남아 있는 힘”

NJB

“골짜기에 남아 있는 너”

LXX, RSV

“남아 있는 그 에나킴”(즉, “아낙 자손,” 참조, 수 11:22)

REB

“팔레스타인 강대국의 남아 있는 자”

NASB 는 MT 를 반영한다. NRSV 와 REB 는 우가랏에 나오는 다른 어근으로 추정한다(AB, 310 쪽). LXX 는 수 11:22 에서 거인이 있었던 가사, 갓, 아스닷에 대한 내용으로 바꾼다. REB 는 아스글론만 패하지 않고 남아 있던 유일한 블레셋의 도시국가였다고 추정한다.

**특별주제: 키 큰/강한 전사들이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몸이 크고/키 크고/강한 이들 민족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1. 네피림 (BDB 658) - 창 6:4; 민 13:33
2. 르파임 (BDB 952 혹은 BDB 952 II) - 창 14:5; 신 2:11,20; 3:11,13; 수 12:4; 13:12; 삼하 21:16,20,22; 대상 20:4,6,8
3. 삼숨뿔 (BDB 273), 숨뿔 (BDB 265) - 창 14:5; 신 2:20
4. 에뿔 (BDB 34) - 창 14:5; 신 2:10-11
5. 아나킴 (아낙의 자손, BDB 778 I) - 민 13:33; 신 1:28; 2:10-11,21; 9:2; 수 11:21-22; 14:12,15

▣ “네가 네 몸 베기를” 이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었다

1. 그들의 우상숭배(2:20의 특별주제를 보라)
2. 그들의 슬픔의 의식(2:37의 특별주제를 보라)

5a 절과의 평행법을 고려할 때, 2항의 설명이 바르다.

**47:6** 이 절은 야웨의 칼을 의인화하여 말한다(참조, 12:12; 사 34:6; 암 9:4).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정복을 당한 자들이 하는 질문임이 분명하다)

1.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2. 네 칼집에 들어가서
3. 가만히
4. 설지어다

마지막 세 항은 명령법이다!

**47:7** 7절은 6절에 대한 답변이다(즉, LXX의 본문). 야웨의 칼이 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인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즉, “그가 정하셨느니라,”(BDB 416, KB 419, 칼 완료형). 야웨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전에 앗시리아를 사용하셨듯이,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장차 페르시아를 사용하실 것이다.

# 예레미야 4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모압에 대한 예언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하여	모압의 멸망	모압에 대한 예언
48:1-10 (1-10)	48:1a  48:1b-5 (1b-5)	48:1-13 (1-2)	48:1-3 (1-3)	48:1-2 (1-2)
		(3-6)	48:4-6 (4-6)	48:3-9 (3-9)
	48:6-10 (6-10)	(7-8) (9)	48:7-10 (7-10)	
			모압의 도시가 파괴되다	48:10
48:11-20 (11)	48:11-25 (11)	48:11-13 (11)	48:11	48:11 (11)
(13-20)	(12-13)		48:12-13	48:12-13
	(14-15)	48:14-20 (14-17)	48:14-16 (14-16)	48:14-17 (14-17)
	(16-17)		48:17-20 (17-20)	
	(18-20)	(18-20)		48:18-20 (18-20)
48:21-35	(21-25)	48:21-25	48:21-25	48:21-24
			모압이 낮아질 것이다	48:25 (25)
	48:26-39 (26-28)	48:26-27	48:26-27	48:26-27
(28-33)		48:28-33 (28-33)	48:28-33	48:28 (28)
	(30-34)			48:29-33 (29-33)

		48:34-36	48:34-35	48:34
	(35-36)			48:35
48:36-39			48:36-39	48:36-39
	(37-39)	48:37-44	모압에서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48:40-44 (40-44)	48:40-44 (40-44)	(40-44)	48:40-46	48:40-43 (40-43)
				48:44 (44)
48:45-47 (45-47)	48:45-47 (45-46) (47)	48:45-47 (45-47)		48:45-46 (45-46)
			48:47	48:47 (4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것은 모압에 대한 긴 내용의 정죄이다(참조, 사 15-16 장). 이 장은 여러 시와 설명으로써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었다.

1. 모압 - 48 장에서 정죄받음
2. 암몬 - 49:1-6 에서 정죄받음
3. 에돔 - 49:7-22 에서 정죄받음

나. 이 장에는 많은 수의 명령형이 나온다(17 또는 18 개). 이 중 여러 경우는 *케티브*(MT 본문)와 *케레*(난외에서 제안하는 단어)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맛소라 학자들은 구약에서 약 1,000 곳의 본문에 있는 한 형태에 대하여 난외에서 다른 형태를 제안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 장에 이것과 관련을 가진 것이 5 번 나오는데, 그 중 3 번은 명령형의 성(gender)과 관련을 가진다.



1. 18 절, “앉다”(BDB 442, KB 444)
  - ㄱ. 칼 분사 남성 복수(케티브)
  - ㄴ. 칼 명령 여성 단수(케레)
2. 20 절, “울다”(BDB 410, KB 413)
  - ㄱ. 히필 명령 여성 단수(케티브)
  - ㄴ. 호팔 명령 남성 복수(케레)
3. 20 절, “부르짖다”(BDB 277, KB 277)
  - ㄱ. 칼 명령 여성 단수(케티브)
  - ㄴ. 칼 명령 남성 복수(케레)

이 같은 “여성형” 대 “남성형”의 문제가 27 절에도 나온다.

1. 니팔 완료형 여성 단수(케티브)
2. 니팔 완료형 남성 복수(케레)

이 문제는 국가 또는 성의 주민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형의 성(gender)이 적절한가와 관련이 있다.

다. 얼마나 많은 수의 도시가 이 장에 나오는지 주목하라.

1. 느보, 1,22 절(참조, 사 15:2)
2. 기라다임, 1,23 절(참조, 겔 25:9)
3. 헤스본, 2,34,45 절(참조, 사 15:4; 16:8,9)
4. 디몬/디분(“미친 자”), 2,13,22 절(참조, 사 15:2,9)
5. 호로나임, 3,5,34 절(참조, 사 15:5)
6. 루히, 5 절(참조, 사 15:5)
7. 아로엘, 19 절(아마 6 절도, 참조, 신 2:36; 3:12; 4:48)
8. 홀론, 21 절(아마 호론, 참조, 사 15:5, 또한 5 항과 같음)
9. 야사, 21,34 절(참조, 사 15:4)
10. 메바앗, 21 절(참조, 수 13:18; 21:37)
11. 벤티불라다임, 22 절
12. 벵가물, 23 절
13. 벵므온, 23 절
14. 그리웃, 24,41 절(참조, 암 2:2)
15. 보스라, 24 절
16. 길헤레스, 31,36 절(모압의 한 수도, 참조, 사 16:7,11)
17. 십마, 32 절(참조, 사 16:8,9)
18. 야셀, 32 절(참조, 사 16:8,9)
19. 엘르알레, 34 절(참조, 사 15:4; 16:9)
20. 소알, 34 절(참조, 사 15:5, RSV 와 NEB 에서는 4 절에 들어 있다)
21. 에글랏셀리시야, 34 절(참조, 사 15:5)
22. 시혼, 45 절(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의 이름, 3 항)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8:1-10

<sup>1</sup>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sup>2</sup>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sup>3</sup>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sup>4</sup>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sup>5</sup>그들이 루히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sup>6</sup>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sup>7</sup>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sup>8</sup>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sup>9</sup>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sup>10</sup>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48:1 “모압” 이 이름의 어원적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창 19:37 은 이 단어를 롯의 딸을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시켜 “나의 아버지로부터” 또는 “나의 아버지의 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에서 흔히 사용한 어원에 속한다. 롯이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이의 이름이 그 민족을 나타내었다(다른 딸의 아들인 암몬도 그러하다, 참조, 창 19:38). 그들의 지경은 사해의 동편에서 세렛과 아르논 강 사이에 있었다.

▣ “느보” 이 용어(BDB 612)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다.

1. 바벨론 사람들의 신(참조, 사 46:1)으로서 때로는 “나부”로 발음되었다. 그는 마르둑의 장자였다.
2. 모압에 있는 산으로서 사해의 동편에 있는 높은 산이었다. 모세는 약속의 땅(참조, 신 32:48-52)을 모압 평지에서 보도록(들어가지는 못함) 허락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죽었고, 그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묻으셨다(참조, 신 34 장). 그 산은 비스가로도 알려져 있다(참조, 신 34:1).
3. 모압 평지에 있는 성읍(참조, 민 32:3,38; 사 15:2; 렘 48:1,22)

▣ “기라다임” 이 도시(기라다림과 혼동하지 말라)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이었다(참조, 5 행). 르우벤이 제비뽑아 받은 지역에 있었다(참조, 민 32:37; 수 13:19; 렘 48:1,23; 겔 25:9). 이 이름 자체(BDB 900)는 “이중으로 된 성”을 뜻한다.

▣	
NASB	“아주 높은 근거지”
NKJV	“높은 근거지”
NRSV, NET	“성채”
TEV	“그것의 강력한 성채”
NJB	“성”
REB, JPSOA 각주	“미스갑”
LXX	“하마사갑”
JPSOA	“그 근거지”

이 단어(BDB 960, KB 640)는 기본적으로 “높은 피난처”를 뜻한다(참조, 사 33:16). 그러나 이것에 관사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하며-“그 성채”-라는 의미이다. 아마 이 용어는 모압의 모든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단어일 것이다(참조, 8d 절). 한편, 성채라는 명사가 남성형이다. 그러나 48:1 에 있는 모든 동사(처음 것만 제외하고는, “말하다”)가 3 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다. 1 절에서 두 도시를 더 언급한다. 이 여성형은 지명과 어울린다(참조, LXX, REB). 이 지명은 불행하게도 고대의 다른 문서에서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다.

48:2 “헤스본” 이 도시(BDB 363 II)는 모압 북쪽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암몬과 경합하는 곳에 있었다(참조, 민 21:25). 이 절은 모압에 대하여 암몬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에 가담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한편, 이 절이 바벨론 군대의 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헤스본(BDB 363 II, *헤스본*)과 “악을 도모하다”라는 동사(BDB 362, KB 359, *칼 완료형, 하스부*) 사이에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맛넨” 이 단어(*맛넨*, BDB 199, KB 226-227)의 의미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단어를 영어단어로 혼동하지 말라.

1. “잠잠하다”(BDB 198 I, KB 226 I)라는 동사와 관련된 언어유희
2. 똥의 언덕(BDB 199 I, KB 226, *도넨*, 참조, 사 25:10)과 관련된 언어유희
3. 렘 48:2 에서만 나오는 도시의 이름(BDB 199 )
4. “디몬”(BDB 192, *디몬*, 참조, 사 15:9)과 관련된 언어유희, 디몬의 변형(BDB 192, 참조, 사 15:2)

48:3 “호로나임” 이 용어(BDB 357)는 “두 개의 도관,” “두 동굴,” “두 골짜기”를 뜻한다. 이 성읍은 사 15:5; 렘 48:5,34 에서만 나온다. RSV 는 삼하 13:34 을 이 단어로 번역하였다.

48:4 “그 어린이들의” RSV 와 NRSV 는 이 단어(셰이레하[14:3 에서 “종들”로 번역됨], BDB 859)는 이것을 성읍명인 소알(쑤알, BDB 858, 참조, 34 절과 사 15:5)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LXX 도 이것을 지명으로 제시한다(즉, 소고라).

UBS 본문 프로젝트는 *케레* “그녀의 어린이들”에 B 등급을 준다. 이 경우, 히브리 절에 있는 본문이 문법에 더 잘 들어 맞는다.

48:5 “루히” 이 모압 도시(BDB 532)는 호로나임과 관련이 있다. 이곳은 사해와 가까이 있으면서, 그곳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소이었다.

48:6 모압의 도시에 죽음이 선언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고 있다

1. 도망하여 - 칼 명령
2. 네 생명을 구원하라 - 피엘 명령
3. 날개를 주라 - 칼 명령

▣

NASB, NKJV	“노간주나무 같이”
NRSV, LXX	“들 나귀 같이”
TEV, NJB	“들 당나귀 같이”
JPSOA	“아로엘 같이”
REB	“극빈자 같이”
페쉬타	“식물 같이”

다양한 제시에서 보듯이 MT 의 본문은 불확실하다. 아로엘(참조, 19b 절)은 모압의 성읍(BDB 792 II)이다. 다른 성읍과 이루는 평행법도 이 해석을 지지한다.

한편, “관목” 또는 “노간주나무”와 비슷한 단어가 램 17:6 에서 사용되었다(BDB 792 I).

“아로엘” - 카아로엘 (BDB 792 II), 19 절에서도

“들 나귀” - 케아론 (KB 882), LXX 과 아퀼라역, 참조, 2:24; 14:6(다른 히브리 단어임)

“노간주나무” - 카아로엘 (BDB 792 I, KB 883, 참조, 17:6), MT 에서. 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에 “C” 등급을 준다.

48:7 “네가 . . .을 의뢰하므로” 모압이 여러 가지를 신뢰하였다(BDB 105, KB 120, 칼 부정사 연계형).

- |           |                 |
|-----------|-----------------|
| 1. NASB   | “우리 자신이 성취한 것들” |
| NKJV      | “일들”            |
| NRSV, LXX | “근거지들”          |
| TEV       | “힘”             |
| NJB       | “행위”            |
| JPSOA     | “부”             |
| REB       | “방어”            |

MT에서는 “행위” 또는 “일들”(BDB 79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가리킬 것이다.

2. “보물,” JPSOA 는 1 항과 2 항이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3. 그들은 국가의 우상인 그모스를 신뢰하였다. 이 우상은 그들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참조, 13,35 절)

모압의 자랑, 교만,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29-30,42 절에서 자세하게 나온다.

▣ “그모스” 이것은 모압 국가의 신이었다(참조, 민 21:29). 그들은 “그모스의 백성으로 불렸다.” 사 11:24 에서, 이 신은 암몬과도 관련을 가진다. 솔로몬은 자기의 어린 가나안 첩들을 위하여 이 종교를 예루살렘에 들여 놓았다(왕상 11:7; 왕하 23:13).

이 명칭의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다(BDB 484). 어떤 학자는 “파괴자” 또는 “정복자”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물고기 신”과 관련을 지어 설명한다. 우리가 이 가나안 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디본에서 1868 년에 발굴된 “모압 비문”에서 온 것이다.

왕하 3:21-27(특히, 27 절)의 본문은 그모스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과 관련을 가짐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다산의 신인 몰렉과 바알에게도 그러한 종류의 제사를 행하였다.

48:8 모압의 멸망은 야웨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참조, 15c 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48:9

NASB, NKJV

NJB, JPSOA “날개를 주어라”

NRSV “소금을 뿌려라”

TEV “묘비를 세워라”

LXX “표를 주어라”

REB “경고의 표를 주어라”

시의 이 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제안이 제시되었다.

1. MT에서는 “날개”(BDB 851 I)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만 사용된 아람어 어근의 독특한 의미이다
2. LXX, TEX, REB 는 이 동사를 길의 표지로 본다(BDB 846, 참조, 33:21)
3. NRSV 는 “소금”이라는 우가릿 어근을 제시한다. 이것은 심판이라는 문맥에 들어 맞는다(참조, 샷 9:45)

48:10 많은 영어역본은 이것을 괄호안에 넣는다(참조, TEV, NJB, NET). 이것은 바벨론 침공자들에게 ‘야웨의 심판을 모압의 모든 성에 철저히 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개역개정 48:11-20

<sup>11</sup>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sup>12</sup>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sup>13</sup>이스라엘 집이 벤엘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sup>14</sup>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sup>15</sup>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sup>16</sup>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sup>17</sup>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sup>18</sup>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으로다  
<sup>19</sup>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19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20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는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48:11-20 이 장을 구분함에 있어서, 모든 영어역이 서로 다르게 문단/연 구분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때로 산문과 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문단 구분이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즉, 원문에 표시된 것이 아님), 이 구분은 각 단위의 해석학적 목적을 파악함을 도우며 각 문단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게 돕는다. 각 문단/연은 한 가지 주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고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 있는 *성경해석 세미나*를 보라.

48:11-12 이것은 포도주를 제조하는 것에서 취한 예이다(23:9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이 26 절과 33 절에도 나옴을 주목하라.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러한 암시 때문에, 이 시들을 이 문맥에 모은 것이다.

48:13 우상숭배는 이스라엘과 모압에게 부끄러움과 비천함을 가져다 주었다(즉, 35 절; 사 44:10-11; 45:16).

벤엘에 대한 암시는 (1) 하나님의 호칭, 나일 강에 있는 섬인 엘리판틴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함(즉, “하나님의 집”) 또는 (2) 여로보암 I 세가 경쟁하여 벤엘에 세운 성전을 나타낸다. 그는 야웨의 상징(즉, 금송아지, 참조, 출 32 장)을 가나안의 다산숭배를 위한 것으로 바꾸었다(참조, 왕상 12:25-33).

타락한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의 능력을 신뢰하고(BDB 105)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아무런 희망, 확신, 안전이 없다! 우상들은 실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48:17-20 시의 이 부분은 두 그룹에게 하는 내용이다.

1. 모압 근처에 사는 자들
2. 이 일을 들은 자들

이 두 그룹을 집합적인 사람으로 일컬으며, 모압에 대한 충고의 말을 준다.

1. 슬퍼하라, 17 절 - 칼 명령
2. 말하라, 17 절 - 칼 명령
3. 내려오라, 18 절 - 칼 명령
4. 앉으라, 18 절 - 칼 명령(케레)
5. 서라, 19 절 - 칼 명령
6. 지키라, 19 절 - 피엘 명령
7. 물으라, 19 절 - 칼 명령
8. 말하라, 19 절 - 칼 명령
9. 곡하라, 20 절 - 히필 명령
10. 부르짖으라, 20 절 - 칼 명령
11. 선언하라, 20 절 - 히필 명령

48:17 “막대기. . .지팡이” 이 둘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1. 막대기 - BDB 641, 지팡이 또는 막대기

2. 지팡이 - BDB 596

이 물건들은 다음을 가리킬 수 있다

1. 목자의 지팡이(참조, 창 32:10)

2. 여행자의 막대(참조, 출 12:11)

3. 타는 막대(참조, 민 22:27)

4. 무기(참조, 삼상 17:40; 겔 39:9)

5. 점술가의 막대(참조, 호 4:12)

6. 왕의 권세(즉, 슥 11 장에서 메시아의 권세)

여기서는 모압 왕국을 나타낸다.

48:18-28 유대인의 연구성경(1022 쪽)은 이 시/예언이 강간을 당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개의 여성 단수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48:18

NASB, NRSV,

NJB, REB

NKJV, JPSOA

LXX

페쉬타

AB

“메마른 땅에 앉으라”

“땅의 먼지에 앉으라”

“습기 있는 땅에 앉으라”

“불명예에 앉으라”

“더러움에 앉으라[?]”

AB 는 각주에서(존 브라이트가 저술한 앵커 바이블 주석)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315 쪽):

1. 밧소아 - 더러움/똥

2. 밧사마 - 목마름(MT)

3. 밧사메 - 메마른 땅(참조, 사 44:3)

JPSOA 의 각주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는 불확실함”이라고 설명한다(1022). 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다음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1. 문맥(즉, 평행법과 연의 강조점)

2. 다른 섹족어의 어근

3. 평행 구절(렘 48 장은 사 15-16 장을 사용한다)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662 쪽)은 사 15-16 장과 렘 48 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 15:2 - 렘 48:1

사 15:2-3 - 렘 48:37

사 15:3 - 렘 48:38

사 15:4 - 렘 48:21,5

사 15:4-6 - 렘 48:5,34

사 15:5 - 렘 48:3

사 15:5; 16:7,11 - 렘 48:31

사 15:7 - 렘 48:36

사 16: 6 - 렘 48:29

사 16:8-9 - 렘 48:32

사 16:10 - 렘 48:33

사 16:11 - 렘 48:36

사 16:12 - 렘 48:35

개역개정 48:21-35

<sup>21</sup>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sup>22</sup> 디본과 느보와 벤디블라다임과 <sup>23</sup> 기라다임과 벤가물과 벤므온과 <sup>24</sup> 그리웃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sup>25</sup>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26</sup>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또한 것에서 뿔굴므로 조롱 거리가 되리로다 <sup>27</sup>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sup>28</sup>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sup>29</sup>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sup>30</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sup>31</sup>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sup>32</sup> 십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sup>33</sup> 기쁨과 환희가

옥도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sup>34</sup>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sup>35</sup>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48:21-24 모압의 성읍들이 언급되었다.

48:25 모압이 완전히 패하였음을 두 가지의 옛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1. 그들의 “뿔”이 꺾였다(BDB 154, KB 180, *니팔* 완료형)
2. 그들의 팔이 꺾였다(BDB 990, KB 1402, *니팔* 완료형)

48:26 과도하게 포도주를 마심에 대한 내용은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52:27; 사 19:14)

1. 취하게 할지어다
2. 그 또한 것에서 그가 뿔굴다(문자적으로, “튀기다,” BDB 706 을 보라. 칼 3 항의 의미가 바로 이곳에서 사용된 의미임, 이 동사는 대개 기쁘거나 슬퍼서 “손뼉을 치다”를 뜻함)
3. 뿔굴므로



야웨께서 모압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1.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며, 26,42 절
2. 그가 교만하였기에, 29 절(참조, 사 16:6)
3. 그의 허탄한 자량이 헛되기 때문이다, 30 절



NASB, NRSV,

NJB, JPSOA “웃음거리”

NKJV, REB, 폐쇄타 “조소”

이 단어(BDB 966)는 즐겁게 웃는 것을 나타낸다(욥 8:21; 시 126:2; 전 2:2; 10:19). 그러나 풍자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조소를 뜻한다(참조, 렘 20:7; 애 3:14; 욥 12:4).

**48:27**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다(즉, 반전)! 이러한 종류의 조소에 대하여는 애 2:15-17 을 보라!

**48:28** 이 절에는 칼 명령이 세 가지 있다. 이 본문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모압 주민에 관한 것이다(즉, 바위 틈, 동굴, 참조, 16:16; 삿 6:2; 삼상 13:6; 사 2:19).

**48:28-39** 유대인의 연구성경(1022 쪽)은 이 단락이 3:2 운율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장례식 만가의 특징적 운율이다. 이것은 “화 있을진저”라는 예언에 종종 사용된 애가 형식이다.

**48:29** 이것은 사 16:6 과 비슷하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사 15-16 장에 나온다. 렘 48 장과 사 15-16 장 사이에는 평행을 이루는 여러 문학적 내용 및 암시가 나온다.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UBS *예레미야 핸드북*(888 쪽)은 여러 명사가 모압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언급한다.

1. 모압의 교만(BDB 144)
2. 그가 매우 교만하다(BDB 144 과 547)
3. 그의 거만함(BDB 147)
4. 그의 거만(BDB 144)
5. 그의 오만(BDB 144)
6. 교만(BDB 144)
7. 그의 자궁함(문자적으로, “그의 심장의 거만함,” BDB 927 과 BDB 524 의 합성)

이 의도적인 반복은 모압의 거만한 태도를 강력히 나타낸다(참조, 7 절).

**48:31-32** 야웨께서 주어이다(참조, 33,36; 31:20; 사 16:11; 호 11:8-9). 모압에게 심판을 행하셔야 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슬퍼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적 유산의 한 부분이였다. 심판은 야웨께 이상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번영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크게 회한에 찬 내용이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1. 내가 울며 - BDB 410, KB 413, *히필* 미완료형
2. 내가 부르짖으며 - BDB 277, KB 277, *칼* 미완료형
3. 내가 신음하리로다 - BDB 211, KB 237, *칼* 미완료형(3 인칭으로 되어 있으나 1 인칭과 평행을 이룬다)

NASB 연구성경(1132 쪽)은 1 인칭 대명사가 선지자를 가리키며 그러한 예가 사 15:5 및 16:9 에 나온다고 주장한다.

48:32 3 행과 4 행은 사 16:8 의 반복이다. MT 에는 “바다”가 두 번 있는데, LXX 에는 없다.  
“바다”는 사해를 가리킨다.

48:34 지형적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다-심판으로 인한 비명이 멀리까지 들린다!

개역개정 48:36-39

<sup>36</sup>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sup>37</sup>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베가 들렸고 <sup>38</sup>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39</sup>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 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48:37-38 이것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참조, 4:8, 2: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의식(즉, “그들의 손에 상처를 냄,” 참조, 16:6, 또는 “지붕에,” 참조, 19:13; 32:29) 또는 야웨를 예배함의 부패(참조, 41:5)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48:39 “등을 돌렸도다” 이 동사(BDB 815, KB 937, *히* 완료형)는 다음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1. 겸손
2. 전쟁에서 후퇴함

개역개정 48:40-44

<sup>40</sup>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sup>41</sup>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sup>42</sup>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sup>43</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닥치나니  
<sup>44</sup>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40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가리킨다(참조, 4:13; 49:22; 젤 17:3; 호 8:1).

48:41

NASB, NKJV, LXX,

JPSOA, 페쉬타 “케리웃”

NRSV, TEV,

NJB, REB “성읍들”

이 히브리 어근 *케렐*(BDB 900)은 “성읍”을 뜻한다. 본문에 있는 *학케리욘*은 암 2:2(그러나 “성채”를 뜻하는 다른 히브리 단어로써) 및 모압비문에서 지명으로 사용되었다.

▣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30:6 의 설명을 보라.

48:43-44 이같은 용어가 사 24:17-18 에서 사용되었다. 이 세 단어(BDB 808, 809, 809 I)와 관련된 소리유회를 고려할 때, 이것은 잘 알려진 잠언이었을 것이다. 사냥기술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야웨의 심판을 제시한다(참조, 암 5:19). 아무도 도망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다!

개역개정 48:45-47

<sup>45</sup>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쩍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sup>46</sup>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sup>47</sup>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8:45 “모압의 . . .정수리를” 이것은 민 24:17 에 대한 암시이다. 그 본문은 발람의 예언 가운데 하나이다. “정수리”(BDB 802)는 17 절에 나오는 “막대기”와 “지팡이”의 경우처럼 왕권을 상징한다.

“정수리”가 “면류관”(BDB 869)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역적인 모압의 머리가 부수어졌음을 나타낸다(즉, 전쟁에서 죽임을 당함).

48:47 야웨께서 내리시려는 심판을 인하여 슬퍼하시듯이(참조, 31,36 절), 이제는 희망스런 미래의 한 날을 약속하신다(참조, 12:14-17). 야웨께서 아브라함/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은 세상을 택하기 위함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레미야 4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암몬에 대한 예언	암몬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하여	암몬에 대한 주님의 심판	암몬에 대한 예언
49:1-6 (1-6)	49:1-2 (1b-2)  49:3-6 (3-6)	49:1-6 (1-6)	49:1-6	49:1-5 (1-5)  49:6
에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하여	에돔에 대한 주님의 심판	에돔에 대한 예언
49:7-11 (7-11)	49:7-11 (7b-11)	49:7-22 (7-11)	49:7-11	49:7-11 (7-11)
49:12-13	49:12-13		49:12-13	49:12-13
49:14-16 (14-16)	49:14 (14)  49:15-19 (15-16)	(14-16)	49:14-16	49:14-16 (14-16)
49:17-19	(17-18)  (19)		49:17-22	49:17-18  49:19-22 (19-22)
49:20-22	49:20-22 (20-22)			
다메섹에 대한 예언	다메섹에 대한 심판	다메섹에 대하여	다메섹에 대한 주님의 심판	시리아의 성읍에 대한 예언
49:23-27 (23-27)	49:23-27 (23-27)	49:23-27 (23-27)	49:23-27	49:23-25 (23-25)  49:26  49:27 (27)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게달 족속과 하솔 성에 대한 주님의 심판	아랍 족속에 대한 예언
49:28-33 (28b-33)	49:28-33 (28b-29)  (30) (31-33)	49:28-33 (28b-30)  (31-33)	49:28-29  49:30-31	49:28-33 (28b-33)

			49:32-33	
엘람에 대한 예언	엘람에 대한 심판	엘람에 대하여	엘람에 대한 주님의 심판	엘람에 대한 심판
49:34	49:34-35a	49:34	49:34-39	49:34-35a
49:35-39 (35-39)	49:35b-38 (35b-38)	49:35-38		49:35b-36 (35b-36)
				49:37-38 (37-38)
	49:39 (39)	49:39		49:3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1. 암몬, 1-6 절
2. 에돔, 7-22 절
3. 시리아, 23-27 절
4. 게달과 하술, 28-33 절
5. 엘람, 34-39 절

나. 많은 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인 48 장의 경우와 비슷하다.

1. 암몬, 1-6 절
  - ㄱ. 랍바, 2,3 절
  - ㄴ. 헤스본, 3 절
  - ㄷ. 아이, 3 절
2. 에돔, 7-22 절
  - ㄱ. 데만, 7 절
  - ㄴ. 드단, 8 절

- ㄷ. 보스라, 13,22 절
  - 3. 시리아, 23-27 절
    - ㄱ. 다메섹, 23,34,27 절
    - ㄴ. 하맛, 23 절
    - ㄷ. 아르밧, 23 절
    - ㄹ.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25 절(즉, 다메섹)
- 다. 48:47 에서 모압에 대한 소망과 회복의 빛이 비취듯이(참조, 12:14-17), 이 장에도 다음 나라에 대한 소망과 회복의 빛이 비친다
  - 1. 암몬, 6 절
  - 2. 엘람, 39 절
- 라. 야웨께서 말씀하심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나타난다.
  -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b,2g,12a,18,28 절
  - 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b,6c,13b,16h,31b,32d,38c,39c 절
  - 3.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b 절
  - 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7b,26c,35a 절
  - 5.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 14 절
 25 절도 야웨께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개연성이 아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9:1-6

<sup>1</sup>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나

<sup>2</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3</sup>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이 부르짖을지어다  
 굶은 베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sup>4</sup>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sup>5</sup>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망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sup>6</sup>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9:1 “암몬” 이 민족(모압과 마찬가지로)은 롯이 자기 딸에게서 나온 후손이다(참조, 창 19:38).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친척이었다. 그들의 지경은 요단의 동편 지역에서, 모압의 북동쪽에 있었다. “아모리 족속”으로 알려진 그룹이 요단 강 근처와 동편 사막지역의 암몬 족속 가까이 살았다. 그들의 수도는 랍바였다. 그들은 사울 왕에게 큰 적수였지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신하였다.

제롬 성경 주석(334 쪽)은 우리에게 암몬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상기시킨다

1.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뻐함(참조, 겔 25:1-7)
2. 그들의 왕인 바알리스는 바벨론이 세운 새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하도록 이스마엘을 교사하였다(참조, 40:11-16)

49:1,3

NASB	“말캄”
NKJV	“밀캄”
NRSV, NJB,	
JPSOA, REB	“밀콤”
TEV	“몰렉”
페쉬타	“말콤”
LXX	“멜콜”

MT 에는 “그들의 왕”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이름은 “왕,” 멜렉(BDB 572)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왕상 11:5,33 에서, 이 암몬 국가의 신은 “밀곰”으로 불리는데, 7 절에서는 “몰렉”(TEC)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이 다산의 신을 가리키기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한 용어이다.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UBS 본문 프로젝트(304 쪽)는 “밀곰”에 “B”등급을 준다.

▣ “갓” 이것은 갓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을 가리킨다(참조, 민 32:33-37; 수 13:24-28). 이것은 아모리 지역 및 일부 암몬 지역을 포함하였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받을 지파의 땅을 요단 강 동편에서 받기를 원하였고 또 그 지역을 받았다(참조, 수 13:8).

암몬이 갓 지파가 할당받은 땅으로 세력을 확장한 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앗시리아 시대의 자료에서 나타난다(즉, 티글랏빌레셀 III 세, 주전 734-732 년, 참조, 왕하 15:29).

49:2 “전쟁 소리” MT 에는 나팔이라는 단어는 없고, “전쟁의 소리”라는 합성어로만 되어 있다(BDB 929 와 536). 이 단어는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어떤 특별한 형태의 전쟁 소리
2. 나팔을 부(4:2 의 특별주제: 이스라엘에서의 나팔의 사용을 보라)

▣ “마을들” 이 용어(BDB 123 I)는 문자적으로 “딸들”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종종 “주변의 마을들”(참조, 민 21:25,32; 사 1:27; 느 11:25-31)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었다(즉, BDB 123 I, 4 항). 3 절에서 이것이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1. 랍바의 주민들
2. 랍바 주위의 마을들

49:3 암몬이 패하여 잡혀가는 것에 대하여 암몬 사람들에게 여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

1. 슬퍼하라 - BDB 410, KB 413, *히필* 명령
2. 크게 올라 - BDB 858, KB 1042, *칼* 명령
3. 굽은 베를 감아라 - BDB 291, KB 291, *칼* 명령
4. 애통하라 - BDB 704, KB 763, *칼* 명령
5. 허둥지둥할지어다 - BDB 1001, KB 1439, *히트폴렐* 명령 또는 “너희 자신을 깊이 베어라,” REB, 참조, 48:37; LXX 에서는 이 행이 빠져 있다)

▣ “아이” 이 이름으로 불리는 암몬의 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NJB 는 이것을 “아르”라고 바꾸었다. LXX 에는 “가이”로 되어 있다. R. K. 해리슨이 가장 좋은 설명을 제시한다(틴넬 구약 주석, “예레미야서,” 179 쪽). 그는 “아이”가 성을 가리킬 때는 항상 관사와 더불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관사가 없다. 이 단어 자체(BDB 743)는 “폐허”를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헤스본의 멸망을 가리킨다.

49:4 암몬은 어느 정도 야웨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의 내용을 신뢰하였다

1. 그들의 지형(즉, 비옥한 계곡, “문자적으로, “호르는,” BDB 264, KB 206)
2. 그들의 보화(즉, 무역로를 통하여 거두어 들이는 세금, 참조, 48:7)

JPSOA 는 처음 두 행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왜 너의 강함의 영광이  
너의 강함이 빠져 나갔는가”

그들은 “계곡”이라는 히브리 어근(BDB 770)이 “힘”을 뜻하는 아카디아 어근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였다(참조, NRSV, TEV, REB, NET).

49:5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그의 통치 제 23 년(즉, 주전 582 년)에 암몬을 황폐시켰다고 말한다 (고대사. 10.9.7).

49:6 이것은 48:47 과 마찬가지로 회복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다. 39 절에서 엘람에게 대하여 사용한 것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약속은 종말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나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통하여 약속을 받은 “열방”에 대한 것이다(즉, 시 22:27; 66:1-4; 86:8-10; 사 2:2-4; 12:4-5; 25:6-9; 42:6-12; 45:22-23; 49:5-6; 51:4-5; 56:6-8; 60:1-3; 66:23; 미 4:1-4; 말 1:11; 요 3:16; 4:42; 딤후 2:4; 딤후 2:11; 벧후 3:9; 요일 2:1; 4:1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역개정 49:7-11

<sup>7</sup>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sup>8</sup>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sup>9</sup>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sup>10</sup>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sup>11</sup>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49:7 “에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소망이 있었지만, 에돔의 경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에돔은 유다의 영원한 적이였다.

**특별주제: 에돔과 이스라엘**

- 가. 에돔은 사해 동편에 있는 나라로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서 출발했다(참조, 창 25-28 장; 32-33 장). 에돔은 “붉은”을 뜻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을 뜻한다(참조, 창 25:25,30).
- 나. 이스라엘은 에돔을 존중할 것에 대해 명령을 받았다(참조, 신 23:7)
- 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 1. 민 20:14-21
  - 2. 삿 11:16-17
  - 3. 삼상 14:47-48
  - 4. 삼하 8:14
  - 5. 왕상 11:14-22
  - 6. 왕하 14:22; 16:5-6
  - 7. 대하 20:10-30; 21:8 이하
  - 8. 암 1:6,9
- 라. 에돔에 대항하여 선포된 예언들
  - 1. 사 34:5 이하; 63:1 이하
  - 2. 렘 49:7-22
  - 3. 애 4:21-22
  - 4. 겔 25:12-14; 35:1-15; 36:2-6
  - 5. 암 1:11-12
- 마. 오바다서에서 에돔이 정죄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 1. 그들의 교만함을 인해, 3-4 절
    - ㄱ. 지정학적 안전함
    - ㄴ. 정치적 유대와 군사력
    - ㄷ. 상업적으로 부요함
    - ㄹ. 전통적으로 지혜로움

2. 그들이 자신의 친족인 유다에 대한 범죄를 인해, 10-14 절
  - ㄱ.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음(애 2:15-17; 4:21)
  - ㄴ. 도와주기를 거부했음(15 절)
  - ㄷ. 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14 절)
  - ㄹ. 유다의 재산을 취함(렘 13:19)
3. 그들이 야웨를 거부하고 업신여김(16 절)
- 바. 에돔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 반역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모형)하였을 것이다, 15-21 절(참조, 시 2 편).
- 사.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다음과 같다
  1.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5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에돔이 멸망함, 주전 580년
  2. 에돔이 나바티안 아랍에 의해 주전 550-449년 경에 페트라에서 쫓겨남(참조, 말 1:2-5). 느헤미야가 말한 주위의 적들에서 에돔은 언급되지 않았고 아랍 족속으로 대치되었다. 에돔은 네겝지방으로 이주했다
  3. 에돔이 알렉산더의 장군인 아티고누스에 의해 주전 312년에 패함(디오도루스 셀쿠루스에 기록됨)
  4. 에돔이 유대 마카비에 의해 주전 175년 경에 네게브에서 패함(참조, 마카비상 5:3,15; 마카비하 10:15;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2:8:1; 13:9:1)
  5. 에돔이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주전 125년에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함. 그들은 이제 이두메인으로 불린다
  6.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이두매의 영향을 근절시켰다

▣ “지혜 . . . 책략” 이 용어들은 “지혜자”를 가진 에돔의 명성을 나타낸다(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읍은 에돔 출신이었을 것이다(즉, “우스 땅,” 또 그의 한 친구는 에돔의 도시인 데만에서 왔다).

1. 지혜(BDB 315)
2. 자문(BDB 420)
3. 지혜로운(BDB 106, KB 122, 칼 능동 분사)

렘 9:23-24은 참 지혜와 야웨를 아는 지식을 분리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 “데만” 이 명사(BDB 412)는 “남쪽”(참조, 수 12:3; 13:4) 또는 “남풍”(참조, 시 78:26)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1. 에서의 후손, 창 36:11; 대상 1:36
2. 아랍 부족, 창 36:15; 대상 1:53
3. 지역이나 나라, 창 36:34; 읍 9 절
4. 도시, 렘 49:7,20; 겔 25:13; 암 1:12

▣	
NASB	“썩은”
NKJV, NRSV, NJB	“없어진”
TEV	“사라진”
JPSOA, AB	“나빠진”
REB	“외국에 흩어진”
폐쉬타	“빼앗긴”

이 동사(BDB 710, KB 769)는 *칼*에서 “느슨해지다”를 뜻한다. 이 단어의 니팔형이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여러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전마다 서로 다르게 제시한다.

1. BDB 710
  - ㄱ. 동사
    - (1) *칼* - 해방되다, 속박에서 벗어나다
    - (2) *니팔* - 기각되다는 의미에서, 풀어놓다
  - ㄴ. 명사 - 과일(참조, 출 26:12)
2. KB 769
  - ㄱ. 동사
    - (1) 악취풍기다(시리아어)
    - (2) 멈추다
    - (3) 완고
    - (4) 거짓됨
    - (5) 매달림
    - (6) 내밀음
    - (7) 빈둥거리다

KB (1)항은 동사형과 문맥에 잘 맞는다(KB 769 II). 그러나 이 동사형이 이곳에서만 나오므로, 이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49:8** 이것은 3 절의 경우와 같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관련을 가진 일련의 명령이다.

1. 도망할지어다 - BDB 630, KB 681, *칼* 명령, 참조, 24 절; 46:21
2. 돌이켜 - BDB 815, KB 937, *호팔* 명령, 참조, 24 절; 46:21
3.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 BDB 770, KB 847, *히팔* 명령(즉, 숨으려는 시도, 참조, 10 절 또는 요단강 저편의 고원지대를 떠나 자기들의 고향으로 감을 뜻함, 참조, NET, 1432 쪽, 5 항)

▣ “드단” 이들은 스바와 관련이 있는 아랍 족속이다(참조, 창 25:3; 대상 1:32). 그들은 렘 25:23 및 겔 25:13 에서 에돔과 다소 관련을 가진다. 가장 좋은 설명은 이들 가운데 일부 그룹/도시/부족이 에돔 지경 안에 정착하였다는 설이다. 에돔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남쪽과 동쪽으로 미치지 못하였다.

**49:9-10** 이것은 읍 5-6 절과 매우 비슷하다.

**49:9** “거두는” 이 용어(BDB 760)는 레 19:9-10; 23:22; 신 24:20-22 에서 왔다. 그 본문은 야웨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심을 추수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처음에 추수한 것에서 남은 부분과 밭의 모퉁이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졌다. 그 양은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 들여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팔 수 있는 만큼 되지는 않았다.

**49:10** “자손”(문자적으로, “씨,” BDB 282) 및 “거두는 일”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가 여기에 나타난다. 에돔이 완전히, 철저히 멸망하여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것은 MT 의 본문을 반영한다. 어떤 LXX 역은 이것을 “그리고 말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로 바꾸어, 11 절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누가 말하는 자들인지를 명확히 제시한다(즉, 침략자들).

**49:11** 11 절이 (1) 12 절과 관련이 있는 희망의 내용인가 아니면 (2) 가장 연약한 자인 경우에도 완전히 멸망할 것을 밝히는 내용인가? 문맥상으로 볼 때, (2)항의 설명이 맞다(참조, 20 절).

개역개정 49:12-13

<sup>12</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sup>13</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 거리와 황폐함과 저춧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49:12 “술잔” “잔”(BDB 468)은 종종 심판을 뜻하는 관용어였다. 사람이 술을 마신 후에 취하게 되어 신체적, 정서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듯이, “잔”이라는 관용어는 나쁜 선택을 하여 그것에 따른 결과를 갖게 됨을 나타내었다. 이 관용어가 사용된 본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욥 21:20
2. 시 60:3; 75:8
3. 사 29:9; 51:17; 63:6
4. 렘 25:15-16,28; 49:12
5. 애 4:21
6. 겔 23:32-34

신약에서는

1. 예수님 - 마 20:22; 26:38-42; 막 14:36; 눅 22:47; 요 18:11
2. 짐승 - 계 14:10; 16:19; 19:15

▣ “반드시 마시겠거든” 이것은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이 절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1-2. 마시다 - BDB 1059, KB 1667(2 회)
3. 무죄선고를 받다 - BDB 667, KB 720

49:1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야웨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 보다 더 강력한 맹세는 없다(참조, 22:5; 44:26; 51:14; 창 22:16; 사 45:23; 암 6:8; 히 6:13,18). 맹세를 하는 일은 어떤 진술이나 약속의 절대적인 진실성/신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문화적 방법이였다.

▣ “보스라” 이곳은 예돔의 주요 도시였다(7 세기에는 수도였음). 48:24 에서 언급한 “보스라”는 모압에 있는 도시인데, 그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도시명의 어근(BDB 131 II)은 “포도를 거둠”(문자적으로, “잘라내는 자들”)을 뜻하는 9 절의 동사(BDB 130, KB 148, 칼 능동 분사)와 관련이 있다.

▣ “놀렘과 치욕 거리와 황폐함과 저춧거리”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련의 용어이다.

1. 놀렘 - BDB 1031 I, 참조, 신 28:37; 렘 5:30; 25:9,11,18,38; 29:18; 42:18; 44:12,22; 49:13,17; 50:23; 51:37,41
2. 치욕 거리 - BDB 357, 참조, 렘 24:9; 29:18; 42:18; 44:8,12
3. 황폐함 - BDB 351II, 참조, 겔 29:10; 38:8; 습 2:4
4. 저춧거리 - BDB 887, 참조, 24:9; 25:18; 왕하 22:19; 숙 8:13

개역개정 49:14-16

<sup>14</sup>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sup>15</sup>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sup>16</sup>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49:14 이 절과 오바다서의 서두(즉, 1-4 절) 사이에 문자적 관계가 나타난다. 나는 예레미야서가 오바다서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바다는 초기에 속하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이다 (소선지서 두루마리의 순서와 기록시기의 순서가 다름)

야웨의 선지자가 에돔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침략자들을 부르고 있다.

1. 너희는 모여와서 - BDB 867, KB 1062, *히트파엘* 명령
2. 그를 치며 - BDB 97, KB 112, *칼* 명령
3. 일어나서 싸우라 - BDB 877, KB 1086, *칼* 명령, 참조, 읍 1:1

49:16

NASB	“너의 두려움에 대하여는 ”
NKJV	“너의 사나움”
NRSV	“네가 고무시키는 두려움”
TEV	“너의 교만”
NJB	“너의 흉포함에 대한 평판”
JPSOA	“너의 무서운 성품”
REB	“너의 지나치게 뽑내는 거만함”

이 단어(BDB 184)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대부분의 사전은 이 단어를 BDB 에서 바로 위에 나오는 표제어인 “뭍서리치는”이라는 동사와 관련짓는다(참조, 읍 21:6; 시 55:5; 사 21:4; 겔 7:18).

AB(331 쪽)는 이 명사가 여성형이지만 동사(“속이다,” BDB 674, KB 728, *히* 끝 완료형)는 남성형인 것에 근거하여, 이것이 어떤 우상의 이름과 관련을 가진다고 제시한다. 그 이름은 아마 왕상 15:13(2 회)에서 언급하는 이름일 것이다.

▣ “교만” 에돔은 자신의 지형(즉, 높은 고원 지대)으로 인하여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개역개정 49:17-19

<sup>17</sup>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sup>18</sup>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sup>19</sup>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툼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9:17 “공포의 대상... 탄식하리로다” 부끄러움과 비난받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13 절에서 보라.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 BDB 1030, KB 1563, 칼미완료형, 참조, 레 26:32; 렘 18:16; 19:8; 50:13
2.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탄식하리로다- BDB 1056, KB 1656, 칼미완료형, 참조, 왕상 9:8; 렘 19:8; 50:13; 애 2:15

49:1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 19 장에서 하나님께 멸망받은 악한 도시였다. 그들의 멸망과 주민이 없는 일은 문화적으로 속담거리가 되었다(참조, 신 29:23; 사 1:9-10; 13:19; 렘 23:14; 50:40; 애 4:6; 겔 16:46,48,49,53,55,56; 암 4:11; 습 2:9; 마 10:15; 11:23-24; 롬 9:29; 벧후 2:6; 유 7 절; 계 11:8).

▣ “사람” 이것은 히브리어로 *בן-אדם*이라는 합성어로서(즉, 겔 2:1), 사람을 뜻한다. 이 절에서는 “아무도”와 평행을 이룬다.

**특별주제: 인자(단 7:13 의 나의 주석에서 따온 내용임)**

아람어 구(“*בן אנוש*,” BDB 1085 와 1081)인 “인자”는 시편과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히브리어 구(“*בן אדם*”)와 다르다. 욥 25:6; 시 8:4; 90:3; 144:3; 사 13:12 에서 두 개의 구 모두가 평행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인성과 연결된다(참조, 8:17; 욥 25:6; 시 8:4; 겔 2:1).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름은 신성을 의미(참조, 마 24:30; 26:64; 막 13:26; 14:62; 계 1:7; 14:14)하며 아람어와 히브리어 구인 “인자”는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구를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다. 이것은 랍비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 구는 배타성 혹은 민족적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구는 메시아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독특하게 나타낸다(참조, 요일 4:1-3). 이러한 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책이 다니엘서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로 이 용어를 자신에게 대해 사용하셨다.

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예, 막 8:31; 10:45; 14:21; 눅 9:22,44)
2.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오심(예, 마 16:27; 25:31; 요 5:27)
3.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가 영광 중에 오심(예, 마 16:28; 19:28; 막 13:26-27; 14:62)

유대인 연구 성경 1657 쪽(또한 조지 E. 라드의 신약신학 136-139 쪽을 보라)에는 이 본문에 대한 후기에 속하는 유대적 전통의 목록이 있다.

1. 이 문맥은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예눅 I 서 46:1; 48:10; 에스라 4 서[에스드라서 2 서] 13 장; b. Sanh. 98a)
2. 이 문맥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참조, b. Sanh. 97a)
3. 이 문맥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창세기 Rab. 98:2)
4.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참조, 이븐 에스라와 라쉬)

49:19-21 이것은 50:44-46 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잘 알려진 관용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다.

49:19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요단 강의 계곡은 한 때 숲이 우거졌고 들 사자들이 많이 있었다.

▣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이 구는 MT에서 불확실하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위하여 야웨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고레스는 회복을 위하여 선택 받은 자임을 나타낸다(참조, 사 44:28; 45:1-7).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를 변경시켜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목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한다(AB 각주 e 항, 329 쪽).

**개역개정 49:20-22**

<sup>20</sup>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데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라 <sup>21</sup>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sup>22</sup>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49:20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와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멸망시키기도 하신다(참조, 1:10).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모든 인간의 구원이다(1:5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49:21 “홍해에”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홍해**

**I. 이름**

- 가. 문자적으로는 *얘 수프*이다.
  1. “풀의 바다” 또는 “갈대의 바다”(이집트어 어원)
  2. “(땅)끝에 있는 바다”(셈어 어원)
- 나. 이것은 다음을 말할 수 있다
  1. 바닷물, 왕상 9:26(아카바 만); 은 2:5(지중해)
  2. 민물, 출 2:3; 사 19:26
- 다. 70 인역은 이 단어를 처음으로 “홍해”로 번역하였다. 아마도 이들 번역가들은 이것을 에돔(붉음)의 바다로 연결시킨 것이다. 이 지칭은 라틴 벌게이트역과 후에 흙정역에 이어졌다.

**II. 위치**

- 가. 이 이름과 관련이 있을 여러개의 장소(물이 있는)가 있다:
  1.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으며 약 3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좁은 바다(수에즈 만)
  2.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이에 있으며 약 180 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다(아카바 만)
- 나. 이것은 멘잘레 호수(늘 지대임)의 남쪽 해안에 있는 타니스, 소안, 아바리스, 람세스에서 가까운 나일 삼각주의 동북쪽에 있는 물이 얇은 늪지대를 말할 수 있다.
- 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신비한 남쪽 바다를 지칭할 수 있는데, 종종 (지구)끝에 있는 바다를 일컬었다. 이 경우에 다음을 말할 수 있다
  1. 오늘날의 홍해(수에즈 만, 또는 아카바 만, 참조, 왕상 9:26)
  2. 인도양(참조, 헤로도투스 1, 180)
  3. 페르시아 만(참조, 요세푸스, *고대사*. 1.7.3)

III. 민수기 33 장에서의 숲

- 가. 민 33:8 에서 기적적으로 나누어진 이 물은 숲으로 불린다.
- 나. 민 33:10,11 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얹 숲** 옆에 진을 쳤다고 말한다.
- 다. 물이 있는 두 개의 장소는 서로 다르다.
  - 1. 처음 것은 홍해(수에즈 만)가 아니다
  - 2. 두 번째 것은 홍해(수에즈 만)일 수 있다
- 라. 숲은 구약에서 3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아웨게서 물을 갈라 놓아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지나갔지만 이집트 군인들은 빠져죽은 곳
  - 2. 홍해(수에즈 만)가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곳
  - 3. 홍해(아카바 만)가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곳
- 마. **얹 숲**은 “갈대 바다”를 의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1. 홍해(짠물)에는 갈대(파피루스)가 자라지 않거나/없었다
  - 2. 추정되는 이집트 어원은 땅을 말하지 호수를 가리키지 않는다
- 바. 숲은 샘쪽에 기원을 둔 “끝”을 일컫는 말로서 남쪽에 있는 신비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물의 장소를 뜻한다(성경에의 접근, 제 1 권, 291-304 쪽에 있는 버나드 F. 밋스의 글 “홍해인가 갈대바다인가? **얹 숲**이 정말로 말하는 것”을 보라).

49:22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대하여 이 회화적 표현을 4:13; 48:40; 애 4:19 에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날세고, 강력하며, 파괴적인 공격을 나타낸다.

▣ “보스라” 이 장소는 예돔의 옛 수도로서, 심판의 예언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참조, 사 34:6; 63:1; 렘 49:13,22; 암 1:12).

▣ “진통하는 여인” 이것은 두려움과 고통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4:31; 30:6; 48:41; 사 13:8; 26:17; 미 4:9-10). 그 때에 그들은 무력했다!

개역개정 49:23-27

- <sup>23</sup>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 <sup>24</sup>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 <sup>25</sup>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6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49:23 “다메섹” 이곳은 시리아 왕국의 수도였다(즉, 아람 왕국, 참조, 창 14:15; 15:2; 왕상 11:24; 15:18; 19:15; 20:34; 왕하 8:7,9; 14:28; 16:10-12; 사 7:8).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북동쪽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다리 역할을 하는 땅의 한 부분이었다. 대상들과 군대는 이 통로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동쪽이 사막이기 때문이었다. 이 도시를 앗시리아의 왕 티글랏빌레셀이 주전 733 년에 정복하였다.

49:23-24 “흉한 소문을 듣고”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가리킨다. 그들의 두려움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표현을 주목하라.

- |                 |                   |
|-----------------|-------------------|
| 1. 수치를 당하리니     | 6. 피곤하여           |
| 2. 흉한 소문을 듣고    | 7.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
| 3.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 8.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
| 4. 비틀거리며        | 9. 고통과            |
| 5. 평안이 없도다      | 10.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

49:24 “해산하는 여인 같이” 이것은 두려움과 고통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BDB 408),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6:24; 13:21; 22:23; 49:22; 50:43; 시 48:6; 사 13:8; 21:3; 42:14; 호 13:13; 미 4:9,10).

49:25 누가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1. 야웨
2. 시리아 백성

왜 야웨께서 다메섹을 “찬송의 성읍” 또는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부르셨는지 알 수 없다. 시는 매우 함축적이며 회화적이어서, 때로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시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하려고 했거나 말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인용 또는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 “어찌하여 . . .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본문은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문맥의 나머지 부분과 어울리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은 “아니라”(히브리어로는 *לו*)가 “강조형 *라멘*”(히브리어의 *ל*)으로 불리는 문법적 형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완전히 버린 것이 되었다”를 의미한다.

49:26 이 절은 50:30 과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분명히 전쟁과 관련을 가진 문화적 관용어이다(참조, 27 절; 암 1:4).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시에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었다.

49:27 “벤하닷” 이것은 “하닷의 아들”을 뜻한다. 하닷은 고대 근동의 다산의 신 가운데 하나였다(즉, 폭풍/비의 신, 바알과 비슷함). 시리아의 여러 왕이 이 이름으로 불렸다.

1. 왕상 15:18,20; 왕하 16:2,4
2. 왕상 20 장(이 이름이 13 회 언급됨)  
 왕하 6:24; 8:7,9
3. 왕하 13:3,24,25; 암 1:4

개역개정 49:28-33

<sup>28</sup>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sup>29</sup>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sup>30</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sup>31</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sup>32</sup>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쩍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흘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33</sup>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49:28 “게달” 이 이름(BDB 870)은 원래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을 가리킨다(참조, 창 25:13; 대상 1:20). 이 가족은 장막에 사는 사막의 유목민 부족(베두인)이 되었다(참조, 29 절; 시 120:5; 야 1:5; 사 60:7).

요세푸스(*야피온* I.19)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살던 지역을 점령하고 대상들의 통로를 장악하였다’고 바벨론 역사가인 베롯수스의 말을 인용한다(IDB, 국제 성경 사전, 제 3 권, 3-4 쪽).

▣ “하솔 나라들” 이것은 여호수아(참조, 수 11:1-5)와 드보라/바락(참조, 삿 4-5 장)이 멸망시킨 가나안 사람의 성읍을 가리킨다. 이 히브리 단어(BDB 347)는 “성벽이 없는 마을들”을 뜻할 수 있다(BDB 347, 참조, 창 25:16; 사 42:11).

이들은 암몬 동쪽에 거주하는 아랍의 사막 족속을 가리킨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598 년 경에 이들을 정복하였다. 이 사건을 요세푸스도 기록하였다.

야웨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정복하라고 명하신다.

1. 너희는 일어나 -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게달로 올라가서 - BDB 748, KB 828, 칼 명령
3.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 BDB 994, KB 1418, 칼 명령
4. 1 항과 2 항의 명령이 31 절에서도 반복된다

▣ “동방 자손들을” 이 설명적 구는 요단의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을 가리킨다(참조, 창 29:1; 삿 6:3,33; 7:12; 8:10; 왕상 4:30; 욥 1:3; 사 11:14; 렘 49:28; 겔 25:4,10).

49:29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이 구는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6:25; 20:3,10; 46:5; 49:29; 애 2:22). 이것은 36 절에 있는 “네 바람”과 비슷한 표현이다.

49:30 이것은 계달과 하술에 대하여 말하는 세 가지 명령이다.

1. 도망하라 - BDB 630, KB 681, 칼 명령
2. 멀리 가서 - BDB 626, KB 678, 칼 명령
3. 깊은 곳에 살라 - BDB 770, KB 847, 히필 명령

이것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였다; 8 절을 보라.

▣ “계책” 느부갓네살이 가진 계획은 사실상 야웨의 계획이였다(즉, 20 절; 51:10,11; 사 14:24).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였다. 고레스는 후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49:32 “그 살쩍을 꺾는 자들을” 이것은 여러 사막 부족이 행하던 일이었다(참조, 9:26; 25:23). 이것이 우상숭배를 위한 것이었는지(참조, 레 19:27) 혹은 사회적 행위였는지는(즉, 의식이나 규범을 따른 외모) 불확실하다.

49:33 “큰 뱀의 거처” 이것은 인간이 거주하던 곳이 파괴되어 거할 곳이 없게 됨을 가리킨다

1. 완전히 또 계속적으로 황폐함(참조, 사 34:10)
2. 귀신이 있음(즉, 저주받은 장소, 참조, 9:11; 10:22; 사 34:11-15)

NEB는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에 기초하여, 영어역본 가운데 최초로 ‘우상들의 귀신적 요소를 이 동물들이 상징한다’고 설명하였다.

▣ “사람” 18 절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49:34

<sup>34</sup>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9:34 “엘람” 이것은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높은 지대를 가리킨다. 여러 세기 동안 이들의 지경이 확장되었고 또 줄어들었다. 수사/수산과 페르세폴리스가 이들의 지경 안에 있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이란에 해당한다.

제롬 성경 주석(335 쪽)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596년 경에 엘람의 왕을 이겼다’는 “바벨론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언급한다.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이 엘람에게 패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 소망이 깨져버렸다!

▣ 이 예언은 28:1의 내용과 같은 시기에 속한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부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다스렸다.

#### 개역개정 49:35-39

<sup>35</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sup>36</sup>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sup>37</sup>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sup>38</sup>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39</sup>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9:35 “활을 꺾을 것이요” 이것은 국가의 군사적 힘이 파괴됨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51:56; 시 46:9; 사 22:6). 엘람은 군사로 유명하였다.

49:36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넷”이라는 수는 종종 전 세계를 가리킨다. 15:9의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를 보라. 엘람의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39 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라. 6 절의 설명을 보라. 그곳에서는 같은 용어와 약속을 암몬에게 주신다(에돔에게는 그렇지 않음).

49:37 9:16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주 나오는 회화적 표현이다.

49:38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을 다스리에 됨을 뜻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는 심판을 위하여 야웨께서 선택하신 그릇이었다.

49:39 이것은 반복되는 약속과 소망이다(참조, 30:3,18; 31:23; 32:44; 33:7,11,26; 48:47; 49:6,39). 48:47 및 49:6 에 나오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종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신 30:3-5).



NASB, NRSV “내가...회복시키리라”

NKJV “내가...돌아가게 하리라”

MT 에는 “돌아가다”로 되어 있다(BDB 996, KB 1477, 칼미완료형, 그러나 케레는 같은 동사의 *히필* 미완료형을 제시한다).

# 예레미야 5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벨론에 대한 예언	바벨론과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하여 (50:1-51:64)	바벨론이 정복당함	바벨론에 대한 예언
50:1-3 (2)	50:1-3 (2-3)	50:1-3 (2)	50:1-3 (2)	50:1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의 해방과 바벨론의 멸망
				50:2-3 (2-3)
50:4-5	50:4-5 (4-5)	50:4-5	50:4-5	50:4-5 (4-5)
50:6-7 (6-7)	50:6-7 (6-7)	50:6-7	50:6-7	50:6-10 (6-10)
50:8-10 (8-10)	50:8-10 (8-10)	50:8-10	50:8-10	
			바벨론의 멸망	
50:11-16 (11-16)	50:11-13 (11-13)	50:11-16 (11-16)	50:11-13	50:11-13 (11-13)
	50:14-16 (14-16)		50:14-16	50:14-16 (14-16)
			이스라엘의 귀환	
50:17-20	50:17-20 (17)	50:17-20	50:17-20	50:17-20 (17a)
	(18b-20)			50:17b-18
				50:19-20 (19-20)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에 선포한 바벨론의 멸망
50:21-27 (21-27)	50:21-28 (21-28)	50:21-27 (21-27)	50:21-27	50:21-22 (21-22)
				50:23-24 (23-24)
				50:25-26 (25-26)
				50:27 (27)
50:28 (28)		50:28	50:28	50:28 (28)

				교만의 죄
50:29-32 (29-32)	50:29-32 (29-32)	50:29-32  (31-32)	50:29-30  50:31-32	50:29 (29)  50:30  50:31-32 (31-32)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야웨
50:33-38 (33-38)	50:33-40 (33-38)	50:33-34  50:35-38 (35-38)	50:33-34  50:35-38 (35-38)	50:33-34 (33-34)  50:35-38 (35-38)
50:39-40 (39-40)	(39-40)	50:39-40	50:39-43 (41-43)	50:39-40 (39-40)
				북쪽에서 오는 적과 유다의 사자
50:41-43 (41-43)	50:41-46 (41-42)  (43)	50:41-42 (41-42)  50:43 (43)		50:41-43 (41-43)
50:44-46	(44)  (45-46)	50:44-46	50:44-46	50:44-46 (44-4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50 장과 51 장은 다음의 내용을 묘사하는 한 단원이다
  1. 바벨론의 멸망(수도 및 나라 전체)

2.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옴(참조, 50:4-5,6-10,17-20,33-34; 51:36-40)

- 나. 이 예언은 다음의 그룹에 대한 야웨의 명령(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신)을 나타낸다
1. 바벨론의 파괴자(즉, 페르시아, 고레스 II 세), 50:3,14,21,26-27,29
  2. 유대인 포로들, 50:8

다. 바벨론의 멸망은 사 13 장; 14:22-27; 21:1-9; 47:5,9; 48:14 에도 나온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0:1-3

<sup>1</sup>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sup>2</sup>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sup>3</sup>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50:2 이 절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1. 바벨론의 종말을 공포하며 사용하시는 야웨의 여러 명령
  - ㄱ. 전파하라 - BDB 616, KB 665, *히필* 명령
  - ㄴ-ㄷ. 공포하라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2 회)
  - ㄹ. 깃발을 세우라 - BDB 669, KB 724, *칼* 명령
  - ㅁ.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 BDB 470, KB 469,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ㅂ. 이르라 - BDB 55, KB 65, *칼* 명령
2.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완료된 상황임(즉, 예언서의 완료형)을 나타내는 여러 완료형, 즉 야웨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 ㄱ. 바벨론이 함락되고 - BDB 539, KB 530, *니팔* 완료형
  - ㄴ. 벨이 수치를 당하며 - BDB 101, KB 116, *히필* 완료형
  - ㄷ. 므로닥이 부스러지며 - BDB 369, KB 365, *칼* 완료형
  - ㄹ.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 ㄴ항과 같음
  - ㅁ.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 ㄷ항과 같음

▣ “벨” 다음 항목은 사 40:1 에 대하여 내가 설명한 내용이다. 바알처럼 벨도 “주,” “주인,” “님”을 의미하였다.

사 46:1 “벨” 벨(BDB 128, KB 243, 아카디아어로 “주”를 뜻함)은 가나안인들이 사용한 바알과 비슷한 호칭이다. 이것은 아카디아의 만신전에서 으뜸되는 신을 가리킨다(“주”로 불린 엔탈).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면서 으뜸되는 신의 이름이 마르둑(BDB 597, 참조, 램 50:2)으로 바뀌었다.

▣ “**느보**” 이것은 *마르둑*의 아들로써(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이 이름이 나옴) 배움과 글씨를 쓰는 일을 주관하는 신이었다(BDB 612). 벨과 느보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한 여러 이름에 나온다(느부갓네살[단 1:1]; 느부사스반[렘 39:13]; 느부사라단[렘 39:9]; 나보폴라살[신바벨론 제국의 첫 왕이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벨사살의 아버지로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드사살[단 1:7]; 벨사살[단 5:1]). 이 둘은 바벨론의 만신전에서 가장 주요한 두 신이었다.



NASB, TEV, “**마르둑**”  
 NJB, REB  
 NKJV, NRSV  
 JPSOA “**메로닥**”

MT 에는 “메로닥”(BDB 597)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마르둑*이라는 용어의 자음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한 경우이다. 수메르의 만신전은 유동적이다. 원래 이것은 *엔릴*에게 사용한 “주”라는 호칭이었다. 바벨론 시가 더욱 더 강해지면서, 그들이 섬긴 주요 신인 *마르둑*이 만신전에서 *엔릴/벨*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수메르 신들과 그들의 신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저술한 창 1-11 장 주석의 서론에서 찾아보라. 온라인에서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를 보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즉, 나보니두스)은 달의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마르둑*을 경시하였다(19: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시를 침공하였을 때에,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신자들이 그들을 지원하였다.

50:3 언약백성들이 북쪽에서 오는 적들을 무서워해야만 했듯이(즉, 1:13-15; 4:6; 6:1,22), 바로 그 적(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두려워 해야만 했다(즉, 고레스와 페르시아 군대).

두 개의 예언적 완료형이 여기서 사용됨을 주목하라. 2 절에서는 5 가지가 사용되었다.

1.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 BDB 626, KB 678, *칼* 완료형
2.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 BDB 229, KB 246, *칼* 완료형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야웨께서 이 일을 원하시며, 이 일을 계획하시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50:4-5**

<sup>4</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sup>5</sup>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잇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50:4-5 이 두 절은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심에 대한 약속과 희망의 빛을 제시한다.

돌아오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인 것을 주목하라.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목적으로 돌아옴을 주목하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이 새 날의 교제’는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의 핵심이다.

NASB 역은 5 절의 두 번째 동사(BDB 97, KB 112, *칼* 명령)를 미래적 의미인 “그들이 울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오라”라는 명령이다(UBS 본문 프로젝트는 명령형에 B 등급을 준다, 314 쪽). 이것은 믿음, 회개, 친밀한 예배로의 초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로 하여금



본향, 곧 성전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관련을 가지게 된다. 18:8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0:6-7

<sup>6</sup>내 백성은 잃어 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결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sup>7</sup>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50:6-10 이것은 다음 사항을 묘사하는 시이다

1. 언약백성이 과거에 지은 죄(즉, 6 절의 다산송배, 7 절의 야웨께 대하여 신실치 않음)
2. 야웨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떠라라고 명하신다(8 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를 북으로부터 데려오고 계시기 때문이다(즉, 페르시아, 9-10 절)

개역개정 50:8-10

<sup>8</sup>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sup>9</sup>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sup>10</sup>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8 “바벨론...갈대아 사람” 이 두 명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남쪽 민족/국가들을 가리킨다(참조, 1,8,35,45 절). “바벨론”과 “갈대아”는 서로 평행을 이룬다.

50:9 9 절의 처음 세 동사 사이에 소리유희가 나타난다.

1. *우르* - BDB 734, KB 802, “분기시키다”
2. *알라* - BDB 748, KB 828, “올라가다”
3. *아락* - BDB 789, KB 884, “전투를 하기 위하여 대열을 벌이다”

▣ “큰 민족의 무리” 페르시아 군대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 및 정복지 군대의 용병으로 구성되었다(참조, 51:27-28).



NASB, NKJV, LXX “한 노련한 용사”  
 NRSV, JPSOA “숨쉴 있는 한 전사”  
 TEV “숨쉴 좋은 사냥군들”  
 REB “경험 많은 군인들”

MT에서는 ‘유산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BDB 1013, KB 1491, *히필* 분사, 즉, “아이들이 없게 만들다”). 많은 번역가들은 이 단어의 어근이 “숨쉴 있는”(BDB 968)이라고 간주한다. MT의 첫 자음인 **ש**는 다른 역본에서는 **ס**으로 되어 있다. 다른 자음은 같다. 이들은 치명상을 입히는 군사들이었다!

개역개정 50:11-16

- <sup>11</sup>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밭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 <sup>12</sup>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 <sup>13</sup>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 <sup>14</sup>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 <sup>15</sup>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 <sup>16</sup>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50:11 맛소라 학자들(*케레*)은 MT의 동사(*케티브*)를 바꿀 것을 여러 가지로 제안하였다(이것은 여성 단수형인데 남성 복수형으로 제안함).

1. 너희가 즐거워한다
2. 너희가 기뻐한다
3. 너희가 구른다
4. 군마 같이 운다(문자적으로, “강한 자들”)

우리가 12-13 절을 보면, 11 절의 여성형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11 절은 큰 승리를 거두고 편안하게 산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다.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참조, 12-16 절)!

50:13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것은 반복되는 표현이다. 18:16 과 49:17 의 설명을 보라.

50:14 14-16 절에서는 야웨께서, 침공하여 승리하는 페르시아 군대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나온다. 이 절은 궁수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다.

1.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문자적으로, “밟는,” 이것은 시위를 힘껏 당겨 둥글게 함을 뜻함)
2. 쏘라
3. 화살을 아끼지 말고

이러한 군사적 공격의 이유는 바벨론이 야웨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1. 29-32 절 - 거만함
2. 합 2:8,17 - 살인과 우상숭배
3. 38 절; 합 2:19 - 우상숭배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참조, 15f 절,29f 절).

50:15

NASB	“기둥들”
NKJV	“기초들”
NRSV, LXX	“방어벽들”
NJB, JPSOA, REB	“보루들”
NET	“탑들”

MT 에 있는 단어(BDB 78, KB 94)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단어는 *아스야*이다. 이와 비슷한 단어인 *아쉐다*는 “기초”를 뜻하며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나온다. KB 는 여러 동족어를 제시한다.

1. 앗시리아어 - 탑
2. 아람어 - 벽
3. 시리아어 - 기둥
4. 아랍어 - 기둥들

이것은 방어를 위한 어떤 종류의 구조물/성채를 가리킨다.

50:16 처음 두 행은 무역과 식량생산이 완전히 파괴됨을 예고한다.

다음 세 행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를 준다

1. 용병들
2. 상인들
3. 아마 포로로 잡혀온 자들

#### 개역개정 50:17-20

<sup>17</sup>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sup>18</sup>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sup>19</sup>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sup>20</sup>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50:17-20 산문으로 된 이 문단은 4-5 절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문단에서는 당시에 언약백성의 주요 적이었던 두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

1. 앗시리아는 주전 722 년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쪽의 10 지파를 포로로 잡아감
2. 신바벨론은 주전 586 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감

메소포타미아의 열강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나라는 고레스 II 세가 이끄는 페르시아이다(참조, 사 44:28; 45:1).

50:17

NASB, NKJV,

TEV, NJB “느부갓네살”

NRSV, JPSOA, REB “느부갓레살”

LXX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바벨론의 왕”

위의 두 이름은 같은 사람인 나보폴라살의 아들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의 바벨론 이름을 히브리식 글자로 표기할 때 차이가 나타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름을 표기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50:20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다. 야웨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남은 자들’은 용서를 받았고 (즉, 31:31-34) 회복되었다!

미래에(“그 날 그 때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회복되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 50:21-27

<sup>21</sup>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트라다임의 땅을 치며

브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sup>22</sup>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sup>23</sup>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sup>24</sup>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sup>25</sup>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sup>26</sup>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sup>27</sup>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다

50:21-28 바벨론을 공격하고 점령하도록 야웨께서 자신의 심판의 도구(즉, 페르시아)에게 촉구하신다(즉, 명령을 내리신다).

1. 너희는 올라가서, 21 절 - BDB 748, KB 828, 칼 명령
2. 치며, 21 절- BDB 352, KB 349(문자적으로, “공격하라”), 칼 명령
3. 쳐서 진멸하되, 21 절 - BDB 355, KB 353(문자적으로, “금지하여”), *히필* 명령
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21 절 - BDB 793, KB 889, 칼 명령
5. 너희는 와서, 26 절 - BDB 97, KB 112, 칼 명령
6. 그의 병기창을 열고, 26 절 - BDB 834, KB 986, 칼 명령
7.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26 절 - BDB 699, KB 757, 칼 명령
8. 그를 진멸하고, 26 절 - 3 항과 같음
9. 남기지 말라, 26 절 - BDB 224, KB 243, 칼 명령
10. 다 죽이라, 27 절 - 2 항과 같음
11.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27 절- BDB 432, KB 43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50:21 “**프라다임 . . . 브곳**” 이 용어 및 바벨론의 어떤 민족/지역(즉, 남쪽과 동쪽)과 관련하여 언어유희가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언어유희를 영어로 의미있게 전달하기가 어렵다. 시는 종종 소리와 관련을 지어 원래의 청중/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한다.

프라다임은 “이중 반역”(BDB 601)을 나타내고, 브곳은 “처벌” 또는 “방문”(BDB 824)을 뜻한다. 바벨론의 모든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동맹국들을 야웨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 “**쳐서 진멸하되**” 이것은 중요한 동사이다. 아래에 있는 사항은 내가 신 3:6 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이 자료는 온라인([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에 있는 구약 연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명기 3:6**

NASB, NKJV,

NRSV

“완전히 멸망시켰으나”

TEV

“멸망시켰으나”

NJB

“멸망의 저주”

REB

“완전한 멸망”

JPSOA

“멸망한다는”

이 동사(BDB 355, KB 353)는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된다(*히필* 명령과 *히필* 부정사 절대형).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러진 것’으로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되는데(참조, 2:34; 7:2; 출 22:20; 수 6:17, 21) 승리를 선언하고 그 결과 탈취물이 야웨께 속함을 나타낸다. 이 정복의 문맥에서 하나님께 드러진 것은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소유였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죄와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참조, 창 15:16; 레 18:24-26; 신 9:5).

“거룩한 전쟁”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로랜드 데보,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58-267 쪽을 보라.

50:23-24 이것은 일련의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 바벨론의 멸망과 파괴됨을 이미 일어난 일로 묘사한다(예언서의 완료형).

50:24 이 절(특히 2 행)이 주전 539 년에 고레스 군대에게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당함에 대한 역사적 예고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그들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시를 점령하였다(참조, 51:8; 단 5 장).

50:25 이것은 야웨께서 무기고에 가득 찬 병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야웨의 진노의 도구인 페르시아 군대의 무기고를 가리킨다.

**개역개정 50:28**

<sup>28</sup>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50:28 야웨와 야웨의 성전이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장소”도 하나님을 대표한다(신명기에서 반복된 구임).

UBS 핸드북(946 쪽)은 이 절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TEV, NET): 야웨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다.

**개역개정 50:29-32**

<sup>29</sup>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sup>30</sup>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31</sup>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sup>32</sup>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50:29 “그가 . . .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29-32 절은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한 시이다(BDB 267, KB 268). 다니엘서 4 장은 같은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본문이다.

▣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1:2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구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호칭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드물게 사용되었다(참조, 51:5).

**개역개정 50:33-38**

<sup>33</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sup>34</sup>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sup>35</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애와  
 바벨론 주민의 위애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sup>36</sup>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sup>37</sup>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sup>38</sup>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50:33-40 이 시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을 무찌르시며 그들을 본향으로 데려오실 것을 말한다.

50:24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주목하라.

1. 구속자(15:21의 특별주제를 보라)
2. 만군의 주(2회)
3. 하나님(엘로힘, 1:2의 특별주제를 보라)

▣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이것은 같은 어근(BDB 936, KB 1224)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강력한 법적 변호를 나타낸다(참조, 삼상 24:15; 시 25:1; 119:154; 사 50:8-9; 51:22; 미 7:9).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타내는 호칭인 “대언자”가 이 본문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내가 요일 2:1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요한 1서 2:1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변호자(*파라클레오스*)이신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를 의미한다. 이것은 변호사나 “돕기 위해 옆에 불리워진 사람”이라는 법적용어이다(*파라*는 옆에, *클레오*는 부르다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다락방 설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참조, 요 14:16, 25; 15:26; 16:7). 그러나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해 오직 한 번 여기서 사용되었다(비록 이것은 요 14:16; 히 7:25; 9:24 에 함축되었지만). 롬 8:34 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보의 일을 위해 같은 개념을 사용했다. 또한 롬 8:26 에서, 바울은 성령의 증보에 대해 같은 구절로 말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보내신 하늘에 계신 보혜사(예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성령)가 우리에게 있다.

50:35-37 반복되는 구가 있다(즉, “칼이 . . .의 위에”):

1. 갈대아인, 35 절
2. 바벨론 주민, 35 절(평행)
3. 그 고관들, 35 절
4. 지혜로운 자, 35 절(평행)
5. 자랑하는 자, 36 절
6. 용사, 36 절
7. 그들의 말들, 37 절
8. 그들의 병거들, 37 절
9. 여러 민족(아마, 용병), 37 절
10. 보물, 37 절
11. 38 절은 “가뭄” 대신에 “칼”로 취할 수 있다; 둘 다 같은 자음으로 이루어 졌다(BDB 351, KB 352)

야웨의 심판이 바벨론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임한다!

50:38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실성한”이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를 의미할 수 있다(참조, REB). 이 문맥에서 둘 다 의미있는 내용이다. 그 차이는 히브리 본문에서 한 가지 모음 뿐이다.

1. 우상들이 두려워한다(그들의 제사장들처럼, 참조, 36 절)
2.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을 기뻐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참조, 36a 절).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NASB 가 따르는 본문에 “C” 등급을 준다(318 쪽).

#### 개역개정 50:39-40

<sup>39</sup>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sup>40</sup>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50:39-40 이 두 절은 멸망을 나타내는 두 관용적 표현이 함께 사용된 본문이다.

1. 그들의 폐허에 들짐승이 있는 일은 다음을 상징한다
  - ㄱ. 완전한 파멸
  - ㄴ.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음
  - ㄷ. 귀신이 그곳에 거주함(참조, 시 74:14; 사 13:21; 23:13; 34:14)
2. 창 19 장에서 평지에 있는 도시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영속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던 일을 암시한다(참조, 49:18)



개역개정 50:41-43

- <sup>41</sup>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sup>42</sup>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 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sup>43</sup>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50:41-43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었듯이(참조, 1:13-15; 4:6; 6:1,22), 이제 북쪽에서 오는 민족(즉, 페르시아)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하였던 일을 이제는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참조, 15,29 절).

이 단락은 6:22-24 와 매우 비슷하다. 6 장의 본문에서는 야웨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이었으나, 이제 여기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있다.

50:41 페르시아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룹의 용병으로 구성되었다.

50:42 이것은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묘사이다.

50:43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무서워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1. 손이 약하여지며
2.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개역개정 50:44-46

<sup>44</sup>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sup>45</sup>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sup>46</sup>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50:44-46 산문으로 된 이 단락은 바벨론이 패함을 말하는 문맥이다. 44-45 절은 49:19-20 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그곳에서 한 설명을 보라.

# 예레미야 5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행한 죄를 인하여 심판받음	바벨론의 철거한 멸망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심판	야웨께서 바벨론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다
51:1-4 (1-4)	51:1-5 (1-5)	51:1-10 (1-10)	51:1-9	51:1-5 (1-5)
51:5-10 (5-10)	51:6-8 (6-8)			51:6-10 (6-10)
	51:9-10 (9-10)		51:10	
51:11-14 (11-14)	51:11-14 (11-14)	51:11-14 (11a) (12-14)	51:11a	51:11 (11a)
			51:11b-12a	
			51:12b	51:12 (12)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51:13-14 (13-14)
51:15-23 (15-23)	51:15-19 (15-19)	51:15-19 (15-19)	51:15-19 (15-19)	51:15-19 (15-19)
	51:17-19 (17-19)		주님의 철퇴	야웨의 철퇴와 큰 산
	51:20-23 (20-23)	51:20-23 (20-23)	51:20-23 (20-23)	51:20-23 (20-23)
			바벨론이 멸받음	
51:24-26 (25-26)	51:24	51:24	51:24-26	51:24
	51:25-26 (25-26)	51:25-33 (25-33)		51:25-26 (25-26)
				바벨론의 끝이 임박함
51:27-32 (27-32)	51:27-32 (27-32)		51:27-35	51:27 (27)
				51:28
				51:29 (29)
				51:30-33 (30-33)

51:33 (33)	51:33 (33)			야웨께서 신원하심
51:34-40 (34-40)	51:34-35 (34-35)	51:34-37 (34-37)	(34-35)	51:34-35 (34-35)
			주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51:36-40 (36-40)		51:36-40	51:36-40 (36-40)
		51:38-40 (48-40)	바벨론의 운명	바벨론을 위한 만가
51:41-44 (41-44)	51:41-44 (41-44)	51:41-49 (41-49)	51:41-44a	51:41-43 (41-43)
				야웨께서 우상들을 별하시다
			51:44b-49	51:44-45 (44-45)
51:45-48 (45-48)	51:45-48 (45-48)			
				51:46
				51:47-52 (47-52)
51:49-51 (49-51)	51:49-50 (49-50)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메시지	
		51:50-53 (50-53)	51:50-53	
	51:51 (51)			
51:52-53 (52-53)	51:52-53 (52-53)			
				51:53-57 (53-57)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추가적 내용	
51:54-58 (54-58)	51:54-56 (54-56)	51:54-57 (54-57)	51:54-58 (54-58)	
	51:57 (57)			바벨론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다
	51:58 (58)	51:58 (58)		51:58 (58)
	스라야에게 한 예레미야의 명령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바벨론에 보내지다	유프라테스 강에 던진 예언의 기록
51:59-64	51:59-64	51:59-64	51:59-64	51:59-6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1-4

<sup>1</sup>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sup>2</sup>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sup>3</sup>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난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sup>4</sup>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51:1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이것은 “심장”(BDB 524)과 “일어나다” 또는 “발생하다”라는 동사(BDB 877, 칼 능동 분사)의 합성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1. UBS 본문 프로젝트 - “내 적들의 심장”
2. NKJV(각주) -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가운데”
3. AB 및 UBS 핸드북 -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심장”

LXX 와 대부분의 영어 주석 및 역본은 아트밋 암호 (알파벳의 순서를 꺼꾸로 취하여 암호화 한 것)에 의하여 “카스담”(즉, 바벨론을 나타내는 갈대아)으로 본다. 바벨론에 대하여 사용한 또 다른 암호는 25:26 의 “쉐샹”과 51:40 의 “쉐샹”이 있다. 사도 요한은 계 18 장에서 비슷한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 NASB “멸망시키는 자의 그 영”

NKJV, NRSV, TEV,  
NJB, LXX, REB,  
JPSOA

“멸망시키는 사람”

루아흐(BDB 924)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할 수 있다(10:14-15의 특별주제를 보라). 문맥을 통하여서만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문맥(즉,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람”이 가장 적합하다(참조, 4:11-12; 13:24; 18:17; 22:22; 49:32,36). 11b 절에서는 “영”으로 번역하도록 요구한다.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17 절은 “호흡”으로 번역하도록 요구한다.

■ NASB, TEV “외국인들”

NKJV, NRSV, NJB “키질하는 자들”  
JPSOA “타지에서 온 사람들”

MT에서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되어 있다(BDB 266 I, 참조, 5:19; 30:8; 51:2,51; 애 5:2). 그러나 다른 고대역본에서는 “키질하는 자들”로 되어 있다(BDB 279, 참조, 4:11; 15:7; 같은 어근이 49:32,26에서는 “흠다”로 번역되었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 “C” 등급을 준다.

LXX는 이 용어를 “방해자들” 또는 “무례한 자들”로 번역하였다.

51:3 이 절은 확실하지 않다. 이 내용이 침략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감행하라는 지시 또는 방어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하는 내용일 것이다. 침략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지시한다

1.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BDB 328, KB 328, 칼 미완료형의 부정, 참조, 4 절)
2.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BDB 355, KB 353, *히필* 명령, 즉, 하나님께 드려라, 참조, 25:9; 50:21,26)

바벨론의 모든 방어자들이 가련하게 되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켰듯이, 이제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멸망이 있다!

51:4 “관통상” 이 동사(BDB 201, KB 230, *푸알* 분사)는 치명상을 입은 자를 가리킨다(참조, 37:10).

개역개정 51:5-10

<sup>5</sup>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 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sup>6</sup>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sup>7</sup>바벨론은 여호와와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sup>8</sup>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은 나으리로다  
<sup>9</sup>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으로다  
<sup>10</sup>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일을 선포하자

51:5 33:24-26 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야웨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영속적으로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확인하여 주는 중요한 본문이다(참조, 사 52:7-8).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과부”가 되었다(BDB 48).

51:6 이것은 50:8 에 있는 본문과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일련의 명령이다.

1. 도망하여 나와서 - BDB 630, KB 681, *칼* 명령
2. 구원하고 - BDB 572, KB 589, *피엘* 명령
3.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 BDB 198, KB 226, 부정의 *니팔*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야웨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벨론을 떠나라고 야웨께서 유대인 포로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승리와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포로들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난 것이 아니라 수도인 바벨론을 떠났을 것이다.

51:7 바벨론은 야웨의 심판의 도구였다(참조, 25:15; 합 2:16). “잔”은 심판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즉, 술취함, 참조, 계 14:8; 렘 29:12 의 설명을 보라).

▣ “**못 민족이 . . . 미쳤도다**” 이 동사(BDB 237, KB 238, *히트포엘* 미완료형)가 25:16 에서도 사용되었다.

51:8 이것은 바벨론을 노예처럼 섬기는 민족들에 대한 풍자의 글이다.

1. 올라 - BDB 410, KB 413, *히필* 명령
2.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 BDB 542, KB 534, *칼* 명령

51:9 바벨론을 노예처럼 섬기는 민족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1. 버리고 - BDB 736, KB 806, *칼* 명령
2.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 BDB 542, KB 534,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참조, 50:16; 사 13-14)

▣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으로다**” 시의 간략성과 회화적 표현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동사들은 다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1. 바벨론의 죄가 야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바벨론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매우 강력하여 상징적으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51:10 5 절에서는 용서와 회복에 대한 야웨의 약속을 말하듯이, 10 절에서는야웨의 승리를 시온에 전파하도록 언약백성에게 명한다.

1. 오라 - BDB 97, KB 112, 칼 미완료형
2. 선포하자 - BDB 707, KB 765, *피엘* 청유형, 참조, 50:28; 사 40:2
  - ㄱ. 시온에서
  - 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일을

**개역개정 51:11-14**

- 11 화살을 갈며 등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 12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 13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51:11-14 이 시는 침략군에게 하는 말이다. TEV 는 이것이 페르시아 군대의 장군들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설명한다.

1. 화살을 갈며, 11 절- BDB 140, KB 162, *히필* 명령
2. 등근 방패를 준비하라, 11 절- BDB 569, KB 583, *칼* 명령
3. 깃발을 세우고, 12 절- BDB 669, KB 724, *칼* 명령
4. 튼튼히 지키며, 12 절- BDB 304, KB 302, *히필* 명령
5. 파수꾼을 세우며, 12 절- BDB 877, KB 1086, *히필* 명령
6.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12 절- BDB 465, KB 464, *히필* 명령

3 항부터 6 항은 바벨론을 지키는 자들이 무능력함을 풍자적으로 나타낸다(참조, 13 절). 그들이 무능력하게 된 이유는 야웨께서 그들을 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12e-f 절, 14 절).

5:11

NASB, NRSV,

NJB, JPSOA, REB “전통을 채워라”

NKJV “방패를 모아라”

TEV “너희의 방패를 준비하라”

MT에서는 “방패를 채워라”로 되어 있다(BDB 1020). 그러나 KB(1522-23)는 이 어근이 사해사본에서 “전통”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아카디아어의 어근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전통”이 이 문맥에 가장 잘 맞으며, 다음 사항과도 적절하게 연결된다

1. 시의 앞 행

2. “채우다”라는 동사

사해사본에서는 ‘무기를 던지는 것(즉, 창), 물매질, 또는 쏘기’(즉, 활)와 관련하여 “방패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메대 왕들**”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다(즉, 고레스 II 세[고레스 대왕]가 이끄는 메대-페르시아). MT에서는 “왕들”(복수형)로 되어 있지만, LXX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고레스의 제국은 여러 작은 나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 복수형은 “장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으로서 ‘고레스의 위대함’을 뜻하는 히브리 문법의 특징적 요소이다.

51:11d 이 마지막 행은 50:28에 있는 내용의 반복이다. 바벨론이 야웨의 성전을 파괴하였듯이(즉, 주전 586년), 그들의 웅장한 이교 신전과 더불어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51:13 “**많은 물가에 살면서**” 이 구는 바벨론의 남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구에 형성된 늪지대였다.

▣ “**많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규빗”을 가리킨다(BDB 52 II, 13:12의 특별주제를 보라). 4행에 있는 구는 베들에서 잘라낸 실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욥 6:9; 사 38:12).

51: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 개념은 창 22:16 및 26:3을 가리킨다. 야웨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야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BDB 989, KB 1396, *니팔* 완료형) 최종적인 맹세이다. 이같은 표현이 램 22:5; 44:26; 49:13; 사 14:24; 45:23; 62:8에서도 사용되었다. 야웨께서 계획하신 일(참조, 12e 절)을 그가 행하실 것이다(참조, 12e 절)!

개역개정 51:15-23

- 15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 16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 17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 18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 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 19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 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sup>21</sup>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sup>22</sup>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sup>23</sup> 네가 목자와 그 양 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멩엿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51:15-23 NASB 는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다루지만, 대부분의 영어역본은 15-19 절과 20-23 절로 나누어 제시한다. 고대의 본문에는 문단을 구분하는 표식이 없다. 한편, 이 일은 전적으로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단락에 있어서, 여러 현대 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각 장의 맨 앞에 나오는 문단구분을 보라).

51:15-19 이것은 야웨와 우상들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야웨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행동하시지만, 우상들은 소경이며, 병어리며,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

야웨께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주목하라.

1. 창조자, 15 절
  2. 공급자, 16 절
  3.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19 절
- 우상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주목하라.

1.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17 절
2. 헛된 것이요, 거짓된 소망을 준다, 18 절

이 연은 10:12-16 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야웨의 실재하심 대 열방의 우상들은 비실재함’의 주제를 반복하여 제시한다.

51:17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 대한 설명인 10:14 과 같은 구이다.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로서 1,11 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다. 10:14-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선지자들은 이교도들의 우상이 실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주 “놀리고” 조롱하였다(즉, 사 40:18-20; 41:6-7; 44:9-11,12-17; 46:5-7). 그것들은 “할 수 없지만,” 야웨께서는 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신다!

51:20-23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직접 선택하신 도구인(즉, 전쟁시 사용하는 곤봉, 문자적으로 “철퇴,” BDB 659) 페르시아와 고레스 II 세를 사용하신다. 고레스의 이름은 사 44:28; 45:1 에서 특별히 예언되고 있다.

1. 나라들을 분쇄하며  
국가들을 멸하며
2.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3.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4.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5.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6. 목자와  
그 양 떼를 분쇄하며
7. 농부와  
그 멩엿소를 분쇄하며
8.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분쇄될 것이다”(BDB 658, KB 711, 9 가지의 *피엘* 완료형).

**개역개정 51:24-26**

<sup>24</sup>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값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sup>25</sup>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sup>26</sup>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잇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1:24-26** 이 시(25-26 절)는 바벨론의 멸망(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을 매우 회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이 장르를 이해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가위: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언어를 고찰함*이다.

이 내용이 지구랏(즉, 바벨탑, 창 11 장)의 꼭대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늘의 신을 섬긴 것과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이 인공물은 평평한 강 유역에 있는 바벨론의 주요 도시들에서 돋보이는 건축물이었다. 각 도시마다 그들의 신과 탑을 가지고 있었다. 마르둑을 위한 거대한 지구랏이 바벨론 시에 있었다.

바벨론 시의 파괴적이고 완전한 멸망은 주전 539 년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에는 전투가 없었고, 페르시아 군대에 의하여 약간의 파괴만 있었다. 그러나 후에는 완전한 멸망이 일어났다(즉, 크세르크세스 I 세에 의하여 주전 482 년에).

**51:25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표현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군사적 승리자인 바벨론을 일컫기 위한 회화적 표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산”인가?

1. 신들의 집(즉, 신의 권세, 즉, 사 14:13)
2. 모리아 산의 하나님(즉, 유대인의 성전, 즉, 사 2:2-3)
3. “높은 지대”에 위치함으로 얻는 군사적 이득
4. 산들의 경외로운 장소 및 그 강함
5. 산들의 뿌리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임
6. 산 위에 세워진 이교도의 제단들을 가리킴(참조, 왕하 23:13)

아웨께서, 멸망시키는 산을 멸망시키실 것이다(즉, 불, 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주요 도시들이 위치한 곳은 여러 면에서 유리한 곳이었다(즉, 물, 방어, 비옥도). 따라서 멸망을 당한 도시들은 급속히 재건되었는데, 종종 널려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 절에서는 아무도 살게 되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다. 오늘날 보게 되는 바벨론의 폐허를 주목하라!

개역개정 51:27-32

- <sup>27</sup>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 <sup>28</sup> 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 <sup>29</sup>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셧음이라
- <sup>30</sup>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 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 <sup>31</sup>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 <sup>32</sup> 모든 나무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집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51:27-32 야웨께서 여러 명령형을 사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불러내사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

1. 땅에 깃발을 세우며 - BDB 669, KB 724, *칼* 명령, 참조, 12 절; 50:2; 사 5:26; 13:2
2. 나팔을 불어서 - BDB 1075, KB 1785, *칼* 명령
3. 나라들을 동원시켜 - BDB 872, KB 1073, *피엘* 명령
4. 나라를 불러 모아 - BDB 1033, KB 1570, *히필* 명령
5. 사무관을 세우고 - BDB 823, KB 955, *칼* 명령, 참조, 49:19; 50:44
6.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 BDB 748, KB 828, *히필* 명령
7. 28a 절에서 3 항이 반복됨

51:27 “아라랏” 이 국가는 반 호수 근처에 있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 러시아, 이란에 속한다. 이곳을 앗시리아 사람들은 *우라르투*라고 불렀다. 이 민족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협력하였다.

▣ “민니” 이것은 반 호수의 남쪽에 있던 민족을 가리킨다. 그들은 후에 스키티안으로 불렸으나 당시에는 “만네사람들”로 불렸다.

▣ “민니와 아스그나스” 이들에 대하여 창 10:3; 대상 1:6 에서 언급한다. 이들은 우르미아 호수 동쪽에 살았다. 그들은 후에 스키티안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51:30 이것은 용기를 잃은 군인을 나타내는 고대 근동의 표현이다.

1. 싸움을 그치고
2.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3. 기력이 쇠하여
4. 여인 같이 되며

그들의 성채가 파괴되었다

1.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2. 그 문빋장은 부러졌다

51:31-32 이것은 성을 지키는 자들이 바벨론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다.

1.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2. 모든 나무는 빼앗겼으며
3. 갈대밭이 불탔으며
4.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도망할 길이 없게 되었다!

**개역개정 51:33**

<sup>33</sup>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51:33 이 단락이 27-32 절과 구별된 단락을 이루는가는 명확지 않다. 22-32 절에서는 야웨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 절에서도 그렇다. 바벨론의 운명이 정해졌다. 그들의 멸망은 확실한 일이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하였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 “타작 마당” 종종 이것은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21:10; 41:15-16).

**개역개정 51:34-40**

<sup>34</sup>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sup>35</sup>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sup>36</sup>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38 그들이 다 젊은 사자 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며  
 39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0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51:34-39 예루살렘/유다(35d 절)를 ‘황폐해진’ 민족으로 의인화하여 제시한다(34 절).

1. 바벨론이 나를 먹으며 - BDB 37, KB 46, *칼* 완료형
2. 바벨론이 나를 멸하며 - BDB 243, KB 251, *칼* 완료형
3. 바벨론이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 BDB 426, KB 427, *히필* 완료형
4. 바벨론이 큰 뱀 같이 나를 삼키며 - BDB 118, KB 134, *칼* 완료형
5. 바벨론이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 BDB 569, KB 583, *피엘* 완료형
6. 바벨론이 나를 쫓아내었으니 - BDB 188, KB 216, *히필* 완료형

각 항에서(5 항만 제외하고) 복수형 또는 단수형과 관련하여 *케티브*와 *케레*가 제시된다.

51:34

NASB	“나를 찢어내었으니”
NKJV	“나를 빨아버렸으니”
NRSV, REB	“나를 뽑어내었으니”
TEV	“그 나머지를 던져 버렸으니”
NJB	“나를 던져 버렸으니”
JPSOA	“나를 찢어 버렸으니”
LXX	-생략됨-

MT에서는 “찢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다(BDB 188, KB 216, *히필* 완료형). 이 동사는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1. 예식에 따른 씻음 - 대하 4:6; 겔 40:38
2. 깨끗게 함 - 사 4:4
3. 이 문맥에서는 입을 행구고 물을 내뿜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용한 다음에, 쓸모 없다고 그들을 빨아냄을 가리킨다!

51:35a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행한 일을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행하기를 기도/소원하는 내용이다(참조, 50:15,29). 말을 하는 자는 의인화된 예루살렘이다.

51:36-40 야웨께서 바벨론과 유다에게 행하실 일을 각각 제시한다.

1. 유다를 위하여
  - ㄱ. 내가 네 송사를 듣고, 10:22; 50:34; 51:6,11(즉, 너의 변호자로서 행한다)
  - ㄴ.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2. 바벨론에게
  - ㄱ. 그의 바다를 말리며(즉, 무역)
  - ㄴ. 돌무더기가 되어서
  - ㄷ. 승냥이의 거처와, 참조, 49:33
  - ㄹ. 혐오의 대상과, 참조, 18:16
  - ㅁ. 탄식 거리가 되고, 참조, 19:8; 25:9,18; 29:18
  - ㅂ. 연회의 음식이 되게 하고
  - ㅅ. 그들을 취하게 한다(문자적으로, “기뻐하게”), 참조, 57 절
  - ㅇ. 영원히 잡들게 하리라
  - ㅈ.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으리라

51:38-39 이 문맥은 바벨론에 대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들은 38 절에서 그들이 노획한 탈취물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로 하여금 지나침(술취함)에 노출되게 하였고,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었다(39 절, 3 행과 4 행, 40 절).

40 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다른 이들을 다루었던대로, 이제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 51:41-44**

- 41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 42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 43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 44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51:41-44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제시하는 또 다른 시이다(이 장에는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시가 들어 있다). 대부분의 동사는 예언서의 완료형으로서 미래의 일을 완료된 행위로 제시한다.

51:41 “세삭” 25:26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또 다른 아트밧 암호이다.

51:42 바벨론은 강, 운하, 늪이 많이 있는 나라였다(참조, 51:13a).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그들의 수로가 지장을 받았다(참조, 36 절). 창조주 하나님이신 야웨께서 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참조, 5:22; 31:35). “물들”의 나라가 건조한 곳이 될 것이다(42b 절).

51:44 “벨” 50:2 의 설명을 보라.

▣ “그가 삼킨 것을” 이것은 먹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복함을 나타낸 본문이다. 34 절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삼켰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내어 벨을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반드시 토해내어야 한다!

▣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 시가 완전하게 멸망할 것에 대한 이 예언은(참조, 50:15; 51:58) 페르시아가 승리할 전쟁에 대한 과장법적 표현이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가리킨다. 51:24-26 에서 예언이라는 장르에 대하여 제시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51:45-48**

<sup>45</sup>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와 진노를 피하라

<sup>46</sup>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sup>47</sup>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sup>48</sup>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1:45-48 이것은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진 시이다.

1.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시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벨론 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참조, 50:8; 51:6)
2. 야웨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것이다

51:46 이것은 50:28 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가지 사항이 보고되었다.

1. 유다/이스라엘의 회복(참조, 사 48:20)
2. 바벨론의 멸망

▣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것은 “두려워 말라,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내용이다(참조, 신 3:22; 7:18; 20:3; 31:6,8; 수 1:6,7,9; 사 43:5; 렘 46:27,28). 이 같은 권고는 오늘날의 믿음의 백성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제롬 성경 주석(336 쪽)과 NASB 연구성경(1142 쪽)은 이 절이 마 24:6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51:48 “하늘과 땅” 이 둘은 고대부터 증인이었다(참조, 사 44:23; 49:13). 이 둘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참조, 창 1:1). “하늘”은 땅 위에 있는 대기층을 가리킨다.

▣ “북쪽에서” 50:3,9,41 의 설명을 보라. 이 구절들은 1:13-15 에 기초한다.

개역개정 51:49-51

<sup>49</sup>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없드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없드리지리라  
<sup>50</sup>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sup>51</sup>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51:49-51 이 시는 주전 538 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에 돌아온 포로인 남은 자(5:10-13의 특별주제를 보라)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52-53 절을 49-51 절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51:49 바벨론이 언약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야웨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라(즉, 그들이 성전에 대하여 한 일, 참조, 51 절; 50:28c; 애 1:10; 2:6-7). 야웨께서 바벨론을 보내신 것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음은 아이러니이다. 18:8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구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절이 47 절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일이 그들에게 미치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을 죽인 일” 때문이 아니라 민족들이 죽임을 당한 모든 종류의 일 때문이다.

51:50 야웨께서 예루살렘/성전을 생각하며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다.

1. 걸어가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2. 멈추지 말고 - BDB 763, KB 840, 칼 미완료형의 부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 BDB 269, KB 269, 칼 명령
4.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사로 잡아간 사람들은(즉, 주전 605, 597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일어난 잔악한 행위를 들었다(참조, 51 절). 이제 그들에게 야웨를 기억하라고 격려하신다!

포로로 잡혀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세스바살, 스룹바벨/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

개역개정 51:52-53

<sup>52</sup>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up>53</sup>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1:53 이 곳에서 사용한 지형적으로 높은 장소에 대한 묘사는 에돔에 대하여 사용한 것과 다르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골짜기와 평야지대를 차지하였다. 이 단락에 나오는



묘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탑인 지구랏에서 섬긴 하늘의 신들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나타낸다(이 탑들은 창 11 장의 “바벨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 51:54-58**

<sup>54</sup>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sup>55</sup>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sup>56</sup>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sup>57</sup>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sup>58</sup>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51:54-58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시로서, 또 하나의 예언이다.

51:54 54 절에는 동사가 없고 단지 명사 뿐이다.

1. 들어라 - BDB 876
2. 부르짖음 - BDB 277
3. 큰 파멸 - 형용사, BDB 152 및 명사, BDB 991

51:56 “보복의 하나님” 이것은 야웨께서 인간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본문으로서, 이 주제가 자주 반복되어 나온다(참조, 51:6; 사 35:4; 59:18[2 회]; 66:6; 애 3:64). 이 진리가 나오는 모든 성경구절에 대한 목록을 17:10 에서 보라.

▣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것은 강조적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 구조이다. 이것은 같은 어근(BDB 1022, KB 1532)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다.

51:58 “성벽은 훼파되겠고” 56 절이 강조적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 구조이었듯이, 이 구문도 그러하다(즉,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다).

예언서와 묵시문학은 과장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가위*를 보라). 이 사실은 이 장르의 문장을 오늘날의 서구식 문자주의를 사용하여 접근하여서는 안됨을 나타낸다. 사실, 고레스는 바벨론 시의 성벽을 훼파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고 두터운 2 중벽으로 된 바벨론은 주전 크세르크세스 I 세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개역개정 51:59-64

<sup>59</sup>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사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sup>60</sup>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다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sup>61</sup>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sup>62</sup>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 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sup>63</sup>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sup>64</sup>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꾀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1:59-64 이것은 예레미야가 스라야(아마 바룩의 형제임, 참조, 32:12)의 손에 위탁하여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자들(즉, 주전 605, 597 년)에게 보낸 메시지의 결론적 부분으로서 산문으로 된 단락이다. 그의 방문은 주전 594/3 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시드기야는 주전 597 년에 통치를 시작하였다. 분열왕국의 왕들에 대한 도표를 온라인의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보라). 이것은 이 방문에 대하여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본문이다. 이 방문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고, 또 자신과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와의 동맹/반역을 부인하기 위한 제스처로 여겨진다.

51:63 이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유에서 행하여졌다(혹은 두 가지 이유 모두).

1.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함
2. 이 메시지를 인하여 바벨론 통치자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한 방법(즉, 25:26; 51:1,41 의 암호들)

사람들은 50-51 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 두루마리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해 한다. 예레미야의 생애의 여러 기간에 속하는 시들이 이 두 장에 함께 수록되어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과 대조를 이루는 구두전달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주목하라. 고대 근동은 구두 문화권 사회였다(대부분의 경우).



MT, NASB, NKJV, NRSV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TEV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나니라”  
 REB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한 말을 모은 것이니라”  
 LXX, JPSOA -생략됨-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예레미야의 글과 52 장(예루살렘의 멸망, 참조, 왕하 24:28-25:30)을 구분짓기 위한 편집자의 설명이라고 말한다. “영감”에 대한 믿음의 전제는 구약의 편집과 편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23:21-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레미야 5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괄호 안은 시로 된 부분을 나타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루살렘의 멸망 52:1-11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함 52:1-7  52:8-11 성전과 성이 약탈당하고 불탐	역사적 부록 52:1-11	예루살렘의 멸망 52:1-3a 52:3b-11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야긴이 사면받음 52:1-3a 52:3b-11
52:12-16	52:12-16	52:12-16	52:12-16	52:12-16 52:15-16
52:17-23	52:17-23	52:17-23	52:17-23	52:17-23
52:24-27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감 52:24-27	52:24-27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 감 52:24-27a 52:27b-30	52:24-27
52:28-30	52:28-30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다	52:28-30		52:28-30
52:31-34	52:31-34	52:31-34	52:31-34	52:31-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역사적 부록을 다룬 장에서 세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말한다.

1. 예루살렘 시의 멸망, 1-11 절(참조, 39:1-10)
2. 성과 성전의 파괴, 12-23 절
3. 유다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잡혀간 일에 대한 요약적 진술, 23-24 절

나. 이 장은 왕하 24:18-25:30 에서 제시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같은 기록을 다룬 이 두 가지 기록을 비교하여 볼 때, 오늘날의 독자들은 서기관들이 가진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램 39 장에서 다룬다. 그러나 이 장의 기록은 열왕기하에 있는 기록과 매우 비슷하다. 이러한 점은 이 기록을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편집자가 추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NASB 연구성경(1143 쪽)은 바룩이 이 장을 기록하였으며, 열왕기서와 이 장의 저자가 같은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예레미야 전한 모든 말씀은 일어났다. 그는 참 선지자였다(참조, 신 13 장, 18 장).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2:1-11

<sup>1</sup>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sup>2</sup>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sup>3</sup>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sup>4</sup>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sup>5</sup>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 <sup>6</sup>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sup>7</sup>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sup>8</sup>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sup>9</sup>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sup>10</sup>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sup>11</sup>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낫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52:1-3 이 내용은 왕하 24:18-20 및 대하 36:11-36 에서도 나온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586 년에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야킨을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킨은 3 개월만 통치한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참조, 왕하 24:8-17). 그 때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삼촌인 맛타냐를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그의 삼촌에게는 “시드기야”라는 왕명을 주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아들들(즉, 바로노고가 사로잡아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참조, 대상 3:15) 가운데 가장 어린 아들이었다. 예레미야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듯이, 그는 영적으로 나약하였고 또 쉽게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었다.

52:1 “하무달” 이 이름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BDB 327, KB 326). 그녀는 요시야 왕의 아내였고 다음 두 사람의 어머니였다

1. 여호아하스 - 왕하 23:31
2. 시드기야 - 왕하 24:18; 이 본문

52: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레미야는 구약의 어떤 저자보다도 “악”(BDB 948)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 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 항목이었다. 모세는 언약백성에게 선택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즉, 선 또는 악, 순종 또는 불순종, 번영 또는 심판, 참조, 신 30:15). “선한 것”을 택하겠다고 그들이 말하였지만(참조, 수 24:16-18),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그렇게 하지 않았다.

1. 야웨를 찾지 않았다 - 왕하 11:6; 대하 12:14
2.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 신 31:29
3. 이교도의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다 - 신 4:25; 삿 2:11; 3:7,12; 4:1; 6:1; 10:6; 13:1; 왕상 14:22; 15:26,34; 16:19,25,30; 22:52; 왕하 3:2; 8:18,27; 13:2,11; 14:24; 15:9,18,24,28; 17:2,17; 21:2,16,20; 23:32,37; 24:9,10
4. 모든 종류의 불순종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겼다(참조, 삼상 15:19). 그러나 순종은 용납됨을 가져온다(참조, 대하 19:3)

52:3 야웨는 사랑과 용납의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신 언약적 계시가 거부당하거나 손상받은 경우에는 진노하심으로써 반응하신다.

이 본문에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는 강력한 구로서 나타낸다(참조, 7:15; 왕하 13:23; 17:20; 24:20; 시 51:11).

“하나님의 존전”은 문자적으로 “얼굴과 얼굴”이라는 표현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와 가지는 교제는 “인간이 가진 중요한 필요이다.” 야웨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쫓아내기 원하신다(참조, 사 38:17; 미 7:19)!

▣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야웨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한 그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였다!

52:4 예루살렘이 포위 당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이 성이 함락된 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5-7 절).

52:7 “그 성벽이 파괴되매” 이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공성기계를 사용하여 성문 또는 성의 외벽이 파괴되었음을 시사한다.

공성기계는 대개 “A 자형 구조”를 가졌으며, 여기에 밧줄과 지지하는 큰 통나무로 이루어졌다. 이 기계를 성벽 가까이 설치한 후 반복적으로 성벽을 쳐서 파괴하였다.

▣ “두 성벽 사이” 고대의 여러 성들은 외벽을 가지고 있었다(즉, 여리고). 두 성벽 사이의 공간은 집중적인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게 되는 “죽음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벽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성의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은 길을 가리킨다.

▣ “아라바 길” 이것은 요단 계곡 지구대를 가리킨다. 이 지구대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카바 만까지 포함한다(참조, 삼하 4:7). 이 지역은 주위보다 낮은 곳이었고, 숲과 풀이 우거진 지역이었다. 사해의 남쪽(참조, 신 2:8)은 남쪽/남서쪽에 있는 큰 광야와 연결되는 침강지역이었다.

52:8-11 이 단락은 유다의 왕가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1. 시드기야가 도망갔으나 잡혔다, 8 절
2. 시드기야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고 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심문하였다, 9 절
3.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였다, 10 절
4.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모든 고관(문자적으로, 왕자들)을 죽였다, 10 절
5.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었다, 11 절
6. 느부갓네살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11 절

#### 개역개정 52:12-16

<sup>12</sup>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sup>13</sup>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sup>14</sup>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sup>15</sup>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sup>16</sup>가난한 백성은 남겨 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52:12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과 함락된 날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듯이,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을 파괴하는 일을 감독한 날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한다.

1. 성전을 불사름, 13 절
2. 왕궁을 불사름, 13 절
3.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름, 13 절
4.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음, 14 절
5.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감
6. 사람들을 거의 남기지 않음, 15 절
  - 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 ㄴ. 남아 있던 기술자들을 사로잡아감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 왕하 25:8에서는 “제 10 일”이 아니라 “제 7 일”이라고 말한다. R. K. 헤리슨은 틴데일 구약주석 시리즈(190 쪽)에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과 파괴를 시작한 날이 서로 다른 날이었음을 지적한다. 그의 설명은 랍비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B. 타아닛 29a). NASB 연구성경(1143 쪽)은 두 날(즉, “제 7 일” 또는 “제 10 일”) 가운데 하나는 필사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제시한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재위기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1) 재위한 첫 해의 남은 부분을 1년의 재위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 (2) 즉위한 다음 해부터 재위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은 12 절(1 항)과 19 절(2 항)에서 볼 수 있듯이, 때때로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 개역개정 52:17-23

<sup>17</sup>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sup>18</sup>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손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sup>19</sup>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술들과 촛대들과 손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sup>20</sup>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sup>21</sup>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요 그 둘레는 십이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sup>22</sup>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sup>23</sup>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아흔여섯 개요 그 기둥에 둘러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52:17-23 이것은 바벨론으로 가져 간 물건의 목록이다.

1. 성전의 두 놋기둥
2. 그 받침들과(즉, 놋으로 만든 열 두 소, 20 절) 놋으로 만든 바다(참조, 20-33 절)
3.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계들과 주발들과 손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
4.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술들과 촛대들과 손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

17-18 절은 놋으로 만든 물건들을, 19 절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20-23 절은 두 놋기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참조, 왕상 7:40-42).

개역개정 52:24-27

<sup>24</sup>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sup>25</sup>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칠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육십 명이라 <sup>26</sup>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sup>27</sup>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52:24 그들이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아들들”과 “방백들”이 죽임 당하는 장면을 보게 하였듯이, 이제는 성전의 보화와 장식품이 탈취 당하는 장면을 성전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1. 대제사장 스라야(대상 6:1-15 에 있는 족보를 보라)
2. 부제사장 스바냐(참조, 29:24-32; 37:3)

52:25 다른 사람들도 립나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로 끌려 갔다.

1. 유다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2. 왕의 내시 칠 명
3.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
4. 예루살렘의 평민 육십 명(아마 부유한 지주들이었을 것임)

52:26-27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립나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외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개역개정 52:28-30

<sup>28</sup>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리하니라 제칠년에 유다인이 삼천이십삼 명이요 <sup>29</sup>느부갓네살의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팔백삼십이 명이요 <sup>30</sup>느부갓네살의 제이십삼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칠백사십오 명이니 그 총수가 사천육백 명이더라

52:28-30 이 단락은 포로로 잡혀간 여러 그룹, 그들의 수, 시기를 제시한다. 예루살렘이 주전 605, 597, 586 년에 부분적으로 잡혀갔으나, 582 년에는 완전히 잡혀갔음을 기억하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은 주전 586 년에 일어났다. 이보다 앞서서 주전 605 년과 597 년에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후에는 그다라가 암살당한 후에 일어났다(주전 582 년). 이 기사는 주전 582 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30 절에 나오는 “제 23 년”은 주전 605 년부터 계산할 경우에 582 년에 들어 맞는다. 이 목록에서 제시하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수’는 4,600 명이다.

이 단락이 LXX 에는 빠져 있다. 사람들의 수가 열왕기서의 기록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제시하는 기록은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둘 다 같은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틴데일 구약 시리즈, 190 쪽). 아마 렘 52 장은 성인 남자의 수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 52:31-34**

<sup>31</sup>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에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sup>32</sup>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sup>33</sup>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떡게 하였으며 <sup>34</sup>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52:31-34** 이 본문은 여호야긴 왕에게 나중에 호의를 베푸는 일을 묘사한다. 그는 3 개월간 통치한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그는 요시야의 합법적 왕위 계승자로 간주되었다).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왕은 에빌므로닥(또는 아멜 마르둑)으로서 주전 562-560 년에 통치하였다(참조, 왕하 25:27-30). 사람들은 이 마지막 문맥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1. 이후의 일에 대한 역사적 설명
2. 포로에서 풀려남에 대한 미래적 소망의 징조
3. 야웨께서 여전히 유다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
4. 예레미야의 예언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함



# 부록 I

## 히브리 시 서론

### I. 서론

- 가. 이 문학 장르는 구약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장르는 히브리 정경 가운데 특히 “예언서”(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에 시가 들어 있다)와 “성문서”에서 자주 나온다.
- 나. 히브리 시는 영어의 시와 매우 다르다. 영어의 시는 주로 소리에 기초한 시인 헬라어와 라틴어의 시에서 발전되었다. 히브리 시는 가나안어로 된 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근동의 시에는 강세가 있는 행이나 리듬이 없다(하지만 운율에 강음이 있다).
- 다. 이스라엘 북쪽의 우가릿(라스 샴라)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학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들은 주전 15세기에 속하며 성경에 나오는 시와 매우 깊은 문학적 관계를 가진다.

### II. 시의 일반적 특징

- 가.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다.
- 나. 히브리 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진리, 느낌, 경험을 나타낸다.
- 다. 히브리 시는 구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록을 통해 전해졌다. 히브리 시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균형을 이룬 행(평행법)
  - 2. 단어유희
  - 3. 소리유희

### III. 구조 (R. K. 해리슨 구약개론, 965-975 쪽)

- 가. 로버트 로우쓰 주교는 *히브리인의 거룩한 시에 대한 강의*(1753)를 통해 성경에 있는 시가 사상적 균형을 이루는 행으로 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히브리 시의 행을 반영하는 구조로 인쇄되고 있다.
  - 1. 동의어적 -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행이지만 같은 사상을 나타낸다:
    - ㄱ. 시 3:1; 49:1; 83:14; 103:13
    - ㄴ. 잠 19:5; 20:1
    - ㄷ. 사 1:3,10
    - ㄹ. 암 5:24; 8:10
  - 2. 반의적 - 대조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을 말함으로서 반대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행으로 되어 있다:
    - ㄱ. 시 1:6; 90:6
    - ㄴ. 잠 1:29; 10:1,12; 15:1; 19:4

3. 종합적 - 이어 나오는 두 행 혹은 세 행이 첫 행에서 제시한 사상을 발전시킨다 - 시 1:1-2; 19:7-9; 29:1-2
  4. 교차대조적 - 메시지를 나타냄에 있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과 거슬러 올라 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강조점이 가운데에 있다.
- 나. A. 브릭스는 *성경 연구를 위한 일반적 서론*(1899)에서 히브리 시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1. 표상적 - 한 절은 문자적의미를 갖고 다음 절은 은유적 의미를 가짐, 시 42:1; 103:3
  2. 점증법 혹은 계단법 - 절들이 상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리를 드러낸다, 시 19:7-14; 29:1-2; 103:20-22
  3. 내향적 - 대개의 경우 4 절 이상의 일련의 절에서 1 행과 4 행, 2 행과 3 행이 서로 내적 관련이 있는 형태임 - 시 30:8-10a 절
- 다. C. B. 그레이는 *히브리 시의 형태*(1915)에서 균형을 이루는 절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1. 완전한 균형 - 첫 행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음 행에서 반복되거나 균형을 이루는 경우 - 시 83:14 와 사 1:3
  2. 불완전한 균형 - 서로 길이가 다른 행 - 시 59:16; 75:6
- 라. 오늘날 교차대조법으로 불리는 히브리 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것은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독특한 평행법으로서 가운데 행이 강조점을 갖는다.
- 마. 동양의 시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소리 유형
1. 알파벳에 관련된 유희(알파벳 시, 참조,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2. 자음과 관련된 유희(두음법, 참조, 시 6:8; 27:7; 122:6; 사 1:18-26)
  3. 모음과 관련된 유희(모음운, 참조, 창 49:17; 출 14:14; 겔 27:27)
  4.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지만 다른 의를 갖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유희(동음이의어)
  5. 발음을 하였을 때 나는 소리가 그 이름이 되는 단어와 관련된 유희(의성어)
  6. 특별한 시작과 끝(포괄법)
- 바.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 어떤 종류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종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1. 헌신의 노래 - 민 21:17-18
  2. 일하며 부르는 노래 - (삿 9:27 에서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사 16:10; 렘 25:30; 48:33
  3. 민요 - 민 21:27-30; 사 23:16
  4. 술을 마심에 대한 노래 - 부정적 의미, 시 5:11-13; 암 6:4-7; 부정적 의미, 사 22:13
  5. 사랑의 노래 - 애가서, 결혼식 수수께끼 - 삿 14:10-18, 결혼 노래 - 시 45 편
  6. 애가/만가 - (삼하 1:17 과 대하 35:25 에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삼하 3:33; 시 27, 28 편; 렘 9:17-22; 예레미야 애가; 겔 19:1-14; 26:17-18; 나 3:15-19
  7. 전쟁의 노래 - 창 4:23-24; 출 15:1-18, 20; 민 10:35-36; 21:14-15; 수 10:13; 삿 5:1-31; 11:34; 삼상 18:6; 삼하 1:18; 사 47:1-15; 37:21
  8. 지도자의 특별한 축도 혹은 축복 - 창 49 장; 민 6:24-26; 신 32 장; 삼하 23:1-7
  9. 마법의 본문 - 발람, 민 24:3-9
  10. 거룩한 시 - 시편
  11. 알파벳 시 -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12. 저주 - 민 21:22-30

- 13. 조롱의 시 - 사 14:1-22; 47:1-15; 켈 28:1-23
- 14. 전쟁 시의 책(야살) - 민 21:14-15; 수 10:12-13; 삼하 1:18

IX. 히브리 시의 해석을 위한 안내

- 가. 연 혹은 절(이것은 산문에서 문단과 같다)의 중심진리를 파악하라. RSV 는 시를 연의 구조로 나타낸 최초의 현대 번역본이다.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일은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 나. 회화적인 표현을 찾아 내고 이를 산문으로 바꾸어 보라.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어서 독자가 이를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
- 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큰 문맥(종종 책 전체)과 역사적 상황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 라. 시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사사기 4 장과 5 장은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 사사기 4 장은 산문이고 사사기 5 장은 같은 사건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또한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을 비교하라).
- 마. 관련된 평행법이 어떤 종류의 평행법(동의어적, 반의적, 종합적)인지를 규명하라.

## 부록 II

###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서론

#### I. 서론

##### 가. 초기적 진술

1.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입장이 정립되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구약의 예언을 구분하는 잘 정의된 여러 시기가 있다

##### ㄱ. 왕정 이전(사울왕 이전)

1) 선지자로 불려진 개인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변인)

(ㄹ) 미리암 - 출 15:20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ㅂ) 드보라 - 삿 4:4

(ㅅ)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삿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선지자 그룹에 대한 언급 - 신 13:1-5; 18:20-22

3) 선지자 그룹 혹은 길드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 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 ㄴ. 글을 남기지 않은 왕정시기의 선지자(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7:2; 12:25; 삼하 24:11; 대상 29:29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3) 아히야 - 왕상 11:29

4) 예후 - 왕상 16:1,7,12

5)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왕상 18:4, 13; 20:13,22

6) 엘리야 - 왕상 18 장; 왕하 2 장

7) 미가야 - 왕상 22 장

8) 엘리사 - 왕하 2:8,13

##### ㄷ. 글을 남긴 고전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는 물론 국가에 대하여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 나. 성경의 용어

1. *로에* = 보는 자, 삼상 9:9. 이것은 *나비라*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된다. 후자는 “선지자”를 뜻하며 “부르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로에*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이해했고,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2. *호제* = 보는 자, 삼하 24:11. 이것은 근본적으로 *로에*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인 “환상을 보다”에서 나왔다. 주로 분사형이 선지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3. 나비 = 선지자, 아카디아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랍어의 *나바아* = “선언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된다.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하도록 야웨께서 모세의 역할을 설명한 것에서 취할 수 있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자이다(참조, 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는 선지자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된다: 사무엘 - 로애;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쉬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뜻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대략 76 회 사용된다.
6. 영어의 “선지자”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것은 (1) *프로* = “앞” 또는 “위해서” (2) *헤미* = “말하다”에서 왔다.

##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라는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광범위한 어원적 영역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룻기는 제외)까지의 역사적 책들을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 모두 선지자로 불린다(또한 미리암도, 출 15:20). 따라서 영어의 뜻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은 조심을 요한다!
- 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만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예언주의의 합법적 정의이다”(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언약의 증재자로서 백성들의 현재 삶을 개혁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사전* 제 13 권 1152 쪽).

##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였다. 이것으로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심을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종종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변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신 13:1-3; 18:20-22).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종종 선지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혹은 신학적 위기를 취하여 그것을 종말론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목적론적) 관점은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적 약속을 주셨다는 독특한 생각을 가져왔다.
-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서 선지자 직은 대제사장 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 우림과 둠뭇은 말로 표현된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 직은 말라기(혹은 역대기 저작)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400년 후에 침례(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직은 없었다.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구약과 연결시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 32, 37; 15:32; 고전 12:10, 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의 계시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그것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었다.

- 라. 예언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그들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 가운데 . . . “2% 미만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5% 미만의 내용이 새언약의 시대를 특별하게 설명한다. 1% 미만의 내용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다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피 &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백성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하박국서 처럼 예외가 있다.
- 바. 선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 책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있지 않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을 따르지는 않는다. 종종 분명한 역사적 상황이나 시간의 지침 혹은 신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말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1) 어떤 책을 한 가지 배경에서 이해하여 읽는 것이 어렵고 (2)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3) 각 예언의 중심진리나 혹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 IV. 예언의 특성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때로 황홀경적 형태에 의해 구별되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급하게 개인 선지자들의 시기로 이어졌다. 그들은(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모두) 왕과 관계하여 일했고, 왕궁에서 살았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으로 일했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 철저히 관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아모스, 미가). 남자와 여자 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미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래는 개인이나 국민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종종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론적 계획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갖는 독특한 내용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예언과 언약적 충성은 두 가지 초점을 이룬다(참조, 피와 스트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동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적 자료는 구두로 전해졌다. 이것은 후에 주제나 연대 혹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근동 문화의 다른 양식을 따라서 합쳐졌다. 구두로 전해진 것이기에 글로 쓰여진 산문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 점은 예언서를 쪽 읽는 것과,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없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마.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말씀을 전했다
  1. 재판 장면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정에서 서게 하신다; 종종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의 아내(이스라엘)를 그녀의 충성되지 않음을 인해(호세아 4 장; 미가 6 장) 거절하시는 이혼소송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의 만가 - 이런 양식의 메시지에 사용되는 특별한 운율과 특징적인 단어인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는 이것을 따로 구별짓는다(이사야 5 장; 하박국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인 면이 강조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선언된다(신명기 27-29 장).

V.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의 자격요건

- 가. 신명기 13:1-5(예언/기적이 순전한 유일신 신앙과 일치함)
- 나. 신명기 18:9-22(거짓 선지자/참 선지자)
- 다. 남녀 모두 선지자 혹은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받았다
  1. 미리암 - 출애굽기 15 장
  2. 드보라 - 사사기 4:4-6
  3. 홀다 - 열왕기하 22:14-20; 역대하 34:22-28
- 라. 주위의 문화에서는 점을 통해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1. 신학적 시험 - 야웨의 이름을 사용
  2. 역사적 시험 - 예언의 정확한 성취

VI.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각 예언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문맥을 살펴서 원래의 선지자(편집자)가 의도했던 바를 확인하라.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어떤 모습으로든 깨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나. 예언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라 대지를 잡으라. 이것이 주위의 예언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예언서 전체(문학적 단위와 문단에 따른 구분에 의해)의 대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라.
- 다. 해당 본문이 상징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라; 상징적 용법인 경우에는 그것을 산문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라.
- 라. 상징적 행동은 역사적 상황과 병행귀절에 비추어 분석하라.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지 서구나 현대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예언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라
  1. 그것이 전적으로 저자의 시대에만 해당하는가?
  2.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3. 그 내용이 아직도 미래적인가?
  4. 당시에 성취되었으면서도 아직 미래적 성취에 속하는가?
  5. 현대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당신에게 답하게 하라.

바. 특별한 주의점

1. 예언의 내용이 어떤 반응의 조건에 의존적인가?
2. 누구에게 이 예언이 말해지는지(또한 왜) 분명한가?
3. 성경적으로 혹은/또한 역사적으로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서 분명하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귀절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 혹은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그들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VII. 유용한 도서

가. 칼 E. 아덴딩과 W. 워드 바스큐의 *성경 예언 안내*

나. 고돈 피와 더글라스 스튜아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 에드워드 J.영의 *나의 종 선지자들*

라.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 낮: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언어를 다시 생각함*

마.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스 Jr.의 *구약의 암호를 해석하기*



## 부록 III 간략한 역사적 개관

메소포타미아 열강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개관(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 462 쪽 이하에 있는 자료에 주로 기초함):

### I. 앗시리아 제국(창 10:11)

가. 앗시리아의 종교와 문화는 수메리아/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나. 지배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연대에 대한 개략적이고 잠정적인 제시:

1. 1354-1318 앗수르-우발랏 I 세:
  - ㄱ. 히타이트 도시인 칼케미쉬를 정복함
  - ㄴ. 히타이트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앗시리아가 발전하게 함
2. 1297-1266 아닷 나라리 I 세(강력한 왕)
3. 1265-1235 살만에셀 I 세(강력한 왕)
4. 1234-1197 투쿨티-니누르타 I 세
  - 바벨론 제국이 처음으로 남쪽을 정복함
5. 1118-1078 티글랏-빌레셀 I 세
  - 앗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을 이룸
6. 1012-972 앗수르-라비 II 세
7. 972-967 앗수르-레위-이슈이 II 세
8. 966-934 티글랏-빌레셀 II 세
9. 934-912 아수르-단 II 세
10. 912-890 아닷-나라리 II 세
11. 890-884 투쿨티-니누르타 II 세
12. 883-859 앗수르-나실-아팔 II 세
13. 859-824 살만에셀 III 세
  - 853 년에 카르카르 전투
14. 824-811 샬마쉬-아닷 V 세
15. 811-783 아닷-나라리 III 세
16. 781-772 살만에셀 IV 세
17. 772-754 앗수르-단 III 세
18. 754-745 앗수르-나라리 V 세
19. 745-727 티글랏-빌레셀 III 세:
  - ㄱ. 바벨론 왕위의 이름인 불로 불림, 왕하 15:19
  - ㄴ. 매우 강력한 왕
  - ㄷ. 피정복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함
  - ㄹ. 주전 735 년에 “시리아-에브라임 연맹”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용 가능한 군사적 역량을 하나로 합쳐 앗수르의 커지는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연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티글랏-빌레셀 III 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참조, 왕하 16 장; 사 7-12 장).
  - ㅁ. 주전 732 년에 티글랏-빌레셀 III 세가 침략하여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의 왕좌에는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서 호세아(주전 732-722 년)를

세웠다. 북왕국에 살던 수 천의 유대인들이 메테로 추방을 당했다(참조, 왕하 15-16 장).

- 20. 727-722 살만에셀 V 세
  - 호세아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앗수르의 침략을 받았다(참조, 왕하 17 장)
- 21. 722-705 사르곤 II 세:
  - ㄱ. 살만에셀 V 세가 시작한 3 년 간의 포위 후에 사르곤 II 세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정복했다. 27,000 명 이상이 메디아로 추방되었다.
  - ㄴ. 히타이트 제국도 정복되었다.
  - ㄷ. 714-711년에는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집트가 동맹을 이루어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동맹은 “아스돗 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유다의 히스기야도 관계했다. 앗시리아가 침략하여 여러 팔레스타인 도시를 멸망시켰다.
- 22. 705-681 산헤립:
  - ㄱ. 705년에는 사르곤 II 세 사후에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집트가 동맹을 이루어 반란을 일으켰다. 히스기야는 이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산헤립이 701년에 공격해 왔다.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졌다(참조, 사 36-39 장과 왕하 18-19 장).
  - ㄴ. 산헤립은 또한 엘람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다.
- 23. 681-669 에살핫돈:
  - ㄱ. 이집트를 공격하여 정복한 최초의 앗시리아 왕
  - ㄴ. 바벨론에 강한 동정을 가져 이것을 수도로 재건함
- 24. 669-633 - 앗술바니팔:
  - ㄱ. 에스라 4:10 에서 오스납팔로 불린다
  - ㄴ. 그의 형제인 샤마스-습-우킨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짐(후에 총독으로 물러남) 이것은 앗시리아와 바벨론 간에 여러 해에 걸친 평화를 가져 왔지만, 기저에 흐르는 독립사상이 652년에 그의 형제(총독으로 물러났던)에 의해 일어났다.
  - ㄷ. 테베가 주전 663년에 멸망했다
  - ㄹ. 엘람을 주전 653년과 645년에 무찔렀다
- 25. 633-629 앗술-에틸-일라니
- 26. 629-612 신-살-이스쿤
- 27. 612-609 앗술-우발릿 II 세:
  - 추방된 중에 하란에서 왕위에 올랐다. 주전 614년에 앗수르가 멸망하고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한 후에 왕이 되었다

## II. 신바벨론 제국:

- 가. 703-? 프로닥-발라단
  - 앗시리아의 지배에 대항하여 여러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함
- 나. 652 샤마쉬-습-우킨:
  - 1. 에살핫돈의 아들과 앗술바니팔의 형제
  - 2. 그가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됨
- 다. 626-605 나보폴라살:
  - 1. 신바벨론 제국의 처음 왕
  - 2. 그는 남쪽에서 앗시리아를 공격했고 메테의 씨야싸레스는 북동쪽에서 공격했다
  - 3. 앗시리아의 옛 수도인 앗슈르는 614년에, 강력했던 새 수도인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했다
  - 4. 남은 앗시리아 군대는 하란으로 퇴각했고 그들의 왕을 세우기까지 했다.

5.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608 년에 바로 느고 II 세(참조, 왕하 23:29)는 남은 앗수르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북쪽으로 출전하였다. 유다의 경건한 왕 요시아(참조, 왕하 23 장)는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거쳐 전진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므깃도에서 약간의 접전이 있었다. 요시아는 부상을 입어 죽었다(왕하 23:29-30).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졌다. 바로 느고 II 세가 앗시리아 군대가 망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때에 하란에 도착했다. 그는 왕세자인 느부갓네살 II 세가 지휘하는 바벨론 군대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메쉬에서 주전 605 년에 싸워 크게 패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느고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성을 약탈했다. 그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는지 3 개월만에 그를 폐위시켰다. 그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참조, 왕하 23:31-35).
  6. 느부갓네살 II 세는 팔레스타인을 통해 이집트 군대를 남쪽으로 쫓아갔으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에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갔다. 그는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위에 그대로 두었지만 수 천명의 지도자급 시민들과 왕족의 다수를 사로잡아갔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때 강제이송된 사람 가운데 있었다.
- 라. 605-562 느부갓네살 II 세:
1. 주전 597-538 년에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지배했다.
  2. 여호야김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왕하 24 장), 주전 597 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강제이송이 발생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II 세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오직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던 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에스겔을 포함한 만 명의 시민들은 그발 강(운하)가 옆 바벨론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재정착되었다.
  3. 주전 586 년 이집트에 계속 의존하는 관계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고(왕하 25 장) 집단 이송이 발생했다. 여호야킨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었고 그달리야가 통치자로 임명되었다.
  4. 그달리야는 변절한 유대인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군대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예레미야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침략했고(605, 596, 586, 582) 그의 눈에 보이는 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을 사로잡아갔다.
- 마. 562-560 에빌-므로닥은 아멜-마르둑으로 알려져있다  
- 그는 여호야김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지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참조, 왕하 25:27-30; 렘 52:31).
- 바. 560-556 네리글리살  
-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의 장군이었다
- 사. 556 라바스키-마르둑  
- 그는 네리글리살의 아들로서 오직 9 개월 후에 암살당했다
- 아. 556-539 나보니두스:
1. 나보니두스는 왕의 가문이 아니었기에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다
  2. 그는 많은 시간을 달신인 “썬”의 신전을 테마에 세우는데 썼다. 그는 이 여신의 대체사장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우두머리인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원수가 되게 했다.
  3.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했다.
  4. 그는 테마로 옮겼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나라의 일을 보도록 했다(참조, 단 5 장).

- 자. ? - 539 벨사살 (협동 통치)
  - 바벨론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방향을 바꾸고 저항없이 그 도시에 들어간 구티움의 고브리아스 지휘 아래에 있던 페르시아 군대에게 매우 빠르게 함락되었다. 도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해방자요 마르둑 예배의 회복자로 보았다. 고레스 II 세는 고브리아스를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웠다. 고레스 II 세 혹은 고브리아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단 5:31 과 6:1 에 나오는 “메데 사람 다리오”이다. 다리오는 “왕족”을 뜻한다.

III. 메데-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II 세의 흥왕에 대한 역사적 개관(사 44:28; 45:1-7):

- 가. 625-585 키악사레스는 바벨론이 앗시리아를 쳐부수는 것을 도왔던 메데의 왕이었다
- 나. 585-550 아스티아게스는 메데의 왕이었다. 고레스는 만다네가 낳은 그의 손자이었다
- 다. 550-530 안삼의 고레스 II 세는 조공을 바치는 왕이었지만 반란을 일으켰다
  - 1.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는 고레스를 지지했다
  - 2. 고레스 II 세는 아스티아게스를 폐위시켰다.
  - 3. 나보니두스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 ㄱ. 이집트
    - ㄴ. 리디아의 왕인 크로에수스(소아시아)
- 라. 547 고레스 II 세는 사디스(리디아의 수도)로 진군했다
- 마. 539년 11월 2일 구티움의 고브리아스는 고레스의 군대와 함께 저항없이 바벨론을 점령했다. 고브리아스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워졌다.
- 바. 539년 10월 “대”고레스 II 세는 해방자로서 자신이 직접 입성했다. 민족들에 대한 그의 관용적인 정책은 민족들에게 대해 오랫동안 행해진 추방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 538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받았다
- 아. 530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II 세가 뒤를 이었다
- 자. 530-522 캄비세스 II 세의 통치
  - 주전 525년 이집트 제국을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합병시켰다
  - 그는 자살했을 것이다
- 카. 522-486 다리오 I 세가 통치자가 되었다
  - ㄱ. 그는 왕족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다.
  - ㄴ. 그는 고레스의 지방총독 제도를 사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조직했다(참조, 스 1-6 장; 학개서; 스가랴서)
  - ㄷ. 그는 리디아처럼 화폐를 주조했다
- 타.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의 통치:
  - ㄱ.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했다
  - ㄴ. 그리스를 침략하여 페르시아의 꿈을 이루려고 의도했지만 주전 480년 쉰모폴리 전쟁과 주전 479년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했다
  - ㄷ.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불린 에스더의 남편은 주전 465년에 암살되었다
- 파.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가 통치함(참조, 스 7-10 장;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 ㄱ. 그리스 사람들은 펠로파니아 내전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영토를 확장했다
  - ㄴ. 그리스는 나누어진다(아테네 사람 - 펠로파니아 사람)
  - ㄷ. 그리스 내전은 약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 ㄹ. 이 기간 동안 유대 공동체는 강해진다
- 하. 423-404 다리오 II 세가 통치했다
- 가. 403-35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가 통치했다
- 냐. 358-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가 통치했다
- 다. 338-336 아르세스가 통치했다
- 라. 336-331 다리오 III 세가 통치했다

IV. 이집트 역사의 개관

가. 힉소스(양치기 왕 - 셈족 통치자)-주전 1720/10-1550 년

나. 제 18 왕조(주전 1570-1310 년):

1. 1570-1546 아모시스
2. 1546-1525 아메노피스 I 세(아멘호텝 I 세)
3. 1525-1494 툫모세 I 세
4. ? 툫모세 II 세
5. ? 하트솨수트
6. 1490-1435 툫모세 III 세
7. 1435-1414 아메노피스 II 세
8. 1414-1406 툫모세 IV 세
9. 1406-1370 아메노피스 III 세
10. 1370-1353 아메노피스 IV 세(아케나텐)
11. ? 스멘크하레
12. ? 투탄크하문
13. ? 아이
14. 1340-1310 하렘합

다. 제 19 왕조(주전 1310-1200 년):

1. ? 라메세스 I 세
2. 1309-1290 세티 I 세
3. 1290-1224 라메세스 II 세(람세스 II 세)
4. 1224-1216 - 마르네탘타(메렌프타)
5. ? 아멘메세스
6. ? 세티 II 세
7. ? 싯타
8. ? 테오스렛

라. 제 20 왕조(주전 1180-1065 년)

1. 1175-1144 라메세스 III 세
2. 1144-1065 라메세스 IV-XI 세

마. 제 21 왕조(주전 1065-935 년):

1. ? 스멘데스
2. ? 헤리호르

바. 제 22 왕조(주전 923-725 년 - 리비아인):

1. 935-914 시삭(쇼센크 I 세 또는 쉐송 I 세)
2. 914-874 오소르콘 I 세
3. ? 오소르콘 II 세
4. ? 쇼스넵 II 세

사. 제 23 왕조(주전 759-715 년 - 리비아인)

아. 제 24 왕조(주전 725-709 년)

자. 제 25 왕조(주전 716/15-663 년 - 이디오피아인/누비아인):

1. 710/09-696-95 샤마코(샤마쿠)
2. 696/95-685/84 쉐테코(셰비트쿠)
3. 690/689, 685/84-664 - 티르하카(타하르카)
4. ? 탄타문

차. 제 26 왕조(주전 663-525 년 - 사이틱인):

1. 663-609 사메티쿠스 I 세(삼틱)
2. 609-593 네코 II 세(네쵸)

3. 593-588 사메티쿠스 II 세(삼틱)
  4. 588-569 아프리에스(호프라)
  5. 569-525 아마시스
  6. ? 사메티쿠스 III 세(삼틱)
- 카. 제 27 왕조(주전 525-401 년 - 페르시아인):
1. 530-522 캄비세스 II 세(고레스 II 세의 아들)
  2. 522-486 다리오 I 세
  3.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
  4.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
  5. 423-404 다리오 II 세

\*상이한 연대를 보기 위해서는 존더반 출판사의 *화보 성경 백과사전* 제 2 권 231 쪽을 보라.

## V. 그리스 역사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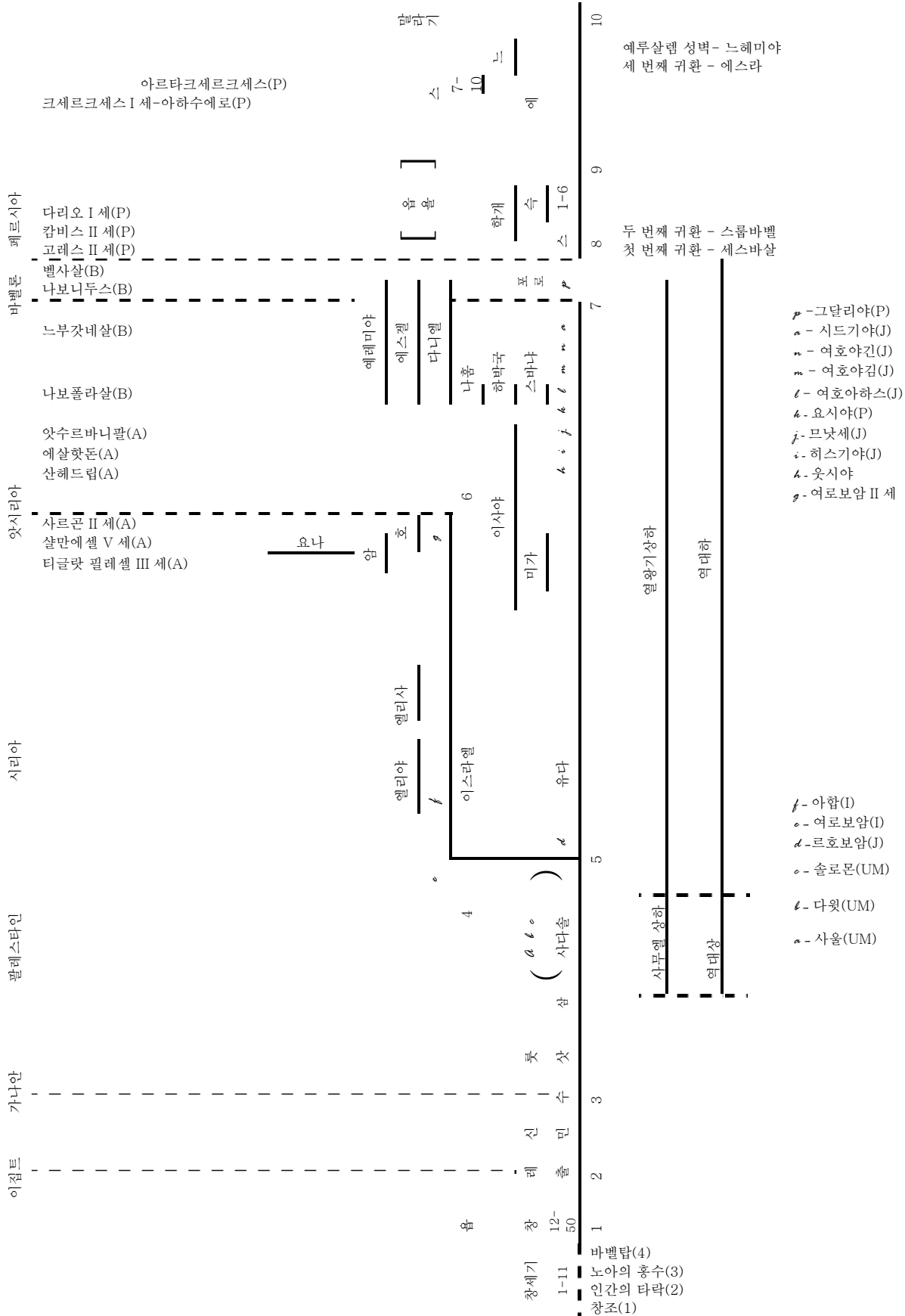
- 가. 359-336 마케도니아의 필립 II 세:
1. 그리스를 세웠다
  2. 주전 336 년에 암살당했다
- 나. 336-323 알렉산더 “대제” II 세 (필립의 아들):
1.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III 세를 패주시켰다
  2. 주전 323 년 32/33 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었다
  3.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그가 죽자 그의 제국을 나누었다:
    - ㄱ. 카센더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 ㄴ. 리시미쿠스 - 쓰라세
    - ㄷ. 셀류쿠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 ㄹ. 톨레미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 ㅁ. 안티고누스 - 소아시아(그는 오래 가지 않았다)
- 다. 셀류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투쟁한다:
1. 시리아(셀류시드 왕조의 통치자):
    - ㄱ. 312-280 셀류쿠스 I 세
    - ㄴ. 280-261 안티오쿠스 I 세 소터
    - ㄷ. 261-246 안티오쿠스 II 세 데우스
    - ㄹ. 246-226 셀류쿠스 II 세 칼리니쿠스
    - ㅁ. 226-223 셀류쿠스 III 세 케라우누스
    - ㅂ. 223-187 안티오쿠스 대왕 III 세
    - ㅅ. 187-175 셀류쿠스 IV 세 필로파토
    - ㅇ. 175-163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네스
    - ㅈ. 163-162 안티오쿠스 V 세
    - ㅊ. 162-150 데메트리우스 I 세
  2. 이집트인(톨레미 왕조의 통치자):
    - ㄱ. 327-285 톨레미 I 세 소터
    - ㄴ. 285-246 톨레미 II 세 필라델푸스
    - ㄷ. 246-221 톨레미 III 세 에베게테스
    - ㄹ. 221-203 톨레미 IV 세 필로파토
    - ㅁ. 203-181 톨레미 V 세 에피파네스
    - ㅂ. 181-146 톨레미 VI 세 필로메토
  3. 간단한 개요
    - ㄱ. 301 - 팔레스타인은 톨레미 통치 하에 181 년간 있었다.

- ㄴ. 175-163 - 셀류시드 왕조의 여덟 번째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네스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기 원했다:
- (1) 경기장을 지었다
  - (2)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인 제우스 올림푸스의 제단을 만들었다

## 부록 IV 도표

구약의 연대표  
(다음 페이지에 있음)





##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사건들(창 1-11 장)

1. 창조(창 1-2 장)
2. 인간의 타락(창 3 장)
3. 노아 시대의 홍수(창 6-9 장)
4. 바벨탑(창 10-11 장)

##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건들

- |                           |                     |
|---------------------------|---------------------|
| 1. 족장 시기(창 12-50 장과 율기)   | 주전 2000 년           |
| 2. 애굽에서 나옴(출애굽기)          | 주전 1445 년 또는 1290 년 |
| 3. 가나안 정복(여호수아서)          | 주전 1440 년 또는 1250 년 |
| 4. 통일왕국(사울, 다윗, 솔로몬)      | 주전 1000 년           |
| 5. 분열왕국(르호보암-여로보암 I 세)    | 주전 922 년            |
| 6. 앗시리아에게 사마리아(이스라엘)가 멸망함 | 주전 722 년            |
| 7.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유다)이 멸망함    | 주전 586 년            |
| 8. 돌아가라는 고레스(페르시아)의 칙령    | 주전 538 년            |
| 9. 성전 재건                  | 주전 516 년            |
| 10. 구약시대의 마침(말라기서)        | 주전 430 년            |

## 왕의 계보

- |  |  |
|--|--|
| <p>가. 통일왕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울(a)</li> <li>2. 다윗(b)</li> <li>3. 솔로몬(c)</li> </ol> <p>나. 이스라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로보암 I 세(e)</li> <li>2. 아합(f)</li> <li>3. 여로보암 II 세(g)</li> </ol> <p>다. 유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르호보암(d)</li> <li>2. 웃시야(h)</li> <li>3. 히스기야(i)</li> <li>4. 므낫세(j)</li> <li>5. 요시야(k)</li> <li>6. 여호아하스(l)</li> <li>7. 여호야김(m)</li> <li>8. 여호야긴(n)</li> <li>9. 시드기야(o)</li> <li>10. 그달리야(p)</li> </ol> | <p>라. 앗시리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티글랏 필레셀 III 세(745-727)</li> <li>2. 살만에살 V 세(727-722)</li> <li>3. 사르곤 II 세(722-705)</li> <li>4. 산헤립(705-681)</li> <li>5. 에살핫돈(681-669)</li> <li>6. 앗수르바니팔(669-663)</li> </ol> <p>마. 바벨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보폴라살(626-605)</li> <li>2. 느부갓네살(605-562)</li> <li>3. 나보니두스(556-539)</li> <li>4. 벨사살</li> </ol> <p>바. 페르시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레스 II 세(550-530)</li> <li>2. 캄비스 II 세 (530-522)</li> <li>3. 다리오 I 세(522-486)</li> <li>4. 크세르크세스 I 세(486-465)</li> <li>5. 아르타크세르크세스(465-424)</li> </ol> |
|--|--|

##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조의 왕들과 사건들

- 612(주전)            니느웨가 신바벨론의 군대(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함
- 608                 바로 느고 II 세가 신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저지시키기 위해 갈게미스로 진격함  
 유다왕 요시아가 그를 제지하려고 함  
 요시아의 죽음으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름  
 바로 느고 II 세의 압력으로 3 개월 만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아김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됨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이집트의 지배하에 들어감  
 요시아의 개혁이 끝나버림
- 605                 나보폴라살이 갈게미스로 군대를 보내 앗시리아의 남은 군대와 이집트를  
 상대로 싸움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함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나보폴라살)의 부고를 듣고 왕관을 받기 위해  
 바벨론으로 귀국함  
 돌아가는 길에 그가 다니엘과 다른 여러 왕족을 사로 잡아감
- 605-538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함, 597 년; 10,000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감
- 586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수의 사람이 추방당함
- 582                 유대인 케릴라 전사들이 그달랴를 죽였기에 또 다시 대규모의 추방이 행해짐

###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들

- 562-560            에월 프로탁이 여호아김(참된 메시아 계보에 속함)을 감금에서 석방함
- 560-556            네리글리살
- 556                 라바스키 마르дук이 다스림
- 556-539            나보니두스:  
 달신인 신을 위한 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냄. 이러한 일은 마르дук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적대감을 초래함  
 생애의 나머지 기간은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함  
 그는 데마로 옮겨 갔고 국가의 일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김  
 벨사살:  
 대부분의 시간을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사용함  
 메대는 바벨론에게 커다란 위협이 됨

## 고레스의 지배

- 585-550 아스티아지스가 메대의 왕으로서 다스림(고레스 II 세는 만데인이 낳은 그의 손자였다)  
조공을 바치던 고레스 II 세가 반란을 일으킴  
나보니두스는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다:
1. 이집트
  2. 크레커스, 리디아의 왕
- 547 고레스는 사테(리디아의 수도)로 진격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모두 손에 넣음
- 539 고비야스는 저항없이 바벨론을 손에 넣음(단 5 장;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와 공동으로 다스림; 또한 고비야스는 메데 사람 다리오였을 것임, 단 5:31)
- 539 년 10 월 11 일 나보니두스가 섬기던 달신인 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으로서 고레스가 입성함

## 고레스의 후계자들

- 530 고레스의 아들이 그를 이어 왕이 됨(캄비세스 II 세)
- 530-522 캄비세스의 통치(엘리판틴 파피루스)  
525 년에 이집트를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합병함
- 522-486 다리우스 I 세가 다스림  
그는 고레스가 사용한 총독제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조직함  
그는 리디아와 같은 화폐제도를 확립함
-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에스터)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함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시도했지만 주전 480 년에 테모폴리 전투에서 패함  
크세르크세스 I 세는 465 년에 암살당함
- 480 테모폴리 전투
-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 룡기마누스(에스라 7-10 장,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스가 페로파니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확장해 옴  
전쟁이 20 년간 지속됨  
이 기간 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재건됨
- 423-404 다리우스 II 세  
엘리판틴 성전에서 무교병의 절기를 행하도록 공인함
- 401-35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 358=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 338-336 알세스
- 336-331 다리우스 III 세

## 헬라

- 359-336      마케돈의 필립 II 세가 헬라를 세움  
그는 336 년에 암살당함
- 336-323      알렉산더 대제(필립의 아들)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II 세를 몰아냄  
그는 지중해 동부와 근동지역을 정복한 후에 323 년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음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그의 사후에 제국을 분할함:
1. 카산더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2. 리시미커스 - 트래이스
  3. 셀렉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4. 톨레미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5. 안티고누스 - 소 아시아의 적은 부분
- 셀류시드 왕조 대 톨레미 왕조**
- 301      팔레스타인이 100 년 동안 톨레미의 지배를 받음
- 175-163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체육관을 건축함  
이교도의 제단을 건축함; 제사장들을 학대함
- 168 년 12 월 13 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단 위에서 돼지를 죽임.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멸망의 가증한 일로 여긴다
- 167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킴. 마타디아스가 죽임을 당함.  
유다스가 정권을 잡음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성공적으로 게릴라 전을 수행함
- 165 년 12 월 25 일      성전을 재 봉헌함

## 통치자들

### 바벨론

626-605

605-562

562-560

556

556-539

539-

### 메대

나보폴라살이 죽음(“나부, 태양을 지킨다”)

625-585

시르자레스

느부갓네살 II 세

(“느보, 국경을 지킨다”)

아스티아게스

에월 므로닥 550

고레스 II 세

라마스키 마르둑

나보니두스

벨사살

고비야스

## 메대-페르시아

550-530

고레스 II 세(538 년에 메대-페르시아의 통치를 아케메니아 제국으로 부름)

530-522

캄비세스 II 세(이집트와 키프러스를 합병함)

522

가우마타 혹은 슈도, 스펠디스(6 개월 동안 통치함)

522-486

다리우스 I 세(히스타스페스)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에스터의 남편)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팔레스타인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423-

크세르크세스 II 세

424-404

다리우스 II 세 노터스

404-359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르네몬

359-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노커스

338-336

알서스

336-331

다리우스 III 세 코도만누스

## 헬라

359-336	마세돈의 필립 II 세
336-323	알렉산더 대제
323-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함
	1. 카산더 - 마케도니아
	2. 리시미커스 - 시리아
	3. 셀류커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4. 톨레미 - 이집트
	5. 안티고누스 - 소 아시아(주전 301 년에 죽임을 당함)

톨레미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다가 주전 175-163 년에는 셀류커스에게 지배권이 넘어감

175-163                    안토니커스 IV 에피파네스, 셀류커스 왕조의 8 번째 통치자

\*연대와 이름은 대부분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461-471 쪽에서 취함.

## 분열 왕국의 왕들

유다의 왕들(대상 3:1-16; 마 1:6-11)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르호보암	922-915	933-917	931/30-913	왕상 11:43-12:27; 14:21-31 대하 9:31-12:16	여로보암 1 세	922-901	933-912	931/30-910/09	왕상 11:26-40; 12:12-14:20
아비아 (아비얌)	915-914	916-914	913-911/10	왕상 14:31-15:8 대하 11:20,22					
아사	913-873	913-873	911/10-870/69	왕상 15:8-30; 16:8,10,23,29; 22:41,43,46 렘 41:9	나답  바아사	901-900  900-877	912-911  911-888	910/09-909/08  909/08-886/85	왕상 14:20; 15:25-31  왕상 15:16-16:7; 왕하 9:9 대하 16:1-6 렘 41:9
여호사밧	873-849	873-849	870/69-848	왕상 15:24; 22:1-51 왕하 3:1-12; 8:16-19 대상 3:10 대하 17:1-21:1	엘라	877-876	888-887	886/85-885/84	왕상 16:8-14
(여호람 섭정왕)	----- ---	----- ---	853-848	왕상 22:50 왕하 1:17; 8:16; 12:18	시므리 (군대 장관) 오므리 (군대 장관)	876  876-869	887  887-877	885/84  885/84-874/73	왕상 16:9-20 왕하 9:31  왕상 16:15-28 왕하 8:26 미가 6:16
여호람 (요람)	849-842	849-842	848-841	대하 21:1-20 마 1:8					
아하시야	842	842	----- ----	왕하 8:24-9:29 대하 22:1-9	아합  아하시야	869-850  850-849	876-854  854-853	874/73-853  853-852	왕상 16:29-22:40  왕상 22:40,41, 49,51-53 왕하 18:1-3,19
아달라 (여왕)	842-837	842-836	841-835	왕하 8:26; 11:1-20 대하 22:2-23:21	여호람 (요람)	849-842	853-843	852-841	왕하 1:17; 3:1-27; 8:16-9:29
요아스	837-800	836-797	835-796	왕하 11:2-3; 12:1-21 대하 22:11-12; 24:1-27	예후 (군대 장관)	842-815	842-815	841-814/13	왕상 19:16-17 왕하 9:1-10:36; 15:12 대하 22:7-9 호 1:4



유다의 왕들(대상 3:1-16; 마 1:6-11)[계속]					이스라엘의 왕들(계속)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아마샤	800-783	797-779	796-767	왕하 12:21; 14:1-22 대하 25:1-28					
(웃시아 섭정왕)	----- ---	----- ---	791/90-767	왕하 14:21; 15:1-7	여호아하스	815-801	814-798	814/13-798	왕하 10:35; 13:1-9
웃시아 (아사랴)	783-742	779-740	767-740/39	대하 26:1-23 호 1:1; 암 1:1 슌 14:5	요아스	801-786	798-783	798-782/81	왕하 13:9-13,25 대하 25:17-25 호 1:1; 암 1:1
(요담 섭정왕)	750-742	----- ---	750-740/39	왕하 15:7,32-38	여로보암 2세 (섭정왕)	----- ---	----- ---	793/92-782/81	왕하 13:13; 14:16,23-29 호 1:1
요담	742-735	740-736	740/39-732/31	대상 5:17 대하 26:23-27:9 사 1:1; 7:1 호 1:1; 미 1:1	여로보암 2세	786-746	783-743	782/81-753	암 1:1; 7:9-11
(아하스 섭정왕)	----- ---	----- ---	744/43-732/31	왕하 15:30-16:20 대하 27:9-28:27	스가랴	746-745	743	753-752	왕하 15:8-12
아하스	735-715	736-728	732/31-716/15	사 1:1; 7:1 이하; 14:23; 38:8 호 1:1; 미 1:1	살룸	745	743	752	왕하 15:10,13-15
(히스기야 섭정왕)	----- ---	----- ---	729-716/15	왕하 16:20; 18:1-20,21 대하 28:27-32:33 잠 25:1	므나헴	745-738	743-737	752-742/41	왕하 15:14,16-22
히스기야	715-687	727-699	716/15-687/86	사 1:1; 36:1-39:8 호 1:1 미 1:1 마 1:9-10	브가히야	738-737	737-736	742/41-740/39	왕하 15:23-26
(므낫세 섭정왕)	----- ---	----- ---	696/95-687/86	왕하 20:21-21:18; 23:12,26; 24:2	베가	737-732	736-730	740/39-732/31	왕하 15:27-31; 16:5 대하 28:6; 사 7:1
므낫세	687/86-642	698-643	687/86-642/41	대하 32:33-33:20 렘 15:4 이하; 왕하 21:18-26	호세아	732-724	730-722	732/31-723/22	왕하 17:1-18
아몬	642-640	643-641	642/41-640/39	대하 33:20-25 렘 1:2; 슌 1:1 왕상 13:2-3	앗시리아에 의한 사마리아의 멸망	주전 724년	주전 722년	주전 722년	

유다의 왕들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계속)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해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해리슨	성경 본문
요시아	610-609	640-609	640/39-609	왕하 21:24; 22:1-23:30 대하 33:25-35:27 렘 1:2; 습 1:1 마 1:10-11					
여호아하스	609 (3 달)	609	609	왕하 23:30-34 대하 36:1-4					
여호야김	609-598	609-598	609-597	왕하 23:34-24:6,19 대하 36:4-8 렘 1:3; 22:18-23; 25:1 이하; 26:1 이하; 27:1 이하; 35:1 이하; 36:1 이하 단 1:1-2					
여호야긴	598/97 (3 달)	598	597	왕하 24:6,8-17; 25:27-30 대하 36:8-9 렘 52:31; 겔 1:2					
시드기야	597-586	598-587	597-587	왕하 24:17-25:7 대하 36:10-11 렘 1:3; 21:1-7; 24:8-10; 27:1 이하; 32:4-5; 34:1-22; 37:1-39:7; 52:1-11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주전 586 년	주전 587 년	주전 587 년	예레미야 애가					

연대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 E. R. 틸레의 *히브리 왕들의 신미한 수들을 보라*.

## 부록 5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물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